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공연 2

2-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공연2

2-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Contents

35

010 편집의 방향과 원칙

011 일러두기

014 35·한국예술인복지재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014 1. 의결주문

01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015 제1절 조사 개요

015 1. 직권조사의 취지

015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016 제2절 조사 경과

016 1. 문건 등 자료조사

020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021 제3절 조사 내용

021 1. 기초 사실

022 2.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 경위

038 3. 예술활동증명 심의 위원 선정 배제 경위

054 4. 2015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057 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 선임 과정에서 검열이 있었던 경위

058 제4절 조사 결과

058 1. 진상규명 사실

060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6

064 36·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선정 배제 사건

064 1. 의결주문

06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065 제1절 조사 개요

065 1. 신청의 취지

065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066 제2절 조사 경과

066 1. 문건 등 자료조사

068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068 제3절 조사 내용

068 1. 기초사실

070 2. 2013~2015 연극분과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072 3. 오세곤 위원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080 제4절 조사 결과

080 1. 진상규명 사실

082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혹은 쟁점



37

086 37·‘수요자맞춤형교육사업’ 심사위원 명단 제출 거부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고사직 강요 사건

086 1. 의결주문
08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087 제1절 사건 개요
087 1. 신청의 취지
087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088 제2절 조사 경과
088 1. 문건 등 자료조사
089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090 제3절 조사 내용
090 1. 기초사실
094 2. ‘수요자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사업에서 심사위원 명단 제출 요구가 블랙리스트와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098 3. 심재찬 대표에 대한 권고사직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조치였는지에 대하여

104 제4절 조사 결과
104 1.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8

110 38·2014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 사건

110 1. 의결주문
11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11 제1절 조사 개요
111 1. 신청의 취지
112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112 제2절 조사 경과
112 1. 문건 등 52건 자료조사
115 2. 참고인 등 9인 대인조사

116 제3절 조사 내용
116 1. 기초사실
119 2.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120 3. 한국작가회의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경위에 대하여
122 4. 한국작가회의를 배제한 방법에 대하여

131 제4절 조사 결과
131 1. 진상규명 사실
133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9

136 39·(재)예술경영지원센터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36 1. 의결주문
13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37 제1절 조사 개요
137 1. 직권조사의 취지
137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Contents

39

138	제2절 조사 경과
138	1. 문건 등 자료조사
140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141	제3절 조사 내용
141	1. 기초 사실
141	2. '2015 작가 미술장터 개설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
153	3.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순회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
161	4. '2015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
165	5. 2015 센터스테이지코리아 국내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168	6. 원로작가 디지털 자료집 제작 연구지원 공모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170	7. '2015년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 지원' 사업 2차 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172	8. 전자도록 발간 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174	9. 2016년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공모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
177	10. 2016 센터스테이지코리아 국내공모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179	11. '2016 해외아트마켓 홍보지원 프로모터' 참가지원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180	12. '2016 한국-스페인/한국-중국 커넥션 한국 참가자 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183	제4절 조사 결과
183	1. 진상규명 사실
192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40

196	40·2015 작가미술장터개설지원사업 무미아트(민병동) 선정 배제 사건
196	1. 의결주문
19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97	제1절 조사 개요
197	1. 신청의 취지
197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198	제2절 조사 경과
198	1. 문건 등 자료조사
199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199	제3절 조사 내용
199	1. 기초사실
203	2. 무미아트(민병동)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경위에 대하여
204	3. 무미아트(민병동)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되었는지에 대하여
208	4. 무미아트(민병동) 배제 방법
209	제4절 조사 결과
209	1. 진상규명 사실
211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41

214 41·극단 마실(손혜정) 배제 사건

214 1. 의결주문

21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15 제1절 조사 개요

215 1. 신청의 취지

215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216 제2절 조사 경과

216 1. 문건 등 자료조사

217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18 제3절 조사 내용

218 1. 기초사실

220 2. 극단 마실(손혜정)이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 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에 대하여

226 3. 극단 마실이 지원 배제된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하여

232 제4절 조사 결과

232 1. 진상규명 사실

233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혹은 쟁점

42

238 42·(재)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238 1. 의결주문

23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39 제1절 조사 개요

239 1. 직권조사의 취지

239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240 제2절 조사 경과

240 1. 문건 등 자료조사

240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41 제3절 조사 내용

241 1. 기초사실

242 2. (재)국립극단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

285 제4절 조사 결과

285 1. 진상규명 사실

290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43

294 43·2016 국립극단 ‘작가의 방’ 검열 사건

294 1. 의결주문

29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95 제1절 사건 개요

295 1. 신청의 취지

296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296 제2절 조사 경과

296 1. 문건 등 자료조사

298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Contents

43

298	제3절 조사 내용
298	1. 기초사실
304	2. '작가의 방' 프로그램 기획 및 극작가 선발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적용 혹은 양해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307	3.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2013.9.3.~9.15)에서 검열 및 정치적 논란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315	4. '작가의 방' 참여 작가들의 집필 작품에 대한 소재의 제한, 검열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319	제4절 조사 결과
319	1. 진상규명 사실
322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44

326	44·국립국악원 '소월산천' 공연취소 사건
326	1. 의결주문
32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28	제1절 사건 개요
328	1. 신청의 취지
328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329	제2절 조사 경과
329	1. 문건 등 자료조사
330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31	제3절 조사 내용
331	1. 기초사실
336	2. 이 사건 공연의 취소 경위
352	3. 이 사건 공연 취소 전후과정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및 은폐 여부
363	4. 이 사건 블랙리스트 작동의 주체
373	제4절 조사 결과
373	1. 진상규명 사실
379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45

382	45·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극단 진일보' 선정 배제 사건
382	1. 의결주문
38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83	제1절 사건 개요
383	1. 신청의 취지
384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384	제2절 주요 조사경과
384	1. 문건 등 자료 조사
386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87	제3절 조사 내용
387	1. 기초사실
389	2. 2015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399	3.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404	제4절 조사 결과



45

46

47

404	1.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
404	2. 2015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405	3.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406	4.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410	46·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5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 사업 등 ‘극단 수수파보리’ 선정 배제 사건
410	1. 의결주문
41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12	제1절 조사 개요
412	1. 신청 취지
412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412	제2절 조사 방법
412	1. 자료 조사
413	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414	제3절 조사 결과
414	1. 사건 개요
416	2.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2015) 배제 사실
428	3.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2015, 2016) 배제 사실
433	제4절 결론
438	47·국립중앙극장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438	1. 의결주문
43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39	제1절 사건 개요
439	1. 직권조사의 취지
440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440	제2절 주요 조사경과
440	1. 문건 등 자료 조사
442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443	제3절 조사 내용
443	1. 기초사실
444	2. 2015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 연출 손진책 교체 압력에 대하여
453	3. 이윤택 연출의 2015 <해경궁 흥씨> 재공연 취소에 대하여
458	4. 2015 국립무용단 <향연> 제작비 예술위 예산 전용에 대하여
472	제4절 조사 결과
472	1. 2015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 연출 손진책 교체 압력에 대하여
473	2. 이윤택 연출의 2015 <해경궁 흥씨> 재공연 취소에 대하여
473	3. 2015 국립무용단 <향연> 제작비 예술위 예산 전용에 대하여
475	4.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Contents

48

478 48·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 478 1. 의결주문
- 47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 479 제1절 사건 개요
- 479 1. 직권조사 취지
- 479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 480 제2절 조사 경과
- 480 1. 조사방식
- 481 2. 조사범위
- 481 3. 문건 등 자료조사
- 488 4. 참고인 등 대인조사
- 493 제3절 조사 내용
- 493 1. 기초사실
- 498 2. 2016년 4개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과정
- 529 3. 추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 537 제4절 조사 결과
- 537 1. 진상규명 사실
- 545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49

548 49·국립현대무용단 부당개입 사건

- 548 1. 의결주문
- 54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 549 제1절 사건 개요
- 549 1. 신청의 취지
- 549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 550 제2절 조사 경과
- 550 1. 문건 등 자료조사
- 551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 552 제3절 조사 내용
- 552 1. 기초사실
- 555 2. <이미아직> 프랑스 초청 공연에서 주재환 작가가 배제된 것인지에 대하여
- 559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무용감독 내정 취소 및 동계올림픽 광고 취소에 대하여
- 562 4. 안애순 예술감독이 연임 배제된 것인지에 대하여
- 563 제4절 조사 결과
- 563 1. 진상규명 사실
- 565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50

568 **50·한국연극인복지재단 ‘2015 찾아가는 연극’ 검열 배제 사건**

568 1. 의결주문

56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69 **제1절 사건 개요**

569 1. 신청의 취지

570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571 **제2절 조사 경과**

571 1. 문건 등 자료조사

572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573 **제3절 조사 내용**

573 1. 기초사실

575 2. 신청인 및 신청인 단체의 블랙리스트 등재사실

579 3. 이 사건 사업에서 신청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

599 **제4절 조사 결과**

599 1. 진상규명 사실

602 2. 이 사건의 성격(평가)

51

606 **51·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서울변방연극제’ 검열 의혹 사건**

606 1. 의결주문

60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607 **제1절 사건 개요**

607 1. 신청의 취지

608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608 **제2절 조사 경과**

608 1. 문건 등 자료조사

609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609 **제3절 조사 내용**

609 1. 기초사실

611 2. 서울연방연극제가 검열 대상이었는지에 대하여

613 3. 2014년 서울변방연극제 문화역서울284 공연에 대한 검열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615 **제4절 조사 결과**

615 1. 진상규명 사실

617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Ⅰ 편집의 방향과 원칙 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는 총 10권으로 구성되었다. 1권은 『위원회 활동 보고서』, 2권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3권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4권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으로 구성되었다. 1권에서 3권까지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집필을 담당하였다. 3권 말미의 별첨 부분에는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수많은 토론회에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들의 옥고들이 참고 자료로 수록되었다. 4권에는 주로 외부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를 다각적으로 조망하였다. 외부 필진이 집필한 부분은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

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의 부록으로 기관별, 분야별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전문이 총 6권으로 편집되었다. 부록 1권은 기관별, 부록 2권과 3권은 공연 분야, 부록 4권은 문학·출판 분야, 부록 5권은 영화 분야, 부록 6권은 시각예술 및 기타 분야 진상조사결과보고서이다. 직접 조사를 담당했던 전문위원(조사관)들이 방대한 양의 관련 문서들과 수많은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했고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신청 사건들은 주로 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자들의 조사 신청에 의해 다루어졌고, 직권 사건들은 조사 과정에서 개별 사건들의 범주화 또는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가 직권으로 사건명을 설정하였다.

이 백서에서 피해자들의 이름은 대부분 실명으로 표기되었으나 블랙리스트 실행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 때문에 비실명 처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실행 범칙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되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장관, 차관 및 각 기관장들은 실명을 공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5급 사무관 이상은 직급과 성까지만 표기하였고, 6급 이하의 직급만 밝히고 완전히 비실명 처리하였다. 산하기관의 경우 본부장과 부장 또는 팀장까지는 직급과 성까지 표기하였고, 그 이하의 직급만 밝히고 완전히 비실명 처리하였다. 직급은 사건 발생 당시의 직위를 명시하였다.

문체부는 백서 1차 편집이 완료된 후 관련 당사자들에게 가편집본을 열람하도록 하여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다. 당사자로부터 문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전문위원 확인, 당사자 소명, 사실 재확인 과정을 거쳐 백서의 최종 수정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문체부는 2018년 9월 13일에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나 문화예술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재검토 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 31일에 최종 이행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역사적인 백서가 나오기까지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발간 소위원회 위원장 **김 미 도**

일러두기

분류	원 명칭	약칭
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조특위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특별검사, 특검, 박영수특검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법, 특검법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의 기소 사건 중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기소 사건 재판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재판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공운법
법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증언·감정법
법령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 보호법
법령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문예진흥기금 운영규정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문예진흥법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법령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영화진흥심사규정
청와대	청와대	BH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실장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소통비서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교문수석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산하 문화체육비서관	문체비서관
청와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대수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실수비
국회	국회 국정감사	국감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문위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기재부
정부부처	국가정보원	국정원
정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문화부, 문화관광부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복지부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행안부
정부부처	행정자치부	행자부
정부부처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실
유관기관	대한승마협회	승마협회
유관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등위
유관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
유관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예경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위, 문예위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공연예술센터, 한팩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문연
유관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복
유관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총
유관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진흥원
유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진원
사업·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예기금
사업·기금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	세종도서
사업·기금	영화발전기금	영화기금
기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
기타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기타	심의위원 후보단	심의위원 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3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공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직권조사 취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박근혜 정부 시기 동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를 밝히고자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2014. 3.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서 한국작가회의 등 좌성향 단체가 선정되자 문체부가 관련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한국작가회의 등 블랙리스트 단체들을 지원 배제하였고, 예술활동증명 심의 위원 선정 과정에서 오세곤 위원 등 11명을 선정 배제하였고, 2015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에서 강동효 등 7인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었고, 2015. 11.~12월 경 예술인복지재단 비상임 이사 선임과정에서도 블랙리스트 검증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붙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공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제1절 | 조사 개요

1. 직권조사의 취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박근혜 정부 시기 동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를 밝히고자 한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2017년 12월 1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박근혜 정부 시기 동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를 밝히고자 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 아래와 같이 주요 문서 모두 82건에 대하여 입수 및 검토함.

연번	문서명	작성자	입수일	비고
1	조사 신청서(2017. 11. 16.)	한국작가회의 (대표: 최원식)	2017. 11. 16.	신청인 작성
2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계획 (2014. 1. 28.)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3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참여예술단체 모집공고 계획(2014. 2. 12.)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4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참여예술단체 모집 공고 (2014. 2. 12.)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문서
5	현장예술인 교육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2014. 2. 12.)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 문서
6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참여예술단체 시행지침 (2014. 2. 12.)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문서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참여예술단체 선정 심사 계획(2014. 2. 20.)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8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일정(2014. 2. 20.)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 문서
9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참여예술단체 선정심사평가서(2014. 2. 20.)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 문서
10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사업 운영기관 평가결과표 (2017. 2. 20.)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 문서
11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사업 운영기관 선정심사 총괄표(2017. 2. 20.)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 문서
12	비밀준수서약서(2017. 2.20)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 문서
13	2014년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참여단체 선정 심사 계획(2014. 3. 3)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14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참여단체 1차 서류심사 결과보고(2014. 3. 4)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15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참여예술단체 1차 서류심사 결과 보고(2014. 3. 4.)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 문서

연번	문서명	작성자	입수일	비고
16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참여예술단체 1차 서류심사표(2014. 3. 4.)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17	『현장예술인 교육지원사업』참여 신청서 (2014. 2. 28.)	이시영	2017. 11. 11.	
18	현장예술인 교육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2014. 2. 28.)	이시영	2017. 11. 11.	
19	2014년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참여단체 선정심사 회의록(2014. 3. 7.)	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2017. 11. 11.	
20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사업 선정심사 총평 (2014. 3. 5.)	OOO 외 5인 심사위원	2017. 11. 11.	
21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사업 운영기관 선정심사 총괄표(2014. 3. 5.)	OOO 외 5인 심사위원	2017. 11. 11.	
22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심사 총평(2014. 3. 5.)	OOO 외 5인 심사위원	2017. 11. 11.	
23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2014. 3. 12.)	문체부 OOO 주무관	2017. 11. 11.	
24	정기이사회 개최 계획(2014. 3. 21.)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25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자료)(2014. 3. 21.)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2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4년 사업 점검에 관한 건(보고사항): 예술인 복지사업 변경 계획(안) (2014. 3. 21.)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27	주요 복지제도 현황(2014. 3. 21.)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 문서
2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 (2014. 3. 21.)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 문서
29	제5차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2014. 3. 27.)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30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변경 계획 안내문(2017. 3. 27.)	예술인복지재단	2017. 11. 11.	
31	2014년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계획 변경(2017. 3. 27.)	예술인복지재단	2017. 11. 11.	
32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 참여예술단체 모집공고 계획(2014. 2. 12.)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8. 3. 8.	
33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 참여단체 모집 공고 (2014. 2. 12.)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8. 3. 8.	
34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 참여예술단체 모집 공고기간 연장(2014. 2. 13.)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연번	문서명	작성자	입수일	비고
35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 참여신청 접수결과 보고 (2014. 3. 19.)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36	2014년도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 참여신청현황(2014. 3. 14.)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37	2014년도 <예술인 학습공동체지원> 참여단체 선정을 위한 심의계획(2014. 4. 8.)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38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 사업 선정 심의계획(안) (2014. 4. 8.)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39	<예술인 학습공동체지원 선정 서류심의평가서> (2014. 4. 8.)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40	<예술인 학습공동체지원 선정 평가결과표> (2014. 4. 8.)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41	예술인 학습공동체지원 선정 최종심의 총평서 (2014. 4. 8.)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붙임문서
42	최종합격단체 명단(2014. 4. 8.)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붙임문서
43	비밀준수서약서(2014. 4. 8.)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붙임문서
44	2014년도 <예술인 학습공동체지원>사업 참여단체 선정 결과보고(2014. 4. 24.)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45	2014년 『예술인 학습공동체지원』 사업 최종 심의 결과 발표(2014. 4. 15.)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문서 붙임문서
46	2014년 『예술인 학습공동체지원』 사업 최종결과광고(2014. 4. 16.)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문서
47	예술인 학습공동체지원 선정 최종심의 총평서 (2014. 4. 16.)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문서
48	문체부,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사업 실시-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예산 20억 원 증액- (2014. 3. 27.)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OO	2017. 11. 11.	위 문서 보도자료
49	예술인복지재단의 무원칙 사업폐지 규탄 (2014. 4. 2.)	최OO	2017. 11. 11.	신문기사
50	2014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계획 변경 승인(2014. 5. 12.)	문체부 예술정책과 주무관 OOO	2017. 11. 11.	
51	문체부, left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2014. 3. 17.)	국정원 IO	2017. 10. 30.	
52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2016. 2. 1.)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	2017. 8. 17.	

연번	문서명	작성자	입수일	비고
53	조사 신청서(2017. 10. 31.)	신청인 오세곤	2017. 10. 31.	신청인 작성
54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구성 보고 (2013. 3. 18.)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55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13. 3. 18.)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에 첨부 문서
56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요청의 건 (2014. 3. 11.)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57	2014~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2017. 3. 11.)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에 붙임문서
58	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운영 계획(안) (2015. 1. 28.)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59	2014~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2015. 1. 28.)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위 문서에 붙임문서
6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임기연장 및 심의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요청 (2015. 7. 16.)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2. 13.	
61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관련 보고 (2015. 9. 7.)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62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승인 요청 (2015. 9. 7.)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63	예술활동 증명 승인 요청 심의위원(연임, 신규) (2015. 9. 7.)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위 문서에 붙임문서
64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승인 요청 (2015. 11. 25.)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65	예술활동 증명 승인 요청 심의위원(연임, 신규) (2015. 11. 25.)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위 문서에 붙임문서
66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위원 승인 (2015. 12. 2.)	문체부 예술정책과 주무관 OOO	2017. 11. 11.	
67	예술활동 증명 승인 요청 심의위원 (연임, 신규) (2015. 12. 2.)	문체부 예술정책과 주무관 OOO	2017. 11. 11.	위 문서에 붙임문서
68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관련 보고 (2017. 1. 3.)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69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승인 요청 (2017. 4. 3.)	예술인복지재단 이OO	2017. 11. 11.	
70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2017. 4. 3.)	예술인복지재단 이OO	2017. 11. 11.	위 문서에 붙임문서

연번	문서명	작성자	입수일	비고
71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승인 및 통보 (2017. 4. 4.)	문체부 예술정책과 OOO	2017. 11. 11.	
72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2017. 4. 4.)	문체부 예술정책과 OOO	2017. 11. 11.	위 문서에 붙임문서
7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감사원 감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2017. 8. 24.)	감사원	2017. 8. 28.	감사원
7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6개 기관 공모사업 신청자 등 부당 지원·선정 배제 명세(2017. 6.)	감사원	2017. 8. 28.	감사원
75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左편향 대응책 보고 (2013. 9. 3.)	국정원 IO	2017. 10. 30.	
76	문예계 주요 左성향 인물 현황(249명)	국정원	2017. 10. 30.	
77	예술인복지법	국회	2018. 3. 6.	
78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	2018. 3. 6.	
79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문체부	2018. 3. 6.	
80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2014. 12. 19.)	문체부	2017. 11. 11.	
81	2014, 2015 예술활동 증명 심의자료(2014년 1차~2015년 17차) (2014~2015)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2. 13.	엑셀파일 출력
82	2015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결과 공고	예술인복지재단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17인에 대하여 19회에 걸쳐 조사함.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홍명진	신청인(대리인)	1회 진술조서(2017.12. 29.)
2	김OO	예술인복지재단 팀장	1회 진술조서(2017.12. 7.)
3	OOO	예술인복지재단 대리	1회 진술조서(2017.12. 7.)
4	김OO	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장	1회 진술조서(2017.12.14.)
5	강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1회 진술조서(2018. 1. 12.)
6	이OO	문체부 예술정책과 과장	1회 진술조서(2018. 2. 1.)
7	O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주무관	사실확인서(2018. 3. 6.)
8	조OO	문체부 예술정책과 과장	사실확인서(2018. 3. 22.)
9	신OO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	사실확인서(2018. 4. 2.)
10	오세곤	신청인	1회 진술조서(2017. 12. 6.)
11	김OO	예술인복지재단 과장	1회 진술조서(2018. 12. 7.)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2	김OO	예술인복지재단 과장	2회 진술조서(2018. 3. 16.)
13	OOO	예술인복지재단 사원	1회 진술조서(2018. 12. 14.)
14	차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1회 진술조서(2018. 1. 30.)
15	OOO	참고인	1회 진술조서(2018. 2. 26.)
16	박계배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전화면담조사(2018. 4. 11.)
17	박계배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1회 진술조서(2018. 4. 13.)
18	B	문체부 예술국장(2015.8~)	1회 진술조서(2018. 3. 23.)
19	김OO	문체부 예술국장(2014~2015)	사실확인서(2018. 4. 19.)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재단은 2012년 11월 18일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서 2012년 11월 19일 설립되었다. 현재 조직 구성은 이사회, 대표, 운영본부(경영지원팀, 창작준비지원팀, 예술가치확산팀),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전략·홍보,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¹⁾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로서 예술활동증명 사업, 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영화·방송·전통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패스 사업,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와 창작안전망구축을 구현하고자 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기업/기관 등)와 협업을 기반한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대행하고 납부보험료를 50~90% 지원하고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사업,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²⁾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2.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 경위

가. 사업 개요

(1)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의 사업목적, 사업개요, 신청기간·방법 및 선정심사 일정 등과 관련하여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³⁾

1. 사업 목적

- 장르별로 특화된 현장 맞춤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예술인에게 교육과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
- 장르별 예술활동의 성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장르별 현장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르별 예술단체들이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현장예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조성

2. 사업 개요

- 사업명 : 『현장예술인교육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2014년 12월
- 사업의 규모 : 예술장르별 최소 10개 단체 선정, 1,000명 이상 지원
- 지원신청자격 :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
 - (단체의 법적형태) 3개 이상의 예술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 단체 컨소시엄
 -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 * 컨소시엄 참여 단체별 역할이 명시된 협약서 상호체결 및 제출 필수
- ※ 참여제한
 - 같은 연도 재단 타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부터 2014년 11월까지
- 지원금액 : 최대 100,000,000원(금 일억원)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3) 예술인복지재단,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참여예술단체 모집 공고, 1-2쪽. 2014. 2. 12.

3. 신청기간·방법 및 선정심사 일정

- 신청기간 : 2014년 2월 12일(수) ~ 2월 28일(금)(17일간)
- 선정심사 기간 : 2014년 3월 3일(월) ~ 3월 6일(목)(4일간)
- 선정심사 방법 : 1차 서류심사(행정심사) 및 2차 심의위원회 심사(발표심사)
 - 1차 서류심사 : 지원신청자격 검토 및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확인
 - 2차 심의위원회 심사 : 전문심의위원회를 통한 종합심사
- 선정심사 결과공고 : 2014년 3월 7일(금)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2)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⁴⁾

(가) 사업 목적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은 ‘예술창작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소규모 예술인 공동체가 조직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 예술인 공동체가 활발하게 교육하고 예술의 가치 확장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수행·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 주요 사업 개요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의 개요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기간: 2014년 4월 ~ 2014년 11월
- 사업의 규모: 약 110개 단체 선정(예술인 약 550여 명 지원)
- 지원기간: 최대 5개월(20주)
- 지원금액: 참여단체별 1천만원 ~ 3천만원

4) 김OO,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 참여예술단체 모집공고 계획, 2-3쪽.

(다) 신청기간·방법 및 선정심사 일정

신청기간·방법 및 선정심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신청기간: 공고일 ~ 2014년 2월 28일(금) 18시
- 선정심사 기간: 2014년 3월 3일(월) ~ 3월 11일(화)
- 선정심사 방법: 1차 서류심사 및 2차 심의위원회 심사
 - 1차 서류심사: 지원신청자격 검토 및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확인
 - 2차 심의위원회 심사: 전문심의위원회를 통한 종합심사
- 선정심사 결과공고: 2014년 3월 17일(월)

나.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⁵⁾

(1)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공모

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 1월 28일 경, 2014년 1월 ~ 12월 사업기간 동안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사업 규모는 아래와 같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장르별 협회·단체	10개 단체, 1000여명 지원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	예술단체	110개 단체, 550여명 지원
예술인교육이용권(Voucher)지원	창작·실연예술인, 행정·기술스태프	300여명 지원
예술인파견지원	창작·실연예술인, 행정·기술스태프	350여명 지원

(2) 1차 서류 심사 결과

한국작가회의(대표기관)는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4년 2월 28일 우편 접수하였고 1차 서류 심사(행정심사) 결과 합격하였다.⁶⁾

5) 김OO,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계획, 1쪽. 2014. 1.28.

6)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참여예술단체 1차 서류 심사 결과 보고.

(3) 2차 인터뷰 심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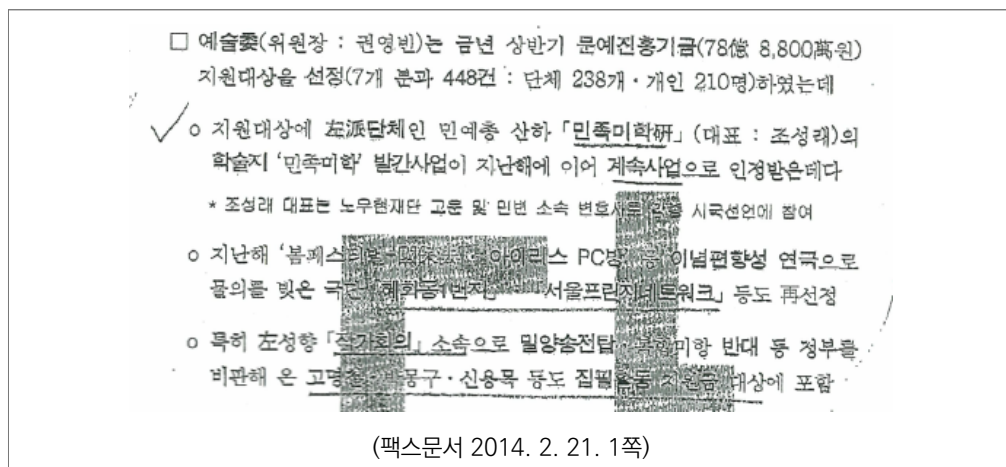
2014년 3월 4일 '2014년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참여예술단체 선정 심사' 결과 심사논의 결과 한국작가회의에 대하여 '문학교육에 대해 발표자의 이해도가 높음, 교육이 문학출판 분야에는 기회가 될 것임, 한국작가회의의 경력, 프로그램 문제없음, 이들의 컨소시엄이 놀라움' 등의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한국작가회의(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는 민족미술인협회(경기민예총, 전북 민예총, 강원 민예총)와 함께 시각·문학분야에서 최종 선정되었다.⁸⁾

다. 한국작가회의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경위에 대하여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팩스 송부 문서(다)

2014년 2월 21일 경 청와대가 문체부로 보낸 '팩스 송부 문서(다)'는 2014년 예술위 지원 사업에서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이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지원 선정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인 고명철·박몽구·신용목 등이 밀양송전탑·복합미항 등 정부를 비판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⁹⁾



7) 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2014년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참여단체 선정심사 회의록, 5쪽. 2014. 3. 7.

8) 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2014년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참여단체 선정심사 회의록, 1쪽. 2014. 3. 7.

9) 팩스로 송부받은 문서(다), 1쪽. 2014. 2. 21.

(나)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보고서

국정원은 2014년 3월 17일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보고서에서, 문체부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서 민족미술인협회, 한국작가회의, 우리만화연대, 서울연극협회 등 좌성향 단체들이 대거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사업자체를 폐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문서는 '관련 동향'으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심사결과 연극분야에서 서울연극협회, 미술분야에서 (사)민족미술인협회, 문학분야에서 (사)한국작가회의, 만화분야에서 (사)우리만화연대 등 좌성향 단체들이 선정되자 결과발표(3.7) 계획을 중단하고 교육지원보다는 생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폐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위 사업을 폐지하고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비판 언론 및 진보진영에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 입단 속중', '3월중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방안을 설계, 추진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¹⁰⁾

(다)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단체 現況」 보고서

국정원은 또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단체 現況」 보고서에서 '연변 3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를 포함하고 있다.¹¹⁾

(라)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기존관리 리스트-149명"에 따르면, '작가회의'의 경우 '2010년 소고기파동 시국선언서 참여 단체'라고 기록되어 있다.

10) 국정원 IO,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보고서, 1-2쪽. 2014. 3. 17.

11) 국정원 IO,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단체 現況」 보고서, 1쪽.

6 기준관리 리스트 - 149명			
분야	단체명	사업개요 및 규모	선정사항
공통 - 15명	①민예총, ②지역연예총, ③분류단체, ④민족미술인협회, ⑤작가회의	예술위 보조금사업 집행으로 고달 및 환수조치(2010년) - 432백만원 중 5천만원 변경상대, 권역별남시까지 지원중단 민예총산하 민족문제연구소(대표 조성래, 이사장 채희환), 민미협(박용순) 2010년 소고기파동 시국성명서 참여단체 작가회의 소속 ⑥고명철, ⑦박봉우, ⑧신용복 / ⑨광주전남소설가협회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가) 참고인 강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강OO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결과발표 중단 지시 경위와 관련하여,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선정 결과 서울연극협회, 한국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우리만화연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한국작가회의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분위기로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¹²⁾

라. 한국작가회의를 배제한 방법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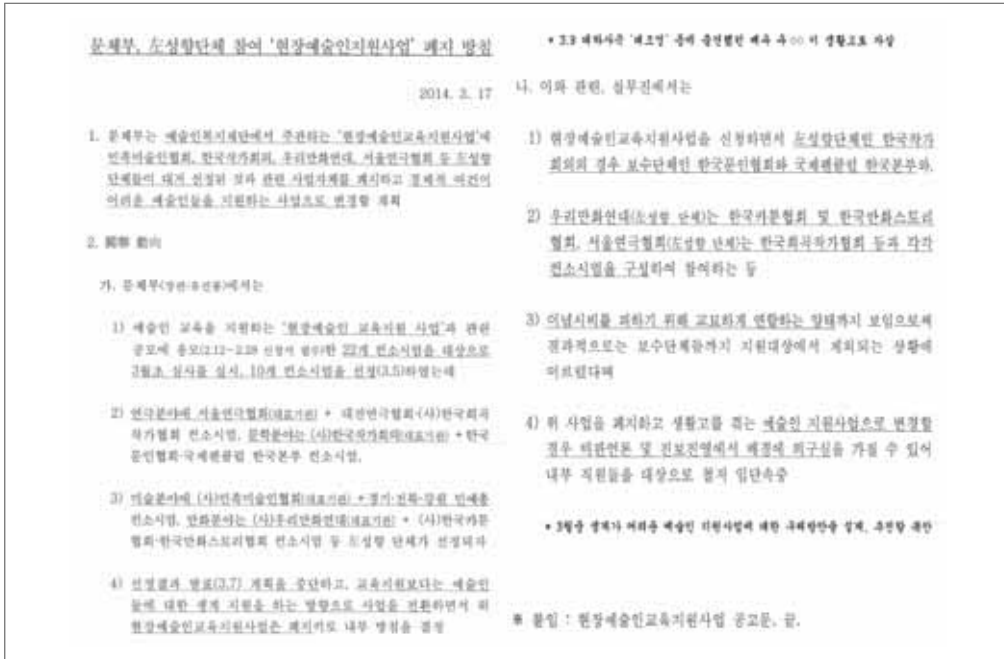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국정원이 2014년 3월 17일 경 작성한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문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서 민족미술인협회, 한국작가회의, 우리만화연대, 서울연극협회 등 좌성향 단체들이 대거 선정되자 관련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웠고, 위 사업을 폐지하고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비판언론 및 진보진영에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면서 2014년 3월 중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고 추진할 복안을 세웠다.¹³⁾

12) 강OO 1회 진술조서. 2018. 1.12.

13) 국정원 IO,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1-2쪽. 2014. 3. 17.



(나)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문체부는 2014년 3월 12일 경 예술인복지재단에 공문을 보내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술인들의 불행한 사고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동 사항을 문체부와 협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¹⁴⁾

(다) '제5차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

예술인복지재단은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 결정을 의결하였다.¹⁵⁾ 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 3월 21일 경 제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안건 제12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4년 사업 점검에 관한 건'을 원안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예술인 복지사업 변경 계획(안)'의 추진 배

14) OOO,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2014. 3.12.

15) OOO, 「제5차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 2014. 3.27.

경은 ‘○ 배우 우○○씨 자살, 송파 세모녀 자살 등 현행 복지 제도가 혜택이 필요한 사람 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한정된 예산 하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재설계 필요’ 등으로 제시되었다.¹⁶⁾

(라)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2014년 3월 21일 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서, 이날 회의자료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하여 ‘○ 문제점: 2.24일 접수 시작 이후 신청자 수가 1,400명에 달하여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으며, 소득 등 지원기준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있음, 원로·경력단절 예술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은 자존심 또는 복잡한 서류 절차 등을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등을 이유로 예산을 20억원 증액(74억 원 → 94억 원)하면서 교육 지원 예산을 20억원 감액하기로 하고 있다.¹⁷⁾

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 문제점: 교육지원 사업 예산이 약 77억 원으로 과다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예술인에게 필요한 교육은 기술 교육이 아니라 계약·저작권 등 예술활동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문제와 국가 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임’ 등을 지적하면서 사업변경 내용으로는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과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예산을 감액 조정(32억 원 → 12억 원)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은 폐지(10억 원 → 0원)하고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은 축소(22억 원 → 12억 원)하였다.¹⁸⁾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가) 신청인 홍명진의 진술

신청인 홍명진은 위원회 조사에서 한국작가회의가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를 통보 받은 경위에 관하여, 최종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2014년 3월 경 위 프로그램 기획이면서 심사위원이었던 고○○ 평론가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한국예술인복지

16) 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19쪽.

17) 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19쪽.

18) 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19-20쪽.

재단이 2014년 3월 27.경 ‘예술인복지강화를 위한 사업 변경 계획 안내문’을 통해 1)예술인 긴급복지사업비 증액 2)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3)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예산삭감 등을 알리면서 예술인복지재단 담당 직원 김OO 복지사업팀장이 한국작가회의 사무처로 전화를 해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¹⁹⁾

홍명진은 또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2014년 3월 12일 경 예술인복지재단 주최로 한국작가회의를 비롯하여 위 사업 응모 단체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자문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문체부 조OO 예술정책과장이 참여하였고, 이날 간담회(자문회의)에서는 한국작가회의 등이 위 사업폐지 및 축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였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²⁰⁾

신청인 홍명진은 2014년 3월 27일 경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사업변경 계획 안내문’을 내서 위 사업 폐지 및 축소 방침을 발표한 후 한국작가회의가 “예술인복지재단의 무원칙 사업폐지 규탄” 성명을 발표(2014.4.2.)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²¹⁾

(나)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인복지재단 김OO 과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심의 결과 시각·문학 분야(2014.3.4.)에서 민족미술인협회(경기 민예총, 전북 민예총, 강원 민예총)와 한국작가회의(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중예술분야(2014.3.4.)에서 우리만화연대(한국카툰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공연예술분야(2013.3.5.)에서 서울연극협회(대전연극협회, 한국희곡작가협회) 등이 선정되자 문체부가 선정 결과 발표(2013.3.7.) 계획을 중단하고 교육지원보다는 예술인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기로 하고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은 폐지하라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지시한 사실에 대하여 그 당시 김OO 복지사업팀장, 유OO 기획관리팀장에게 직접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²²⁾

19) 홍명진 1회 진술조서, 3쪽. 2017.12.29. 신청인 홍명진은 한국작가회의가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 사업에 지원하지 않았던 경위와 관련하여, 한국작가회의는 2014.2.12.~2.28.(이후 3.14까지 모집 기간 연장) 모집한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 사업에는 접수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접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0) 홍명진 1회 진술조서, 4쪽. 2017.12.29.

21) 홍명진 1회 진술조서, 4쪽. 2017.12.29.

22) 김OO 1회 진술조서, 4쪽. 2017.12. 7.

김OO은 다만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이 폐지된 이유가 선정된 단체들이 좌성향 단체들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위 사업이 폐지된 것이 무언가 부당한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였고,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촛불 이후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예술단체들이 대대적인 표적 감사를 받는 등 특정 정치 성향을 이유로 배제되는 사례들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김OO은 당시 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공적인 상태에서 김OO 복지사업팀장, 유OO 기획관리팀장 모두 난감해 했고, 예술인복지재단은 2013년 가을 “찍어서 자르겠다”는 뉴스타파(10.29) 보도에서 확인된 것처럼 재단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문체부가 거의 직접적으로 예술인복지재단을 관리하다시피하고 있던 상황에서, 심의가 이미 끝난 사업에 대하여 문체부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독립기관인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개입하여 사업을 폐지시키는 상황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김OO, 유OO 두 팀장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²³⁾

(다) 참고인 000의 진술

참고인 000 예술인복지재단 대리는 위원회 조사에서 2014년 3월 27일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사업 폐지 및 2014년 4월 24일 예술인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축소 발표와 관련하여, 2014년 3월 21일 개최된 예술인복지재단 5차 이사회 회의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이 회의자료 중 ‘예술인 복지사업 변경 계획(안)’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문체부 000 주무관이 이메일로 보내준 내용을 자신이 편집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²⁴⁾

(라)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인복지재단 김OO 복지사업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4년 3월 경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문체부의 지시 사항은 모두 유OO 기획관리팀장에게 전달되었고, 유OO 팀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구조였는데, 그 당시 유OO 팀장으로부터 문체부장OO 사무관이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반발하였다고 하였다. 김OO 팀장은 문체부 예술정책과 조OO 과장

23) 김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7.12. 7.

24) 000 1회 진술조서, 9쪽. 2017.12. 7.

을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만났는데 조OO 과장은 당시 송파 세 모녀의 죽음과 배우 우 OO의 자살을 얘기하면서 위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사업비를 예술인긴급복지사업을 확대(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고, 이후 자신의 요청에 따라서 2014년 3월 12일 경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공문을 예술인복지재단으로 보내주었으며, 2014년 3월 21일 경 개최된 5차 정기이사회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예술인긴급복지지원사업이 증액되었다고 진술하였다.²⁵⁾

참고인 김OO는 심사위원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문체부의 입장과 이사회 결정에 대하여 설명했고, 예술단체들에게도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현장 예술단체들이 의구심을 표하며 항의를 하겠다고 하여서 현장 예술단체들과 문체부 사이에 간담회가 열렸다고 진술하였다.²⁶⁾

참고인 김OO는 2014년 10월 22일 경 박계배 대표가 취임한 이후 대표가 부재하였던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상황 전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²⁷⁾

(마) 참고인 강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강OO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결과발표 중단 지시 경위와 관련하여,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선정 결과 서울연극협회, 한국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우리만화연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서울연극협회, 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분위기로 알 수 있었지만 우리만화연대는 콘텐츠국 소관이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문체부 콘텐츠국 담당 사무관에게 이 단체가 문제가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그 사무관이 본인도 확실하지 않다면서 청와대에 물어보라고 하여서 청와대 신OO 행정관에게 우리만화연대를 지원해도 되는지 확인했더니, 신OO 행정관은 약간 부정적이었고, 그 뒤로 청와대 안에서 공유가 된 것 같고, 또 그 뒤로 조OO 예술정책과장이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강OO 사무관은 자신이 예술인복지재단에 위 사업 결과 발표 중단을 지시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자신이 그러한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⁸⁾

참고인 강OO는 사업폐지 및 예산 변경 명분과 관련하여, 문체부 예술정책과 안에서

25) 김OO 1회 진술조서, 3-6쪽. 2017.12.14.

26) 김OO 1회 진술조서, 7쪽. 2017.12.14.

27) 김OO 1회 진술조서, 8쪽. 2017.12.14.

28)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향후 조치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배우 우OO 자살 사건,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예술인긴급복지사업의 기금을 늘려야 하는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위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예술인긴급복지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²⁹⁾

참고인 강OO는 문체부가 예술인복지재단에 사업 재점검을 공식 요청하였던 경위와 관련해서는, 조OO 과장과 예술인복지재단 김OO 팀장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만난 사실이 있으며 두 사람이 만난 이후 문체부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2014.3.12.) 공문을 예술인복지재단으로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³⁰⁾

참고인 강OO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 경위와 관련하여, 2014년 3월 21일 개최된 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예술인긴급복지지원 기금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의 규모를 축소한 까닭은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³¹⁾

참고인 강OO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와 관련된 경위는 당시 김OO 예술정책관, 문체부 조현재 차관, 유진룡 장관 등에도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³²⁾

(바) 참고인 이OO의 진술

참고인 이OO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조OO 과장 재임 시기에 있었던 위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와 관련하여 조OO 과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형식적인 절차로서 결재를 하기는 하였지만 위 사업 폐지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³⁾

29)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30)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31)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32)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33) 이OO 1회 진술조서, 3쪽. 2018. 2. 1.

(사) 참고인 000의 진술

문체부 예술정책과 000 주무관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심사 결과 서울연극협회, 한국작가회의, 우리만화연대, 민족미술인협회 등이 선정되자 결과 발표를 중단하고 생계가 곤란한 예술인들을 긴급지원하기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하고 예술인복지재단에 통보하였던 경위와 관련하여 “2014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일부를 폐지·축소하게 된 것은 당시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가 되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계기가 되어 우리 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지원이 우선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른 업무지시를 받고 예술인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 등 관련 조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예산까지 축소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2014년 2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 우리 부에서는 생계비 지원의 성격이 있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을 축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를 확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어 생계지원이 급박한 예술인 등을 발굴하는 등 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³⁴⁾

(아) 참고인 조00 진술

참고인 문체부 조00 예술정책과장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자살, 3월 배우 우00 자살 사건 등으로 인하여 예술인 복지사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중 담당 사무관이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 비서실에 확인 차 전화를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이 이 건의 사업자 선정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내부에서 진행 과정은 모르고 당시 유진룡 장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다면서 어떤 사업인지 물었고, 이에 대해 예술인 자살 사건 등으로 인한 상기 고민 사항을 유진룡 장관에게 말한 후 생계가 곤란한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⁵⁾

34) 000 사실확인서, 2쪽. 2018. 3. 6.

35) 조00 사실확인서, 1-2쪽. 2018. 3. 23.

(자) 참고인 신OO의 진술

참고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 신OO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1) 우리만화연대와 관련하여서 국정원 정보보고서에서 언급되었던 것을 보거나 들었던 기억이 있고 (2) 강OO 사무관이 자신에게 우리만화연대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문의하였다면, 만화분야는 콘텐츠국 소관으로 자신의 업무였기에 문의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3)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한 적은 없으나 강OO 사무관과 통화한 부분에 한해서는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보고를 하고 통화를 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³⁶⁾

마. 소결

① 한국작가회의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경위

다음의 사실을 통하여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이 밀양 송전탑 반대,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반대 등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자 국정원이 한국작가회의를 주요 좌성향 단체로 분류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2월 21일 경 청와대가 문체부로 보낸 ‘팩스 송부 문서(다)’가 2014년 예술위 지원 사업에서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이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지원 선정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인 고명철·박몽구·신용목 등이 밀양송전탑·복합미항 등 정부를 비판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³⁷⁾ 국정원의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보고서가 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서 한국작가회의 등이 선정되자 문체부가 관련 사업 자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³⁸⁾ 국정원이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단체 現況」 보고서에서 ‘연번 3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³⁹⁾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작가회의’의 경우 ‘2010년 소고기파동 시국선언시 참여단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한국작가회의는 소속작가들이 밀양송전탑 반대, 강정 해군 기지 건설 반대 등 정부를 비판

36) 신OO 사실확인서, 2쪽. 2018. 4. 2.

37) 팩스로 송부받은 문서(다), 1쪽. 2014. 2. 21.

38) 국정원 IO,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보고서, 1-2쪽. 2014. 3. 17.

39) 국정원 IO,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단체 現況」 보고서, 1쪽.

하는 활동을 하고, 작가회의도 소고기 파동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등의 이유로 ‘좌성향’ 단체로 분류되어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인 강OO 사무관의 진술을 통하여서도 문체부 예술정책과 안에서 한국작가회의가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⁴⁰⁾

② 한국작가회의를 배제한 방법

다음의 사실을 통하여 문체부가 한국작가회의를 지원 배제하기 위하여,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심사결과 한국작가회의가 지원 선정되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긴급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예술인긴급복지지원금을 증액하는 등 관련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정원이 2014년 3월 17일 경 작성한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문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문체부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서 한국작가회의 등 좌성향 단체가 선정되자 관련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웠고, 위 사업을 폐지하고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비판언론 및 진보진영에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면서 2014년 3월 중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고 추진할 복안을 세웠다.⁴¹⁾

문체부는 2014년 3월 12일 경 예술인복지재단에 공문을 보내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술인들의 불행한 사고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동 사항을 문체부와 협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⁴²⁾

문체부의 요청을 받은 예술인복지재단은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10억 원 → 0원)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22억 원 → 12억 원) 결정, 예술인긴급복지기금을 20억 증액(74억 원 → 94억 원) 의결하는 방법⁴³⁾으로 한국작

40) 강OO 1회 진술조서. 2018. 1.12.

41) 국정원 IO,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1-2쪽. 2014. 3. 17.

42) OOO,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2014. 3.12.

43) OOO, ‘제5차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 2014. 3.27.

가회의를 지원 배제 하였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이러한 조치는 문체부 조OO 과장이 당시 송파 세 모녀의 죽음과 배우 우OO의 자살을 명분으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사업비를 예술인긴급복지사업을 확대(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2014년 3월 12일 경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공문을 예술인복지재단으로 보낸 후 2014년 3월 21일 경 개최된 5차 정기이사회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예술인긴급복지지원사업이 증액된 것이었다.⁴⁴⁾

이러한 사실은 문체부 예술정책과 강OO 사무관이 서울연극협회, 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분위기로 알 수 있었고 우리만화연대가 혹시 문제가 되는지 청와대 신OO 행정관에게 물어본 후 조OO 예술정책과장이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⁴⁵⁾ 참고인 조OO 예술정책과장도 담당 사무관이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 비서실에 확인 차 전화를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이 이 건의 사업자 선정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내부에서 진행 과정은 모르고 당시 유진룡 장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다면서 어떤 사업인지 물었고, 이후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⁴⁶⁾ 참고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 신OO도 우리만화연대를 국정원 정보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강OO 사무관이 우리만화연대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면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보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⁴⁷⁾을 통하여서도 확인된다.

44) 김OO 1회 진술조서, 3-6쪽. 2017.12.14.

45)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46) 조OO 사실확인서, 1-2쪽. 2018. 3. 23.

47) OOO 사실확인서, 2쪽. 2018. 4. 2.

3. 예술활동증명 심의 위원 선정 배제 경위

가. 연극분과 오세곤 위원이 선정 배제된 경위

(1) 기초사실

(가) 예술인복지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1조) 제정(2011.11.17.)되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예술인복지법은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조에 따른 문화예술’(2조1항)로 정의하고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2조2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⁴⁸⁾

한편 예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1조)으로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는데 동 시행령은 ‘예술활동의 증명’을 위한 세부 기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예술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2조4항)하고 있다.⁴⁹⁾ 동법 시행규칙은 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2조)을 [별표]로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⁵⁰⁾

(나)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①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예술인복지법 시행 규칙 2조의 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는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를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1항), 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2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상임이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3항).⁵¹⁾

48) 예술인복지법.

49)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50)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②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지침과 분야별 분과위원회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 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술활동 증명 운영지침이 제정(2014.12.19.)되었다.⁵²⁾

예술활동 증명 운영지침에 따르면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체위원회로 운영된다(6조). 분과위원회는 ① 심의는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분과위원회는 3명에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문학, 미술(일반),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등 15개로 한다(7조).⁵³⁾

(2) 2013~2015 연극분과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가) 연극분과 심의위원 구성 경과

- ① 2013년 3월 18일 구성된 연극분과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는 이OO(연출가), 김OO(연출가), 길OO(배우), 손OO(제작기획자), 이OO(뮤지컬배우), 이OO(국립극단 프로듀서)으로 되어 있었다.⁵⁴⁾ 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⁵⁵⁾
- ② 2014년 3월 11일 경 심사위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예술인복지재단은 연극분과 예술활동 증명 기존 심의위원인 길OO(배우), 손OO(제작자), 이OO(교수), 이OO(연출가)의 연임승인과 함께 신규 심의위원으로 오세곤(교수)을 위촉했다.⁵⁶⁾
- ③ 예술인복지재단 내부 문서인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관련 현황보고」

51)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52) 예술활동 증명 운영지침 제1조.

53) 예술활동 증명 운영지침 제6조, 제7조.

54)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구성 보고, 2쪽. 2013. 3.18.

55)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1쪽. 2013. 3.18.

56)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요청의 건,붙임 1, 2014~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1쪽. 2014. 3.11.

15.09.07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 따르면 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 7월 23일 심의위원 현황보고 및 위촉 승인요청 업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5년 1월 8일~8월 10일 기간 동안 총 8회의 심의위원 위촉 승인요청 업무메일을 문체부로 발송하였고, 문체부로부터 후보자 적격성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업무메일을 2회에 걸쳐 수령(2015년 1월 8일, 1월22일)하였다.⁵⁷⁾

- ④ 예술인복지재단은 2015년 1월 28일 현재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 계획(안)에서도 연극분과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으로 길OO(배우), 손OO(제작자), 이OO(교수), 이OO(연출가)의 연임승인과 함께 오세곤(교수)의 위촉 승인을 문체부에 요청하였다.⁵⁸⁾
- ⑤ 예술인복지재단은 2015년 9월 8일 문체부에 예술활동 증명 연극분과 심의위원으로 길OO(연극배우), 손OO(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의 연임승인과 함께 김OO(전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이사장), 정OO(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정OO(아이엠컬처 대표)을 위촉 승인 요청하였다.⁵⁹⁾ 이후 문체부로부터 영화 분야 손OO 등 모두 4명을 제외한 공문을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손OO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에 대한 위촉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같은 제목으로 다시 2015년 11월 26일 경 문체부에 발송하였다.⁶⁰⁾
- ⑥ 문체부는 2014년 12월 26일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이 신설된 뒤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5년 12월 2일 경에서야 손OO 등 4명을 제외한 연임 및 신규 심의위원에 대한 위촉 승인을 하였다. 예술활동 증명 연극분과 심의위원으로는 길OO(연극배우), 손OO(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김OO(전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이사장), OOO(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정OO(아이엠컬처 대표) 등 5명을 위촉 승인하였다.⁶¹⁾
- ⑦ 문체부가 2014. 3.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심의위원 연임 승인 및 신규 심의위원 위촉 승인을 하지 않는 동안, 예술인복지재단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심의위원들과 위촉승인 요청을 했지만 문체부 승인을 받지 못한 위촉대상 심의위원을 모두 사실상 심의위원으로 인정하고 심의를 진행하였다.

57) 김OO,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관련 현황보고, 1쪽. 2015. 9. 7.

58) 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 계획(안), 붙임,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구성표, 1쪽. 2015. 1.28.

59)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승인 요청, 붙임, 예술활동 증명 승인 요청 심의위원 (연임, 신규) 1쪽, 2015. 9. 8.

60) 김OO 1회 진술조서, 8쪽. 2017.12. 7.

61)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위원 승인. 2015.12. 2.

(나) 오세곤 위원의 예술활동 증명 심의 참여 현황

오세곤 위원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전달받고 2014년도에는 5차~8차 예술활동 증명 심의과정에 참여하였다. 2015년에는 2차 심의 참여하였고 1차, 3차~17차에는 심의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⁶²⁾ 16차~17차 심의는 2015년 12월 2일 신규 심의위원 위촉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개최된 것이기 때문에 오세곤 위원은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⁶³⁾ 오세곤 위원은 연극분과 심의과정에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오세곤 위원에 대하여 문체부나 예술인복지재단의 위촉 승인은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체부가 오세곤 위원을 예술활동 증명 연극분과 심의위원으로 정식으로 다시 위촉한 것은 2017년 4월 3일이었다.⁶⁴⁾

(다) 오세곤 위원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1) 문건 등 자료조사

①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승인 절차

예술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이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상임이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⁶⁵⁾

제2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상임이사가 위촉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26]

62) 2014~2015 예술활동 증명 심의결과(엑셀파일 출력).

63) 2014~2015 심사결과표.

64)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승인 및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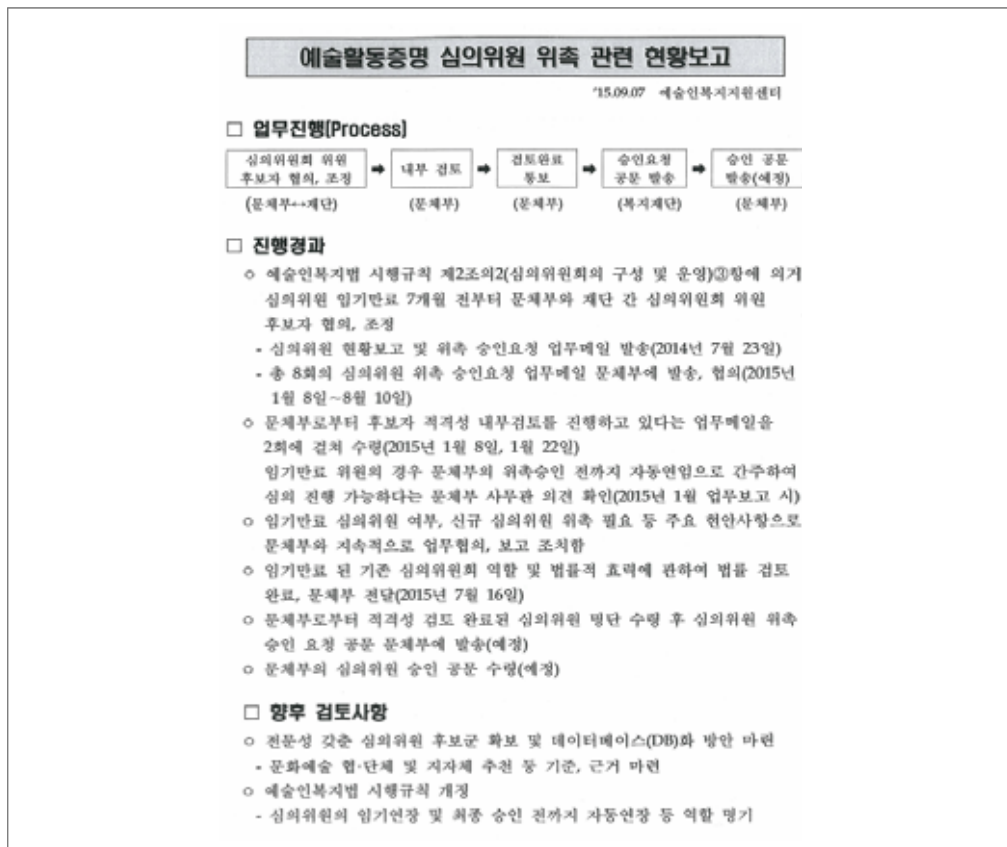
65) 예술인복지법 시행 규칙.

② 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 계획(안)

2015년 1월 28일 자 예술인복지재단 내부 결재 문서인 ‘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연극 분야 ‘2014~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후보는 길 OO, 손OO, 오세곤, 이OO, 이OO 등 5명으로 되어 있다.⁶⁶⁾

③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관련 현황보고

예술인복지재단 김OO 과장이 2015년 9월 7일 경 작성하여 박계배 예술인복지재단 대표에게 보고한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관련 현황보고」 문서에 따르면, 예술인복지재단은 2015년 1월 8일~8월 10일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심의위원 위촉 승인을 요청하는 업무메일을 문체부에 발송하였고, 문체부는 ‘후보자 적격성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업무 메일을 2회(2015년 1월 8일, 1월 22일)에 걸쳐 예술인복지재단에 발송하였다.⁶⁷⁾



66) 김OO, ‘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 계획(안)’, 2015. 1. 28.

67) 김OO,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관련 현황보고, 1쪽. 2015. 9. 7.

④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국정원은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문서에서, 2013년 9월 3일 경 문화예술계의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관련)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연극계 인사들이 2013년 7월 15일 경 대학로 노을소극장에 모여 시국선언을 하였다고 동향 보고 하면서 시국선언문 ‘진실 앞에 무릎을 꿇어라’를 첨부하였다. 이 시국 선언문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권의 국가기밀문서 대선 이용 등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사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시국 선언문에 오세곤 위원이 공동명의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⁶⁸⁾

<p>붙임 3. 연극계 시국선언</p> <p>□ 장소 및 일시 : 2013.7.25, 대학로 노을소극장</p> <p>□ 공동명의 : 기국서, 김태웅, 박상현, 오세곤, 오태영, 윤한솔, 이성열, 이해성, 이호성, 전용환, 채승훈, 최종원</p> <p>□ 시국선언 내용</p> <p>- 진실 앞에 무릎을 꿇어라 -</p> <p>우리는 지금 국정원의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대화록 공개, 그리고 여권의 국가기밀문서 대선 이용 등의 사실을 보며, 늘 진실의 문제와 마주하는 연극인으로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귀중한 한표를 행사한 민주시민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p>

⑤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한편 국정원이 작성한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문서에는 연번 89번에 연극 분야 오세곤 위원이 2010년 10월 경 노나메기재단 설립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특이사항’과 함께 ‘B’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⁶⁹⁾

89	연극	오세곤	10.10 노나메기재단 설립 추진위원	B
----	----	-----	----------------------	---

(라) 참고인 등 대인조사

① 신청인 오세곤의 진술

이 사건 신청인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봄 이후 예술활동 증명 심의에 참여하여 달

68)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4-5쪽. 2013. 9. 3.

69)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4쪽.

라는 연락을 받지 못하여서 이상하게 느끼던 중 2015년 연말 경 다른 예술 장르 심의위원들을 만나, 다른 장르의 경우 심의가 자주 열렸다는 얘기를 듣고 이OO 위원을 통해서 예술인복지재단에 문의한 결과 이OO 위원은 임기가 끝난 뒤 재위촉 되지 않은 것이고 자신은 처음부터 위촉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⁷⁰⁾

오세곤 신청인은 또 2015년 초 예술활동 증명 연극분과 심의위원들(오세곤, 이OO, 손OO, 이OO 등)이 모여서 호선에 따라서 자신이 연극분과 심의위원장이 되었고 문체부 예술정책과의 요청으로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 지침’까지 직접 만들었는데, 연극분과 심의위원장이었던 자신에게 특별한 연락도 없이 심의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부 심사위원으로만 심의를 진행한 것은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⁷¹⁾

오세곤 위원은 또 ‘심의 실행과 관련하여 하루 이틀에서 며칠까지 늦은 적은 있지만 그에 대한 지적이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양해되는 분위기였다. 바빠서 못하겠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실령 내가 바빠서 힘들다는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장을 아무 고지도 없이 해촉한다는 것은 상식에 심하게 어긋난다. 이에 대한 (예술인복지재단 내부의) 의논과 결정 과정이 없을 리 없다’고 진술하였다.⁷²⁾

신청인 오세곤 위원은,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 지침 ‘7조(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원칙적으로 분과위원회 3명에서 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을 뿐⁷³⁾ 심의위원 풀 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김OO 과장이 말하는 ‘심의위원 풀 제’는 법을 위반하여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⁷⁴⁾

②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김OO 예술인복지재단 과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오세곤 위원이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오세곤 위원이 대학교수로서 다른 일정으로 평소 심의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예술활동 증명 심의 결과 제출도 늦어지는 등의 이유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⁷⁵⁾

참고인 김OO 과장은 또 ‘오세곤 위원에게 심의를 맡기지 않았던 것은 블랙리스트와는

70) 오세곤 1회 진술 조서, 5쪽. 2017.12. 6.

71) 오세곤 1회 진술조서, 5-6쪽. 2017.12. 6.

72) 김OO 1회 진술조서, 8-9쪽. 2017.12. 7.

73) 실제로는 3명~10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4) 오세곤 1회 진술조서, 6쪽. 2017.12. 6.

75) 김OO 1회 진술조서, 8-9쪽. 2017.12. 7.

무관한 일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문체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사항은 전혀 없고, 이는 오세곤 선생님의 오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⁷⁶⁾

참고인 김OO 예술인복지재단 과장은 2회 조사에서 2015년 예술활동 증명 1차, 3차~15차 심의 회차 동안 오세곤 위원에게 예술활동 증명 심의 과정에 참여해 달라고 연락하지 않았던 이유가 더 있었는지에 관하여, 2014년 10월 22일 박계배 대표가 재단 대표로 취임한 이후 자신에게 “오세곤 교수가 심재찬 대표가 사임한 이후 본인이 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재단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재단 입장이 곤란해지기도 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박계배 대표의 그런 발언을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심의과정에 오세곤 위원을 참여시키지 말라는 암묵적인 지시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⁷⁷⁾ 김OO 과장은 또 박계배 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주간업무회의 석상에서 누군가에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명단을 청와대·국정원에서 검증하고 있다더라고 말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⁷⁸⁾

김OO 과장은 2015년 연극분과 심의에서 심의위원 5명 중 3명(손OO, 길OO, 이OO)에게만 연락하여 예술활동 증명 심의를 진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3명~5명의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운영지침 제7조(분과위원회) ①항을 3명~5명을 심의위원 구성 풀(pool)로 해석하였고, 5명 중 과반수인 3명이 출석하면 분과 심의위원회가 성립되고 그 중에서 과반수인 2명이 승인을 하면 예술활동 증명 승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⁷⁹⁾

③ 참고인 000의 진술

참고인 000 예술인복지재단 사원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4년 말 경 김OO 과장에게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2014, 2015 심의 결과표’를 살펴본 후 ‘정확한 사실 관계는 모르겠지만 객관적 자료로 보아서는 배제된 것으로 짐작됩니다.’라고 진술하고,⁸⁰⁾ 2014년에 오세곤 심의위원이 학교 일로 바쁘거나

76) 김OO 1회 진술조서, 9쪽. 2017.12. 7.

77) 김OO 2회 진술조서, 4-5쪽. 2018. 3. 16.

78) 김OO 1회 진술조서, 7쪽. 2017.12. 7.

79) 김OO 1회 진술조서, 8쪽. 2017.12. 7.

80) 000 1회 진술조서, 3쪽. 2017.12.14.

심의 피드백이 늦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심의위원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⁸¹⁾

OOO 사원은, 연극분과 심의위원 5인 중 3인에게만 연락하여 심의를 진행한 것이 연극 분야에서만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운영 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⁸²⁾ 객관적 자료(‘2014, 2015 심의 결과표’)로 보아서 오세곤 위원이 배제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진술하였다.⁸³⁾

④ 참고인 강OO의 진술

참고인 강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2월 경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해 달라는 복지재단의 요청에 대하여 계속하여 기다리라고 하면서 임기가 끝난 기존 심의위원들로 계속하여 심의를 진행하라고 예술인복지재단에 지시한 이유에 대하여 국정원 검증을 받는데 시간이 계속 걸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⁸⁴⁾

강OO 사무관은 또 ‘오세곤 위원은 연극 분과 위원장이었고, 규정대로라면 직원 임의대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⁸⁵⁾

⑤ 참고인 차OO의 진술

차OO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12월 2일 경 새로운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승인이 있기까지 오세곤 위원이 2015년 1차, 3차~15차 심의과정에 위촉되지 못한 사실과 관련하여, ‘예술정책과 안에서 오세곤 위원과는 예술활동 증명 심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다만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에게 제가 이러한 내용을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⁸⁶⁾

⑥ 참고인 이OO의 진술

오세곤 위원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 대상이었던지와 관련하여, 참고인 문체부 이OO 예술정책과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과정에서 오세곤 위원이 위촉 배제된 경위는 모르지만 그 당시 오세곤 교수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고 진

81) O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7.12.14.

82) OOO 1회 진술조서, 5쪽. 2017.12.14.

83) OOO 1회 진술조서, 3쪽. 2017.12.14.

84) 강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8. 1. 12.

85) 강OO 1회 진술조서, 9쪽. 2018. 1. 12.

86) 차OO 1회 진술조서, 6쪽. 2018. 1. 30.

술하였다.⁸⁷⁾

⑦ 참고인 박계배의 진술

참고인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박계배는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2~3월 경 기존 심의 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심사위원들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였고, 김OO 팀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오세곤 위원이 일정이 바쁘고 피드백도 늦어서 팀 입장에서 진행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기에 그 점을 감안하여 오세곤 위원을 심의위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오세곤 위원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⁸⁸⁾

한편 박계배 대표는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승인이 늦어졌던 이유에 대하여는 2015년 2~3월 이후 문체부에 위촉 승인을 요청하면 문체부에서 특정인을 배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몇 차례에 걸쳐 계속해서 늦어지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⁸⁹⁾

(3) 소결

다음의 사실을 통하여 오세곤 위원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대상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오세곤 위원은 국정원이 작성한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문서가 첨부하고 있는, 2013년 7월 15일 경 대학로 노을소극장에 연극계 인사들이 모여 시국선언을 하였던 ‘진실 앞에 무릎을 꿇어라’ 선언문에 공동명의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있는 점,⁹⁰⁾ 국정원이 작성한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문서 연번 89번에 연극 분야 오세곤 위원이 2010년 10월 경 노나메기재단 설립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특이사항’과 함께 ‘B’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⁹¹⁾ 그 당시 오세곤 교수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는 문체부 이OO 예술정책과장의 진술,⁹²⁾ 2015년 오세곤 위원이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하여, 문체부 예술정책과 안에서 오세곤 위원과는 예술활동 증명 심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차

87) 이OO 1회 진술조서, 25쪽. 2018. 2. 1.

88) 박계배, 전화면담조사, 1쪽. 2018. 4. 11.

89) 박계배, 전화면담조사, 1쪽. 2018. 4. 11.

90)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4-5쪽. 2013. 9. 3.

91)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4쪽.

92) 이OO 1회 진술조서, 25쪽. 2018. 2. 1.

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의 진술⁹³⁾ 등을 통해서도 오세곤 위원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다음의 사실을 통하여 오세곤 위원이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승인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14년 3월 11일 경 심사위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예술인복지재단이 연극분과 예술활동 증명 신규 심의위원으로 길OO(배우), 손OO(제작자), 이OO(교수), 이OO(연출가)과 함께 ⁹⁴⁾ 참고인 강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이 2014.2월 경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해 달라는 복지재단의 요청에 대하여 계속하여 기다리라고 하면서 임기가 끝난 기존 심의위원들로 계속하여 심의를 진행하라고 예술인복지재단에 지시한 이유에 대하여 국정원 검증을 받는데 시간이 계속 걸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⁹⁵⁾ 2015년 1월 28일 자 예술인복지재단 내부 결재 문서인 「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 계획(안)」에서 여전히 연극 분야 ‘2014~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후보로 길OO, 손OO, 이OO, 이OO과 함께 오세곤 위원을 거론하고 있는 점,⁹⁶⁾ 참고인 김OO 과장이 2014년 10월 22일 경 재단 대표로 새로 취임한 박계배 대표로부터 예술활동 증명 심의과정에 오세곤 위원을 참여시키지 말라는 암묵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⁹⁷⁾ 참고인 이OO 예술정책과장이 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과정에서 오세곤 위원에 대한 배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그 당시 오세곤 교수가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⁹⁸⁾ 참고인 차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이 ‘예술정책과 안에서 오세곤 위원과는 예술활동 증명 심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⁹⁹⁾ 참고인 OOO 예술인복지재단 사원이 ‘2014, 2015 심의 결과표’를 살펴본 후 ‘정확한 사실 관계는 모르겠지만 객관적 자료로 보아서는 배제된 것으로 짐작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¹⁰⁰⁾ 예술인복지재단 김OO 과장이 2015년 9월 7일 경 작성하여 박계배 예술인복지

93) 차OO 1회 진술조서, 6쪽. 2018. 1. 30.

94)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요청의 건, 붙임 1. 2014~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1쪽. 2014. 3.11.

95) 강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8. 1. 12.

96) 김OO, ‘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 계획(안)’, 2015. 1. 28.

97) 김OO 2회 진술조서, 4-5쪽. 2018. 3. 16.

98) 이OO 1회 진술조서, 25쪽. 2018. 2. 1.

99) 차OO 1회 진술조서, 6쪽. 2018. 1. 30.

재단 대표에게 보고한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관련 현황보고」 문서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이 2015년 1월 8일~8월 10일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심의위원 위촉 승인을 요청하는 업무메일을 문체부에 발송하고, 문체부가 ‘후보자 적격성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업무 메일을 2회(2015년 1월 8일, 1월 22일)에 걸쳐 예술인복지재단에 발송하였다는 점,¹⁰¹⁾ 예술인복지재단이 2015년 9월 8일 문체부에 예술활동 증명 연극분과 심의위원으로 길OO(연극배우), 손OO(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김OO(전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이사장), 정OO(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정OO(아이엠컬처 대표)을 위촉 승인 요청하면서 1년 9개월 동안 승인대상자였던 오세곤 위원을 명단에서 제외한 점,¹⁰²⁾ 참고인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박계배가 2015년 2~3월 경 기존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심사위원들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김OO 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세곤 위원을 제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⁰³⁾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오세곤 위원은 2014년 3월 11일 경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2015년 2~3월 경 심사위원 후보에서 제외될 때까지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선정 후보자 상태에 있었고 결국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선정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박태순 외 9인이 선정 배제된 경위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에서 예술인활동 증명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상정 등이 블랙리스트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100) OOO 1회 진술조서, 3쪽. 2017.12.14.

101) 김OO,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관련 현황보고」, 1쪽. 2015. 9. 7.

102)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승인 요청, 붙임, 예술활동 증명 승인 요청 심의위원(연임, 신규) 1쪽, 2015. 9. 8.

103) 박계배, 전화면담조사, 1쪽. 2018. 4. 11.

예술인활동증명 ('15.10.20) - 4명 아르누보문화재단이사		①한상정(만화,상지대학교수), ②정준모(미술), ③강용석(사진, 백 계대학교수), ④손정우(영화, 시나리오작가조합) -K('15.10.26)	
(문체부 작성, '리스트-'16.2.1.현재'. 26쪽.)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위		①박태순(방송), ②안성주(방송), ③홍정선(문학), ④강홍구(사진), ⑤임계광(미술), ⑥김희정(음악)	-전원제외
(같은 문서. 28쪽)			

(나) 문체부 기관운영감사(2017.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2017. 6.) 337쪽에서도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2014.5.8. 2명, 2015.12.2. 8명에 대하여 지원(선정) 배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별표 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6개 기관 공모사업 신청자 등 부당 지원·선정 배제 명세

연번	시행 기관명	공모 사업명	공모 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1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박태순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2014. 5. 8.	지원(선정) 배제
2			-	안성주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3			-	홍정선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2015. 12. 2.	"
4			-	강홍구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5			-	임재광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6			-	김희정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7			-	한상정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8			-	정준모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9			-	강용석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10			-	손정우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가) 참고인 강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OO는 위원회 조사에서 2014. 5. 8.경 박OO, 안 OO 2명의 심의위원 후보가 선정 배제된 경위에 관하여,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들을 위

촉하기 위하여 문체부 각 과에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방송과에서 위 두 분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심의위원 후보를 취합하여 국정원으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제가 발송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OO 국장님이 오신 뒤였습니다. 김OO 국장이 저에게 박 OO, 안OO는 안 된다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다, 다른 후보를 추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과에 다시 연락하여 새로운 후보를 받아서 다시 국정원의 검증을 받아 다른 두 사람을 임명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⁰⁴⁾

(나) 참고인 이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이OO는 위원회 조사에서 2015.12.2. 결정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 홍정선 등 8명의 심의위원이 선정 제외된 경위에 대하여, “각 과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부적절하다고 제외된 경우가 있는데 블랙리스트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⁰⁵⁾

(다) 참고인 차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차OO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제가 복지재단 업무를 담당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배제 명단을 사전에 걸러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5.9.8.경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문체부로 보낸 위촉 승인 명단에 손정우, 만화분야 한상정, 전통미술 분야 정준모, 사진분야 강용석 등 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받은 후보자 명단을 오OO 사무관에게 보냈고, 나중에 오OO 사무관이 위 4명에 대해서 배제 대상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OO 과장님에게 상의를 했을 것인데, 예술인복지재단에 위 4명의 명단을 제외한 후보자 명단을 다시 위촉승인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2015.11.26.경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다시 공문을 보내주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4명이 선정 제외된 경위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⁰⁶⁾

104) 강OO 1회 진술조서, 7-8쪽. 2018. 1. 12.

105) 이OO 1회 진술조서, 24-25. 2018. 2. 1.

106) 차OO 1회 진술조서, 5-6쪽. 2018. 1. 30.

(라)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인복지재단 김OO 과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9.7.경까지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만 문체부에게 심사위원 위촉 승인 요청을 하다가 2015.9.8.경 공문을 통해서 위촉 승인 요청을 하게 된 까닭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문체부 차OO 사무관이 새로 와서 위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차OO 사무관이 온 뒤로 저에게 심의위원 추천자 명단을 요청했고, 그래서 제가 2015.9.8.경 공문을 보내면서, 차OO 사무관에게 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첨부하였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2015.9.8.공문을 발송한 이후 차OO 사무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명단 수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위 4명을 제외한 공문을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⁰⁷⁾

(마) 참고인 박계배의 진술

참고인 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대표는 위원회 조사에서, 2015. 1. 8.~8. 10.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심의위원 위촉 선정을 요청하는 업무메일을 문체부에 발송하고, 문체부가 ‘후보자 적격성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업무 메일을 2회에 걸쳐 회신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그 당시 제가 김OO 팀장에게 문체부에 연락해서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선정을 해 달라고 수도 없이 독촉을 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문체부는 계속해서 기다리라고만 하였고, 나중에는 예술인복지재단이 추천한 명단 중에서 특정인을 제외한 명단을 다시 추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문체부가 제외하여 달라는 명단을 제외하고 다시 후보자를 추천해서 올려보내기도 했다고 하였고, 대략 세 달 간격으로 2~3차례에 걸쳐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다가 결국 예술인복지재단은 추천을 하지 않게 되었고,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누가 이러한 배제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 문체부 쪽에 물어봤지만 문체부 공무원들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⁰⁸⁾

(바) 참고인 B의 진술

참고인 B 문체부 예술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나 사무관에게 보고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오OO 사무관

107) 김OO 1회 진술조서, 7-8. 2018. 2. 7.

108) 박계배 1회 진술조서, 5-6쪽. 2018. 4. 13.

이 청와대, 국정원으로부터 배제 지시를 받아서 산하기관에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⁰⁹⁾

(사)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국장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위촉 승인 지연과 관련하여 ‘2014. 11.~2015. 7. 까지 근무한 바, 많은 현안으로 인해 동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¹⁰⁾

(아) 소결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에서 한상정, 정준모, 강용석, 손정우, 박태순, 안성주, 홍정선, 강홍구, 임재광, 김희정이 배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내용은 문체부 기관운영감사(2017. 6.) 337쪽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2014. 5. 8.경 박태순, 안성주 2명의 심의위원 후보가 선정 배제된 경위에 관하여는 강OO 사무관이 방송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국정원 검증을 받아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¹¹¹⁾ 손정우, 한상정, 정준모, 강용석 등 4명도 오OO 사무관을 통해서 배제 대상자라는 지시를 전달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만, 나머지 4명이 선정 제외된 경위는 명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하였다.¹¹²⁾

109) B 1회 진술조서, 8-9쪽. 2018. 3. 23.

110) 김OO 사실확인서, 3쪽. 2018. 4. 19.

111) 강OO 1회 진술조서, 7-8쪽. 2018. 1. 12.

112) 차OO 1회 진술조서, 5-6쪽. 2018. 1. 30.

4. 2015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가. 문건 등 자료조사

(1)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맞춤형교육지원사업

2015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맞춤형교육지원사업은 “현장예술인의 자율적·실천적 예술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예술인이 새로운 예술 창작 혹은 현장예술활동에 필요한 학습을 직접 기획, 운영함으로써 학습에 기반한 새로운 예술창작의 구심점 마련 및 예술창작 네트워킹 모델 개발, 수행된 예술 프로그램의 실천적 가치와 성과가 예술계 대내외로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는 장 마련”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5년 3월 2일(월)~3월 13일(금) 공모 접수하였고,¹¹³⁾ 2015년 4월 24일 결과 발표되었다.¹¹⁴⁾

(2)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29쪽은 2015년 예술인맞춤형교육지원사업에서도 강동효, 홍민진, 용혜련, 송경화, 임소은, 홍은지, 강상구 등 7명이 지원배제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¹¹⁵⁾

2015 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15.4.130 - 17명	(4)	연차: ①강동효(한국문화예술진흥원합동사무), ②홍민진(국립현대미술관), ③용혜련(극단 창세동), ④송경화(극장협성 재파동 1번지 6기 동업), ⑤임소은(고려), ⑥홍은지(서울프린지네트워킹) 등임. ⑦강상구(예나)
-------------------------------------	-----	--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1)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장 김OO는 위원회 조사에서 ① 위 사업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당시 박계배 대표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하면서, 복지사업팀에서 2015. 2. 25. 경 위 사업계획안을 내부 기안하여 박계배 대표에게 보고하였는데 당초 3월 27일

113) 2015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 모집 공고

114) 2015년 ‘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결과 공고

115) 리스트-’16.2.1.현재, 29쪽.

에 결과 발표하도록 되어 있던 일정이었는데 사업 심의가 4월 경이나 되어서야 시작되었고, ② 심의가 4월에 진행될 만큼 늦어진 까닭은, 박계배 대표가 계속해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지연시켜서 그 까닭에 대해서 재차 삼차 이유를 묻고, ‘이미 사업 공고가 외부에 공개되었고 공고문 상의 추진 일정은 예술인들과의 공식 약속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절차상 맞지 않다.’고 하였지만, 박계배 대표는 자신이 계속 검토 중이니깐 기다리라고 하였고, ③ 2015. 2. 25. 작성된 ‘2015년 ‘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모집공고 계획’ 문서에 따르면 원래 기안자는 자신이 아니었고, 행정 절차상 아무런 근거조차 없이 계속하여 심의 일정이 지연되다가, 원래 공고된 사업계획서상 결과 발표가 되기로 되어 있었던 2015.3.27.이 지난 3월 31일에서야 비로소 ‘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참여단체 선정심의 계획변경’이 추진되어서 그 당시 담당자는 행정절차상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질 수 없다고 하여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안을 하였는데, 기안(2015.3.31.)을 하기 전에 박계배 대표로부터 심사위원 명단을 통보받았고, ④ 박계배 대표로부터 받은 심사위원 명단에는 예술인복지와 관련하여, 예술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⑤ 심사위원은 대부분 박계배 대표와 친분이 있고, 정치적 성향을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했다고 생각했고, ⑥ 박계배 대표가 주간업무회의 자리에서 직접 위 예술인맞춤형교육지원사업을 축소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단체 지원이 위험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⑦ ‘단체 지원이 위험하다’는 말은, 예를 들어 예술활동증명이나 긴급복지사업, 예술인파견사업 등의 경우 예술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런 사업들은 개개인들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문체부가 일일이 검정하기가 어려운 구조이지만, 블랙리스트 단체는 문체부가 지원 선정 되었는지 검증하기가 너무 쉽다는 뜻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참고인 박계배의 진술

참고인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박계배는 위원회 조사에서 2015 예술인맞춤형교육지원 사업에서 강동호 등 7명(리스트-’16.2.1.현재 29쪽에 등재된 명단)이 배제된 사실과 관련하여, “신청자 명단을 누가 문체부로 송부하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문체부 남자 사무관(J 사무관으로 기억)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 명단을 불러주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심사위원 구성이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직원들이 구성해 놓은 심사위원 풀이 있었는데, 전국을 관할하는 협회장들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심

사위원 중 한 명에게 문체부에서 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심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탈락할 경우 그냥 지나가고 만약 해당 명단이 선정될 가능성이 보일 경우 별도의 언급을 하여서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심사가 끝나고 난 뒤 나중에 부탁을 하였던 심사위원에게 얘기를 들으니 심사과정에서 다행히 우선적으로 선정할 단체들이 있어서 배제를 위한 별도 언급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¹⁶⁾

(3) 참고인 이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이OO는 위원회 조사에서, ‘리스트-’16.2.1.현재’, 29쪽에 기록되어 있는 ‘2015 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에서 7명이 배제된 경위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리스트에 있어서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사무관이 보고를 하면 저는 진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배제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¹⁷⁾

(4) 참고인 OOO의 진술

참고인 OOO은 위원회 조사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2015 예술인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서 혜화동 1번지 6기 동인 이름으로 응모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리스트-’16.2.1.현재’ 문서에서 송경화는 단체 멤버 중 한 명이고, 면접 심사 당시에는 자신이 참여하였다고 하면서 심사위원 중에 예술위 직원 이OO 씨가 있었던 기억이 나고, “심사위원 중 1인이 혜화동 1번지는 이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¹⁸⁾

다. 소결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문서 29쪽에서 2015년 예술인맞춤형교육지원사업에서도 강동효, 홍민진, 용혜련, 송경화, 임소은, 홍은지, 강상구 등 7명이 지원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¹¹⁹⁾ 박계배 예술인복지재단

116) 박계배 1회 진술조서, 4쪽. 2018. 4. 13.

117) 이OO 1회 진술조서, 25쪽. 2018. 2. 1.

118) OOO 1회 진술조서, 2-3쪽. 2018. 2. 26.

대표가 위 7명에 대하여 문체부 사무관으로부터 배제 명단을 받아서 심사위원 중 한 명에게 문체부에서 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심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탈락할 경우 그냥 지나가고 만약 해당 명단이 선정될 가능성이 보일 경우 별도의 언급을 하여서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¹²⁰⁾ 위 7명에 대한 문체부의 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박계배 대표가 위 7명이 심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탈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강동효 등 7명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 선임 과정에서 검열이 있었던 경위

가. 문건 등 자료조사

(1)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34쪽에서는 2015. 11. 30.~12. 7. 경 예술인복지재단 이사 선임 과정에서 검열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예술인복지재단 이사 (* 15.11.30)	○ 간이확인, 이상없음, 우선 진행할 것(15.12.7)
----------------------------	---------------------------------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1) 참고인 000의 진술

참고인 예술인복지재단 대리 000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11.경 문체부로 올라간 비상임 이사진 후보 명단은 업무 분장 상 원래대로라면 자신이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 부장, 대표 등에게 보고한 다음 결재를 받아 담당자에게 보냈어야 하지만 당시에 자신은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비상임 이사진 후보자 명단을 문체부로 보낸 사람은 박계배 대표 혹은 이OO 당시 운영본부장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당시 새롭게 선임된 비상임 이사 8명(최OO, 박OO, 정OO, 선OO, 홍OO, 박OO, 안OO, 박

119) 리스트-'16.2.1.현재, 29쪽.

120) 박계배 1회 진술조서, 4쪽. 2018. 4. 13.

OO), 비상임 감사(정OO)는 박계배 대표와 친한 사람들로 위 이사진 명단은 박계배 대표가 대부분 추천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²¹⁾

(2) 참고인 박계배의 진술

참고인 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대표는 위원회 조사에서, ‘예술인복지재단 이사진 구성은 문체부가 한 것으로 자신이 추천한 사람은 따로 없다고 하면서’, 이사회가 열린 날 이사들을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²²⁾

다. 소결

‘리스트-’16.2.1.현재’ 문서에서 2015. 12. 17. 예술인복지재단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간이확인, 이상없음, 우선 진행할 것’ 등의 기록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술인복지재단 비상임 이상에 대한 검증 과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배제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 경위

문체부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서 한국작가회의 등 좌성향 단체가 선정되자 관련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웠고, 위 사업을 폐지하고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비판언론 및 진보진영에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면서 2014년 3월 중 생계가

121) OOO 1회 진술조서, 5-6쪽. 2017. 12. 7.

122) 박계배 1회 진술조서, 6-7쪽. 2018. 4. 13.

어려운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고 추진할 복안을 세우고,¹²³⁾ 2014년 3월 12일 경 예술인복지재단에 공문을 보내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술인들의 불행한 사고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동 사항을 문체부와 협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¹²⁴⁾ 문체부의 요청을 받은 예술인복지재단은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10억 원 → 0원) 및 예술인 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22억 원 → 12억 원) 결정, 예술인긴급복지기금을 20억 증액(74억 원 → 94억 원) 의결하는 방법¹²⁵⁾으로 한국작가회의 등을 지원 배제 하였다.

나. 예술활동증명 심의 위원 선정 배제 경위

(1) 연극분과 오세곤 위원이 선정 배제된 경위

오세곤 위원이 국정원이 작성한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문서에서 확인되는 점,¹²⁶⁾ 국정원이 작성한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문서에서도 확인되는 점,¹²⁷⁾ 그 당시 오세곤 교수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는 문체부 이OO 예술정책과장의 진술,¹²⁸⁾ 2015년 문체부 예술정책과 안에서 오세곤 위원과는 예술활동 증명 심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차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의 진술¹²⁹⁾ 등을 통해서도 오세곤 위원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김OO 과장이 2014년 10월 22일 경 재단 대표로 새로 취임한 박계배 대표로부터 예술활동 증명 심의과정에 오세곤 위원을 참여시키지 말라는 암묵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¹³⁰⁾ 참고인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박계배가 2015년 2~3월 경 기존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심사위원들을 새롭게 구성

123) 국정원 IO,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1-2쪽, 2014. 3. 17.

124) OOO,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2014. 3.12.

125) OOO, 「제5차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 2014. 3.27.

126)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4-5쪽. 2013. 9. 3.

127)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4쪽.

128) 이OO 1회 진술조서, 25쪽. 2018. 2. 1.

129) 차OO 1회 진술조서, 6쪽. 2018. 1.30.

130) 김OO 2회 진술조서, 4-5쪽. 2018. 3. 16.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김OO 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세곤 위원을 제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³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오세곤 위원은 2014년 초 예술활동증명 심의 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2015년 초 심사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배제되고 이후 연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박태순 외 9인이 선정 배제된 경위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와 ‘문체부기관운영 감사(2017.6.)’ 337쪽에서 한상정, 정준모, 강용석, 손정우, 박태순, 안성주, 홍정선, 강흥구, 임재광, 김희정이 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2014. 5. 8.경 박태순, 안성주 2명의 심의위원 후보가 선정 배제된 경위에 관하여는 강OO 사무관이 방송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국정원 검증을 받아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¹³²⁾ 손정우, 한상정, 정준모, 강용석 등 4명도 오OO 사무관을 통해서 배제 대상자라는 지시를 전달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만, 나머지 4명이 선정 제외된 경위는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였다.¹³³⁾

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 선임 과정에서 검열이 있었던 경위

‘리스트-’16.2.1.현재’ 문서에서 2015. 12. 17. 예술인복지재단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간이확인, 이상없음, 우선 진행할 것’ 등의 기록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술인복지재단 비상임 이사에 대한 검증 과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배제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문체부 실장·장차관, 청와대·국정원에 대하여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131) 박계배, 전화면담조사, 1쪽. 2018. 4. 11.

132) 강OO 1회 진술조서, 7-8쪽. 2018. 1. 12.

133) 차OO 1회 진술조서, 5-6쪽. 2018. 1. 3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6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선정 배제 사건



36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선정 배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공22[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선정 배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조사 취지

신청인 오세곤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에서 연극 분과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에 참여하던 중 2015년 초 연극분과 심의위원장으로 호선되었으나 2015년 1차, 3차~15차 예술활동 증명 연극분과 심의위원회 및 심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신청인이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승인 및 2015년 1차, 3차~15차 연극분과 예술활동 증명 심의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인지, 신청인이 예술활동 증명 심의 위원 선정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국정원이 작성한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문서 등에서 오세곤 위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2015

년 당시 오세곤 교수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는 문체부 이OO 예술정책과장 등의 진술을 통하여 오세곤 위원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신청인 오세곤은 2014년 초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에 참여했으나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심의에서 임의로 배제되고 2015년 2~3월 경 연임 대상자에서 최종 배제되었다.

붙임 :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선정 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공22[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선정 배제 사건]

[신청인] 오세곤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오세곤(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에서 2015년 초 연극분과 심의위원장으로 호선되었으나 2015년 예술활동 증명 연극분과 심의회의 개최여부를 통보받지 못하는 등 심의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신청인은 연극분과 예술활동 증명 심의과정에서 배제된 것이 블랙리스트 때문인지 밝혀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 조사 신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제15차 전원위원회(2017.11.17.)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2015년 예술활동 증명 연극분과 심의위원 위촉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 밝히고자 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표-1]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문서명	작성자	입수일	비고
1	조사 신청서(2017. 10. 31.)	신청인 오세곤	2017. 10. 31.	신청인 작성
2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구성 보고 (2013. 3. 18.)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3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2013. 3. 18.)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에 첨부 문서
4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요청의 건 (2014. 3. 11.)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5	2014~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2017. 3. 11.)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에 붙임문서
6	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운영 계획(안) (2015. 1. 28.)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7	2014~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2015. 1. 28.)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위 문서에 붙임문서
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임기연장 및 심의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요청 (2015. 7. 16.)	예술인복지재단 이OO	2017. 12. 13.	
9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관련 보고 (2015. 9. 7.)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10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승인 요청 (2015. 9. 7.)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연번	문서명	작성자	입수일	비고
11	예술활동 증명 승인 요청 심의위원(연임, 신규) (2015. 9. 7.)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위 문서에 붙임문서
12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승인 요청 (2015. 11. 25.)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13	예술활동 증명 승인 요청 심의위원(연임, 신규) (2015. 11. 25.)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위 문서에 붙임문서
14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위원 승인 (2015. 12. 2.)	문체부 예술정책과 주무관 OOO	2017. 11. 11.	
15	예술활동 증명 승인 요청 심의위원 (연임, 신규) (2015. 12. 2.)	문체부 예술정책과 주무관 OOO	2017. 11. 11.	위 문서에 붙임문서
16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관련 보고 (2017. 1. 3.)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17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승인 요청 (2017. 4. 3.)	예술인복지재단 이OO	2017. 11. 11.	
18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2017. 4. 3.)	예술인복지재단 이OO	2017. 11. 11.	위 문서에 붙임문서
19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승인 및 통보 (2017. 4. 4.)	문체부 예술정책과 OOO	2017. 11. 11.	
20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2017. 4. 4.)	문체부 예술정책과 OOO	2017. 11. 11.	위 문서에 붙임문서
2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감사원 감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2017. 8. 24.)	감사원	2017. 8. 28.	감사원
2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6개 기관 공모사업 신청자 등 부당 지원·선정 배제 명세(2017. 6.)	감사원	2017. 8. 28.	감사원
23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左편향 대응책 보고 (2013. 9. 3.)	국정원 IO	2017. 10. 30.	
24	문예계 주요 左성향 인물 현황(249명)	국정원	2017. 10. 30.	
25	예술인복지법	국회	2018. 3. 6.	
26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	2018. 3. 6.	
27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문체부	2018. 3. 6.	
28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2014. 12. 19.)	문체부	2017. 11. 11.	
29	2014, 2015 예술활동 증명 심의자료 (2014년 1차~2015년 17차) (2014~2015)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2. 13.	엑셀파일 출력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오세곤	신청인	1회 진술조서(2017. 12. 6.)
2	김OO	예술인복지재단 과장	1회 진술조서(2018. 12. 7.)
3	김OO	예술인복지재단 과장	2회 진술조서(2018. 3. 16.)
4	OOO	예술인복지재단 사원	1회 진술조서(2018. 12. 14.)
5	강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1회 진술조서(2018. 1. 12.)
6	차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1회 진술조서(2018. 1. 30.)
7	이OO	문체부 예술정책과 과장	1회 진술조서(2018. 2. 1.)
8	박계배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전화면담조사(2018. 4. 11.)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재단은 2012년 11월 18일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서 2012년 11월 19일 설립되었다. 현재 조직 구성은 이사회, 대표, 운영본부(경영지원팀, 창작준비지원팀, 예술가치확산팀),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전략·홍보,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¹⁾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로서 예술활동 증명 사업, 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영화·방송·전통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패스 사업,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와 창작안전망구축을 구현하고자 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기업/기관 등)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와 협업을 기반한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대행하고 납부보험료를 50~90% 지원하고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사업,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²⁾

나. 예술인복지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1조) 제정(2011.11.17.)되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예술인복지법은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조에 따른 문화예술’(2조1항)로 정의하고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2조2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

한편 예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1조)으로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는데 동 시행령은 ‘예술활동의 증명’을 위한 세부 기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예술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2조4항)하고 있다.⁴⁾ 동법 시행규칙은 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2조)을 [별표]로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⁵⁾

다.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1)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예술인복지법 시행 규칙 2조의 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는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를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1항), 심의위원의 임기는 1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3) 예술인복지법.

4)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5)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년(2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상임이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3항).⁶⁾

(2)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지침과 분야별 분과위원회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 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술활동 증명 운영지침이 제정(2014.12.19)되었다.⁷⁾

예술활동 증명 운영지침에 따르면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체위원회로 운영된다(6조). 분과위원회는 ① 심의는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분과위원회는 3명에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문학, 미술(일반),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등 15개로 한다(7조).⁸⁾

2. 2013~2015 연극분과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가. 연극분과 심의위원 구성 경과

(1) 2013년 3월 18일 구성된 연극분과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는 이OO(연출가), 김OO(연출가), 길OO(배우), 손OO(제작기획자), 이OO(뮤지컬배우), 이OO(국립극단 프로듀서)으로 되어 있었다.⁹⁾ 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¹⁰⁾

(2) 2014년 3월 11일 경 심사위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예술인복지재단은 연극분과 예술활동 증명 기존 심의위원인 길OO(배우), 손OO(제작자), 이OO(교수), 이OO

6)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7) 예술활동 증명 운영지침 제1조.

8) 예술활동 증명 운영지침 제6조, 제7조.

9)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구성 보고, 2쪽. 2013. 3.18.

10)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1쪽. 2013. 3.18.

- (연출가)의 연임과 함께 신규 심의위원으로 오세곤(교수)를 위촉했다.¹¹⁾
- (3) 예술인복지재단 내부 문서인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관련 현황보고 (‘15.09.07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 따르면 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 7월 23일 심의위원 현황보고 및 위촉 승인요청 업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5년 1월 8일~8월 10일 기간 동안 총 8회의 심의위원 위촉 승인요청 업무메일을 문체부로 발송하였고, 문체부로부터 후보자 적격성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업무메일을 2회에 걸쳐 수령(2015년 1월 8일, 1월22일)하였다.¹²⁾
- (4) 예술인복지재단은 2015년 1월 28일 현재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 계획(안)에서도 연극분과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으로 길OO(배우), 손OO(제작자), 이OO(교수), 이OO(연출가)의 연임승인과 함께 오세곤(교수)의 위촉 승인을 문체부에 요청하였다.¹³⁾
- (5) 예술인복지재단은 2015년 9월 8일 문체부에 예술활동 증명 연극분과 심의위원으로 길OO(연극배우), 손OO(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의 연임승인과 함께 김OO(전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이사장), 정OO(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정OO(아이엠컬처 대표)을 위촉 승인 요청하였다.¹⁴⁾ 이후 문체부로부터 영화 분야 손정우 등 모두 4명을 제외한 공문을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손정우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에 대한 위촉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같은 제목으로 다시 2015년 11월 26일 경 문체부에 발송하였다.¹⁵⁾
- (6) 문체부는 2014. 3. 경 기존 심의위원 임기가 만료한 뒤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 2일 경에서야 손OO 등 4명을 제외한 연임 및 신규 심의위원에 대한 위촉 승인을 하였다. 예술활동 증명 연극분과 심의위원으로는 길OO(연극배우), 손OO(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김OO(전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이사장), 정OO(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정OO(아이엠컬처 대표) 등 5명을 위촉 승인하였다.¹⁶⁾

11)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요청의 건,붙임 1, 2014~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1쪽. 2014. 3.11.

12) 김OO,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관련 현황보고」, 1쪽. 2015. 9. 7.

13) 「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 계획(안)」, 붙임,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구성표, 1쪽. 2015. 1.28.

14)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승인 요청」, 붙임, 예술활동 증명 승인 요청 심의위원(연임, 신규) 1쪽, 2015. 9. 8.

15) 김OO 1회 진술조서, 8쪽. 2017.12. 7.

16)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위원 승인. 2015.12. 2.

(7) 문체부가 2014년 12월 경부터 2015년 12월 경까지 심의위원 연임 승인 및 신규 심의위원 위촉 승인을 하지 않는 동안, 예술인복지재단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심의 위원들과 위촉승인 요청을 했지만 문체부 승인을 받지 못한 위촉대상 심의위원을 모두 사실상 심의위원으로 인정하고 심의를 진행하였다.

나. 오세곤 위원의 예술활동 증명 심의 참여 현황

오세곤 위원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전달받고 2014 년도에는 5차~8차 예술활동 증명 심의과정에 참여하였다. 2015년에는 2차 심의 참여하였고 1차, 3차~17차에는 심의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¹⁷⁾ 16차~17차 심의는 2015 년 12월 2일 신규 심의위원 위촉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개최된 것이기 때문에 오세곤 위원은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¹⁸⁾ 오세곤 위원은 연극분과 심의과정에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오세곤 위원에 대하여 문체부나 예술인복지재단의 위촉 승인은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체부가 오세곤 위원을 예술활동 증명 연극분과 심의위원으로 정식으로 다시 위촉한 것은 2017년 4월 3일이었다.¹⁹⁾

3. 오세곤 위원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에서 배제 되었는지 여부

가. 문건 등 자료조사

(1)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승인 절차

예술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이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상임이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²⁰⁾

17) 2014~2015 예술활동 증명 심의결과(엑셀파일 출력).

18) 2014~2015 심사결과표.

19)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승인 및 통보.

20) 예술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2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상임이사가 위촉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26]

(2) 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 계획(안)

2015년 1월 28일 자 예술인복지재단 내부 결재 문서인 「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연극 분야 ‘2014~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후보는 길OO, 손OO, 오세곤, 이OO, 이OO 등 5명으로 되어 있다.²¹⁾

(3)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관련 현황보고

예술인복지재단 김OO 과장이 2015년 9월 7일 경 작성하여 박계배 예술인복지재단 대표에게 보고한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관련 현황보고」 문서에 따르면, 예술인복지재단은 2015년 1월 8일~8월 10일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심의위원 위촉 승인을 요청하는 업무메일을 문체부에 발송하였고, 문체부는 ‘후보자 적격성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업무 메일을 2회(2015년 1월 8일, 1월 22일)에 걸쳐 예술인복지재단에 발송하였다.²²⁾

(4)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국정원은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문서에서, 2013년 9월 3일 경 문화예술계의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관련)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연극계 인사들이 2013년 7월 15일 경 대학로 노을소극장에 모여 시국선언을 하였다고 동향 보고 하면서 시국선언문 ‘진실 앞에 무릎을 꿇어라’를 첨부하였다. 이 시국 선언문은 국정원의

21) 김OO, ‘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 계획(안)’, 2015. 1. 28.

22) 김OO,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관련 현황보고, 1쪽. 2015. 9. 7.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권의 국가기밀문서 대선 이용 등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사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시국 선언문에 오세곤 위원이 공동명의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³⁾

(5)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한편 국정원이 작성한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문서에는 연번 89번에 연극 분야 오세곤 위원이 2010년 10월 경 노나메기재단 설립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특이사항'과 함께 'B'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²⁴⁾

89	연극	오세곤	10.10 노나메기재단 설립 추진위원	B
----	----	-----	----------------------	---

국정원 적폐청산 T/F,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13쪽. 2017. 10. 30.

붙임 3. 연극계 시국선언

장소 및 일시 : 2013.7.25, 대학로 노을소극장

공동명의 : 기국서, 김태웅, 박상현, 오세곤, 오탈영, 윤한솔, 이성열, 이해성, 이호성, 전용환, 채승훈, 최종원

시국선언 내용

- 진실 앞에 부끄름을 꿰어라 -

우리는 지금 국정원의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대화록 공개, 그리고 여권의 국가기밀문서 대선 이용 등의 사실을 보며, 늘 진실의 문제와 마주하는 연극인으로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귀중한 한표를 행사한 민주시민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13쪽. 2017. 1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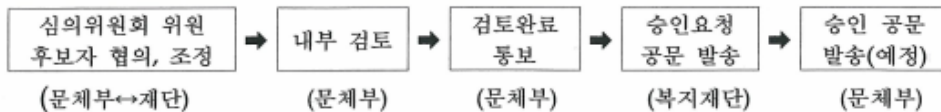
23)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4-5쪽. 2013. 9. 3.

24)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4쪽.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위촉 관련 현황보고

'15.09.07 예술인복지지원센터

□ 업무진행(Process)



□ 진행경과

-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③항에 의거 심의위원 임기만료 7개월 전부터 문체부와 재단 간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 협의, 조정
 - 심의위원 현황보고 및 위촉 승인요청 업무메일 발송(2014년 7월 23일)
 - 총 8회의 심의위원 위촉 승인요청 업무메일 문체부에 발송, 협의(2015년 1월 8일~8월 10일)
- 문체부로부터 후보자 적격성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업무메일을 2회에 걸쳐 수령(2015년 1월 8일, 1월 22일)
 - 임기만료 위원의 경우 문체부의 위촉승인 전까지 자동연임으로 간주하여 심의 진행 가능하다는 문체부 사무관 의견 확인(2015년 1월 업무보고 시)
- 임기만료 심의위원 여부, 신규 심의위원 위촉 필요 등 주요 현안사항으로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 보고 조치함
- 임기만료 된 기존 심의위원회 역할 및 법률적 효력에 관하여 법률 검토 완료, 문체부 전달(2015년 7월 16일)
- 문체부로부터 적격성 검토 완료된 심의위원 명단 수령 후 심의위원 위촉 승인 요청 공문 문체부에 발송(예정)
- 문체부의 심의위원 승인 공문 수령(예정)

□ 향후 검토사항

- 전문성 갖춘 심의위원 후보군 확보 및 데이터베이스(DB)화 방안 마련
 - 문화예술 협·단체 및 지자체 추천 등 기준, 근거 마련
-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심의위원의 임기연장 및 최종 승인 전까지 자동연장 등 역할 명기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1) 신청인 오세곤의 진술

이 사건 신청인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봄 이후 예술활동 증명 심의에 참여하여 달라 하는 연락을 받지 못하여서 이상하게 느끼던 중 2015년 연말 경 다른 예술 장르 심의위원들을 만나, 다른 장르의 경우 심의가 자주 열렸다는 얘기를 듣고 이OO 위원을 통해서 예술인복지재단에 문의한 결과 이OO 위원은 임기가 끝난 뒤 재위촉 되지 않은 것이고 자신은 처음부터 위촉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²⁵⁾

오세곤 신청인은 또 2015년 초 예술활동 증명 연극분과 심의위원들(오세곤, 이OO, 손OO, 이OO 등)이 모여서 호선에 따라서 자신이 연극분과 심의위원장이 되었고 문체부 예술정책과의 요청으로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 지침’까지 직접 만들었는데, 연극분과 심의위원장이었던 자신에게 특별한 연락도 없이 심의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부 심사위원으로만 심의를 진행한 것은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⁶⁾

오세곤 위원은 또 ‘심의 실행과 관련하여 하루 이틀에서 며칠까지 늦은 적은 있지만 그에 대한 지적이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양해되는 분위기였다. 바빠서 못하겠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설령 내가 바빠서 힘들다는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장을 아무 고지도 없이 해촉한다는 것은 상식에 심하게 어긋난다. 이에 대한 (예술인복지재단 내부의) 의논과 결정 과정이 없을 리 없다’고 진술하였다.²⁷⁾

신청인 오세곤 위원은,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 지침 ‘7조(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원칙적으로 분과위원회 3명에서 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을 뿐²⁸⁾ 심의위원 풀 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김OO 과장이 말하는 ‘심의위원 풀 제’는 법을 위반하여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⁹⁾

25) 오세곤 1회 진술 조서, 5쪽. 2017.12. 6.

26) 오세곤 1회 진술조서, 5-6쪽. 2017.12. 6.

27) 김OO 1회 진술조서, 8-9쪽. 2017.12. 7.

28) 실제로는 3명~10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 오세곤 1회 진술조서, 6쪽. 2017.12. 6.

(2)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김OO 예술인복지재단 과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오세곤 위원이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오세곤 위원이 대학교수로서 다른 일정으로 평소 심의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예술활동 증명 심의 결과 제출도 늦어지는 등의 이유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⁰⁾

참고인 김OO 과장은 또 ‘오세곤 위원에게 심의를 맡기지 않았던 것은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문체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사항은 전혀 없고, 이는 오세곤 선생님의 오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³¹⁾

참고인 김OO 예술인복지재단 과장은 2회 조사에서 2015년 예술활동 증명 1차, 3차~15차 심의 회차 동안 오세곤 위원에게 예술활동 증명 심의 과정에 참여해 달라고 연락하지 않았던 이유가 더 있었는지에 관하여, 2014년 10월 22일 박계배 대표가 재단 대표로 취임한 이후 자신에게 “오세곤 교수가 심재찬 대표가 사임한 이후 본인이 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재단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재단 입장이 곤란해지기도 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박계배 대표의 그런 발언을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심의과정에 오세곤 위원을 참여시키지 말라는 암묵적인 지시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²⁾

김OO 과장은 또 박계배 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주간업무회의 석상에서 누군가에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명단을 청와대·국정원에서 검증하고 있다더라고 말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³³⁾

김OO 과장은 2015년 연극분과 심의에서 심의위원 5명 중 3명(손OO, 길OO, 이OO)에게만 연락하여 예술활동 증명 심의를 진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3명~5명의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운영지침 제7조(분과위원회) ①항을 3명~5명을 심의위원 구성 풀(pool)로 해석하였고, 5명 중 과반수인 3명이 출석하면 분과 심의위원회가 성립되고 그 중에서 과반수인 2명이 승인을 하면 예술활동 증명 승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³⁴⁾

30) 김OO 1회 진술조서, 8-9쪽. 2017.12. 7.

31) 김OO 1회 진술조서, 9쪽. 2017.12. 7.

32) 김OO 2회 진술조서, 4-5쪽. 2018. 3. 16.

33) 김OO 1회 진술조서, 7쪽. 2017.12. 7.

34) 김OO 1회 진술조서, 8쪽. 2017.12. 7.

(3) 참고인 000의 진술

참고인 000 예술인복지재단 사원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4년 말 경 김OO 과장에게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2014, 2015 심의 결과표’를 살펴본 후 ‘정확한 사실 관계는 모르겠지만 객관적 자료로 보아서는 배제된 것으로 짐작됩니다.’라고 진술하고,³⁵⁾ 2014년에 오세곤 심의위원이 학교 일로 바쁘거나 심의 피드백이 늦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심의위원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³⁶⁾

000 사원은, 연극분과 심의위원 5인 중 3인에게만 연락하여 심의를 진행한 것이 연극 분야에서만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운영 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³⁷⁾ 객관적 자료(‘2014, 2015 심의 결과표’)로 보아서 오세곤 위원이 배제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진술하였다.³⁸⁾

(4) 참고인 강OO의 진술

참고인 강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4.2월 경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해 달라는 복지재단의 요청에 대하여 계속하여 기다리라고 하면서 임기가 끝난 기존 심의위원들로 계속하여 심의를 진행하라고 예술인복지재단에 지시한 이유에 대하여 국정원 검증을 받는데 시간이 계속 걸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³⁹⁾

강OO 사무관은 또 ‘오세곤 위원은 연극 분과 위원장이었고, 규정대로라면 직원 임의대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⁴⁰⁾

강OO 사무관은 또 아마 박계배 대표가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오세곤 위원을 배제하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⁴¹⁾

35) 000 1회 진술조서, 3쪽. 2017.12.14.

36) 000 1회 진술조서, 4-5쪽. 2017.12.14.

37) 000 1회 진술조서, 5쪽. 2017.12.14.

38) 000 1회 진술조서, 3쪽. 2017.12.14.

39) 강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8. 1. 12.

40) 강OO 1회 진술조서, 9쪽. 2018. 1. 12.

41) 강OO 1회 진술조사, 9쪽. 2018. 1.12.

(5) 참고인 차OO의 진술

차OO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12월 2일 경 새로운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승인이 있기까지 오세곤 위원이 2015년 1차, 3차~15차 심의과정에 위촉되지 못한 사실과 관련하여, '예술정책과 안에서 오세곤 위원과는 예술활동 증명 심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다만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에게 제가 이러한 내용을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⁴²⁾

(6) 참고인 이OO의 진술

오세곤 위원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 대상이었던지와 관련하여, 참고인 문체부 이OO 예술정책과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과정에서 오세곤 위원이 위촉 배제된 경위는 모르지만 그 당시 오세곤 교수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고 진술하였다.⁴³⁾

(7) 참고인 박계배의 진술

참고인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박계배는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2~3월 경 기존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심사위원들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였고, 김OO 팀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오세곤 위원이 일정이 바쁘고 피드백도 늦어서 팀 입장에서 진행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기에 그 점을 감안하여 오세곤 위원을 심의위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오세곤 위원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⁴⁴⁾

한편 박계배 대표는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승인이 늦어졌던 이유에 대하여는 2015년 2~3월 이후 문체부에 위촉 승인을 요청하면 문체부에서 특정인을 배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몇 차례에 걸쳐 계속해서 늦어지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⁴⁵⁾

42) 차OO 1회 진술조서, 6쪽. 2018. 1. 30.

43) 이OO 1회 진술조서, 25쪽. 2018. 2. 1.

44) 박계배, 전화면담조사, 1쪽. 2018. 4. 11.

45) 박계배, 전화면담조사, 1쪽. 2018. 4. 11.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오세곤 위원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에서 배제 되었는지 여부

1) 다음의 사실을 통하여 오세곤 위원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대상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오세곤 위원은 국정원이 작성한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문서가 첨부하고 있는, 2013년 7월 15일 경 대학로 노을소극장에 연극계 인사들이 모여 시국선언을 하였던 ‘진실 앞에 무릎을 꿇어라’ 선언문에 공동명의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있는 점,⁴⁶⁾ 국정원이 작성한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문서 연번 89번에 연극 분야 오세곤 위원이 2010년 10월 경 노나메기재단 설립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특이사항’과 함께 ‘B’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⁴⁷⁾ 그 당시 오세곤 교수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는 문체부 이○○ 예술정책과장의 진술,⁴⁸⁾ 2015년 오세곤 위원이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하여, 문체부 예술정책과 안에서 오세곤 위원과는 예술활동 증명 심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차○○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의 진술⁴⁹⁾ 등을 통해서도 오세곤 위원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다음의 사실을 통하여 오세곤 위원이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승인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15년 1월 28일 자 예술인복지재단 내부 결재 문서인 「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 계획(안)」에서 여전히 연극 분야 ‘2014~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후보로 길○○, 손○○, 이○○, 이○○과 함께 오세곤 위원을 거론하고 있는 점,⁵⁰⁾ 참고인 김○○

46)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4-5쪽. 2013. 9. 3.

47)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4쪽.

48) 이○○ 1회 진술조서, 25쪽. 2018. 2. 1.

49) 차○○ 1회 진술조서, 6쪽. 2018. 1.30.

과장이 2014년 10월 22일 경 재단 대표로 새로 취임한 박계배 대표로부터 예술활동 증명 심의과정에 오세곤 위원을 참여시키지 말라는 암묵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⁵¹⁾ 참고인 이OO 예술정책과장이 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과정에서 오세곤 위원에 대한 배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그 당시 오세곤 교수가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⁵²⁾ 참고인 차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이 ‘예술정책과 안에서 오세곤 위원과는 예술활동 증명 심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⁵³⁾ 참고인 OOO 예술인복지재단 사원이 ‘2014, 2015 심의 결과표’를 살펴본 후 ‘정확한 사실 관계는 모르겠지만 객관적 자료로 보아서는 배제된 것으로 짐작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⁵⁴⁾ 예술인복지재단 김OO 과장이 2015년 9월 7일 경 작성하여 박계배 예술인복지재단 대표에게 보고한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관련 현황보고’ 문서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이 2015년 1월 8일~8월 10일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심의위원 위촉 승인을 요청하는 업무메일을 문체부에 발송하고, 문체부가 ‘후보자 적격성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업무 메일을 2회(2015년 1월 8일, 1월 22일)에 걸쳐 예술인복지재단에 발송하였다는 점,⁵⁵⁾ 예술인복지재단이 2015년 9월 8일 문체부에 예술활동 증명 연극분과 심의위원으로 길OO(연극배우), 손OO(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김OO(전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이사장), 정OO(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정OO(아이엠컬처 대표)을 위촉 승인 요청하면서 1년 9개월 동안 승인대상자였던 오세곤 위원을 명단에서 제외한 점,⁵⁶⁾ 참고인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박계배가 2015년 2~3월 경 기존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심사위원들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김OO 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세곤 위원을 제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⁵⁷⁾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오세곤 위원은 2014년 초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2015년 초 심사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배제되

50) 김OO, 「2015년 예술활동 증명 심의 운영 계획(안)」, 2015. 1. 28.

51) 김OO 2회 진술조서, 4-5쪽. 2018. 3. 16.

52) 이OO 1회 진술조서, 25쪽. 2018. 2. 1.

53) 차OO 1회 진술조서, 6쪽. 2018. 1. 30.

54) OOO 1회 진술조서, 3쪽. 2017.12.14.

55) 김OO,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위촉 관련 현황보고, 1쪽. 2015. 9. 7.

56)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승인 요청, 불임, 예술활동 증명 승인 요청 심의위원 (연임, 신규) 1쪽, 2015. 9. 8.

57) 박계배, 전화면담조사, 1쪽. 2018. 4. 11.

고 이후 연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혹은 쟁점

가.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위촉 승인이 늦어진 이유

2014년 12월 26일 경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 심의위원 선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1년 가량이나 지난 2015년 12월 2일이나 되어서야 심사위원 위촉 승인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국정원 검증이 늦어져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나. 예술활동 증명 운영 지침 위반 여부

예술인복지재단은 2015년 3차~15차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운영지침 제7조(분과위원회) ①항을 심의위원 구성 풀(pool)로 해석하였고, 연극 분야 심의위원 5명을 심의위원 풀로 해석한 후 5명의 심의위원에게 모두 연락하는 대신 동일한 심의위원 3명에게만 연락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는데 이것이 예술활동 증명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7

‘수요자맞춤형교육사업’ 심사위원 명단 제출 거부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고사직 강요 사건



37

‘수요자맞춤형교육사업’ 심사위원 명단 제출 거부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고사직 강요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공26[‘수요자맞춤형교육사업’ 심사위원 명단 제출 거부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고사직 강요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조사 취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신청인 2013년 8월 말 경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문체부로부터 ‘수요자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사업 심사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 받고, ‘그것이 왜 필요한가?’ 문의하고 명단을 즉각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후 문체부 김OO 예술정책과장으로부터 심재찬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등과 함께 호출을 받은 뒤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수요자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사업에서 심사위원 명단 제출 요구가 블랙리스트와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심재찬 대표에 대한 권고사직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조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진상규명하지 못하였다.

붙임 : [‘수요자맞춤형교육사업’ 심사위원 명단 제출 거부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고사직 강요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공26[‘수요자맞춤형교육사업’ 심사위원 명단 제출 거부에 따른 한국 예술인복지재단 권고사직 강요 사건]

[신청인] 김지우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은 2013년 8월 말 경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직원이었는데 문체부로부터 ‘수요자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사업 심사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 받고, ‘그것이 왜 필요한가?’ 문의하고 명단을 즉각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후 문체부 김OO 예술정책과장으로부터 심재찬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등과 함께 호출을 받은 뒤 권고사직을 당했다. 신청인이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 경위가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의거, 2017년 11월 17일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위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신청인 김지우 예술인복지재단 직원이 권고사직을 당한 경위가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는지 밝히기 위하여 (1) 문체부가 ‘수요자맞춤형교육사업’에서 심사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블랙리스트와 관계가 있는지 밝히고, (2) 심재찬 대표에 대한 사직 강요나 김지우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블랙리스트와 관계가 있는지도 밝히고자 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20건에 대하여 입수 및 검토함.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조사 신청서(2017. 11. 9.)	신청인	2017. 11. 9.	
2	2013년 9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나오기까지에 대한 진술서(2017.11. 8.)	예술인복지재단	2017. 11. 9.	
3	2013년도 하반기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안)(2017. 8. 6)	예술인복지재단	2017. 11. 17.	
4	2013년도 하반기 수요자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시범) 기본계획(안) (2013. 8. 5)	예술인복지재단	2017. 11. 17.	
5	2013년 하반기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예술에너지를 총동하는 우리만의 노하우』 참여 예술인 모집 공고	예술인복지재단	2017. 11. 17.	
6	『예술에너지를 총동하는 우리만의 노하우』(1편) 예술인 스스로 기획하는 예술강화 프로그램 신청서	예술인복지재단	2017. 11. 17.	
7	2013년도 하반기 수요자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사업안내	예술인복지재단	2017. 11. 17.	
8	2013년도 하반기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신청접수 결과 보고(2013. 8.28)	예술인복지재단	2017. 11. 17.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9	2013년도 하반기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신청접수 결과 보고(2013. 8.28)	예술인복지재단	2017. 11. 17.	
10	<1편> 예술인 스스로 기획하는 예술강화 프로그램 (2013. 8.28)	예술인복지재단	2017. 11. 17.	
11	<2편> 예술단체가 기획하는 직업예술인 되기 프로그램(2013.8.28.)	예술인복지재단	2017. 11. 17.	
12	<3편> 예술공간이 기획하는 예술 연결 프로그램 (2013. 8.28)	예술인복지재단 사원	2017. 11. 17.	
13	2013년도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심의결과 보고 및 결과발표의 건(2013. 9. 2)	예술인복지재단	2017. 11. 17.	
14	2013년도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심의결과 보고(2013. 9. 2)	예술인복지재단	2017. 11. 17.	
15	2013년도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결과 발표(2013. 9. 2)	예술인복지재단	2017. 11. 17.	
16	2013년도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선정 결과 공고(2013. 9. 2)	예술인복지재단	2017. 11. 17.	
17	2013년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약정서	예술인복지재단	2017. 11. 17.	
18	2013년도 수요자맞춤형사업 결과보고 (2014. 8.14)	예술인복지재단	2017. 11. 17.	
19	2013년도 수요자맞춤형 사업 결과보고서 (2014. 8. 8)	복지사업팀	2017. 11. 17.	
20	2013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 회의록(2013년11월1일)(2013. 11. 1.)	국회사무처	2017. 11. 1.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6인에 대하여 6회에 걸쳐 조사함.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김지우	신청인	1회 진술조서, (2017. 11. 9.)
2	심재찬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1회 진술조서, (2017. 11. 11.)
3	OOO	예술인복지재단 대리	1회 진술조서, (2017. 12. 7.)
4	강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1회 진술조서, (2017. 1. 12.)
5	O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주무관	사실확인서(2018. 3. 6.)
6	김OO	문체부 예술국장(2013)	사실확인서(2018. 4. 17.)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재단은 2012년 11월 18일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서 2012년 11월 19일 설립되었다. 현재 조직 구성은 이사회, 대표, 운영본부(경영지원팀, 창작준비지원팀, 예술가치확산팀),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전략·홍보,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¹⁾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로서 예술활동증명 사업, 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영화·방송·전통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패스 사업,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와 창작안전망구축을 구현하고자 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기업/기관 등)와 협업을 기반한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대행하고 납부보험료를 50~90% 지원하고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사업,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²⁾

나. 수요자맞춤형교육사업

(1) 수요자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요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은 2013년 하반기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예술 에너지를 충동하는 우리만의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공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자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예술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역량 제공'을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창작 및 실연 예술인, 행정 및 기술 스태프'를 대상으로 하여 2013년 8월~12월(5개월) 동안 총 사업예산: 2,844,500,000원으로 계획되었다.³⁾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요⁴⁾는 다음과 같다.

- 사업명: 수요자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 세부사업: 예술 에너지를 총동하는 우리만의 노하우(신규 시범사업)
 - 〈1편〉 예술인 스스로 기획하는 예술강화 프로그램
 - 〈2편〉 예술단체가 기획하는 직업예술인 되기 프로그램
 - 〈3편〉 예술공간이 기획하는 예술 연결 프로그램
- 사업목적: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공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자체 교육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예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역량 제공
- 사업기간: 2013.8월~12월 (5개월)
- 사업대상: 창작, 실연예술인 및 행정, 기술스태프 (예비, 청년, 중견, 원로예술인)
- 사업예산: 2,844,500,000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내용	운영
예술인 스스로 기획하는 예술강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5인 이상의 예술인 그룹 - 내용: 자기 주제(자유형) 또는 제시 주제(프로젝트형) - 기간: 최소 2개월~최대 4개월 - 지원: 최대 2천만원 - 우대: 강좌형 교육 참여자, 원로예술인 포함 그룹, 협동조합 준비 그룹,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그룹 	공모
예술단체가 기획하는 직업예술인 되기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 장르) 예술단체-예비/청년예술인 - 내용: 예술단체(연합회)에서 예비/청년예술인 대상 현장훈련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기간: 최대 4개월 - 지원: 최대 5천만원 - 우대: 자체 고용 가능 단체 	공모
예술공간이 기획하는 예술 연결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창작, 발표, 유통, 교육을 위한 예술공간-예술인 - 내용: 예술공간과 교육프로그램 매칭 또는 자체 기획 - 기간: 최대 4개월 - 지원: 최대 5천만원 - 우대: 운영을 위한 기획자, 기술스텝 등의 고용 가능 공간 창작디딤돌사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연계 가능 공간 	공모

3) 김지우, 「2013년도 하반기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안)」, 1쪽. 2013. 8. 6.

4) 김지우, 「2013년도 하반기 수요자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시범) 기본계획(안)」, 2쪽.

(2) 신청접수 및 심의 결과

신청접수 및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⁵⁾ <1편> 334건, <2편> 205건, <3편> 123건 등 총 662건 신청이 있었고 이 중 <1편> 44건, <2편> 40건, <3편> 23건 등 총 107건이 지원 선정되었다.

가. 심의결과

- 심의일: 2013. 8.29(목)~30(금)
- 신청현황: 총 662건
 - <1편> 334건, <2편> 205건, <3편> 123건
- 심의기준: 붙임서류 참조
 - 심의위원별로 5단계 채점하여 점수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선정규모: 총 107건
 - 사업예산 및 지원신청규모, 지원순위에 따라 선정

구분	예술인 스스로 기획하는 예술강화 프로그램	예술단체가 기획하는 직업예술인 되기 프로그램	예술공간이 기획하는 예술 연결 프로그램	합계
신청 건수	334건	205건	123건	662
선정 건수	44건	40건	23건	107
선정 비율	14%	20%	19%	17%

- ※ 지역별, 장르별 세부현황 붙임서류 참조
- ※ 지원결정예산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조정 예정

나. 결과발표 및 향후 일정

- 발표일: 2013. 9. 2(월) 홈페이지 게시 및 이메일 발송
- 약정체결: 2013. 9. 6(금) 예정
- 1차 지원금 교부: 2013. 9월 2~3주차 예정

5) 김지우, 「2013년도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심의결과 보고 및 결과발표의 건」, 1쪽. 2013. 9. 2.

(3) 심의위원

(가) 심의위원은 다음과 같은데⁶⁾ <1편> 심사위원은 고OO, 김OO, 우OO, 서OO, 양OO였고, <2편>, <3편> 심사위원은 고OO, 이OO, 정OO, 김OO, 나OO이었다.

29일(목) - 1편	30일(금) - 2, 3편
- 고OO(문학평론가)	- 고OO(문학평론가)
- 김OO(아시아문화전당 예술감독)	- 이OO(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우OO(LIG 기획실장)	- 정OO(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 서OO(프리랜서 기획자-품의오케스트라 등)	- 김OO(서울산업대 교수)
- 양OO(경기문화재단)	- 나OO(음악평론가)

(나) 심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⁷⁾ 행정심의와 심의위원 심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심의 방법 및 기준

- 행정심의
 - 예술활동증명신청 여부, 상반기 강좌형 교육 참여 여부, 창작디딤돌지원사업 참여 여부 등 확인
 - 지원자격 적격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행정심의 결과 심의위원 전달
- 심의위원 심의: 심의위원별 평점 및 평균 평점 산출
 - 지원신청서 내용 검토 후 심의 기준에 의거 심의(서류심의)
 - 심의위원별 채점 결과 다득점 순으로 종합토의
 - 심의평점 및 장르별, 지역별 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토의를 통해 지원대상 확정

6) 김지우, 「2013년도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심의결과 보고」, 1쪽. 2013. 9. 2.

7) 김지우, 「2013년도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심의결과 보고」, 1쪽. 2013. 9. 2.

2. ‘수요자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사업에서 심사위원 명단 제출 요구가 블랙리스트와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가. 문건 등 자료조사

(1) 프로그램 선정 결과

2013년 9월 2일 선정 발표된 개인 혹은 단체 중에서 이후 블랙리스트로 확인된 개인 혹은 단체가 선정된 사례를 찾아보면 (1) 예술인 스스로 기획하는 예술강화 프로그램 선정 결과 중에서는 룰루랄라협동조합, 드림플레이가 보이고⁸⁾, (2) 예술단체가 기획하는 직업예술인 되기 프로그램 선정 결과 중에서는 (3)민족극운동협의회, 백수광부, 극단 산,⁹⁾ 서울연극협회,¹⁰⁾ (사)우리만화연대¹¹⁾ 등이 보이고, (다) 예술공간이 기획하는 예술 연결 프로그램 선정 결과에서는 벽수골소극장이 포함되어 있다.¹²⁾

(2)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김OO 발언 녹취록

2013년 9월 5일 경 서계동 문체부 사무실에서 김OO 예술정책과장은 심재찬 예술인 복지재단 대표, 김지우 예술인복지재단 직원 등을 불러놓고 “찍어서 자르겠다” 등 발언을 하였는데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 누군가가 김OO 과장의 발언을 녹음하여 뉴스타파에 제보하였고, 뉴스타파는 2013년 10월 29일 “찍어서 자르겠다”는 제목으로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위원회가 전문을 입수하여 분석한 내용 중에서 수요자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심사위원 제출 요구와 블랙리스트가 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김OO 예술정책과장은 수요자맞춤형교육지원 프로그램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어느 심사에서도나 정보기관이나 ‘위’ 등 외부에서 (심사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이

8) 예술인 스스로 기획하는 예술강화 프로그램 선정 결과, 1-3쪽. 2013. 9. 2. 극단 드림플레이는 리스트-’16.9.27.현재, 4쪽에서 확인된다.

9) 예술단체가 기획하는 직업예술인 되기 프로그램 선정 결과, 1-4쪽. 2013. 9. 2. 민족극운동협의회, 극단 백수광부, 극단 산은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12쪽에 등재되어 있다.

10) 서울연극협회는 국정원이 작성한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단체 현황’ 문서에서 연번 6번에 등재되어 있다.

11) 우리만화연대는 국정원이 작성한 2014년 3월 17일 작성한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 지원사업’ 폐지 방침’ 문서에서 좌성향 단체로 거론되고 있다.

12) 예술공간이 기획하는 예술 연결 프로그램 선정 결과, 2쪽. 2013. 9. 2. 벽수골 소극장은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21쪽에 등재되어 있다.

사건 관련 수요자맞춤형교육지원 프로그램 사업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장관과 독대를 하는 사이여서 제대로 소명을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이 장관에게 민원을 넣을 수도 있다고 말 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김OO : 지금. 장관님이 매일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게 “야, 이거 좀 개편했어? 이거 뭐 했어?” 계속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 사무관도 그렇고 돌아가는 걸 몰라요. 그리고 **저희 여기 있다 보면 외부에서 파악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거든요.** 무슨 심사든지. 그런데 저는 심사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그분이 하도 O소리를 해서 어떤 어떤 기준들이... 그때 지어냈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점수가 차이가 나서 이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안 물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심사에 개입하면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좀 답변할 거리는 주셔야 되는데, (...) 그게 정말 저희도 하다 보면 외부, 예를 들어서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를 “모릅니다.”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서 조금의 소스가 있으면 “이러이러 해서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심사 때 “바꾸세요.” 그렇게 안 가요. 물론 피치 못해서 “이것 좀 고려해 주세요.” 뭐 **저하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런 건데, “왜 문화부에서 이런 거 알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¹³⁾ (중략) 우리도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때 **“여기 이 업체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사실은 제가 무슨 호기심이 많아서 그 업체를 확인하겠습니까? **정보기관이나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결국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정확하게 해명을 안 해주면 개네들이 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관님하고 독대를 하는 사이니까. 그런데 직원들은 그런 내막 하나도 모르고 “왜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느냐?” 이딴 식으로 저희한테 치면 안 되죠.¹⁴⁾ (중략) 저희가 자료를 악용을 하거나 복지재단에 해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제가 지금 까놓고 얘기를 하지만 **정보기관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안 줄 수 없고, 그렇다고 정보기관이라고 말씀 드릴 수도 없어요.**¹⁵⁾

(3) 2013년 11월 1일 국회 교문위 회의록

문체부 장관 유진룡은 2013년 11월 1일 열린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김OO이 수요자맞춤형교육지원 프로그램 심사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정부 혹은 국정원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⁶⁾

13) 김OO 발언 녹취록, 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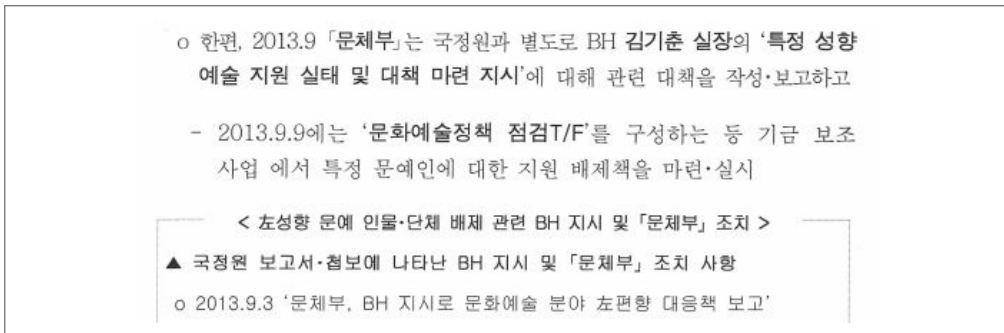
14) 김OO 발언 녹취록, 7쪽.

15) 김OO 발언 녹취록, 10쪽.

16)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회의록 34쪽. 2013. 11. 11.

(4) 문체부, 청와대 지시로 문화예술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국정원 보고서·첩보에 나타난 청와대 지시 및 문체부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문체부 2013. 9. 3. 청와대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문화예술분야 좌편향 대응책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¹⁷⁾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1) 신청인 김지우의 진술

신청인 김지우는 위원회 조사에서 2017년 11월 8일 임의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2013년 8월 말경 문체부 예술정책과 000 주무관으로부터 수요자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고 문체부가 심사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를 묻고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는데, 000 주무관은 전화를 끊고 김OO 복지사업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심사위원 명단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지 왜 주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다음 주인 2013년 9월 5일 경 문체부 예술정책과는 예술인복지재단 심재찬 대표, 김지우 직원, 김OO 복지사업팀장, 유OO 기획관리팀장, 000 사원을 지정하여 서계동 문체부 사무실로 방문하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2013년 9월 5일 경 당일 문체부에서는 000 예술정책과장, 강OO 사무관, 000 주무관이 서계동 문체부 사무실에 출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⁸⁾

17) 국정원 적폐청산 T/F,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2쪽. 2017.10.30.

18) 김지우, 2013년 9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나오기까지에 대한 진술서, 2쪽. 2017. 11. 8.

(2) 참고인 심재찬의 진술

참고인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심재찬은 위원회 조사에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000 주무관이 예술인복지재단 직원 김지우에게 전화를 걸어 수요자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 지원사업 심사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이 왜 필요한지 물어보고 즉각 제출하지 않자 김00 복지사업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하였던 사실과 관련하여,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김00이 자신과 직원들을 2013년 9월 서계동 문체부 사무실에 불러 ‘찍어서 자르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언급한, 수요자맞춤형 교육 지원 프로그램 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후 장관에게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현재까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⁹⁾

(3) 참고인 000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주무관 000은 2018년 3월 6일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가) 2013년 9월 2일 경 결과 발표되었던 예술인복지재단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특정 심사위원이나 사업 신청자에 대하여 배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나) 2013년 9월 경 서계동 문체부 사무실에서 있었던 회의는 예술인복지사업 추진에 관련된 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⁰⁾

(4) 참고인 강00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강00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3년 8월 말경 000 주무관이 예술인복지재단 김지우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요자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사업’의 심사 위원 명단 등을 요구하자 김지우 직원이 그것을 왜 달라고 하느냐는 이유를 물어서 김00 복지사업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심사위원 명단을 달라고 하면 쥐야지, 왜 안 주냐’고 한 사실에 대하여,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000 주무관이 자신에게 그러한 내용을 보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¹⁾

19) 심재찬 1회 진술조서, 3쪽. 2017. 1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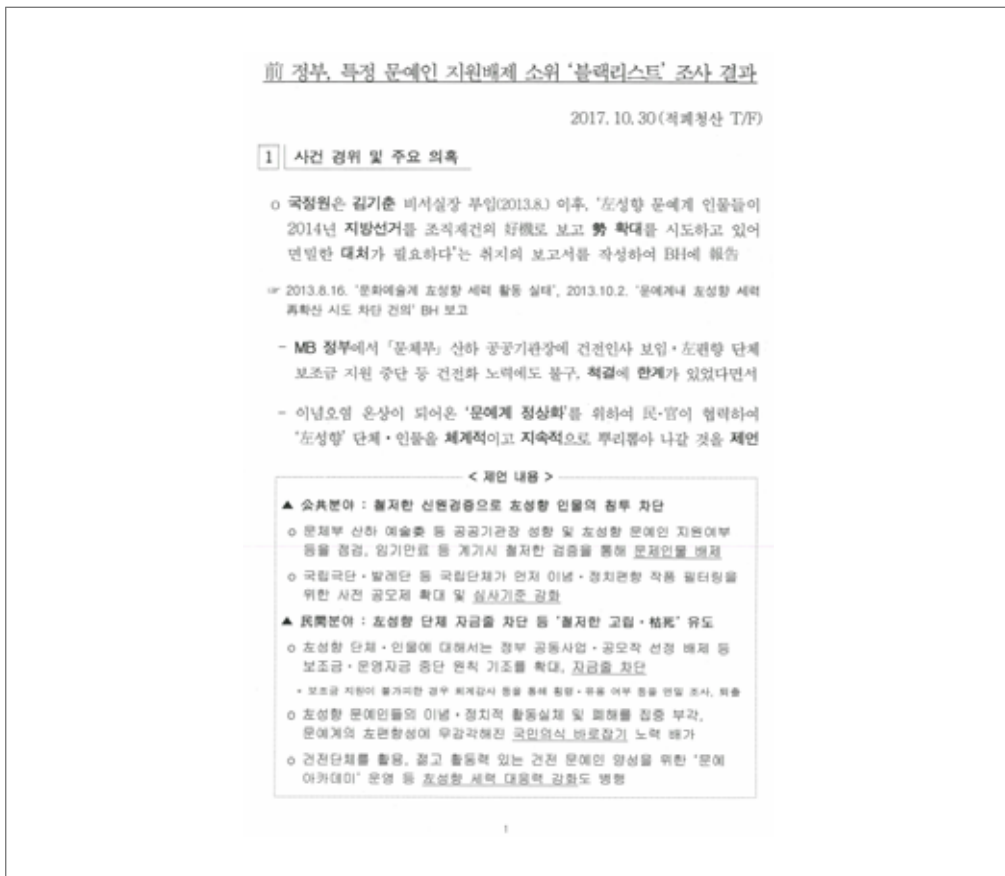
20) 000 사실확인서, 1쪽. 2018. 3. 6.

3. 심재찬 대표에 대한 권고사직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조치였는지에 대하여

가. 문건 등 자료조사

(1)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 성향 검증’ 제언 경위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3년 8월 16일 「문화예술계 좌 성향 세력 활동 실태」, 2013년 10월 2일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재확산 시도 차단 건의」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문체부 산하 예술계 등 공공기관장 성향 및 좌성향 문예인 지원여부 등을 점검, 임기만료 등 계기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인물 배제’할 것을 제언하였다.²²⁾



21) 강OO 1회 진술조서, 3쪽. 2018. 1. 12.

22) 국정원 적폐청산 T/F,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1쪽. 2017.10.30.

(2) 「문체부, 문화예술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2013. 9. 3

1. 문체부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특정 편향(左편향) 예술 지원 실태 및 대책’ 보고를 지시한 것과 관련 예술지원을 하는 예술위에 초점을 맞춰 보고서를 작성한 후, 근거를 남길 경우 잡음 발생 개연성에 대비 8.30 저녁 교문수석실 A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자료 전달

2. 보고 내용 요약

【 최근 동향 】

가. 문화예술분야내에 특정 편향적(左 편향적 * 보고서에서는 ‘左편향’ 용어 사용 지양) 가치가 아직 잔존하고 있어 보수가치 약화 현상 우려

1) 문예예술진흥기금 지원금 거부(2010년, 한국작가회의)

- 예술위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문예기금 지원 2개 단체(한국작가회의, 민예총 대구지부)에 대해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수령한 후 보조금을 지원키로 결정

- 한국작가회의는 확인서 요구에 강력 반발(기자회견 등 개최)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거부하였고 이후 공모 지원신청에 불참

2) 예술계 시국선언(국정원 정치·선거개입 관련)

- 한국작가회의(작가회의 명의, 2013.8.24), 연극계(최종원 등 12인, 2013.7.15)

문체부가 청와대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을 마련하여 보고한 시점은 2013년 9월 3일인데, 이 보고서에서는 2013년 7월 15일 경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비판하는 연극계 시국선언이 포함되어 있다.²³⁾ 이 시국선언문에는 기국서, 채승훈, 이성열 등의 이름이 공동명의로 포함되어 있다.

23) 국정원 적폐청산 T/F,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2쪽. 2017.10.30.

(3) ‘현 시국에 대한 연극인 선언’과 심재찬 대표

심재찬 대표는 2009년 6월 26일 연극인 1037명 명의로 발표된 ‘현 시국에 대한 연극인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²⁴⁾ 이 연극인 선언문을 주도했던 (심재찬 연출가를 비롯한) 연출가 5인에 대하여는 살생부가 나돌았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²⁵⁾

(4)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과 심재찬 대표

심재찬 대표가 국정원에서 소위 ‘좌성향’ 인물로 분류한 인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하여 발표한 「문예계 주요 좌 성향 인물 현황(249명)」이나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 명단에서 심재찬 대표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심재찬 대표가 국정원이 분류한 연극분야 주요 좌성향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⁶⁾ 그밖에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 현재’ 혹은 ‘리스트-’16.9.27. 현재’ 등 박근혜 정부 시기 작성된 배제 명단에서 심재찬 대표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5)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김OO 발언 녹취록

김OO 예술정책과장은 2013년 9월 경 심재찬 대표와 김지우 직원 등을 문체부 서계동 사무실에 불러놓은 자리에서 예술인복지재단 직원들의 근태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하면서 평가를 통해서 인원을 감축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문화부에게 (복지재단에) 간섭하지 말라는 직원이 있다면 본보기로 삼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²⁷⁾

(6) 2013년 11월 1일 국회 교문위 회의록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2013년 11월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재찬 대표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직에서 중도에 사직한 사실과 관련하여, 심재찬

24) 연극인 1037명, 현 시국에 대한 연극인 선언문. 2009. 6. 26.

25) 고OO, 「참여 연극이 부쩍 늘어난 이유」 〈시사in.〉, 2010. 4.28.

26) 국정원 적폐청산 T/F,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41-55쪽. 2017.10.30.

27) 김OO 발언 녹취 13쪽.

대표가 중도 사직한 것은 예술인복지재단의 비효율적 운영, 규정에 어긋나는 업무추진비 사용, 직원들의 근태불량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⁸⁾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1) 신청인 김지우의 진술

신청인 김지우는 위원회 조사에서 심재찬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말 3년 임기로 임명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자, 문체부가 원하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상과 심재찬 대표가 만들어가고 있던 예술인복지재단의 상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으로서 심재찬 대표가 초기에 스스로 사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예술인복지재단을 흔들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⁹⁾

(2) 참고인 심재찬의 진술

참고인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심재찬은 위원회 조사에서 (가) 2013년 8월 16일 경 이후 사임(2013.10.16.)하기까지 공공기관장으로서 소위 ‘좌성향’ 여부에 대하여 ‘신원검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저는 이미 이명박 정부 유인촌 문체부 장관 때부터 좌성향 인사로 분류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당시 문체부 유인촌 장관의 문화정책에 반대하는 연극계 성명서를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문체부는 저를 특정해서 예술인복지재단 대표직을 사임시키려고 하였을 것이고, 김지우 직원은 김지우 대로 문체부에 찍혔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면서,³⁰⁾ (나) 김OO 예술정책과장이 취임한 후 한 달 가량이 지나면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가령 예술인 고용보험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서 프랑스 출장을 계획하고 상대방을 만날 스케줄까지 잡아놓은 상황에서 문체부의 제지를 받아서 가지 못하는 일도 있었고,³¹⁾ (다) 유OO 팀장을 통해서 김지우 직원을 내보내라는 문체부 지시를 전달 받고 김지우 직원을 불러 사직을 권유하였고 자신 또한 사임하였던 것이라고 하면서,³²⁾ (다) 김OO 예술정책과장이 자신

28)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쪽. 2013.11. 1.

29) 김지우 1회 진술조서, 9쪽. 2017. 11. 9.

30) 심재찬 1회 진술조서, 11쪽. 2017.11.11.

31) 심재찬 1회 진술조서, 4쪽. 2017. 11. 11.

32) 심재찬 1회 진술조서, 8-9쪽. 2017.11.11.

에게 직접적으로 사표를 쓰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직원들과 함께 대표를 문체부 사무실에 불러놓고 “싫은 소리 좀 하겠다”, “직원을 찍어서 자르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대표를 모욕한 것은 예술인복지재단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뜻이었고, 재단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받기 바라는 마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³⁾

(3) 참고인 000의 진술

참고인 예술인복지재단 대리 000은 위원회 조사에서 김지우 직원의 근태 관리가 안 좋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문체부가 징계를 요구한 것인지, 문체부가 김지우 직원을 징계하기 위해서 근태 관리를 문제 삼은 것인지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일개 직원을 해고해서 문체부가 얻을 게 무엇이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김지우 씨를 징계하기 위해서 김지우 씨의 근태 관리를 문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³⁴⁾

(4) 참고인 강00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강00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예술인복지재단 모든 직원들의 근태 상황을 보고 받을 일이 있었는데 김지우 직원의 경우 근태가 매우 불량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재찬 대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리어 감싸주고 있었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김00 예술정책과장, 김00 예술정책관 등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심재찬 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직원들과 프랑스 출장을 가려고 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하였고, 유진룡 장관이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업무 간담회 자리에서 심재찬 대표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 다른 분야 참석자들에게 비판을 받는 등 예술인복지재단이 실적은 나오지 않고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⁵⁾

강00 사무관은 또 예술인복지재단 유00 팀장을 통해서 김지우 직원을 징계하라는 지시를 하였지만 징계수위에 대하여는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김지우 직원의 근태 불량이 해고 사유까지는 아니었지만 김지우 직원 스스로 부담을 느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⁶⁾

33) 심재찬 1회 진술조서, 6-7쪽. 2017.11.11.

34) 000 1회 진술조서, 10쪽. 2017.12. 7.

35) 강00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12.

(5) 참고인 000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주무관 000은 2018년 3월 6일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김지우 직원에 대한 징계는 심재찬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심재찬 대표가 사직한 것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재단 운영에 대한 문제가 원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⁷⁾

(6) 참고인 김00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국장 김00은 2018. 4. 17.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가) 심재찬 대표의 사직 건은 좌성향 건과 하등의 관련이 없고, (나) 당시 신생조직이었던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재단의 수많은 직원들이 이직을 하여서 알아보니 그 사유를 알아본 바, 재단 대표가 무단 결근, 지각 등을 일삼는 특정 직원을 감싸고 돌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또한 재단 대표가 사무소가 소재한 대학로 인근에서 밤늦게까지 음주를 하며 이를 재단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법인카드는 오후 11시 이후에는 결제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으나 밤 12시를 넘긴 건도 다수 발견) 당시 예술정책과장이 수차례 재단 정상화 노력을 촉구하고 경고하는 과정에서 심 대표가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 2013. 10월은 청와대에서 예술단체장에 대한 별도 교체 요구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⁸⁾

36) 강00 1회 진술조서, 4쪽. 2017. 1.12.

37) 000 사실확인서, 2쪽. 2018. 3. 6.

38) 김00 사실확인서, 2-3쪽. 2018. 4. 17.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수요자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사업에서 심사위원 명단 제출 요구가 블랙리스트와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2013년 9월 2일 선정 발표된 개인 혹은 단체 중에서 이후 블랙리스트로 확인된 개인 혹은 단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2013. 9. 3. 문체부가 청와대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문화예술분야 좌편향 대응책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³⁹⁾에서 문체부가 수요자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심사위원 제출을 요구한 것이 블랙리스트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2013. 9월 경은 블랙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블랙리스트와는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심재찬 대표에 대한 권고사직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조치였는지 여부

심재찬 대표에 대한 권고사직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조치였는지 여부, 문체부가 김지우 직원에 대한 징계 지시를 하였던 것이 심재찬 대표의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진상 규명 하지 못하였다.

(1) 심재찬 대표가 배제 대상자인지 여부

국정원이 2013년 8월 16일 「문화예술계 좌 성향 세력 활동 실태」, 2013년 10월 2일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再확산 시도 차단 건의」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문체부 산하 예술꽃 등 공공기관장 성향 및 좌성향 문예인 지원여부 등을 점검, 임기만료 등 계기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인물 배제’할 것을 제언하고 있는 점,⁴⁰⁾ 2013년 9월 3일 국정원 보고서에서 2013년 7월 15일 경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비판하는 연극계 시국선언

39) 국정원 적폐청산 T/F,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2쪽. 2017.10.30.

40) 국정원 적폐청산 T/F,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1쪽. 2017.10.30.

에 이름을 올린 연극인들의 명단을 첨부하고 있는데,⁴¹⁾ 이들 중 기국서, 채승훈, 이성열 등은 심재찬 대표와 함께 2009년 6월 26일 연극인 1037명 명의로 발표된 ‘현 시국에 대한 연극인 선언문’을 주도하였던 연출가들이고⁴²⁾ 이 연극인 선언문을 주도했던 (심재찬 연출가를 비롯한) 연출가 5인에 대하여는 살생부가 나돌았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점⁴³⁾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심재찬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또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장으로서 좌성향 여부를 검증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심재찬 대표는 「문예계 주요 左 성향 인물 현황(249명)」이나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 명단에서 이름이 보이지 않고 문체부 000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혹은 ‘리스트-’16.9.27.현재’ 등에서도 이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심재찬 대표가 박근혜 정부 시기 동안에도 배제 대상자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2) 심재찬 대표를 배제하기 위하여 김지우 직원을 문제 삼았는지 여부

한편 김OO 예술정책과장이 김지우 직원을 본보기로 삼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던 점,⁴⁴⁾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심재찬 대표가 예술인복지재단 대표직에서 중도에 사직한 것은 예술인복지재단의 비효율적 운영, 규정에 어긋나는 업무추진비 사용, 직원들의 근태 불량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⁴⁵⁾ 강OO 사무관이 김지우 직원의 경우 근태가 매우 불량하였는데도 심재찬 대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김OO 예술정책과장, 김OO 예술정책관 등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⁴⁶⁾ 예술인복지재단 유OO 팀장을 통해서 김지우 직원을 징계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김지우 직원 스스로 부담을 느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⁴⁷⁾ 000 주무관이 김지우 직원에 대한 징계는 심재찬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심재찬 대표가 사직한 것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재단 운영에 대한 문제가 원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⁴⁸⁾ 김OO 예술정책관은 2018. 4. 17. 위원

41) 국정원 적폐청산 T/F,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2쪽. 2017.10.30.

42) 연극인 1037명, 현 시국에 대한 연극인 선언문. 2009. 6. 26.

43) 고OO, 「참여 연극이 부쩍 늘어난 이유」 <시사in.>, 2010. 4.28.

44) 김OO 발언 녹취 13쪽.

45)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쪽. 2013.11. 1.

46) 강OO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12.

47) 강OO 1회 진술조서, 4쪽. 2017. 1.12.

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가) 심재찬 대표의 사직 건은 좌성향 건과 하등의 관련이 없고, 2013. 10월은 청와대에서 예술단체장에 대한 별도 교체 요구는 없는 상황이었던 점, 49) 신청인 김지우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조기에 사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예술인복지재단을 흔들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50) 심재찬 대표가 좌성향 인사로 분류되어 있는 자신을 문체부가 사임시키기 위해서 문체부가 ‘직원을 찍어서 자르겠다’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51) OOO 예술인복지재단 대리가 김지우 씨를 징계하기 위해서 김지우 씨의 근태 관리를 문제 삼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52)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문체부 직원들과 예술인복지재단 직원들 사이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결국 김OO 예술정책과장이 심재찬 예술인복지재단 대표를 문체부 사무실에 재단직원들과 함께 불러 질책하는 방식으로 사직을 압박하였다는 사실, 문체부가 김지우 직원을 징계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심재찬 대표가 김지우 직원을 권고 사직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김OO 예술정책과장이 심재찬 대표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한 이유 중에 예술인복지재단의 비효율적 운영,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재단 직원들의 근태관리 부실 등 이외에 국정원의 공공기관장 신원검증에 따른 사직강요 지시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여부, 문체부가 김지우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한 사유가 심재찬 대표의 사직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지 못하였다.

48) OOO 사실확인서, 2쪽. 2018. 3. 6.

49) 김OO 사실확인서, 2-3쪽. 2018. 4. 17.

50) 김지우 1회 진술조서, 9쪽. 2017. 11. 9.

51) 심재찬 1회 진술조서, 6-7쪽. 2017.11.11.

52) OOO 1회 진술조서, 10쪽. 2017.12. 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8

2014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 지원사업 축소 사건



38

2014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문16[2014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한국작가회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여 공모접수(2014. 2. 12.~2.28) 하였던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모 신청하여 최종 지원 선정되었으나,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긴급복지사업비를 증액한다는 명목으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예산을 축소하였는데, 이러한 조치가 한국작가회의가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한국작가회의는 2008년 소고기파동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하였고 소속 작가들이 밀양 송전탑 반대,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반대 등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국

정원이 주요 좌성향 단체로 분류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작가회의가 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심사결과 지원 선정되자 문체부는 한국작가회의를 배제 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긴급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예술인긴급복지지원금을 증액하는 등 관련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방법으로 한국작가회의를 지원 배제하였다.

**붙임 : [2014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문16[2014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
사업 축소 사건]**

[신청인] (사)한국작가회의(대표: 최원식)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한국작가회의는 2014년 3월 4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여 공모접수(2014. 2. 12.~2. 28) 하였던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중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모한 뒤 최종 지원 선정되었으나, 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 3월 27일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 변경 안내 계획문’을 보내며, 예술인긴급복지사업비의 증액을 위하여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중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의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예산 삭감을 통보하였다. 신청인은 이러한 조치가 위 사업에서 한국작가회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의거, 2017년 12월 1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예술인복지재단이 2014년 3월 27일 경 예술인복지강화를 위한 사업 변경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술인긴급복지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하여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였던 조치가 한국작가회의가 블랙리스트로 배제 대상자였기 때문에 배제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52건 자료조사

[표-1]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문서명	작성자	입수일	비고
1	조사 신청서(2017. 11. 16.)	한국작가회의 (대표: 최원식)	2017. 11. 16.	신청인 작성
2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계획 (2014. 1. 28.)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3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참여예술단체 모집공고 계획(2014. 2. 12.)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4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현장예술인교육지원』 참여예술단체 모집 공고(2014. 2. 12.)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문서

연번	문서명	작성자	입수일	비고
5	현장예술인 교육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2014. 2. 12.)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 문서
6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현장예술인교육지원」 참여예술단체 시행지침(2014. 2. 12.)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문서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참여예술단체 선정 심사 계획(2014. 2. 20.)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8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일정(2014. 2. 20.)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 문서
9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참여예술단체 선정심사평가서(2014. 2. 20.)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 문서
10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사업 운영기관 평가결과표(2017. 2. 20.)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 문서
11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사업 운영기관 선정심사 총괄표(2017. 2. 20.)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 문서
12	비밀준수서약서(2017. 2.20)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 문서
13	2014년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참여단체 선정 심사 계획(2014. 3. 3)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14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참여단체 1차 서류심사 결과보고(2014. 3. 4)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15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참여예술단체 1차 서류심사 결과 보고(2014. 3. 4.)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 문서
16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참여예술단체 1차 서류심사표(2014. 3. 4.)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17	『현장예술인 교육지원사업』참여 신청서 (2014. 2. 28.)	이시영	2017. 11. 11.	
18	현장예술인 교육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2014. 2. 28.)	이시영	2017. 11. 11.	
19	2014년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참여단체 선정심사 회의록(2014. 3. 7.)	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2017. 11. 11.	
20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사업 선정심사 총평 (2014. 3. 5.)	OOO 외 5인 심사위원	2017. 11. 11.	
21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사업 운영기관 선정심사 총괄표(2014. 3. 5.)	OOO 외 5인 심사위원	2017. 11. 11.	
22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심사 총평(2014. 3. 5.)	OOO 외 5인 심사위원	2017. 11. 11.	

연번	문서명	작성자	입수일	비고
23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2014. 3. 12.)	문체부 000 주무관	2017. 11. 11.	
24	정기이사회 개최 계획(2014. 3. 21.)	예술인복지재단 000	2017. 11. 11.	
25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자료)(2014. 3. 21.)	예술인복지재단 000	2017. 11. 11.	
2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4년 사업 점검에 관한 건(보고사항): 예술인 복지사업 변경 계획(안)(2014. 3. 21.)	예술인복지재단 000	2017. 11. 11.	
27	주요 복지제도 현황(2014. 3. 21.)	예술인복지재단 000	2017. 11. 11.	위 문서 붙임 문서
2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2014. 3. 21.)	예술인복지재단 000	2017. 11. 11.	위 문서 붙임 문서
29	제5차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 (2014. 3. 27.)	예술인복지재단 000	2017. 11. 11.	
30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변경 계획 안내문(2017. 3. 27.)	예술인복지재단	2017. 11. 11.	
31	2014년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계획 변경(2017. 3. 27.)	예술인복지재단	2017. 11. 11.	
32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 참여예술단체 모집공고 계획(2014. 2. 12.)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8. 3. 8.	
33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 참여단체 모집 공고(2014. 2. 12.)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8. 3. 8.	
34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 참여예술단체 모집 공고기간 연장(2014. 2. 13.)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35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 참여신청 접수결과 보고(2014. 3. 19.)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36	2014년도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 참여신청현황(2014. 3. 14.)	예술인복지재단 김OO	2017. 11. 11.	
37	2014년도 <예술인 학습공동체지원> 참여단체 선정을 위한 심의계획(2014. 4. 8.)	예술인복지재단 000	2017. 11. 11.	
38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 사업 선정 심의계획(안)(2014. 4. 8.)	예술인복지재단 000	2017. 11. 11.	
39	<예술인 학습공동체지원 선정 서류심의평가서>(2014. 4. 8.)	예술인복지재단 000	2017. 11. 11.	
40	<예술인 학습공동체지원 선정 평가결과표> (2014. 4. 8.)	예술인복지재단 000	2017. 11. 11.	

연번	문서명	작성자	입수일	비고
41	예술인 학습공동체지원 선정 최종심의 총평서 (2014. 4. 8.)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붙임문서
42	최종합격단체 명단(2014. 4. 8.)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붙임문서
43	비밀준수서약서(2014. 4. 8.)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붙임문서
44	2014년도 <예술인 학습공동체지원>사업 참여단체 선정 결과보고(2014. 4. 24.)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45	2014년 『예술인 학습공동체지원』 사업 최종 심의 결과 발표(2014. 4. 15.)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문서 붙임문서
46	2014년 『예술인 학습공동체지원』 사업 최종결과공고(2014. 4. 16.)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문서
47	예술인 학습공동체지원 선정 최종심의 총평서 (2014. 4. 16.)	예술인복지재단 OOO	2017. 11. 11.	위 문서 붙임문서
48	문체부,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사업 실시-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예산 20억 원 증액-(2014. 3. 27.)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OO	2017. 11. 11.	위 문서 보도자료
49	예술인복지재단의 무원칙 사업폐지 규탄 (2014. 4. 2.)	최OO	2017. 11. 11.	신문기사
50	2014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계획 변경 승인(2014. 5. 12.)	문체부 예술정책과 주무관 OOO	2017. 11. 11.	
51	문체부, 양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 지원사업' 폐지 방침(2014. 3. 17.)	국정원 IO	2017. 10. 30.	
52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2016. 2. 1.)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	2017. 8. 17.	

2. 참고인 등 9인 대인조사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홍명진	신청인(대리인)	1회 진술조서(2017.12. 29.)
2	김OO	예술인복지재단 팀장	1회 진술조서(2017.12. 7.)
3	OOO	예술인복지재단 대리	1회 진술조서(2017.12. 7.)
4	김OO	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장	1회 진술조서(2017.12.14.)
5	강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1회 진술조서(2018. 1. 12.)
6	이OO	문체부 예술정책과 과장	1회 진술조서(2018. 2. 1.)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7	000	문체부 예술정책과 주무관	사실확인서(2018. 3. 6.)
8	조00	문체부 예술정책과 과장	사실확인서(2018. 3. 22.)
9	신00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	사실확인서(2018. 4. 2.)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재단은 2012년 11월 18일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서 2012년 11월 19일 설립되었다. 현재 조직 구성은 이사회, 대표, 운영본부(경영지원팀, 창작준비지원팀, 예술가치확산팀),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전략·홍보,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¹⁾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로서 예술활동증명 사업, 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영화·방송·전통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자금심 고취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패스 사업,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와 창작안전망구축을 구현하고자 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기업/기관 등)와 협업을 기반한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대행하고 납부보험료를 50~90% 지원하고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사업,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²⁾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나.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의 사업목적, 사업개요, 신청기간·방법 및 선정심사 일정 등과 관련하여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³⁾

1. 사업 목적

- 장르별로 특화된 현장 맞춤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예술인에게 교육과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
- 장르별 예술활동의 성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장르별 현장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르별 예술단체들이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현장예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조성

2. 사업 개요

- 사업명 : 『현장예술인교육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2014년 12월
- 사업의 규모 : 예술장르별 최소 10개 단체 선정, 1,000명 이상 지원
- 지원신청자격 :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
 - (단체의 법적형태) 3개 이상의 예술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 단체 컨소시엄
 -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 * 컨소시엄 참여 단체별 역할이 명시된 협약서 상호체결 및 제출 필수
- ※ 참여제한
 - 같은 연도 재단 타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부터 2014년 11월까지
- 지원금액 : 최대 100,000,000원(금 일억원)

3. 신청기간·방법 및 선정심사 일정

- 신청기간 : 2014년 2월 12일(수) ~ 2월 28일(금)(17일간)
- 선정심사 기간 : 2014년 3월 3일(월) ~ 3월 6일(목)(4일간)
- 선정심사 방법 : 1차 서류심사(행정심사) 및 2차 심의위원회 심사(발표심사)

3) 예술인복지재단,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참여예술단체 모집 공고, 1-2쪽, 2014. 2. 12.

- 1차 서류심사 : 지원신청자격 검토 및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확인
- 2차 심의위원회 심사 : 전문심의위원회를 통한 종합심사
- 선정심사 결과공고 : 2014년 3월 7일(금)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다.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⁴⁾

(1) 사업 목적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은 '예술창작의 중심점이 될 수 있는 소규모 예술인 공동체가 조직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 예술인 공동체가 활발하게 교육하고 예술의 가치 확장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수행·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주요 사업 개요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의 개요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기간: 2014년 4월 ~ 2014년 11월
- 사업의 규모: 약 110개 단체 선정(예술인 약 550여 명 지원)
- 지원기간: 최대 5개월(20주)
- 지원금액: 참여단체별 1천만원 ~ 3천만원

(3) 신청기간·방법 및 선정심사 일정

신청기간·방법 및 선정심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신청기간: 공고일 ~ 2014년 2월 28일(금) 18시
- 선정심사 기간: 2014년 3월 3일(월) ~ 3월 11일(화)
- 선정심사 방법: 1차 서류심사 및 2차 심의위원회 심사

4) 김OO,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 참여예술단체 모집공고 계획, 2-3쪽.

- 1차 서류심사: 지원신청자격 검토 및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확인
- 2차 심의위원회 심사: 전문심의위원회를 통한 종합심사
- 선정심사 결과공고: 2014년 3월 17일(월)

2.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⁵⁾

가.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공모

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 1월 28일 경, 2014년 1월 ~ 12월 사업기간 동안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사업 규모는 아래와 같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장르별 협회·단체	10개 단체, 1000여명 지원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	예술단체	110개 단체, 550여명 지원
예술인교육이용권(Voucher)지원	창작·실연예술인, 행정·기술스태프	300여명 지원
예술인파견지원	창작·실연예술인, 행정·기술스태프	350여명 지원

나. 1차 서류 심사 결과

한국작가회의(대표기관)는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4년 2월 28일 우편 접수하였고 1차 서류 심사(행정심사) 결과 합격하였다.⁶⁾

다. 2차 인터뷰 심사 결과

2014년 3월 4일 ‘2014년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참여예술단체 선정 심사’ 결과 심사논의 결과 한국작가회의에 대하여 ‘문학교육에 대해 발표자의 이해도가 높음, 교육이 문학출판 분야에는 기회가 될 것임, 한국작가회의의 경력, 프로그램 문제없음, 이들의 컨소시엄이 놀라움’⁷⁾ 등의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한국작가회의(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는 민족미술인협회(경기민예총, 전북 민예총, 강원 민예총)와 함께 시각·문학분야에서 최종 선정되었다.⁸⁾

5) 김OO,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계획, 1쪽. 2014. 1.28.

6)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참여예술단체 1차 서류 심사 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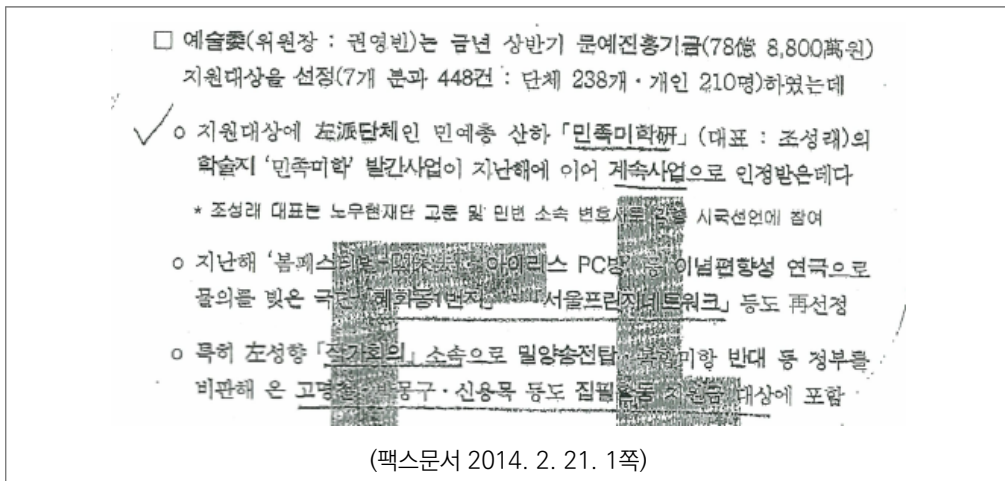
7) 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2014년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참여단체 선정심사 회의록, 5쪽. 2014. 3. 7.

3. 한국작가회의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경위에 대하여

가. 문건 등 자료조사

(1) 팩스 송부 문서(다)

2014년 2월 21일 경 청와대가 문체부로 보낸 ‘팩스 송부 문서(다)’는 2014년 예술위 지원 사업에서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이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지원 선정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인 고명철·박몽구·신용목 등이 밀양송전탑·복합미항 등 정부를 비판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⁹⁾



(2)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보고서

국정원은 2014년 3월 17일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보고서에서, 문체부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서 민족미술인협회, 한국작가회의, 우리만화연대, 서울연극협회 등 좌성향 단체들이 대거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사업자체를 폐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문서는 ‘관련 동향’으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심사결과 연극분야에서 서울연극협회, 미술분야에서 (사)민족미술인협회, 문학분야에서 (사)한국작가회의, 만화분야에서 (사)우리만화연대 등 좌성향 단

8) 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2014년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참여단체 선정심사 회의록, 1쪽. 2014. 3. 7.

9) 팩스로 송부받은 문서(다), 1쪽. 2014. 2. 21.

체들이 선정되자 결과발표(3.7) 계획을 중단하고 교육지원보다는 생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폐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위 사업을 폐지하고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비판 언론 및 진보진영에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 입단 속중', '3월중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방안을 설계, 추진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¹⁰⁾

(3)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단체 現況」 보고서

국정원은 또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단체 現況」 보고서에서 '연번 3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를 포함하고 있다.¹¹⁾

(4)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기존관리 리스트-149명"에 따르면, '작가회의'의 경우 '2010년 소고기과동 시국선언시 참여단체'라고 기록되어 있다.

6 기존관리 리스트 - 149명			
분야	단체명	세부내용	현황
공통 - 15명	①민예총, ②지역민예총, ③문화재단	예술위 보조금사업 정형으로 고갈 및 환수조치(2010년) - 492백만원 중 5천만원 분배상태, 권역반납시까지 지원중단	서민계요 및 경모태를 환수조치(2010년)
	④작가회의	민예총산하 민족문제연구소(대표 조성래, 이사장 채희원), 원미현(박홍순) 2010년 소고기과동 시국선언시 참여단체	작가회의 소속 ⑤고명현, ⑥박봉규, ⑦선용목 / ⑧광주전남소설가협회

나. 참고인 등 대인 조사

(1) 강OO 진술조사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강OO 사무관은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결과발표 중단 지시 경위와 관련하여,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선정 결과 서울연극협회, 한국작가회

10) 국정원 IO,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보고서, 1-2쪽, 2014. 3. 17.

11) 국정원 IO,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단체 現況」 보고서, 1쪽.

의, 민족미술인협회, 우리만화연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한국작가회의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분위기로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¹²⁾

4. 한국작가회의를 배제한 방법에 대하여

가. 문건 등 자료조사

(1) 「문체부, left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국정원이 2014년 3월 17일 경 작성한 「문체부, left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문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서 민족미술인협회, 한국작가회의, 우리만화연대, 서울연극협회 등 좌성향 단체들이 대거 선정되자 관련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웠고, 위 사업을 폐지하고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비판언론 및 진보진영에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면서 2014년 3월 중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고 추진할 복안을 세웠다.¹³⁾

문체부, left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2014. 3. 17

1. 문체부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 민족미술인협회, 한국작가회의, 우리만화연대, 서울연극협회 등 left성향 단체들이 대거 선정된 것과 관련 사업자체를 폐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

12) 강OO 1회 진술조서. 2018. 1.12.

13) 국정원 IO, 「문체부, left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1-2쪽. 2014. 3. 17.

2. 關聯 動向

가. 문체부(장관:유진룡)에서는

- 1) 예술인 교육을 지원하는 '현장예술인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 공모에 응모(2.12~2.28 신청서 접수)한 22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3월초 심사를 실시, 10개 컨소시엄을 선정(3.5)하였는데
- 2) 연극분야에 서울연극협회(대표기관) + 대전연극협회·(사)한국회극작가협회 컨소시엄, 문학분야는 (사)한국작가회의(대표기관) + 한국문인협회·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컨소시엄,
- 3) 미술분야에 (사)민족미술인협회(대표기관) + 경기·전북·강원 민예총 컨소시엄, 만화분야는 (사)우리만화연대(대표기관) + (사)한국카툰협회·한국만화스토리협회 컨소시엄 등 左성향 단체가 선정되자
- 4) 선정결과 발표(3.7) 계획을 중단하고, 교육지원보다는 예술인들에 대한 생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은 폐지키로 내부 방침을 결정

• 3.9 대회사록 '대코일' 등에 출연했던 배우 두○○ 이 생활고로 자살

나. 이와 관련, 실무진에서는

- 1)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면서 左성향단체인 한국작가회의의 경우 보수단체인 한국문인협회와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와,
- 2) 우리만화연대(左성향 단체)는 한국카툰협회 및 한국만화스토리협회, 서울연극협회(左성향 단체)는 한국회극작가협회 등과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등
- 3) 이념시비를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연합하는 양태까지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보수단체들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 4) 위 사업을 폐지하고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비판언론 및 진보진영에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결정 입단속중

• 3월중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방안을 실제, 추진할 목안

※ 붙임 :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공고문, 글.

(2)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문체부는 2014년 3월 12일 경 예술인복지재단에 공문을 보내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술인들의 불행한 사고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동 사항을 문체부와 협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¹⁴⁾

(3) '제5차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

예술인복지재단은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 결정을 의결하였다.¹⁵⁾ 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 3월 21일 경 제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안건 제12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4년 사업 점검에 관한 건'을 원안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예술인 복지사업 변경 계획(안)」의 추진 배경은 '○ 배우 우○○씨 자살, 송파 세모녀 자살 등 현행 복지 제도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한정된 예산 하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재설계 필요' 등으로 제시되었다.¹⁶⁾

(4)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2014년 3월 21일 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서, 이날 회의자료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하여 '○ 문제점: 2.24일 접수 시작 이후 신청자 수가 1,400명에 달하여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으며, 소득 등 지원기준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있음, 원로·경력단절 예술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은 자존심 또는 복잡한 서류 절차 등을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등을 이유로 예산을 20억원 증액(74억 원 → 94억 원)하면서 교육 지원 예산을 20억원 감액하기로 하고 있다.¹⁷⁾

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 문제점: 교육지원 사업 예산이 약 77억 원으

14)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2014. 3.12.

15) ○○○, 「제5차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 2014. 3.27.

16) 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19쪽.

17) 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19쪽.

로 과다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예술인에게 필요한 교육은 기술 교육이 아니라 계약·저작권 등 예술활동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문제와 국가 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임’ 등을 지적하면서 사업변경 내용으로는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과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예산을 감액 조정(32억 원 → 12억 원)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은 폐지(10억 원 → 0원)하고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은 축소(22억 원 → 12억 원)하였다.¹⁸⁾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1) 신청인 홍명진의 진술

신청인 홍명진은 위원회 조사에서 한국작가회의가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를 통보받은 경위에 관하여, 최종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2014년 3월 경 위 프로그램 기획이면서 심사위원이었던 000 평론가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14년 3월 27.경 ‘예술인복지강화를 위한 사업 변경 계획 안내문’을 통해 1)예술인 긴급복지사업비 증액 2)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3)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예산삭감 등을 알리면서 예술인복지재단 담당 직원 김00 복지사업팀장이 한국작가회의 사무처로 전화를 해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¹⁹⁾

홍명진은 또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2014년 3월 12일 경 예술인복지재단 주최로 한국작가회의를 비롯하여 위 사업 응모 단체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자문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문체부 조00 예술정책과장이 참여하였고, 이날 간담회(자문회의)에서는 한국작가회의 등이 위 사업폐지 및 축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였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²⁰⁾

신청인 홍명진은 2014년 3월 27일 경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사업변경 계획 안내문’

18) 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19-20쪽.

19) 홍명진 1회 진술조서, 3쪽. 2017.12.29. 신청인 홍명진은 한국작가회의가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 사업에 지원하지 않았던 경위와 관련하여, 한국작가회의는 2014.2.12.~2.28.(이후 3.14까지 모집 기간 연장) 모집한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 사업에는 접수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접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0) 홍명진 1회 진술조서, 4쪽. 2017.12.29.

을 내서 위 사업 폐지 및 축소 방침을 발표한 후 한국작가회의가 ‘예술인복지재단의 무원칙 사업폐지 규탄’ 성명을 발표(2014.4.2.)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²¹⁾

(2)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인복지재단 김OO 과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심의 결과 시각·문학 분야(2014.3.4.)에서 민족미술인협회(경기 민예총, 전북 민예총, 강원 민예총)와 한국작가회의(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중예술분야(2014.3.4.)에서 우리만화연대(한국카툰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공연예술분야(2013.3.5.)에서 서울연극협회(대전연극협회, 한국희곡작가협회) 등이 선정되자 문체부가 선정 결과 발표(2013.3.7.) 계획을 중단하고 교육지원보다는 예술인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기로 하고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은 폐지하라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지시한 사실에 대하여 그 당시 김OO 복지사업팀장, 유OO 기획관리팀장에게 직접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²²⁾

김OO은 다만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이 폐지된 이유가 선정된 단체들이 좌성향 단체들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위 사업이 폐지된 것이 무언가 부당한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였고,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촛불 이후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예술단체들이 대대적인 표적 감사를 받는 등 특정 정치 성향을 이유로 배제되는 사례들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김OO은 당시 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공적인 상태에서 김OO 복지사업팀장, 유OO 기획관리팀장 모두 난감해 했고, 예술인복지재단은 2013년 가을 “찍어서 자르겠다”는 뉴스타파(10.29) 보도에서 확인된 것처럼 재단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문체부가 거의 직접적으로 예술인복지재단을 관리하다시피하고 있던 상황에서, 심의가 이미 끝난 사업에 대하여 문체부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독립기관인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개입하여 사업을 폐지시키는 상황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김OO, 유OO 두 팀장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²³⁾

21) 홍명진 1회 진술조서, 4쪽. 2017.12.29.

22) 김OO 1회 진술조서, 4쪽. 2017.12. 7.

23) 김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7.12. 7.

(3) 참고인 000의 진술

참고인 000 예술인복지재단 대리는 위원회 조사에서 2014년 3월 27일 ‘현장예술인 교육지원 사업’ 폐지 및 2014년 4월 24일 ‘예술인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축소 발표와 관련하여, 2014년 3월 21일 개최된 예술인복지재단 5차 이사회 회의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이 회의자료 중 ‘예술인 복지사업 변경 계획(안)’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문체부 000 주무관이 이메일로 보내준 내용을 자신이 편집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²⁴⁾

(4) 참고인 김00의 진술

참고인 예술인복지재단 김00 복지사업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4년 3월 경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문체부의 지시 사항은 모두 유00 기획관리팀장에게 전달되었고, 유00 팀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구조였는데, 그 당시 유00 팀장으로부터 문체부장00 사무관이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반발하였다고 하였다. 김00 팀장은 문체부 예술정책과 조00 과장을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만났는데 조00 과장은 당시 송파 세 모녀의 죽음과 배우 우00의 자살을 얘기하면서 위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사업비를 예술인긴급복지사업을 확대(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고, 이후 자신의 요청에 따라서 2014년 3월 12일 경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공문을 예술인복지재단으로 보내주었으며, 2014년 3월 21일 경 개최된 5차 정기이사회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예술인긴급복지지원사업이 증액되었다고 진술하였다.²⁵⁾

참고인 김00는 심사위원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문체부의 입장과 이사회 결정에 대하여 설명했고, 예술단체들에게도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현장 예술단체들이 의구심을 표하며 항의를 하겠다고 하여서 현장 예술단체들과 문체부 사이에 간담회가 열렸다고 진술하였다.²⁶⁾

참고인 김00는 2014년 10월 22일 경 박계배 대표가 취임한 이후 대표가 부재하였던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상황 전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²⁷⁾

24) 000 1회 진술조서, 9쪽. 2017.12. 7.

25) 김00 1회 진술조서, 3-6쪽. 2017.12.14.

26) 김00 1회 진술조서, 7쪽. 2017.12.14.

27) 김00 1회 진술조서, 8쪽. 2017.12.14.

(5) 참고인 강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강OO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결과발표 중단 지시 경위와 관련하여,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선정’ 결과 서울연극협회, 한국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우리만화연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서울연극협회, 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분위기로 알 수 있었지만 우리만화연대는 콘텐츠국 소관이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문체부 콘텐츠국 담당 사무관에게 이 단체가 문제가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그 사무관이 본인도 확실하지 않다면서 청와대에 물어보라고 하여서 청와대 신OO 행정관에게 우리만화연대를 지원해도 되는지 확인했더니, 신OO 행정관은 약간 부정적이었고, 그 뒤로 청와대 안에서 공유가 된 것 같고, 또 그 뒤로 조OO 예술정책과장이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강OO 사무관은 자신이 예술인복지재단에 위 사업 결과 발표 중단을 지시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자신이 그러한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⁸⁾

참고인 강OO는 사업폐지 및 예산 변경 명분과 관련하여, 문체부 예술정책과 안에서 향후 조치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배우 우OO 자살 사건,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예술인긴급복지사업의 기금을 늘려야 하는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위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예술인긴급복지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²⁹⁾

참고인 강OO는 문체부가 예술인복지재단에 사업 재점검을 공식 요청하였던 경위와 관련해서는, 조OO 과장과 예술인복지재단 김OO 팀장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만난 사실이 있으며 두 사람이 만난 이후 문체부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2014.3.12.) 공문을 예술인복지재단으로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³⁰⁾

참고인 강OO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 경위와 관련하여, 2014년 3월 21일 개최된 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예술인긴급복지지원 기금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까닭은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³¹⁾

28)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29)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30)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31)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참고인 강OO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와 관련된 경위는 당시 김OO 예술정책관, 문체부 조현재 차관, 유진룡 장관 등에도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³²⁾

(6) 참고인 이OO의 진술

참고인 이OO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조OO 과장 재임 시기에 있었던 위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와 관련하여 조OO 과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형식적인 절차로서 결재를 하기는 하였지만 위 사업 폐지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³⁾

(7) 참고인 OOO의 진술

문체부 예술정책과 OOO 주무관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심사 결과 서울연극협회, 한국작가회의, 우리만화연대, 민족미술인협회 등이 선정되자 결과 발표를 중단하고 생계가 곤란한 예술인들을 긴급지원하기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하고 예술인복지재단에 통보하였던 경위와 관련하여 “2014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일부를 폐지·축소하게 된 것은 당시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가 되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계기가 되어 우리 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지원이 우선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른 업무지시를 받고 예술인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 등 관련 조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예산까지 축소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2014년 2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 우리 부에서는 생계비 지원의 성격이 있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을 축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를 확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어 생계지원이 급박한 예술인 등을 발굴하는 등 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³⁴⁾

32)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33) 이OO 1회 진술조서, 3쪽. 2018. 2. 1.

(8) 참고인 조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조OO 예술정책과장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자살, 3월 배우 우OO 자살 사건 등으로 인하여 예술인 복지사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중 담당 사무관이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 비서실에 확인 차 전화를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이 이 건의 사업자 선정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내부에서 진행 과정은 모르고 당시 유진룡 장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다면서 어떤 사업인지 물었고, 이에 대해 예술인 자살 사건 등으로 인한 상기 고민 사항을 유진룡 장관에게 말한 후 생계가 곤란한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⁵⁾

(9) 참고인 신OO의 진술

참고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 신OO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1) 우리만화연대와 관련하여서 국정원 정보보고서에서 언급되었던 것을 보거나 들었던 기억이 있고 (2) 강OO 사무관이 자신에게 우리만화연대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문의하였다면, 만화분야는 콘텐츠국 소관으로 자신의 업무였기에 문의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3)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한 적은 없으나 강OO 사무관과 통화한 부분에 한해서는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보고를 하고 통화를 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³⁶⁾

34) OO 사실향인서, 2쪽. 2018. 3. 6.

35) 조OO 사실향인서, 1-2쪽. 2018. 3. 23.

36) 신OO 사실향인서, 2쪽. 2018. 4. 2.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한국작가회의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경위

다음의 사실을 통하여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이 밀양 송전탑 반대,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반대 등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자 국정원이 한국작가회의를 주요 좌성향 단체로 분류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2월 21일 경 청와대가 문체부로 보낸 ‘팩스 송부 문서(다)’가 2014년 예술위 지원 사업에서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이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지원 선정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인 고명철·박몽구·신용목 등이 밀양송전탑·복합미항 등 정부를 비판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³⁷⁾ 국정원의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보고서가 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서 한국작가회의 등이 선정되자 문체부가 관련 사업 자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³⁸⁾ 국정원이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단체 現況」 보고서에서 ‘연번 3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³⁹⁾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작가회의’의 경우 ‘2010년 소고기파동 시국선언시 참여단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한국작가회의는 소속작가들이 밀양송전탑 반대, 강정 해군 기지 건설 반대 등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고, 작가회의도 소고기 파동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등의 이유로 ‘좌성향’ 단체로 분류되어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인 강OO 사무관의 진술을 통하여서도 문체부 예술정책과 안에서 한국작가회의가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⁴⁰⁾

37) 팩스로 송부받은 문서(다), 1쪽. 2014. 2. 21.

38) 국정원 IO,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보고서, 1-2쪽. 2014. 3. 17.

39) 국정원 IO,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단체 現況」 보고서, 1쪽.

40) 강OO 1회 진술조서. 2018. 1.12.

나. 한국작가회의를 배제한 방법

다음의 사실을 통하여 문체부가 한국작가회의를 지원 배제하기 위하여,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심사결과 한국작가회의가 지원 선정되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긴급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예술인긴급복지지원금을 증액하는 등 관련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정원이 2014년 3월 17일 경 작성한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문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문체부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서 한국작가회의 등 좌성향 단체가 선정되자 관련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웠고, 위 사업을 폐지하고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비판언론 및 진보진영에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면서 2014년 3월 중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고 추진할 복안을 세웠다.⁴¹⁾

문체부는 2014년 3월 12일 경 예술인복지재단에 공문을 보내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술인들의 불행한 사고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동 사항을 문체부와 협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⁴²⁾

문체부의 요청을 받은 예술인복지재단은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10억 원 → 0원)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22억 원 → 12억 원) 결정, 예술인긴급복지기금을 20억 증액(74억 원 → 94억 원) 의결하는 방법⁴³⁾으로 한국작가회의를 지원 배제 하였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이러한 조치는 문체부 조OO 과장이 당시 송파 세 모녀의 죽음과 배우 우OO의 자살을 명분으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사업비를 예술인긴급복지사업을 확대(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2014년 3월 12일 경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공문을 예술인복지재단으로 보낸 후 2014년 3월 21일 경 개최된 5차 정

41) 국정원 IO,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1-2쪽. 2014. 3. 17.

42) OOO,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2014. 3.12.

43) OOO, 「제5차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 2014. 3.27.

기이사회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예술인긴급복지지원사업이 증액된 것이었다.⁴⁴⁾

이러한 사실은 문체부 예술정책과 강OO 사무관이 서울연극협회, 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분위기로 알 수 있었고 우리만화연대가 혹시 문제가 되는지 청와대 신OO 행정관에게 물어본 후 조OO 예술정책과장이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⁴⁵⁾ 참고인 조OO 예술정책과장도 담당 사무관이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 비서실에 확인 차 전화를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이 이 건의 사업자 선정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내부에서 진행 과정은 모르고 당시 유진룡 장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다면서 어떤 사업인지 물었고, 이후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⁴⁶⁾ 참고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 신OO도 우리만화연대를 국정원 정보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강OO 사무관이 우리만화연대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면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보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⁴⁷⁾을 통하여서도 확인된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강OO 사무관이 우리만화연대가 문제가 되는지 청와대 신OO 행정관에게 문의한 이후 신OO 행정관이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한 이후 청와대 비서실에서 유진룡 장관에게 연락을 하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락을 받은 유진룡 장관이 조OO 예술정책과장에게 이 사업과 관련하여 물어보기까지 경위에 대하여 김소영 문체비서관, 유진룡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한편 이 사업 폐지 경위에 대하여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조현재 차관, 김OO 예술정책관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필요하다.

나. 국정원 문서 「문체부, 左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의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44) 김OO 1회 진술조서, 3-6쪽. 2017.12.14.

45)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46) 조OO 사실확인서, 1-2쪽. 2018. 3. 23.

47) 신OO 사실확인서, 2쪽. 2018. 4.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9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39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공4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직권조사 취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박근혜 정부 시기 동안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를 밝히고자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2015 작가 미술장터 개설지원 사업'에서 무미아트(민병동)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었고,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순회사업에서 극단 마실(손혜정)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지원 배제 되었고, 2015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 사업·2015 센터스테이지코리아 국내공모사업·원로작가 디지털 자료집 제작 연구지원 공모 사업·2015년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 지원 사업 2차 공모사업·전자도록 발간 지원 사업·2016년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공모 사업·2016 센터스테이지코리아 국내공모 사업·2016 해외아트마켓 홍보지원 프로모터 참가지원사업·2016 한국-스페인/한국-중

국 커백션 한국 참가자 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붙임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공4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제1절 | 조사 개요

1. 직권조사의 취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를 밝히고자 한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3호(직권조사)에 의거, 2017년 12월 1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사업과 경위를 밝히고, 피해 내용도 밝히고자 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 아래와 같이 주요 문서 30건에 대하여 입수 및 검토함.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공모 지원 신청서 (첨부서류 고유번호증 4부 포함) (2017. 10. 13.)	민병동	2017. 10. 13.	
2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공모 지원 신청: 2015 동부창고미술장터 ppt자료 (2017. 10. 13.)	민병동	2017. 10. 13.	
3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공모·심의 계획(안)(2015. 3. 30.)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11. 6.	
4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참여단체 공모(2015. 3. 30.)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11. 6.	
5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 심의과정 및 회의록 —(2015. 5. 19.)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11. 6.	
6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 신청작 및 선정작 — (2015. 5. 19.)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11. 6.	
7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 심의위원 및 채점표 — (2015. 5. 19.)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11. 6.	
8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 면접심사 결과 안내 — (2015. 5. 20.)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11. 6.	
9	이메일(김OO→손혜정) : 2015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외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관련 경위(2015. 8. 20.)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장 김OO	2017. 9. 28.	첨부문서 1부 있음
10	2015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외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관련 경위(2015. 8. 20.)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장 김OO	2017. 9. 28.	첨부 문서
11	이메일(김OO → 손혜정) 제목: 마실 (2015. 12. 15.)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장 김OO	2017. 9. 28.	
12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 지원' 실행계획(안)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11. 8.	
13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 심사결과 동의서	권OO 외 3인 심사위원	2017. 11. 8.	
14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 심사결과 종합의견서	권OO 외 3인 심사위원	2017. 11. 8.	
15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권OO 외 3인	2017. 11. 8.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개발지원-기획안 공모 채점표[전시, 공연]	심사위원		
16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 (2차) 심사결과 동의서	권OO 외 3인 심사위원	2017. 11. 8.	
17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 (2차) 심사결과 종합의견서	권OO 외 3인 심사위원	2017. 11. 8.	
18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 (2차) 채점표[전시, 공연]	권OO 외 3인 심사위원	2017. 11. 8.	
19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최종심사 결과보고(2015. 8. 7.)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2017. 11. 8.	붙임 1~6, 별첨 1 자료 있음
20	1차 서류심사 대상 신규프로젝트 개발기획안 (총 7개소, 기획안 28건)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2017. 11. 8.	붙임 1
21	1차 서류심사 심사총평, 위원별 종합의견 및 선정결과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2017. 11. 8.	붙임 2
22	1차 서류심사 녹취록		2017. 11. 8.	붙임 3
23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대상 신규프로젝트 개발기획안(총 7개소, 기획안 12건)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2017. 11. 8.	붙임 4
24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심사총평, 위원별 종합의견 및 선정결과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2017. 11. 8.	붙임 5
25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녹취록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2017. 11. 8.	붙임 6
26	심사결과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2017. 11. 8.	별첨 1
27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	2017. 8. 17.	
28	2015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 선정위원회의 결과보고	예술경영지원센터		
29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보고 (2015. 5. 11.)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	2017. 8. 17.	
30	리스트-'16.9.27.현재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25인에 대하여 25회에 걸쳐 조사함.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민병동	신청인	1회 진술조서(2018. 1. 8.)
2	OOO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분야 신규사업 TFT 팀장	1회 진술조서(2018. 1. 22.)
3	이OO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1회 진술조서(2018. 2. 1.)
4	OOO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주무관	사실확인서(2018. 2. 22.)
5	OOO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주무관	사실확인서(2018. 2. 23.)
6	김OO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사실확인서(2018. 3. 23.)
7	김OO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	사실확인서(2018. 4. 15.)
8	손혜정	신청인	1회 진술조서(2017. 10. 16.)
8	김OO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장(2015)	1회 진술조서(2017. 11. 23.)
10	안OO	예술경영지원센터 팀장(2015)	1회 진술조서(2017. 12. 18.)
11	OOO	문체부 국제문화과 주무관(2015)	1회 진술조서(2017. 1. 16.)
12	한OO	문체부 국제문화과 사무관	사실확인 답변서(2018. 1. 17.)
13	임OO	문체부 국제문화과 과장	1회 진술조서(2018. 2. 1.)
14	O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주무관(2015)	사실확인서(2018. 2. 19.)
15	김선영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1회 진술조서(2018. 3. 8.)
16	박OO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장(2015)	1회 진술조서(2018. 3. 15.)
17	OOO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장(2018)	사실확인서
18	김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1회 진술조서(2018. 3. 8.)
19	OOO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원	1회 진술조서(2018. 12. 22.)
20	OOO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주무관	1회 진술조서(2018. 2. 22.)
21	OOO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분야 신규사업 TFT 팀원	1회 진술조서(2017. 12. 22.)
22	김OO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진흥실장	1회 진술조서(2017. 12. 29.)
23	조OO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사실확인서(2018. 1. 9.)
24	B	문체부 예술국장	1회 진술조서(2018. 3. 23.)
25	김OO	문체부 예술국장(2014.11.~2015.7.)	사실확인서(2018. 4. 19.)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06년 1월 12일 설립되었고 현재 조직 구성은 이사회, 감사, 대표, 경영기획실(전략기획팀, 경영관리팀), 예술산업기반실(정보분석팀, 인력양성팀, 판로지원팀), 예술산업진흥실(공연유통팀, 시각지원팀, 시각유통팀, 교류협력팀)로 되어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의 산업적 기반 조성(예술산업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전문화 및 분업화 지원), 예술의 유통 활성화 추진(예술의 유통 플랫폼 확대, 예술상품의 유통채널 다각화), 한국예술의 해외진출 확대(공연분야 해외진출 지원, 시각예술분야 해외진출 지원) 등이 있다.¹⁾

2. '2015 작가 미술장터 개설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

가.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1)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공모·심사 계획안²⁾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개요

- 사업명: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 사업기간: 2015년 3월 - 2016년 2월 (12개월)
- 사업내용: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기획 및 운영 외
- 사업목적
 - 직거래 미술장터를 개설하여 작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가들의 창작 환경 지원 및 미술시장 진입 기회 제공

1)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2) 예술경영지원센터 작성,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공모·심사 계획안」

- 미술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및 미술품 소장문화 확산 유도
- 기본방향
 - 작가단체·법인·팀 대상 공모·심사를 통해 지원금 차등 지원
 - 기존 아트페어와 차별화하여 미술품 판매금 전부를 참여작가에게 지급함으로써 작가에게 실질적 혜택 부여
 - 미술품 소장문화 확산을 위한 중저가 위주의 미술품 판매 지원
 - 미술장터에서 구매한 작품을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구매자의 만족도 제고

공모사업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지원유형	지원대상	총 예산	지원규모	비고
공모1유형	작가단체(협회)	700,000,000(원)	5개 단체 내외	차등지원
공모2유형	신진작가(팀)	100,000,000(원)	5개 단체 내외	차등지원

※ 선정 단체/팀 수 및 지원 비용은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 추진 절차

- 1단계: 작가단체/법인/팀 공모, 지원신청서(계획서) 접수
- 2단계: 공모지원 심사, 선정 단체/법인/팀 확정 공고
- 3단계: 선정단체/법인/팀과 지원 협약 체결(지원금 지급)
- 4단계: 사업수행 (장터개설·운영), 개별 미술장터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5단계: 단체/법인/팀별 성과·정산서 제출, 성과공유 컨퍼런스 참여
- 6단계: 정산확정 통보, 사업결과 환류

공모개요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모개요

- 공모기간: 공고일 - 2015. 4. 14(화) 18:00까지
- 공모대상: 작가단체 및 신진작가(팀)
- 선정대상: 공모·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작가단체 및 팀 선정
- 지원내용: 판매수수료 없는 직거래 미술장터 개설 지원
- 지원규모: 행사 규모, 내용,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여 지원규모 책정

- * 공모1유형: 최대 3억원 - 최소 5천만원 이내 심사 후 차등지원
- * 공모2유형: 최대 4천만원 - 최소 1천만원 이내 심사 후 차등지원

- 지원항목: 장터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직접경비)
- 지원방식: 사업 선정 후 지급

□ 공모내용

구분	[공모1] 작가단체 미술장터 개설 지원	[공모2] 신진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단체의 미술품 판매를 위한 중·대규모 미술장터 개설 지원 ※ '15. 5월 -16. 1월에 미술장터를 개설하여야 하며 최소 5일 이상 미술장터를 운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진작가의 미술품 판매를 위한 소규모 미술장터 개설 지원 ※ '15. 5월 - 16. 1월에 미술장터를 개설하여야 하며 최소 5일 이상 미술장터를 운영하여야 함
지원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술작가로 구성되어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법령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상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지회/지부에서도 신청 가능) ② 미술작가로 구성된 임의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지원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진작가(*만 40세 이하,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10명 이상 구성된 팀(그룹) ② 신진작가로 구성된 임의단체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억원 내에서 5개 단체 내외 지원 - 최대 3억원~최소 5천만원 이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차등지원 (예시) 3억원 1개 단체, 1.5억원 1개 단체, 1억원 2개 단체, 0.5억원 1개 단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문화재단 등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인 경우 감액 지원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억원 내에서 5개 팀(단체) 내외 지원 - 최대 4천만원~최소 1천만원 이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차등지원 (예시) 0.4억원 1개 팀, 0.3억원 1개 팀, 0.1억원 3개 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문화재단 등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인 경우 감액 지원될 수 있음
지원항목	장터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직접경비) 지원 (※ 자부담은 필수사항이 아님)	

심의 및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심의방법: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 및 인터뷰(면접) 심사
- 심의위원 구성 및 기준(안)
 - 서류 및 면접 심사: 외부 전문가 각 3인
아트페어 및 전시행사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있는 시니어급 전문가
- 심의절차: 센터 행정심의(지원 신청자격 확인) → 전문가 서류심의(사업 기본계획안(사업내용, 추진방법, 장소 등)을 토대로 심사, 과거 유사 사업 수행성과 검토 → 전문가 면접심의(사업계획 PT 발표 및 인터뷰)

(2)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참여단체 공모³⁾

공모 개요는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공모·심사 계획안’의 내용대로 공지되었다. 이 사업 공고에서 발표한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선정방법

-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
- 심사절차: 1차 전문가 서류심사(○사업 기본계획안(사업내용, 추진방법, 장소 등)을 토대로 심사, ○지원 신청자격 확인 및 과거 유사 사업 수행성과 검토) → 2차 전문가 면접심사(사업계획 PT 발표 및 인터뷰)

• 심사일정(안)

※ 하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정	비고
접수기간	공고일-2015.4.14(화) 18:00	이메일 접수
1차 서면심사	2015. 4. 17.(금) 예정	결과발표: 4. 20(월)
2차 면접심사	2015. 4. 23(목) 예정	최종발표: 4. 27(월) 예정

※결과발표는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 단체/법인/팀 개별 연락

□ 심의기준(안)

심의지표	가중치	세부심의 내용
계획단계	사업계획의 구체성/	30% • 사업목적(사업취지)의 이해도 및 부합성

3) 예술경영지원센터 작성,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심의지표	가중치	세부심의 내용
타당성		
집행단계		
단체의 전문성/ 활동실적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한 단체/법인/팀의 전문성 • 신청한 단체/법인/팀의 활동 실적 • 사업 실현을 위한 운영 인력 확보
관람객 유치 및 미술품 판매계획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 유치계획의 구체성 • 미술품 판매계획의 구체성 • 사업 홍보계획
성과단계		
사업성과 기대도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성과 기대도 및 파급효과

나. 리스트-’16.2.1.현재

‘2015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문서에서 2015년 5월 경 ‘무미아트(민병동)’가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⁴⁾

작가장터 개설지원 (’15.5월) - 1명	무미아트(민병동)
----------------------------	-----------

다. 참고인 등 대인 조사

(1) 참고인 000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000은 000 주무관의 후임으로 2015년 4월 경부터 시각예술디자인 과 주무관으로 일했는데 위원회 조사에서, 무미아트(민병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내용이 현재 상세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당시 리스트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은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예술국에 근무하면서 이런 리스트가 예술정책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⁵⁾

4) 오OO, 리스트-’16.2.1.현재, 23쪽. 2016. 2. 1.

5) 000 사실확인서, 1쪽. 2018. 2. 22.

(2) 참고인 전OO의 진술

참고인 OOO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분야 신규사업 TFT 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1차 심사회의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자료가 배포되고 난 직후 심사를 보류하라는 문체부 OOO 주무관의 지시가 OOO 혹은 OOO 직원에게 왔다고 하면서, 박OO 본부장에게 이러한 상황을 공유한 후 심사를 보류하였는데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이러한 심사 상황에 대한 우려를 페이스북에 올렸고, OOO 팀장이 심사위원이 심사 상황에 대한 우려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박OO 본부장에게 공유하자 박OO 본부장은 문체부 쪽으로 이러한 상황을 알리라고 OOO에게 지시하였고, OOO는 문체부 OOO 주무관에게 심사위원이 심사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고 알렸는데 그 후 심사가 연기되었다고 진술하였다.⁶⁾

OOO 팀장은 1차 심사가 연기된 후 김OO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 과장과 김OO 예술국장이 김선영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를 직접 찾아왔고, 두 사람이 다녀간 후 1차 심사가 진행되었는데 2차 심사를 앞두고 김OO 과장이 김선영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배제 명단을 불러주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김선영 대표가 김OO 과장에게 받은 배제 명단 중에 무미아트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김선영 대표가 이 사건 지원 사업에서 지역안배를 하여달라고 OOO에게 지시를 하였는데도 무미아트가 선정 결과에서 빠진 것으로 보아 무미아트가 배제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⁷⁾

(3) 참고인 OOO의 진술

참고인 OOO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주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3월 사업 계획에 따라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앞으로 공모자, 심사자 모두 지원배제 명단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라고 당시 오OO 사무관이 지시를 하였고, 1차 서류 심사를 일단 보류시키고 공모자, 심사자 명단을 보낸 후(누구에게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음) 응답을 기다리다가 오OO 사무관에게 담당자별로 직접 확인하고 진행하라는 연락을 받고 1차 서류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소통실로 발령이 났다.'고 하면서, '지원 배제 명단을 오OO 사무관이 가지고 있어 그 명단에 있는 이름, 단체를 확인하면서 진행하였고, 무미아트 등 세부명단은 기억나지 않는다. 배제명단을 산하단체로 전달하지 말고 담당자들이 직접 확인하라고 하였다. 1차 서류 심사 시에는 따로 배제했던 단체나 심사자는 없었던 것으로

6) OOO 1회 진술조서, 3-4쪽. 2018. 1. 22.

7) O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8. 1. 22.

기억한다’, ‘(소통실로 발령난 후) 후임 주무관, 사무관 등에게는 지원배제 명단과 관련하여 인수인계한 것은 없고 상황만 구두로 알려주었다. 지원배제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오 OO 사무관과 소통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⁸⁾

(4) 참고인 김선영의 진술

참고인 김선영 예술경영지원센터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000 팀장의 “2차 심사 전에 김 OO 과장이 김선영 대표에게 직접 배제 명단을 전달했다고 김선영 대표에게 들은 바 있다”, “대표님께서 저에게 입단속을 시키면서 담당 직원도 모르게 하라”는 지시받았다는 진술에 대하여 맞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⁹⁾

(5) 참고인 박OO의 진술

참고인 박OO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5월 경 000 팀장으로부터 김선영 대표가 예술경영지원센터 사무실 근방에서 김OO 국장을 만났는데, 김OO 국장은 김선영 대표에게 ‘신경 써서 일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고 전해 들었는데, 김OO 국장이 소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배제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박OO 본부장은 다만 ‘작가미술장터 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배제 명단을 직접 본 적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이름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하면서 전체 신청자 명단 중 일부를 문체부에서 배제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000 팀장에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¹⁰⁾

(6)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OO은 2018년 3월 23일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무미아트(민병동)은 당시 자격미달로 탈락된 건으로 지원배제 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¹⁾

8) 000 사실확인서, 2쪽. 2018. 2. 23.

9) 김선영 1회 진술조서, 6-7쪽. 2018. 3. 8.

10) 이와 관련하여 김OO은 ‘2015 작가 미술장터 개설지원 사업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음. 당시 미술관장 선정 사업과, 국가상징물 사업이 시각예술디자인과 주요사업이었고 미술장터 개설지원사업은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왜 갑자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관장하는 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때임. 이 사실은 김선영 예경 대표에게 확인해 본 사실임.’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18. 11. 5.).

(7)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김OO은 2018년 4월 15일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가) 김OO 국장과 김선영 대표를 찾아가서 전달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김OO 국장과 자신이 김선영 대표에게 전달한 내용은 당시 청와대에서 주도하고 있었던 예술분야에 있어 지원배제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으로 기억됩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와 예술가들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하였고,¹²⁾ (나) 김선영 대표에게 전달한 리스트 중에 무미아트(민병동)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당시 김선영 대표에게 전달한 명단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미아트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다만 당시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했던 리스트에 무미아트(민병동)가 있었다면 무미아트를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하였고, (다) 무미아트에 대한 배제 결과는 어떻게 사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작가장터 개설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 단체목록을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보고받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보고받은 최종 지원대상 단체 목록에 해당 단체명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하였고, (라) 시각예술디자인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하여는 “당시 상황을 기억해보면, 상부의 지시, 특히 청와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너무나 무력함을 느꼈던 시기였고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중간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모시던 국장님과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위협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청와대의 지시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³⁾

(8) 참고인 이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이OO는 위원회 조사에서 ‘무미아트(민병동)’이 기재된 오OO 사무관 작성 ‘리스트-’16.2.1.현재’ 문서와 관련하여, 오OO으로부터 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지시는 청와대 김OO 선임행정관이 예술국 국장, 과장, 사무관, 주무관 중 1인에게 그때그때 보내주면 배제 지시를 받은 사람이 나머

11) 김OO 사실확인서, 1쪽. 2018. 3. 23.

12) 이에 대해서는 앞의 김OO 이의제기 참고(’18. 11. 5.).

13) 김OO 사실확인서, 1-3쪽. 2018. 4. 15.

지 사람들에게 배제 지시가 내려왔다고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⁴⁾

(9)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국장 김OO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동 사항은 아는 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⁵⁾

라. 무미아트(민병동)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 되었는지 여부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심의 과정¹⁶⁾

이 사업에 대한 공모접수는 2015. 3. 31. ~ 4. 14, 서류심사는 2015. 4. 28, 면접심사는 2015. 5. 18.~5.19, 결과발표는 2015. 5. 20.예정이었다. [공모 1] 작가단체 유형의 심사위원은 고OO(미술평론가), 김OO(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박OO(경기도 미술관 미술부장)이었다.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사업이 포함된 [공모 1]에 대한 1차 서류 심의 총평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원 사업이라 작가의 자생력 강화나 미술품 판매계획의 구체성 부분 등에서 실질적인 작가 지원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지원 신청 내용이 적은 것이 아쉬웠음.’, ‘그동안 미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경험 및 새로운 예술적 시장에 대한 모색을 시도한 단체들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등이었다.

[공모 1]에 대한 2차 면접 심의 총평은 ‘작가들의 미술품 판로 개척 지원이라는 본 사업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단체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며 기획서 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의 정도, 지역 안배를 고려하였음’ 등이었다.

(나) 2015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신청작 및 선정작¹⁷⁾

[공모 1] 유형: 작가단체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에서는 총 23개 단체가 지원 신청하

14) 이OO 1회 진술조서, 20-21쪽. 2018. 2. 1.

15) 김OO 사실확인서, 2쪽. 2018. 4. 19.

16)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심사과정 및 회의록-’ 1쪽

17) 2015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신청작 및 선정작.

였고 이 중 총 6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가 100,000,000원을 지원 받았고, 고양조각가협회는 90,000,000원, (사)한국미술협회는 300,000,000원, 대구현대미술가협회는 100,000,000원,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자연의소리사업단은 60,000,000원, 커먼센터는 50,000,000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다)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채점 과정¹⁸⁾

[공모 1] 유형 : 작가단체 미술장터 개설 지원 서류 심의 대상은 모두 23개 단체였고, 이 중 1순위가 커먼센터(94점), 2순위가 극동예술연합 Eastern Art Union(90점), 3순위가 무미아트(90점), 4순위가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87점) 등이었다.

[공모 1] 유형 면접 심의 대상은 모두 10개 단체였는데 면접 심의 결과 1순위 (사)한국미술협회(94점), 2순위 한국자연미술가협회자연의소리사업단(92점), 3순위 고양조각가협회(91점), 대구현대미술가협회(91점) 등이었고, 무미아트는 10순위(73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가) 000 진술조서

참고인 000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분야 신규사업 TFT 팀원은 이 사건 사업 2차 면접 심사 당시 배석하였는데, 심사위원 3명 중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 두 명이 이 사업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판매전략, 마케팅, 관객개발’ 등 어떻게 대중에게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무미아트의 지원계획서는 그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⁹⁾

(나) 민병동 진술조서

이 사건 민병동은 2차 인터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3명 중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 두 명이 이 사업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판매전략, 마케팅, 관객개발’ 등 어떻게 대중에게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무미아트의 지원계획서는 그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000 진술과 달리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18)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심의위원 및 채점표-

19) 000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2. 22.

없다고 진술하였다. 민병동은 당시 공동기획자인 이OO 예술상회 대표와 함께 동행하였지만 이OO 대표도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²⁰⁾

마. 소결

(1) 무미아트(민병동)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되었는지 여부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문서에서 2015년 5월 경 ‘무미아트(민병동)’가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²¹⁾ OOO 주무관도 “예술계에 근무하면서 이런 리스트가 예술정책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서²²⁾ 무미아트(민병동)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유를 들은 바 있다는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1차 서류 심의 결과 무미아트(민병동)가 90점으로 1순위 커먼센터(94점), 2순위 극동예술연합 Eastern Art Union(90점)에 이어 3순위에 올랐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차 면접 심의 결과 무미아트는 10순위(73점)로 지원 선정되지 못하였다.

참고인 전OO 팀장이 문체부 김OO 과장이 김선영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배제 명단을 불러주었다고 진술하면서, 배제 명단에 무미아트가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 무미아트가 배제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²³⁾ OOO 주무관이 이 사업 공모 절차 진행 중에 지원배제 명단 등재 여부를 확인하라는 오OO 사무관의 지시를 받았고 소통실로 발령받은 후에는 후임자에게 상황을 구두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²⁴⁾ 참고인 김선영 대표가 OOO 팀장의 진술에 대하여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²⁵⁾ 박OO 본부장도 2015년 5월 경 OOO 팀장으로부터 문체부 김OO 국장이 김선영 대표에게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배제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김OO 국장은 부인),²⁶⁾ 참고인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김OO이

20) 민병동 1회 진술조서, 3쪽. 2018. 1. 8.

21) 오OO, 리스트-’16.2.1.현재, 23쪽. 2016. 2. 1.

22) OOO 사실확인서, 1쪽. 2018. 2. 22.

23) O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8. 1. 22.

24) OOO 사실확인서, 2쪽. 2018. 2. 23.

25) 김선영 1회 진술조서, 6-7쪽. 2018. 3. 8.

26) 박OO 1회 진술조서, 3-4쪽. 2018. 3. 15., 김OO 이의제기(’18. 11. 5.).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했던 리스트에 무미아트(민병동)가 있었다면 무미아트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김선영 대표에게 전달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송부받은 작가장터 개설지원 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 단체목록에서 배제 대상 단체명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²⁷⁾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15년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에서 문체부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무미아트(민병동)를 지원 배제 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무미아트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무미아트(민병동) 배제 방법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1차 심사 결과 무미아트(90점)가 3순위에 선정되었으나 2차 인터뷰 심사 결과 73점으로 10순위를 하였다는 점, 참고인 000이 2차 심사위원 3명 중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 두 명이 이 사업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판매전략, 마케팅, 관객개발’ 등 어떻게 대중에게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무미아트의 지원계획서는 그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²⁸⁾ 심사위원들도 2차 면접 심의 총평에서 ‘작가들의 미술품 판로 개척 지원이라는 본 사업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단체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며 기획서 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의 정도, 지역 안배를 고려하였음’ 등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심사위원들이 무미아트(민병동)에 낮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지원 배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막상 민병동은 위 000 참고인의 진술을 부정하고 있고,²⁹⁾ 참고인 중 누구도 심사위원들에게 무미아트를 배제하여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아서 무미아트가 지원 배제된 구체적인 경위는 파악할 수 없다.

27) 김OO 사실확인서, 1-3쪽. 2018. 4. 15.

28) 000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2. 22.

29) 민병동 1회 진술조서, 3쪽. 2018. 1. 8.

3.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순회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우

가.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중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 실행계획(안)³⁰⁾

(1) 이 사업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나. 세부사업명: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

다. 사업목적:

- 국내-현지 아티스트 간 협력 및 현지 커뮤니티 활용 등을 통하여 권역별 특징과 현지 수요를 반영한 신규 프로젝트 개발 지원
- 공연·시각예술의 다양하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문화원과 국내 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원의 활동 영역 확장 및 문화예술역량 강화 지원

라. 사업 내용

- 기간: 2015년 5월 ~ 2015년 12월
- 장소: 한국 문화원 소재 국가 5곳(예정)
- 내용:
 - 해외 한국문화원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문화원에서 희망하는 신규프로젝트의 장르·유형을 취합하고, 이를 국내 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함으로써 문화원과 국내 예술단체 간 매칭 신규 프로젝트 개발 지원
 - 지원내역:
 - 가. 지원규모: 신규프로젝트 개발비(최대 4,000만원 차등 일괄지원)
 - 나. 유의사항: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비의 경우 본인부담
 - 심사기준: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해외 문화원과 협업도, 국제교류역량 및 중장기 발전 가능성, 신청 단체 역량평가
 - 최종결과 발표: 2015년 6월 3주 중 예정

(2) 공모 안내

이 사업에 대한 공모 내용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 지원' 실행계획(안)」

- 사업진행절차
 - '15. 5. 21.~6.5. 프로젝트 개발 기획안 공모
 - '15. 6. 3주 1차 심사 (서류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
 - '15. 6. 4주 2차 심사 (문화원 최종 선정심사, 문화원-국내 예술단체 매칭)
 - '15. 6. 4주 지원금 교부
 - '15. 7-12. 사업실행
 - '15. 12.

- 세부 내용

가. 프로젝트 실행기간: 교부확정통지일~ 2015년 12월

나. 문화원 희망 프로젝트 내용 : 이 사건에 해당 하는, 뉴욕문화원의 경우는 2015년 10월 ~ 11월 기간 동안 뉴욕/뉴저지 지역학교 및 기타 공연장을 희망장소로 하여, 현지 아동 대상 아동극 프로그램, 개발 및 공연[아동극]이었다.

나. 극단 마실(손혜정)이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 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경위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극단 마실이 최종 선정되었다가 제외된 경위

① 1차 심사 결과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에서 프로젝트 기획안 1차 심사 결과 뉴욕 문화원의 경우 극단 북새통, 극단 하땅세, 극단 마실이 선정되었다.³¹⁾

② 2차 심사 결과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에서 프로젝트 기획안 2차 심사[공연 분야] 결과 뉴욕 문화원의 경우 극단 마실이 선정되었다.³²⁾

31) 000 외 3인,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 심사결과동의서, 1쪽.

32) 000 외 3인,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 (2차) 심사결과동의서, 1쪽.

③ 최종심사 결과보고³³⁾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이 2015년 8월 7일 작성한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최종심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이 사업 최종 심사 결과 최종 선정된 단체는 총 2개 단체(통영옷칠미술관, 극단 몸꼴)이고 극단 마실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당초 이 사업 심사 전 작성하였던 실행계획에는 없던 심사방식이 하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문화원 최종 심사가 추가되었고, '중복 지원 대상 문화원 제외'라는 원칙이 새롭게 들어가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3차 문화원 최종심사
 - 2차 선정단체 대상 기획안 검토 후, 최종선정
 - ※ '재외 한국문화원 우수프로그램 순회지원 사업' 중복지원 대상 문화원 제외

④ 극단 마실이 선정 제외된 경위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5년 8월 20일 경 극단 마실 쪽으로 「2015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외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관련 경위」 공문을 보내 극단 마실이 '중복 지원 제한의 지침'에 해당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 공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⁴⁾

-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계획이 '15년 4월에 확정되어 단기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우수 프로그램 순회지원과 현지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의 공모와 심사 등의 과정이 부득이하게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 사업기간이 짧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측보다 많은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및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무부처와 협의 후 문화원 중복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 우리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이러한 업무상 실수로 인해 귀 단체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에 대해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3)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작성,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최종심사 결과보고」, 2015. 8. 7.

34)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작성, 「2015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외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관련 경위」, 2쪽, 2015. 8. 20.

(나) 리스트-’16.2.1.현재, 리스트-’16.9.27.현재

①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23쪽)에는 위 우수문화 프로그램 사업에서 극단 마실 공동대표인 이경수의 이름이 2015.6.29.자료 등재되어 있다.³⁵⁾

우수문화예술프로그램 (’15.6.29/ 국제문화과)-3 명	○ 전시: 김제민 ○ 공연: 유기형, 남인우, 박종우, 이경수
--	---------------------------------------

②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9.27.현재’에서도 극단 마실 손혜정이 2016 커넥션-스페인/중국-참가자선정 사업에서 국정원(K)의 검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³⁶⁾

2016 커넥션-스페인/중국-참가자선정	○ 특이없음(B/8.8) ○ K(9.5) - 손혜정(극단마실)
-----------------------	---------------------------------------

③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극단 마실 손혜정 대표는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하여 통보한 주요 좌성향 인물 181명에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³⁷⁾

79	손미정	극단 마실	문체부 자료
----	-----	-------	--------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① 손혜정의 진술

손혜정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1차 서류 심사 결과 극단 마실·극단 북새통·극단

35)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리스트-’16.2.1.현재’, 23쪽

36)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리스트-’16.9.27.현재’, 8쪽.

37) 국정원 적폐청산 T/F,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3쪽. (붙임17). 2017. 10. 30. 여기서 손미정은 손혜정의 오기로 보인다.

하땅세가 선정되었고, 2차 면접 심사 결과 극단 마실이 최종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우선으로 받았는데 이후 심사 결과 발표는 한 달 이상 지연되었고, 예산 배정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서 최종 선정 결과를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뉴욕문화원 순회공연에 맞는 공연영문번역료, 공연후속프로그램 구성료, 공연후속프로그램 영문 번역료 등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거나 다른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금전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⁸⁾

②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교류팀장 김OO는 1차 심사(2015.6.24.)를 시작하기 전 문체부 OOO 주무관에게 특정 예술단체를 배제하라는 요청을 우선으로 받았다고 하면서,³⁹⁾ ‘문체부의 배제 요청을 심사위원 2명에게 전달하였지만 예술단체들의 공연 제작 능력 등이 고려되어 문체부가 배제 요청한 예술단체들이 모두 배제되지는 못하였는데, 문체부 OOO 주무관이 2차 심사(2015.6.30.)를 앞두고 다시 김OO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예술단체를 배제해 달라고 추가 요청 하였는데, 뉴욕문화원의 경우 2차 심사 대상이 된 3개 단체(극단 마실, 극단 하땅세, 극단 북새통)가 모두 배제 대상이었다. 김OO 팀장은 문체부의 1차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김선영 대표와 상의하였고, 2차 추가 배제 요청을 받았을 때도 김선영 대표와 배제 방법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김OO 팀장은 문체부 OOO 주무관과도 상의한 결과 1차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심사위원 2명과 상의하였지만, 심사위원 2명은 2차 심사에서 위 3개 예술단체를 배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 김OO 팀장은 김선영 대표와 다시 상의한 결과 2차 면접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다른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문화원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중복지원 불가 방침’)을 세우고 이를 근거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정리한 다음 이러한 내용을 문체부 OOO 주무관에게도 보고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심사위원들에게도 전달되었고, 심사위원들은 2차 심사 결과 극단 마실의 <관심중심의 커뮤니티 만들기>를 최종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차 심사가 끝난 후 김OO 팀장은 뉴욕문화원에 이메일 혹은 공문을 보내 중복지원은 어렵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⁴⁰⁾

38) 손혜정 1회 진술조서, 3-9쪽. 2017. 10. 16.

39) 김OO 1회 진술조서, 4쪽. 2017. 11. 23.

40) 김OO 1회 진술조서, 5~8쪽. 2017. 11. 23. 2015년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다른 지원 사업에서 뉴욕문화원이 이미 선정된 바 있기 때문에 뉴욕문화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이다.

③ 참고인 000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국제문화과 주무관 000은 위원회 조사에서, 위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서 2015.6.24. 1차 서류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예술경영지원센터 위 사업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지원 단체를 지원 배제하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임OO 국제문화과장으로 부터 배제 지시를 받았는데 임OO 과장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과 소통하여 일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오OO 사무관에게 신청자 명단을 보낸 후 오OO 사무관으로부터 배제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알려주었다고 하였다. 한OO 국제문화과 사무관에게도 배제 지시 받은 사항을 전달하였다. 배제 결과 보고도 마찬가지로 한 OO 사무관, 임OO 과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000 주무관은 배제 요청하였던 단체 중 일부가 2차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자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2015.6.30.오전 예술경영지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일부 단체를 추가하여 지원 배제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극단 마실의 이름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한OO 사무관, 임OO 과장에게도 보고하였는데 임OO 과장은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였다. 000 주무관은 2차 면접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다른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문화원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이를 근거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극단 마실에 대한 최종 배제 결과는 한OO 사무관, 임OO 과장에게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⁴¹⁾

④ 참고인 한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국제문화과 한OO 사무관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위 사업 관련 000 주무관으로부터 단체 선정결과를 보고 받았을 때 임OO 과장님의 지시로 ‘예술경영지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특정 예술단체 지원 배제 요청’을 하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특정 예술단체 배제결과는 000 주무관이 임OO 과장에게 직접 보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⁴²⁾

41) 000 1회 진술조서, 3-7쪽. 2018. 1. 16.

42) 한OO 사무관이 임의로 제출한 ‘답변서’, 1쪽. 2018. 1. 17.

⑤ 참고인 임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국제문화과 과장 임OO은 위 ‘문화원-국내 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순회 사업’에서 극단 마실을 지원 배제하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2차 심사가 끝난 후 OO 주무관에게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당시 단체 선정 시 예술정책과에 확인을 하고 진행하라는 이OO 국장의 전달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협의해보라고 하였던 것 같은데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한 OO 주무관의 진술이 있다면 OO 주무관의 말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협의 결과에 대하여 OO 주무관에게 다시 보고를 받았을 것 같은데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OO 주무관의 진술이 있다면 OO 주무관의 말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⁴³⁾

⑥ 참고인 김선영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선영은 위원회 조사에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극단 마실 손혜정 대표를 면담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2015년도 6월 24일에 1차 서류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문체부 국제문화과 OO 주무관으로부터 “일부 지원단체를 지원 배제해라”는 요청을 받고, 김선영 대표에게 보고를 한 후 심사위원 두 명에게 배제 요청을 받았다는 부탁을 하였지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2차 심사대상자에도 배제 대상자들이 올라왔고, 특히 뉴욕문화원의 경우에는 극단 마실, 극단 북새통, 극단 하땅세 세 단체 전부 다 블랙리스트여서 굉장히 난감했는데 OO 주무관이 또 전화를 해서 배제해 달라고 하여서 난감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차에 올라왔던 세 단체는 역량도 좋고 떨어뜨릴 명분이 없어서 “이미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문화원은 중복지원하지 않는다”는 중복지원 불가 방침을 세워서 심사에 들어갔고, 심사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이런 설명을 했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마실을 최종으로 뽑았지만, 뉴욕문화원 쪽으로는 “이미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라고 알리고 마실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때 당시에는 문체부의 배제 방침이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⁴⁴⁾

43) 임OO 1회 진술조서, 9-10쪽. 2018. 2. 1.

44) 김선영 1회 진술조서, 12-17쪽. 2018. 3. 8.

⑦ 참고인 박OO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장 박OO은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 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서 있었던 문체부의 배제 지시와 관련하여 당시에는 자신의 소관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2차 심사가 끝나고 난 후 결과 발표를 앞두고 1, 2차 심사 과정에서 문체부의 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김OO 팀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⁴⁵⁾

(3) 소결

다음의 사실을 통하여 극단 마실(손혜정)이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 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지원 배제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 기획안 공모에서 프로젝트 기획안 1차 심사 결과 뉴욕 문화원의 경우 극단 북새통, 극단 하땅세, 극단 마실이 선정되었고,⁴⁶⁾ 2차 심사 결과 극단 마실이 선정되었지만,⁴⁷⁾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중복 지원 대상 문화원 제외’라는 원칙⁴⁸⁾을 새롭게 세워서 극단 마실을 지원 배제 하였다. 1차 심사(2015.6.24.)를 시작하기 전 문체부 OOO 주무관이 특정 예술단체를 배제하라는 요청을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장 김OO에게 유선으로 하였고⁴⁹⁾ 김OO 팀장은 문체부의 배제 요청을 심사위원 2명에게 전달하였지만 문체부가 배제 요청한 예술단체들이 모두 배제되지는 못하여서, 문체부 OOO 주무관이 2차 심사(2015.6.30.)를 앞두고 다시 김OO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예술단체를 배제해 달라고 추가 요청 하였는데, 뉴욕문화원의 경우 2차 심사 대상이 된 3개 단체(극단 마실, 극단 하땅세, 극단 북새통)가 모두 배제 대상이었다. 김OO 팀장은 문체부의 1차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김선영 대표와 상의하였고, 2차 추가 배제 요청을 받았을 때도 김선영 대표와 배제 방법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김OO 팀장은 문체부 OOO 주무관과도 상의한 결과 1차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45) 박OO 1회 진술조서, 5-6쪽. 2018. 3. 15.

46) OOO 외 3인,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 심사결과 동의서, 1쪽.

47) OOO 외 3인,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 (2차) 심사결과 동의서, 1쪽.

48)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작성,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최종심사 결과보고’. 2015. 8. 7.

49) 김OO 1회 진술조서, 4쪽. 2017. 11. 23.

로 심사위원 2명과 상의하였지만, 심사위원 2명은 2차 심사에서 위 3개 예술단체를 배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 김OO 팀장은 김선영 대표와 다시 상의한 결과 2차 면접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다른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문화원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중복지원 불가 방침’)을 세우고 이를 근거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정리한 다음 이러한 내용을 문체부 000 주무관에게도 보고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심사위원들에게도 전달되었고, 심사위원들은 2차 심사 결과 극단 마실의 <관심중심의 커뮤니티 만들기>를 최종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차 심사가 끝난 후 김OO 팀장은 뉴욕문화원에 이메일 혹은 공문을 보내 중복지원은 어렵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⁵⁰⁾

한편 문체부 국제문화과 주무관 000은 임OO 국제문화과장으로부터 배제 지시를 받았는데 임OO 과장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과 소통하여 일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오OO 사무관에게 신청자 명단을 보낸 후 오OO 사무관으로부터 배제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알려주었던 것이다. 000 주무관은 극단 마실에 대한 최종 배제 결과는 한OO 사무관, 임OO 과장에게도 보고하였다.⁵¹⁾ 문체부 국제문화과 과장 임OO은 위 ‘문화원-국내 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순회 사업’에서 극단 마실을 지원 배제하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당시 단체 선정 시 예술정책과에 확인을 하고 진행하라는 전달을 이OO 국장으로로부터 받았다.⁵²⁾

4. ‘2015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

가. ‘2015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 선정위원회의 결과 보고

‘2015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 사업은 2015. 2. 23.~3.13. 기간 동안 공모 접수하여 총 133건(연극 44건, 무용 40건, 음악 21건, 다원/기타 28건)이 접수되었고, 선정위원회의 선정결과 총 21편(연극 5편, 무용 5편, 음악 6편, 다원/기타 5편)이 선정되었다.⁵³⁾

50) 김OO 1회 진술조서, 5~8쪽. 2017. 11. 23.

51) 000 1회 진술조서, 3-7쪽. 2018. 1. 16.

52) 임OO 1회 진술조서, 9-10쪽. 2018. 2. 1.

53) 예술경영지원센터 작성, ‘2015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 선정위원회의 결과보고’, 1-2쪽.

나.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보고('15. 5.11.)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2015. 5. 11.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문화예술 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문서에 첨부된 [참고4-개별 공모추진사업 현황]에 따르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서울아트마켓 팸스 초이스 사업에서 4건(극단 사니너머, 극단 성북동비둘기, 극단 하땅세, 그린피그)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⁵⁴⁾

(예술경영 지원센터/ 문예기금)	서울아트마켓 팸스 초이스 (‘15.4.15완료)	133	13	04건: 극단 사니너머, 극단 성북동비둘기, 극단 하땅세, 그린피그
-------------------------	----------------------------------	-----	----	--

다. 참고인 진술

(1) 참고인 O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OOO 주무관은 2018. 2. 19.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당시 예술단체 지원 공모사업은 청와대의 승인 없이는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동 사업 역시 청와대의 지속적인 지시와 점검으로 인해 접수결과 및 심사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추진하였고, 본인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임OO 팀장에게 접수 결과 및 심사계획을 제출 받아 김OO 사무관 공유 후 임OO 과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시 청와대 파견 중이던 김OO 국장에게 최종 보고하였고, 김OO 국장은 이에 대해 위 4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하였고, 본인은 동 지시사항을 김OO 사무관 공유 후 임OO 과장에게 보고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 임OO 팀장에게 전달하였고, 동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후 보고는 없었고, 전체 공모사업의 진행 및 심사결과를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에게 제출한 바 있으나, 이 자료가 누구에게 보고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⁵⁵⁾

54)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보고」, 14쪽. 2015. 5. 11.

55) OOO 사실확인서, 4쪽. 2018. 2. 19.

(2) 참고인 이OO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현 교류협력팀장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① ‘2015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 사업에서 1차 장르별 심사결과 극단 사니너머, 극단 하땅세, 그린피그는 타작품 대비 심사점수가 상대적으로 미달하여 탈락하였던 것이고, 극단 성북동비둘기는 최종심사위원회에서 타작품 대비 심사점수가 상대적으로 미달하여 탈락한 것이며, ② 이와 관련한 심사 과정에서 특정 단체 배제를 위한 외부(문체부 등 상급기관)의 지시 및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문체부에 대하여 1차 심사결과보고 및 최종 심사결과 보고를 제외한 별도의 보고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⁵⁶⁾

(3) 참고인 박OO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경영기획실장 박OO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 사업에서 ‘극단 사니너머, 극단 성북동 비둘기, 극단 하땅세, 그린피그에 대한 배제 지시는 문체부 000 주무관으로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 임OO 팀장에게 전달되었고, 진술인은 임OO 팀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위 4개 극단을 배제 조치하였던 것인지’에 대한 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000 교류협력팀장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관련하여,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술경영지원센터 안에서 당시 실무자 2명(000 과장, 000 대리)에게 알아본 결과 배제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지금은 퇴직한 임OO 팀장이 실무자에게 공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였고, 000 주무관이 임OO 팀장에게 배제 명단을 전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결재 라인이 있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⁵⁷⁾

(4) 참고인 김선영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선영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도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사업 관련해서 극단 사니너머, 극단 성북동 비둘기, 극단 하땅세, 그린피그에 대한 배제 지시가 문체부 000 주무관한테서 예술경영지원센터 임OO 팀장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팀

56) 000 사실확인서, 1쪽.

57) 박OO 1회 진술조서, 11쪽. 2018. 3. 15.

장들이 그러한 보고를 하면 “왜 이거를 배제를 하느냐? 문체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하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⁵⁸⁾

라. 소결

2015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 사업과 관련하여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2015. 5. 11.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문서에 첨부된 [참고4-개별 공모추진사업 현황]에서 ‘서울아트마켓 팸스 초이스’ 사업에서 4건[극단 사니너머, 극단 성북동비둘기, 극단 하땅세, 그린피그]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⁵⁹⁾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000 주무관이 예술경영지원센터 임OO 팀장에게 접수 결과 및 심사계획을 제출 받아 김OO 사무관 공유 후 임OO 과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시 청와대 파견 중이던 김OO 국장에게 최종 보고하였고, 다시 김OO 국장에게 위 4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 받아서 본인이 동 지시사항을 김OO 사무관 공유 후 임OO 과장에게 보고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 임OO 팀장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⁶⁰⁾ 당시 담당자가 아니었던 예술경영지원센터 현 교류협력팀장 000이 위 4건 사업들과 관련하여 문체부의 배제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⁶¹⁾ 위 000의 답변은 당시 예술경영지원센터 실무자 2명(000 과장, 000 대리)에게 알아본 결과 배제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은 모른다고 하여서 그렇게 답변하였던 것이고, 지금은 퇴직한 임OO 팀장이 실무자에게 공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추가 진술하고 있는 점,⁶²⁾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내용들⁶³⁾이 많이 있었다는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선영 대표의 진술⁶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4건에 대한 배제 지시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당시 담당 팀장이었던 임OO 팀장이 퇴사한 상태여서 사실확인을 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배제 지시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4개 단체는 심사 결과 타작품 대비 심사점수가 상대

58) 김선영 1회 진술조서, 27-28쪽. 2018. 3. 8.

59)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보고」, 14쪽. 2015. 5. 11.

60) 000 사실확인서, 4쪽. 2018. 2. 19.

61) 000 사실확인서, 1쪽.

62) 박OO 1회 진술조서, 11쪽. 2018. 3. 15.

63) 문체부의 배제 지시.

64) 김선영 1회 진술조서, 27-28쪽. 2018. 3. 8.

적으로 미달하여 탈락한 것이라는 진술만 있어서⁶⁵⁾ 위 4개 단체가 배제 지시에 따라서 배제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지 못하였다.

5. 2015 센터스테이지코리아 국내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가. 2015 공연예술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사업 <센터스테이지코리아> 2차 국내공모

2015 센터스테이지코리아 2차 국내 공모사업은 2015. 5. 11.~5. 31. 기간 동안 공모 접수하여, 총 23개 단체가 응모하여 10개 단체가 지원선정되었다.

나.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문서 23쪽에는 2015 센터스테이지코리아 2차 사업에서 심사위원 최석규(전 안산거리축제 예술감독), 지원자 중에서 최영철(서울오라토리오), 장용휘(극단 마고)에 대하여 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⁶⁶⁾

센터스테이지코리아 2차 (’15.6월) - 3명	심사위원: ①최석규(前안산거리축제 예술감독)
공연예술센터 대학교 3명	지원자 : ②최영철(서울오라토리오) ③장용휘(극단 마고)

다. 참고인 진술

(1) 참고인 안OO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안OO 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가) 당시 공모접수가 끝나고 난 뒤 자신이 문체부 OOO 주무관에게 언제 심사를 진행하면 되겠느냐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 이후 꽤 시간이 지난 후 (한 달 전후 였던 것으로 기억) OOO 주무관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지원에서 제외해야 할 사람(단체)를 우선으로 불러줬는데, (나) 위 명단 중에서 최석규, 장용휘(극단 마고)는 기억이 나고 최영철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마 맞는 것 같고, (다) 김선영 대표님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라) ‘센터스테이

65) OOO 사실확인서, 1쪽.

66) 리스트-’16.2.1.현재, 23쪽.

지코리아' 사업의 경우 지원 선정 되는 요건이 대단히 엄격한데 장용휘(극단 마고), 최영철(서울오토라토리오)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다른 단체에 비해 미흡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마) 그래서 따로 심사위원들에게 위 지원 배제 명단을 공유할 필요는 없었고, (바) 심사위원 명단도 문체부로 올라갔는데 문체부로부터 최석규 위원을 위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최석규 위원은 따로 전화를 드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사)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김선영 대표가 '백OO 무용단'을 지원해 달라고 자신에게 요청을 하였는데, 당시 심사위원들은 '백OO 무용단'의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 선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김선영 대표의 계속되는 요청으로 결국 선정됐고, (아) 당시 김선영 대표가 몇 번이나 자신에게 '백OO 무용단'을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⁶⁷⁾

(2) 참고인 000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000 주무관은 2018. 2. 19.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당시 예술단체 지원 공모사업은 청와대의 승인 없이는 진행할 수 없었고, 동 사업 역시 청와대의 지속적인 지시와 점검으로 인해 접수결과 및 심사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추진하였고, 본인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안OO 팀장에게 접수 결과 및 심사계획을 제출 받아 김OO 사무관 공유 후 임OO 과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시 청와대 파견 중이던 김OO 국장에게 최종 보고하였고, 김OO 국장은 이에 대해 위 4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하였고, 본인은 동 지시사항을 김OO 사무관 공유 후 임OO 과장에게 보고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 안OO 팀장에게 전달하였고, 동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후 보고는 없었고, 전체 공모사업의 진행 및 심사결과를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에게 제출한 바 있으나, 이 자료가 누구에게 보고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⁶⁸⁾

67) 안OO 1회 진술조서, 4-6쪽. 2018. 12. 18.

68) 000 사실확인서, 4쪽. 2018. 2. 19.

(3) 참고인 김OO의 진술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가) 문체부 OOO 주무관이 예술경영지원센터 안OO 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업 접수결과 및 심사계획을 제출받아 김OO 청와대 행정관에게 보낸 후 최영철, 장용휘 등에 대한 배제 지시를 받아 이를 예술경영지원센터 안OO 팀장에게 전달한 사실에 대하여 OOO 주무관에게 보고받은 바 있다고 하면서, (나)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거의 배제 지시가 없다가 이 시기쯤 시작되어서 ‘이제는 예경까지 검토하는구나’ 했던 기억이 나고, (다) 보통 배제 명단을 받은 사람이 보고하기 때문에, 자신이 과장에게 보고를 하진 않고 OOO 주무관님이 보고했는데, 이 정도 건이면 과장까지만 보고하고 국장까지는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⁶⁹⁾

(4) 참고인 김선영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선영 대표는 위원회 조사에서 (가) 2015년도 센터스테이지 코리아 2차 국내 공모 사업에서 심사위원 최석규, 지원자 중에서 최영철, 장용휘 등에 대한 배제와 관련해서 문체부 OOO 주무관이 안OO 팀장에게 하였던 배제 지시를 보고 받았는지에 대하여, 뚜렷이 기억은 안 나는데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았고, (나) 담당 팀장이 문체부의 배제 지시를 받아서 자신에게 보고를 하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하였고, (다) 이 사업에서 백OO 무용단을 지원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백OO에게서 자신에게 전화가 와서 “좀 넓혀 달라. 문호를 넓혀 달라”라고 하기에, 자신이 팀장에게 “자, 우리 이렇게 왔는데, 문호를 좀 넓혀서 하는 걸 생각해 봐라”라고 하였고, (다) 문호를 넓혀달라는 의미와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수혜 받는 범위를 맨날 하는 단체만 하지 말고. 이분이 저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OO 팀장을 불러서 “백OO무용단이라는 데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주 나를 혼내시더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문호를 넓혀서...” 제가 이진 사실은 이 분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에 올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예경이 예술계로부터 호응을 받으려면 보다 많은 단체들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 백OO 무용단을 꼭 붙여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라고 진술하였다.⁷⁰⁾

69) 김OO 1회 진술조서, 30쪽. 2018. 3. 8.

70) 김선영 1회 진술조서, 20-22쪽. 2018. 3. 8.

라. 소결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15 공연예술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사업 <센터스 테이지코리아> 2차 국내공모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 안OO 팀장에게 접수 결과 및 심사 계획을 제출 받은 O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주무관이 김OO 사무관 공유 후 임OO 과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시 청와대 파견 중이던 김OO 국장에게 최종 보고하였고, 김 OO 국장은 이에 대해 심사위원 최석규(전 안산거리축제 예술감독), 지원자 중에서 최영철(서울오라토리오), 장용휘(극단 마고)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를 다시 OOO 주무관에게 보내주었고, OOO 주무관은 이러한 지시 내용을 김OO 사무관 공유 후 임OO 과장에게 보고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 안OO 팀장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심사위원 최석규는 문체부의 배제 지시에 따라서 배제된 사실이 확인되지만, 최영철(서울오라토리오), 장용휘(극단 마고)에 대하여는 안OO 팀장이 심사위원에게 배제 요청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지 못하였다.

6. 원로작가 디지털 자료집 제작 연구지원 공모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가. 원로작가 디지털 자료집 제작지원 사업

원로작가 디지털 자료집 제작지원 사업은 ‘원로 작가의 화업 정리 및 연구를 통한 한국 근현대미술의 디지털 자료 구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미술 자료 구축을 통한 작가 해외 프로모션’을 목적으로 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진의 원로작가 화업 정리 지원, 연구 성과물을 국·영문 디지털 자료집 형태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2015. 8. 12. ~ 8. 19. 기간 동안 공모접수하여 총 12건(연구팀 9건, 단체 3건) 중 총 4건[연구팀 3건, 단체 1건]을 지원 선정하여 2015. 9. 25. 결과 발표하였다.

나.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문서 23쪽에서 ‘원로작가 작품 디지털화’ 사업에서 이지호를 배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⁷¹⁾

71) 리스트-’16.2.1.현재, 23쪽.

원로작가 작품 디지털화 ('15.9.21.시각과) - 1명	○ 이지호 ^v
--------------------------------------	--------------------

다. 참고인 진술

(1) 참고인 000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분야 신규사업 TFT 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이지호 작가가 배제 리스트에 있었던 기억이 나고, 000 팀장 직무대행이 000 주무관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 사업 배제 지시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어떻게 보고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⁷²⁾

(2) 참고인 000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원 000은 위원회 조사에서 위 ‘원로작가 작품 디지털 자료집 제작 연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저는 위 사업을 당시에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저희 팀이 담당하고 있기는 합니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지호가 배제되었다는 얘기에 대하여 들은 바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⁷³⁾

(3) 참고인 000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00 주무관은 2018. 2. 22.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동 사업은 제가 진행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당시 미술업무는 두 파트가 있었고, 이때 당시 동 사업은 미술2파트 업무였고, 담당자는 조OO 사무관, 000 주무관이었습니다. (저는 2015년 4월말부터~2016년 11월말까지 미술1파트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⁷⁴⁾

72) 000 1회 진술조서, 5-6쪽. 2018. 1. 22.

73) 000 1회 진술조서, 4쪽. 2017. 12. 22.

74) 000 사실확인서, 2쪽. 2018. 2. 22.

라. 소결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에서 ‘원로작가 작품 디지털화’ 사업에서 이지호가 보이는 점, 이지호 작가가 배제 리스트에 있었던 기억이 난다는 예술경영지원센터 OOO 팀장의 진술⁷⁵⁾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지호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전OO 팀장이 이 사업에서 배제 지시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 OOO 팀장 직무대행이나 OOO 주무관이 모두 이 사업 당시 담당자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이지호에 대한 배제지시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못하였다.

7. ‘2015년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 지원’ 사업 2차 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가. 2015년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 지원사업

‘2015년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 지원’ 2차 공모 사업은 ‘시각예술 국제 행사에서 사용하는 전시 도록 및 해외 배포용 한국미술 소개 자료의 번역을 지원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양질의 번역 자료 제공을 통한 한국미술 위상제고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2015. 9. 18.~10. 1. 기간 동안 공모 접수하여, 총 23건[개인 13건, 민간단체 10건]이 접수되었고, 2015. 10. 28. 심사 결과 총 14건을 지원 선정하여 2015. 10. 30. 결과 발표하였다.

나.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26쪽에서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지원’ 사업에서 임민욱 작가가 배제 대상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⁷⁶⁾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지원('15.10.13) -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없음. 우리 체크한 것 제외-B('15.10.19) ○ 임민욱(철치미술가)-K('15.11.4)
---------------------------------	---

75) OOO 1회 진술조서, 5-6쪽. 2018. 1. 22.

76) 리스트-’16.2.1.현재, 26쪽.

다. 참고인 진술

(1) 참고인 000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000 시각기반팀 팀장 직무대리는 위원회 조사에서 “문체부로부터 임민욱 작가를 배제하라는 전화를 받기는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당시 문체부는 000 주무관, 김OO 사무관, 김OO 과장이 담당이었고, 문체부의 배제 지시는 김선영 대표님께 보고하였고, 김선영 대표는 문체부 지시대로 진행하라고 하였고, 심사 당일에 심사위원들이 왔을 때 김선영 대표가 심사위원들과 미리 만난 것으로 알고, 김선영 대표와 심사위원들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고갔는지는 모르지만, 통상 대표와 심사위원들이 심사 전에 얘기를 나누고 나면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대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대표가 모든 심사위원을 만났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⁷⁷⁾

(2)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OO은 2018. 3. 23.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2015년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 지원’사업 2차 공모에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임민욱 작가는 예술정책과(오OO 사무관)에서 관리하는 리스트에 있는 것을 확인하여 예술경영지원센터 담당 직원에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⁷⁸⁾

(3) 참고인 김선영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선영 대표는 2015년도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지원사업 2차 공모 사업에서 임민욱 작가가 배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⁷⁹⁾

77) 000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2. 22.

78) 김OO 사실확인서, 2쪽. 2018. 3. 23.

79) 김선영 1회 진술조서, 27쪽. 2018. 3. 8.

라. 소결

2015년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 지원 2차 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26쪽에서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지원’ 사업에서 임민욱 작가가 배제 대상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⁸⁰⁾ 예술경영지원센터 000 시각기반팀 팀장 직무대리가 문체부로부터 임민욱 작가를 배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⁸¹⁾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OO도 2015년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 지원’ 사업 2차 공모’ 사업에서 임민욱 작가가 예술정책과(오OO 사무관)에서 관리하는 리스트에 있는 것을 확인하여 예술경영지원센터 담당 직원에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⁸²⁾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15년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 지원’ 사업 2차 공모’ 사업에서 임민욱 작가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8. 전자도록 발간 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가.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23쪽에 ‘전자도록 발간’ 사업에서 최열, 최석태가 배제 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⁸³⁾

전자도록 발간(’15.8.11/ 시각과) - 2명	○ 최열, 최석태
---------------------------------	-----------

나. 참고인 진술

(1) 참고인 000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지원팀 000 사원은 위원회 조사에서 (가) 위 사업에서 최열, 최석태가 배제된 것인지에 대하여, 최열은 현재 이중섭 작가 연구팀의 연구원 중

80) 리스트-’16.2.1.현재, 26쪽.

81) 000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2. 22.

82) 김OO 사실확인서, 2쪽. 2018. 3. 23.

83) 리스트-’16.2.1.현재, 23쪽.

한 명이어서 배제가 되었다는 말이 이상한데다 최열은 위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연구원으로 일했고, 최석태의 경우는,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책임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책임연구기관이 연구원을 선정하는 방식이고, 책임연구기관은 이중섭 미술관과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두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중섭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열과 최석태는 연구 분야가 비슷하여서 아마도 최열이 연구원으로 선정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하면서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⁸⁴⁾

(2) 참고인 전OO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분야 신규사업 TFT 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위 전자도록 발간 사업 당시 배제 명단이 있었고, 최열은 기억이 나고, 최석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박OO 본부장과 김선영 대표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⁸⁵⁾

(3) 참고인 박OO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박OO 경영기획실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위 전자도록 발간 사업에서 최열, 최석태가 배제된 것인지에 대하여 “최열 선생은 기억납니다. OOO 팀장이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⁸⁶⁾

(4) 참고인 김선영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센터 김선영 대표는 위원회 조사에서 이 사업에서 최열과 최석태가 배제되었는지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것인지 받지 않은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팀장들이 자신에게 와서 “이 사람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⁸⁷⁾

84) OOO 1회 진술조서, 5-6쪽. 2017. 12. 22.

85) OOO 1회 진술조서, 6쪽. 2018. 1. 22.

86) 박OO 1회 진술조서, 7쪽. 2018. 3. 15.

87) 김선영 1회 진술조서, 18-19쪽. 2018. 3. 8.

다. 소결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지원팀 000 사원은 위 사업에서 최열, 최석태가 배제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⁸⁸⁾ 000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에 최열과 최석태가 등재되어 있는 점, 이 사업 당시 담당 팀장이었던 000 미술분야 신규사업 TFT 팀장이 위 전자도록 발간 사업 당시 배제 명단에 최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⁸⁹⁾ 박00 경영기획실장도 최열이 배제 명단에 있었다는 것은 전00 팀장에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⁹⁰⁾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업 전자도록 발간 사업에서 최열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최석태도 ‘리스트-’16.2.1.현재’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배제 대상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지만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전달된 것인지 여부, 최열과 최석태가 배제된 구체적인 경위까지는 사실 확인하지 못하였다.

9. 2016년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공모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

가. 2016년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1차 공모 사업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아트페어의 참가 지원을 통해 한국 미술시장의 국제화 기회 확대, 권역별 우수 아트페어 집중 지원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글로벌 프로모션 효과 상승’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16. 2. 12.~2016. 2. 29. 기간동안 공모접수하여 국내 화랑은 학교 재갤러리 등 총 22개 단체가 신청하였고, 이중 15개 단체가 지원선정되었다.⁹¹⁾

나.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000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20쪽에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에서 전리해(아트팩토리 출판 작가) 등 7명이 배제 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⁹²⁾

88) 000 1회 진술조서, 5-6쪽. 2017. 12. 22.

89) 000 1회 진술조서, 6쪽. 2018. 1. 22.

90) 박00 1회 진술조서, 7쪽. 2018. 3. 15.

91)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진흥팀, 2016년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1차 공모 신청단체 및 선정단체 명단. 2016. 3. 3.

92) 리스트-’16.2.1.현재, 22쪽.

미술품해외시장 개척지원 - 7명		①권리해(아트레토리 작품 작가), ②양옥경(제이드클라워 갤러리 대표), ③강홍구(원연제이 갤러리 작품 작가), ④우찬규(학교재 갤러리 대표), ⑤이세현(학교재 갤러리 작품 작가) ⑥노순택(슬픔 작가), ⑦박완경(슬픔 작가)	⑧국제음악상작곡상 : 제외 -원연제의
예술인복지재단			

다. 참고인 진술

(1) 참고인 000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분야 신규사업 TFT 팀원은 위원회 조사에서 ‘미술품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가) 위 사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었다가 2016년 1월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이관된 사업인데, 당시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조OO 사무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서 ‘학교재 갤러리는 배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나) 위 사업은 정량 평가였기 때문에 심사가 없었는데 학교재의 경우 정량 평가 점수가 낮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⁹³⁾

(2)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진흥실장 김OO는 위원회 조사에서 (가) ‘미술품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에서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조OO 사무관이 당시 000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학교재 갤러리’를 지원배제를 하라고 지시하였던 사실을 000 팀장에게 보고 받았고, (나) 공모가 나갈 때 통상 심사기준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두었으나, 문체부로부터 학교재 갤러리에 대한 배제 지시를 받고 나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애초 공지하였던 심사 기준을 자체적으로 보완하여 학교재 갤러리가 선정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학교재 갤러리를 지원 배제하였고, (다) 만약 학교재 갤러리에 대한 문체부의 지원 배제 지시가 없었다면 학교재 갤러리가 배제될 이유는 전혀 없었고, (라) 위 사업에서 위에서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는 말은, 정량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는 의미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⁹⁴⁾

93) 000 1회 진술조서, 4-5쪽. 2017. 12. 22.

94) 김OO 1회 진술조서, 8-9쪽. 2017. 12. 29.

(3) 참고인 조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조OO 사무관은 2018. 1. 9.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예술정책과 당시 사무관(오OO)으로부터 학교재 갤러리 배제 요청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에게 통화로 요청하였고, 배제 방법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 사후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함. (리스트-’16.2.1.현재 20쪽에서 학교재 갤러리 이외 개인이나 단체들에 대하여는) 예술정책과 당시 사무관(오OO)으로부터 학교재 갤러리 이외 개인이나 단체들의 배제 요청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에게 통화로 요청하였고, 배제 방법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 사후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함’이라고 진술하였다.⁹⁵⁾

라. 소결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20쪽에 ‘미술품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에서 전리해(아트팩토리 출판 작가) 등 7명이 배제 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⁹⁶⁾ OOO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분야 신규사업 TFT 팀원이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조OO 사무관에게 학교재 갤러리에 대한 배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⁹⁷⁾ 예술산업진흥실장 김OO가 조OO 사무관의 ‘학교재 갤러리’ 배제 지시를 OOO 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 있다고 하면서 학교재 갤러리가 선정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학교재 갤러리를 지원 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⁹⁸⁾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조OO 사무관도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으로부터 학교재 갤러리 배제 요청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경영지원센터 직원에게 통화로 배제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16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에서 학교재 갤러리가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리스트-’16.2.1.현재’ 20쪽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등재된 학교재 갤러리 이외 개인이나 단체들에 대하여서도, 예술정책과 당시 사무관(오OO)으로부터 배제 요청을 받아 한

95) 조OO 사실확인서. 조OO 사무관은 위 사실확인서 제출 이후 담당 전문위원과 통화에서 이 사업이 2016. 1월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로 넘어가게 되어서 예술경영지원센터 담당 직원에게도 별도로 전화로 배제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6) 리스트-’16.2.1.현재, 22쪽.

97) O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7. 12. 22.

98) 김OO 1회 진술조서, 8-9쪽. 2017. 12. 29.

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경영지원센터 직원에게 통화로 배제 요청을 하였다는 조OO 사무관의 진술에 따르면 리스트-'16.2.1.현재 20쪽에서 이 사업 관련 학교재 갤러리 이외 개인이나 단체들도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 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0. 2016 센터스테이지코리아 국내공모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가. 센터스테이지코리아 국내공모사업

2016 센터스테이지코리아 국내공모 사업 '2016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지원: 전통예술 해외유통', '2016 공연예술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공연예술 해외유통'은 국내 예술단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순회공연 기획역량 증진을 통한 국내 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6. 2. 16.~3. 8. 기간 동안 1차 모집하여, 극단 마실 등 총 10개 단체가 접수하여 이 중 극단 하땅세 등 총 5개 단체가 지원 선정되었다.

나. 참고인 진술

(1) 참고인 안OO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안OO 팀장은 2016 센터스테이지코리아 국내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가) 이 사업에서 특정 예술단체를 배제 하라는 지시가 문체부 OOO 주무관에게 전화가 왔을 것이라고 하면서, 배제 대상 단체 중에서 극단 마실의 경우 지원 신청서에서 중국과 미국을 좀 억지로 엮은 것으로 기억하고, 극단 사니너머는 한 지역만 신청했으므로 요건 미비였고, 극단 하땅세의 경우 당시에 소명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하여 지원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나) 두 단체는 자격 요건이 안 되었고, 하땅세는 자격요건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에게 배제 요청을 할 필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⁹⁹⁾

⁹⁹⁾ 안OO 1회 진술조서, 6-7쪽. 2017. 12. 18.

(2)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김OO 예술산업진흥실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이 사업에서 배제 지시와 관련하여, “문체부 OOO 주무관이 안OO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예술 단체들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안OO 팀장에게 들었습니다. 배제 지시를 받았던 예술단체들의 이름이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극단 하땅세는 기억납니다. 그 이유는 하땅세를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OO 팀장이 노력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⁰⁰⁾

(3) 참고인 O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OOO 주무관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안OO 팀장에게 받은 ‘2016 센트스테이지코리아사업’ 국내공모 접수결과를 최OO 서기관과 공유 후 임OO 과장에게 보고하고,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오OO 서기관이 청와대에 동 자료를 보고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으로부터 극단 사니너며, 마실 등의 지원 배제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OO 서기관은 동 지시사항을 본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본인은 전달받은 지시사항을 최OO 서기관과 공유 후 임OO 과장에게 보고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 안OO 팀장에게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센트스테이지코리아’ 사업이 해외축제 및 극장에서 초청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극단 하땅세의 경우 타 단체에 비해 초청 조건이 월등하여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최OO 서기관, 임OO 과장에게 보고한 후, 오OO 서기관을 통해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⁰¹⁾

다. 소결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OOO 주무관이 예술경영지원센터 안OO 팀장에게 받은 ‘2016 센트스테이지코리아사업’ 국내공모 접수결과를 문체부 최OO 서기관과 공유 후 임OO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보고하고, 예술정책과 오OO 서기

100) 김OO 1회 진술조서, 3쪽. 2017. 12. 29.

101) OOO 사실확인서, 3쪽. 2018. 2. 19.

관에게 전달한 후 오OO 서기관이 청와대에 동 자료를 보고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으로부터 극단 사니너며, 마실 등의 지원 배제 지시를 받아서, 오OO 서기관이 동 지시사항을 000 주무관에게 본인에게 전달하고, 000 주무관은 전달받은 지시사항을 최OO 서기관과 공유 후 임OO 과장에게 보고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 안OO 팀장에게 다시 전달하였는데, 극단 하땅세의 경우 타 단체에 비해 초청조건이 월등하여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000 주무관이 최OO 서기관, 임OO 과장에게 보고한 후, 오OO 서기관을 통해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된다.¹⁰²⁾

예술경영지원센터 안OO 팀장은 2016 센터스태이지코리아 국내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배제 대상 단체 중에서 극단 마실·극단 사니너며 등은 자격 요건이 안 되었던 것이고, 심사위원들에게 배제 요청을 할 필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¹⁰³⁾ 극단 하땅세가 양해조치를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극단 사니너며와 극단 마실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지 못하였다.

11. ‘2016 해외아트마켓 홍보지원 프로모터’ 참가지원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가. ‘2016 해외아트마켓 홍보지원 프로모터’ 참가지원사업

‘해외 아트마켓 홍보지원사업’은 국내 공연예술 단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국제교류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국내 예술단체 및 프로모터(전통예술, 공연예술 일반)를 대상으로 하여, 해외 주요 공연예술마켓 및 국제공연예술 총회 참가지원을 사업내용으로, 국제항공료·화물운송비·행사등록비·해외진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 2. 16.~3. 8. 기간동안 1차 공모 접수하여, 고주영 등 총 36명이 공모접수하였다.

102) 000 사실확인서, 3쪽. 2018. 2. 19.

103) 안OO 1회 진술조서, 6-7쪽. 2017. 12. 18.

나. 참고인 진술

(1)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진흥실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 해외아트마켓 홍보지원-프로모터’ 지원 사업에서 문체부로부터 지원 배제 지시를 받고 이를 적용한 명단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것은 고주영 한 명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⁰⁴⁾

다. 소결

2016 해외아트마켓 홍보지원 프로모터 참가지원사업에서 문체부의 배제 지시를 받고 이를 적용한 명단이 있는지에 대하여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진흥실장이 고주영이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⁰⁵⁾으로 보아 이 사업에서도 블랙리스트 배제 지시가 있었고 고주영이 배제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2016 한국-스페인/한국-중국 커넥션 한국 참가자 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가. 2016 커넥션 한국-스페인/한국-중국 참가자 공모 사업¹⁰⁶⁾

‘2016 한국-스페인/한국-중국 커넥션 한국 참가자 공모사업’은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기반마련을 위해 해외시장 리서치 및 협력 사업을 다각화하고, 해외진출 전문 인력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2016 한국-스페인/한국-중국 커넥션 한국 참가자 공모사업’은 2016. 6. 20. ~ 7. 5. 공모 접수하였다.

나. 리스트-‘16.9.27.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9.27.현재’ 문서 8쪽에 ‘2016 커넥션-스페인/중국-참가자 선정 사업에서’ 극단 마실(손혜정)이 배제 대상으로

104) 고주영은 2015년 1월 예술위 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에서 ‘안산순례길’의 기획자로 배제된 바 있다.

105) 고주영은 2015년 1월 예술위 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에서 ‘안산순례길’의 기획자로 배제된 바 있다.

106) 2016 한국-스페인/한국-중국 커넥션 한국 참가자 공모사업 공고문.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¹⁰⁷⁾

2016 커넥션-스페인/중국-참가자선정	○ 특이없음(B/8.8) ○ K(9.5) - 손혜정(극단마실)
-----------------------	---------------------------------------

다. 참고인 진술

(1) 참고인 안OO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안OO 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 한국-스페인/한국-중국 커넥션 한국 참가자 공모’(이하 ‘2016 커넥션 사업’) 사업의 담당자였는데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OOO 주무관이 전화를 걸어 ‘손혜정’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하면서 김선영 대표에게 이러한 배제 지시를 보고하였는데, 이 사업의 경우 극단 마실의 기획자 김OO 씨도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경우 신진 기획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사업의 성격상 맞기 때문에 따로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할 필요는 없었고, 심사위원들이 김OO 씨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⁰⁸⁾

(2) 참고인 김선영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선영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 커넥션 사업’과 관련하여, 문체부에서 손혜정 대표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안OO 팀장에게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극단 마실 손혜정 대표와 젊은 기획자 김OO 씨 중에서 둘 다 선정을 해줄 수는 없어서 손혜정 대표를 배제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⁰⁹⁾

(3) 참고인 O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주무관 OOO는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은 2016년 5월 경 국민소통실로 인사 이동하여 동 사업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¹⁰⁾

107) 리스트-’16.9.27.현재, 8쪽.

108) 안OO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2. 18.

109) 김선영 1회 진술조서, 23-25쪽. 2018. 3. 8.

라. 소결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9.27.현재’에서도 극단 마실 손혜정이 2016 커넥션-스페인/중국-참가자선정 사업에서 국정원(K)의 검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¹¹¹⁾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안OO 팀장이 ‘2016 커넥션 사업’에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OOO 주무관이 전화를 걸어 ‘손혜정’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¹²⁾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선영도 ‘2016 커넥션 사업’과 관련하여, 문체부에서 손혜정 대표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안OO 팀장에게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극단 마실 손혜정 대표와 젊은 기획자 김OO 씨 중에서 둘 다 선정을 해줄 수는 없어서 손혜정 대표를 배제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¹¹³⁾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16 커넥션 사업에서 극단 마실 손혜정 대표가 배제 대상자였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극단 마실의 기획자 김OO 씨도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경우 신진 기획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사업의 성격상 맞기 때문에 따로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할 필요는 없었다는 안OO 팀장의 진술,¹¹⁴⁾ 극단 마실 손혜정 대표와 젊은 기획자 김OO 씨 중에서 둘 다 선정을 해줄 수는 없어서 손혜정 대표를 배제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김선영 대표의 진술¹¹⁵⁾만 있을 뿐 이 사업에서 극단 마실 손혜정 대표를 배제하였다는 진술은 없어서 극단 마실 손혜정 대표가 이 사업에서 지원배제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편 문체부 OOO 주무관에게 배제 지시를 받았다는 안OO 팀장의 진술과 2016년 5월 경 국민소통실로 인사 이동하여 동 사업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OOO 주무관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기는 하여도 김선영 대표와 안OO 팀장의 진술, ‘리스트-9.27.현재’ 문서에서 극단 마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업에서 문체부로부터 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110) OOO 사실확인서, 1쪽. 2018. 2. 19.

111)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리스트-16.9.27.현재’, 8쪽.

112) 안OO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2. 18.

113) 김선영 1회 진술조서, 23-25쪽. 2018. 3. 8.

114) 안OO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2. 18.

115) 김선영 1회 진술조서, 23-25쪽. 2018. 3. 8.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2015 작가 미술장터 개설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우

(1) 무미아트(민병동)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되었는지 여부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문서에서 2015년 5월 경 '무미아트(민병동)'가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¹¹⁶⁾ OOO 주무관도 "예술 국에 근무하면서 이런 리스트가 예술정책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서¹¹⁷⁾ 무미아트(민병동)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 하지만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유를 들은 바 있다는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사업'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1차 서류 심의 결과 무미아트(민병동)가 90점으로 1순위 커먼센터(94점), 2순위 극동예술연합 Eastern Art Union(90점)에 이어 3순위에 올랐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차 면접 심의 결과 무미아트는 10순위(73점)로 지원 선정되지 못하였다.

참고인 OOO 팀장이 문체부 김OO 과장이 김선영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배제 명단을 불러주었다고 진술하면서, 배제 명단에 무미아트가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무미아트가 배제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¹⁸⁾ OOO 주무관이 이 사업 공모 절차 진행 중에 지원배제 명단 등재 여부를 확인하라는 오OO 사무관의 지시를 받았고 소통실로 발령받은 후에는 후임자에게 상황을 구두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¹⁹⁾ 참고인 김선영 대표가 OOO 팀장의 진술에 대하여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¹²⁰⁾ 박OO 본부장도 2015년 5월 경 OOO 팀장으로부터 문체부 김OO 국장이 김선영 대표에게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배제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²¹⁾ 참고인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김OO이 예술정책과 오

116) 오OO, 리스트-'16.2.1.현재, 23쪽. 2016. 2. 1.

117) OOO 사실확인서, 1쪽. 2018. 2. 22.

118) O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8. 1. 22.

119) OOO 사실확인서, 2쪽. 2018. 2. 23.

120) 김선영 1회 진술조서, 6-7쪽. 2018. 3. 8.

121) 박OO 1회 진술조서, 3-4쪽. 2018. 3. 15.

OO 사무관이 작성했던 리스트에 무미아트(민병동)가 있었다면 무미아트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김선영 대표에게 전달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송부받은 작가장터 개설지원 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 단체목록에서 배제 대상 단체명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²²⁾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15년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에서 문체부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무미아트(민병동)를 지원 배제 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무미아트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무미아트(민병동) 배제 방법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1차 심사 결과 무미아트(90점)가 3순위에 선정되었으나 2차 인터뷰 심사 결과 73점으로 10순위를 하였다는 점, 참고인 000이 2차 심사위원 3명 중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두 명이 이 사업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판매전략, 마케팅, 관객개발’ 등 어떻게 대중에게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무미아트의 지원계획서는 그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²³⁾ 심사위원들도 2차 면접 심의 총평에서 ‘작가들의 미술품 판로 개척 지원이라는 본 사업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단체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며 기획서 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의 정도, 지역 안배를 고려하였음.’ 등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심사위원들이 무미아트(민병동)에 낮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지원 배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막상 민병동은 위 000 참고인의 진술을 부정하고 있고,¹²⁴⁾ 참고인 중 누구도 심사위원들에게 무미아트를 배제하여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아서 무미아트가 지원 배제된 구체적인 경위는 파악할 수 없다.

나.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순회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

다음의 사실을 통하여 극단 마실(손혜정)이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 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지원 배제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에서 프로젝트 기

122) 김OO 사실확인서, 1-3쪽. 2018. 4. 15.

123) 000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2. 22.

124) 민병동 1회 진술조서, 3쪽. 2018. 1. 8.

획안 1차 심사 결과 뉴욕 문화원의 경우 극단 복새통, 극단 하땅세, 극단 마실이 선정되었고,¹²⁵⁾ 2차 심사 결과 극단 마실이 선정되었지만,¹²⁶⁾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중복 지원 대상 문화원 제외’라는 원칙¹²⁷⁾을 새롭게 세워서 극단 마실을 지원 배제 하였다. 1차 심사(2015.6.24.)를 시작하기 전 문체부 000 주무관이 특정 예술단체를 배제하라는 요청을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장 김00에게 유선으로 하였고¹²⁸⁾ 김00 팀장은 ‘문체부의 배제 요청을 심사위원 2명에게 전달하였지만 문체부가 배제 요청한 예술단체들이 모두 배제되는 못하여서, 문체부 000 주무관이 2차 심사(2015.6.30.)를 앞두고 다시 김00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예술단체를 배제해 달라고 추가 요청 하였는데, 뉴욕문화원의 경우 2차 심사 대상이 된 3개 단체(극단 마실, 극단 하땅세, 극단 복새통)가 모두 배제 대상이었다. 김00 팀장은 문체부의 1차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김선영 대표와 상의하였고, 2차 추가 배제 요청을 받았을 때도 김선영 대표와 배제 방법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김00 팀장은 문체부 000 주무관과도 상의한 결과 1차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심사위원 2명과 상의하였지만, 심사위원 2명은 2차 심사에서 위 3개 예술단체를 배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 김00 팀장은 김선영 대표와 다시 상의한 결과 2차 면접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다른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문화원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중복지원 불가 방침’)을 세우고 이를 근거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정리한 다음 이러한 내용을 문체부 000 주무관에게도 보고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심사위원들에게도 전달되었고, 심사위원들은 2차 심사 결과 극단 마실의 <관심중심의 커뮤니티 만들기>를 최종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차 심사가 끝난 후 김00 팀장은 뉴욕문화원에 이메일 혹은 공문을 보내 중복지원은 어렵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¹²⁹⁾

한편 문체부 국제문화과 주무관 000은 임00 국제문화과장으로부터 배제 지시를 받았는데 임00 과장은 예술정책과 오00 사무관과 소통하여 일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오00 사무관에게 신청자 명단을 보낸 후 오00 사무관으로부터 배제 대상자 명

125) 000 외 3인,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 심사결과 동의서, 1쪽.

126) 000 외 3인,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 (2차) 심사결과 동의서, 1쪽.

127)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작성,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최종심사 결과보고’. 2015. 8. 7.

128) 김00 1회 진술조서, 4쪽. 2017. 11. 23.

129) 김00 1회 진술조서, 5~8쪽. 2017. 11. 23.

단을 받아서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알려주었던 것이다. 000 주무관은 극단 마실에 대한 최종 배제 결과는 한00 사무관, 임00 과장에게도 보고하였다.¹³⁰⁾ 문체부 국제문화과 과장 임00은 위 ‘문화원-국내 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순회 사업’에서 극단 마실을 지원 배제하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당시 단체 선정 시 예술정책과에 확인을 하고 진행하라는 전달을 이00 국장으로부터 받았다.¹³¹⁾

다. ‘2015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

2015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 사업과 관련하여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00 사무관이 2015. 5. 11.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문서에 첨부된 [참고4-개별 공모추진사업 현황]에서 ‘서울아트마켓 팸스 초이스’ 사업에서 4건[극단 사니너머, 극단 성북동비둘기, 극단 하땅세, 그린피그]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¹³²⁾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000 주무관이 예술경영지원센터 임00 팀장에게 접수 결과 및 심사계획을 제출 받아 김00 사무관 공유 후 임00 과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시 청와대 파견 중이던 김00 국장에게 최종 보고하였고, 다시 김00 국장에게 위 4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 받아서 본인이 동 지시사항을 김00 사무관 공유 후 임00 과장에게 보고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 임00 팀장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¹³³⁾ 당시 담당자가 아니었던 예술경영지원센터 현 교류협력팀장 000이 위 4건 사업들과 관련하여 문체부의 배제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¹³⁴⁾ 위 이00의 답변은 당시 예술경영지원센터 실무자 2명(000 과장, 000 대리)에게 알아본 결과 배제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은 모른다고 하여서 그렇게 답변하였던 것이고, 지금은 퇴직한 임00 팀장이 실무자에게 공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추가 진술하고 있는 점,¹³⁵⁾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내용들¹³⁶⁾이 많이 있었다는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선영 대표의 진술¹³⁷⁾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130) 000 1회 진술조서, 3-7쪽. 2018. 1. 16.

131) 임00 1회 진술조서, 9-10쪽. 2018. 2. 1.

132)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보고’, 14쪽. 2015. 5. 11.

133) 000 사실확인서, 4쪽. 2018. 2. 19.

134) 000 사실확인서, 1쪽.

135) 박00 1회 진술조서, 11쪽. 2018. 3. 15.

136) 문체부의 배제 지시.

137) 김선영 1회 진술조서, 27-28쪽. 2018. 3. 8.

위 4건에 대한 배제 지시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당시 담당 팀장이었던 임OO 팀장이 퇴사한 상태여서 사실확인을 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배제 지시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4개 단체는 심사 결과 타작품 대비 심사점수가 상대적으로 미달하여 탈락한 것이라는 진술만 있어서¹³⁸⁾ 위 4개 단체가 배제 지시에 따라서 배제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지 못하였다.

라. '2015 센터스테이지코리아 국내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2015 공연예술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사업 '센터스테이지코리아' 2차 국내공모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 안OO 팀장에게 접수 결과 및 심사계획을 제출 받은 O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주무관이 김OO 사무관 공유 후 임OO 과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시 청와대 파견 중이던 김OO 국장에게 최종 보고하였고, 김OO 국장은 이에 대해 심사위원 최OO(전 안산거리축제 예술감독), 지원자 중에서 최영철(서울오라토리오), 장용휘(극단 마고)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를 다시 OOO 주무관에게 보내주었고, OOO 주무관은 이러한 지시 내용을 김OO 사무관 공유 후 임OO 과장에게 보고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 안OO 팀장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심사위원 최OO는 문체부의 배제 지시에 따라서 배제된 사실이 확인되지만, 최영철(서울오라토리오), 장용휘(극단 마고)에 대하여는 안OO 팀장이 심사위원에게 배제 요청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마. 원로작가 디지털 자료집 제작 연구지원 공모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 현재'에서 '원로작가 작품 디지털화' 사업에서 이지호가 보이는 점, 이지호 작가가 배제 리스트에 있었던 기억이 난다는 예술경영지원센터 OOO 팀장의 진술¹³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지호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OOO 팀장이 이 사업에서 배제 지시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 OOO 팀장이나 OOO 주무관이 모두 이 사업 당시 담당자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배제 지시가 이행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138) 이OO 사실확인서, 1쪽.

139) OOO 1회 진술조서, 5-6쪽. 2018. 1. 22.

바. 2015년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 지원 사업 2차 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2015년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 지원’ 2차 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26쪽에서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 지원’ 사업에서 임민욱 작가가 배제 대상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¹⁴⁰⁾ 예술경영지원센터 000 시각기반팀 팀장 직무대리가 문체부로부터 임민욱 작가를 배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¹⁴¹⁾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OO도 2015년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 지원’ 사업 2차 공모’ 사업에서 임민욱 작가가 예술정책과(오OO 사무관)에서 관리하는 리스트에 있는 것을 확인하여 예술경영지원센터 담당 직원에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¹⁴²⁾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15년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 지원’ 사업 2차 공모’ 사업에서 임민욱 작가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사. 전자도록 발간 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지원팀 000 사원은 위 사업에서 최열, 최석태가 배제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¹⁴³⁾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에 최열과 최석태가 등재되어 있는 점, 이 사업 당시 담당 팀장이었던 000 미술분야 신규 사업 TFT 팀장이 위 전자도록 발간 사업 당시 배제 명단에 최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¹⁴⁴⁾ 박OO 경영기획실장도 최열이 배제 명단에 있었다는 것은 전OO 팀장에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¹⁴⁵⁾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업 전자도록 발간 사업에서 최열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최석태도 ‘리스트-’16.2.1.현재’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배제 대상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지만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전달된 것인지 여부, 최열과 최석태가 배제된 구체적인 경위까지는 사실 확인하지 못하였다.

140) 리스트-’16.2.1.현재, 26쪽.

141) 000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2. 22.

142) 김OO 사실확인서, 2쪽. 2018. 3. 23.

143) 000 1회 진술조서, 5-6쪽. 2017. 12. 22.

144) 000 1회 진술조서, 6쪽. 2018. 1. 22.

145) 박OO 1회 진술조서, 7쪽. 2018. 3. 15.

아. 2016년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공모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20쪽에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에서 전리해(아트팩토리 출판 작가) 등 7명이 배제 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¹⁴⁶⁾ OOO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분야 신규사업 TFT 팀원이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조OO 사무관에게 학교재 갤러리에 대한 배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⁴⁷⁾ 예술산업진흥실장 김OO는 조OO 사무관의 ‘학교재 갤러리’ 배제 지시를 OOO 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 있다고 하면서 학교재 갤러리가 선정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학교재 갤러리를 지원 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⁴⁸⁾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조OO 사무관도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으로부터 학교재 갤러리 배제 요청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경영지원센터 직원에게 통화로 배제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¹⁴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16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에서 학교재 갤러리가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리스트-’16.2.1.현재’ 20쪽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등재된 학교재 갤러리 이외 개인이나 단체들에 대하여서도, 예술정책과 당시 사무관(오OO)으로부터 배제 요청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경영지원센터 직원에게 통화로 배제 요청을 하였다는 조OO 사무관의 진술¹⁵⁰⁾에 따르면 리스트-’16.2.1.현재 20쪽에서 이 사업 관련 학교재 갤러리 이외 개인이나 단체들도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 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46) 리스트-’16.2.1.현재, 22쪽.

147) O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7. 12. 22.

148) 김OO 1회 진술조서, 8-9쪽. 2017. 12. 29.

149) 조OO 사무관은 위 사실확인서 제출 이후 담당 전문위원과 통화에서 이 사업이 2016. 1월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로 넘어가게 되어서 예술경영지원센터 담당 직원에게도 별도로 전화로 배제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50) 조OO 사무관은 위 사실확인서 제출 이후 담당 전문위원과 통화에서 이 사업이 2016. 1월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로 넘어가게 되어서 예술경영지원센터 담당 직원에게도 별도로 전화로 배제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2016 센터스태이지코리아' 국내공모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000 주무관이 예술경영지원센터 안00 팀장에게 받은 '2016 센터스태이지코리아사업' 국내공모 접수결과를 문체부 최00 서기관과 공유 후 임00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보고하고, 예술정책과 오00 서기관에게 전달한 후 오00 서기관이 청와대에 동 자료를 보고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으로부터 극단 사니너며, 마실 등의 지원 배제 지시를 받아서, 오00 서기관이 동 지시사항을 000 주무관에게 본인에게 전달하고, 000 주무관은 전달받은 지시사항을 최00 서기관과 공유 후 임00 과장에게 보고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 안00 팀장에게 다시 전달하였는데, 극단 하땅세의 경우 타 단체에 비해 초청조건이 월등하여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000 주무관이 최00 서기관, 임00 과장에게 보고한 후, 오00 서기관을 통해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된다.¹⁵¹⁾

예술경영지원센터 안00 팀장은 '2016 센터스태이지코리아' 국내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배제 대상 단체 중에서 극단 마실·극단 사니너며 등은 자격 요건이 안 되었던 것이고, 심사위원들에게 배제 요청을 할 필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¹⁵²⁾ 극단 하땅세가 양해조치를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극단 사니너며와 극단 마실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지 못하였다.

차. '2016 해외아트마켓 홍보지원 프로모터' 참가지원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2016 해외아트마켓 홍보지원 프로모터 참가지원' 사업에서 문체부의 배제 지시를 받고 이를 적용한 명단이 있는지에 대하여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진흥실장이 고주영이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⁵³⁾으로 보아 이 사업에서도 블랙리스트 배제 지시가 있었고 고주영이 배제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1) 000 사실확인서, 3쪽. 2018. 2. 19.

152) 안00 1회 진술조서, 6-7쪽. 2017. 12. 18.

153) 고주영은 2015년 1월 예술위 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에서 '안산순례길'의 기획자로 배제된 바 있다.

카. '2016 한국-스페인/한국-중국 커넥션 한국 참가자 공모'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9.27.현재'에서도 극단 마실 손혜정이 2016 커넥션-스페인/중국-참가자선정 사업에서 국정원(K)의 검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¹⁵⁴⁾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안OO 팀장이 '2016 커넥션 사업'에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OOO 주무관이 전화를 걸어 '손혜정'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⁵⁵⁾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선영도 '2016 커넥션 사업'과 관련하여, 문체부에서 손혜정 대표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안OO 팀장에게 보고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극단 마실 손혜정 대표와 젊은 기획자 김OO 씨 중에서 둘 다 선정을 해줄 수는 없어서 손혜정 대표를 배제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¹⁵⁶⁾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16 커넥션 사업에서 극단 마실 손혜정 대표가 배제 대상자였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극단 마실의 기획자 김OO 씨도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경우 신진 기획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사업의 성격상 맞기 때문에 따로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할 필요는 없었다는 안OO 팀장의 진술,¹⁵⁷⁾ 극단 마실 손혜정 대표와 젊은 기획자 김OO 씨 중에서 둘 다 선정을 해줄 수는 없어서 손혜정 대표를 배제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김선영 대표의 진술¹⁵⁸⁾만 있을 뿐 이 사업에서 극단 마실 손혜정 대표를 배제하였다는 진술은 없어서 극단 마실 손혜정 대표가 이 사업에서 지원배제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편 문체부 OOO 주무관에게 배제 지시를 받았다는 안OO 팀장의 진술과 2016년 5월 경 국민소통실로 인사 이동하여 동 사업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OOO 주무관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기는 하여도 김선영 대표와 안OO 팀장의 진술, '리스트-9.27.현재' 문서에서 극단 마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업에서 문체부로부터 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154)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리스트-16.9.27.현재', 8쪽.

155) 안OO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2. 18.

156) 김선영 1회 진술조서, 23-25쪽. 2018. 3. 8.

157) 안OO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2. 18.

158) 김선영 1회 진술조서, 23-25쪽. 2018. 3. 8.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실행된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0

2015 작가미술장터개설 지원사업 무미아트(민병동) 선정 배제 사건



40

2015 작가미술장터개설지원사업
무미아트(민병동) 선정 배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시2[2015 작가미술장터지원사업 무미아트(민병동) 선정 배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조사의 취지

무미아트(민병동)는 2015년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작가미술장터개설 지원사업에 청주시 중심의 자유기획자 5명이 연대하여, 무미아트(민병동)가 대표로 공모 신청하였다가 지원 선정되지 못하였는데, 무미아트(민병동)가 지원 배제된 경위를 밝히고자 한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무미아트(민병동)는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문서에서 2015년 5월 경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지원 사업 1차 심사를 앞두고 문체부 김OO 국장이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선영 대표를 찾아와 만나고 간 후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김OO 과장이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선영 대표

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배제 명단을 불러주었고 무미아트(민병동)는 지원 배제되었다.¹⁾

**붙임 : [2015 작가미술장터개설지원사업 무미아트(민병동) 선정 배제 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사 건] 2017시2[2015 작가미술장터지원사업 무미아트(민병동) 선정 배제 사건]
[신청인] 민병동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의 취지

무미아트(민병동)는 2015년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에 청주시 중심의 자유기획자 5명이 연대하여 청주문화진흥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던 청주 동부창고 사용권을 얻은 다음 공동사업을 구상하여 이 사업에 대표자로 공모 신청하였다가 선정되지 못했는데, 2017년 1월 경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원 배제 대상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5년 작가미술장터개설 지원사업에서 무미아트(민병동)가 선정 배제된 경위를 밝히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의거, 2017년 11월 10일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1) 이에 대해 김OO 국장은 '2015 작가 미술장터 개설지원 사업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음. 당시 미술관장 선정 사업과 국가상징물 사업이 시각예술디자인과 주요사업이었고 미술장터 개설지원사업은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왜 갑자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관장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때임. 이 사실은 김선영 애경 대표에게 확인해 본 사실임.'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18. 11. 5.).

나. 조사의 목적

신청인인 무미아트(민병동)가 ‘2015 작가 미술장터 개설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지원배제된 것인지 밝히고자 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표-1]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문서명	작성자	입수일	비고
1	조사 신청서(2017. 10. 13.)	민병동	2017. 10. 13.	신청인 작성
2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공모 지원 신청서 (첨부서류 고유번호증 4부 포함)(2017. 10. 13.)	민병동	2017. 10. 13.	신청인 제출
3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공모 지원 신청: 2015 동부창고미술장터 ppt자료(2017. 10. 13.)	민병동	2017. 10. 13.	신청인 제출
4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공모·심의 계획(안)(2015. 3. 30.)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11. 6.	
5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참여단체 공모(2015. 3. 30.)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11. 6.	
6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 심의과정 및 회의록 — (2015. 5. 19.)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11. 6.	
7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 신청작 및 선정작 — (2015. 5. 19.)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11. 6.	
8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 심의위원 및 채점표 — (2015. 5. 19.)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11. 6.	
9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 면접심사 결과 안내 — (2015. 5. 20.)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11. 6.	
10	리스트-’16.2.1.현재(2016. 2. 1.)	문체부예술정책과 오OO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민병동	신청인	1회 진술조서(2018. 1. 8.)
2	OOO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분야 신규사업 TFT 팀장	1회 진술조서(2018. 1. 22.)
3	이OO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1회 진술조서(2018. 2. 1.)
4	OOO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주무관	사실확인서(2018. 2. 22.)
5	OOO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주무관	사실확인서(2018. 2. 23.)
6	김OO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사실확인서(2018. 3. 23.)
7	김선영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1회 진술조서(2018. 3. 8.)
8	박OO	예술경영지원센터 경영전략본부장	1회 진술조서(2018. 3. 15.)
9	김OO	문체부 시각디자인예술과 과장	사실확인서(2018. 4. 15.)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06년 1월 12일 설립되었고 현재 조직 구성은 이사회, 감사, 대표, 경영기획실(전략기획팀, 경영관리팀), 예술산업기반실(정보분석팀, 인력양성팀, 판로지원팀), 예술산업진흥실(공연유통팀, 시각지원팀, 시각유통팀, 교류협력팀)로 되어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의 산업적 기반 조성(예술산업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전문화 및 분업화 지원), 예술의 유통 활성화 추진(예술의 유통 플랫폼 확대, 예술상품의 유통채널 다각화), 한국예술의 해외진출 확대(공연분야 해외진출 지원, 시각예술분야 해외진출 지원) 등이 있다.²⁾

2)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나.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1)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공모·심사 계획안³⁾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개요

- 사업명: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 사업기간: 2015년 3월 - 2016년 2월 (12개월)
- 사업내용: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기획 및 운영 외
- 사업목적
 - 직거래 미술장터를 개설하여 작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가들의 창작 환경 지원 및 미술시장 진입 기회 제공
 - 미술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및 미술품 소장문화 확산 유도
- 기본방향
 - 작가단체·법인·팀 대상 공모·심사를 통해 지원금 차등 지원
 - 기존 아트페어와 차별화하여 미술품 판매금 전부를 참여작가에게 지급함으로써 작가에게 실질적 혜택 부여
 - 미술품 소장문화 확산을 위한 중저가 위주의 미술품 판매 지원
 - 미술장터에서 구매한 작품을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구매자의 만족도 제고

공모사업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지원유형	지원대상	총 예산	지원규모	비고
공모1유형	작가단체(협회)	700,000,000(원)	5개 단체 내외	차등지원
공모2유형	신진작가(팀)	100,000,000(원)	5개 단체 내외	차등지원

※ 선정 단체/팀 수 및 지원 비용은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예술경영지원센터 작성,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공모·심사 계획안’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 추진 절차

- 1단계: 작가단체/법인/팀 공모, 지원신청서(계획서) 접수
 2단계: 공모지원 심사, 선정 단체/법인/팀 확정 공고
 3단계: 선정단체/법인/팀과 지원 협약 체결(지원금 지급)
 4단계: 사업수행 (장터개설·운영), 개별 미술장터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5단계: 단체/법인/팀별 성과·정산서 제출, 성과공유 컨퍼런스 참여
 6단계: 정산확정 통보, 사업결과 환류

공모개요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모개요

- 공모기간: 공고일 - 2015. 4. 14(화) 18:00까지
- 공모대상: 작가단체 및 신진작가(팀)
- 선정대상: 공모·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작가단체 및 팀 선정
- 지원내용: 판매수수료 없는 직거래 미술장터 개설 지원
- 지원규모: 행사 규모, 내용,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여 지원규모 책정

* 공모1유형: 최대 3억원 - 최소 5천만원 이내 심사 후 차등지원

* 공모2유형: 최대 4천만원 - 최소 1천만원 이내 심사 후 차등지원

- 지원항목: 장터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직접경비)
- 지원방식: 사업 선정 후 지급

□ 공모내용

구분	[공모1] 작가단체 미술장터 개설 지원	[공모2] 신진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단체의 미술품 판매를 위한 중·대규모 미술장터 개설 지원 ※ '15. 5월 - 16. 1월에 미술장터를 개설하여야 하며 최소 5일 이상 미술장터를 운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진작가의 미술품 판매를 위한 소규모 미술장터 개설 지원 ※ '15. 5월 - 16. 1월에 미술장터를 개설하여야 하며 최소 5일 이상 미술장터를 운영하여야 함
지원신청 자격	① 미술작가로 구성하여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법령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상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① 신진작가(*만 40세 이하,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10명 이상 구성된 팀(그룹) ② 신진작가로 구성된 임의단체

구분	[공모1] 작가단체 미술장터 개설 지원	[공모2] 신진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지회/지부에서도 신청 가능)	
	② 미술작가로 구성된 임의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지원신청 가능)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억원 내에서 5개 단체 내외 지원 최대 3억원~최소 5천만원 이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차등지원 (예시) 3억원 1개 단체, 1.5억원 1개 단체, 1억원 2개 단체, 0.5억원 1개 단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문화재단 등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인 경우 감액 지원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억원 내에서 5개 팀(단체) 내외 지원 - 최대 4천만원~최소 1천만원 이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차등지원 (예시) 0.4억원 1개 팀, 0.3억원 1개 팀, 0.1억원 3개 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문화재단 등 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인 경우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지원항목	장터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직접경비) 지원 (※ 자부담은 필수사항이 아님)	

심의 및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심의방법: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 및 인터뷰(면접) 심사
- 심의위원 구성 및 기준(안)
 - 서류 및 면접 심사: 외부 전문가 각 3인
아트페어 및 전시행사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있는 시니어급 전문가
- 심의절차: 센터 행정심의(지원 신청자격 확인) ⇒ 전문가 서류심의(사업 기본계획안(사업내용, 추진방법, 장소 등)을 토대로 심사, 과거 유사 사업 수행성과 검토 ⇒ 전문가 면접심의(사업계획 PT 발표 및 인터뷰)

(2)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4)

공모 개요는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공모·심사 계획안’의 내용대로 공지되었다. 이 사업 공고에서 발표한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선정방법

-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
- 심사절차: 1차 전문가 서류심사(○사업 기본계획안(사업내용, 추진방법, 장소 등)을 토대로 심사, ○지원 신청자격 확인 및 과거 유사 사업 수행성과 검토) ⇒ 2차 전문가 면접심사(사업계획 PT 발표 및 인터뷰)

4) 예술경영지원센터 작성,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 심사일정(안)

※ 하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정	비고
접수기간	공고일-2015.4.14(화) 18:00	이메일 접수
1차 서면심사	2015. 4. 17.(금) 예정	결과발표: 4. 20(월)
2차 면접심사	2015. 4. 23(목) 예정	최종발표: 4. 27(월) 예정

※결과발표는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 단체/법인/팀 개별 연락

□ 심의기준(안)

심의지표	가중치	세부심의 내용	
계획단계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30%	• 사업목적(사업취지)의 이해도 및 부합성
집행단계	단체의 전문성/ 활동실적	20%	• 신청한 단체/법인/팀의 전문성 • 신청한 단체/법인/팀의 활동 실적 • 사업 실현을 위한 운영 인력 확보
	관람객 유치 및 미술품 판매계획	30%	• 관람객 유치계획의 구체성 • 미술품 판매계획의 구체성 • 사업 홍보계획
성과단계	사업성과 기대도	20%	• 해당 사업성과 기대도 및 파급효과

2. 무미아트(민병동)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경위에 대하여

가. 문건 등 자료 조사

(1)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문서에서 2015년 5월 경 ‘무미아트(민병동)’가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⁵⁾ 무미아트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유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참고인은 없었다.



5) 오OO, 리스트-’16.2.1.현재, 23쪽. 2016. 2. 1.

나. 참고인 등 대인 조사

(1) 000 진술조서

참고인 문체부 000은 000 주무관의 후임으로 2015년 4월 경부터 시각예술디자인과 주무관으로 일했는데, 무미아트(민병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내용이 현재 상세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당시 리스트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은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예술국에 근무하면서 이런 리스트가 예술정책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⁶⁾

3. 무미아트(민병동)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되었는지에 대하여

가. 문건 등 자료 조사

(1)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사업 심의 과정⁷⁾

이 사업에 대한 공모접수는 2015. 3. 31. ~ 4. 14, 서류심사는 2015. 4. 28, 면접심사는 2015. 5. 18.~5.19, 결과발표는 2015. 5. 20. 예정이었다. ‘공모 1’ 작가단체 유형의 심사위원은 고OO(미술평론가), 김OO(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박OO(경기도 미술관 미술부장)이었다.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사업이 포함된 ‘공모 1’에 대한 1차 서류 심의 총평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원 사업이라 작가의 자생력 강화나 미술품 판매계획의 구체성 부문 등에서 실질적인 작가 지원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지원 신청 내용이 적은 것이 아쉬웠음’, ‘그동안 미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경험 및 새로운 예술적 시장에 대한 모색을 시도한 단체들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등이었다.

[공모 1]에 대한 2차 면접 심의 총평은 ‘작가들의 미술품 판로 개척 지원이라는 본 사업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단체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며 기획서 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의 정도, 지역 안배를 고려하였음.’ 등이었다.

6) 000 사실확인서, 1쪽. 2018. 2. 22.

7)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심사과정 및 회의록-1쪽

(2) 2015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신청작 및 선정작⁸⁾

‘공모 1’ 유형: 작가단체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에서는 총 23개 단체가 지원 신청하였고 이 중 총 6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가 100,000,000원을 지원 받았고, 고양조각가협회는 90,000,000원, (사)한국미술협회는 300,000,000원, 대구현대미술가협회는 100,000,000원,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자연의소리사업단은 60,000,000원, 커먼센터는 50,000,000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나. 참고인 등 대인 조사

(1) 000 진술 조서

참고인 000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분야 신규사업 TFT 팀장은 1차 심사회의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자료가 배포되고 난 직후 심사를 보류하라는 문체부 000 주무관의 지시가 000 혹은 000 직원에게 왔다고 하면서, 박00 본부장에게 이러한 상황을 공유한 후 심사를 보류하였는데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이러한 심사 상황에 대한 우려를 페이스북에 올렸고, 000 팀장이 심사위원이 심사 상황에 대한 우려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박00 본부장에게 공유하자 박00 본부장은 문체부 쪽으로 이러한 상황을 알리라고 000에게 지시하였고, 000는 문체부 000 주무관에게 심사위원이 심사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고 알렸는데 그 후 심사가 연기되었다고 진술하였다.⁹⁾

000 팀장은 1차 심사가 연기된 후 김00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 과장과 김00 예술국장이 김선영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를 직접 찾아왔고, 두 사람이 다녀간 후 1차 심사가 진행되었는데 2차 심사를 앞두고 김00 과장이 김선영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배제 명단을 불러주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김선영 대표가 김00 과장에게 받은 배제 명단 중에 무미아트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김선영 대표가 이 사건 지원 사업에서 지역안배를 하여달라고 000에게 지시를 하였는데도 무미아트 선정 결과에서 빠진 것으로 보아 무미아트 배제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¹⁰⁾

8) 2015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신청작 및 선정작.

9) 000 1회 진술조서, 3-4쪽. 2018. 1. 22.

10) 000 1회 진술조서, 4-5쪽. 2018. 1. 22.

(2) 000 진술조서

참고인 000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주무관은 ‘2015년 3월 사업계획에 따라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앞으로 공모자, 심사자 모두 지원배제 명단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라고 당시 오00 사무관이 지시를 하였고, 1차 서류 심사를 일단 보류시키고 공모자, 심사자 명단을 보낸 후(누구에게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음) 응답을 기다리다가 오00 사무관에게 담당자별로 직접 확인하고 진행하라는 연락을 받고 1차 서류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소통실로 발령이 났다.’고 하면서, ‘지원 배제 명단을 오00 사무관이 가지고 있어 그 명단에 있는 이름, 단체를 확인하면서 진행하였고, 무미아트 등 세부명단은 기억나지 않는다. 배제명단을 산하단체로 전달하지 말고 담당자들이 직접 확인하라고 하였다. 1차 서류 심사 시에는 따로 배제했던 단체나 심사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소통실로 발령난 후) 후임 주무관, 사무관 등에게는 지원배제 명단과 관련하여 인수인계한 것은 없고 상황만 구두로 알려주었다. 지원배제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오00 사무관과 소통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¹⁾

(3) 김선영 진술조서

참고인 김선영 예술경영지원센터장은 000 팀장의 “2차 심사 전에 김00 과장이 김선영 대표에게 직접 배제 명단을 전달했다고 김선영 대표에게 들은 바 있다”, “대표님께서 저에게 입단속을 시키면서 담당 직원도 모르게 하라”는 지시받았다는 진술에 대하여 맞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²⁾

(4) 박00 진술조서

참고인 박00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장은 2015년 5월 경 000 팀장으로부터 김선영 대표가 예술경영지원센터 사무실 근방에서 김00 국장을 만났는데, 김00 국장은 김선영 대표에게 ‘신경써서 일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전해 들었는데, 김00 국장이 소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배제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³⁾ 박00 본부장은 다만 작가미술장터 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배제

11) 000 사실확인서, 2쪽. 2018. 2. 23.

12) 김선영 1회 진술조서, 6-7쪽. 2018. 3. 8.

명단을 직접 본 적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이름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하면서 전체 신청자 명단 중 일부를 문체부에서 배제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000 팀장에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¹⁴⁾

(5) 참고인 김00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시각디자인예술과 사무관 김00은 2018년 3월 23일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무미아트(민병동)은 당시 자격미달로 탈락된 건으로 지원배제 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⁵⁾

(6) 참고인 김00의 진술

참고인 김00은 2018년 4월 15일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가) 김 00 국장과 김선영 대표를 찾아가서 전달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김00 국장과 자신이 김선영 대표에게 전달한 내용은 당시 청와대에서 주도하고 있었던 예술분야에 있어 지원 배제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으로 기억됩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와 예술가들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하였고, (나) 김선영 대표에게 전달한 리스트 중에 무미아트(민병동)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당시 김선영 대표에게 전달한 명단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미아트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다만 당시 예술정책과 오00 사무관이 작성했던 리스트에 무미아트(민병동)가 있었다면 무미아트를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하였고, (다) 무미아트에 대한 배제 결과는 어떻게 사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작가 장터 개설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 단체목록을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보고 받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보고받은 최종 지원대상 단체 목록에 해당 단체명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하였고, (라) 시각디자인예술

13) 이에 대해 김00 국장은 ‘2015 작가 미술장터 개설지원 사업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음. 당시 미술관장 선정 사업과 국가상징물 사업이 시각예술디자인과 주요사업이었고 미술장터 개설지원 사업은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왜 갑자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관장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때 임. 이 사실은 김선영 애경 대표에게 확인해 본 사실임.’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18. 11. 5.).

14) 박00 1회 진술조서, 3-4쪽. 2018. 3. 15.

15) 김00 사실확인서, 1쪽. 2018. 3. 23.

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하여는 “당시 상황을 기억해보면, 상부의 지시, 특히 청와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너무나 무력함을 느꼈던 시기였고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중간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모시던 국장님과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위협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청와대의 지시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⁶⁾

(7) 참고인 이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이OO는 위원회 조사에서 ‘무미아트(민병동)’이 기재된 오OO 사무관 작성 ‘리스트-’16.2.1.현재’ 문서와 관련하여, 오OO으로부터 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지시는 청와대 김OO 선임행정관이 예술국 국장, 과장, 사무관, 주무관 중 1인에게 그때그때 보내주면 배제 지시를 받은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배제 지시가 내려왔다고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⁷⁾

4. 무미아트(민병동) 배제 방법

가. 문건 등 자료 조사

(1)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채점 과정¹⁸⁾

‘공모 1’ 유형 : 작가단체 미술장터 개설 지원 서류 심의 대상은 모두 23개 단체였고, 이중 1순위가 커먼센터(94점), 2순위가 극동예술연합 Eastern Art Union(90점), 3순위가 무미아트(90점), 4순위가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87점) 등이었다.

‘공모 1’ 유형 면접 심의 대상은 모두 10개 단체였는데 면접 심의 결과 1순위 (사)한국미술협회(94점), 2순위 한국자연미술가협회자연의소리사업단(92점), 3순위 고양조각가협회(91점), 대구현대미술가협회(91점) 등이었고, 무미아트는 10순위(73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16) 김OO 사실확인서, 1-3쪽. 2018. 4. 15.

17) 이OO 1회 진술조서, 20-21쪽. 2018. 2. 1.

18)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심의위원 및 채점표-

나. 참고인 등 대인 조사

(1) 000 진술조서

참고인 000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분야 신규사업 TFT 팀원은 이 사건 사업 2차 면접 심사 당시 배석하였는데, 심사위원 3명 중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두 명이 이 사업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판매전략, 마케팅, 관객개발’ 등 어떻게 대중에게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무미아트 지원계획서는 그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⁹⁾

(2) 민병동 진술조서

이 사건 신청인 민병동은 2차 인터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3명 중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두 명이 이 사업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판매전략, 마케팅, 관객개발’ 등 어떻게 대중에게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무미아트의 지원계획서는 그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000 진술과 달리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민병동은 당시 공동기획자인 이00 예술상회 대표와 함께 동행하였지만 이00 대표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²⁰⁾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무미아트(민병동)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경위

문체부 오00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문서에서 2015년 5월 경 ‘무미아트(민병동)’가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²¹⁾ 000 주무관도 “예술국

19) 000 1회 진술조서, 3-4쪽. 2018. 1. 22.

20) 민병동 1회 진술조서, 3쪽. 2018. 1. 8.

21) 오00, 리스트-’16.2.1.현재, 23쪽. 2016. 2. 1.

에 근무하면서 이런 리스트가 예술정책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서²²⁾ 무미아트(민병동)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유를 들은 바 있다는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무미아트(민병동)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되었는지 여부

다음의 사실을 통하여 2015년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에서 무미아트(민병동)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지원 배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사업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1차 서류 심의 결과 무미아트(민병동)가 90점으로 1순위 커먼센터(94점), 2순위 극동예술연합 Eastern Art Union(90점)에 이어 3순위에 올랐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차 면접 심의 결과 무미아트는 10순위(73점)로 지원 선정되지 못하였다.

참고인 000 팀장이 문체부 김00 과장이 김선영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배제 명단을 불러주었다고 진술하면서, 배제 명단에 무미아트가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 무미아트가 배제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²³⁾ 000 주무관이 이 사업 공모 절차 진행 중에 지원배제 명단 등재 여부를 확인하라는 000 사무관의 지시를 받았고 소통실로 발령받은 후에는 후임자에게 상황을 구두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²⁴⁾ 참고인 김선영 대표가 000 팀장의 진술에 대하여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²⁵⁾ 박00 본부장도 2015년 5월 경 000 팀장으로부터 문체부 김00 국장이 김선영 대표에게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배제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²⁶⁾ 참고인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김00이 예술정책과 000 사무관이 작성했던 리스트에 무미아트(민병동)가 있었다면 무미아트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김선영 대표에게 전달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송부받은 작가장터 개설지원 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 단체목록에서 배제 대상 단체명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²⁷⁾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15년

22) 000 사실확인서, 1쪽. 2018. 2. 22.

23) 000 1회 진술조서, 4-5쪽. 2018. 1. 22.

24) 000 사실확인서, 2쪽. 2018. 2. 23.

25) 김선영 1회 진술조서, 6-7쪽. 2018. 3. 8.

26) 박00 1회 진술조서, 3-4쪽. 2018. 3. 15.

27) 김00 사실확인서, 1-3쪽. 2018. 4. 15.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에서 문체부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무미아트(민병동)를 지원 배제 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무미아트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무미아트(민병동) 배제 방법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1차 심사 결과 무미아트(90점)가 3순위에 선정되었으나 2차 인터뷰 심사 결과 73점으로 10순위를 하였다는 점, 참고인 000이 2차 심사위원 3명 중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두 명이 이 사업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판매전략, 마케팅, 관객개발’ 등 어떻게 대중에게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무미아트의 지원계획서는 그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²⁸⁾ 심사위원들도 2차 면접 심의 총평에서 ‘작가들의 미술품 판로 개척 지원이라는 본 사업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단체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며 기획서 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의 정도, 지역 안배를 고려하였음’ 등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심사위원들이 무미아트(민병동)에 낮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지원 배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막상 이 사건 신청인 민병동은 위 000 참고인의 진술을 부정하고 있고,²⁹⁾ 참고인 중 누구도 심사위원들에게 무미아트를 배제하여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아서 무미아트가 지원 배제된 구체적인 경위는 파악할 수 없다.

28) 000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2. 22.

29) 민병동 1회 진술조서, 3쪽. 2018. 1. 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1

극단 마실(손혜정) 배제 사건



41

극단 마실(손혜정) 배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공12[극단 마실(손혜정) 배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조사의 취지

극단 마실(이경수, 손혜정 공동대표)은 2015년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외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중 ‘해외문화원 순회 프로그램 공모’에서 뉴욕문화원 아동극 순회사업에서 최종 선정되었다가 예산 배정 실수였다는 이유로 이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1) 극단 마실이 해외문화원 순회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후 해당 사업이 폐지된 경위에 대하여 밝히고 (2) 극단 마실이 다른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사례가 더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극단 마실(손혜정)은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 지원 사업에서 2차 심사 결과 최종 선정되었지만 문체부의 배제 지시를 받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중복 지원 대상 문화원 제외’라는 원칙을 새롭게 새워서 극단 마실을 지원 배제 하였다.

한편 극단 마실에 대하여는 2016 커넥션-스페인/중국-참가자선정 사업에서도 배제 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손혜정 대표가 배제된 것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결과인지는 사실 확인하지 못하였다. 2015년 예술위가 주관하는 국제교류 지원 사업에서 극단 마실이 배제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지 못하였고, 2017년 강남문화재단 상주단체 지원 사업에서 극단 마실이 배제된 것인지 여부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붙임 : [극단 마실(손혜정) 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공12[극단 마실(손혜정) 배제 사건]

[신청인] 손혜정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의 취지

극단 마실(이경수, 손혜정 공동대표)은 2015년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해외문화원 현 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중 ‘해외문화원 순회 프로그램 공모’에서 뉴욕문화원 아동극 순회사업에서 최종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예술경영지원센터 직원(이름 모름)으로부터 우선으로 받았는데 예술경영지원센터 측에서는 예산 배정 실수였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업 폐지 경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 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있어 2017. 10. 13. 제10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 결정되었다.

나. 조사의 목적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1) 극단 마실(이경수, 손혜정 공동대표)이 2015년 (재)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외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중 ‘해외문화원 순회 프로그램 공모’에서 지원 배제된 경위를 밝히고 (2) 극단 마실이 지원 배제된 다른 사례가 더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20건에 대하여 입수 및 검토함.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조사 신청서(2017. 9. 28.)	손혜정	2017. 9. 28.	
2	이메일(김OO→손혜정) : 2015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외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관련 경위(2015. 8. 20.)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장 김OO	2017. 9. 28.	첨부문서 1부 있음
3	2015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외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관련 경위(2015. 8. 20.)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장 김OO	2017. 9. 28.	첨부 문서
4	이메일(김OO → 손혜정) 제목: 마실 (2015. 12. 15.)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장 김OO	2017. 9. 28.	
5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 지원’ 실행계획(안)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11. 8.	
6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 심사결과 동의서	권OO 외 3인 심사위원	2017. 11. 8.	
7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 심사결과 종합의견서	권OO 외 3인 심사위원	2017. 11. 8.	4부
8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 채점표[전시, 공연]	권OO 외 3인 심사위원	2017. 11. 8.	전시, 공연 각 4부
9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 (2차) 심사결과 동의서	권OO 외 3인 심사위원	2017. 11. 8.	
10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 (2차) 심사결과	권OO 외 3인 심사위원	2017. 11. 8.	4부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종합의견서			
11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2차) 채점표[전시, 공연]	권OO 외 3인 심사위원	2017. 11. 8.	전시, 공연 각 4부
12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최종심사 결과보고(2015. 8. 7.)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2017. 11. 8.	붙임 1~6, 별첨 1 자료 있음
13	1차 서류심사 대상 신규프로젝트 개발기획안(총 7개소, 기획안 28건)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2017. 11. 8.	붙임 1
14	1차 서류심사 심사총평, 위원별 종합의견 및 선정결과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2017. 11. 8.	붙임 2
15	1차 서류심사 녹취록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2017. 11. 8.	붙임 3
16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대상 신규프로젝트 개발기획안(총 7개소, 기획안 12건)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2017. 11. 8.	붙임 4
17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심사총평, 위원별 종합의견 및 선정결과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2017. 11. 8.	붙임 5
18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녹취록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2017. 11. 8.	붙임 6
19	심사결과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2017. 11. 8.	별첨 1
20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	2017. 8. 17.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9인에 대하여 9회에 걸쳐 조사함.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손혜정	신청인	1회 진술조서(2017. 10. 16.)
2	김OO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장(2015)	1회 진술조서(2017. 11. 23.)
3	안OO	예술경영지원센터 팀장(2015)	1회 진술조서(2017. 12. 18.)
4	OOO	문체부 국제문화과 주무관(2015)	1회 진술조서(2017. 1. 16.)
5	한OO	문체부 국제문화과 사무관	사실확인 답변서(2018. 1. 17.)
6	임OO	문체부 국제문화과 과장	1회 진술조서(2018. 2. 1.)
7	O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주무관(2015)	사실확인서(2018. 2. 19.)
8	김선영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1회 진술조서(2018. 3. 8.)
9	박OO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장(2015)	1회 진술조서(2018. 3. 15.)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06년 1월 12일 설립되었고 현재 조직 구성은 이사회, 감사, 대표, 경영기획실(전략기획팀, 경영관리팀), 예술산업기반실(정보분석팀, 인력양성팀, 판로지원팀), 예술산업진흥실(공연유통팀, 시각지원팀, 시각유통팀, 교류협력팀)로 되어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의 산업적 기반 조성(예술산업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전문화 및 분업화 지원), 예술의 유통 활성화 추진(예술의 유통 플랫폼 확대, 예술상품의 유통채널 다각화), 한국예술의 해외진출 확대(공연분야 해외진출 지원, 시각예술분야 해외진출 지원) 등이 있다.¹⁾

나.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중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 실행계획(안)²⁾

(1) 이 사업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나. 세부사업명: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

다. 사업목적:

- 내-현지 아티스트 간 협력 및 현지 커뮤니티 활용 등을 통하여 권역별 특징과 현지 수요를 반영한 신규 프로젝트 개발 지원
- 공연·시각예술의 다양하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문화원과 국내 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원의 활동 영역 확장 및 문화예술역량 강화 지원

1)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2)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 지원’ 실행계획(안)

라. 사업 내용

- 기간: 2015년 5월 ~ 2015년 12월
- 장소: 한국 문화원 소재 국가 5곳(예정)
- 내용:
 - 해외 한국문화원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문화원에서 희망하는 신규프로젝트의 장르·유형을 취합하고, 이를 국내 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함으로써 문화원과 국내 예술단체 간 매칭 신규 프로젝트 개발 지원
 - 지원내역:
 - 가. 지원규모: 신규프로젝트 개발비(최대 4,000만원 차등 일괄지원)
 - 나. 유의사항: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비의 경우 본인부담
 - 심사기준: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해외 문화원과 협업도, 국제교류역량 및 중장기 발전 가능성, 신청단체 역량평가
 - 최종결과 발표: 2015년 6월 3주 중 예정

(2) 공모 안내

이 사업에 대한 공모 내용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진행절차
 - '15. 5. 21.~6.5. 프로젝트 개발 기획안 공모
 - '15. 6. 3주 1차 심사 (서류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
 - '15. 6. 4주 2차 심사 (문화원 최종 선정심사, 문화원-국내 예술단체 매칭)
 - '15. 6. 4주 지원금 교부
 - '15. 7-12. 사업실행
 - '15. 12.
- 세부 내용
 - 가. 프로젝트 실행기간: 교부확정통지일~ 2015년 12월
 - 나. 문화원 희망 프로젝트 내용 : 이 사건에 해당 하는, 뉴욕문화원의 경우는 2015년 10월 ~ 11월 기간 동안 뉴욕/뉴저지 지역학교 및 기타 공연장을 희망장소로 하여, 현지 아동 대상 아동극 프로그램, 개발 및 공연[아동극]이었다.

2. 극단 마실(손혜정)이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 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에 대하여

가. 문건 등 자료조사

(1) 극단 마실이 최종 선정되었다가 제외된 경위

(가) 1차 심사 결과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에서 프로젝트 기획안 1차 심사 결과 뉴욕 문화원의 경우 극단 북새통, 극단 하땅세, 극단 마실이 선정되었다.³⁾

(나) 2차 심사 결과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에서 프로젝트 기획안 2차 심사[공연 분야] 결과 뉴욕 문화원의 경우 극단 마실이 선정되었다.⁴⁾

(다) 최종심사 결과보고⁵⁾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이 2015년 8월 7일 작성한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최종심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이 사업 최종 심사 결과 최종 선정된 단체는 총 2개 단체(통영웃칠미술관, 극단 몸짚)이고 극단 마실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당초 이 사업 심사 전 작성하였던 실행계획에는 없던 심사방식이 하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문화원 최종 심사가 추가되었고, ‘중복 지원 대상 문화원 제외’라는 원칙이 새롭게 들어가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권OO 외 3인,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 심사결과 동의서, 1쪽.

4) 권OO 외 3인,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 (2차) 심사결과 동의서, 1쪽.

5)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작성,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최종심사 결과보고’. 2015. 8. 7.

- 3차 문화원 최종심사
 - 2차 선정단체 대상 기획안 검토 후, 최종선정
 - ※ '재외 한국문화원 우수프로그램 순회지원 사업' 중복지원 대상 문화원 제외

(라) 극단 마실이 선정 제외된 경위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5년 8월 20일 경 극단 마실 쪽으로 '2015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외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관련 경위' 공문을 보내 극단 마실이 '중복 지원 제한의 지침'에 해당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 공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

-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계획이 '15년 4월에 확정되어 단기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우수 프로그램 순회지원과 현지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의 공모와 심사 등의 과정이 부득이하게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 사업기간이 짧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측보다 많은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및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무부처와 협의 후 문화원 중복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 우리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이러한 업무상 실수로 인해 귀 단체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대해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 리스트-'16.2.1.현재, 리스트-'16.9.27.현재

(가)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23쪽)에는 위 우수문화 프로그램 사업에서 극단 마실 공동대표인 이경수의 이름이 2015.6.29.자로 등재되어 있다.⁷⁾

우수문화예술프로그램 ('15.6.29/ 국제문화과)-3 명	○ 전시: 김제민 ○ 공연: 유기형, 남인우, 박종우, 이경수
--	---------------------------------------

6)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작성, 2015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외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관련 경위, 2쪽. 2015. 8. 20.

7)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리스트-'16.2.1.현재', 23쪽

(나)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9.27.현재’에서도 극단 마실 손해정이 2016 커넥션-스페인/중국-참가자선정 사업에서 국정원(K)의 검증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⁸⁾

2016 커넥션-스페인/중국-참가자선정	○ 특이없음(B/8.8) ○ K(9.5) - 손해정(극단마실)
-----------------------	---------------------------------------

(다)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극단 마실 손해정 대표는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하여 통보한 주요 좌성향 인물 181명에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⁹⁾

79	손미정	극단 마실	문체부 자료
----	-----	-------	--------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1) 신청인 손해정의 진술

신청인 손해정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1차 서류 심사 결과 극단 마실·극단 북새통·극단 하땅새가 선정되었고, 2차 면접 심사 결과 극단 마실이 최종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유선으로 받았는데 이후 심사 결과 발표는 한 달 이상 지연되었고, 예산 배정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서 최종 선정 결과를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뉴욕문화원 순회공연에 맞는 공연영문번역료, 공연후속프로그램 구성료, 공연후속프로그램 영문 번역료 등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거나 다른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금전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⁰⁾

8)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리스트-’16.9.27.현재’, 8쪽.

9) 국정원 적폐청산 T/F,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3쪽.(붙임17). 2017. 10. 30. 여기서 손미정은 손해정의 오기로 보인다.

10) 손해정 1회 진술조서, 3-9쪽. 2017. 10. 16.

(2)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교류팀장 김OO는 1차 심사(2015.6.24.)를 시작하기 문체부 OOO 주무관에게 특정 예술단체를 배제하라는 요청을 유선으로 받았다고 하면서,¹¹⁾ ‘문체부의 배제 요청을 심사위원 2명에게 전달하였지만 예술단체들의 공연 제작 능력 등이 고려되어 문체부가 배제 요청한 예술단체들이 모두 배제되지는 못하였는데, 문체부 OOO 주무관이 2차 심사(2015.6.30.)를 앞두고 다시 김OO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예술단체를 배제해 달라고 추가 요청 하였는데, 뉴욕문화원의 경우 2차 심사 대상이 된 3개 단체(극단 마실, 극단 하땅세, 극단 북새통)가 모두 배제 대상이었다. 김OO 팀장은 문체부의 1차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김선영 대표와 상의하였고, 2차 추가 배제 요청을 받았을 때도 김선영 대표와 배제 방법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김OO 팀장은 문체부 OOO 주무관과도 상의한 결과 1차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심사위원 2명과 상의하였지만, 심사위원 2명은 2차 심사에서 위 3개 예술단체를 배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 김OO 팀장은 김선영 대표와 다시 상의한 결과 2차 면접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다른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문화원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중복지원 불가 방침’)을 세우고 이를 근거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정리한 다음 이러한 내용을 문체부 OOO 주무관에게도 보고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심사위원들에게도 전달되었고, 심사위원들은 2차 심사 결과 극단 마실의 <관심중심의 커뮤니티 만들기>를 최종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차 심사가 끝난 후 김OO 팀장은 뉴욕문화원에 이메일 혹은 공문을 보내 중복지원은 어렵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²⁾

(3) 참고인 O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국제문화과 주무관 O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위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서 2015.6.24. 1차 서류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예술경영지원센터 위 사업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지원 단체를 지원 배제하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임OO 국제문화과장으로 부터 배제 지시를 받았는데 임OO 과장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과 소통하여 일을 진행하라

11) 김OO 1회 진술조서, 4쪽. 2017. 11. 23.

12) 김OO 1회 진술조서, 5~8쪽. 2017. 11. 23. 2015년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다른 지원 사업에서 뉴욕문화원이 이미 선정된 바 있기 때문에 뉴욕문화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는 지시를 하였고, 오OO 사무관에게 신청자 명단을 보낸 후 오OO 사무관으로부터 배제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알려주었다고 하였다. 한OO 국제문화과 사무관에게도 배제 지시 받은 사항을 전달하였다. 배제 결과 보고도 마찬가지로 한OO 사무관, 임OO 과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OO 주무관은 배제 요청하였던 단체 중 일부가 2차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자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2015.6.30.오전 예술경영지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일부 단체를 추가하여 지원 배제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극단 마실의 이름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한OO 사무관, 임OO 과장에게도 보고하였는데 임OO 과장은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였다. OOO 주무관은 2차 면접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다른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문화원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이를 근거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극단 마실에 대한 최종 배제 결과는 한OO 사무관, 임OO 과장에게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³⁾

(4) 참고인 한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국제문화과 한OO 사무관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위 사업 관련 OOO 주무관으로부터 단체 선정결과를 보고 받았을 때 임OO 과장님의 지시로 ‘예술경영지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특정 예술단체 지원 배제 요청’을 하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특정 예술단체 배제결과는 OOO 주무관이 임OO 과장에게 직접 보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⁴⁾

(5) 참고인 임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국제문화과 과장 임OO은 위 ‘문화원-국내 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순회 사업’에서 극단 마실을 지원 배제하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2차 심사가 끝난 후 OOO 주무관에게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당시 단체 선정 시 예술정책과에 확인을 하고 진행하라는 이OO 국장의 전달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협의해보라고 하였던 것 같은데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한 OOO 주무관의 진술이 있다면 OOO 주무관의 말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예술경영지원

13) OOO 1회 진술조서, 3-7쪽. 2018. 1. 16.

14) 한OO 사무관이 임의로 제출한 ‘답변서’, 1쪽. 2018. 1. 17.

센터와 협의 결과에 대하여 000 주무관에게 다시 보고를 받았을 것 같은데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000 주무관의 진술이 있다면 000 주무관의 말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⁵⁾

(6) 참고인 김선영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선영은 위원회 조사에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극단 마실 손혜정 대표를 면담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2015년도 6월 24일에 1차 서류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문체부 국제문화과 000 주무관으로부터 “일부 지원단체를 지원 배제해라” 이런 요청을 받고, 심사위원 두 명에게 배제 요청을 받았다는 부탁을 하였지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2차 심사대상자에도 배제 대상자들이 올라왔고, 특히 뉴욕문화원의 경우에는 극단 마실, 극단 북새통, 극단 하땅세 세 단체 전부 다 블랙리스트여서 굉장히 난감했는데 000 주무관이 또 전화를 해서 배제해 달라고 하여서 난감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차에 올라왔던 세 단체는 역량도 좋고 떨어뜨릴 명분이 없어서 “이미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문화원은 중복지원하지 않는다”는 중복지원 불가 방침을 세워서 심사에 들어갔고, 심사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이런 설명을 했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마실을 최종으로 뽑았지만, 뉴욕문화원 쪽으로는 “이미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라고 알리고 마실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때 당시에는 문체부의 배제 방침이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⁶⁾

(7) 참고인 박OO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장 박OO은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서 있었던 문체부의 배제 지시와 관련하여 당시에는 자신의 소관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2차 심사가 끝나고 난 후 결과 발표를 앞두고 1, 2차 심사 과정에서 문체부의 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김OO 팀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⁷⁾

15) 임OO 1회 진술조서, 9-10쪽. 2018. 2. 1.

16) 김선영 1회 진술조서, 12-17쪽. 2018. 3. 8.

3. 극단 마실이 지원 배제된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하여

가. 2016 한국-스페인/한국-중국 커넥션 한국 참가자 공모 사업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2016 한국-스페인/한국-중국 커넥션 한국 참가자 공모

2016 한국-스페인/한국-중국 커넥션 한국 참가자 공모 사업 공모 공고는 다음과 같다.

2016 한국-스페인 / 한국-중국 커넥션
Korea-Spain / Korea-China Connection 2016
한국 참가자 공모

1. 공모안내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공연예술 해외진출 기반마련을 위해 해외시장 리서치 및 협력 사업을 다각화하고, 해외진출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커넥션사업(KAMS Connection)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스페인 악시옹골뚜랄(Accion Cultural Espanol) 및 중국 상하이공연행업협회(Shanghai Performing Arts Association)과 공동주관으로 **2016 한국-스페인 커넥션, 2016 한국-중국 커넥션**을 실시합니다. 2016 한국-스페인 커넥션은 ‘거리극 및 비언어극’을 주제로, 2016 한국-중국 커넥션은 ‘아동극’을 주제로 양국 공연예술 전문가의 상호 교환 방문리서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주제로 스페인 또는 중국 공연예술시장 현황을 다각적으로 리서치하고, 향후 참가국 관련 협업 진행을 희망하는 국내 공연예술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소개

- 주관기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공동주관기관: 스페인 악시옹골뚜랄(Accion Cultural Espanol), 중국 상하이공연행업협회
- 사업목적: 해외시장 거점마련을 위한 기관 및 전문가 간 교류지원
- 사업절차

구분	내용
참가자 공모 (2016년 6월 20일 - 7월 5일)	대상 : 거리극 및 비언어극 분야 공연예술 전문가

구분	내용
↓	
심의 (2016년 7월 3주 예정)	스페인커넥션 7명, 중국커넥션 10명 각각 선정
↓	
최종 결과 발표 (2016년 8월 1주 예정)	참가자 최종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	
스페인 / 중국 방문 리서치 (2016년 9월 예정)	한국 참가자 스페인/중국 방문 리서치 ※ 스페인 방문 리서치 9/7-14 ※ 중국 방문리서치 9/23-28
↓	
한국 방문 리서치 (2016년 10월 예정)	스페인/중국 참가자 한국 방문 리서치 ※ '서울거리예술축제' 및 '서울아트마켓' 동기간 개최
↓	
리서치 결과보고서 제출 (2016년 10월)	리서치 결과보고서 제출

2. 세부내용

- 스페인 커넥션참가자
 - 기간: 2016년 9월 7일-14일 (※ 세부일정 추후 확정)
 - 장소: 스페인 바르셀로나, 타레가 외
 - 참가자: '거리극 및 비언어극' 분야 국내 공연예술 관계자 최대 7인
- 중국 커넥션참가자
 - 기간: 2016년 9월 23일-28일 (※ 세부일정 추후 확정)
 - 장소: 중국 상하이
 - 참가자: '아동극' 분야 국내 공연예술 관계자 최대 10인
- 주요 프로그램

구분	내용
공통 리서치	양국 공연예술 주요 기관, 극장 등 방문 및 관계자 네트워킹, 정보 공유를 위한 세미나, 공연관람 등 양국 공연예술 분야 동향 파악
개별 리서치	참가자 개별 관심사에 따라 자유 리서치 진행 ※ 희망자에 한하며, 추가경비 자비부담

- 결과보고서 제출
 - 기한: 2016년 10월 중 (방문리서치 후 1달 이내)
 - 내용
 - ✓ 리서치 결과보고(센터 양식)
 - ※ 제출한 결과보고서 중 일부는 외부에 공유될 수 있음

3. 지원 신청 자격

- 국제협업 경험이 있는 '거리극 및 비언어극'(스페인), '아동극'(중국) 분야 전문가
- 공연예술 분야의 7년 이상 경력자
- 스페인 또는 중국 관련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리서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
- 영어로 기본적 의사소통 및 리서치가 가능한 자(필수)

4. 지원 내용

- 방문 리서치 참가 지원(항공, 숙박 등 리서치 지원비)
 - ※ 스페인 커넥션의 경우 방문경비의 경우 협력기관 측 집적 지원(지원금 교부절차 없음)
- 공동 리서치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참가 및 리서치를 위한 양국 기관의 컨설팅 지원

5. 참가자 역할

- 세부 리서치 계획서 제출(8월)
- 스페인/중국 리서치 프로그램 참가(9월)
- 한국 리서치 프로그램 참가(10월)
- 리서치 보고서 제출(10월)
- 사전/사후 간담회 및 결과공유회 참가 (일정 추후공지)

6. 참가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16년 6월 20일(월) - 7월 5일(화) **13:00**
- 접수방법: 공모지원신청서(지정서식) 및 기타 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connection@gokams.or.kr)
 - ※ 제목에 **지원 사업명 및 지원자명** 표기 (예시. [2016 한국-_____ 커넥션] 홍길동)
- 제출서류
 - 공모지원신청서(지정서식) 1부(국영문)

- 신청자 이력서(자유양식) 국·영문 각 1부
- 소속 단체·기관 소개서 국·영문 각 1부
-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기간 이후에는 지원 신청한 신청서 및 자료를 대체하거나 추가할 수 없음
 - 신청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된 참가자는 한국-스페인 커넥션 프로그램(한국/스페인)에 참가하고, 참가 후 결과보고서 필수 제출 (제출한 결과보고서 중 일부는 외부 공개될 수 있음)

7. 참가자 선정 방법

- 선정기준
 - 공연예술 분야 활동 경력
 - 공연예술시장 리서치 및 국제협력 프로젝트 수행 역량
 - 한국-스페인 / 한국-중국 간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관심
 - 명확한 리서치 목적과 계획
- 심사방법: 국내 공연예술 전문가 심사
 - ※ 필요시 인터뷰 심사 실시
- 선정인원: 스페인커넥션 참가자 7인, 중국커넥션 참가자 10인 / 총 17인
- 최종 결과 발표 : 2016년 8월 1주(예정)
 - 발표 방법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8.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장개발팀
- 전 화 : 02) 708-2262
- 이메일 : connection@gokams.or.kr

(2) 리스트-’16.9.27.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9.27.현재’에서도 극단 마실 손혜정이 ‘2016 커넥션-스페인/중국-참가자선정’ 사업에서 국정원(K)의 검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¹⁸⁾

2016 커넥션-스페인/중국-참가자선정	○ 특이없음(B/8.8) ○ K(9.5) - 손혜정(극단마실)
-----------------------	---------------------------------------

(3) 참고인 등 대인조사

(가) 참고인 안OO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안OO 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 한국-스페인/한국-중국 커넥션 한국 참가자 공모’(이하 ‘2016 커넥션 사업’) 사업의 담당자였는데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OOO 주무관이 전화를 걸어 ‘손혜정’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하면서 김선영 대표에게 이러한 배제 지시를 보고하였는데, 이 사업의 경우 극단 마실의 기획자 OOO 씨도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경우 신진 기획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사업의 성격상 맞기 때문에 따로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할 필요는 없었고, 심사위원들이 OOO 씨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⁹⁾

(나) 참고인 김선영의 진술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선영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 커넥션 사업’과 관련하여, 문체부에서 손혜정 대표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안OO 팀장에게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극단 마실 손혜정 대표와 젊은 기획자 OOO 씨 중에서 둘 다 선정을 해줄 수는 없어서 손혜정 대표를 배제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⁰⁾

18)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리스트-’16.9.27.현재’, 8쪽.

19) 안OO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2. 18.

20) 김선영 1회 진술조서, 23-25쪽. 2018. 3. 8.

(다) 참고인 000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주무관 000는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은 2016년 5월 경 국민소통실로 인사 이동하여 동 사업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¹⁾

나. 2015년 예술위 주관 국제교류지원 사업

신청인 손혜정은 2014년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덴마크 커넥션 사업에 참여한 후 후속 작업으로 예술위가 주관하는 국제교류지원 사업에 신청하였다가 선정되지 못하였다고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 조사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배제 조치되었다는 문서 혹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다. 강남문화재단 상주단체 지원 사업

신청인 손혜정은 극단 마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강남문화재단 상주단체로 있었는데, 매년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평가도 좋았고 2016년 담당자는 그 평가로 실적을 인정받아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상도 받았지만, 2017년 강남문화재단 매칭 심사에서 극단 마실이 탈락하였다고 하면서 그동안 평가 결과가 좋았고 떨어질 만한 다른 사유는 없었다고 하면서 당시 강남문화재단 상주사업 담당자로부터 위의 누군가가 “기존단체는 빼고 심사하자”는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21) 000 사실확인서, 1쪽. 2018. 2. 19.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극단 마실(손혜정)이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 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 여부

다음의 사실을 통하여 극단 마실(손혜정)이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 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지원 배제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 기획안 공모에서 프로젝트 기획안 1차 심사 결과 뉴욕 문화원의 경우 극단 북새통, 극단 하땅세, 극단 마실이 선정되었고, 2차 심사 결과 극단 마실이 선정되었지만, 23)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중복 지원 대상 문화원 제외’라는 원칙²⁴⁾을 새롭게 세워서 극단 마실을 지원 배제 하였다. 1차 심사(2015.6.24.)를 시작하기 전 문체부 000 주무관이 특정 예술단체를 배제하라는 요청을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장 김OO에게 유선으로 하였고²⁵⁾ 김OO 팀장은 ‘문체부의 배제 요청을 심사위원 2명에게 전달하였지만 문체부가 배제 요청한 예술단체들이 모두 배제되지는 못하여서, 문체부 000 주무관이 2차 심사(2015.6.30.)를 앞두고 다시 김OO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예술단체를 배제해 달라고 추가 요청 하였는데, 뉴욕문화원의 경우 2차 심사 대상이 된 3개 단체(극단 마실, 극단 하땅세, 극단 북새통)가 모두 배제 대상이었다. 김OO 팀장은 문체부의 1차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김선영 대표와 상의하였고, 2차 추가 배제 요청을 받았을 때도 김선영 대표와 배제 방법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김OO 팀장은 문체부 000 주무관과도 상의한 결과 1차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심사위원 2명과 상의하였지만, 심사위원 2명은 2차 심사에서 위 3개 예술단체를 배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 김OO 팀장은 김선영 대표와 다시 상의한 결과 2차 면접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다른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문화원은 중복지원을 하지 않

22) 권OO 외 3인,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 심사결과 동의서, 1쪽.

23) 권OO 외 3인,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 (2차) 심사결과 동의서, 1쪽.

24)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협력팀 작성,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현지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최종심사 결과보고’. 2015. 8. 7.

25) 김OO 1회 진술조서, 4쪽. 2017. 11. 23.

는다는 내부 방침(‘중복지원 불가 방침’)을 세우고 이를 근거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정리한 다음 이러한 내용을 문체부 000 주무관에게도 보고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심사위원들에게도 전달되었고, 심사위원들은 2차 심사 결과 극단 마실의 <관심중심의 커뮤니티 만들기>를 최종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차 심사가 끝난 후 김00 팀장은 뉴욕문화원에 이메일 혹은 공문을 보내 중복지원은 어렵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²⁶⁾

한편 문체부 국제문화과 주무관 000은 임00 국제문화과장으로부터 배제 지시를 받았는데 임00 과장은 예술정책과 오00 사무관과 소통하여 일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오00 사무관에게 신청자 명단을 보낸 후 오00 사무관으로부터 배제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알려주었던 것이다. 000 주무관은 극단 마실에 대한 최종 배제 결과는 한00 사무관, 임00 과장에게도 보고하였다.²⁷⁾ 문체부 국제문화과 과장 임00은 위 ‘문화원-국내 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순회 사업’에서 극단 마실을 지원 배제하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당시 단체 선정 시 예술정책과에 확인을 하고 진행하라는 전달을 이00 국장으로 부터 받았다.²⁸⁾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혹은 쟁점

가. 극단 마실이 지원 배제된 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

(1)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00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9.27.현재’에서도 극단 마실 손혜정이 2016 커넥션-스페인/중국-참가자선정 사업에서 국정원(K)의 검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²⁹⁾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안00 팀장이 ‘2016 커넥션 사업’에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000 주무관이 전화를 걸어 ‘손혜정’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³⁰⁾ 참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선영도 ‘2016 커넥션 사업’과 관련하여, 문체부에서 손혜정 대표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안00 팀장에게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극단 마실 손혜정 대표와 젊은 기획자 000 씨 중에서 둘 다 선정을 해줄 수는 없어서 손혜정 대표를 배제

26) 김00 1회 진술조서, 5~8쪽. 2017. 11. 23.

27) 000 1회 진술조서, 3-7쪽. 2018. 1. 16.

28) 임00 1회 진술조서, 9-10쪽. 2018. 2. 1.

29)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리스트-’16.9.27.현재’, 8쪽.

30) 안00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2. 18.

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³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16 커넥션 사업에서 극단 마실 손해정 대표가 배제 대상자였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극단 마실의 기획자 000 씨도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경우 신진 기획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사업의 성격상 맞기 때문에 따로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할 필요는 없었다는 안00 팀장의 진술,³²⁾ 극단 마실 손해정 대표와 젊은 기획자 000 씨 중에서 둘 다 선정을 해줄 수는 없어서 손해정 대표를 배제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김선영 대표의 진술³³⁾만 있을 뿐 이 사업에서 극단 마실 손해정 대표를 배제하였다는 진술은 없어서 극단 마실 손해정 대표가 이 사업에서 지원배제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편 문체부 000 주무관에게 배제 지시를 받았다는 안00 팀장의 진술과 2016년 5월 경 국민소통실로 인사 이동하여 동 사업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000 주무관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기는 하여도 김선영 대표와 안00 팀장의 진술, ‘리스트-9.27.현재’ 문서에서 극단 마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업에서 문체부로부터 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 (2) 2015년 예술위가 주관하는 국제교류 지원 사업에서 극단 마실이 배제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지 못하였다.
- (3) 극단 마실이 2017년 강남문화재단 상주단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것인지 여부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나. 임00 과장에게 지시를 하였던 이00 국장, 국정원(K)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31) 김선영 1회 진술조서, 23-25쪽. 2018. 3. 8.

32) 안00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2. 18.

33) 김선영 1회 진술조서, 23-25쪽. 2018. 3. 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2

(재)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42

(재)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공5 [(재)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직권조사 취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박근혜 정부 시기 국립극단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를 밝히고자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구름> 공연에서 대본 검열이 있었고, 2015. 1월 경 5개 작품 <빛의 제국>, <문제적인간 연산>,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Saint Joan>, <아버지와 아들>을 비롯하여, <혜경궁 홍씨>, <키 큰 세 여자>, <어머니>에 대하여, 청와대의 배제 지시가 있었으나 취소시 파장을 고려하여 양해 조치가 되었고, 국립극단 공동제작 <조치원 해문이>, <망루의 험릿> 홍보물에 대한 검열 조치가 있었고, 2016년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어린이청소년연구소의 <날아가버린 새> 공연에서 전인철 연출가에 대한 배제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붙임 : [(재)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공5[(재)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제1절 | 조사 개요

1. 직권조사의 취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박근혜 정부 시기 동안 국립극단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를 밝히고자 한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2017년 12월 8일 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박근혜 정부 시기 동안 국립극단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를 밝히고자 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 아래와 같이 주요 문서, 모두 10건에 대하여 입수 및 검토함.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재)국립극단 정관	국립극단		
2	국립극단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김OO	2017. 8. 17.	
3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2017. 10. 30.)	국정원		
4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2016. 9. 9.)	문체부	2017. 8. 17.	
5	문체부 조치사항 관련 출력물(2017. 10. 30.)	국정원		
6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	2017. 8. 17.	
7	국립극단 '작가의 방' 왜 극작가를 교육, 교정하려 하는가?(2017. 3.)	고연옥 작가		
8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김나뵈 기자		
9	2016년 문예기금 개편[안] 보고(2016. 1. 8.)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7. 8. 17.	
1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서(2018. 3. 30.)	국립극단	2018. 3. 30.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26인에 대하여 26회에 걸쳐 조사함.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정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1회 진술조서(2017. 10. 23.)
2	김OO	참고인	1회 진술조서(2017. 10. 22.)
3	고연옥	참고인	1회 진술조서(2017. 10. 26.)
4	김광보	참고인	1회 진술조서(2017. 11. 16.)
5	전인철	참고인	1회 진술조서(2017. 11. 17.)
6	남OO	참고인	1회 진술조서(2017. 11. 20.)
7	박OO	참고인	1회 진술조서(2017. 11. 21.)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8	박OO	참고인	1회 진술조서(2017. 11. 24.)
9	장OO	참고인	1회 진술조서(2017. 11. 28.)
10	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	1회 진술조서(2017. 12. 12.)
11	윤OO	국립극단 사무국장	1회 진술조서(2017. 12. 19.)
12	모철민	청와대 교무수석	1회 진술조서(2017. 12. 27.)
13	정OO	국립극단 경영관리팀장	1회 진술조서(2017. 1. 5.)
14	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	1회 진술조서(2018. 1. 7.)
15	구자흥	명동예술극장장	1회 진술조서(2018. 1. 10.)
16	김OO	문체부 예술국장	1회 진술조서(2018. 1. 11.)
17	김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	1회 진술조서(2018. 1. 12.)
18	조OO	문체부 예술정책과 과장	1회 진술조서(2018. 1. 12.)
19	이OO	국립극단 피디	1회 진술조서(2017. 1. 15.)
20	임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	1회 진술조서(2018. 1. 23.)
21	최OO	한불 130주년 기념 수교 예술감독	1회 진술조서(2018. 1. 25.)
21	박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사실확인)질문지(2018. 1. 26.)
22	손OO	국립극단 피디	1회 진술조서(2018. 3. 9.)
23	최OO	국립극단 사무국장	1회 진술조서(2018. 3. 9.)
24	김윤철	국립극단 예술감독	1회 진술조서(2018. 4. 10.)
25	B	문체부 예술국장	1회 진술조서(2018. 3. 23.)
26	유진룡	문체부 장관	면담녹취록(2017. 11. 29.)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재)국립극단

(재)국립극단(이하 ‘국립극단’)은 1950년에 창단되어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연극예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공연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힘써왔다.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창작 작품 개발과 국립극단의 예술적 성과 및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우수 연극을 제작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립극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국립극단은

연극 전용극장 3개(명동예술극장 총 558석, 백성희장민호극장 190석, 소극장 판 80석)을 보유하고 있다.¹⁾

국립극단은 연극 작품의 창작과 인재양성을 통하여 연극예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연극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는 목적(2조)을 가지고, 1. 연극작품의 창작과 공연 2. 연극예술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3. 연극작품의 보급 및 관객개발 4. 연극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우리말의 보전 및 세계화 6. 명동예술극장의 운영·관리사업 (2015.04.01. 신설) 7. 기타 법인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²⁾

2. (재)국립극단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

가.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대본 수정 조치가 있었던 경위

(1) 문건 등 자료 조사

(가)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³⁾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 공연 개요

- 기간/장소 : 2013.9.3.(화)~9.15(일) / 백성희장민호 극장(200석) *공연시간 100분
- 주최 : (재)국립극단(예술감독 손진책)
- 원작/극본·연출: 아리스토파네스, 박근형(극단'꿀목길'대표)
- 내용 : 전쟁 후 아테네의 국력 회복을 위해 디오니소스가 죽은 시인에게 조언을 얻고자 지옥으로 간다는 내용의 원작을 현대 시점에서 재해석
- 제작경과: 작품 선정(예술감독, 3월)→연출가 섭외(4월초) 및 연출가 작품제작(4월~계속)→배우 선발(7월, 16명)→공연(9월)

1) 국립극단 홈페이지.

2) 재단법인 국립극단 정관, 제2조-3조.

3) 김OO,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2013. 9. 12.

□ 주요 내용 검토

- (기본 줄거리) 주인공(신부, 동자승)이 부조리한 현실을 구원할 '그분'을 찾기 위해 저승으로 떠나나, '그분'은 본인 대신 저승에 있는 동자승의 어머니를 이승으로 보낸다는 내용
- (내용상 문제점) 풍자가 핵심인 그리스 회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현 시대 풍자는 불가피하나, 일부 정치 편향적¹⁾이라 오해될 소지 존재
 - (구체적 사례) △'그분(노무현 전 대통령 상징)'과 '카멜레온(박정희 전 대통령 상징)'의 대화를 통해 '그분'을 미화, '카멜레온'을 비하적으로 묘사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기말고사 컨닝'으로 풍자 △윤창중 전 대변인 스캔들 풍자 등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조치사항>

- 당초 극본 초안에는 ▲그분(노무현)을 지상으로 모시고 오는 결말이었고 ▲정치적 풍자 및 표현 등이 과도했던 바, 연출가로 하여금 결말을 수정토록 하고(어머니가 지상으로 오는 결말),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토록 지도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
- 수정된 현 내용의 정치적 풍자 수준은 국민들이 수용(이해)할 것이라고 분석(손진책)

□ 향후 조치계획

- 현재 공연 중인 작품에 대한 추가 조치 요구(수정 등)는 창작의 자유 침해 논란, 연극계 및 관객(예약자 등)의 반발 등 불필요한 논란 초래 가능
- 향후 국립극단 작품에 '편향된 정치적 소재'는 배제토록 강력 조치
 - 아리스토파네스 시리즈 2차작품(구름¹⁾, 9.24~10.5) 등 2013년 국립극단 후속작품에 정치적 소재의 내용은 배제토록 조치(국립극단)
 - 소 국립예술단체 주관 공연에는 정치적 편향의 내용은 배제토록 협조 요청
 - 現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교체 추진(입기: 2013.11.8.)

1)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추문 등 제이다 내용 포함 예정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과장이 2013년 9월 12일 경 최종 완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는 연극 <개구리>(아리스토파네스 원작/박근형 연출)에 대하여, ① '내용상 문제점'으로, '그분(노무현 전 대통령 상징)'과 '카멜레온(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화를 통해 '그분'을 미화하고 '카멜레온'을 비하적으로 묘사한 점, ②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기말고사 컨닝'으로 풍자한 점, 윤창중 전 대변인 스캔들을 풍자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③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조치 사항'으로, 연출가로 하여금 결말을 수정하도록 하고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하도록 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④ 한편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향후 국립극단 작품에서 '편향된 정치적 소재'는 배제토록 강력 조치', '현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교체 추진' 등의 보고를 하면서, ⑤ 현재 공연 중인 작품에 대한 추가 조치 요구(수정 등)는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⁴⁾

4) 김OO,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2013. 9. 12.

(나) 「대외비」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⁵⁾

문체부 예술국이 2016년 9월 9일 경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한 「대외비」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문서는, 소위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방안’이 추진된 배경은 문화예술계에서 정치적·이념편향적 작품(단체)이 이슈화되면서, 이념 편향적인 작품에 대한 정부지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청와대(B)·국정원(K)이 문제제기를 하였던 것이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연출: 한예종 박근형 교수) 공연(2013.9.3.~9.15.)을 거론하면서 이 작품이 고 박정희 대통령을 다소 희화화하며, 고 노무현 대통령을 은유적으로 미화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고 지적하고 있다.⁶⁾

V. 「대외비」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 추진배경(B,K 중점관리)

- 문화예술계 정치적·이념편향적 작품(단체)이 이슈화(2013.9월~11월)되면서, **이념 편향적 작품에 대한 정부지원의 문제점** 지적 (B, K / 2013년 말 ~2014년)

- 국립극단 기획연극공연 '개구리'(연출: 한예종 박근형 교수) 공연(2013.9.3.~9.15.)
: 故 박정희 대통령을 다소 희화화하며, 고 노무현대통령을 은유적으로 미화하는 내용 논란
- 광주비엔날레에 진보성향 화가인 '홍성담'의 걸개그림(세월오월) 논란(2014.7~8월)
: 세월호 주제의 그림 속에서 VIP를 모독(허수아비로 묘사)하는 내용 → 전시 무산
* 홍성담 작가는 이념편향성VIP모독 내용을 담은 '박근혜 출산'이라는 작품 제작 경력 보유

- 진보성향(좌편향) 작품·단체에 대한 문예기금의 부적절 문제가 지적(2014년 초), **예술위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을 요구(B, K / 2014년 초~계속)

- 예술위원회 공모심사에서 ①민예총 산하 민족미술연구소의 학술지인 「민족미술」 발간 지원 선정 ②국가보안법·국정원 댓글녀 풍자연극 경력이 있는 극단(「해화동 1번지」) 지원 선정 ③민예총 산하 작가회의소속 진보성향 작가들(3명)에 대한 지원 선정 등

-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논란(2014.10월) 이후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축소 및 감사원 감사, 미디어국 소관 우수도서 선정에서 이념편향적 작품 선정이 논란(2013~2014)되면서, **각종 심사위원의 책임성 및 자격심사도** 요구(B, K, 2014년초~계속)

□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지원 방안

- 기본 방향

- 각종 지원사업(문체부 진체사업, 인선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이념적 균형성 등 **복이사랑 사전확인(점검) 시스템 구축(2014년~현재, 총괄: 예술정책관실 예술정책과-B, K)**
·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인사, 단체 등의 사전 배제 검토
※ 중점 관리분야: 문화예술, 도서·출판, 영화 등 콘텐츠 분야
- 문화예술기금 지원방식의 개편(2016년)을 통해, 지원사업의 논란가능성 최소화

- **이념성 등 복이사랑 확인(점검) 시스템 구축(2014년 초~현재)**

- 대상분야: 문체부 지원사업(산하기관, 단체 포함), 각종 인선(기관장, 임원, 심사위원 등), 각종 훈·포장 등

5) 문체부 예술정책과, 「「대외비」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2016. 9. 9.

6) 문체부 예술정책과, 「「대외비」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1쪽, 2016. 9. 9.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가)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김OO 연출가는 위원회 조사에서 연극 〈개구리〉 공연을 대략 일주일 내지 5일 가량 앞둔 어느 날 새벽 박근형 연출가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손진책 예술감독이 〈개구리〉 연습실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개구리〉의 ‘그분(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상으로 살아 돌아오는 결말’을 바꾸는 등 작품에 대한 관여를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⁷⁾

(나) 참고인 정OO의 진술

참고인 정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가) 「국립극단 기획 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위 문서를 작성할 때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못했고 당시 김OO 과장님과 상의해서 위 문서 내용들을 작성하여 문서에 담았습니다. 이 문서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과장님에게 들었습니다. 참고자료는 국립극단 조OO 팀장 혹은 최OO 사무국장에게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서에서 ‘공연개요’ 부분과 ‘참고사항’ 부분은 제가 조OO 팀장 혹은 최OO 사무국장에게 협조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에서 ‘주요 내용 검토’ 부분은 김OO 당시 공연전통예술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제가 과장님에게 검토 내용에 대하여 상의를 드릴 여지는 없었고, 김OO 과장님께서 초안을 잡아오신 내용을 제가 다시 타이핑을 해서 가져다드리고 다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위 문서에서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조치사항’ 부분은 손진책 예술감독님의 판단으로 조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제가 당시에 그러한 얘기를 김OO 과장님이나 손진책 감독님에게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⁸⁾ (나) 당시 김OO 예술정책관이 위 〈개구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2013. 9. 9. 청와대에서 〈개구리〉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었다면 당연히 김OO 과장님께서 김OO 정책관님께 이와 관련하여 보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⁹⁾

7) 김OO 1회 진술조서, 5쪽. 2017. 10. 22.

8) 정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7. 10. 23.

(3) 참고인 박근형의 진술

참고인 박근형은 위원회 조사에서 연극 <개구리> 극본에서 당초 ‘그분(노무현)’을 지상으로 모시고 오는 결말을 어머니가 지상으로 오는 결말로 수정한 사실과 관련하여, “공연 며칠 전 손진책 감독님께서 리허설을 보신 후 ‘국립극단인데 작품에 격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색채가 너무 강하지 않는가. 그리고 직설적인 욕설을 배제했으면 한다’ 등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⁰⁾

(4) 참고인 박OO의 진술

참고인 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결말을 동자승의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으로 바꾼 것에 대하여, 손진책 예술감독과 박근형 연출이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눈 후 수정한 것으로 손진책 감독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연극의 결말을 바꾼 이유에 대하여 “손 감독에 따르면, 박근형 연출에게 ‘니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선동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너무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읽힐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를 박근형 연출이 수용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¹⁾

(5) 참고인 모철민의 진술

참고인 모철민 교문수석은 위원회 조사에서 연극 <개구리> 논란과 관련하여, 당시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부녀를 상당히 폄하하는 등의 이유로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당연히 확인을 해 보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하면서, 대수비(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립극단에서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지만 손진책 예술감독의 사임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김OO 예술국장을 질책하는 일은 하지 않았고 다만 사실 확인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²⁾

9) 정OO 1회 진술조서, 5-6쪽. 2017. 10. 23.

10) 박근형 1회 진술 조서, 2017. 11. 24.

11) 박OO 1회 진술조서, 3쪽. 2017. 12. 12.

12) 모철민 1회 진술조서, 45쪽. 2017. 12. 27.

(6)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김OO 예술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3년 9월 경 연극 <개구리> 공연이 개막한 후 김OO 공연전통예술과장이 “큰일났습니다. 청와대에서 기리기리 합니다”라고 하여서 대책마련을 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했는데 공연 중인 작품을 중단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손진책 예술감독을 해임하기 보다는 연임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써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³⁾

(7) 참고인 조OO의 진술

참고인 조OO 문체부 유진룡 장관 정책보좌관은 연극 <개구리>를 보고 ‘저거 분명히 문제 삼을 텐데, 누군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진룡 장관이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잘 알아보고 계시라’고 문자를 보낸 일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⁴⁾

(8)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김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가)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를 자신과 정OO 사무관이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문서를 김OO 예술국장과 청와대 교문수석실 A 국장에게도 보냈고, 유진룡 장관·조현재 차관에게도 보고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나) 최초로 <개구리>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9.3개막 주 금요일쯤이었고(2013.9.6.~7경으로 기억) 청와대 문체비서관실로부터 <개구리> 공연이 굉장히 정치편향적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고 공연을 본 후 김OO 예술국장과 공연 내용에 대하여 통화하였는데, (다) 청와대로부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급히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던 것이고 유진룡 장관도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라) 모철민 수석이 아마 김OO 국장을 질책하였을 것이라고도 진술하면서 김OO 예술정책관이 1급 승진이 계속하여 누락된 것은 <개구리> 관련 업무 소극대응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마) 위 문서에서 ‘국립극단 예술감독 (손진책) 조치사항’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청와대 보고용으로 좀 과장해서 만

13) 김OO 1회 진술조서, 4쪽. 2018. 1. 11.

14) 조OO 1회 진술조서, 11쪽. 2018. 1. 18.

든 보고서라고 하면서, 일주일 가량 청와대와 문체부 사이에서 몇 차례 피드백이 오고가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2013년 9월 12일 경 중앙일보 기사가 나간 후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 기사가 나간 당일 자신과 손진책 예술감독이 장시간 면담을 나누었고 그 결과 손진책 감독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연임을 하지 않기로 하여서 이 문서 첫 번째 장 마지막 줄의 ‘현 국립극단 예술감독 교체 추진’이라는 문장을 추가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⁵⁾

(9) 참고인 최OO의 진술

참고인 최OO 국립극단 사무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연극 <개구리>가 개막한 이후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정OO 사무관이 <개구리> 대본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해서 정OO 사무관 혹은 김OO 과장에게 <개구리> 대본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 뒤로 손진책 감독과 문체부 사이에서 사후 대처가 진행되어서 자신은 따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문서에서 ‘손진책 조치사항’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손진책 감독님이 박근형 연출과 만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대폭 완화’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아마 김OO 과장이 ‘위’에 보고용으로 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연출가에게 ‘권유’ 정도를 한 것으로 안다고 하였고, 이 문서에서 ‘향후 조치 계획’ 관련해서는 문체부로부터 지시 받은 기억은 없다고 하였다.¹⁶⁾

(10) 참고인 손진책의 진술

참고인 국립극단 예술감독 손진책은 위원회 조사에서 <개구리>시연회가 끝난 후 박근형 연출가를 ‘한 차례’ 면담하여 직접적인 풍자 부분에 대하여 ‘예술 감독으로서’ 미학적 차원에서 조언을 하여 박근형연출가가 수용하였고 ‘그 이후 그 문제에 대하여 연출가에게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개구리>공연 이후 김OO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과 면담을 하면서 연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한 적이 없으며 ‘국립극단이 이런 작품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이 공연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는 취지도 진술하였다.¹⁷⁾

15) 김OO 1회 진술조서, 3-5쪽. 2018. 1. 12.

16) 최OO 1회 진술조서, 3-5쪽. 2018. 3. 9.

(11) 참고인 유진룡의 진술

참고인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3년 연극 <개구리>가 문제가 되어 서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형식적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⁸⁾ 국정원 적폐청산TF에 따르면 문체부 문화예술정책 점검 TF는 2013. 9.9. 만들어졌다.¹⁹⁾

- 한편, 2013.9 「문체부」는 국정원과 별도로 BH 김기춘 실장의 '특정 성향 예술 지원 실태 및 대책 마련 지시'에 대해 관련 대책을 작성·보고하고
- 2013.9.9에는 '문화예술정책 점검T/F'를 구성하는 등 기금 보조 사업 에서 특정 문예인에 대한 지원 배제책을 마련·실시

(12) 소결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 문서에서 현재 공연 중인 작품에 대하여 '추가 조치 요구(수정 등)'는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연출가로 하여금 결말을 수정하도록 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²⁰⁾ 참고인 김OO 연출이 <개구리> 공연을 대략 일주일 내지 5일 가량 앞두고 박근혜 연출가로부터 손진책 예술감독이 대본의 결말을 바꾸는 등 작품에 대한 관여를 많이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²¹⁾ 정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이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조치사항' 부분은 손진책 예술감독님의 판단으로 조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²²⁾ 참고인 박근혜 연출가가 공연 며칠 전 손진책 감독이 리허설을 본 후 '국립극단인데 작품에 격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색채가 너무 강하지 않는가. 그리고 직설적인 욕설을 배제했으면 한다'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²³⁾ 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결말을 동자승의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으로 바꾼 것에 대하여, 손진책 예술감독과 박근혜 연출이 따로 만나

17) 손진책 면담조사보고, 1쪽. 2018. 1. 28.

18) 유진룡 면담녹취록, 44-46쪽. 2017. 11. 29.

19)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2쪽. 2017. 10. 30.

20) 김OO,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2013. 9. 12.

21) 김OO 1회 진술조서, 5쪽. 2017. 10. 22.

22) 정OO 1회 진술조서, 5-6쪽. 2017. 10. 23.

23) 박근혜 1회 진술 조서, 2017. 11. 24.

서 얘기를 나눈 후 수정한 것으로 손진책 감독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²⁴⁾ 모철민 교문수석의 <개구리> 논란과 관련하여, 당시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부녀를 상당히 폄하하는 등의 이유로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²⁵⁾ 조OO 문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연극 <개구리>를 보고 ‘잘 알아보고 계시라’고 유진룡 장관에게 문자를 보낸 일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²⁶⁾ 김OO 공연전통예술과장이 <개구리>가 개막하고 2013. 9. 6.~7경 청와대 문체비서관 실로부터 <개구리> 공연이 굉장히 정치편향적이라는 문제제기를 받고 공연을 본 후 청와대로부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급히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조치사항>’은 청와대 보고용으로 좀 과장해서 만든 보고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²⁷⁾ 손진책 예술감독이 <개구리> 시연회가 끝난 후 박근혜 연출가를 면담하여 직접적인 풍자 부분에 대하여 미학적인 차원에서 조언을 하였고 박근혜 연출가가 수용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²⁸⁾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2013년 연극 <개구리>가 문제가 되어서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형식적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²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연극 <개구리>가 개막하기 전 국립극단에서 대본의 결말 등에 대한 수정 조치가 있었고, 청와대로부터 <개구리>가 정치편향적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은 김OO 공연전통예술과장이 대책마련을 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손진책 감독 면담 후 ‘손진책 감독 조치사항’ 부분, 손진책 예술감독 교체 추진 등의 사항을 문서에 포함시켜 청와대에 보고하였고, 문체부에서는 연극 <개구리>가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개구리> 개막 전 대본의 결말에 대한 수정 조치가 청와대·문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 국립극단 예술감독의 수정 조치인지 아니면 국립극단 예술감독의 미학적인 차원의 조언을 박근혜 연출가가 수용하였던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명을 하지 못하였다.³⁰⁾

24) 박OO 1회 진술조서, 3쪽. 2017. 12. 12.

25) 모철민 1회 진술조서, 45쪽. 2017. 12. 27.

26) 조OO 1회 진술조서, 11쪽. 2018. 1. 18.

27) 김OO 1회 진술조서, 3-5쪽. 2018. 1. 12.

28) 손진책 면담조사보고, 1쪽. 2018. 1. 28.

29) 유진룡 면담녹취록, 44쪽. 2017. 11. 29.

30) 김OO은 다음과 같이 이익제기함(18. 11. 9.) 청와대 및 문체부가 인지한 시점은 공연이 시작된

나. 국립극단 공동제작공연 <알리바이연대기>의 경우

(1) 문건 등 자료 조사

(가) <알리바이연대기> 공연 소개

연극 <알리바이연대기>(김OO 작·연출)는 2013. 9. 3.~9. 15. 국립극단 백성희장민 호극장에서 초연되어, 2013년 제50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연기상, 2013 제6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연기상, 무대예술상, 2013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연극 베스트3, 2013 월간 한국연극 베스트7 등을 수상하였고 2014. 4. 17.~4. 20.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2014. 4. 25.~5. 11.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재공연되었다.

<알리바이연대기>는 한국전쟁 당시 육군 포병학교 장교로 용감히 싸웠던 아버지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나오는 막내 아들의 훈련소 앞에서 진한 눈물을 흘리는데, 아버지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아들이 아버지의 일생을 추적해 가면서 해방 이후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아버지가 숨겨온 ‘알리바이’를 찾아가는 내용이다.³¹⁾

(나)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과장이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던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 문서는 ‘2013년 국립극단 후속작품에 정치적 소재의 내용은 배제토록 조치(국립극단)(1쪽)하겠다’고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하면서, ‘참고사항’으로 국립극단의 2013년 하반기 주요 공연을 첨부하였는데 이 중에 김OO 극본/연출의 <젊은연출가전(1)-알리바이연대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³²⁾

9.3(화) 휴선 이후인 9.6.(금)~9.7(금) 경임. 따라서, 문체부 내지 청와대는 <개구리>를 포함한 특정 작품의 내용에 대해 수정 등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으며, 위 사건의 시간적 인과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수정과정의 개입의혹은 사실이 될 수 없음.

31) 알리바이연대기_공연소개자료(보도자료), 3쪽.

32) 김OO,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2쪽. 2013. 9. 12.

<참고사항>**□ 국립극단 현황**

- 조직/현원: 예술감독, 1 창작단, 1사무국 2팀, 1연주소: 25명(정원 54)
- 예산(2013): 6,407백만원(국고 5,516백만원, 자체수입 891백만원)
- 주요활동: 2013 정기공연 18작품 231회, 기타 부대활동

□ 연출가(박근형) 주요 약력

- 1963년, 서울
- 주요 경력
 - 대전대 연극영화과 졸업
 - 백상예술대상 작품상, 최극상(2000)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1999)
 - (원) 극단 '광목길' 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 국립극단 2013 하반기 주요 공연

작품명	시기/장소	극본/연출
1. 아리스토파네스 희극(1) - 개구리	9.3-9.15 / 백성희장민호	박근형/박근형
2. 아리스토파네스 희극(2) - 구름	9.24-10.5/백성희장민호	남인후,김민승/남인후
3. 아리스토파네스 희극(3) - 새	10.22-11.3/백성희장민호	윤조명/윤시중
4. 젊은연출가전(1)-알리바이연대기	9.3-9.15/소극장 관	김재업/김재업
5. 젊은 연출가전(2)-밤의 연극	9.21-10.3/소극장 관	김낙형/김낙형
6. 로미오와 줄리엣	11.8-11.24/중극	레이첼/티엔윈산
7. 청소년극 - 노란 달	11.8-11.24/백성희장민호	데이비드 그레이그/ 토니 그레이함
8. 광둥어짜(1) - 천국으로 가는 길	11.8-11.24/소극장 관	후안 마요르가/김동현
9. 광둥어짜(2) - 다윈도 별안간하여	12.10-12.29/백성희장민호	상기훈/상기훈
10. 창작희곡페스티벌(1) - 전쟁터를 훑던 여인들	11.19-12.8/국립극장달오름	김지훈/김광보
11. 창작희곡페스티벌(2) - 백경술 훑어	12.14-12.29/국립극장달오름	이훈택/이훈택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가)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알리바이연대기>(2013. 9. 5~9. 13.)에 대하여 ① 손진책 예술감독이 연극 무대에 걸려 있는 박정희 사진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고, 극중 내용 중에서 박정희의 일생 중에서 사회주의자로서의 활동 경력, 밀고 및 전향 경력 등이 직접 거론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려를 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알리바이연대기>가 2013년 연말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베스트3, 대한민국연극대상, 2014년 초 동아연극상 작품상·희곡상 등을 수상한 후 2014년 제35회 서울연극제

(2014.4.14.~5.11)에 참가하고 국립극단에서도 재공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2014년 2월 4일 경 신임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김윤철 감독이 국립극단에서 재공연하기로 약속하였던 <알리바이연대기> 공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국립극단에서는 이를 정도만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등 <알리바이연대기> 공연을 국립극단에서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³³⁾

(나) 참고인 박근형의 진술

참고인 박근형은 위원회 조사에서 연극 <개구리>를 준비하는 동안 손진책 감독이 너무 예민한 게 아닌가 하여 김OO 연출가에게 “<개구리>에 대하여 이렇게 할 정도면, 너네 팀은 더 심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냐”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김OO 연출이 <알리바이연대기> 공연에서 박정희 액자가 꼭 필요한데 손진책 감독님이 그 액자가 꼭 있어야 되냐고 계속 물어봐서 골치 아프다고 말을 하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³⁴⁾

(다) 참고인 박OO의 진술

참고인 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김윤철 예술감독이 2014년 2월 경 예술감독 취임 직후 <알리바이연대기>의 예술적 완성도에 만족할 수 없다면서 재공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겠느냐고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김OO 연출가와 이미 얘기가 되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⁵⁾

(라) 참고인 최OO의 진술

참고인 최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손진책 예술감독이 <알리바이연대기> 공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거는 것에 대해서 걱정은 하였지만 떼라거나 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⁶⁾

33) 김OO 1회 진술조서, 3-9쪽. 2017. 10. 22.

34) 박근형 1회 진술조서, 4-5쪽. 2017. 11. 24.

35) 박OO 1회 진술조서, 6쪽. 2017. 12. 12.

36) 최OO 1회 진술조서, 6쪽. 2018. 3. 9.

(마) 참고인 김윤철의 진술

참고인 국립극단 예술감독 김윤철은 위원회 조사에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김OO 연출에게 재공연을 하지 말자라든가 공연을 이틀만 하자라든가 하는 말을 한 기억은 없고, 도리어 예술감독 취임 직후 박OO 팀장으로부터 김OO 연출이 재공연을 원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만 작품에 대하여는 역사적으로 참여한 주제를 다루면서 작가의 시선이 너무 자기애적인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을 박OO 팀장 등 국립극단 직원들에게 피력하기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³⁷⁾

(바) 소결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 문서에서 ‘향후 조치계획’ 대상에 <젊은 연출가전(1)-알리바이연대기>가 포함되어 있는 점, 김OO 연출가가 <알리바이연대기>에 대하여 손진책 예술감독이 연극 무대에 걸려 있는 박정희 사진, 박정희의 사회주의자로서의 활동 경력, 밀고 및 전향 경력 등이 직접 거론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³⁸⁾ 김OO 연출가가 김윤철 신임 예술감독이 국립극단에서 재공연하기로 약속하였던 <알리바이연대기> 재공연을 부담스러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³⁹⁾ 박근형 연출가의 진술,⁴⁰⁾ 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이 김윤철 예술감독이 2014년 2월 경 예술감독 취임 직후 <알리바이연대기> 재공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느냐고 자신에게 물어보았다고 하면서 김OO 연출가와는 이미 얘기가 되었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⁴¹⁾ 최OO 사무국장이 손진책 예술감독이 <알리바이연대기> 공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거는 것에 대해서 걱정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⁴²⁾ 김윤철 예술감독이 박OO 팀장으로부터 김OO 연출이 재공연을 원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아서 그런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⁴³⁾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손진책 예술감독이 <알리바이연대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을 하였으나 특별한 조치

37) 김윤철 1회 진술조서, 2쪽. 2018. 4. 10.

38) 김OO 1회 진술조서, 3-6쪽. 2017. 10. 22.

39) 김OO 1회 진술조서, 7-9쪽. 2017. 10. 22.

40) 박근형 1회 진술조서, 4-5쪽. 2017. 11. 24.

41) 박OO 1회 진술조서, 6쪽. 2017. 12. 12.

42) 최OO 1회 진술조서, 6쪽. 2018. 3. 9.

43) 김윤철 1회 진술조서, 2쪽. 2018. 4. 10.

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김윤철 예술감독의 경우 김OO 연출가나 박OO 팀장의 진술과 반대로 김OO 연출가가 재공연을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서 김윤철 예술감독이 <알리바이연대기> 재공연을 반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다. 국립극단 기획공연 <구름>에서 대본 수정 조치 경위

(가) 문건 등 자료조사

(1) <구름> 공연 소개

국립극단 기획공연 <구름>(남OO·김OO 공동각색, 남OO 연출)은 2013. 9. 24.~10. 5.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공연되었고, 공연 내용은 아들의 낭비벽으로 빚에 쪼들리던 아버지가 아들을 소크라테스의 학교에 보내 궤변술을 배우게 한 후 그를 이용해 빚을 탕감할 꾀를 내었는데, 말을 듣지 않는 아들 덕에 학교에 간 아버지가 소크라테스의 현란한 궤변에 감동을 받아 정론과 사론 중 사론이 이기는 것을 보고 아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궤변을 구사하여 채권자들을 쫓아버린다는 등의 원작 내용을 2013년 한국사회에 대입시켜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내었다.⁴⁴⁾

(2)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과장이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던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 문서는 ‘2013년 국립극단 후속작품에 정치적 소재의 내용은 배제토록 조치(국립극단)’(1쪽)하겠다고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하면서, 아리스토파네스 시리즈 2차 작품(구름)에서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행 추문 등 패러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⁴⁵⁾

44) <구름> 공연소개자료(보도자료).

45) 김OO,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 1쪽. 2013. 9. 12.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1) 참고인 남OO의 진술

참고인 남OO 연출가는 위원회 조사에서 <개구리> 공연이 올라가고 난 뒤, <구름> 공연을 대략 2주 가량 앞둔 어느 날 손OO 담당 피디가 대본을 보여 달라고 하여서 대본을 주었는데 손진책 예술감독이 예술감독 방으로 자신을 불러 풍자의 내용보다는 미학적인 완성도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그 후 최OO 국립극단 사무국장이 특정 대사에 자로 대고 반듯하게 그은 빨간 줄이 그어진 대본을 가지고 극장에 찾아와서 미안해 하면서, 빨간 줄이 그어진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어보아서, 빨간 줄을 누가 그은 것인지 물어보았더니 최OO 사무국장은 대답은 하지 않고 한숨만 쉬면서 ‘이 대본은 볼 필요도 없다’ 고 하였고, 대본 중에서 OOO 등 구체적인 정치인에 대하여 알 수 있는 풍자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⁴⁶⁾

(2) 참고인 정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정OO은 위원회 조사에서 (가) <구름>(아리스토파네스 원작/남OO 연출)에 나오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추문 등 패러디 내용’ 등을 빼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문체부에서 예술감독에게 그러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면서 손진책 감독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 ‘쏠 국립예술단체 주관 공연에는 정치적 편향의 내용은 배제토록 협조 요청’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⁴⁷⁾

(3) 참고인 장OO의 진술

참고인 장OO 배우는 <구름>에 출연하였던 배우인데 위원회 조사에서 <구름> 연습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 손진책 감독이 간섭을 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최OO 사무국장이 빨간줄이 쳐진 대본을 남OO 연출가에게 전달하였다고 들었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⁴⁸⁾

46) 남OO 1회 진술조서, 6쪽. 2017. 11. 20.

47) 정OO 1회 진술조서, 6쪽. 2017. 10. 23.

48) 장OO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1. 28.

(4) 참고인 박OO의 진술

참고인 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구름> 대본에 빨간 줄이 쳐져 있고, BH라는 문구가 써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⁴⁹⁾

(5) 참고인 최OO의 진술

참고인 최OO 국립극단 사무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구름> 공연 연습 당시 손진책 예술감독이 자신에게 대본을 주면서 ‘코멘트를 단 것이다.’라고 하면서 남OO 연출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던 기억이 있지만 예술감독의 업무상 지시를 통상적으로 전달하였을 뿐 특별한 기억은 아니라고 하면서, 봉투에 받아서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어본 기억은 없고, 빨간 줄을 친 대본을 확인한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개구리> 사태 이후 정치적인 소재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때여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예술감독의 코멘트가 담겨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같은 연출가로서 코멘트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미안했을 것이고, 남인우에게 대본을 전달했던 장면은 기억이 나는데 그 장면이 손진책 감독이 코멘트를 달아서 전달하라고 하였던 그 대본을 전달하였던 장면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⁵⁰⁾

(6) 참고인 손진책의 진술

참고인 손진책 국립극단 예술감독은 위원회 조사에서 ‘<구름>의 공연대본에 코멘트를 달아 최OO 사무국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공연 대본에 빨간 줄이 쳐진 것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⁵¹⁾

(7)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구름>(남OO 연출) 대본에 빨간 줄을 그어서 대본을 연출가에게 전달한 일이 대하여서는 처음 듣는다고 하면서, 다

49) 박OO 1회 진술조서, 5쪽. 2017. 12. 12.

이와 관련하여 박OO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추가 진술하였다(18. 11. 19.).

50) 최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7. 3. 9.

51) 손진책 1회 진술조서. 2017. 1. 28.

만 자신이 청와대에서 지금 <개구리> 건 때문에 국립극단에 걱정이 많다는 말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⁵²⁾

(8) 참고인 손OO의 진술

참고인 국립극단 피디 손OO은 위원회 조사에서 <구름> 대본과 관련하여, 연습 도중 대본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고 예술감독·사무국장·공연기획팀장에 대한 대본에 대한 공유는 통상적인 것이었고, (남OO 연출가에게) 문체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없고, 빨간 줄이 쳐진 대본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⁵³⁾

(9) 소결

남OO 연출가가 최OO 국립극단 사무국장이 특정 대사에 빨간 줄이 그어진 대본을 가지고 극장에 찾아와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⁵⁴⁾ 공연전통예술과 정OO 사무관이 <구름>(아리스토파네스 원작/남OO 연출)에 나오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추문 등 패러디 내용' 등을 빼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손진책 예술감독이 스스로 판단하여서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⁵⁵⁾ 출연 배우였던 장OO 배우가 최OO 사무국장이 빨간줄이 쳐진 대본을 남OO 연출가에게 전달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⁵⁶⁾ 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이 <구름> 대본에 빨간 줄이 쳐져 있고, BH라는 문구가 써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⁵⁷⁾ 최OO 사무국장이 손진책 예술감독의 코멘트가 달린 대본을 남OO 연출가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⁵⁸⁾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최OO 사무국장이 대사에 자로 대고 반듯하게 그은 빨간 줄이 쳐진 <구름> 대본을 남OO 연출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손진책 예술감독 <구름> 공연 대본에 빨간 줄이 쳐진 일에 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⁵⁹⁾ 공연전통예술과 김OO이 <구름> 대본에 빨간 줄을 그어서 대본을 연출

52) 김OO 1회 진술조서, 3-5쪽. 2018. 1. 12.

53) 손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8. 3. 9.

54) 남OO 1회 진술조서, 6쪽. 2017. 11. 20.

55) 정OO 1회 진술조서, 6쪽. 2017. 10. 23.

56) 장OO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1. 28.

57) 박OO 1회 진술조서, 5쪽. 2017. 12. 12.

58) 최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7. 3. 9.

가에게 전달한 일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⁶⁰⁾ 국립극단 손OO 피디가 문체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없고, 빨간 줄이 쳐진 대본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⁶¹⁾을 종합하여 살펴보다라도 손진책 감독이 최OO 연출가에게 전달한 대본이 <구름> 대사에 빨간 줄이 쳐진 대본인지 여부, 구름 대본에 대한 검열에 청와대·문체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라.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에서 <빛의 제국> 등에 대한 양해조치가 있었던 경위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문체부 조치사항 관련 출력물'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중 '문체부 조치사항 관련 출력물'에 따르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2015년 3월 5일 경 김OO 예술정책관으로부터 국립극장·명동예술극장 공연작품에 손진책·이윤택·김광보 등 좌성향 연출가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2015년 3월 6일 경 '취소시 파장을 고려, 이번 건은 그대로 진행하되 내년도 공연작 선정(2015년 상반기 결정)시 배제시키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⁶²⁾ 이러한 내용은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15쪽에서도 확인된다.

국립공연단체 - 7명	국립극단 운영	①개구리 -박근형(연출가)/ 13.9월 국립극단 공연
	국립극단 운영	②3월의 눈-손진책(연출가)/ 15.3월 국립극단 레퍼토리 공연
	국립극단 운영	③키 큰 세어인-이윤택(연출가)/ 15.10월 국립극단 공연
	국립극단 운영	④해경궁 홍씨-이윤택(연출가)/ 15.12월 국립극단 레퍼토리 공연
	명동예술극장 운영	⑤어머니-이윤택(연출가)/ 15.1월 명동예술극장 공연
	명동예술극장 운영	⑥문체적 인간 연산-이윤택(연출가)/ 15.7월 명동예술극장 공연 예정
	명동예술극장 운영	⑦Saint Joan - 잔다르크-김광보(연출가)/ 15.12월 명동예술극장 공연 예정

59) 손진책 1회 진술조서. 2017. 1. 28.

60) 김OO 1회 진술조서, 5쪽. 2018. 1. 12.

61) 손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8. 3. 9.

62) 국정원, 문체부 조치 사항 관련 출력물. 2017. 10. 30.

문체부 조치 사항 관련 출력물

2015.3.6	<p>문체부장관, 국립단체 공연작 선정시 左성향 작품 배제 지시 2015. 3. 6 □ 김종덕 장관은 3.5 김상욱 예술정책관으로부터 국립극장·명동극장 공연작품에 손진책·이운택·김광보 등 左성향 연출가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취소시 파장을 고려, 이번 건은 그대로 진행하되 내년도 공연작 선정(2015년 상반기 결정)시 배제시키라'고 지시 □ 關聯 動向 ○ 문체부장관은 - 2015년 국립극장·명동극장 공연작에 노우현 대통령을 미화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하적으로 묘사한 연극 '개구리'를 공연(13.9), 물의를 야기한 손진책 감독의 작품 '삼월의 눈'(3.13~29, 국립극장)과 - BH에서 2015.1 左성향 인물로 분류, 리스트를 내려보낸 김광보 연출가의 작품 'Saint Joan-잔다르크'(12.2~28, 명동극장) 및 - 左성향 극단인 '연희단 거리패'를 이끌고 있는 이운택 연출가의 작품 '키 큰 세여인'(10.3~18, 명동극장), '해경궁홍씨'(12.12~27, 국립극장), '문제적 인간 연산'(7.1~26, 명동극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 15년 공연작은 14.6월 내부적으로 결정 → 14.6~7 설외진행(연출가, 주연배우) → 14.8 설외확</p>
----------	---

(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서

국립극단이 위원회에 2018. 3. 30. 제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① 2015년 6월 국립극단 제작공연 이운택 작·연출의 <문제적인간 연산_명동예술극장, '15.7.1~7.26> 공연 연습 시 서계동 연습실에서 해당연출이 배우와 스태프들이 있는 가운데 국립극단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된 사실이 담당 프로듀서 및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되었고, ②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예술감독이 해당연출가로부터 대신 사과를 받아 전달하고 2015년 하반기에 예정된 <키 큰 세여자> 및 <해경궁홍씨> 재공연의 연출을 해지 통보하였고, ③ 피해자가 피해사실 공론화를 원치 않고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이사회 및 문체부 보고 시 연출가의 개인사정(건강상 이유)으로 공연에 하차하게 됨을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⁶³⁾

6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서.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가) 참고인 박OO의 진술

참고인 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한-불 상호수교 130주년 기념 공연 <빛의 제국>에 대하여, 국립극단과 명동예술극장이 통합(2015년 4월)된 이후 국립극단 간부회의(김윤철 감독, 윤OO 사무국장, 정OO 홍보팀장, 정OO 경영관리팀장, 박OO 공연기획팀장, 신OO 무대기술팀장 등 참석) 자리에서 김윤철 예술감독이 ‘김영하 작가가 블랙리스트인데 괜찮겠냐’라고 하자 정OO 공연기획팀장이 <빛의 제국>은 한불 상호 수교 공식공연으로서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인데 어떻게 취소하느냐고 반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⁶⁴⁾

(나) 참고인 윤OO의 진술

참고인 국립극단 사무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문체부 사무관이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정OO 경영관리팀장을 통하여 <3월의 눈>을 2016년 국립극단 라인업에서 빼라는 취지의 문체부 지시는 있었으나, 김윤철 예술감독은 문체부의 의견과 상관없이 <3월의 눈>을 2014년에 이어 격년제로 레파토리화하고자 했으며 손 연출에게 여러 번 의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기억하나, 다른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⁶⁵⁾

(다) 참고인 정OO의 진술

참고인 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① 2015년 1월 30일 경 문체부에 업무보고를 하고 1주일 가량 지난 후 문체부 박OO 사무관이 전화를 걸어와 <빛의 제국>을 포함하여 총 5개 작품(<빛의 제국>, <문제적 인간 연산>,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Saint Joan>, <아버지와 아들>)을 취소할 수 있느냐고 물어 보아서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박OO 사무관의 요청에 따라서 각 사업 별로 취소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이러한 내용을 구자홍 당시 극장장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뒤로 구자홍 극장장이 최OO 예술감독과 함께 문체부 예술국장을 만난 후 양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

64) 박OO 1회 진술조서, 7쪽. 2017. 12. 12.

65) 윤OO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2. 19.

하였고, ② 2015년 4월 이후 국립극단 간부회의(김윤철 감독, 윤OO 사무국장, 정OO 홍보팀장, 정OO 경영관리팀장, 박OO 공연기획팀장, 신OO 무대기술팀장 등 참석) 자리에서 김윤철 감독이 ‘김영하 작가가 블랙리스트인데 괜찮겠냐?’라고 말하자, 자신이 ‘〈빛의 제국〉은 한불 상호 수교 공식공연으로서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인데 어떻게 취소하느냐’라고 하는 등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하면서 김윤철 감독은 국립극단 간부들에게 필요하면 순교를 해서라도 지키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③ 〈빛의 제국〉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김영하 작가 이외에도 문소리 배우가 출연하기로 하였던 것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하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이 윤OO 사무국장에게 문소리 배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지만 상의 결과 양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문소리 배우가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다.⁶⁶⁾

(라) 참고인 정OO의 진술

참고인 정OO 국립극단 경영관리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국립극단과 명동예술극장이 통합된 2015년 4월 이후 간부회의(김윤철 감독, 윤OO 사무국장, 정OO 홍보팀장, 정OO 경영관리팀장, 박OO 공연기획팀장, 신OO 무대기술팀장 등 참석) 자리에서 김윤철 감독 혹은 윤OO 사무국장 중에서 한 사람이 〈빛의 제국〉과 관련하여 김영하 작가와 문소리 배우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건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⁶⁷⁾

(마) 참고인 구자흥의 진술

참고인 구자흥 명동예술극장 극장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2월 경 정OO 공연기획팀장으로부터 〈빛의 제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최OO 예술감독과 함께 김OO 예술국장⁶⁸⁾을 찾아가 최OO 예술감독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김OO 국장은 접수만 하였다고 하면서 그 뒤로 따로 양해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적은 없지만 명동예술극장

66) 정OO 1회 진술조서, 4-6 쪽. 2018. 1. 7.

이와 관련하여 윤OO은 문소리 배우에 대해 하OO 사무관에게 물어보았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로 이의제기하였다(‘18. 12. 12.).

67) 정OO 1회 진술조서, 3-5쪽. 2018. 1. 5.

68) 구자흥 극장장은 김OO 국장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2015년 2월 경 문체부 예술국장은 김OO이어서 이렇게 표기하였다. 전임 예술국장과 함께 간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직원들에게 양해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 뒤로 〈빛의 제국〉과 관련해서 문체부로부터 추가적인 요구는 없었다고 하면서 김영하 작가가 문제가 된 것은 뉴욕타임스에 기고하였던 글 때문이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⁶⁹⁾

(바) 참고인 최OO의 진술

참고인 최OO 한불 수교 예술감독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4년 봄 경 〈빛의 제국〉 공연을 하지 말라는 청와대 지시를 김소영 문체비서관으로부터 받고 청와대를 찾아가서 설득을 하였고, 이를 후 문체부 차관 또는 예술국장으로부터 다시 〈빛의 제국〉 공연을 하지 않는 방안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프랑스 공연에서 원작자를 초청하지 않기로 하고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⁷⁰⁾⁷¹⁾

(사) 참고인 김윤철의 진술

참고인 국립극단 예술감독 김윤철은 위원회 조사에서 “문체부로부터 〈빛의 제국〉 공연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국립극단 박OO 팀장, 혹은 정OO 팀장에게 듣고 프랑스 측과 얘기가 되어서 진행 중인 국제간 공연인데, 계속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⁷²⁾

(아) 참고인 박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박OO 사무관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서, 2015. 1월 경 5개 작품 〈빛의 제국〉, 〈문제적인간 연산〉,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Saint Joan〉, 〈아버지와 아들〉을 비롯하여, 이윤택 연출의 〈혜경궁 홍씨〉, 〈키 큰 세 여자〉, 〈어머니〉에 대하여, “당시 공연전통예술과장이 국립극단, 명동극장 2015년 공연사업 중 특정 작품을 제외할 수 있는지를 본인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검토·보고과정에서 국립극단 명동극장 2015년 공연작품들은 이미 홈페이지, 언론

69) 구자홍 1회 진술조서, 3-4쪽. 2018. 1. 10.

70) 최OO 1회 진술조서, 26-27쪽. 2018. 1. 25.

71) 최OO 예술감독은 2016년 5월 경 즈음 김영하 작가는 프랑스 측 초청으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와 같은 쪽).

72) 김윤철 1회 진술조서, 3쪽. 2018. 4. 10.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미 홍보되어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특정 작품을 제외하기 어렵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연전통예술과장은 홍보가 이미 됐다는 정도로 특정 작품을 제외할 수 없다는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다시 검토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작품 내용에 문제가 없고, 이미 2015년 작품들에 대한 공연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근거 등을 보강한 후 특정 작품을 제외할 수 없다고 다시 보고하였으며, 이후 공연전통예술과장은 2015년 공연 작품계획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고 본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상기 과정에서 본인은 특정작품을 제외할 수 없다는 검토·보고의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국립극단, 명동극장 담당자에게 관련자료(작품개요, 작품설명, 계약서, 공연홍보실적 등)를 요청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일부 특정 작품은 가계약 상태로 확인되었으나 본인은 동 작품을 포함한 모든 작품들이 이미 최종 계약을 끝낸 상태라고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⁷³⁾

(자) 참고인 임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임OO는 위원회 조사에서, 2015.1.월 경 5개 작품(〈빛의 제국〉, 〈문제적 인간 연산〉,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Saint Joan〉, 〈아버지와 아들〉)을 비롯하여, 〈3월의 눈〉(손진책 연출), 〈해경궁 흥씨〉, 〈키 큰 세 여자〉, 〈어머니〉(이상 이윤택 연출)에 대하여 배제 지시를 하달 받고 이를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등과 공연 취소 가능성을 협의하고 나중에 양해를 받기까지 과정과 관련하여, “그러한 배제 지시가 있었는데 연출 등이 섭외가 끝나서 공연을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취소할 경우 파장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제가 담당 사무관에게 그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쓰라고 했고, 그 보고서를 받아서 제가 김OO 국장, 박민권 차관, 김종덕 장관 등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장관은 2015년에는 그대로 공연하되, 차기년도부터는 제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⁷⁴⁾

(차) 참고인 김광보의 진술

참고인 김광보 연출가는 국립극단과 명동예술극장이 통합되기 전에 정OO 공연기획팀장에게 문체부로부터 자신을 배제시키라는 압력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미 계약이

73) 박OO 사실확인서, 2-3쪽. 2018. 1. 21.

74) 임OO 1회 진술조서, 10쪽. 2018. 1. 23.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다는 사유로 양해를 받았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서울시극단 단장으로 2015. 6. 1.경 임명되면서 <Saint Joan-잔 다르크> 공연 연출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고 정OO 공연기획팀장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⁷⁵⁾

(카) 소결

2015. 1월 경 5개 작품 <빛의 제국>, <문제적인간 연산>,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Saint Joan>, <아버지와 아들>을 비롯하여, 이윤택 연출의 <혜경궁 홍씨>, <키큰 세 여자>, <어머니>에 대하여,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문체부가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측에 공연의 취소 가능성을 물어보았으나 공연 취소시 파장을 고려하여 그대로 진행하라는 양해조치가 있었고, 2016년부터는 해당 작품의 연출가들(이윤택·김광보·고선웅·손진책 등)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이윤택 연출가의 경우 양해 조치가 있었지만 2015. 6월 경 <문제적인간 연산_명동예술극장, '15.7.1~7.26> 공연 연습 당시 서계동 연습실에서 배우와 스태프들이 있는 가운데 국립극단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된 사실이 문제가 되었고,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예술감독이 해당 연출가로부터 대신 사과를 받아 전달하고 2015년 하반기에 예정된 <키큰 세여자> 및 <혜경궁홍씨> 재공연의 연출을 해지 통보하였던 것이고, 김광보 연출가의 경우 2015. 6. 1. 서울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임명되면서 <Saint Joan>의 연출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마. <3월의 눈>(손진책 연출)이 배제된 경위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문체부 조치사항 관련 출력물'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중 '문체부 조치사항 관련 출력물'에 따르면, 2015년 1월 경 청와대에서 연극 <개구리>(13.9)로 노무현 대통령을 미화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하적으로 묘사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던 손진책 감독의 작품 <삼월의 눈>(3.13~29, 국립극장)에 대하여, 김종덕 장

75) 김광보 1회 진술조서, 3-4쪽. 2018. 1. 16.

관은 2015년 3월 6일 경 취소시 파장을 고려하여 공연을 그대로 진행하되 차기년도에는 배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⁷⁶⁾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가) 참고인 박OO의 진술

참고인 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 국립극단 라인업을 결정하는 2015년 하반기 (9월 경으로 기억) 사무국회의(김윤철 감독, 윤OO 사무국장, 정OO 팀장, 박OO 팀장, 정OO 팀장, 신OO 팀장 등 참석)에서 김윤철 감독이 “〈3월의 눈〉은 어떻게 하지?”라고 물어보자 정OO 경영관리팀장이 “블랙리스트라서 안 된다”고 하였고 결국 〈3월의 눈〉은 2016년 국립극단 라인업에서 빠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⁷⁷⁾

(나) 참고인 윤OO의 진술

참고인 국립극단 사무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문체부 사무관이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정OO 경영관리팀장을 통하여 〈3월의 눈〉을 2016년 국립극단 라인업에서 빼라는 취지의 문체부 지시는 있었으나, 김윤철 예술감독은 문체부의 의견과 상관없이 〈3월의 눈〉을 2014년에 이어 격년제로 레파토리화하고자 했으며 손 연출에게 여러 번 의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기억하나, 다른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⁷⁸⁾

(다) 참고인 정OO의 진술

참고인 국립극단 정OO 경영관리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 라인업을 결정하는 2015년 하반기 (9월 경) 간부회의에서 손진책 감독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외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⁷⁹⁾

76) 국정원, 문체부 조치 사항 관련 출력물. 2017. 10. 30.

77) 박OO 1회 진술조서, 9쪽. 2017. 12. 12.

78) 윤OO 1회 진술조서, 5-6쪽. 2017. 12. 19.

79) 정OO 1회 진술조서, 6쪽. 2018. 1. 5.

(라) 참고인 정OO의 진술

참고인 정OO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 2016년 라인업을 결정하는 2015년 하반기 (9월 경) 사무국회의에서 <3월의 눈>을 2016년 국립극단 라인업에서 제외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⁸⁰⁾

(마) 참고인 김윤철의 진술

참고인 김윤철 예술감독은 위원회 조사에서 손진책 감독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몰랐고, <3월의 눈>의 경우 그 당시 자신과 손진책 감독의 개인적인 갈등이 좀 있어서 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⁸¹⁾

(바) 참고인 임OO의 진술

참고인 공연전통예술과 임OO 과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3월의 눈>에 대하여는 국립극단 자체 사정으로 공연이 제외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아는 한 문체부에서 배제 지시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⁸²⁾

(사) 소결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중 ‘문체부 조치사항 관련 출력물’에서 <삼월의 눈>(3.13~29, 국립극장)이 물의를 야기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김종덕 장관이 2015년 3월 6일 경 취소시 파장을 고려하여 공연을 그대로 진행하되 차기년도에는 배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⁸³⁾을 통하여 <3월의 눈>이 배제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3월의 눈>이 김윤철 예술감독과 손진책 예술감독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⁸⁴⁾ 때문에 공연을 하지 않게된 측면도 있지만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80) 정OO 1회 진술조서, 8-9쪽. 2018. 1. 7.

81) 김윤철 1회 진술조서, 3쪽. 2018. 4. 10.

82) 임OO 1회 진술조서, 11-12쪽. 2018. 1. 23.

83) 국정원, 문체부 조치 사항 관련 출력물. 2017. 10. 30.

84) 손진책 감독 시기 임명된 직원 한 명에 대하여 김윤철 감독이 손진책 감독과 사전 상의 없이 인사조치한 일을 말한다.

바. 국립극단 공동제작 <조치원 해문이>, <망루의 햄릿> 홍보물에 대한 수정 경위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2015 기획대관 <조치원 해문이>·<망루의 햄릿> 공연 소개

국립극단 기획대관공연 <조치원 해문이>는 2015. 8. 24.~9. 13.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그린피그 제작, 이철희 작, 박상현 연출로 공연되었다. <조치원 해문이>는 백산희곡상 수상작으로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세종시 건설 즈음의 조치원으로 배경을 옮겨 각색한 작품으로, 원작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현대적인 정서를 입혔다.⁸⁵⁾ <망루의 햄릿>(김현탁 각색·연출, 극단 성북동비둘기 제작)은 2015. 6. 27.~7. 5.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공연되었다.



85) 2015 기획대관 <조치원 해문이> 공연 소개자료.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1) 참고인 박OO의 진술

참고인 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국립극단과 그린피그가 공동제작 하였던 <조치원 해문이>(2015.8.28.~9.13) 공연의 포스터 등 홍보물에서 ‘그린피그’, ‘윤한솔’ 등의 이름을 빼달라고 윤OO 사무국장이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문체부 000 주무관이 유선상으로 윤OO 사무국장에게 항의를 하였다고 전해 들었고, <망루의 햄릿>(2015.6.26.~7.5, 김현탁 연출)의 경우 포스터가 광화문 광장과 용산 참사를 연상시킨다면서 포스터를 전면 수정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김현탁 연출을 만나서 문체부 지시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포스터 수정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86) 87)}

(2) 참고인 윤OO의 진술

참고인 국립극단 윤OO 사무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조치원 해문이>(2015.8.28.~9.13)에서 포스터 등 홍보물에서 ‘그린피그’를 빼라는 000 주무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윤한솔’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2015.6.26.~7.5 공연된 <망루의 햄릿>(김현탁 연출)의 경우, 000 주무관이 이순신 장군 상에 물을 뿌리는 포스터에 대하여 ‘이것이 무슨 의미냐?’ 등을 물어보고 포스터 수정을 지시하여서 박OO 팀장이 김현탁 연출을 만나 문체부 지시라는 것은 숨기고 포스터 수정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88) 89)}

86) 박OO 1회 진술조서, 10-11쪽. 2017. 12. 12.

87) 이와 관련하여 윤OO은 당시 문체부 000 주무관은 <망루의 햄릿> 포스터와 관련하여 공연기획팀장과 1차 유선 통화 후 사무국장, 경영지원팀장 등 관련 간부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추가 진술하였다(‘18. 12. 12.).

88) 윤OO 1회 진술조서, 7-8쪽. 2017. 12. 19.

89) 이와 관련하여 윤OO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추가 소명하였다(‘18. 12. 12.).

▶<망루의 햄릿>은 관련 포스터가 온라인상에 국립극단측과 사전 협의없이 게재되어 있었고 문체부는 게재된 포스터 이미지와 사업추진경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임. 포스터 확인결과 게재된 포스터는 협의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립극단 CI(로고와 마크)를 사용하지 않았고 국립극단 주최의 공연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었음.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스터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미지 수정에 대한 문체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순응한 것이 아님. 내부회의를 거쳐 작품과의 관계, 관객 이해도를 고려하여 이미지 수정을 단체와 협의하도록 한 것임. 이와 관련하여 12.19자에 진술한 바 있음.

▶<조치원 해문이> 포스터에서 그린피그, 윤한솔 등의 홍보물(포스터)상 명칭 삭제와 관련 하여서

(3) 참고인 정OO의 진술

참고인 정OO 경영관리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조치원 해문이>(2015.8.28.~9.13)에서 포스터 등 홍보물에서 ‘그린피그’, ‘윤한솔’ 등의 이름을 빼라는 문체부 000 주무관의 지시를 자신이 받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포스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던 기억 나고, 2015.6.26.~7.5 공연된 <망루의 햄릿>(김현탁 연출)의 경우, 이순신 장군에게 물을 뿌리는 포스터 이미지에 대하여 문체부 000 주무관이 자신에게 항의 하여서 이를 윤OO 사무국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⁹⁰⁾

(4) 참고인 정OO의 진술

참고인 정OO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조치원 해문이>(2015.8.28.~9.13)에서 홍보물 검열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2015.6.26.~7.5 공연된 <망루의 햄릿>(김현탁 연출)의 경우, 문체부 000 주무관이 포스터를 전면 수정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말을 윤OO 사무국장에게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⁹¹⁾

(5) 참고인 김윤철의 진술

참고인 국립극단 예술감독 김윤철은 위원회 조사에서 극단 그린피그가 국립극단과 공동제작 하였던 공연 <조치원 해문이>(2015.8.28.~9.13)에서 포스터 등 홍보물에서 ‘그린피그’, ‘윤한솔’ 등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하였던 경위에 대하여는 개입한 기억이 없

는, 이 공연의 첫 공식 문서인 국립극단 내부결재(2015. 3. 23.)에 의거하면, <조치원 해문이>는 작품명 미정, 제작단체 벽산희곡상, 연출 박상현으로만 결재를 득한 상황이었고 단체와 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문체부에 전체사업을 보고하면서 <조치원해문이>로 작품이 결정되고 제작단체가 변경되었음을 파악함. 보고과정에서 극단 그린피그가 블랙리스트 대상임을 확인함. 당시 이윤택연출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을 시기였으나 문서로서 기 승인되어 계약한 공연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문체부를 설득, 협의한 바 있었기 때문에 자칫 서류미비가 많은 <조치원해문이>가 블랙리스트 해당이유로 공연 취소 등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서둘러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연을 강행토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 <조치원 해문이> 홍보물에 단체명 노출에 대해 문화부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었지만 최초 문서와 일치시키라는 것으로 지시한 것이며, 담당 실무팀장이 단체와 협의한 것으로 보고받음. 추후에 단체가 자체적으로 극단을 표기한 포스터를 발행한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음. 당시로서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완비하는 것과 공연을 계획대로 성사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음.

90) 정OO 1회 진술조서, 7-8쪽. 2018. 1. 5.

91) 정OO 1회 진술조서, 10쪽. 2018. 1. 7.

다고 하였고, 2015.6.26.~7.5 공연된 <망루의 햄릿>(김현탁 연출)의 경우, 문체부에서 ‘포스터를 전면 수정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삭제해라’고 지시하였던 것에 대하여는, 이순신을 그러한 방식으로 패러디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에 극단과 수정이 가능한지 상의를 해보라는 말을 하였지만, 문체부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말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⁹²⁾

(6) 참고인 박OO의 진술

참고인 박OO 연출가는 위원회 조사에서 국립극단에서 <조치원 해문이> 공연 포스터 등 홍보물에서 ‘그린피그’, ‘윤한솔’을 빼달라고 하여서, 기획대관을 도와준 직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포스터와 프로그램에서 ‘그린피그’, ‘윤한솔’의 명칭을 뺀 파일을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서 국립극단 측으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⁹³⁾

(7) 소결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문체부의 지시를 받은 국립극단이 국립극단 기획대관공연 <조치원 해문이>(2015. 8. 24.~9. 13.) 공연에 대하여 포스터 등 홍보물에서 ‘그린피그’, ‘윤한솔’ 등의 이름을 빼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그린피그는 ‘그린피그’, ‘윤한솔’의 명칭을 뺀 별도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국립극단에 보내주고 국립극단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⁹⁴⁾

<망루의 햄릿>(2015.6.26.~7.5, 김현탁 연출)의 경우, 문체부의 지시를 받은 국립극단이 문체부 지시라는 사실은 숨긴 채 극단 측에 포스터 수정을 요청하여 포스터가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⁹⁵⁾

92) 김윤철 1회 진술조서, 4쪽. 2018. 4. 10.

93) 박상현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1. 21.

94) 그린피그, 윤한솔의 경우 ‘리스트-’16.2.1.현재’, 9쪽 등에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극단 성북동비둘기의 경우 문체부 예술정책과가 작성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15.5.11.), 15쪽에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95)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윤OO은 <나의 입장>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추가 진술하였다 (18. 12. 12.).

「잘 알려져있듯 2015년 당시 국립극단을 둘러싼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본인은 블랙리스트와 관련 논란이 있는 작품들을 무리없이 제작,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위의 “기획대관사업”으로 기획된 공연들이 잘 마칠 수 있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저 한 사람뿐 아니라 국립극단의 동료, 관련 종사자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노력하여

사. '2016년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에서 전인철 연출가가 배제된 경우

(1) 참고인 등 대인 조사

(가) 참고인 박OO의 진술

참고인 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에서 전인철 연출가를 섭외하였던 2015년 상반기에는 전인철 연출가가 블랙리스트인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국립극단 사무국회의에서 정OO 경영관리팀장이 전인철 연출가도 블랙리스트여서 안된다고 하여서 전인철 연출가를 제외하게 되었는데 김윤철 감독이 자신에게 전인철 연출가를 만나서 잘 이해시키라고 하여서 "내년(2016년)에는 못할 것 같고 후년(2017년)에 하자"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2016년 라인업에서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⁹⁶⁾

(나) 참고인 윤OO의 진술

참고인 윤OO 국립극단 사무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상반기 2016년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에 섭외하였던 전인철 연출가를 국립극단 사무국회의에서 정OO 팀장이 블랙리스트라서 안 된다고 하자 김윤철 감독이 박OO 팀장에게 전인철 연출가를 잘 이해시키라고 하여서 박OO 팀장이 전인철 연출가를 만나 "내년(2016년)에는 못할 것 같고 후년(2017년)에 하자"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2016년 라인업에서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⁹⁷⁾

이론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에만 머문 결과이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음을 반성합니다. 한 국립기관의 행정 실무책임자로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공연이라면 지원을 받게 하고 이 공연이 어떤 외압과 외풍 속에서도 트집 잡히지 않게 하며 관객들과 만나 공연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까지만 본인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부당한 외압이나 역사적으로 퇴행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저항까지는 본인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예술행정가입니다. 역사의 발전을 거스르는 문화정책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저항할 행정가로서의 역할이 있었을 지도 모르겠으나 당시 본인은 정부의 정책 실행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고 부당한 정책이 현장에 반영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일에만 노력했습니다. 이윤택 연출의 공연과 고선웅 연출 <조씨고아>의 중국공연이 가능하도록 했고, <작가의 방> 사업실행을 위해 문제부를 설득하여 예비비 승인을 받아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운동가가 아닌 행정가라 여기며 가능한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라 여겼고 예술행정가의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당시에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 차원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96) 박OO 1회 진술조서, 9-10쪽. 2017. 12. 12.

(다) 참고인 정OO의 진술

참고인 정OO 국립극단 경영관리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에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에서 섭외되었던 전인철 연출가에 대한 문체부의 배제 지시를 자신이 국립극단 간부회의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⁹⁸⁾

(라) 참고인 정OO의 진술

참고인 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에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에서 섭외되었던 전인철 연출가가 배제 대상으로 거론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⁹⁹⁾

(마) 참고인 김윤철의 진술

참고인 국립극단 예술감독 김윤철은 위원회 조사에서 “전인철 연출가의 경우 배제 대상이라는 것을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OO 팀장에게 전인철을 만나서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박OO 팀장은 그것을 배제 하라는 지시로 이해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⁰⁰⁾

(바) 소결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전인철 연출가가 2015년 상반기 ‘2016 국립극단 젊은 연출가전’에 섭외되었다가 2015년 하반기 문체부 지시에 따라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¹⁰¹⁾

97) 윤OO 1회 진술조서, 6쪽. 2017. 12. 19.

98) 정OO 1회 진술조서, 7쪽. 2018. 1. 5.

99) 정OO 1회 진술조서, 9쪽. 2018. 1. 7.

100) 김윤철 1회 진술조서, 3-4쪽. 2018. 4. 10.

101) 전인철 연출가의 경우, 문체부 예술정책과가 작성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15. 5. 21.) 6쪽에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아. 어린이청소년연구소의 <날아가버린 새>가 배제된 경위

(1) 2015년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 낭독공연 <날아가버린 새> 공연개요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 '창작희곡 낭독 쇼케이스'는 2014. 12. 4. ~ 12. 5. 국립극단 속극장 판에서 장지혜 작·전인철 연출로 낭독공연 되었는데, 작품 내용은 출구 없는 가난과 연민의 굴레 속에서 몸과 마음이 중독된 소년의 이야기이다.¹⁰²⁾

(2) 참고인 등 진술조사

(가) 참고인 박OO의 진술

참고인 박OO 공연기획팀장은 전인철 연출가의 경우 2015년 하반기 국립극단 어린이 청소년 연구소에서 개최했던 낭독공연(제목 기억 안남)을 2016년 공연하기로 했다가 전인철 연출가가 블랙리스트여서 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⁰³⁾

(나) 윤OO 진술조서

참고인 윤OO 사무국장도 전인철 연출이 2015년 하반기 국립극단 어린이 청소년 연구소에서 개최했던 낭독공연을 2016년에 공연하기로 하였지만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⁰⁴⁾

(다) 정OO 진술조서

참고인 정OO 경영관리팀장은 전인철 연출이 블랙리스트여서 2015년 하반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 연구소에서 개최했던 '창작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낭독공연 <날아가 버린 새>(장지혜 작가, 전인철 연출, 2015.12.5. 오후 3:00 공연)를 2016년 공연하기로 했지만 배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⁰⁵⁾

102) 청소년 낭독공연 <날아가버린 새> 작품 소개. 장지혜 작가의 경우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전인철 연출가가 배제되면서 함께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103) 박OO 1회 진술조서, 10쪽. 2017. 12. 12.

104) 윤OO 1회 진술조서, 7쪽. 2017. 12. 19.

105) 정OO 1회 진술조서, 7쪽. 2018. 1. 5.

(라) 정OO 진술조서

참고인 정OO 공연기획팀장은 2015년 하반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 연구소에서 개최했던 ‘창작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낭독공연 <날아가 버린 새>(장지혜 작가, 전인철 연출, 2015.12.5. 오후 3:00 공연)를 2016년 공연하기로 했지만 국립극단 사무국 회의에서 전인철 연출가가 문제가 되어서 공연이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⁰⁶⁾

(마) 참고인 김윤철의 진술

참고인 국립극단 예술감독 김윤철은 위원회 조사에서, 전인철 연출가의 <날아가버린 새>가 배제된 경위에 대하여서는, “이 사안의 경우 아마 팀장 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젊은 연출가전에서 빠졌던 것처럼 전인철이 빠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인철은 청소년극보다는 다른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연기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배제를 하려고 했다가 보다는 작업을 함께 하는 시기를 좀 연기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⁰⁷⁾

(바) 소결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장지혜 작·전인철 연출의 <날아가버린 새>가 전인철 연출가가 블랙리스트여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자.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양해 조치 경위**(1) 문건 등 자료조사****(가)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공연 소개**

국립극단 제작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고선웅 연출)은 2015. 11. 14.~11. 22. 명동 예술극장에서 공연되었는데, 공연 내용은 장군 도안고가 권력에 눈이 멀어 적수인 문인, 조순의 가문을 멸족하는 정치적 처단을 자행하는데, 조씨 집안의 문객 정영이 자기 자식과 아널르 희생하면서 조씨 고아를 사려야 하는 가혹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20

106) 정OO 1회 진술조서, 9-10쪽. 2018. 1. 7.

107) 김윤철 1회 진술조서, 4쪽. 2018. 4. 10.

년간 복수의 씨앗인 정발을 자신의 아들로 키우는데, 이를 알아채지 못한 도안고는 정영을 자신의 편으로 믿고 정발을 양아들로 삼아 무인으로 훈련시킨다. 정발이 장성하자 정영은 참혹했던 지난날을 고백하며 양아버지 도안고에 대한 복수를 부탁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정발은 20년 전 죽음을 당한 친아버지 조삭, 20년간 키워준 아버지 정영, 그리고 두 얼굴의 양아버지 도안고 사이에서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⁰⁸⁾

(나)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문서(26쪽)에서 고선웅 연출가가 국정원(K)과 청와대(B)의 동의를 얻어 양해조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연출가 고선웅 (’15.12.8)		o 양해됨(K,B 동의/ 1차관)
-----------------------	--	--------------------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가) 참고인 박OO의 진술

참고인 박OO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국립극단이 기획·제작하였던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2015.11.4.~22)이 양해조치되었다는 결과만 전해 들었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고선웅 연출이 각서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⁰⁹⁾

(나) 참고인 윤OO의 진술

참고인 윤OO 사무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고선웅 연출의 양해과정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¹⁰⁾

(다) 참고인 정OO의 진술

참고인 정OO 경영관리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문체부가 고선웅 연출의 <조씨고아,

108) 조씨고아_공연소개자료(보도자료)

109) 박OO 1회 진술조서, 11-12쪽. 2017. 12. 12.

110) 윤OO 1회 진술조서, 8쪽. 2017. 12. 19.

복수의 씨앗)에 대한 공연 취소 문의를 한 바 있고, 재공연 당시에는 박민권 1차관의 노력으로 ‘양해 조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¹¹⁾

(라) 참고인 정OO의 진술

참고인 정OO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박민권 1차관이 <조씨 고아, 복수의 씨앗> 공연을 보러 와서 공연이 너무 좋다면서 지방공연을 하자고 제안을 하여서 윤OO 사무국장이 고선웅 연출이 “리스트에 있다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고 박민권 차관이 알아보겠다고 한 후 양해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¹²⁾

(마) 참고인 김윤철의 진술

참고인 국립극단 예술감독 김윤철은 위원회 조사에서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공연이 끝난 후 박민권 차관이 공연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후 국립극단 제작으로 <한국인의 초상> 연출로 고선웅이 섭외되자, 고선웅이 블랙리스트에 있다고 국립극단 직원들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문체부 차관, 공연과장, 예술국장, 사무관 등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박민권 차관이나 OOO 신시 대표가 청와대 쪽으로 노력을 해서 양해를 얻은 것으로 압니다. 결국 특정 작품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고선웅 연출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2015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예술검열이 논란이 되었을 때 서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아는데, 소문이어서 확실하지는 않고 다만 리스트에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¹³⁾

(바) 참고인 B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국장 B은 위원회 조사에서, 고선웅 연출이 문제가 되어서 박민권 차관이 양해를 받았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고, 자신이 문체부 예술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립극단에서 실행되었던 블랙리스트에 관하여, 전반적인 배제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

111) 정OO 1회 진술조서, 8-9쪽. 2018. 1. 5.

112) 정OO 1회 진술조서, 11쪽. 2018. 1. 7.

이와 관련하여 윤OO은 당시 “고선웅 연출이 리스트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재공연이 가능하게 해결해주시면 합니다.” 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추가 진술하였다(18. 12. 12.).

113) 김윤철 1회 진술조서, 5쪽. 2018. 4. 10.

카. 2016 ‘작가의 방’의 경우

(1) 문건 등 자료 조사

(가) ‘국립극단 ‘작가의 방’ 왜 극작가를 교육, 교정하려 하는가?’¹¹⁷⁾

신청인은 연극평론지에 기고한 ‘국립극단 ‘작가의 방’ 왜 극작가를 교육, 교정하려 하는가?’에서 ‘작가의 방’ 공식적인 첫모임에서 ‘첫째 <개구리> 같은 작품을 쓰지 말아달라는 것 둘째 국립극단을 위한 작품을 써 달라는 것’ 등의 말이 나왔다고 하면서, 국립극단이 젊은 극작가들에게 <개구리> 같은 작품을 쓰지 말라고 한 것은 연극 <개구리> 사태 이후 국립극단이 겪었던 풍파를 겪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하였다.¹¹⁸⁾

(나)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김윤철 국립극단 예술감독은 2017년 5월 2일 경 마로니에 공원 좋은 공연 안내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토론회에 참석하여, 이운택, 김영하, 고선웅, 박근형 등과 작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부를 설득해서 문제없이 공연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작가의 방’과 관련해서는, <개구리> 같은 작품을 쓰지 말아달라는 정OO 공연기획팀장의 발언은 국립극단의 입장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개방성을 간섭의 문제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¹¹⁹⁾

한편 정OO 공연기획팀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작가의 방’ 참여 작가들에게 ‘무조건 마음대로 써라, 그러면 국립극단의 예술감독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국립극단으로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작품을 한다고 다 약속을 못하니 일단 마음대로 다 쓰십시오, 그리고 국립에서 못한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하면 되니까 다 쓰십시오.’라고 말을 한 것이 뒤집어 말하면 ‘국립에서 못하는 작품은 쓰

117) 고연옥, 「국립극단 ‘작가의 방’ 왜 극작가를 교육, 교정하려 하는가?」, 『연극평론』 통권 84호, 2017 봄호.

118) 고연옥, 「국립극단 ‘작가의 방’ 왜 극작가를 교육, 교정하려 하는가?」, 『연극평론』 통권 84호, 2017 봄호, 119-120쪽.

119) 김나뵈,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연극평론』 통권 85호, 2017 여름. 2017. 6. 131쪽, 135쪽.

지 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자기 검열의 실수를 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¹²⁰⁾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구OO 작가는 <개구리>라는 단어가 언급됐는지 안 됐는지가 검열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국립극단 측이 검열을 하지 않았다고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설사 ‘작가의 방’ 첫모임 자리에 있었던 자신이 그날 검열을 강요하는 발언이 없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국립극단 측은 그날 국립극단 측의 발언이 검열로 작동될 수도 있는 말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성찰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¹²¹⁾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가) 신청인 고연옥의 진술

신청인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 5월 국립극단 ‘작가의 방’ 첫모임(김윤철 예술감독, 윤OO 사무국장, 정OO 공연기획팀장 등 참여)에서 ‘국립극단을 위한 작품을 써달라’는 국립극단 측의 발언에 대하여 참여 작가들이 정치적인 내용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인가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쓰길 바라느냐’ 하고 물었는데, 정OO 공연기획팀장이 ‘관객들이 보았을 때’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세월호는 팬텀아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내용은 예를 들어 <개구리> 같은’ 이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²²⁾

신청인은 또 정OO 공연기획팀장의 위와 같은 발언이 “젊은 극작가들에게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재의 작품은 쓰지 말아야 한다는 자기검열의 기제를 작동시켰다”보면서, “당시 2015년 하반기 논란이 되었던 예술위의 검열사태에 저항하는 <권리장전2016_검열각하>에 20개 공연단체가 6월부터 공연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의 방’에 모인 젊은 작가들 역시 검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발언을 해야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작가들에게 창작극을 발표할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국립극단에서 젊은 작가들을 ‘작가의 방’에 모은 것 자체가 작가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 기

120) 김나뵈,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연극평론』 통권 85호, 2017 여름. 2017. 6. 132쪽.

121) 김나뵈,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연극평론』 통권 85호, 2017 여름. 2017. 6. 133쪽.

122) 고연옥 1회 진술조서, 4-5쪽. 2017. 10. 26.

회를 잘 활용해서 창작극을 발표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정OO 기획팀장의 위 발언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사회적 발언을 하는 작품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²³⁾

(나) 참고인 정OO의 진술

참고인 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국립극단을 위한 작품을 써 달라’는 말은 자신이 평소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고, 만약 자신이 그런 말을 실수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오티에서 했던 말은 아니고, 당시 국립극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자유와 형식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OO 공연기획팀장은 부연 설명으로 “그런데 제가 국립극단에서 일을 해 보니, 국립극단은 <개구리> 사태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특정 정치인을 소재로 쓴 작품들의 경우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모든 작품들이 국립극단에서 공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립극단에서 못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극단에서 해도 되고 공모전에 내도 되니 국립극단을 염두에 두지 말고 본인이 쓰고 싶은 작품을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말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발언은 지금 생각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당시로서는 작가들에게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면 특정 언론이나 특정 정치인을 소재로 삼아서 <개구리> 같은 논란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작가의 방’ 기획 의도 자체가 검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¹²⁴⁾

(다) 참고인 손OO의 진술

참고인 국립극단 손OO 피디는 위원회 조사에서 ‘작가의 방’ 예산은 전년도(2015)에는 없었기 때문에 ‘작가의 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체부의 허락을 얻어 예산 변경을 거쳐야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자신은 문체부와 소통한 사실은 없고 ‘작가의 방’을 공모제로 한 것은 좋은 작가를 섭외하자는 취지였으며 작가 섭외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적용되거나 양해되는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²⁵⁾

123) 고연옥 1회 진술조서, 5-6쪽. 2017. 10. 26.

124) 정OO 1회 진술조서, 14-16쪽. 2018. 1. 7.

(라) 참고인 김윤철의 진술

참고인 국립극단 예술감독 김윤철은 위원회 조사에서 (가) 당시 정OO 공연기획팀장이 ‘작가의 방’을 문체부로부터 허락받기 위해서 힘들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고, (나) ‘작가의 방’ 기획은 고연옥 작가, 구자혜 작가가 함께 했던 데서 볼 수 있듯 블랙리스트 작가들을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작가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고 (다) ‘작가의 방’ 예산은 공연사업비 쪽에서 가져온 것이고 (라) 정OO 팀장이 <개구리> 같은 작품을 쓰지 말라고 하였다면 그것은 실수일 것이고 소재의 제한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마) ‘작가의 방’ 기획은 국립극단 공연을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극작가들이 창작품을 집필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²⁶⁾

(마) 소결

다음의 사실을 통하여 ‘작가의 방’ 참여 작가들 중에서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작가들의 집필 작품에 대한 소재의 제한, 검열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16년 5월 경 ‘작가의 방’ 공식적인 첫모임에서 정OO 공연기획팀장이 <개구리> 같은 작품을 쓰지 말았는지 여부, 작품 소재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정OO 공연기획팀장이 ‘국립극단으로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 모든 작품을 국립극단이 공연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는 발언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¹²⁷⁾

‘작가의 방’ 기획 의도 자체가 검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정OO 공연기획팀장의 진술¹²⁸⁾ ‘작가의 방’을 공모제로 한 것은 좋은 작가를 섭외하자는 취지였으며 작가 섭외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적용되거나 양해되는 일은 없었다는 손OO 피디의 진술,¹²⁹⁾ ‘작가의 방’ 프로그램은 블랙리스트 작가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는 김윤철 예술감독의 진술¹³⁰⁾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국립극단에서 창작

125) 손OO 1회 진술조서, 3쪽. 2018. 3. 9.

126) 김윤철 1회 진술조서, 6-7쪽. 2018. 4. 10.

127) 김나뵈,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연극평론』 통권 85호, 2017 여름. 2017. 6. 132쪽.

128) 정OO 1회 진술조서, 14-16쪽. 2017. 1. 7.

129) 손OO 1회 진술조서, 3쪽. 2018. 3. 9.

극을 발표하고 싶은 젊은 작가들에게 정OO 기획팀장의 발언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발언을 하는 작품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었다는 신청인의 진술,¹³¹⁾ 그날 국립극단 측의 발언이 검열로 작동될 수도 있었다는 구자혜 작가의 발언,¹³²⁾ 모든 작품이 국립극단에서 공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작가들에게 오해를 주었을 수도 있었다는 정OO 참고인 자신의 진술¹³³⁾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적어도 ‘작가의 방’에서 집필한 작품을 국립극단에서 공연하기를 희망하였던 작가들에게는 소재의 제한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작가의 방’ 프로그램 기획 및 극작가 선발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적용 혹은 양해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하였던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24쪽 하단에서 2015년 4월 13일 현재 고연옥 책임작가가 ‘정무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어서 배제 대상이라는 사실,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문서(12쪽 하단)에서 ‘작가의 방’ 참여 작가 중 구자혜 작가가 ‘혜화동 1번지 6기 동인’으로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고연옥 작가나 구자혜 작가에 대한 양해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문서 혹은 진술은 전혀 없는 반면 ‘작가의 방’에서 검열의 문제는 없었다는 김윤철 국립극단 예술감독의 진술과,¹³⁴⁾ ‘작가의 방’ 참여 작가 선정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적용되거나 ‘양해’되는 사실이 전혀 없었고, 도리어 검열의 대상이 될까봐 문체부에 작가 리스트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이는 제작 공연이 아니라 작품 개발 과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정OO 공연기획팀장의 진술,¹³⁵⁾ ‘작가의 방’을 공모제로 한 것은 좋은 작가를 섭외하자는 취지였으며 작가 섭외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적용되거나 양해되는 일은 없었다는 손OO 피디의 진술¹³⁶⁾만이 있어서 ‘작가의 방’ 참여 작가 선정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적용이나 양해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130) 김윤철 1회 진술조서, 6쪽. 2018. 4. 10.

131) 고연옥 1회 진술조서, 5-6쪽. 2017. 10. 26.

132) 김나뵈,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연극평론』 통권 85호, 2017 여름. 2017. 6. 133쪽.

133) 정OO 1회 진술조서, 15쪽. 2018. 1. 7.

134) 김나뵈,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연극평론』 통권 85호, 2017 여름. 2017. 6. 131쪽, 135쪽.

135) 정OO 1회 진술조서, 13쪽. 2018. 1. 7.

136) 손OO 1회 진술조서, 3쪽. 2018. 3. 9.

다만 당초 ‘작가의 방’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서 작가를 선발하려고 하였으나, 윤OO 사무국장을 통해서 문체부에서 공모제를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초청 형식으로 작가 선정 방식을 바꾸고 문체부에 작가 명단을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검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도 자료도 내지 않고 국립극단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정OO 공연기획팀장의 진술¹³⁷⁾ 기획자체가 블랙리스트 작가들도 함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김윤철 예술감독의 진술¹³⁸⁾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공모제를 회피하였던 방식 자체가 블랙리스트 작가가 응모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검열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16년 1월 8일 경 문체부 작성 「2016년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안] 보고」 문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2016년에 문체부가 전반적으로 공모사업을 줄이고 기획사업을 강화하여갔던 것은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¹³⁹⁾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대본 수정 조치가 있었던 경위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 문서에서 현재 공연 중인 작품에 대하여 ‘추가 조치 요구(수정 등)’는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연출가로 하여금 결말을 수정하도록 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¹⁴⁰⁾ 참고인 김OO은 연출이 <개구리> 공연을 대략 일주일 내지 5일 가량 앞두고 박근혜 연출

137) 정OO 1회 진술조서, 13쪽. 2018. 1. 7.

138) 김윤철 1회 진술조서, 6쪽. 2018. 4. 10.

139) B 문체부 예술국장은 위 문서와 관련하여 2018년 3월 23일 위원회 조사에서, 청와대 김소영 문체비서관이 문예기금 지원 시스템을 바꾸라는 지시를 하여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 정기 공모 사업 축소 2) 공모사업의 기획 사업으로 전환 등의 개편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B 1회 진술조서, 5쪽.). 이 진술은 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사업 개편에 관한 내용이지만 문체부의 전반적인 기조는 다른 산하 기관에도 동일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40) 김OO,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2013. 9. 12.

가로부터 손진책 예술감독이 대본의 결말을 바꾸는 등 작품에 대한 관여를 많이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⁴¹⁾ 정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이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조치사항’ 부분은 손진책 예술감독님의 판단으로 조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⁴²⁾ 참고인 박근형 연출가가 공연 며칠 전 손진책 감독이 리허설을 본 후 ‘국립극단인데 작품에 격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색채가 너무 강하지 않느냐. 그리고 직설적인 욕설을 배제했으면 한다.’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⁴³⁾ 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결말을 동자승의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으로 바꾼 것에 대하여, 손진책 예술감독과 박근형 연출이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눈 후 수정한 것으로 손진책 감독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⁴⁴⁾ 모철민 교문수석이 <개구리> 논란과 관련하여, 당시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부녀를 상당히 폄하하는 등의 이유로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⁴⁵⁾ 조OO 문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연극 <개구리>를 보고 ‘잘 알아보고 계시라.’고 유진룡 장관에게 문자를 보낸 일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¹⁴⁶⁾ 김OO 공연전통예술과장이 <개구리>가 개막하고 2013. 9. 6.~7경 청와대 문체비서관실로부터 <개구리> 공연이 굉장히 정치편향적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고 공연을 본 후 청와대로부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급히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조치사항>’은 청와대 보고용으로 좀 과장해서 만든 보고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¹⁴⁷⁾ 손진책 예술감독이 <개구리> 시연회가 끝난 후 박근형 연출가를 면담하여 직접적인 풍자 부분에 대하여 미학적인 차원에서 조언을 하였고 박근형 연출가가 수용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¹⁴⁸⁾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2013년 연극 <개구리>가 문제가 되어서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형식적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¹⁴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연극 <개구리>가 개막하기 전 국립극단에서 대본의 결말 등

141) 김재영 1회 진술조서, 5쪽. 2017. 10. 22.

142) 정OO 1회 진술조서, 5-6쪽. 2017. 10. 23.

143) 박근형 1회 진술 조서, 2017. 11. 24.

144) 박OO 1회 진술조서, 3쪽. 2017. 12. 12.

145) 모철민 1회 진술조서, 45쪽. 2017. 12. 27.

146) 조OO 1회 진술조서, 11쪽. 2018. 1. 18.

147) 김OO 1회 진술조서, 3-5쪽. 2018. 1. 12.

148) 손OO 면담조사보고, 1쪽. 2018. 1. 28.

에 대한 수정 조치가 있었고, 청와대로부터 <개구리>가 정치편향적이라는 문제제기를 받은 김OO 공연전통예술과장이 대책마련을 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손진책 감독 면담 후 ‘손진책 감독 조치사항’ 부분, 손진책 예술감독 교체 추진 등의 사항을 문서에 포함시켜 청와대에 보고하였고, 문체부에서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개구리> 개막 전 대본의 결말에 대한 수정 조치가 청와대·문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 <개구리>의 결말에 대한 수정이 국립극단 예술감독의 수정 조치인지 아니면 국립극단 예술감독의 미학적인 차원의 조언을 박근형 연출가가 수용하였던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명을 하지 못하였다.

나. 국립극단 공동제작공연 <알리바이연대기>의 경우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 문서에서 ‘향후 조치계획’ 대상에 <젊은 연출가전(1)-알리바이연대기>가 포함되어 있는 점, 김OO 연출가가 <알리바이연대기>에 대하여 손진책 예술감독이 연극 무대에 걸려 있는 박정희 사진, 박정희의 사회주의자로서의 활동 경력, 밀고 및 전향 경력 등이 직접 거론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⁴⁹⁾ 김OO 연출가가 김윤철 신임 예술감독이 국립극단에서 재공연하기로 약속하였던 <알리바이연대기> 재공연을 부담스러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¹⁵⁰⁾ 박근형 연출가의 진술,¹⁵¹⁾ 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이 김윤철 예술감독이 2014년 2월 경 예술감독 취임 직후 <알리바이연대기> 재공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느냐고 자신에게 물어보았다고 하면서 김OO 연출가와는 이미 얘기가 되었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¹⁵²⁾ 최OO 사무국장이 손진책 예술감독이 <알리바이연대기> 공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거는 것에 대해서 걱정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¹⁵³⁾ 김윤철 예술감독이 박OO 팀장으로부터 김OO 연출이 재공연을 원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아서 그런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⁵⁴⁾을 종합하여

149) 유진룡 면담녹취록, 44쪽. 2017. 11. 29.

150) 김OO 1회 진술조서, 3-6쪽. 2017. 10. 22.

151) 김OO 1회 진술조서, 7-9쪽. 2017. 10. 22.

152) 박근형 1회 진술조서, 4-5쪽. 2017. 11. 24.

153) 박OO 1회 진술조서, 6쪽. 2017. 12. 12.

154) 최OO 1회 진술조서, 6쪽. 2018. 3. 9.

살펴보면 손진책 예술감독이 <알리바이연대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을 하였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김윤철 예술감독의 경우 김OO 연출가나 박OO 팀장의 진술과 반대로 김OO 연출가가 재공연을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서 김윤철 예술감독이 <알리바이연대기> 재공연을 반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다. 국립극단 기획공연 <구름>에서 대본 수정 조치 경위

남OO 연출가가 최OO 국립극단 사무국장이 특정 대사에 빨간 줄이 그어진 대본을 가지고 극장에 찾아와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⁵⁶⁾ 공연전통예술과 정OO 사무관이 <구름>(아리스토파네스 원작/남인우 연출)에 나오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추문 등 패러디 내용’ 등을 빼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손진책 예술감독이 스스로 판단하여서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¹⁵⁷⁾ 출연 배우였던 장OO 배우가 최OO 사무국장이 빨간줄이 쳐진 대본을 남OO 연출가에게 전달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¹⁵⁸⁾ 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이 <구름> 대본에 빨간 줄이 쳐져 있고, BH라는 문구가 써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¹⁵⁹⁾ 최OO 사무국장이 손진책 예술감독의 코멘트가 달린 대본을 남OO 연출가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⁶⁰⁾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최OO 사무국장이 대사에 자로 대고 반듯하게 그은 빨간 줄이 쳐진 <구름> 대본을 남OO 연출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손진책 예술감독 <구름> 공연 대본에 빨간 줄이 쳐진 일에 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¹⁶¹⁾ 공연전통예술과 김OO이 <구름> 대본에 빨간 줄을 그어서 대본을 연출가에게 전달한 일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¹⁶²⁾ 국립극단 손OO 피디가 문체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없고, 빨간 줄이 쳐진 대본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¹⁶³⁾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손진책 감독이 최OO 연

155) 김윤철 1회 진술조서, 2쪽. 2018. 4. 10.

156) 남OO 1회 진술조서, 6쪽. 2017. 11. 20.

157) 정OO 1회 진술조서, 6쪽. 2017. 10. 23.

158) 장OO 1회 진술조서, 3-4쪽. 2017. 11. 28.

159) 박OO 1회 진술조서, 5쪽. 2017. 12. 12.

160) 최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8. 3. 9.

161) 손진책 1회 진술조서. 2018. 1. 28.

162) 김OO 1회 진술조서, 5쪽. 2018. 1. 12.

출가에게 전달한 대본이 <구름> 대사에 빨간 줄이 쳐진 대본인지 여부, 구름 대본에 대한 검열에 청와대·문체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진상규명하지 못하였다.

라.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에서 <빛의 제국> 등에 대한 양해조치가 있었던 경위

2015. 1월 경 5개 작품 <빛의 제국>, <문제적인간 연산>,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Saint Joan>, <아버지와 아들>을 비롯하여, 이윤택 연출의 <혜경궁 홍씨>, <키 큰 세 여자>, <어머니>에 대하여,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문체부가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측에 공연의 취소 가능성을 물어보았으나 공연 취소시 파장을 고려하여 그대로 진행하라는 양해조치가 있었고, 2016년부터는 해당 작품의 연출가들(이윤택·김광보·고선웅)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이윤택 연출가의 경우 양해 조치가 있었지만 2015. 6월 경 <문제적인간 연산_명동예술극장, '15.7.1~7.26> 공연 연습 당시 서계동 연습실에서 배우와 스태프들이 있는 가운데 국립극단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된 사실이 문제가 되었고,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예술감독이 해당 연출가로부터 대신 사과를 받아 전달하고 2015년 하반기에 예정된 <키 큰 세 여자> 및 <혜경궁홍씨> 재공연의 연출을 해지 통보하였던 것이고, 김광보 연출가의 경우 2015. 6. 1. 서울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임명되면서 <Saint Joan>의 연출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마. <3월의 눈>(손진책 연출)이 배제된 경위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중 '문체부 조치사항 관련 출력물'에서 <삼월의 눈>(3.13~29, 국립극장)이 물의를 야기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김종덕 장관이 2015년 3월 6일 경 취소시 파장을 고려하여 공연을 그대로 진행하되 차기년도에는 배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¹⁶⁴⁾을 통하여 <3월의 눈>이 배제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만, <3월의 눈>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 김윤철 예술감독과 손진책 예술감독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 때문에 공연을 하지 않게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였다.

163) 손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8. 3. 9.

164) 국정원, 문체부 조치 사항 관련 출력물. 2017. 10. 30.

바. 국립극단 공동제작 <조치원 해문이>, <망루의 햄릿> 홍보물에 대한 수정 경위

문체부의 지시를 받은 국립극단이 국립극단 기획대관공연 <조치원 해문이>(2015. 8. 24.~9. 13.) 공연에 대하여 포스터 등 홍보물에서 ‘그린피그’, ‘윤한솔’ 등의 이름을 빼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그린피그는 ‘그린피그’, ‘윤한솔’의 명칭을 뺀 별도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국립극단에 보내주고 국립극단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망루의 햄릿>(2015.6.26.~7.5, 김현탁 연출)의 경우, 문체부의 지시를 받은 국립극단이 문체부 지시라는 사실은 숨긴 채 극단 측에 포스터 수정을 요청하여 포스터가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사. 2016년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에서 전인철 연출가가 배제된 경위

전인철 연출가가 2015년 상반기 2016 국립극단 젊은 연출가전에 섭외되었다가 2015년 하반기 문체부 지시에 따라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아. 어린이청소년연구소의 <날아가버린 새>가 배제된 경위

장지혜 작·전인철 연출의 <날아가버린 새>가 전인철 연출가가 블랙리스트여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자.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양해 조치 경위

고선웅 연출가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 대상이었으나 박민권 차관 등이 국정원(K)과 청와대(B)의 동의를 얻어 양해조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차. 국립극단 공동주최 제7회 현대일본희곡낭독공연이 취소된 경위

2015년 10월 초순 경 국립극단에서 공동주최하기로 되어 있었던 제7회 현대일본희곡낭독공연 국립극단 공동주최의 건에 대하여, 김광보 회장이 블랙리스트여서 문제가 되어서, 한일연극교류협회 낭독공연 직전 문체부에서 일체의 외부 단체에 극장을 빌려주지 말라는 방침이 내려와서 국립극단이 취소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카. 2016 ‘작가의 방’의 경우

국립극단 정OO 공연기획팀장이 ‘작가의 방’ 참여 작가들에게 ‘국립극단으로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 모든 작품을 국립극단이 공연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발언은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작가들의 집필 작품에 대한 소재의 제한, 검열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작가의 방’ 참여 작가 선정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적용이나 양해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작가의 방’ 프로그램을 공모제를 회피하였던 방식 자체에 블랙리스트 작가가 응모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박근혜 정부 시기 동안 국립극단에서 실행된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문체부 김OO 예술품국장 등 상급자, 청와대·국정원에 대하여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3

2016 국립극단 ‘작가의 방’ 검열 사건



43

2016 국립극단 ‘작가의 방’ 검열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공9[2016 국립극단 ‘작가의 방’ 검열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조사 취지

신청인의 조사 신청 취지에 따라서 (재)국립극단(이하 국립극단)이 창작극 개발 및 신인극작가 성장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2016년 <작가의 방> 프로그램에서 (1) 작가의 방 프로그램의 기획과정과 참여 극작가들의 선발 과정에서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적용되거나 혹은 양해되는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2) ‘작가의 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젊은 작가들이 향후 집필할 작품에 대한 소재의 제한, 검열 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청와대에서 <개구리> 공연이 정치편향적이라는 문제제기를 받고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는 문체부 김OO 공연전통예술과장의 진술 등과 중앙일보 기사를 통하여 국

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정 OO 공연기획팀장이 ‘국립극단으로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 모든 작품을 국립극단이 공연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는 발언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어서 ‘작가의 방’ 참여 작가들 중에서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작가들의 집필 작품에 대한 소재의 제한, 검열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작가의 방’ 프로그램 기획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적용 혹은 양해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붙임 : [2016 국립극단 ‘작가의 방’ 검열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공9[2016 국립극단 ‘작가의 방’ 검열 사건]

[신청인] 고연옥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고연옥(이하 ‘신청인’)은 (재)국립극단(이하 국립극단)이 창작극 개발 및 신인 극작가 성장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2016년 <작가의 방> 책임작가로 활동하였는데, (1) 작가의 방 프로그램의 기획과정과 참여 극작가들의 선발 과정에서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적용되거나 혹은 양해되는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2) ‘작가의 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젊은 작가들이 향후 집필할 작품에 대한 소재의 제한, 검열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 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의거, 2017년 10월 20일 제11차 전원위원회에서 위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재)국립극단(이하 국립극단)이 창작극 개발 및 신인극작가 성장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2016년 <작가의 방> 기획 및 참여작가 선정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적용되거나 양해조치 되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작가의 방’ 참여 작가들이 집필하는 작품에 대한 소재의 제한 또는 검열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밝히고자 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34건에 대하여 입수 및 검토함.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조사 신청서	고연옥		
2	국립극단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	김OO(문체부 공연 전통예술과 과장)	2017. 8. 17.	
3	국립극단 정관 및 규정(2015.3.31기준)_기관통합 전	국립극단	2017. 8.28	
4	국립극단 정관 및 규정(2017년 7월)	국립극단	2017. 8.28	
5	2013년 국립극단 국고보조사업 운영보고서	국립극단	2017. 8.28	
6	2014년도 경영실적보고서-본보고서-	국립극단	2017. 8.28	
7	2015년도 경영실적보고서-본보고서-	국립극단	2017. 8.28	
8	2016년도 경영실적보고서-본보고서-	국립극단	2017. 8.28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9	(재)국립극단 <작가의방> 언론보도 내용 관련 보고(경위서)	국립극단	2017. 8.28	
10	공식 사과문(초안)	국립극단	2017. 8.28	위 문서 붙임문서
11	2016 국립극단 <창작극 개발 프로젝트> 개요	국립극단	2017. 8.28	위 문서 붙임문서
12	작가의 방 기본계획서	국립극단	2018. 3. 13.	
13	작가의 방 결과보고서	국립극단	2018. 3. 13.	
14	2016년 작가의방 낭독극장 기본계획	국립극단	2018. 3. 13.	
15	2016 <작가의 방 낭독극장> 공연 결과보고	국립극단	2018. 3. 13.	
16	국립극단 2016 <작가의 방 낭독극장> 의견서	국립극단	2018. 3. 13.	
17	[작가의 방 낭독극장] 기타 관계자 및 관객 후기	국립극단	2018. 3. 13.	
18	[작가의 방 낭독극장] 온라인 매체 후기	국립극단	2018. 3. 13.	
19	2016 <작가의 방 낭독극장> 관계자-관객 의견서 정량평가 결과	국립극단	2018. 3. 13.	
20	국립극단 2016 <작가의 방 낭독극장> 의견서	국립극단	2018. 3. 13.	
21	[작가의 방 낭독극장] '작가와의 대화' 기록	국립극단	2018. 3. 13.	
22	국립극단 2016 <작가의 방 낭독극장> 의견서	국립극단	2018. 3. 13.	
23	2016 '작가의 방' 사업운영 추진경과	국립극단	2018. 3. 13.	
24	국립극단 <창작극 개발프로그램> 계획[안]	국립극단	2018. 3. 13.	
25	국립극단 젊은 극작가 모임, "작가의 방"에 초대합니다	국립극단	2018. 3. 13.	
26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오OO(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2016. 2. 1.	
27	리스트-'16.2.1.현재	오OO(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2016. 2. 1.	
28	예술분야 지원에 대한 '검열' 논란 대응방안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6.???	
29	국립극단 '작가의 방' 왜 극작가를 교육, 교정하려 하는가?	고연욱	2017.3.?	
30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김나빛	2018. 3. 25.	
31	박정희·박근혜 풍자냐 비하냐 ... 국립극단 연극 논란(2013. 9. 12)	최민우	2018. 3. 30.	
32	김기춘 외 3인에 대한 제1심 형사 판결(2017고합102)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기록 (2017. 7. 27.)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33	김기춘 외 6인에 대한 제2심 형사 판결(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서울고등법원 재판기록 (2018. 1. 23.)		
34	전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2017. 10. 30.)	국정원 적폐청산 T/F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13인에 대하여 13회에 걸쳐 조사함.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고연욱	신청인	1회 진술조서(2017. 10. 26.)
2	김OO	참고인	1회 진술조서(2017. 10. 22.)
3	정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1회 진술조서(2017. 10. 23.)
4	박근형	참고인(연출가)	1회 진술조서(2017. 11. 24.)
5	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	1회 진술조서(2017. 12. 12.)
6	모철민	청와대 교문수석	1회 진술조서(2017. 12. 27.)
7	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	1회 진술조서(2018. 1. 7.)
8	김OO	문체부 예술국장	1회 진술조서(2018. 1. 11.)
9	김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1회 진술조서(2018. 1. 12.)
10	손진책	국립극단 예술감독(2013)	면담조사보고(2018. 1. 28.)
11	최OO	국립극단 사무국장	1회 진술조서(2018. 3. 9.)
12	손OO	국립극단 피디	1회 진술조서(2018. 3. 9.)
13	김윤철	국립극단 예술감독(2016)	1회 진술조서(2018. 4. 10.)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재)국립극단

(재)국립극단(이하 '국립극단')은 1950년에 창단되어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연극예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공연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민족문화 창

달에 힘써왔다.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창작 작품 개발과 국립극단의 예술적 성과 및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우수 연극을 제작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립극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국립극단은 연극 전용극장 3개(명동예술극장 총 558석, 백성희장민호극장 190석, 소극장 판 80석)을 보유하고 있다.¹⁾

국립극단은 연극 작품의 창작과 인재양성을 통하여 연극예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연극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는 목적(2조)을 가지고, 1. 연극작품의 창작과 공연 2. 연극예술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3. 연극작품의 보급 및 관객개발 4. 연극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우리말의 보전 및 세계화 6. 명동예술극장의 운영·관리사업 (2015.04.01. 신설) 7. 기타 법인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²⁾

나. 국립극단 2016 ‘작가의 방’

(1) 추진 배경 및 목적³⁾

2016년 국립극단 기획 프로그램 ‘작가의 방’(이하 ‘작가의 방’)은 (1) 한국적 소재와 시의성 주제를 바탕으로 서사중심, 배우중심, 개념 중심의 연극을 지향하는 국립극단에게 창작극의 개발은 가장 우선시 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로서, (2) 창작극의 특성상 단기간에 공연이 가능한 수준의 희곡을 완성하기 쉽지 않으며 워크샵, 낭독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전 준비과정을 거쳤을 때 극의 완성도가 높아지므로, 젊은 극작가 그룹을 결성하여 장기간에 걸쳐 창작을 위한 토론, 강연, 낭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관리체계 하에서 공연 후보작을 발굴해 나가고자 (3) ‘작가의 방’은 완성도 면에서 아직 낭독공연을 시행할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개발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창작 아이디어 및 초고에서 시작하여 멘토링과 그룹 토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낭독공연이 가능한 수준까지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통해 창작극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4) 연출가와 디자이너 등 외부의 스태프와의 협업체제에 들어가기 전에 작가 그룹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과 비판을 통해 작품을 발전시키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 격주로 멘토를 포함

1) 국립극단 홈페이지.

2) 재단법인 국립극단 정관, 제2조-3조.

3) 국립극단 작성, ‘작가의 방’ 결과보고서, 1쪽.

한 정기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작품개발을 하고자 (5) 궁극적으로 국립극단에서 제작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10인의 작가 작품 중 내부 낭독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은 2016년 11월 예정된 낭독공연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낭독 공연을 통해 호평을 받은 작품은 2017년 및 2018년 시즌 후보작으로 고려할 예정으로 시작되었다.⁴⁾

작가의 방 기본계획서

1.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한국적 소재와 시의성 주제를 바탕으로 서사중심, 배우중심, 개념 중심의 연극을 지향하는 국립극단에게 창작극의 개발은 가장 우선시 되는 주요 사업 중 하나임.

나. 창작극의 특성상 단기간에 공연이 가능한 수준의 희곡을 완성하기 쉽지 않으며 워크숍, 낭독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전 준비과정을 거쳤을 때 극의 완성도가 높아지므로, 젊은 극작가 그룹을 결성하여 장기간에 걸쳐 창작을 위한 토론, 강연, 낭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관리체계 하에서 공연 후보작을 발굴해 나가고자 함.

다. <작가의 방>은 완성도 면에서 아직 낭독공연을 시행할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개발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창작 아이디어 및 초고에서 시작하여 멘토링과 그룹 토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낭독공연이 가능한 수준까지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통해 창작극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임.

라. 연출가와 디자이너 등 외부의 스태프와의 협업체제에 들어가기 전에 작가 그룹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과 비판을 통해 작품을 발전시키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 격주로 멘토를 포함한 정기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작품개발.

마. 궁극적으로 국립극단에서 제작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10인의 작가 작품 중 내부 낭독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은 올해 11월 예정된 낭독공연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낭독공연을 통해 호평을 받은 작품은 2017년 및 2018년 시즌 후보작으로 고려할 예정.

(2) 사업 개요, 주요 활동, 주요 일정⁵⁾

‘작가의 방’의 주요 사업 개요, 주요 활동,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2.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창작극 개발 프로그램 <작가의방>

4) 국립극단 작성, 작가의 방 기본계획서, 1쪽.

5) 국립극단 작성, 작가의 방 결과보고서, 1-2쪽.

나. 주요일정

- 2016년 6월 13일 ~ 2016년 10월 17일 월요일
격주 월요일 5시~7시
- 운영 장소: 명동예술극장 5층 사무실

다. 참가자 선발 기준

- 국내 경력 5년차 내외의 작가들에 대한 내부 리서치를 통해 다양한 경력과 작품세계를 가진 10여명의 극작가 선발 및 프로그램 참여 초청.
- 세션별 멘토 1명과 프로듀서 1명을 동반

라. 강사: 고연옥 - 개인별 멘토제가 아닌 전체 그룹 토론 및 스터디를 위한 멘토

3. 주요활동

- 작가 그룹 미팅으로 창작극 집필을 위한 토론
- 집필 중인 작품에 대한 일부 독회, 문제점 공유 및 토론
- 세계적인 동시대 창작극의 동향 공유 및 새로운 연극 형식에 대한 연구
- 2주의 한 번씩 개발된 작품을 중심으로 내부 낭독회를 진행하고, 연출과 배우를 기용한 정기 낭독공연을 1회 진행

4. 주요일정

기간	진행내역	
	기획 & 운영	작가의 방
2016/ 1	- 기획서 작성	작가 리서치
2016/ 2	- 멘토 섭외	작가 리서치
2016/ 3	- 세부 프로그램 회의	작가 리서치 및 섭외
2016/ 4		작가의 방 참가 작가 선정
2016/ 5		작가의 방 시작(5/30)
2016/ 6-9		작가의 방 정기모임 진행 (격 주 월요일)
2016/ 10		낭독극장 연습
2016/ 11		정기낭독회(11/1-8) 백성희장민호극장
2016/ 12	결과보고서 작성 및 2017년도 일정 작성	

(3) 참여 극작가

‘작가의 방’에 참여하였던 10명의 극작가는 다음과 같다.⁶⁾

5. 참가 극작가 소개(총 10인, 가나다순)

이름	학력	주요작품	수상내역
구자혜	이화여대 국문과 졸업 혜화동 1번지 6기 동인	〈디스디스토피아〉(구자혜연출) 〈먼지섬〉(구자혜연출) 〈모래의여자〉(구자혜연출)	2010 신작희곡페스티벌 당선 2013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 연극부문선정 2014NewStage선정
김슬기	동국대 문예창작과 졸업	2013〈이건노래가아니래요〉(부새롬연출) 2013〈아름다운동행〉(공동연출) 2014〈미성년으로간다〉(임정빈연출) 2015〈복도에서, 미성년으로간다〉 (부새롬연출) 〈사랑이라고부르는것〉,〈서글퍼도커튼콜〉	2011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박찬규	19**년생. 서울예대 극작과 졸업	2013년국단작은신화우리연극만들기 〈창신동〉연출김수희/정보소극장 2014년경기도립극단정기공연〈날숨의 시간〉연출고선웅/경기문화예술극장 대극장 2014년국립극단청소년극릴레이〈옆에 서다〉연출김수희/국립극단소극장판 2014년국단작은신화정기공연〈창신동〉 연출김수희/정보소극장 2014년창작산실선정작공연〈공장〉 연출김수희/이해량대극장 2015년CJ크리에이티브마인즈선정작 공연〈졸업작품〉연출김수희/쁘티첼 소극장 2015년안산문화예술의전당B성년페 스티벌〈XXL 레오타드안나수이손거울〉 연출전인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소극장	2007년파파프로덕션희곡공모 당선〈티코에24명타기〉 2010년거창국제연극제희곡 공모대상〈만29세미만서사극〉 2010년대전전국창작희곡공모 우수상〈마트〉 2013년국단작은신화우리연극 만들기선정〈창신동〉 2013년국립극단예술가창작 벨트선정〈옆에서다〉 2013년창작산실희곡공모우수상 〈공장〉 2014년CJ크리에이티브마인즈 연극부문선정〈졸업작품〉
윤미현	**년생	〈경복궁에서만남빨간여자〉(김승철연출) 〈평상〉(김승철연출) 〈젊은후시딘〉(윤한솔연출) 〈우리면회좀할까요?〉(박혜선연출) 〈덧발킬러〉(윤한솔)	2012년한국희곡작가협회신춘 문예당선

6) 국립극단, ‘작가의 방’ 결과보고서, 3-4쪽.

이름	학력	주요작품	수상내역
윤성호	**년생	2011, 2015 <해맞이> 2012<미인> 2013<외로운사람, 힘든사람, 슬픈사람> 2014 <이런 꿈을 꾸었다> (각색) 2015<옥상 위 카우보이>	
이미경	학교/학과:한국예술 종합학교연극원/ 극작과전문사출 한양대학교/연극 영화과박사과정 재학	2012년2013년'그게아닌데' 정보 소극장(김광보연출) 2013년3월신춘문예단막극제'우울군 슬픈음늬으면'아르코예술극장소극장 (최재오연출) 2014년12월'무덤이바뀌었어요' 선돌 극장(민새롬연출) 2016년(재공연지원)'맘모스해동' 동송 아트센터(문삼화 연출) 2016년2월'택배왔어요' 노을소극장 (이은준연출)	2011제14회신작희곡페스 티벌당선 2011제3회대전창작희곡공모 대상 2012한국연극평론가협회올해의 연극베스트3 월간<한국연극>선정공연베스트7 대한민국연극대상대상 동아연극상작품상 2013조선일보신춘문예당선
이보람	카톨릭대 심리학과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전문사재학	2013년6월100페스티벌'그날(장준하 의문사)'나온시어터(백석현연출) 2014년2월연극'소년B가사는집'네모 극장 2014년2월연극'여자는울지않는다' 두산아트센터(부새롬연출)	
이여진	19**년생 서강대학교 국어국문과-현대 희곡이론석사과정	2012년11월연극'평행우주없이사는 법' 대학로예술극장소극장(김승철연출) 2013년5월연극'트라우마수리공' 대학로 예술극장소극장(최원종연출) 2014년12월연극'어느물리학자의낮 잠' 선돌극장(김승철 연출) 2016년2월연극'토일릿피플'아르코 예술극장소극장(최OO연출)	2012경상일보신춘문예당선 <소녀-프랑켄슈타인> 2014연극창작산실대본공모 최우수상수상작 2015연극창작산실우수작품 제작지원선정작
이오진	2010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졸(BFA) 2015 뉴욕시립대학교 브룩클린칼리지 대학원 연극학과 수료(MA)	2009년10~뮤지컬'화랑' 열린극장 (성천모연출)(차경찬작곡) 2010년8월연극'가족오락관' 게릴라 극장(김태형연출) 2014년연극'바람직한청소년' 세모극장(문삼화연출) 2015년뮤지컬'바람직한청소년' 대학 로예술극장대극장(민준호연출)	2009년제7회대산대학문학상 희곡부문(가족오락관) 2013cj크리에이티브마인즈 (바람직한청소년) 2014창작산실청소년뮤지컬 공모선정

이름	학력	주요작품	수상내역
정소정	19**년생	2011년<가을비>(김세일연출) 2011년<검은백조가사는곳>(이현빈연출) 2012년<모래섬>(심재찬연출) 2012년<뿔>(김관연출) 2013년<비밀친구>(윤한솔연출)	2012년<모래섬>부산일보신춘 문예당선 2012년<가을비>밀양여름공연 예술축제우수작품상 2012년<뿔>한국공연예술센터 '봄작가겨울무대' 최우수작선정

(4) 정기 모임 멘토

‘작가의 방’ 정기모임 멘토였던 고연옥 극작가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⁷⁾

6. 강사 소개 - 정기모임 멘토

고연옥(극작가)

주요작품: <인류 최초의 키스>, <웃어라 무덤아>, <일주일>, <백중사이야기>, <황진이>, <달이 물로
걸어오듯>, <두번째 태양>, <발자국 안에서>, <주인이 오셨다>, <지하생활자들>, <내가
까마귀였을 때>, <엄마를 부탁해>, <내 심장을 썩라>, <꿈의 아내>, <나는 형제다> 외 다수

수상: 대산문학상, 벽산문학상, 한국희곡문학상 신인문학상, 대한민국 연극대상 희곡상 외 다수

저서: 고연옥 희곡집 1, 2, 웃어라 무덤아, 극작수업 2 외 다수

극작 멘토 경력: 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작가 강사, 공연예술인큐베이팅, 서울시극단 창작플랫폼 멘토 외 다수

2. ‘작가의 방’ 프로그램 기획 및 극작가 선발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적용 혹은 양해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가. 문건 등 자료 조사

(1) ‘작가의 방’ 참여 작가 중 블랙리스트 등재 현황

(가) 고연옥 책임작가

고연옥 책임작가는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하였던 ‘리스트-2014/2015년도분
(654명)-확정’, 24쪽 하단에서 2015년 4월 13일 현재 ‘정무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어서

7) 국립극단, ‘작가의 방’ 결과보고서, 3-4쪽

배제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7 정무 리스트 (15.4.13현재)/문예1 - 5명

단체명(사업명) 종 류	2013	2014	2015	비 고 (지원 사업명)
기 살 국	10,000	-	-	여포로출판작가금 * 15년도 예산일, 지원 결정후 2년간 지원불가
문예 1	10,000	-	-	*
문예 2	10,000	-	-	*
문예 3	10,000	-	-	*
문예 4	10,000	-	-	*
문예 5	10,000	-	-	*
문예 6	10,000	-	-	*
문예 7	10,000	-	-	*
문예 8	10,000	-	-	*
문예 9	10,000	-	-	*
문예 10	10,000	-	-	*
문예 11	10,000	-	-	*
문예 12	10,000	-	-	*
문예 13	10,000	-	-	*
문예 14	10,000	-	-	*
문예 15	10,000	-	-	*
문예 16	10,000	-	-	*
문예 17	10,000	-	-	*
문예 18	10,000	-	-	*
문예 19	10,000	-	-	*
문예 20	10,000	-	-	*
문예 21	10,000	-	-	*
문예 22	10,000	-	-	*
문예 23	10,000	-	-	*
문예 24	10,000	-	-	*
문예 25	10,000	-	-	*
문예 26	10,000	-	-	*
문예 27	10,000	-	-	*
문예 28	10,000	-	-	*
문예 29	10,000	-	-	*
문예 30	10,000	-	-	*

(나) 구자혜 작가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 현재' 문서(12쪽 하단)에 따르면, '작가의 방' 참여 작가 중에서 구자혜 작가는 '혜화동 1번지 6기 동인'으로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p>발행처(연간보고서, 월간지, 월간지)</p> <p>①연간보고서(연간보고서), ②연간지(호서대학교수), ③혜화동1번지, ④각단체별지, ⑤세력, ⑥각단체 간 교류지, ⑦그린리프(윤환순), ⑧임인지(변방연극회)</p> <p>○ 추가(2014.10월)</p> <p>①각단체 후원회 ②각단체 사니네비 ③각단체 그림연극 ④창작집단 사방들의 오로라 ⑤각단체 산수유 ⑥각단체 책을 보는 마음 ⑦각단체 비연 ⑧각단체 보미(KOITD) ⑨문예문화아이스 ⑩각단체 집현 ⑪각단체 고래 ⑫각단체 배수광부 ⑬각단체 무비출 ⑭각단체 이수광부의 ⑮각단체 상 ⑯ 노네일제어티비비니</p> <p>○ 추가(15.1월)</p> <p>①연운정(아날로그엔터테인먼트), ②백상선(전남대산학협회), ③서익진(ACC프로젝트), ④문시광(학방서), ⑤김광보(황일연극회), ⑥김소희(연희단거리패), ⑦한국연극극단총연합회, ⑧노요창작스튜디오(이윤택), ⑨동승부대(임정희), ⑩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 ⑪송옥민예술</p>
--	--

(2)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김윤철 국립극단 예술감독은 2017년 5월 2일 경 마로니에 공원 좋은 공연 안내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토론회에 참석하여, '작가의 방'은 국립극단의 창작극 개발 사업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창작극을 활성화시킬 수 있나 생각하다가 시

작한 프로젝트였다고 하면서, 절차나 과정 면에서 숙고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131쪽), ‘작가의 방’에서 검열의 문제는 국립극단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135쪽).⁸⁾

나. 참고인 등 대인 조사

(1) 신청인 고연옥의 진술

신청인 고연옥은 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 국립극단 윤OO 사무국장으로부터 ‘작가의 방’을 문체부로부터 허락받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유망한 젊은 극작가들이 2015년 9월 경 결성된 ‘검열을 거부하는 극작가들 모임’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작가의 방’ 참여 작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양해조치’가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도 검열을 거부하는 극작가들 모임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⁹⁾

(2) 참고인 정OO의 진술

참고인 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작가의 방’ 참여 작가 선정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적용되거나 ‘양해’되는 사실이 전혀 없었고, 도리어 검열의 대상이 될까봐 문체부에 작가 리스트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이는 제작 공연이 아니라 작품 개발 과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진술하면서, 원래 ‘작가의 방’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서 작가를 선발하려고 하였으나, 윤OO 사무국장을 통해서 문체부에서 공모제를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초청 형식으로 작가 선정 방식을 바꾸었고 문체부에 작가 명단을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검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는데, 이에 대해서 김윤철 국립극단 예술감독도 작가, 연출가, 디자이너 등 모든 창작진, 출연진 선정에서 일체의 배제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약속을 하였고, 대신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국립극단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⁰⁾

8) 김나뵈,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131쪽, 135쪽. 연극평론 통권 85호 2017 여름. 2017. 6.

9) 고연옥 1회 진술조서, 3-4쪽. 2017.10. 26.

10) 정OO 1회 진술조서, 13쪽. 2018. 1. 7.

3.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2013.9.3.~9.15)에서 검열 및 정치적 논란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인 고연옥은 2016년 5월 경 국립극단 정OO 공연기획팀장이 연극 <개구리>처럼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만한 작품은 쓰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2013년 9월 경 국립극단 기획공연으로 공연되었던 연극 <개구리>에서 검열이 있었는지, 국립극단에서 있었던 <개구리>에 대한 검열이 어떠한 논란을 낳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3년 9월 경 있었던 연극 <개구리> 논란이 국립극단이나 극작가들에게 어느 정도 사건인지 살펴보아야 비로서 ‘연극 <개구리> 같은 작품을 쓰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이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하기를 원하는 작가들에게 소재에 대한 제한으로까지 작동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문건 등 자료 조사

(1)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에 따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3년 9월 9일 경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립극단에서 공연한 연극 <개구리>도 용서가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¹¹⁾

(2)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에서 연극 <개구리>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¹²⁾

④ 2013. 9. 30.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이하 ‘대수비’라고 한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모철민 교문수석으로부터 ‘국립극단의 정치편향적 작품¹³⁾ 제작,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의 이념성 사업 지원과 부실운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구체적으로 간접지원 및 책임심의제도를 강화해 좌편향 작품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등 취지의 ‘좌편향 문화예술계 대응’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데(특별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¹⁴⁾ 제1402호 2013. 9. 30.자 대수비 회의자료), 이는 위와 같이 연극 <개구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연 및 상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모철민 교문수석을 질책하며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고, 위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을 주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한 데 따른 것이었다(제2 원심 및 당심 증인 모철민 진술).

11)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5-6쪽. 김기춘 외 8인 2심 판결.

12) 김기춘 외 8인 2심 판결, 50-51쪽.

(3)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¹⁵⁾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 공연 개요

- 기간/장소 : 2013.9.3.(화)~9.15(일) / 백성회장민호 극장(200석) *공연시간 100분
- 주최 : (재)국립극단(예술감독 손진책)
- 원작/극본·연출: 아리스토파네스, 박근형(극단'골목길'대표)
- 내용 : 전쟁 후 아테네의 국력 회복을 위해 디오니소스가 죽은 시인에게 조언을 얻고자 지옥으로 간다는 내용의 원작을 현대 시점에서 재해석
- 제작경과: 작품 선정(예술감독, 3월)→연출가 섭외(4월초) 및 연출가 작품제작(4월~계속)→배우 선발(7월, 16명)→공연(9월)

□ 주요 내용 검토

- (기본 줄거리) 주인공(신부, 동자승)이 부조리한 현실을 구원할 '그분'을 찾기 위해 저승으로 떠나나, '그분'은 본인 대신 저승에 있는 동자승의 어머니를 이승으로 보낸다는 내용
- (내용상 문제점) 풍자가 핵심인 그리스 희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현 세대 풍자는 불가피하나, 일부 정치 편향적³⁾이라 오해될 소지 존재
 - (구체적 사례) △'그분(노무현 전 대통령 상징)'과 '카멜레온(박정희 전 대통령 상징)'의 대화를 통해 '그분'을 미화, '카멜레온'을 비하적으로 묘사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기밀고사 컨닝'으로 풍자 △윤창중 전 대변인 스캔들 풍자 등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조치사항>

- 당초 극본 초입에는 ▲그분(노무현)을 지상으로 모시고 오는 결말이었고 ▲정치적 풍자 및 표현 등이 과도했던 바, 연출가로 하여금 결말을 수정토록 하고(어머니가 지상으로 오는 결말),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토록 지도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
- 수정된 현 내용의 정치적 풍자 수준은 국민들이 수용(이해)할 것이라고 분석(손진책)

□ 향후 조치계획

- 현재 공연 중인 작품에 대한 추가 조치 요구(수정 등)는 창작의 자유 침해 논란, 연극계 및 관객(예약자 등)의 반발 등 불필요한 논란 초래 가능
- 향후 국립극단 작품에 '편향된 정치적 소재'는 배제토록 강력 조치
 - 아리스토파네스 시리즈 2차작품(구름), 9.24~10.5) 등 2013년 국립극단 후속작품에 정치적 소재의 내용은 배제토록 조치(국립극단)
 - 전 국립예술단체 주관 공연에는 정치적 편향의 내용은 배제토록 협조 요청
 - 현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교체 추진(입기: 2013.11.8.)

3)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비 심우형 추문 등 패러디 내용 포함 예정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과장이 2013년 9월 12일 경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는 문체부가 연극 <개구리>(아리스토파네스 원작/박근형 연출)를 검열하고 '내용상 문제점'으로, '그분(노무현 전 대통령 상징)'과 '카멜레온(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화를 통해 '그분'을 미화하고 '카멜레온'을 비

13) 이는 2013. 9. 초경 상영된 연극 <개구리>를 말한 것이다.

14) 이하 '순번'이라고만 표시한다.

15) 김OO,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2013. 9. 12.

하적으로 묘사한 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기말고사 컨닝’으로 풍자한 점, 윤창중 전 대변인 스캔들을 풍자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조치 사항’으로, 연출가로 하여금 결말을 수정하도록 하고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하도록 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향후 조치계획’으로 ‘향후 국립극단 작품에서 ‘편향된 정치적 소재’는 배제토록 강력 조치’, ‘현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교체 추진’ 등의 보고를 하고 있다.¹⁶⁾

(4) 박정희·박근혜 풍자냐 비하냐 … 국립극단 연극 논란

중앙일보는 2013년 9월 12일 경 ‘박정희·박근혜 풍자냐 비하냐 … 국립극단 연극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화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깎아내리는 연극이 공연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연극을 만든 게 일반 민간극단이 아닌 국립극단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¹⁷⁾

(5) 예술분야 지원에 대한 ‘검열’ 논란 대응방안

문체부가 작성한 ‘예술분야 지원에 대한 ‘검열’ 논란 대응방안’ 문서는 2016.6~10월 기간 동안 대학로 연극계에서 ‘권리장전 2016-검열각하’ 연극 릴레이공연(21개)이 진행되는데 문체부·예술위의 검열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김종덕 장관과 박명진 위원장의 실명이 등장하고 7월 13일 공연(검열언어의 정치학, 토크콘서트)에 도종환, 유은혜 의원이 참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¹⁸⁾

16) 김OO,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2013. 9. 12.

17) 「박정희·박근혜 풍자냐 비하냐… 국립극단 연극 논란」, 중앙일보, 2013. 9.12.
<http://news.joins.com/article/12589817#none>

18) 문체부, 「예술분야 지원에 대한 ‘검열’ 논란 대응방안」, 1쪽.

예술분야 지원에 대한 '검열' 논란 대응방안

□ **그간 경과**

- 2015.10월(국강 시): 순수예술분야(예술회 지원사업) 정치검열 의혹 제기
 - 예술위, ▲인극창작산실사업에 박근혜! <오른 문인은 불쌍하다> 지원 탈락(예술회 지원의 심사 개입 의혹), ▲아르코창작기금사업 1차 심사에서 후순위가를 받은 이훈택, 최종 탈락(도광환)
 -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유인태), 다원예술 지원사업에서 세월호 관련 '안산순례길' 탈락(홍기홍)
 - 친정부 실형 인사(대선캠프 참여인사 손상원¹³⁾)에 몰아주기 지원(12억원) (도광환)
- 2015.10-11월 : ▲예술위 <팝업씨어터>가 세월호를 원상시키는 작품 발매 논란, ▲국립국악원 <금요공감>에서 박근혜 하차요구 등 검열 논란 지속
- 2016.6-10월 : 대학로 연극계에서 <권리장전 2016-검열각하> 연극 릴레이공연(21개)
 - 문체부-예술위의 검열문제 제기(김승희 장관, 박영진 위원장 등 심명 등경)
 - * 7.13(수) 공연(검열언어의 정치학, 토크콘서트)시, 도광환, 유은혜의힘 참석

□ **우리부 입장(대응 방향)**

- **(기본방향)** 예술의 본질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 검열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
 - 다만,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국공립예술기관 사업 등이 정치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예: 정치적 성향의 예술작품 등)
- **(예술위 지원사업)**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
 -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술위 등 정부지원사업의 심사시스템을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갈 예정
 - * 기금 지원에 활약했다고 해서, 구체적 근거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례가 없는지도 돌아볼 필요
- **(예술계와의 소통·화합)** '소통과 화합'의 정신에 따라, 문화예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

<참고사항> 건전콘텐츠 확산방안

- 문예기금 등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시스템 구축(13년~)
- 문예기금 사업방식 개편(2015): 공모위주→기획사업 확대, 심사제도 개선(pool제) 등
- 건전한 협·단체,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확대(16.下~)
- 장르별 협회, 건전예술단체, 지역 예술단체 등과 소통 강화, 신규사업 발굴, 포상 등 격려

13 2013년 9월, 국립극단에서 공연한 작품인 정재홍지마 '개구리'의 연출자, 당시 '개구리'는 그 박영희위원장은 회화(여하)라고도 5.9. 문체부 대령임을 관공적으로 이해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20 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권 정동(위원장)(2016.7월~)

(6)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문체부 예술정책과가 2016년 9월 9일 경 작성하여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였던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문서는 국립극단 기획연극공연 <개구리>가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을 추진하였던 배경이라고 보고하고 있다.¹⁹⁾

19) 문체부 예술정책과,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1쪽. 2016. 9. 9.

V. (대외비)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 추진배경(B,K 중점관리)

- 문화예술계 정치적·이념편향적 작품(단체)이 이슈화(2013.9월~11월)되면서, **이념 편향적 작품에 대한 정부지원의 문제점** 지적 (B, K / 2013년 말 ~2014년)

- 국립극단 기획연극공연 '개구리'(연출: 한예중 박근형 교수) 공연(2013.9.3.~9.15.) : 故 박정희 대통령을 다소 희화화하며, 고 노무현대통령을 은유적으로 미화하는 내용 논란
- 광주비엔날레에 진보성향 화가인 '홍성담'의 걸개그림(세월오월) 논란(2014.7~8월) : 세월호 주제의 그림 속에서 VIP를 모독(하수아비로 묘사)하는 내용 → 전시 무산
* 홍성담 작가는 이념편향성·VIP모독 내용을 담은 '박근혜 출산'이라는 작품 제작 경력 보유

- 진보성향(좌편향) 작품·단체에 대한 문예기금의 부적절 문제가 지적(2014년 초), **예술위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을 요구(B, K / 2014년 초~계속)

- 예술위원회 공모심사에서 ①민예총 산하 민족미학연구소의 학술지인 「민족미학」 발간 지원 선정 ②국가보안법·국정원 댓글녀 풍자연극 경력이 있는 극단(「해화동 1번지」) 지원 선정 ③민예총 산하 작가회의소속 진보성향 작가들(3명)에 대한 지원 선정 등

-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논란(2014.10월) 이후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축소 및 감사원 감사, 미디어국 소관 우수도시 선정에서 이념편향적 작품 선정이 논란 (2013~2014)되면서, **각종 심사위원의 책임성 및 자격심사도** 요구(B, K, 2014년초~계속)

□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지원 방안

- 기본 방향
 - 각종 지원사업(문체부 전체사업, 인선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이념적 균형성 등 **복이사항 사전확인(점검) 시스템 구축(2014년~현재, 총괄: 예술정책관실 예술정책과←B, K)**
 -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인사, 단체 등의 사전 배제 검토
※ 중점 관리분야: 문화예술, 도서·출판, 영화 등 콘텐츠 분야
 - 문화예술기금 지원방식의 개편(2016년)을 통해, 지원사업의 논란가능성 최소화
- **이념성 등 복이사항 확인(점검) 시스템 구축(2014년 초~현재)**
 - 대상분야: 문체부 지원사업(산하기관, 단체 포함), 각종 인선(기관장, 임원, 심사위원 등), 각종 훈·포장 등

(7) 전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8월 16일 국정원은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활동 실태」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하였고, 문체부는 2013년 9월 3일 청와대에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을 보고하였다.²⁰⁾

20) 국정원, 「전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1-2쪽. 2017. 10. 30.

나. 참고인 등 대인 조사

(1)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개구리>(2013. 9. 3.~2013. 9. 15.) 공연을 대략 일주일 내지 5일 가량 앞둔 어느 날 새벽 박근형 연출가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손진책 예술감독이 <개구리> 연습실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개구리>의 ‘그분(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상으로 살아 돌아오는 결말’을 바꾸는 등 작품에 대한 관여를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²¹⁾

(2) 참고인 정OO의 진술

참고인 정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1)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위 문서를 작성할 때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못했고 당시 김OO 과장님과 상의해서 위 문서 내용들을 작성하여 문서에 담았습니다. 이 문서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과장님에게 들었습니다. 참고자료는 국립극단 조OO 팀장 혹은 최OO 사무국장에게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서에서 ‘공연개요’ 부분과 ‘참고사항’ 부분은 제가 조OO 팀장 혹은 최OO 사무국장에게 협조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에서 ‘주요 내용 검토’ 부분은 김OO 당시 공연예술전통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제가 과장님에게 검토 내용에 대하여 상의를 드릴 여지는 없었고, 김OO 과장님께서 초안을 잡아오신 내용을 제가 다시 타이핑을 해서 가져다드리고 다시 피드백을 받았습다. 위 문서에서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조치사항’ 부분은 손진책 예술감독님의 판단으로 조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제가 당시에 그러한 얘기를 김OO 과장님이나 손진책 감독님에게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²²⁾

(3) 참고인 박근형의 진술

참고인 박근형은 위원회 조사에서 연극 <개구리> 극본에서 당초 ‘그분(노무현)’을 지상으로 모시고 오는 결말을 어머니가 지상으로 오는 결말로 수정한 사실과 관련하여, “공연

21) 김OO 1회 진술조서, 5쪽. 2017. 10. 22.

22) 정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7. 10. 23.

며칠 전 손진책 감독님께서 리허설을 보신 후 ‘국립극단인데 작품에 격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색채가 너무 강하지 않는가. 그리고 직설적인 욕설을 배제했으면 한다.’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²³⁾

(4) 참고인 박OO의 진술

참고인 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결말을 동자승의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으로 바꾼 것에 대하여, 손진책 예술감독과 박근형 연출이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눈 후 수정한 것으로 손진책 감독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연극의 결말을 바꾼 이유에 대하여 “손 감독에 따르면, 박근형 연출에게 ‘니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선동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너무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읽힐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를 박근형 연출이 수용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²⁴⁾

(5) 참고인 모철민의 진술

참고인 모철민 교문수석은 위원회 조사에서 연극 <개구리> 논란과 관련하여, 당시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부녀를 상당히 폄하하는 등의 이유로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당연히 확인을 해 보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하면서, 대수비(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립극단에서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지만 손진책 예술감독의 사임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김OO 예술국장을 질책하는 일은 하지 않았고 다만 사실 확인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⁵⁾

(6)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김OO 예술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3년 9월 경 연극 <개구리> 공연이 개막한 후 김OO 공연전통예술과장이 “큰일났습니다. 청와대에서 기리기리 합니다”라고 하여서 대책마련을 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했는데 공연 중인 작품을 중단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손진책 예술감독을 해임하기 보다는 연임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써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⁶⁾

23) 박근형 1회 진술 조서, 2017. 11. 24.

24) 박OO 1회 진술조서, 3쪽. 2017. 12. 12.

25) 모철민 1회 진술조서, 45쪽. 2017. 12. 27.

(7) 참고인 조OO의 진술

참고인 조OO 문체부 유진룡 장관 정책보좌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연극 <개구리>를 보고 ‘저거 분명히 문제 삼을 텐데, 누군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진룡 장관이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잘 알아보고 계시라’고 문자를 보낸 일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⁷⁾

(8)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김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1)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를 자신과 정OO 사무관이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문서를 김OO 예술국장과 청와대 교문수석실 A 국장에게도 보냈고, 유진룡 장관·조현재 차관에게도 보고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 최초로 <개구리>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9.3개막 주 금요일쯤이었고(2013.9.6.~7경으로 기억) 청와대로 문체부서관실로부터 <개구리> 공연이 굉장히 정치편향적이라는 문제제기를 받고 공연을 본 후 김OO 예술국장과 공연 내용에 대하여 통화하였는데, 3) 청와대로부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급히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던 것이고 유진룡 장관도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모철민 수석이 아마 김OO 국장을 질책하였을 것이라고도 진술하면서 김OO 예술정책관[13.4.22~14.11.10]이 1급 승진이 계속하여 누락된 것은 <개구리> 관련 업무 소극대응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5) 위 문서에서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조치사항’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청와대 보고용으로 좀 과장해서 만든 보고서라고 하면서, 일주일 가량 청와대와 문체부 사이에서 몇 차례 피드백이 오고가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2013년 9월 12일 경 중앙일보 기사가 나간 후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 기사가 나간 당일 자신과 손진책 예술감독이 장시간 면담을 나누었고 그 결과 손진책 감독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연임을 하지 않기로 하여서 이 문서 첫 번째 장 마지막 줄의 ‘현 국립극단 예술감독 교체 추진’이라는 문장을 추가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⁸⁾

26) 김OO 1회 진술조서, 4쪽. 2018. 1. 11.

27) 조OO 1회 진술조서, 11쪽. 2018. 1. 18.

28) 김OO 1회 진술조서, 3-5쪽. 2018. 1. 12.

(9) 참고인 손진책의 진술

참고인 국립극단 예술감독 손진책은 위원회 조사에서 <개구리> 시연회가 끝난 후 박근형 연출가를 면담하여 직접적인 풍자 부분에 대하여 미학적인 차원에서 조언을 하였고 박근형 연출가가 수용을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⁹⁾

(10) 참고인 최OO의 진술

참고인 최OO 국립극단 사무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연극 <개구리>가 개막한 이후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정OO 사무관이 <개구리> 대본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해서 정OO 사무관 혹은 김OO 과장에게 <개구리> 대본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 뒤로 손진책 감독과 문체부 사이에서 사후 대처가 진행되어서 자신은 따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문서에서 ‘손진책 조치사항’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손진책 감독님이 박근형 연출과 만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압니다. ‘대폭 완화’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아마 김OO 과장이 ‘위’에 보고용으로 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연출가에게 ‘권유’ 정도를 한 것으로 압니다”라고 하였고, 이 문서에서 ‘향후 조치 계획’ 관련해서는 문체부로부터 지시 받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⁰⁾

4. ‘작가의 방’ 참여 작가들의 집필 작품에 대한 소재의 제한, 검열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가. 문건 등 자료 조사

(1) ‘국립극단 ‘작가의 방’ 왜 극작가를 교육, 교정하려 하는가?’³¹⁾

신청인은 『연극평론지』에 기고한 ‘국립극단 ‘작가의 방’ 왜 극작가를 교육, 교정하려 하는가?’에서 ‘작가의 방’ 공식적인 첫모임에서 ‘첫째 <개구리> 같은 작품을 쓰지 말아달라는 것 둘째 국립극단을 위한 작품을 써 달라는 것’ 등의 말이 나왔다고 하면서, 국립극단이 젊은 극작가들에게 <개구리> 같은 작품을 쓰지 말라고 한 것은 연극 <개구리> 사태 이후 국립극단이 겪었던 풍파를 겪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하였다.³²⁾

29) 손진책 면담조사보고, 1쪽. 2018. 1. 28.

30) 최OO 1회 진술조서, 3-4쪽. 2018. 3. 9.

31) 고연옥, 「국립극단 ‘작가의 방’ 왜 극작가를 교육, 교정하려 하는가?」, 『연극평론』 통권 84호, 2017 봄호.

(2)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김윤철 국립극단 예술감독은 2017년 5월 2일 경 마로니에 공원 좋은 공연 안내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토론회에 참석하여, 이운택, 김영하, 고선웅, 박근형 등과 작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부를 설득해서 문제 없이 공연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작가의 방'과 관련해서는, <개구리> 같은 작품을 쓰지 말아달라는 정OO 공연기획팀장의 발언은 국립극단의 입장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개방성을 간섭의 문제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³²⁾

한편 정OO 공연기획팀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작가의 방' 참여 작가들에게 '무조건 마음대로 써라, 그러면 국립극단의 예술감독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국립극단으로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작품을 한다고 다 약속을 못하니 일단 마음대로 다 쓰십시오, 그리고 국립에서 못한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하면 되니까 다 쓰십시오.'라고 말을 한 것이 뒤집어 말하면 '국립에서 못하는 작품은 쓰지 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자기 검열의 실수를 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³⁴⁾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구자혜 작가는 <개구리>라는 단어가 언급됐는지 안 됐는지가 검열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국립극단 측이 검열을 하지 않았다고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설사 '작가의 방' 첫모임 자리에 있었던 자신이 그날 검열을 강요하는 발언이 없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국립극단 측은 그날 국립극단 측의 발언이 검열로 작동될 수도 있는 말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성찰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³⁵⁾

32) 고연옥, 「국립극단 '작가의 방' 왜 극작가를 교육, 교정하려 하는가?」, 『연극평론』 통권 84호, 2017 봄호, 119-120쪽.

33) 김나벳,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연극평론』 통권 85호, 2017 여름. 2017. 6. 131쪽, 135쪽.

34) 김나벳,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연극평론』 통권 85호, 2017 여름. 2017. 6. 132쪽.

35) 김나벳,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연극평론』 통권 85호, 2017 여름. 2017. 6. 133쪽.

나. 참고인 등 대인 조사

(1) 신청인 고연옥의 진술

신청인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 5월 국립극단 ‘작가의 방’ 첫모임(김윤철 예술감독, 윤OO 사무국장, 정OO 공연기획팀장 등 참여)에서 ‘국립극단을 위한 작품을 써달라’는 국립극단 측의 발언에 대하여 참여 작가들이 정치적인 내용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인가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쓰길 바라느냐’ 하고 물었는데, 정OO 공연기획팀장이 ‘관객들이 보았을 때’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세월호는 괜찮아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내용은 예를 들어 <개구리> 같은’³⁶⁾ 이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³⁷⁾

신청인은 또 정OO 공연기획팀장의 위와 같은 발언이 “젊은 극작가들에게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재의 작품은 쓰지 말아야 한다는 자기검열의 기제를 작동시켰다” 보면서, “당시 2015년 하반기 논란이 되었던 예술위의 검열사태에 저항하는 ‘권리장전2016_검열각하’에 20개 공연단체가 6월부터 공연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의 방’에 모인 젊은 작가들 역시 검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발언을 해야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작가들에게 창작극을 발표할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국립극단에서 젊은 작가들이 ‘작가의 방’에 모은 것 자체가 작가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창작극을 발표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정OO 기획팀장의 위 발언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사회적 발언을 하는 작품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³⁸⁾

(2) 참고인 정OO의 진술

참고인 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국립극단을 위한 작품을 써달라’는 말은 자신이 평소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고, 만약 자신이 그런 말을 실수로 하였다

36) 이와 관련하여 정OO 공연기획팀장은 소명을 통해 ‘예를 들어 <개구리> 같은 특정 정치인을 논하는 작품의 경우, 소수의 편파적인 의견으로 치부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획득하려는 특별한 노력이 요구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 ‘<개구리> 같은 작품을 쓰지 말라’거나 ‘피해달라’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8.12.6.).

37) 고연옥 1회 진술조서, 4-5쪽. 2017. 10. 26.

38) 고연옥 1회 진술조서, 5-6쪽. 2017. 10. 26.

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오티에서 했던 말은 아니고, 당시 국립극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자유와 형식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OO 공연기획팀장은 부연 설명으로 “그런데 제가 국립극단에서 일을 해 보니, 국립극단은 <개구리> 사태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특정 정치인을 소재로 쓴 작품들의 경우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모든 작품들이 국립극단에서 공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립극단에서 못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극단에서 해도 되고 공모전에 내도 되니 국립극단을 염두에 두지 말고 본인이 쓰고 싶은 작품을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말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발언은 지금 생각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당시로서는 작가들에게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면 특정 언론이나 특정 정치인을 소재로 삼아서 <개구리> 같은 논란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작가의 방’ 기획 의도 자체가 검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³⁹⁾

(3) 참고인 손OO의 진술

참고인 국립극단 손OO 피디는 위원회 조사에서 ‘작가의 방’ 예산은 전년도(2015)에는 없었기 때문에 ‘작가의 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체부의 허락을 얻어 예산 변경을 거쳐야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자신은 문체부와 소통한 사실은 없고 ‘작가의 방’을 공모제로 한 것은 좋은 작가를 섭외하자는 취지였으며 작가 섭외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적용되거나 양해되는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⁴⁰⁾

(4) 참고인 김윤철의 진술

참고인 국립극단 예술감독 김윤철은 위원회 조사에서 (가) 당시 정OO 공연기획팀장이 ‘작가의 방’을 문체부로부터 허락받기 위해서 힘들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고, (나) ‘작가의 방’ 기획은 고연옥 작가, 구자혜 작가가 함께 했던 데서 볼 수 있듯 블랙리스트 작가들을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작가

39) 정OO 1회 진술조서, 14-16쪽. 2018. 1. 7.

이와 관련하여 정OO 팀장은 소명을 통해 ‘작가의 방’ 기획 의도는 동시대 사회의 모순을 논하는 창작 희곡을 작가들이 원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쓰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8.12.6.).

40) 손OO 1회 진술조서, 3쪽. 2018. 3. 9.

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고 (다) ‘작가의 방’ 예산은 공연사업비 쪽에서 가져온 것이고 (라) 정OO 팀장이 <개구리> 같은 작품을 쓰지 말라고 하였다면 그것은 실수일 것이고 소재의 제한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마) ‘작가의 방’ 기획은 국립극단 공연을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극작가들이 창작품을 집필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⁴¹⁾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2013.9.3.~9.15)에서 검열 및 정치적 논란이 있었는지 여부

다음을 통하여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2013.9.3.~9.15)에서 대본에 대한 수정 등이 있었고 정치적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에 따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2013년 9월 9일 경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립극단에서 공연한 연극 개구리도 용서가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점,⁴²⁾ 중앙일보가 2013년 9월 12일 경 ‘박정희·박근혜 풍자냐 비하냐... 국립극단 연극 논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였던 점,⁴³⁾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과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기 이전인 2013.9.6.~7경 이미 청와대 문체비서관실로부터 <개구리> 공연이 굉장히 정치편향적이라는 문제제기를 받고 공연을 본 후 청와대로부터 대책마련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청와대 문체비서관실과 수차례 피드백을 거쳐서 2013년 9월 12일 경 최종 완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의 내용에서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조치 사항’으로, 연출가로 하여금 결말을 수정하도록 하고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하도록 하는 등 문제의 소지

41) 김윤철 1회 진술조서, 6-7쪽. 2018. 4. 10.

42)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5-6쪽. 김기춘 외 8인 2심 판결.

43) 「박정희·박근혜 풍자냐 비하냐... 국립극단 연극 논란」. <중앙일보>, 2013. 9.12.
<http://news.joins.com/article/12589817#none>

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⁴⁴⁾ 문체부 예술정책과가 2016년 9월 9일 경 작성하여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였던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 방안’ 문서가 국립극단 기획연극공연 〈개구리〉를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 방안’을 추진하였던 배경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점⁴⁵⁾을 통하여 〈개구리〉 공연에서 대본에 대한 수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참고인 김OO이 〈개구리〉(2013. 9. 3.~2013. 9. 15.) 공연 대략 일주일 내지 5일 가량 전에 박근형 연출가에게 손진책 예술감독이 결말을 바꾸는 등 작품에 대한 관여를 많이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⁴⁶⁾ 참고인 정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이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라는 문서를 김OO 과장과 함께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⁴⁷⁾ 참고인 박근형이 〈개구리〉 결말을 어머니가 지상으로 오는 결말로 수정한 사실과 관련하여 공연 며칠 전 손진책 감독이 ‘국립극단인데 작품에 격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색채가 너무 강하지 않는가. 그리고 직설적인 욕설을 배제했으면 한다’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⁴⁸⁾ 참고인 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결말을 동자승의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으로 바꾼 것에 대하여, 손진책 예술감독과 박근형 연출이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눈 후 손진책 감독의 의견을 박근형 연출이 수용하였다고 손진책 감독에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⁴⁹⁾ 참고인 손진책 예술감독도 박근형 연출가에게 미학적인 차원의 조언을 하여 박근형 연출가가 수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⁵⁰⁾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연극 〈개구리〉가 개막하기 전에 결말 등에 대한 수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참고인 모철민 청와대 교문수석이 연극 〈개구리〉 논란과 관련하여 확인을 해 보라고 지시를 하였고, 대수비(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립극단에서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⁵¹⁾ 참고인 문체부 예술국장이 연극 〈개구리〉 공연이 개막한 후 손진책 예술감독을 연임을 못하게 하

44) 김OO,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2013. 9. 12.

45) 문체부 예술정책과,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1쪽. 2016. 9. 9.

46) 김OO 1회 진술조서, 5쪽. 2017. 10. 22.

47) 정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7. 10. 23.

48) 박근형 1회 진술 조서, 2017. 11. 24.

49) 박OO 1회 진술조서, 3쪽. 2017. 12. 12.

50) 손진책 면담조사보고, 1쪽. 2018. 1. 28.

51) 모철민 1회 진술조서, 45쪽. 2017. 12. 27.

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⁵²⁾ 참고인 조 OO 문체부 유진룡 장관 정책보좌관이 연극 〈개구리〉를 보고 유진룡 장관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⁵³⁾ 참고인 김 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이 청와대 문체비서관실로부터 〈개구리〉 공연이 굉장히 정치편향적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고 공연을 본 후 김 OO 예술국장과 공연 내용에 대하여 통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면서 손진책 감독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연임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⁵⁴⁾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연극 〈개구리〉 공연이 개막한 이후 청와대 지시에 따른 사후 대책 마련으로 손진책 감독의 연임 불가 등의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작가의 방’ 프로그램 기획 및 극작가 선발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적용 혹은 양해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다음의 사실을 통하여 ‘작가의 방’ 참여 작가들 중에서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작가들의 집필 작품에 대한 소재의 제한, 검열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16년 5월 경 ‘작가의 방’ 공식적인 첫모임에서 정 OO 공연기획팀장이 〈개구리〉 같은 작품을 쓰지 말으라는 취지를 하였는지 여부, 작품 소재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정 OO 공연기획팀장이 ‘국립극단으로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 모든 작품을 국립극단이 공연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는 발언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⁵⁵⁾

‘작가의 방’ 기획 의도 자체가 검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정 OO 공연 기획팀장의 진술⁵⁶⁾ ‘작가의 방’을 공모제로 한 것은 좋은 작가를 섭외하자는 취지였으며 작가 섭외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적용되거나 양해되는 일은 없었다는 손 OO 피디의 진술,⁵⁷⁾ ‘작가의 방’ 프로그램은 블랙리스트 작가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

52) 김 OO 1회 진술조서, 4쪽. 2018. 1. 11.

53) 조 OO 1회 진술조서, 11쪽. 2018. 1. 18.

54) 김 OO 1회 진술조서, 3-5쪽. 2018. 1. 12.

55) 김나빛, 「짧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연극평론』 통권 85호, 2017 여름. 2017. 6. 132쪽.

56) 정 OO 1회 진술조서, 14-16쪽. 2018. 1. 7.

57) 손 OO 1회 진술조서, 3쪽. 2018. 3. 9.

램이었다는 김윤철 예술감독의 진술⁵⁸⁾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국립극단에서 창작극을 발표하고 싶은 젊은 작가들에게 정OO 기획팀장의 발언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발언을 하는 작품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었다는 신청인의 진술,⁵⁹⁾ 그날 국립극단 측의 발언이 검열로 작동될 수도 있었다는 구자혜 작가의 발언,⁶⁰⁾ 모든 작품이 국립극단에서 공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작가들에게 오해를 주었을 수도 있었다는 정OO 참고인 자신의 진술⁶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적어도 ‘작가의 방’에서 집필한 작품을 국립극단에서 공연하기를 희망하였던 작가들에게는 소재의 제한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개구리> 공연 개막 전 결말 등 수정 과정에 문체부 혹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2013년 8월 16일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활동 실태」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문체부가 연극 <개구리>가 개막하였던 날인 2013년 9월 3일 청와대에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을 보고하였던 점,⁶²⁾ <개구리> 공연이 개막하기 전 결말 등에 대한 수정 과정이 있었다는 복수 관계자의 진술 등은 확인되지만 <개구리> 대본 수정 과정에 문체부 혹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는 진상 규명하지 못하였다.

나. ‘작가의 방’ 프로그램 기획 및 극작가 선발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적용 혹은 양해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하였던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24쪽 하단에서 2015년 4월 13일 현재 고연옥 책임작가가 ‘정무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어서 배제 대상이라는 사실,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문서(12쪽

58) 김윤철 1회 진술조서, 6쪽. 2018. 4. 10.

59) 고연옥 1회 진술조서, 5-6쪽. 2017. 10. 26.

60) 김나뱃,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연극평론』 통권 85호, 2017 여름. 2017. 6. 133쪽.

61) 정OO 1회 진술조서, 15쪽. 2018. 1. 7.

62) 국정원, 「전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1-2쪽. 2017. 10. 30.

하단)에서 ‘작가의 방’ 참여 작가 중 구자혜 작가가 ‘혜화동 1번지 6기 동인’으로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고연옥 작가나 구자혜 작가에 대한 양해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문서 혹은 진술은 전혀 없는 반면 ‘작가의 방’에서 검열의 문제는 없었다는 김윤철 국립극단 예술감독의 진술과,⁶³⁾ ‘작가의 방’ 참여 작가 선정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적용되거나 ‘양해’되는 사실이 전혀 없었고, 도리어 검열의 대상이 될까봐 문체부에 작가 리스트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이는 제작 공연이 아니라 작품 개발 과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정OO 공연기획팀장의 진술,⁶⁴⁾ ‘작가의 방’을 공모제로 한 것은 좋은 작가를 섭외하자는 취지였으며 작가 섭외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적용되거나 양해되는 일은 없었다는 손OO 피디의 진술⁶⁵⁾만이 있어서 ‘작가의 방’ 참여 작가 선정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적용이나 양해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당초 ‘작가의 방’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서 작가를 선발하려고 하였으나, 윤OO 사무국장을 통해서 문체부에서 공모제를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초청 형식으로 작가 선정 방식을 바꾸고 문체부에 작가 명단을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검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도 자료도 내지 않고 국립극단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정OO 공연기획팀장의 진술,⁶⁶⁾ 기획자체가 블랙리스트 작가들도 함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김윤철 예술감독의 진술⁶⁷⁾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공모제를 회피하였던 방식 자체가 블랙리스트 작가가 응모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검열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16년 1월 8일 경 문체부 작성 「2016년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안] 보고」 문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2016년에 문체부가 전반적으로 공모사업을 줄이고 기획사업을 강화하여갔던 것은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⁶⁸⁾

63) 김나뵈,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연극평론』 통권 85호, 2017 여름. 2017. 6. 131쪽, 135쪽.

64) 정OO 1회 진술조서, 13쪽. 2018. 1. 7.

65) 손OO 1회 진술조서, 3쪽. 2018. 3. 9.

66) 정OO 1회 진술조서, 13쪽. 2018. 1. 7.

67) 김윤철 1회 진술조서, 6쪽. 2018. 4. 10.

68) B 문체부 예술국장은 위 문서와 관련하여 2018년 3월 23일 위원회 조사에서, 청와대 김소영 문체비서관이 문예기금 지원 시스템을 바꾸라는 지시를 하여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 정기 공모 사업 축소 2) 공모사업의 기획 사업으로 전환 등의 개편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B 1회 진술조서, 5쪽.). 이 진술은 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사업 개편에 관한 내용이지만 문체부의 전반적인 기조는 다른 산하 기관에도 동일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4

국립국악원 ‘소월산천’ 공연취소 사건



44

국립국악원 ‘소월산천’ 공연취소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전2 [국립국악원 ‘소월산천’ 공연취소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신현식은 2015. 8.말경 국립국악원으로부터 <금요공감> 2015. 11. 6.자 공연 섭외를 받고 박근형 연출가 등과 함께 협업공연 ‘소월산천’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공연 약 2주 전 국악원 측으로부터 협업공연이 아닌 단독음악공연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열의혹이 들어 공연을 취소하였다. 신청인은 당시 국악원의 공연변경 요청이 박근형 연출가 배제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었는지 진상을 알고자 진상조사를 신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그 동안 문체부와 국악원 측의 이 사건 관련 공식입장은 ‘풍류사랑방’이라는 공연장 여건상 연극공연은 올리기 어렵다는 운영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공연변경 요청을 한 것이고, 이를 검열로 오해한 출연자 측에서 공연을 취소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A 당시 국악원 기획운영단장이 박근형 연출가를 문제 삼아 국악원 직원들에게

이 사건 공연의 조정 혹은 취소를 지시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으며, 위 지시를 받은 국악원 직원들이 신청인에게 공연장 문제를 들어 ‘공연에서 연극요소를 빼 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박근혜 연출가의 배제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붙임 : 1. 책임심의위원 검토의견서 사본 1부

2. [국립국악원 ‘소월산천’ 공연취소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진상조사결과보고서 검토의견서 (책임심의위원)	
사건번호/사건명	2017전2 / 국립국악원 통류사발발 기획공연 <금요공간> ‘소월산천’ 공연취소 사건
담당팀(전문위원)	조시2팀1반 / 김해진 전문위원
심의 일정	1. 전문위원회 전체위원 심의시 취합 기간 : 2018. 3. 19.~3. 23. 1. 책임심의위원 심의 기간 및 방법 : 온라인(심의시 의견 취합 후 통합 심의) 2. 진상조사 소위원회 안전 상정일 : 2018. 3. 26.(월)
조사 내용 등에 대한 검토 내용	- 박근혜 연출가를 ‘출연’ 또는 ‘출연진’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연출’로 수정해주시던 좋겠습니다. - 진술인, 참고인이 너무 많아 읽다보면 누가 누군지 잘 문간이 언덕어서... 추고스 러우시겠지만 참고인000, 진술인000로 표기해 주시면 어떨지요?
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 내용	- 이 사건의 핵심은 A 단장의 진술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A의 진술과 반박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주시면 어떨지요? - 결론에서 A 이 또 한 번 해외문화원장 지원을 앞두고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박근혜를 배제했다는 시술에 대해 심정적으로는 책임집으로 공감하지만 실증만으로 조사보고서에 이렇게 남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통합 의견	
책임심의위원	2018. 3. 23. 김 미 도 (서명 또는 날인) 박 태 원 (서명 또는 날인) 이 원 재 (서명 또는 날인) 김 윤 규 (서명 또는 날인)

[사 건] 2017전2, 국립국악원 ‘소월산천’ 공연취소 사건

[신청인] 신현식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신현식(이하 ‘신청인’)은 국악그룹 앙상블시나위 대표로, 2015. 8.말경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으로부터 <금요공감> 2015. 11. 6.자 공연 섭외를 받았고, 이에 박근혜 연극연출가 및 극단 골목길 등과 ‘소월산천’ 협업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청인은 공연 2주 전 국악원으로부터 급작스럽게 공연장 문제 등을 이유로 협업 공연이 아닌 앙상블시나위 단독공연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것이 실은 박근혜 연출가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강한 의심이 들어 결국 위 공연을 취소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당시 국악원의 급작스러운 공연변경 요청이 실제 박근혜 연출가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진상을 알고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에 2017. 9. 22. 조사신청 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 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있어 2017. 10. 20. 제11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 결정되었다.

나. 조사의 목적(규명과제)

- (1) 국악원 <금요공감> 2015. 11. 6.자 앙상블시나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 섭외에서 취소까지의 과정 및 경위에 대해 신청인 주장과 국악원 측 주장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바,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 (2) 이 사건 공연 취소 전후과정에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동이 있었는지, 그 관련자가 누구인지 규명이 필요하다.
- (3) 블랙리스트 작동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문체부·청와대 등 상급기관 지시 혹은 외압이 있었는지, 국악원 자체 내에서 행해진 일인지 규명이 필요하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15건에 대하여 입수 및 검토함.

[표-1]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국악잡지 <라라> 통권 제8호		2017. 9.
2	국악원, 2015. 10. 27.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공연 변경 관련 상황 보고	국악원	2017. 9. 5.
3	국악원, 2017. 9. 5.자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관련 블랙리스트 보고	국악원	2017. 9. 5.
4	특검의 참고인 A에 대한 2016. 12. 29.자 진술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형사소송기록	
5	김기춘 외 3인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 공판기록 중 참고인 B에 대한 2017. 4. 20.자 증인신문 녹취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형사소송기록	
6	'소월산천' 공연진행 관련 000 장악과 직원과 김00 예술감독이 주고받은 메일 및 첨부파일 (2015. 10. 19.)	000, 김00	2017. 9. 5.
7	소월산천' 공연진행 관련 000 장악과 직원과 양상블시나위 신현식 대표가 주고받은 메일 및 첨부파일(2015. 10. 22.~10. 23.)	000, 신현식	2017. 9. 5.
8	국악원, '풍류사랑방 기획공연 금요공감 9~12월 공연계획(안)'	국악원	2017. 9. 5.
9	국립국악원 장악과 주00 계장과 신청인과의 통화녹음파일		2017. 10. 24.
10	국악원, 2015. 11. 풍류사랑방 금요공감 11~12월 공연계획(안)	국악원	2017. 11. 3.
11	국악원의 2015. 10. 29.자 보도자료	국악원	2018. 1. 9.
12	국악원 페이스북 2015. 10. 29.자 및 2015. 11. 5.자 각 해명자료	국악원	2018. 1. 9.
13	<금요공감> '소월산천' 공연취소 해명자료 관련 주00 장악과 계장 및 이00 홍보마케팅팀장이 주고받은 메일 및 첨부파일 등	주00, 이00 등	2018. 1. 9.
14	000 장악과 직원이 000 장악과 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요공감> 2015. 11.~12. 공연 관련	000	2018. 1. 10.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인수인계자료		
15	국립국악원 장악과 주OO 계장과 신청인과의 통화녹취록	주OO, 신현식	2018. 2. 22.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14인에 대하여 17회에 걸쳐 조사함.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신현식	사건 신청인	진술조서(2017. 11. 6.)
2	박OO	연극 연출가/이 사건 공연 협업예정자	진술조서(2017. 11. 24.)
3	김OO	<금요공감> 객원 예술감독 (2015. 3.~12.)	진술조서(2017. 12. 13.)
4	A	국악원 기획운영단장(2014. 11.~2016. 2.)	진술서(2017. 12. 14.)
5	A	상동	2017. 12. 15.자 진술 녹취록 (2017. 12. 21.) 126면-166면
6	이OO	국악원 장악과 과장(2009. 5.~현재)	제1회 진술조서(2018. 1. 4.)
7	OOO	국악원 장악과 <금요공감> 담당 주무관 (2012. 5.~2015. 9.)	진술조서(2018. 1. 8.)
8	이OO	국악원 장악과 홍보마케팅팀장 (2015. 10.~2017.말)	진술조서(2018. 1. 9.)
9	OOO	국악원 <금요공감> 담당 계약직 직원 (2015. 9.~11.)	진술조서(2018. 1. 9.)
10	이OO	국악원 장악과 과장(2009. 5.~현재)	제2회 진술조서(2018. 1. 10.)
11	주OO	국악원 장악과 <금요공감> 담당 계장 (2015. 10.~2017. 10.)	진술조서(2018. 1. 12.)
12	김해숙	국악원장(2014. 1.~2017. 12.)	진술조서(2018. 1. 18.)
13	임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2014. 10.~2016. 6.)	제1회 진술조서(2018. 1. 23.)
14	김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행정사무관 (2013. 12.~2016. 5.)	진술조서(2018. 2. 7.)
15	임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2014. 10.~2016. 6.)	제2회 진술조서(2018. 2. 8.)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6	A	국악원 기획운영단장 (2014. 11.~2016. 2.)	진술서(2018. 3. 12.)
17	B	문체부 예술정책관(2015. 8.~ 2017. 3.)	진술조서(2018. 3. 23..)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은 민족음악을 보존·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국악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¹⁾한다. 해당사건 발생 당시 김해숙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가 국악원장으로 재직(2014. 1.~2017. 12.)하였다.

한편, 국악원 ‘기획운영단’은 2013. 3. 2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²⁾에 따라 신설된 국악원 하부조직²⁾으로,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국악원의 주요사업계획 수립·조정·평가, 인사에 관한 사항, 예산·감사·국회 및 법제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³⁾한다. 해당사건 발생 당시 A 현 주영한국문화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446호)」 제2조, 제58조, 제59조

2) 위 직제 제60조

3) 위 직제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조직·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3. 보안·관인 관리,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
4. 예산·감사·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5.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청사 및 시설의 방호와 재난관리
6. 국악공연계획의 수립·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7. 전속단체 운영 및 단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8. 국악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악의 진흥·보급 및 국내외 교류협력
10. 국악원 홍보·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원장이 기획운영단장으로 재직(2014. 11.~2016. 2.)하였다.

나. 국악원 풍류사랑방 기획공연 <금요공감>

<금요공감>은 2015. 3.부터 시작된 국악원 ‘풍류사랑방’ 공연장의 금요상설 기획공연으로, ‘국악과 클래식, 재즈, 대중음악, 연극, 현대무용,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의 협업(콜라보레이션)으로 20~30대 젊은 관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⁴⁾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고, 국악원 담당부서는 기획운영단 장악과이다.

‘풍류사랑방’은 국악원 ‘연희풍류극장’ 내에 있는 130석 규모 좌식형 실내 소극장⁵⁾으로 2013. 4. 개관했다. 전통 한옥 요소들을 국악기 울림에 맞도록 최적화해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하지 않고 국악기의 자연음향을 무대와 객석에 전달하도록 설계됐으며, <금요공감> 뿐 아니라 <수요춤>, <목요풍류>, <토요정담> 등 4가지 상설기획공연이 2015. 3.부터 2016. 2.까지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됐다.⁶⁾



풍류사랑방 사진 [출처: 국악원 홈페이지 시설소개]

11. 삭제 <2014.8.27.>

12. 무대 음향·조명·영상·기계시설 및 무대 의상·소품·장치·악기의 관리 운영

13. 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3.23.]

4) 국악원 2015. 2. 24.자 보도자료, <자네, 풍류를 아는가? 풍류사랑방에서 즐겨보시게!>, 2쪽

5) 국악원 홈페이지 연희풍류극장 시설소개,

<http://www.gugak.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5007005>

6) 위의 보도자료, 1-2쪽

한편 이 사건 당시 국악원 <금요공감> 프로그램은 ① ‘객원 예술감독의 예술가 공연섭외 및 프로그램 협의- 예술감독을 통한 국악원 일정조율 및 프로그램 협의·확정- 공연시행’의 3자간 경로를 통해 진행됐고 ② 예술감독과 예술가 간 협의된 공연이 <금요공감> 취지와 지나치게 어긋나거나, 공연장 일정·여건 등에 따라 현실적 공연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국악원과 예술감독 혹은 예술가 측이 협의해 조정을 거치는 관행⁷⁾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이 사건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다. 해당사건과 블랙리스트 사이 관련성

해당사건의 경우 김기춘 외 6인 1심 및 항소심 형사판결문, 2017년 6월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등에서 다루어진 바 없고, 신청인 및 신청인 소속 그룹 앙상블시나위 역시 문체부, 청와대, 국정원 등의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사실은 없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 사건 공연 협업자로 예정됐던 박근형 연출가의 경우 국정원 「前 정부, 특정 연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중 ‘붙임 16)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중 하나로 기재돼 있고, 극단 골목길(연출 박근형)의 경우 문체부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중 ‘기존관리 리스트-149명’에 ‘연극-35명’ 중 하나로 기재돼 있다.

7) 이 사건 당시 <금요공감> 담당 000 주무관은 2018. 1. 9.자 진술조서에서, “사전에 공연 프로그램을 협의하면서 공연장과 맞지 않는 공연이라는 판단이 들 경우 스텝 회의를 거쳐 조율을 합니다. 적어도 공연 1주일 전까지는 모든 공연이 반드시 스텝 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 전이라도 공연 내용을 받아 공연장 문제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국악원 측이나 출연자 측에서 요청해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라고 진술(15면)하였다.

[그림-1] 국정원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44면,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부분

연번	분야	성명	특이사항	등급
85	연극	박근홍	한예중 전임교원	B
86	연극	박성돌	저술연극협회 회장	A
87	연극	박종관	충북민예총 이사장	B
88	연극	안석환	09.2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홍보회원	C
89	연극	오세곤	10.10 노나메기재단 설립 추진위원	B
90	연극	오세혁	범민련 산하 걸판 단원	A
91	연극	윤한솔	단국대 공연영화학부 교수	B
92	연극	이양구	04.10 민노당 당원	B
93	연극	이영미	08년 전교조 조합원 감사	C

[그림-2] 문체부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20면, “[6] 기존관리 리스트-149명” 부분

분야	단체명	사업개요 및 검토내용	진행상황
공통 - 2년	①연예홍, ②지역민예총, ③문화발전회, 동포함(민예총소속), ④저가협회	예술위 보조금사업 확정으로 고발 및 환수조치(2010년) - 492백만원 중 5천만원 면제상태, 관행위남시까지 지원중단 김태훈선과 민국문화연구소(대표 조성래, 이사장 채희환, 민이영(박종순) 2010년 호교기러들 시작성연시 참여단체 각가회의 소속 ⑤고영철, ⑥박철규, ⑦신용복 / ⑧제주거남소설가협회 ⑨경주문화재단 예술실 중의재(신민재영가 등 작곡, 중국에서 활동) ⑩부산국제영화제 구럼비, ⑪시내무브(정지영, 문성근) ⑫민족극운동원지회, ⑬한국민족극협약, ⑭노르나무도서관(박영숙관장) ⑮문화연대(김내희, 임정희, 최광우) ⑯(와곡호)대원대학교수, ⑰연지공(호서대학교수), ⑱해화동1번지, ⑳극단여행자, ㉑새벽, ㉒극단 활자길, ㉓그림레그(윤한솔), ㉔임인자(범발연극계)	
연극 - 3년		○ 추가(2014.10월) ①극단 한자무늬 ②극단 사니더어 ③극단 그림연극 ④창작집단 사마뱀의 오로라 ⑤극단 산수유 ⑥극단 해를 보는 마을 ⑦극단 비연 ⑧극단 코티(KOTI) ⑨문화부하이픈 ⑩극단 집현 ⑪극단 고래 ⑫극단 백수광부 ⑬극단 무비클 ⑭극단 수수대보리 ⑮극단 산 ⑯ 노태영씨어터컴퍼니	

한편 박근형 연출가는 2015. 9. 11. 및 2015. 10. 7. 문체부 국정감사⁸⁾⁹⁾, 2015. 11. 예술위 특정감사¹⁰⁾ 등을 통해, 2013년 박정희·박근혜 풍자극 <개구리>를 연출했다는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로부터 2015. 6. 연극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의 지원포기를 종용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고, 극단 골목길의 경우 김기춘 외 3인 1심 형사판결문¹¹⁾, 2017. 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¹²⁾ 등을 통해 청와대 및 문체부 지시에 따라 2015년 예술위 사업에서 지원배제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사건의 경우 신청인을 직접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사안은 아닐 지라도, 이 사건 공연 협업예정자였던 박근형 연출가 및 극단 골목길이 블랙리스트 대상이었다는 점, 국악원이 급작스럽게 협업공연이 아닌 앙상블시나위 단독공연으로 변경 요청을 한 점, 위 공연변경 요청 경위가 이례적이고 사유가 불분명했다는 점, 국악원의 공연변경 요청으로 결국 이 사건 공연이 취소된 점 등 정황에 비추어볼 때, 진상규명의 전제가 되는 블랙리스트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 국악원 및 문체부 관련자

[표-3] 이 사건 국악원 및 문체부 관련자¹³⁾

구분	소관팀	담당자명(직위 포함)	
국립국악원	-	김해숙 국립국악원장	
	기획운영단	A 기획운영단장	
	장악과		이OO 과장
			주OO 계장
			OOO 주무관
			OOO 계약직 직원
홍보마케팅팀	이OO 팀장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B 예술정책관	
		임OO 과장 김OO 사무관	

8) 2015년도 국정감사 2015. 9. 11.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44-45쪽, 98-99쪽

9) 2015년도 국정감사 2015. 10. 7.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73-75쪽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15년도 지원심의 관련-, 7-9쪽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형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1(218쪽), 순번 120(224쪽)

12)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별표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연번 52(326쪽), 연번 112(328쪽), 연번 158(330쪽)

13) 이 사건 입수자료, 신청인 및 참고인들 진술 등을 종합해 정리함

2. 이 사건 공연의 취소 경위

가. 이 사건 공연 양상블시나위 섭외과정

(1) 국악원, 2015. 10. 27.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공연 변경 관련 상황 보고¹⁴⁾

국악원이 2017. 9. 5. 위원회에 제출한 2015. 10. 27.자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공연 변경 관련 상황 보고’ 문건에는, 이 사건 공연 섭외 관련 “당초 동 공연은 음악 연주 프로그램으로 섭외”라고 기재돼 있다.

[그림-3] 국악원, 2015. 10. 27.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공연 변경 관련 상황 보고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공연 변경 관련 상황 보고

2015. 10. 27(화)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 보고 사항 ▶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금요공감>에서 공연예정(15.11.6)이었던 ‘양상블 시나위’ 공연을 다른 공연으로 대체 하게 되었는데, 관련 상황을 보고 드림

1 추진 경과 및 배경

- 국립국악원에서는 매주 금요일 풍류사랑방(130석)에서 국악과 재즈, 무용, 연극 등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올리는 <금요공감>을 운영해 오고 있음
- 상반기 <금요공감> 모니터링 결과 일체의 음향이나 조명장치가 없는 풍류사랑방의 여건상 자연음향 기반의 음악이나 무용은 호평이었으나, 연극은 대사전달과 동선의 한계, 조명효과 미흡 등으로 동 공연장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 11.6(금) 출연 예정인 양상블시나위(대표 신현식)는 연초 기획했던 프로그램이 출연자측(연극배우 박정자)사정으로 취소되어, 그 대체 프로그램으로 8월판에 <국요공감>예수가도(기서력)을 통해 섭외(8.25)
- 당초 동 공연은 음악 연주 프로그램으로 섭외하였으나, 공연자 측에서 연극과 협업하는 구체 내용을 공연 2주전(10.22) 알려 옴
- 이에 동 공연을 음악연주 프로그램으로 변경요청하였으나, 공연자측에서 거절하여 타공연으로 대체 예정

14) 위 문건은 A 기획운영담당 지시에 따라 장악과 주OO 계장이 작성하였고, 주OO 계장이 위 문건을 통해 이 사건 공연변경 경위를 김해숙 국악원장, 문체부 김OO 사무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주OO 2018. 1. 12.자 진술조서 15면, 김해숙 2018. 1. 18.자 진술조서 8면, 김OO 2018. 2. 7.자 진술조서 6면).

(2) 참고인 A의 2017. 12. 14.자 진술서 및 2018. 3. 12.자 진술서

참고인 A은 현재 주영한국문화원장으로 재임 중인 자로서, 2013. 3.~ 2014. 10.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고, 2014. 11.~ 2016. 2. 국악원 기획운영단장으로 근무하였다.

A은 2017. 12. 15. 위원회에 제출한 2017. 12. 14.자 진술서에서 “국립국악원에서 공연을 의뢰한 내용은 퓨전국악 연주단체인 시나위앙상블의 연주회였으며, 박근형 연출 및 극단 골목길과 함께 하는 <소월산천>의 공연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18면)하였고, 2018. 3. 13. 위원회에 제출한 2018. 3. 12.자 진술서에도 동일하게 진술(2면)하였다.

(3) 참고인 A의 2017. 12. 15.자 녹음진술 및 이에 대한 2017. 12. 21.자 녹취록

참고인 A의 2017. 12. 15.자 주영한국문화원에서의 녹음진술 및 이에 대한 2017. 12. 21.자 녹취록에 따르면, 국악원이 앙상블시나위 섭외 당시 협업공연 형태를 제안한 것이냐는 조사자 질문에 A은 “그건 아니었어요. 최소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건”이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139면).

(4) 신청인에 대한 2017. 11. 6.자 진술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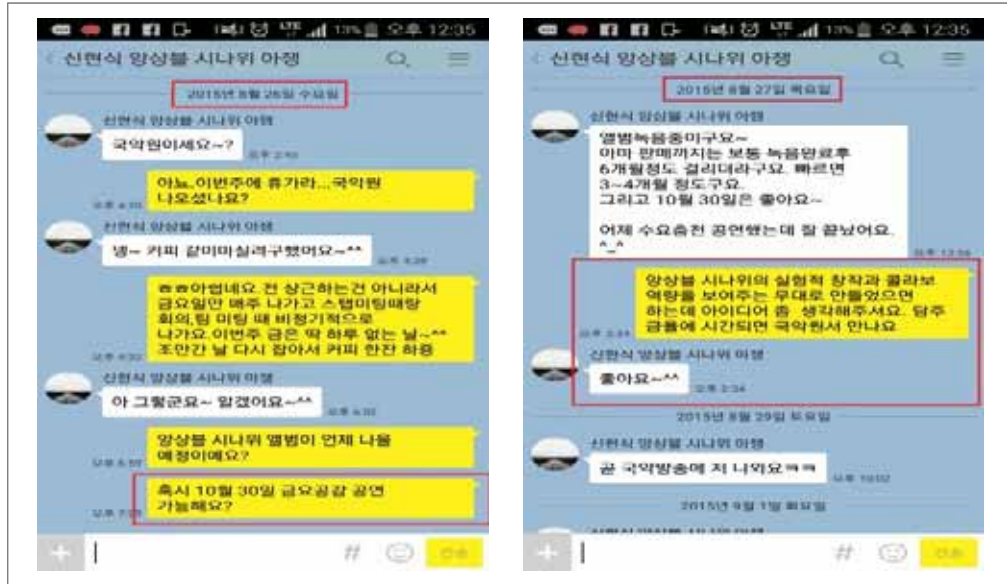
신청인은 2017. 11. 6.자 진술조서에서 이 사건 공연 섭외 관련, “애초에 타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으로 섭외가 진행된 거였고”라고 진술하였다(6면).

(5)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7. 12. 13.자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

참고인 김OO은 2015. 3.~12. <금요공감> 객원 예술감독으로 재직한 자로서, <금요공감> 출연자 섭외, 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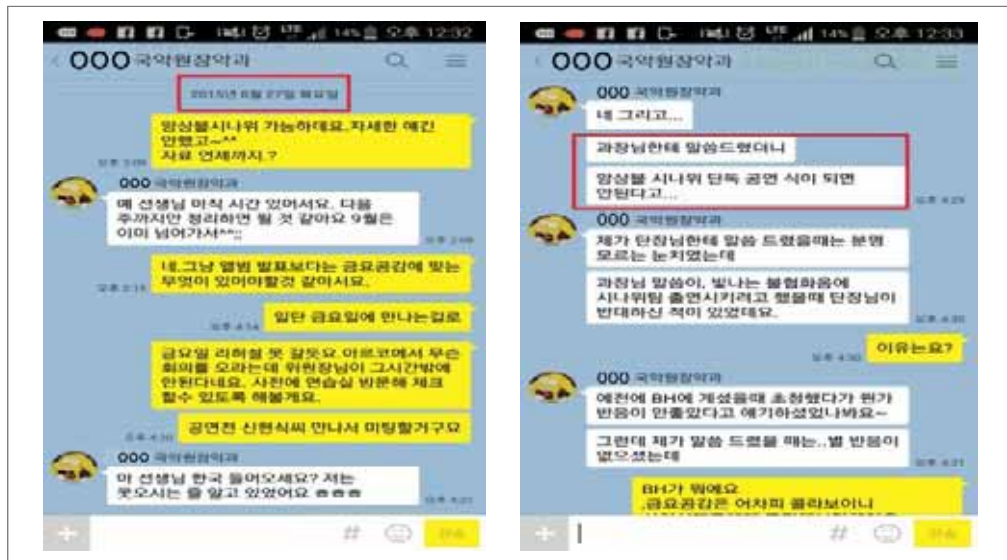
김OO은 2017. 12. 13.자 진술조서에서, 2015. 8. 26. 신청인에게 연락해 공연섭외를 했고(처음 10. 30.자 공연으로 섭외했다가 일정조정을 통해 이 사건 11. 6.자 공연으로 조정), 단독 음악공연이 아닌 타 장르와의 협업공연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4면)하였다. 김OO은 그 입증자료라면서, 김OO과 신청인이 2015. 8. 26. 및 8. 27. 각 주고받은 아래 각 카톡메시지 캡처파일을 제출하였다.

[그림-4] 김OO-신현식 사이 2015. 8. 26.자 및 8. 27.자 카톡메시지(흰색이 신청인, 노란색이 김OO)



또한 김OO은 “국악원 이OO 과장 쪽에서 먼저 앙상블시나위 단독공연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7면)하면서, 참고인 OOO이 당지 이OO 과장의 위 같은 지시를 김OO에게 전달했다는 2015. 8. 27.자 아래 카톡메시지 캡처파일을 제출하였다.

[그림-5] 김OO-OOO 사이 2015. 8. 27.자 카톡메시지(흰색이 OOO, 노란색이 김OO)



(6)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1. 4.자 제1회 진술조서

참고인 이OO은 2009. 5.부터 국악원 장악과 과장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장악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이OO은 2018. 1. 4.자 진술조서에서, 2015. 8. 27. 장악과 OOO 주무관으로부터 앙상블시나위 섭외사실을 보고받았고, OOO에게 <금요공감> 취지상 협업공연 형태가 되어야 하며 앙상블시나위 단독공연은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7-8면).

(7) 소결

이 사건 공연 섭외과정 관련, 국악원의 2015. 10. 27.자 보고문건 기재내용 및 참고인 A 진술에 따르면, 국악원은 이 사건 공연으로 앙상블시나위의 단독 음악연주 공연을 의뢰했다고 하나, 신청인 진술, 참고인 김OO 진술, 참고인 이OO 진술 및 참고인 김OO과 신청인 사이 카톡메시지, 참고인 김OO과 참고인 OOO 사이 카톡메시지를 종합하면 ① 김OO이 2015. 8. 26.~8. 27.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연섭외를 하며 타 장르와의 협업공연을 요청한 사실 ② 이OO이 OOO에게 이 사건 공연으로 협업공연 섭외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사건 공연 ‘소월산천’에 대한 국악원 협의 과정

(1) 국악원, 2015. 10. 27.자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공연 변경 관련 상황 보고 및 2017. 9. 5.자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관련 블랙리스트 보고

국악원의 2015. 10. 27.자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공연 변경 관련 상황 보고’ 문건에는 “공연자 측에서 연극과 협업하는 구체 내용을 공연 2주전(10.22) 알려 줌”이라고 기재돼 있고, 2017. 9. 5.자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관련 블랙리스트 보고’ 문건에도 “공연 2주전(10.22) 공연자 측에서 공연 내용을 알려오게 됨에 따라”라고 기재돼 있다.

[그림-6] 2015. 10. 27.자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공연 변경 관련 상황 보고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공연 변경 관련 상황 보고

2015. 10. 27(화)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 보고 사항 ▶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금요공감>에서 공연예정('15.11.6)이었던 '양상물 시나위' 공연을 다른 공연으로 대체 하게 되었는데, 관련 상황을 보고 드림

1 추진 경과 및 배경

- 국립국악원에서는 매주 금요일 풍류사랑방(130석)에서 국악과 재즈, 무용, 연극 등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올리는 <금요공감>을 운영해 오고 있음
- 상반기 <금요공감> 모니터링 결과 일체의 음향이나 조명장치가 없는 풍류사랑방의 여건상 자연음향 기반의 음악이나 무용은 호평이었으나, 연극은 대사전달과 동선의 한계, 조명효과 미흡 등으로 동 공연장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 11.6(금) 출연 예정인 양상물시나위(대표 신현식)는 연초 기획했던 프로그램이 출연자측(연극배우 박정자)사정으로 취소되어, 그 대체 프로그램으로 8월말에 <금요공감>예술감독(김서형)을 통해 섭외(8.25)
- 당초 동 공연은 음악 연주 프로그램으로 섭외하였으나, 공연자 측에서 연극과 협업하는 구체 내용을 공연 2주전(10.22) 알려 줌
- 이에 동 공연을 음악연주 프로그램으로 변경요청하였으나, 공연자측에서 거절하여 타공연으로 대체 예정

[그림-7] 2017. 9. 5.자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공연 관련 블랙리스트 보고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관련 블랙리스트 보고

2017. 09. 05(화)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 보고 사항 ▶

2015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금요공감>에서 공연예정('15.11.6)이었던 '양상물 시나위' 공연이 다른 공연으로 대체 됨에 따라, 이 공연의 연출가인 박근형을 외도적으로 비제하였는가에 대한, 당시 관련 상황을 보고 드림

1 추진 경과

- 국립국악원에서는 매주 금요일 풍류사랑방(130석)에서 국악과 재즈, 무용, 연극 등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올리는 <금요공감>을 운영해 오고 있음
- 2015년 상반기 <금요공감> 모니터링 결과 풍류사랑방의 여건상 자연음향 기반의 음악이나 무용은 호평이었으나, 대사전달이나 동선의 한계, 조명의 제한 등으로 연극적 성격의 공연물은 본 공연장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 2015년 11월(말) 공연은 그 해 8월말, <금요공감> 외부예술감독을 통해 '양상물시나위'를 섭외(8.25)
- 공연 2주전(10.22) 공연자 측에서 공연 내용을 알려주게 됨에 따라, 본 공연장에 적합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공연자측에서는 출연을 거부하여 타 공연으로 대체 됨

**(2)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이하 '특검')의
참고인 A에 대한 2016. 12. 29.자 진술조서**

참고인 A은 2016. 12. 29. 특검 조사과정¹⁵⁾에서 2015. 11. 6.자로 예정됐던 앙상블 시나위 공연에 대해 나중에 앙상블시나위 측에서 제목을 '소월산천'이라고 붙였으나 국악원 측과는 전혀 협의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참고인 A의 2017. 12. 14.자 진술서 및 2018. 3. 12.자 진술서

참고인 A은 2017. 12. 14.자 진술서에서, “당시 논점은 기술적 미비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초에 요청한 것이 시나위앙상블의 공연이었는데, 공연일을 2주 앞둔 상황에서 급작스레 극단과의 협업 프로젝트 기획안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앙상블시나위 측에서는 국립국악원이 공연을 2주 앞두고 연출가를 문제삼아 공연을 취소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오히려 반대로 국악원이 앙상블시나위로부터 당초 의뢰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공연계획안을 처음 받은 것이 공연을 2주 앞둔 10월 22일이었습니다”라고 진술(22-24면)하였고, 2018. 3. 12.자 진술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당시 국악원이 앙상블시나위 측으로부터 처음 받았던 메일이 그 입증자료라면서 발신인 김OO, 수신인 OOO으로 된 2015. 10. 19.자 이메일(이하 '2015. 10. 19.자 메일') 및 발신인 신현식, 수신인 OOO으로 된 2015. 10. 22.자 이메일(이하 '2015. 10. 22.자 메일')을 각 제시하였다.

(4) 2015. 10. 19.자 메일 및 첨부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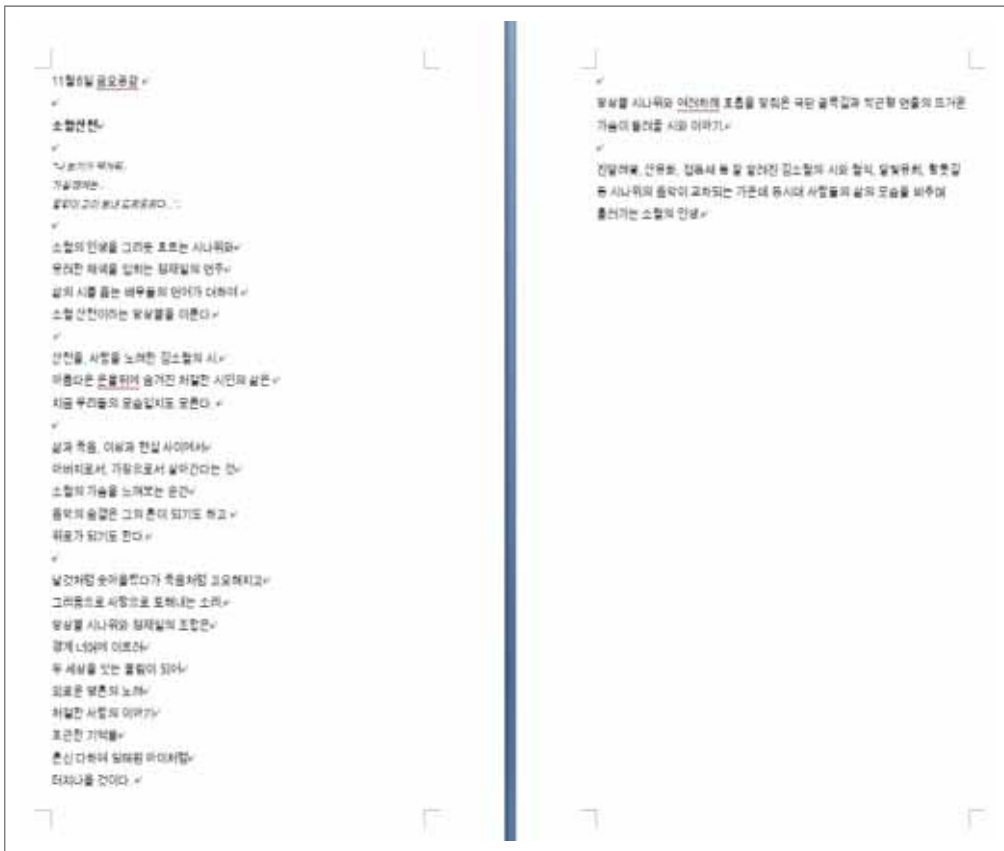
국악원이 2017. 9. 5. 위원회에 제출한 2015. 10. 19.자 메일 및 위 메일 첨부파일은 참고인 김OO이 앙상블시나위 단원 정OO로부터 받은 메일을 2015. 10. 19. 참고인 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작년(2014)에 공연한 소월산천 프로그램 및 앙상블 소개 자료 참고'라는 메일 내용과 함께, 앙상블시나위 소개자료, 2014. 12. '소월산천' 공연(앙상블시나위, 박OO 연출가, 극단 골목길 참여) 팸플릿 자료, '소월산천' 사진 등 3개 파일이 첨부돼 있다.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형사소송기록 증거기록 5478-5479쪽

(5) 2015. 10. 22.자 메일 및 첨부파일

국악원이 2017. 9. 5. 위원회에 제출한 2015. 10. 22.자 메일 및 위 메일 첨부파일은 신청인이 2015. 10. 22. 참고인 000에게 송부한 것으로, 메일 상에는 아무 내용도 기재돼 있지 않고, 첨부파일로 ‘11월 6일 금요공감 소월산천’이라는 제목아래 시 형태의 ‘소월산천’ 소개글이 기재된 아래와 같은 A4 용지 2매 문서파일이 첨부돼 있다.

[그림-8] 2015. 10. 22.자 메일 첨부파일 문서 이미지 발췌- ‘소월산천’ 소개글



(6) 신청인에 대한 2017. 11. 6.자 진술조서

신청인은 2017. 11. 6.자 진술조서에서, ‘소월산천’이라는 공연내용은 공연 섭외를 받은 2015. 8.말경 김00 감독과 이미 협의되었고, 이후 국악원과의 협의과정은 김00 감독 권한이므로 김00이 이를 국악원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5. 10. 19.자 메일 및 2015. 10. 22.자 메일은 인쇄물 제작 건 때문에 국악원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일이라고 진술하였다(7면).

(7) 참고인 박근형에 대한 2017. 11. 24.자 진술조서

참고인 박근형은 연극연출가로, 극단 골목길의 상임연출가이다. 박근형은 2017. 11. 24.자 진술조서에서, 신청인이 이 사건 공연 섭외를 받고 바로 진술인에게 함께 하자는 연락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에 따라 2015. 8.말경부터 곧바로 ‘소월산천’ 공연준비에 들어갔다고 진술(10-11면)하였다.

(8)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7. 12. 13.자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

참고인 김OO은 2017. 12. 13.자 진술조서에서, 2015. 9. 1. 신청인으로부터 ‘소월산천’ 공연을 제안 받아 이를 국악원에 제안해보기로 했다고 진술(5면)하였고, 그 입증자료로 진술인과 신청인이 2015. 9. 1. 주고받은 아래 카톡메시지 캡처파일을 제출하였다.

[그림-9] 김OO-신청인 사이 2015. 9. 1.자 카톡메시지(흰색이 신청인, 노란색이 김OO)



김OO이 국악원에 위 공연내용을 전달한 시점 및 내용에 대하여는, “9. 1. 제안 받았으니 정확한 날짜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즈음에 OOO 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소월산천’이라는 공연명과 박근형 연출가 협업에 관한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였고”라고 진술(5면)하였다. 김OO은 2015. 9. 초 ‘소월산천’ 공연확정 후 바로 앙상블시나위가 공연연습 및 무대 조율작업 등을 진행했다고 진술(6면)하였다.

김OO이 발신인으로 된 2015. 10. 19. 자 메일에 대해서는, 인쇄물 제작 때문에 국악원에 자료전달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8면)하였다.

(9)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1. 4. 자 제1회 진술조서

참고인 이OO은 2018. 1. 4. 자 제1회 진술조서에서, 2015. 9. 초 OOO 주무관으로부터 앙상블시나위가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받았고, ‘소월산천’ 공연명이나 박근형 연출가 등과의 협업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12면)하였다.

(10) 참고인 OOO에 대한 2018. 1. 8. 자 진술조서

참고인 OOO은 당시 국악원 장악과 주무관으로 재직할 때, 이 사건 공연 섭외·기획 등 업무를 수행하고 2015. 9월 국악원을 퇴사하였다.

OOO은 2017. 12. 13. 자 진술조서(6-8면)에서, 2015. 9. 1. 즈음 김OO 감독으로부터 앙상블시나위가 박근형 연출가와 협업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은 적 있으나, 공연내용이나 ‘소월산천’ 공연명 등은 일체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6면)하였다. 아래 국악원 2015. 9. 자 ‘풍류사랑방 기획공연 금요공감 9-12월 공연계획(안)’ 문건은 진술인이 작성한 것인데, 해당문건에 2015. 11. 6. 자 공연으로 출연자 ‘앙상블시나위’만 기재되고 공연명이 ‘미정’이라고 기재된 것은 2015. 9. 당시까지 공연명 등 공연내용에 대해 제공받은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8면)하였다.

[그림-10] 국악원 기획운영단 장악과, 2015. 9.자 풍류사랑방 기획공연 금요공감 9-12월 공연계획(안) 1-2면

풍류사랑방 기획공연 금요공감 9-12월 공연계획(안)
2015. 9. 기획운영단 장악과

□ 공연개요

- 공연명 : 수일문화재단의 함께하는 <금요공감>
- 일 시 : 2015년 9~12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장 소 :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 관중료 : 전석 2만원
 - 50% 할인 : 결혼부부자 및 동반 1인, 국가유공자 및 동반 1인, 문화예술(24세 이하) 또는 대학 학생증 소지자, 장애인활동보조자 및 동반 1인, 사회복지시설, 예술인 가족, 장애인 및 동반 1인
 - 30% 할인 : 국악지음 회원
 - 20% 할인 : 문화체육관광부 소지자, 산후케어, 다문화지원센터 소지자, 전세계 카운트다운, OASIS(합창 합승의 소지자) 할인(합승7일 이내), 일 단 30명 이상 단체
- 주 최 : 국립국악원
- 주 관 : 수일문화재단 (주최) / 수일문화재단 (주관)
- 주 관 : 국립국악원 (주관) / 수일문화재단 (주관)
- 주 최 : 국립국악원

□ 추진방향

- 국악의 클래식, 재즈, 대중음악, 한국 현대무용, 문학 등 다양한 장르와 예술가들 차 협업(collaboration)으로 젊은 관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
- 전통과 현대, 장르와 장르, 세대와 세대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예술가들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선사하고자 함

□ 공연일정(안)

일	주요 출연자	공 연 명
9월 4일	Hanz Khas Connection + 2 (인형들 팀)	*MLAAP : 합계14다
9월 11일	안여호, 원민수, 김현수	*산자의 명동진... 국문자의 새루고...
9월 18일	박경호, 송니 서현, 장영호	10K Breath
9월 25일	이아람, 김희영, 홍민정	seconds apart

일	주요 출연자	공 연 명
10월 2일	최윤(ESEUM)	Korean Breath
10월 9일	장려라 외	장려라의 첫 노래
10월 16일	윤홍, 김달현, 루나로 카토(Kuniko Kato), 김윤석	MOTION
10월 30일	Jan Jhyu	SEVEN BREATH(7의향)
11월 6일	양상봉, 서나리	미경
11월 13일	차진성(원대무용), 심은영(가을고)가을향(소리)	미경
11월 20~22일	Mover(김성진, 남현우 등) 외	Mover! Right night
11월 27일	이우진(국립국악원무용단), 정현민(국립국악원(Company)), 조영택(국립국악원)	추리호
12월 4일	송 Seon	송(Seon)의 만남 단편편
12월 11일	거문고백토로	거문고단연주

*9월 1-2주는 수일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북촌유치계스타필과 연계프로그램으로 추진

□ 소요예산 (66,000천원) *9-12월 공연관련 소요예산

구분	선출내역	합 계(천)	비 고
공연 제작 비용	9,000천원x1회	9,000,000	예술감독(김서영)
	3,000천원x10회	30,000,000	10/30, 9/18, 10/18, 11/23 제외
	3,000천원x3회	9,000,000	11/20~11/22
	소계	48,000,000	
공연 국악실	3,000천원x3회	9,000,000	10/30, 10/18, 11/23
	3,100천원x1회	3,100,000	9/18
	400천원x3회	1,200,000	왕소봉 기증
	기타 제작비	1,000천원x5회	3,000,000
	소계	16,300,000	
총 계		66,000,000	

OOO은 2015. 9. 국악원을 퇴사하기 전까지 진술인이 출연자 측으로부터 공연자료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12-13면)하였다. 퇴사 전 이 사건 공연 관련 업무인계에 관해, “당시에도 ‘소월산천’이라는 공연명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형 연출가가 양상봉이나 위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이 11. 6.자에 세팅되어 있다는 정도로만 인수인계되었습니다.”라고 진술(14면)하였다.

(11) 참고인 OOO에 대한 2018. 1. 9.자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

참고인 OOO은 참고인 OOO의 후임으로, 당시 계약직 직원으로서 2015. 9. 25.부터 이 사건 공연을 포함한 <금요공감> 2015. 11.~12. 공연의 자료취합, 홍보물 제작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OOO은 2018. 1. 9.자 진술조서에서, 2015. 9. 23.~9. 25.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OOO이 작성해 전달한 문서에는 2015. 11. 6.자 <금요공감> 공연으로 양상블시나위 및 박OO 연출가 참여사실만 기재돼 있었고, ‘소월산천’ 등 공연에 관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진술(4-5면)하면서, 아래 인수인계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림-11] OOO이 OOO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수인계 문서, “11-12월_금요공감_내용.hwp”

공연일정	출연자(단체)	공연명
11월6일(금)	양상블 시나위+박근형(연출)	미경
11월13일(금)	차진엽(현대무용) +실은용(거문고)+권승희(소리)	여향(餘香)
11월20일(금) -11월22일(일)	Mover(정철진, 남현우 외) *현대무용*	Mover- Right right
11월27일(금)	이주리(국립국악원무용단), +정현진(현대무용/Company)+조재혁(국립무용단)	주출
12월4일(금)	송[Su.m] 박지하(피리, 생목, 피경소), 서정민(가야금, 첼로가야금)	송[su : m]이 만난 단편선
12월11일(금)	거문고팩토리	거팩모던댄스 (Geomungofactory x Moderndance)

한편 OOO은 2015. 10.초부터 <금요공감> 출연자들과 연락하며 공연자로 취합을 했고, 2015. 10.중순경에는 이 사건 공연을 포함한 모든 공연자료가 취합되어 홍보물 제작 준비를 했다고 진술(8-9면)하였다. 2015. 10. 19.자 메일 및 2015. 10. 22.자 메일 역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양상블시나위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9-10면)하였고, 2015. 10. 19.자 메일을 받고 처음 이 사건 공연에 대해 인지한 것이 아니냐는 조사자 질문에 “아닙니다. 10. 19. 이전에도 ‘소월산천’ 공연명과 공연 자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 습니다”라고 진술(9면)하였다.

(12) 소결

위 신청인 진술, 참고인 김OO 진술, 참고인 박근형 진술, 참고인 김OO과 신청인 사이 2015. 9. 1.자 카톡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① 2015. 9. 1. 예술감독과 출연자들 사이 이 사건 공연 프로그램으로 ‘소월산천’이 협의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국악원 2015. 9.자 풍류사랑방 기획공연 금요공감 9-12월 공연계획(안) 기재내용, <금요공감> 2015. 11.~12. 공연 업무인수인계 문건 기재내용, 참고인 이OO 진

술, 참고인 000 진술, 참고인 000 진술을 종합하면 ② 2015. 9. 25.경까지 국악원에는 이 사건 공연 참여자(양상블시나위, 박근형 연출가) 정보만 전달되었고, 공연내용, 공연명(‘소월산천’) 등 정보는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위 국악원 2015. 10. 27.자 및 2017. 9. 5.자 보고 문건 각 기재내용, 참고인 A 진술에 따르면, 국악원은 공연 2주 전(2015. 10. 22.) 처음 출연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연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하나, 위 2015. 10. 19.자 메일 및 첨부파일 기재내용, 2015. 10. 22.자 메일 및 첨부파일 기재내용, 신청인 진술, 참고인 김OO 진술, 참고인 000 진술을 종합하면, ③ 2015. 10.초경 이 사건 공연내용, 공연명 등이 국악원 담당자(000)에게 처음 유선연락을 통해 전달됐고, ④ 2015. 10. 19.자 및 2015. 10. 22.자 메일은 홍보물 제작을 위해 전달된 메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참고인 A은 연주자 측에서 2015. 10. 22. 처음 이 사건 공연계획안을 보내왔다고 진술하나, 2015. 10. 22.자 메일 및 위 메일 첨부파일 기재내용을 보면 이를 공연 구성이나 내용이 담긴 공연계획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국악원의 이 사건 공연 변경요청 및 공연취소

(1) 국악원, 2015. 10. 27.자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공연 변경 관련 상황 보고

국악원 2015. 10. 27.자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공연 변경 관련 상황 보고’ 문건에는 “동 공연을 음악연주 프로그램으로 변경요청하였으나, 공연자측에서 거절하여 타공연으로 대체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다.

(2) 국악원, 2017. 9. 5.자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관련 블랙리스트 보고

국악원 2017. 9. 5.자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관련 블랙리스트 보고’ 문건에는 “○ 2015년 상반기 <금요공감> 모니터링 결과 풍류사랑방의 여건상(중략) 대사전달이나 동선의 한계, 조명의 제한 등으로 연극적 성격의 공연물은 본 공연장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및 “○ 공연 2주전(10.22) 공연자 측에서 공연 내용을 알려오게 됨에 따라, 본 공연장에 적합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공연자측에서는 출연을 거부하여 타 공연으로 대체 됨”이라고 기재돼 있다.

(3) 특검의 참고인 A에 대한 2016. 12. 29.자 진술조서

참고인 A는 2016. 12. 29. 특검 조사과정¹⁶⁾에서, 국악원이 2015. 4. 3.~4. 5. 풍류사랑방에 올린 박근형 연출 ‘소리달 완창 프로젝트1-나비의 꿈’이라는 공연이 음악연주 중 대사가 들리지 않는 문제로 평가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연에 관해 “저희는 분명히 ‘양상블 시나위’에게 연주회를 부탁했는데, 이들이 준비한 <소월산천>은 연주회가 아니라 국악과 연극이 융합된 형태여서 저희가 연주회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사전검열이고 예술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서 공연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는 2018. 3. 12.자 진술서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참고인 A의 2017. 12. 15.자 녹음진술 및 이에 대한 2017. 12. 21.자 녹취록

참고인 A의 2017. 12. 15.자 녹음진술 및 이에 대한 2017. 12. 21.자 녹취록에 따르면, A는 2015. 10. 22.경 양상블시나위가 연극 협업공연 내용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장악과로부터 처음 보고받았고, 공연 2주 전 연극공연을 준비한다는 것은 도저히 무리므로 “일단 이걸 갖다가 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 무리한 상황인 것 같으니 감독하고 해가지고 협의를 다시 해봐라” 등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녹취록 138-139면)하였다.

공연취소 지시를 누가 한 것이냐는 질문에, “양상블 시나위 원래하기로 했었던 그 공연 중심으로 부탁을 드려봐라.”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고, 양상블시나위 측에서 이를 거부해 공연이 취소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녹취록 145-146면, 151-152면, 154면 등)하였다.

(5) 신청인에 대한 2017. 11. 6.자 진술조서

신청인은 2017. 11. 6.자 진술조서에서, 장악과 주OO 계장이 2015. 10. 24. 신청인에게 전화해 풍류사랑방에서 연극공연이 어려우므로 ‘음악으로만 이루어진 공연이었으면 좋겠다’며 공연변경을 요청했다고 진술(4면)하였고, 신청인은 원래하기로 한 협업공연을 올리지 못하면 음악연주 중심 공연도 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2015. 10. 26. 국악원측에 전달했다고 진술(6면)하였다.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형사소송기록 증거기록 5479쪽

(6) 신청인과 참고인 주OO 사이 통화녹음 및 이에 대한 2018. 2. 22.자 녹취록

신청인이 2017. 10. 24.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과 주OO 장악과 계장 사이 2015. 10. 24.(추정) 통화녹음 및 이에 대한 2018. 2. 22.자 녹취록에 따르면, 주OO은 2015. 10. 24.경 신청인에게 공연변경 요청을 하면서, “저희는 연극보다는 시나위 앙상블의 음악을 감상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억셉트를 한 거죠”(녹취록 1면), “저희들이 검증을 해본 결과 반응이 별로 좋지도 않고 풍류사랑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저희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녹취록 1면), “그래서 연극적인 부분은 다 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녹취록 2면), “이번에는 부탁을 드리는 게 그냥 시나위 앙상블의 기존 레퍼토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회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녹취록 2-3면) 등 발언을 하였다.

(7) 참고인 박근형에 대한 2017. 11. 24.자 진술조서

참고인 박근형은 2017. 11. 24.자 진술조서에서, 2015. 10. 26. 신청인과 김OO 감독이 공연변경 사안 논의를 위해 극단 골목길 사무실로 진술인을 찾아왔고, 당시 김OO은 예술감독 권한을 침해받은 점에 대해 매우 분개해했으며, 신청인은 진술인이 빠질 경우 공연을 안 하겠다는 의견을 누차 밝혔다고 진술(12-13면) 하였다.

(8)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7. 12. 13.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OO은 2017. 12. 13.자 진술조서에서, 2015. 10. 23. 밤늦게 장악과 이OO 과장으로부터 ‘공연의 연극적 요소 때문에 공연장 문제가 있으니 공연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8-9면)하였고, 그 다음날(2015. 10. 24.) 장악과 주OO 계장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8면)하였다.

김OO은 당시 A는 이OO 과장과 같이 공연장 조건 때문에 연극적 요소가 있는 공연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하면서(11면), 2015. 10. 26.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화면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9)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1. 4.자 제1회 진술조서

참고인 이OO은 2018. 1. 4.자 제1회 진술조서에서, 2015. 10. 23. 밤늦게 A 단장으로 부터 ‘소월산천’ 공연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A 단장이 (중략) 우리가 상반기에 공연장 음향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런 공연을 올리는 게 말이 되냐, 감독한테 전화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처음 ‘소월산천’이라는 공연이 올라가는 것을 인지했습니다”라고 진술(13-14면)하였다. 이OO은 A 지시에 따라 곧바로 김OO에게 전화해 공연장 문제가 있으니 프로그램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진술(14-15면)하였다.

(10) 참고인 OOO에 대한 2018. 1. 8.자 진술조서

참고인 OOO은 2018. 1. 8.자 진술조서에서, “적어도 공연 1주일 전까지는 모든 공연이 반드시 스태프 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 전이라도 공연 내용을 받아 공연장 문제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국악원 측이나 출연자 측에서 요청해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소월산천’처럼 사전에 확정된 공연을 공연장 여건 문제로 취소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15면)하였다.

(11) 국악원 기획운영단 장악과, 2015. 11. 풍류사랑방 금요공감 11~12월 공연계획(안)

국악원이 2017. 11. 3. 위원회에 제출한 아래 2015. 11.자 ‘풍류사랑방 금요공감 11~12월 공연계획(안) 문건’에 따르면, ‘※전 출연진 및 프로그램 교체(11월27일 제외)’라는 기재와 함께, <금요공감> 2015. 11. 6.자 공연 출연자로 ‘조혜령’이, 공연명으로 ‘조혜령의 Romantic 해금’이 기재돼 있다.

[그림-12] 국악원 기획운영단 장악과, 2015. 11.자 풍류사랑방 기획공연 금요공감 11~12월 공연 계획(안) 1면

풍류사랑방 금요공감 11~12월 공연계획안
2015. 11 기획운영단 장악과

○ 공연개요

- 공연명 : 수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금요공감>
- 일 시 : 2015년 11월 매주 금요일 / 12월 4일, 11일 금요일 오후 8시
- 장 소 :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 관람료 : 전석 2만원
 - 60% 할인 : 경로우대자 및 동반 1인, 웃가유공자 및 동반 1인, 문화재소(24세 이하) 또는 대학 학생증 소지자, 병역이탈영문가 및 동반 1인, 사회복지계층, 예술인 감소, 장애인 및 동반 1인
 - 30% 할인 : 국악지음 회원
 - 20% 할인 : 문화재단이티켓 소지자, 산로카드, 다문화가족카드 소지자, 신세계 카드 결제자, 아시아나항공 탑승권 소지고객 할인(합승7월이내), 일반 20명 이상 단체
- 후 원 : 수림문화재단
- 주 관 : 국립국악원,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주 회 : 국립국악원

○ 추진방향

- 국악과 클래식, 재즈, 대중음악, 연극, 현대무용,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의 협업(collaboration)으로, 젊은 관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
- 전통과 현대, 장르와 장르, 무대와 객석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예술가들 간의 일드 높은 예술적 교감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고자 함

○ 공연일정(안)

*전 출연진 및 프로그램 교체(11월27일 재의)

일 정	주요 출연자	공 연 명
11월6일	조계영	조계영의 Romantic 해금
11월13일	가인	가인의 북을합창 <태향(2014)>
11월20일	윤고금	윤고금의 아리랑탱고
11월27일	이주리, 정현진, 조재현	주출
12월4일	최은연	민요, 재즈와 춤추다
12월11일	김정림	해피 해금

(12) 소결

국악원 2015. 10. 27.자 및 2017. 9. 5.자 보고문건 각 기재내용, 참고인 A 진술, 신청인 진술, 신청인과 참고인 주OO 사이 통화녹음 내용, 참고인 박근형 진술, 참고인 김OO 진술, 참고인 이OO 진술, 참고인 OOO 진술, 국악원 2015. 11. 풍류사랑방 금요공감 11~12월 공연계획(안) 문건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① 2015. 10. 23.밤 참고인 이OO이 참고인 A으로부터 '예술감독에게 연락해 이 사건 공연을 조정해보라'는 취지의 전화지시를 받은 사실 ② 2015. 10. 23.밤 참고인 김OO이 참고인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공연을 양상블시나위 단독 음악공연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사실 ③ 2015. 10. 24.경 신청인이 참고인 주OO으로부터 위 ②와 동일한 취지의 공연변경 요청 전화를 받은 사실 ④ 2015. 10. 26. 신청인이 국악원 측에 이 사건 공연취소 의사를 밝힌 사실

⑤ 2015. 11. 6.자 <금요공감> 공연으로 이 사건 공연이 취소되고 ‘조혜령의 Romantic 해금’ 공연으로 대체된 사실 ⑥ 공연장 문제로 사전에 확정된 공연이 취소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사건 공연 취소 전후과정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및 은폐 여부

가. 이 사건 공연 변경요청 과정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

(1) 신청인에 대한 2017. 11. 6.자 진술조사

신청인은 2017. 11. 6.자 진술조사에서, 국악원의 이 사건 공연변경 요청과 관련해 “국악원 측에서는 박근형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습니다. 다만 ‘연출’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독 연출을 배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박근형 연출가 때문이냐고 물어봤던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8면)하였다.

(2) 신청인과 참고인 주OO 사이 통화녹음 및 이에 대한 2018. 2. 22.자 녹취록

신청인과 참고인 주OO 사이 2015. 10. 24.(추정) 통화녹음 및 이에 대한 2018. 2. 22.자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주OO은 “시나위 앙상블하고 정OO 선생님하고만 이렇게 하면 좋은 공연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연극은 하지 말고 그냥 시나위 앙상블하고 정OO 선생님 그 정도로만 하면 좋겠다는 거죠” 등 발언을 하였고, “혹시 박근형 연출 선생님 때문에 그러신가요?”라는 신청인 질문에 “그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라고 하였다(녹취록 4면).

(3)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7. 12. 13.자 진술조사

김OO은 2017. 12. 13.자 진술조사에서, “국악원 측에서는 공연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연극적 요소를 빼라는 요청만 했습니다”(10면), “<금요공감> 자체가 협업공연 취지인데 ‘연극적 요소를 뺀’ 단독공연을 하라고 한다거나, 최초에는 단독공연이 안된다고 하더니 뒤에 와서 갑자기 단독공연을 하라고 한다거나 이상한 점이 한 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중략) 유독 이 작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연극적 요소를 빼라’는 구체적 요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았습다”(13면)라고 진술하였다.

(4)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1. 4.자 제1회 진술조서

참고인 이OO은 2018. 1. 4.자 제1회 진술조서에서, A 단장이 이 사건 공연변경과 관련해 한 번도 박OO 연출가나 극단 골목길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18면)하였다.

(5) 참고인 OOO에 대한 2018. 1. 9.자 진술조서

참고인 OOO은 2018. 1. 9.자 진술조서에서, 2015. 10. 21. 혹은 10. 22. 국악원 홈페이지에 <금요공감> 2015. 11. 6.자 공연으로 앙상블시나위 및 박OO 연출가 협업공연 ‘소월산천’을 업로드했으나, 2015. 10. 23. 밤 갑자기 이OO 과장으로부터 ‘당장 위 게시물을 내리라’고 전화가 와 게시물을 내렸다고 진술(11면)하였다.

당시 이OO과의 통화내용에 관해 “앙상블시나위가 하는 공연의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물으시고, 박근형 씨가 있냐, 언제 올렸냐, 왜 보고 안했냐, 지금 뭔가 문제가 된 것 같으니 빨리 내려야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연장 문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11면)하였다. “당시 과장님도 상당히 당황하고 놀라신 목소리로 미안하다면서 전화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이OO 생각하지 못하고 지시하신대로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저도 과장님과의 통화는 처음이었고,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놀랐습니다”라고 진술(12면)하였다.

(6)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1. 10.자 제2회 진술조서

참고인 이OO은 2018. 1. 4. 제1회 조사 후 위원회에 추가진술 할 사항이 있다며 조사를 요청해와 2018. 1. 10. 제2회 조사를 하였다.

이OO은 2015. 10. 23. 밤 OOO에게 전화한 사실이 새롭게 기억났다고 하면서, “A 단장이 저에게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월산천’ 공연 홍보물을 보고나서 전화를 하여 ‘왜 보고를 안 하고 이런 작품을 올렸냐, 박근형 연출 작품이냐’ 물었던 것 같고, (중략) 저에게 홍보물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김OO 감독에게는 전화해서 이 공연이 공연장에 맞지 않으니 조정하라고 이야기해보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3면)하였다.

이에 진술인이 그날 밤 바로 OOO에게 “‘소월산천’이라는 공연 출연진이 누구냐, 거기 박근형이라는 연출가가 참여하냐, (중략) A 단장이 지금 홍보물을 내리라고 하니 내려야

겠다”고 전화를 걸었고, 그 뒤 김OO 감독에게 공연변경 요청전화를 했다고 진술(3-4면)하였다.

이OO은 “당시 A 단장이 저에게 전화했을 때 ‘박근형 연출가라는 사람은 지금 정권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작품이 우리 국악원에 올라가면 문제가 있다. 내려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도 같습니다”라고 진술(8면)하였고, 지난 2018. 1. 4. 제1회 조사에서 ‘A 단장이 이 사건 공연변경 관련 박근형 연출가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내용(본 보고서 26면, ‘Ⅲ-4-가-(4)’항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복하였다.

이OO은 A에게 전화를 받은 다음날 국악원에서 OOO 등 직원들과 ‘박근형’을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블랙리스트 논란이 된 연출가라는 사실을 알았고, 직원들끼리 ‘단장이 그래서 그렇게 지시를 했나보다’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7-8면)하였다.

(7) 참고인 주OO에 대한 2018. 1. 12.자 진술조서

참고인 주OO은 2018. 1. 12.자 진술조서에서, 2015. 10. 24. 신청인에게 공연변경 요청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대해, “제가 10. 24. 오전 출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A 단장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격앙된 목소리로 “시나위양상블 공연 무조건 내려라”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중략) 당시에는 일언반구 할 것도 없이 A 단장 지시라면 무조건 했어야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현식 대표에게 바로 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A 단장이 전화해서 ‘박근형 연출가가 들어 가면 어떻게 하나, 원장 잘릴 일 있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10-12면)하였다.

신청인과의 2015. 10. 24.경 통화내용 관련, “A 단장이 박근형 연출가 때문에 이 공연은 안 된다고 얘기했고, 이를 전달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시나위양상블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너무 미안하고, 제 입장에서는 예술은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예술 외적인 이유로 내려온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회한 같은 감정이 겹쳐져 저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13면)하였다.

(8) 참고인 A의 2018. 3. 12.자 진술서

참고인 A는 2018. 3. 12.자 진술서에서, 2015. 10. 23.~10. 24.경 국악원 담당자에게 전화해 박근형 연출가 출연 문제를 지적하며 ‘소월산천’ 홍보물 삭제 및 공연 조정(변경)을 지시한 적이 있다는 질문에, “2015.10.23.~24 경 국악원 장악과 주OO 연구관과 통화하던 중에 앙상블시나위의 공연과 관련하여 이야기한 바 있으나, 통화 내용은 질문하신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진술(1면)하였고, 특검의 A에 대한 2016. 12. 29.자 진술조서, A의 2017. 12. 14.자 진술서, 2017. 12. 15.자 녹음진술 등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인 및 국악원은 공연 2주 전이 돼서야 당초 앙상블시나위에게 요청했던 연주회가 아닌 극단과 협업하는 ‘소월산천’ 공연계획을 전달받았고, 공연장 풍류사랑방의 음향·조명 등 여건상 연극공연이 올라갈 수 없으니 주OO 계장에게 국악원장에게 보고 드린 후 당초 국악원에서 요청했던 음악중심 공연을 그대로 요청하도록 조정을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

A는 위 진술서에서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의 <금요공감> (2015.11.6.) 프로그램으로 공연 예정이었던 앙상블시나위의 공연이 다른 공연으로 대체된 것은 프로그램을 제작·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서, 박근형이라는 특정연출가로 인한 정치적 문제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4-5면)하였다.

(9) 소결

위 참고인 000 진술, 참고인 이OO의 2018. 1. 10.자 제2회 진술조서 진술, 참고인 주OO 진술을 종합하면 ① 000이 2015. 10. 21. 혹은 10. 22. 국악원 홈페이지에 ‘소월산천’ 홍보물을 업로드한 사실 ② 2015. 10. 23. 밤 A가 이OO에게 전화해 ‘박근형 연출가 작품이 국악원 공연에 올라가면 안 된다’며 홈페이지 홍보물 삭제 및 이 사건 공연조정을 지시한 사실 ③ 2015. 10. 23.밤 이OO이 000에게 전화해 국악원 홈페이지의 ‘소월산천’ 홍보물을 내리라고 지시해 000이 이를 내린 사실 ④ 2015. 10. 24. 오전 A가 주OO에게 전화해 ‘박근형 연출가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원장 잘릴 일 있냐’고 하며 이 사건 공연을 내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 진술, 신청인과 참고인 주OO 사이 통화녹음 내용, 참고인 김OO 진술, 참고인 주OO 진술을 종합하면, ⑤ 이OO은 2015. 10. 23. 김OO에게, 주OO은 10. 24. 신청인에게 각 이 사건 공연변경 요청을 하며 ‘연출 혹은 연극적 요소를 빼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참고인 A는 위 사실과 관련해 2015. 10. 23.~10. 24.경 주OO과 이 사건 공연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진술내용과 같은 통화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공연취소 이후 블랙리스트 작동 은폐 여부

(1) 국악잡지 <라라> 제8호, 정영두 안무가의 <금요공감> 공연거부 및 2015. 10. 28. 페이스북 글 게시 내용

국악잡지 <라라> 통권 제8호 40-41면에는, 정영두 안무가가 <금요공감> 2015. 10. 30.자 공연 출연자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 사건 공연취소 내용을 듣고 부당하다고 생각해 공연출연을 거부한 내용, 정영두 안무가가 국악원의 검열중단을 촉구하는 글을 2015. 10. 28. 본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¹⁷⁾ 등이 기재돼 있다.

(2) 국악원의 2015. 10. 29.자 보도자료

국악원은 2015. 10. 29.자 <“박근혜 연출, 또 다시 정부로부터 탄압 의혹” 보도 관련 국립국악원 입장> 보도자료에는 ① 국악원은 풍류사랑방 공연장 여건상 연극공연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점 ② 담당직원 퇴사로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 및 정보공유가 불충분했다는 점 ③ 국악원은 연극공연 공간 부적합성 및 공연 완성도 우려에 따라 앙상블시나위에 음악연주 중심 변경을 요청했으나 앙상블시나위가 이를 거부해 대체 프로그램으로 변경했다는 점 ④ 이 사건 공연변경은 정영두 안무가 주장과 달리 특정 연출가에 대한 탄압·검열과는 무관하다는 점 등이 기재돼있다.

(3) 국악원 페이스북 2015. 10. 29.자 및 2015. 11. 5.자 각 해명자료

국악원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¹⁸⁾에 이 사건 공연취소 관련 해명글을 2015. 10. 29. 및 2015. 11. 5. 두 차례 게시하였다.

2015. 10. 29.자 해명글은 첫문장을 제외하면 2015. 10. 29.자 보도자료 내용과 동일하다. 2015. 11. 5.자 해명글은 이 사건 공연취소가 풍류사랑방 공연장 여건에 따른 것이

17) 현재 정영두 안무가 페이스북에서는 해당 글을 찾을 수 없음

18) https://www.facebook.com/pg/gugak1951/posts/?ref=page_internal

고 특정연출가 배제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재차 밝히며, ① 국악원은 <금요공감> 2015. 4. 3.~4. 5.자 프로그램으로 이미 박근형 연출작품을 올렸다는 점 ② 담당직원 퇴사 외에도 담당계장 및 과장의 한불수교 행사, 한일수교 행사 등 해외출장에 따라 공연 협의 및 정보공유가 어려웠다는 점 등이 추가로 게재돼 있다.

[그림-13] 국악원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2015. 10. 29.자 해명글



국립국악원
(National Gugak Center)
@gugak1951

홈

게시물

동영상

사진

리뷰

정보


국립국악원 공식 유튜브

국립국악원 공식 트위터

국립국악원 공식 인스타...

커뮤니티

페이지 만들기



국립국악원(National Gugak Center)
2015년 10월 29일 · 🌐

어제 심야 시간에 정리해 게재한 정영두 님의 게시물에 관한 국립국악원의 의견에 일부 추가 사안의 확인 필요성이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 보완한 내용을 새롭게 게재합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지난 3월부터 매주 금요일 풍류사랑방(130석)에서 <금요공감>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금요공감>은 국악과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국악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예술 애호가들을 국악 관객으로 개발하기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3월 이후 여러 프로그램들을 무대에 올린 결과 연극은 이 공간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류사랑방은 자연음향 국악 연주를 위해 설계되어 음향과 조명 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공연장입니다. 이 같은 공간 특성상 연극의 경우 대사 전달, 조명 효과 등의 미흡으로 인해 완성도 높은 공연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논의 대상이 된 11.6(금) <양상불시나위> 공연은 연초에 기획했던 공연이 공연자 측 사정으로 취소됨에 따라 8월 말에 새로 기획했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는 <양상불시나위> 측과 국립국악원 담당직원간에 논의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게 되어 동 공연의 방향이나 세부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와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국립국악원에서는 <양상불시나위>와 극단 골목길의 콜라보레이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세부 공연계획에 대해 연극 공연의 공간 부적합성 및 공연의 완성도에 대한 우려에 따라 동 공연을 <양상불시나위>의 음악연주 중심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양상불시나위> 측에서는 음악연주 중심의 공연은 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해왔고, 이에 국립국악원에서는 대체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양상불시나위> 측과 공연에 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충분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련된 예술가 및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국립국악원에서는 <양상불시나위> 측에 대해 연습과정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해드리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공연의 변경은 정영두님의 주장과는 달리 "특정 연출가를 겨냥한 탄압"이나 "예술 검열"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공연장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작·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 변경과 관련하여 국립국악원은 박근형 연출가와는 일체 접촉하거나 의견을 전한 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영두님께서 이번 사안을 이유로 당초 출연 예정이었던 10.30.(금) <금요공감> 공연에 대해 출연 거부를 통보하였습니다. (10.27) 동 공연은 작곡가, 연주가, 무용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오고 있는 쟈 쉘(Jen Shyu)을 중심으로 국내 예술가들이 협업하는 공연으로서, 정영두님의 출연 부분을 일부 변경하여 당초 예정했던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립국악원은 그동안 <금요공감> 무대를 통해 국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예술영역의 실험을 이어왔습니다. 좀 더 완성도 높은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향후에는 좀 더 철저한 기획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밑거름으로 상아 앞으로도 예술가들에게는 최고의 무대를, 관객들에게는 최고의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해가겠습니다.

👍 좋아요
💬 댓글 달기
🔗 공유하기

[그림-14] 국악원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2015. 11. 6.자 해명글



국립국악원
(National Gugak Center)
@gugak1951

홈

게시물

동영상

사진

리뷰

정보

국립국악원 공식 유튜브

국립국악원 공식 트위터

국립국악원 공식 인스타...

커뮤니티

페이지 만들기


국립국악원(National Gugak Center)
 2015년 11월 5일 · 🌐

정영두님의 글과 관련하여 국립국악원의 입장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프로그램으로 11월 6일 개최 예정이었던 <앙상블시나위>의 공연과 관련하여 <앙상블시나위>와 정영두님을 비롯해 이번 일에 관계된 모든 예술가 및 관계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앙상블시나위> 공연 취소와 관련하여 정황상 여러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특정 연출가를 정치적 이유로 배제하려는 결정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불과 6개월 전에 <금요공감> 프로그램 중 하나로 박근형님께서 연출하신 작품을 무대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4월 3~5일, 소리달 완창 프로젝트) 만약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면 4월에도 이 공연을 국립국악원 주최로 무대에 올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풍류사랑방이라는 공간의 공연 여건이었습니다. 소편성의 국악 연주를 위해 만들어진 이 공간의 음향 특성상 악기 연주와 노래 혹은 대사를 같이 무대에 올리기가 대단히 힘든 형편입니다. 아울러 전통 사랑방을 재현하여 밝고 어두운 정도의 부분조절만 가능한 조명 여건으로 인해 극적 효과를 살려나기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대관만 하거나 지원사업을 하는 입장이었다면 이러한 여건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금요공감은 비록 객원 예술감독의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최상의 공연을 관객에게 선보여야 하는 무대입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러한 국립국악원의 방침에 대해 공연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번 글에서도 밝혔던 담당직원의 급작스런 퇴사 외에도,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프랑스 공연, 유럽 4개국 순회 공연,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일본 공연 등 연이은 해외 공연으로 인해 풍류사랑방 <금요공감>의 담당계장과 과장이 9~10월 중 장기간 해외출장을 하게 되어 공연기획의 세부적인 방향과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영두님께서 국립국악원이 이번 일과 관련하여 박근형님을 접촉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객원 예술감독께서 만나셨던 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국립국악원에서 사전에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소속 직원들에 의한 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이나 진행과정에 대해 이견이나 시각자가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세간에서 짐작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특정 예술가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벌어진 상황은 아니라는 점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무대에 오르지 못한 <앙상블시나위> 팀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립국악원에서 적합한 공연장과 시기 등을 협의하여 다시 초청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번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향후에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밑거름으로 삼아 예술가들에게는 최고의 무대를 관객들

(4)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1. 9.자 진술조서

참고인 이OO는 국악원 장악과 홍보마케팅 팀장으로, 해당사건 당시 이 사건 공연취소 관련 언론대응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해명자료 작성과정에서의 역할분담

이OO는 2018. 1. 9.자 진술조서에서, “저는 (해명자료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과에서 자료를 전달받아 게시하고 배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금요공감> 담당 연구관이셨던 주OO 계장님이 상황을 파악하신 뒤 1차 초안을 쓰셨습니다. 그 뒤 A 단장님께서 1차 초안이나 홍보자료 제목 등을 상당히 꼼꼼하게 보시고 문구 수정 등 직접 수정하신 뒤에 저에게 전달해주신 것입니다”, “주OO 계장은 (중략) 사건 경과보고와 내용과악 등을 담당하였고, A 단장님은 위 사안 처리에 대한 모든 판단, 지시·결정 등 총괄적 방향설정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당시 국악원 입장에 관한 해명 논리 마련, 문구 작성 등에 대해 A 기획운영단장의 주도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3-4면)하였다.

(나) 2015. 10. 29.자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과정

이OO는 위 진술조서에서, 2015. 10. 29.자 보도자료는 정영두 안무가의 2015. 10. 28.자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한 대응자료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면서, 주OO 계장으로부터 위 보도자료 파일을 전달받아 10. 29. 오후 3:45경 언론사에 배포했다는 취지로 진술(6-7면)하였다. 당시 주OO 계장으로부터 2015. 10. 28. 및 10. 29. 각 받았다는 2개 메일과 진술인이 2015. 10. 29.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송부한 1개 메일을 그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국악원 페이스북 2015. 10. 29.자 해명자료 작성 및 게시 과정

이OO는 위 진술조서에서, 2015. 10. 29. 새벽 주OO 계장으로부터 ‘페이스북 및 언론보도 대응자료’라는 메일을 받았고, 이를 온라인 홍보담당자가 국악원 페이스북에 처음 올렸으며, 같은 날(10. 29.) 오후 3:45 주OO으로부터 최종수정 보도자료를 받아 이를 페이스북에 다시 게시하고 언론에도 배포했다고 진술(6면)하면서, 당시 주OO 계장으

로부터 2015. 10. 29. 각 받았다는 2개 메일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이OO는 “A 단장님이 워낙 페이스북에 관심이 많으셔서 최초 게시물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게시글을 올리게 될 경우 수정했다는 사실까지 게시되므로 그러지 말고 삭제하고 다시 올리라는 지시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최초부터 마련됐던 대응논리는 풍류사랑방 공연장의 음향 문제였고”라고 진술(10면)하였다

(라) 국악원 페이스북 2015. 11. 5.자 해명자료 작성 및 게시 과정

이OO는 위 진술조서에서, 국악원의 2015. 10. 29.자 보도자료 배포 및 페이스북 해명글 게시 후 정영두 안무가의 1인 시위, 김OO 감독 사임 등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자, 국악원은 2015. 11. 5.자 페이스북 해명글을 추가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때에도 주OO 계장이 위 해명글 파일이 첨부된 메일(입증자료 제출)을 진술인에게 보내와 이를 그대로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10-11면)하였다.

(마) 박근형 연출가 참여 문제에 대한 논의 여부

이OO는 위 진술조서에서, 해명자료 작성과정 중 박근형 연출가 등 문제가 논의된 적 없느냐는 질문에, “A 단장님도 당시 그런 말씀은 안 하였고, 그 내용이 논의선상에 올랐던 적은 없습니다. 주로 논의내용은 공연장 음향 등 공간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A 단장님이 너무나 단호하게 공연장 문제 부분을 강조하셨고, 이미 공연장 문제를 논리로 세운 방침을 강하게 세운 뒤 지시를 내리신 상태였어서, 그 동안의 A 단장님의 업무스타일을 아는 입장에서는 그 외의 내용에 대해 인지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12면)하였다.

(5) 참고인 OOO에 대한 2018. 1. 9.자 진술조서

참고인 OOO은 2018. 1. 9.자 진술조서에서, A 단장이 2015. 10. 26. 이 사건 공연진행 경위를 묻기 위해 진술인을 불러 보고한 적이 있고, 당시 A가 앙상블시나위 측과 진술인이 자료취합을 위해 주고받았던 메일을 가져와보라고 하여, 2015. 10. 19.자 메일 및 2015. 10. 22.자 메일을 전달했다고 진술(12면)하였다.

(6)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1. 10.자 제2회 진술조서

참고인 이OO은 2018. 1. 10.자 제2회 진술조서에서, OOO이 2015. 10. 26.경 A에게 이 사건 공연진행 경위 보고를 하러 간 자리에 함께 참석하였고, 이때에는 A가 박근혜 연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공연장 문제만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8면)하였다.

(7) 참고인 주OO에 대한 2018. 1. 10.자 진술조서

(가) 해명자료 작성과정에서의 역할분담

주OO은 위 진술조서에서, 정영두 안무가의 검열의혹 추궁에 따라 국악원에서는 A 단장 지시로 해명자료 작성 등 대응절차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A은 총괄적 방향지시, 진술인은 경과보고 및 초안 작성, 이OO는 자료 게시 및 배포 역할을 각 담당했다고 진술하면서 “초안의 경우 이미 A 단장이 위 대응에 대한 쟁점 부분을 정리해놓은 메모 글이 있었고 이를 형식에 맞게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16면)하였다.

(나) 2015. 10. 29.자 보도자료 작성 과정

주OO은 위 진술조서에서, “A 단장이 주요 쟁점과 대응논리들을 먼저 손글씨로 작성 해주었고, 제가 그것을 받아서 보도자료 형식에 맞게 작성하는 워드작업을 한 뒤 다시 단장에게 가져가 보고 드리면, 단장이 처음의 쟁점과 작성된 내용이 일치하는 지 대조작업을 거치고 일부 문구들을 수정하는 작업을 몇 차례 거치면서 나온 것입니다”, “A 단장으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중략) 박근혜 연출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 했었습니다. 위 보도자료 초안에 기재된 공연장 여건에 대한 이야기나, 연극공연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 등은 모두 A 단장이 추후 대응논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안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17-18면)하였다.

(다) 국악원 페이스북 2015. 10. 29.자 해명자료 작성 과정

주OO은 위 진술조서에서, 2015. 10. 29. 자정 넘어서까지 사무실에 남아 A의 전화지시를 받으며 보도자료 수정작업을 했고, 수정된 글이 2015. 10. 29. 새벽 국악원 페이스

북에 최초 게시됐으며, 이후 A이 수정할 부분을 지시해 최종 수정된 글이 2015. 10. 29. 오후 페이스북에 다시 게시되고 언론에도 배포됐다는 취지로 진술(18-19면)하였다.

(라) 국악원 페이스북 2015. 11. 5.자 해명자료 작성 과정

주OO은 위 진술조서에서, 2015. 11. 5.자 해명자료 작성을 처음 지시한 것은 김해숙 원장이었고, 이때는 A가 초안을 만들어주는 절차는 없었으며 진술인이 이전 글을 참조해 초안을 작성한 뒤 김해숙 원장, A 단장에게 보고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OO은 “이 시기쯤 돼서 단장님은 이 사건에서 살짝 빠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원장님은 이 시기 김OO 감독을 직접 만나기도 하면서 예술가들과 화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20-21면)하였다.

(마) 박OO 연출가 참여 문제에 대한 논의 여부

주OO은 위 진술조서에서, 해명자료 작성과정 중 박근형 연출가 등 문제가 논의된 적은 없느냐는 조사자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해명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느낌은, A 단장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 차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를 전부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라고 진술(22면)하였다.

(8) 소결

국악잡지 <라라> 제8호 40-42면, 49면 각 기재내용, 국악원의 2015. 10. 29.자 보도자료 기재내용, 참고인 이OO 진술, 참고인 OOO 진술, 참고인 주OO 진술을 종합하면 ① 2015. 10. 28. 정영두 안무가가 페이스북에 국악원 검열중단 촉구 글을 게시한 사실 ② 2015. 10. 28. A 단장 지시로 주OO, 이OO가 국악원 해명자료 마련에 들어간 사실 ③ 위 해명자료 작성과정에서 A가 총책임자, 주OO이 글 작성, 이OO가 자료배포 역할을 담당한 사실 ④ A가 미리 작성한 주요 쟁점 및 대응논리에 따라 주OO이 작성한 해명글이 2015. 10. 29. 국악원 페이스북 게시글 및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실 ⑤ 이후 주OO이 초안을 작성해 A와 김해숙 보고를 거친 글이 2015. 11. 5. 국악원 페이스북에 추가 게시된 사실 ⑥ 위 보도자료 및 국악원 페이스북 게시글 요지는 ‘이 사건 공연취소는 공연장 여건에 따른 것이고 특정 연출가 검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이 사건 블랙리스트 작동의 주체

가. 문체부의 지시 혹은 외압 여부

(1) 이 사건 공연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기재 여부

앞서 살핀바와 같이, 위원회가 확보한 문체부 등 블랙리스트 문건에는 이 사건 공연을 포함해 국악원 소관 사업이나 신청인(양상블시나위) 기재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국정원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중 ‘(붙임 16)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중 하나에 박근형 연출가가 기재된 사실, 문체부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중 “기존관리 리스트-149명”에 ‘극단 골목길’이 ‘연극-35명’ 중 하나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본 보고서 8면, ‘Ⅲ-1-다’항 내용)되었다.

(2) 국악원 관련자 진술

(가) 참고인 A의 2017. 12. 14.자 진술서

참고인 A는 2017. 12. 14.자 진술서에서, “문체부 담당자와는 동 사안에 대해 논의한 바 없습니다”라고 진술(21면)하였다.

(나) 참고인 A의 2017. 12. 15.자 녹음진술 및 이에 대한 2017. 12. 21.자 녹취록

참고인 A의 2017. 12. 15.자 녹음진술 및 이에 대한 2017. 12. 21.자 녹취록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명단 혹은 배제 지시가 국악원에 내려온 적 있냐는 질문에 “저한테는 전혀 없었어요. 아마 예술국에서 저한테 감히 못했을 거예요. 거기 뭐 다 대충 후배들이고 어쨌든 저한테 그걸 얘기할 정도의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 없었을 것 같고”라고 진술(녹취록 41면)하였다.

(다)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1. 4.자 제1회 진술조서

이OO은 2018. 1. 4.자 진술조서에서, 국악원 사업진행 관련 문체부의 역할에 대해 “크게 관여나 간섭은 없습니다. 간혹 장·차관을 모시거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어 장관에게 보고를 할 경우 등 의전 관련한 일들에서 일정 조율이나 내용 보고 등 업무 협조가

간혹 있을 뿐, 사업진행은 국악원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합니다”라고 진술(4면)하였고, 이 사건 공연취소 관련 문체부의 지시나 관여 여부에 대해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터지고 예술인들의 시위나 공연 보이콧이 이어지면서, 관련 경위를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 정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18-19면)하였다.

(라) 참고인 000에 대한 2018. 1. 8.자 진술조서

000은 2018. 1. 8.자 진술조서에서, “제 선에서 본부와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공공기관 업무 경험에 비추어볼 때 국악원의 경우 사업진행에 있어 문체부의 관여나 직접적 지도·감독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4면)하였다.

(마) 참고인 주00에 대한 2018. 1. 12.자 진술조서

주00은 2018. 1. 12.자 진술조서에서, 진술인 경험상 문체부 담당자가 국악원 진행 사업에 관여한 바는 없었다고 진술(6면)하였고, ‘소월산천’ 공연변경 관련 문체부 지시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15면) 하였다.

(바) 참고인 김해숙에 대한 2018. 1. 18.자 진술조서

김해숙은 2018. 1. 18.자 진술조서에서, 2017. 2. 7. 기자간담회에서 국악원의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문체부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¹⁹⁾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문체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압력을 주거나 어떤 지시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악원이 어쨌든 문체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와 같은 기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 표명이었습니다. 문체부는 국악원의 구체적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진술(12면)하였다.

19) 김해숙은 2017. 2. 7. 국악원에서의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결국 문체부 측의 압력이 있었고 국악원은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신지”라는 기자의 질문에 “분위기 있었죠. 네. 있었어요”라고 대답하였다(2017. 9. 5.자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관련 블랙리스트 보고 34면, ‘2017년도 국립국악원 기자간담회 상황 보고’).

(3) 문체부 관련자 진술

(가) 김기춘 외 3인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 공판기록 중 참고인 B에 대한 2017. 4. 20.자 증인신문 녹취서

참고인 B은 2015. 7. 31.~ 2017. 2. 2. 문체부 예술정책관으로 재직한 자이다.

B은 김기춘 외 3인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 공판기록 중 B에 대한 2017. 4. 20.자 증인신문 녹취서²⁰⁾에서, 국악원이 ‘소월산천’ 공연에서 ‘박근형’ 연출배제를 요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블랙리스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였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소월산천 공연 관련해서 국립국악원에서 공연이 일부 문제제기로 인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문체부의 요구가 아니라 국악원 자체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국악원의 원장이라든가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임OO에 대한 2018. 1. 23.자 제1회 진술조서

참고인 임OO는 2014. 10.~2016. 6. 30.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다.

임OO는 2018. 1. 23.자 제1회 진술조서에서, 공연전통예술과 김OO 사무관으로부터 이 사건 공연취소 보고를 받았고, 당시 진술인이 이와 관련해 A와 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임OO는 “A 국장도 청와대에 있으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13면)하였다.

(다)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2. 7.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OO은 2013. 12. 13.~2016. 5. 31.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으로 재직하였고, 당시 국악원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김OO은 2018. 2. 7.자 진술조서에서, “사전에 (문체부에서) 그 공연 관련하여 어떤 지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연이 취소된 후 국악원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던 중에 주OO 계장으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3면)하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형사소송기록 공판기록 2696-2698쪽

였다. 김OO은 이를 임OO 과장 및 B 국장에게 보고하였고, “과장님은 빨리 정리해서 국장님께 보고 드리라고 했고, 국장님은 왜 이런 내용을 미리미리 보고하지 않았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중략) 그러나 문체부에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국악원 자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경과에 대해 상시 사전보고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5면)하였다.

김OO은 사안파악을 위해 A와 통화한 적이 있고, A는 당시 이 사건 공연이 <금요공감> 취지에 맞지 않고 공연장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주로 언급하고 박근형 연출가 관련 언급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5-6면)하였다.

김OO은 “2013년 박근형 연출가 <개구리> 사건 이후로, 이런 사안에 대해 문체부 내부, 특히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청와대 등 윗선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나 우려가 형성된 분위기였습니다”라고 진술(5-6면)하였다.

(라) 참고인 임OO에 대한 2018. 2. 8.자 제2회 진술조서

참고인 임OO는 2018. 2. 8.자 제2회 진술조서에서, “사전에 문체부에서 그 공연 취소나 변경에 관한 어떤 지시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문체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면 애초에 그 공연에 대한 사전계획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3면)하였다.

임OO는 위원회 조사 1회 진술(2018. 1. 23.자)에서 “A와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본 보고서 37면, ‘Ⅲ-4-가-(3)-(나)’항 내용)과 관련, 사전에 진술인이 A와 통화해 공연취소를 협의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위 공연이 국악원에서 문제되고 조치가 취해지는 과정 중에 김OO 사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A 단장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되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를 물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A 단장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4-5면)하였다.

진술인은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이 공연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묻기 위해 전화를 했었고, 이미 A 단장이 그 점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어쨌든 위 공연에서 블랙리스트인 박근형 연출가가 문제된다는 점이 진술인과 A 단장 사이 공유됐던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진술(4면)하였다.

(마) 참고인 B에 대한 2018. 3. 23.자 진술조서

참고인 B는 2015. 8. 1.~ 2017. 3.경 문체부 예술정책관으로 근무한 자이다.

B는 2018. 3. 23.자 진술조서에서, 이 사건 관련해 문체부가 사전에 국악원에 지시한 내용은 없으며, “국악원에서 문제가 생긴 이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안에 대해 처음 인지하였고”라고 진술(10면)하였다. 당시 김OO 사무관이 국악원 측에 사안과 악을 한 뒤 B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 공연이 음악과 다른 장르가 협업을 하는 공연이었고, 공연장 음향 문제 때문에 음악공연이 아닌 것을 올릴 수 없어서 발생한 일이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A 단장과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A 단장도 이건 공연장 문제와 공연 퀄리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검열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었습니다”라고 진술(11면)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연이 취소된 후에는 다른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국악원에 내린 적도 없다고 하면서, “국악원장이 따로 있고, A 기획운영단장도 있기 때문에 문체부 차원에서 따로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사안 파악만 하는 것에서 그쳤습니다”라고 진술(11면)하였다. 위 사안을 장관에게 보고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11면)하였다.

(4) 소결

국정원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문건, 문체부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문건에 따르면 ① 박근형 연출가와 극단 골목길 이 각 국정원 및 문체부 블랙리스트 명단 등에 각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참고인 A, 참고인 이OO, 참고인 OOO, 참고인 주OO, 참고인 김해숙 등 국악원 관련자 진술 및 참고인 B, 참고인 임OO, 참고인 김OO 등 문체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② 일반적으로 국악원 사업진행에 문체부 지도감독이나 관여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 ③ 이 사건 공연변경 및 공연취소 관련 문체부 담당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블랙리스트 배제지시는 없었다는 사실 ④ 문체부는 이 사건 공연취소 후 중간보고를 받고 국악원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한 사실 ⑤ 문체부 임OO 과장은 A 단장과 통화하며 이 사건 공연에서 박근형 연출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사실 ⑥ 이 사건 공연취소 후 이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문체부의 지시는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사건 공연 관련 국악원 의사결정구조

(1) 참고인 A의 2017. 12. 14.자 진술서 및 2018. 3. 12.자 진술서

참고인 A은 2017. 12. 14.자 진술서에서 "통상적으로 공연에 관한 부분은 국악원장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당자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최종적인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라고 진술(21면)하였다. A는 2018. 3. 12.자 진술서에서도 "국립국악원의 공연은 국악원장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당자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최종적인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라고 진술(4면)하였다.

(2) 참고인 A의 2017. 12. 15.자 녹음진술 및 이에 대한 2017. 12. 21.자 녹취록

참고인 A의 2017. 12. 15.자 녹음진술 및 이에 대한 2017. 12. 21.자 녹취록에 따르면, <금요공감> 실무진행은 김OO 예술감독과 장악과 직원들이 하고 진술인은 디테일한 부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녹취록 129-131면)하였다.

김해숙 국악원장과의 역할분담 관련해서는 "(중략)행정적인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한테 위임을 해 주셨었어요. (중략) 예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쨌든 의견을 낸 부분도 있었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원장이 사실은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챙기시거든요. (중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원장님이 갖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라고 진술(녹취록 155면)하였다.

(3)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7. 12. 13.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OO은 2017. 12. 13.자 진술조서에서, "김해숙 국악원장의 경우 각 극장과 국악원 산하단체들을 총괄하는 입장이었고, 구체적으로 실무에 관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A 기획운영단장의 경우 성향상 기획이 성격이 강한 행정가로 국악원에 와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하면서 국악원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운영단장이 실무선에서 출연진 섭외, 공연기획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라고 진술(3면)하였다.

김OO은 김해숙 국악원장은 당시 해외에 있어 이 사건 공연변경 사안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 없고, 공연이 취소된 후 2015. 11. 10. 처음 만났다고 하면서, 당시 김해숙은 "이 사안 진행에 대해서는 A 단장이 전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인이 부재하

고 A 단장에게 일을 일임한 상황에서 그 판단과 결정에 대해 본인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12면)하였다.

(4)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1. 4.자 제1회 진술조서

참고인 이OO은 2018. 1. 4.자 제1회 진술조서에서, “당시 사업 관련해서 최종 결정은 A 단장이 다 했습니다. <금요공감> 자체도 A 단장이 기획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4면), “김OO 감독이 주도적으로 했지만, (중략) A 단장과 협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중략) 김해숙 원장의 경우, 단지 보고를 받는 수준이었고 대부분은 A 단장의 결정에 일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김해숙 원장도 함께 공연을 많이 보았고 사후적으로 리뷰 등을 적극적으로 하긴 했지만, 사전 섭외나 기획 과정에서 강하게 의견을 제기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A 단장이 워낙 <금요공감>에 대해 자부심이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A 단장이 많은 부분 관여했습니다”라고 진술(6면)하였다.

이OO은 김해숙 국악원장은 해외출타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연이 취소되고 정리되는 시점에 사후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16-17면)하였다.

(5) 참고인 OOO에 대한 2018. 1. 8.자 진술조서

참고인 OOO은 2018. 1. 8.자 진술조서에서, “특히 <금요공감> 같은 경우 A 단장님이 워낙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프로그램이어서 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거나 지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대부분 A 단장님이 관여하셨습니다”라고 진술(4면)하였고, 김해숙 원장은 주로 기관 차원의 예술단 공연, 외국공연들 위주로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5면)하였다.

(6)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1. 9.자 진술조서

참고인 이OO는 2018. 1. 9.자 진술조서에서, 이 사건 공연취소 후 해명자료 작성 관련, A 단장과만 논의했고 김해숙 원장은 당시 미국 출장중이어서 상세히 보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12면)하였다.

(7) 참고인 주OO에 대한 2018. 1. 12.자 진술조서

참고인 주OO은 2018. 1. 12.자 진술조서에서, “(중략) 김해숙 원장의 경우 국악원 기획공연 등 대규모 단위 공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금요공감> 등 상시공연에 대해서는 A 단장이 관여하고 원장은 A 단장에 일임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라고 진술(9면)하였다.

이 사건 공연변경 사안에 김해숙 원장 지시는 없었냐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발단은 A 단장의 전화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보고는 하였냐는 질문에 “예, 경과보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10. 24. 전후로 김해숙 원장님은 공연차 미국에 나가 계셔서 바로 보고는 못 드렸고, 돌아오신 뒤 사후보고를 드렸습니다”라고 진술(14면)하였다.

(8) 참고인 김해숙에 대한 2018. 1. 18.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해숙은 2018. 1. 18.자 진술조서에서, “(중략) A 단장의 경우 행정 뿐 아니라 공연·예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식견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단장과 원장이 함께 협의하고 조율하여 결정되는 사안이 많았습니다”라고 진술(4면)하였다.

김해숙은 2015. 9. 16.~9. 22.경 한불수교 종묘제례악 행사준비 건으로 프랑스 파리에 있었고, 2015. 10. 19.~10.말경 2015. 10. 24.자 국제연합일 행사를 위해 미국에 있었으며, 이 사건 공연의 박근형 연출가 등 협업사실 및 공연내용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연변경 및 취소 사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없으며, 2015. 10.말경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중 A 전화를 받고 처음 이 사건 공연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5-6면)하였다. 당시 A와의 통화에서 박근형 연출가 협업 문제가 언급된 적 없었냐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공연장 문제만 언급됐습니다.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김해숙은 공연취소 후 국악원의 해명글 작성 등 사안에 대해 주OO 계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으나, 진술인은 작성과정에 참여한 바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진술(8-9면)하였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저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계획됐던 공연이 무산된 것은 연주자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일이므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차라리 무대응이 가장 나은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9면)하였다.

(9) 소결

참고인 A는 김해숙 국악원장이 국악원 공연 관련 최종결정권을 가졌고 A는 주로 행정적 부분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참고인 김OO 진술, 참고인 이OO 진술, 참고인 OOO 진술, 참고인 이OO 진술, 참고인 주OO 진술, 참고인 김해숙 진술을 종합하면, ① 김해숙은 기관차원의 대규모 공연에 주로 관여하였고, A는 <금요공감> 등 상시공연에 주로 관여했다는 사실 ② A가 <금요공감>을 기획하였고, 출연진 섭외, 프로그램 기획 등 실무진행에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 ③ 김해숙은 이 사건 공연취소 사안에 대해 2015. 10. 말경 처음 보고받은 사실 ④ 김해숙은 이 사건 공연 취소 사안에 관해 A에게 전권을 일임하고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A 기획운영단장의 권한 및 장악력

(1)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1. 4.자 제1회 진술조서

참고인 이OO는 2018. 1. 4.자 진술조서에서, “행정 하시던 분이 오셔서 예술인 역할을 하면서 국악원의 기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니 원장과의 갈등이나 국악원 내부에서 동요가 다소 있었습니다. A 단장의 경우 국악원의 기존 업무스타일이나 관행을 신경 쓰지 않고, 아는 사람을 섭외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업무할 때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새롭게 생긴 기획운영단장 제도가 가진 폐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원들이 200여명 정도가 있는데 그런 고위 공무원이 단장 직위를 맡아 권한 행사를 하면, 원장과의 권한 분리도 명확하지 않고, 고위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할 여지나 부당하게 행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라고 진술(19면)하였다.

(2)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1. 9.자 진술조서

참고인 이OO는 2018. 1. 9.자 진술조서에서, “(중략) 기획운영단장 제도 자체를 부정할 순 없지만, 좀 더 국악원장이나 국악원 내부의 예술적 소견이나 권한을 존중해줄 수 있는 분이 단장 자리에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획운영단장 자리가 원장의 행정처리 보완 측면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라고 진술(14면)하였다.

(3) 참고인 000에 대한 2018. 1. 9.자 진술조서

참고인 000은 2018. 1. 9.자 진술조서에서, “(중략) 국악원의 경우 기획운영단장이 있어서 국악원장의 지시와 단장님의 지시내용이 다소 다를 경우 어떤 내용을 따라야 할지 실무자 입장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업무정체가 일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특히 A 단장님 같은 경우 이전의 다른 단장들보다 더욱 공연이나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행정적 부분을 넘어선 국악원 공연 기획이나 운영 부분에 많은 권한을 행사하셔서 실무자로서 쉽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상황을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기획운영단장의 제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단장 자리에 어떤 성향의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실무자 입장에서는 업무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16면)하였다.

(4) 참고인 주00에 대한 2018. 1. 12.자 진술조서

참고인 주00은 2018. 1. 12.자 진술조서에서, “당시 요일별 상설 프로그램 자체가 A 단장의 아이디어로 기획되었고, 그 진행의 큰 그림도 우선은 A 단장의 계획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끼리는 ‘A 기획’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장악과에서는 그 짜여진 계획에 맞춰 홍보물 제작, 공연 리허설 일정 조율, 사례금 지급 등 순수 절차적인 부분을 진행하였습니다”, “A 단장의 경우 <금요공감> 뿐 아니라 국악원 사업 전반에 대해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중략) 그러다보니 공연기획이나 사업진행에 있어 점차적으로 A 단장 지시에 의존하거나 A 단장이 주도하는 분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4면, 7면)하였고, 직원들이 A 단장 앞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진술(18면)하였다.

(5) 소결

참고인 이00 진술, 참고인 이00 진술, 참고인 000 진술, 참고인 주00 진술을 종합하면, ① A가 국악원 행정 뿐 아니라 공연내용, 사업운영 등 광범위한 부분에 관련한 사실, ② 국악원 내 A 주도의 분위기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이 사건 공연의 취소 경위

이 사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①부터 ⑥까지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1) 신청인(양상블시나위)은 2015. 8.말경 국악원으로부터 2015. 11. 5.자 <금요공감>에서 타 장르와의 협업공연을 해줄 것을 제안 받은 뒤 2) 2015. 9.초 김OO 감독, 박근형 연출가 등과 ‘소월산천’ 공연을 협의했고 3) 국악원 담당직원은 2015. 10.초경 ‘소월산천’ 공연정보를 전달받고 2015. 10.중순경까지 홍보물 제작 등 준비를 했으나 4) 공연 2주 전 국악원 과장 및 계장은 A 단장의 지시로 신청인 및 김OO 감독에게 연출 및 연극요소를 뺀 단독음악공연 변경요청을 했고 5) 이에 신청인이 공연취소 의사를 밝혀 이 사건 공연이 취소된 사실 6) 공연장 문제로 사전에 확정된 공연이 취소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참고인 김OO이 2015. 8. 26.~8. 27.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연섭외를 하며 타 장르와의 협업공연을 요청한 사실(신청인 진술, 참고인 김OO 진술, 참고인 김OO과 신청인 사이 카톡메시지 내용)
- ② 참고인 이OO은 참고인 OOO에게 이 사건 공연으로 협업공연 섭외를 지시한 사실(참고인 김OO과 참고인 OOO 사이 카톡메시지 내용, 참고인 이OO 진술)
- ③ 2015. 9. 1. 예술감독과 출연자들 사이 이 사건 공연 프로그램으로 ‘소월산천’이 협의된 사실(신청인 진술, 참고인 김OO 진술, 참고인 박근형 진술, 참고인 김OO과 신청인 사이 2015. 9. 1.자 카톡메시지 내용)
- ④ 2015. 9. 25.경까지 국악원에는 이 사건 공연 참여자(양상블시나위, 박OO 연출가) 정보만 전달되었고, 공연내용, 공연명(‘소월산천’) 등 정보는 전달되지 않은 사실(국악원 2015. 9.자 풍류사랑방 기획공연 금요공감 9-12월 공연계획(안) 기재내용, <금요공감> 2015. 11.~12. 공연 업무인수인계 문건 기재내용, 참고인 이OO 진술, 참고인 OOO 진술, 참고인 OOO 진술)
- ⑤ 2015. 10.초경 이 사건 공연내용, 공연명 등이 국악원 담당자(OOO)에게 처음 유선연락을 통해 전달됐고, 2015. 10. 19.자 및 2015. 10. 22.자 메일은 홍보물 제작

- 을 위해 전달된 메일이라는 사실(2015. 10. 19.자 메일 및 첨부자료 기재내용, 2015. 10. 22.자 메일 및 첨부자료 기재내용, 참고인 000 진술)
- ⑥ 2015. 10. 23.밤 참고인 이00이 참고인 A으로부터 ‘예술감독에게 연락해 이 사건 공연을 조정해보라’는 취지의 전화지시를 받은 사실(참고인 이00 진술)
- ⑦ 2015. 10. 23.밤 참고인 김00이 참고인 이00으로부터 ‘이 사건 공연을 앙상블시나위 단독 음악공연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사실(참고인 이00 진술, 참고인 김00 진술)
- ⑧ 2015. 10. 24.경 신청인이 참고인 주00으로부터 위 ⑦과 동일한 취지의 공연변경 요청 전화를 받은 사실(신청인 진술, 신청인과 참고인 주00 사이 통화녹취록)
- ⑨ 2015. 10. 26. 신청인이 국악원 측에 이 사건 공연취소 의사를 밝힌 사실(신청인 진술, 참고인 박00 진술)
- ⑩ 2015. 11. 6.자 <금요공감> 공연이 ‘조혜령의 Romantic 해금’ 공연으로 대체된 사실 (국악원 2015. 11. 풍류사랑방 금요공감 11~12월 공연계획(안) 문건 기재내용)
- ⑪ 공연장 문제로 사전에 확정된 공연이 취소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사실(참고인 000 진술)

한편, 국악원 2015. 10. 27.자 및 2017. 9. 5.자 보고 문건 각 기재내용, 참고인 A 진술에 따르면, 국악원은 이 사건 공연으로 앙상블시나위의 단독 음악연주 공연을 의뢰했고 공연 2주 전(2015. 10. 22.) 처음 출연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연내용을 전달받아 부득이 공연변경 요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위 수집자료 및 관련자 진술에 따른 인정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는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공연 취소 전후과정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및 은폐 여부

이 사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①부터 ⑪까지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1) A 기획운영단장은 공연 2주 전 국악원 과장 및 계장에게 이 사건 공연의 박근형 연출가 협업사실을 문제 삼아 이 사건 공연 조정을 지시하였고 2) 이에 국악원 직원, 과장, 계장 등이 업로드된 ‘소월산천’ 홍보물을 삭제하고, 신청인 측에 연출 및 연극요소를 뺀 공연변경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3) 이 사건 공연취소 후 검열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공연취소는 공연장 여건에 따른 것이고 특

정 연출가 검열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국악원 해명자료 및 보도자료 작성이 이루어졌고 4) 위 해명자료 작성과정에서 A 기획운영단장이 대응논리를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000이 2015. 10. 21. 혹은 10. 22. 국악원 홈페이지에 ‘소월산천’ 홍보물을 업로드한 사실(참고인 000 진술, 참고인 이00의 2018. 1. 10.자 제2회 진술조서 진술)
- ② 2015. 10. 23. 밤 A가 이00에게 전화해 ‘박근형 연출가 작품이 국악원 공연에 올라가면 안 된다’며 홈페이지 홍보물 삭제 및 이 사건 공연조정을 지시한 사실(참고인 이00의 2018. 1. 10.자 제2회 진술조서 진술)
- ③ 2015. 10. 23. 밤 이00이 000에게 전화해 국악원 홈페이지의 ‘소월산천’ 홍보물을 내리라고 지시해 000이 이를 내린 사실(참고인 000 진술, 참고인 이00의 2018. 1. 10.자 제2회 진술조서 진술)
- ④ 2015. 10. 24. 오전 A가 주00에게 전화해 ‘박근형 연출가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원장 잘릴 일 있냐’고 하며 이 사건 공연을 내리라고 지시한 사실(참고인 주00 진술)
- ⑤ 이00은 2015. 10. 23. 김00에게, 주00은 10. 24.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연변경 요청을 하며 ‘연출 혹은 연극적 요소를 빼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신청인 진술, 신청인과 참고인 주00 사이 통화녹음 내용, 참고인 김00 진술, 참고인 주00 진술)
- ⑥ 2015. 10. 28. 정영두 안무가가 페이스북에 국악원 검열중단 촉구 글을 게시한 사실(국악잡지 <라라> 제8호 40-41면 기재 내용)
- ⑦ 2015. 10. 28. A 단장 지시로 주00, 이00가 국악원 해명자료 마련에 들어간 사실(참고인 이00 진술, 참고인 주00 진술)
- ⑧ 해명자료 작성과정에서 A가 총책임자, 주00이 글 작성, 이00가 자료배포 역할을 담당한 사실(참고인 이00 진술, 참고인 주00 진술)
- ⑨ A가 미리 작성한 주요 쟁점 및 대응논리에 따라 주00이 작성한 해명글이 2015. 10. 29. 국악원 페이스북 게시글 및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실(참고인 이00 진술, 참고인 주00 진술)
- ⑩ 주00이 초안을 작성해 A와 김해숙 보고를 거친 글이 2015. 11. 5. 국악원 페이스북에 추가 게시된 사실(참고인 이00 진술, 참고인 주00 진술)
- ⑪ 위 보도자료 및 국악원 페이스북 게시글 요지는 ‘이 사건 공연취소는 공연장 여건에 따른 것이고 특정 연출가 검열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라는 사실(국악잡지 <라라>

제8호 42면 및 49면 각 기재내용, 국악원의 2015. 10. 29.자 보도자료 기재내용)

한편 A는 박근형 연출가 출연 등 정치적 문제로 이 사건 공연 조정을 지시한 사실은 없으며, 이 사건 공연변경(취소)은 국악원과 출연자 간 프로그램을 제작·협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었다고 진술하며 일관되게 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10. 중순경부터 벌어진 이 사건 공연변경 관련 상황에 대한 국악원 직원들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치되는 면이 있고, 참고인 주OO과 신청인의 통화내용 등 진술증거 외 확인되는 정황들 역시 단순히 공연 프로그램 협의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이례적인 부분이 있으며, A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일부는 당시의 카톡 메시지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연취소 과정에 박근형 연출가를 배제하려는 국악원의 시도가 있었고, 나아가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해명자료 작성 및 배포 등으로 사건 실체를 가리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블랙리스트 작동의 주체

이 사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①부터 ⑫까지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1) 국정원 및 문체부 블랙리스트 문건에 박OO 연출가 및 극단 골목길이 기재돼 있으나 2) 문체부의 이 사건 공연에 관한 블랙리스트 배제 등 지시는 없었고 3) 문체부는 이 사건 공연취소 후 보고를 받은 뒤 박OO 연출가 문제를 인지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사실, 한편 4) 김해숙 국악원장은 이 사건 공연취소 사안에 대해 A 단장에게 그 처리를 일임하였고 5) 당시 A 단장이 국악원 내에서 주도적 권한과 역할을 차지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해당사건은 국악원 자체적 내에서 행해진 사건으로, 당시 기획운영단장이었던 A가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① 박근형 연출가와 극단 골목길이 각 국정원 및 문체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각 기재된 사실(국정원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문건, 문체부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문건)
- ② 이 사건 공연변경 및 공연취소 관련 문체부 담당자로부터 블랙리스트 배제지시는

- 없었다는 사실(참고인 A, 이OO, OOO, 주OO, 김해숙 등 국악원 관련자들 진술 및 참고인 B, 임OO, 김OO 등 문체부 관련자들 진술)
- ④ 문체부가 이 사건 공연취소 후 중간보고를 받고 국악원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한 사실(참고인 김OO 진술, 참고인 임OO 진술)
 - ⑤ 문체부 임OO 과장이 A 단장과 통화하며 이 사건 공연에서 박근혜 연출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사실(참고인 임OO 진술)
 - ⑥ 이 사건 공연취소 후 이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문체부의 지시는 없었다는 사실(참고인 B 진술)
 - ⑦ 김해숙은 기관차원의 대규모 공연에 주로 관여하였고, A는 <금요공감> 등 상시공연에 주로 관여한 사실(참고인 김OO 진술, 참고인 이OO 진술, 참고인 OOO 진술, 참고인 주OO 진술, 참고인 김해숙 진술 등)
 - ⑧ A가 <금요공감>을 기획하였고, 출연진 섭외, 프로그램 기획 등 실무진행에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참고인 김OO 진술, 참고인 이OO 진술, 참고인 OOO 진술, 참고인 주OO 진술 등)
 - ⑨ 김해숙은 이 사건 공연취소 사안에 대해 2015. 10.말경 처음 보고받았다는 사실(참고인 김OO 진술, 참고인 이OO 진술, 참고인 이OO 진술, 참고인 주OO 진술, 참고인 김해숙 진술 등)
 - ⑩ 김해숙은 이 사건 공연에 관해 A에게 전권을 일임하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참고인 김OO 진술, 참고인 이OO 진술, 참고인 주OO 진술, 참고인 김해숙 진술 등)
 - ⑪ A가 국악원 행정 뿐 아니라 공연내용, 사업운영 등 광범위한 부분에 관여한 사실(참고인 이OO 진술, 참고인 이OO 진술, 참고인 OOO 진술, 참고인 주OO 진술)
 - ⑫ 국악원 내 A 주도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참고인 이OO 진술, 참고인 OOO 진술, 참고인 주OO 진술 등)

한편 A는, A가 이 사건 공연 등 <금요공감>의 세부적인 실무진행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공연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김해숙 국악원장에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수집자료 및 관련자 진술에 따른 인정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는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사건 관련 A 주장과 이 사건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반대사실 및 정황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관련 A의 주장과 이 사건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이에 반대되는 사실 및 정황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4] 이 사건 관련 A 주장과 이 사건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반대사실 및 정황

A 주장	이 사건 조사를 통해 밝혀진 A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 및 정황
1 국악원은 2015. 8.경 이 사건 공연 출연자로 앙상블시나위를 섭외하였고, 당시 앙상블시나위의 단독 음악공연을 의뢰하였다.	김OO 예술감독은 2015. 8. 26.~27. 앙상블시나위 신현식 대표에게 이 사건 공연 섭외를 하며, 타 장르와의 협업공연을 요청하였다.
2 '소월산천'이라는 협업공연은 사전에 국악원과 협의된 바 없으며, ① 공연 약 2주 전(2015. 10. 21.)에야 공연자 측에서 연극과 협업하는 구체적인 공연내용을 국악원에 알려왔고 ② 국악원이 예술감독과 앙상블시나위 측에서 받은 2015. 10. 19.자 메일 및 2015. 10. 21.자 메일이 그 입증자료다.	① 2015. 9. 1. 예술감독과 출연자들 사이 이 사건 공연 프로그램으로 '소월산천'이 협의되었고 ② 2015. 9. 25.경까지는 국악원에 공연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으나 ③ 2015. 10.초경 이 사건 공연내용이 국악원 담당자 OO 직원에게 처음 유선연락을 통해 전달됐으며 ④ 2015. 10. 19.자 메일 및 2015. 10. 21.자 메일은 홍보물 제작을 위해 발송된 메일이다.
3 ① 2015. 10. 23.~10. 24.경 A는 국악원 주OO 계장으로부터 '소월산천' 협업공연에 대해 처음 보고받았고, ② 공연장 풍류사랑방 여건상 연극공연을 올릴 수 없으니, 이 상황을 국악원장에게 보고드리고 예술감독 및 출연자 측에 당초 예정했던 음악연주 중심 공연을 요청 드려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① 2015. 10. 23. 밤 A가 이OO 과장에게 전화해 '박근형 연출가 작품이 국악원 공연에 올라가면 안 된다'며 홈페이지 홍보물 삭제 및 이 사건 공연조정을 지시하였고 ② 2015. 10. 23.밤 이OO 과장이 OO 직원에게 전화해 국악원 홈페이지 '소월산천' 홍보물을 내리라고 지시해 OO이 이를 내렸으며 ③ 2015. 10. 24. 오전 A가 주OO 계장에게 전화해 '박근형 연출가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원장 잘릴 일 있냐'고 하며 이 사건 공연을 내리라고 지시하였다.
4 ① 국악원 공연 관련해서는 김해숙 국악원장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당자로부터 직접 보고받고 최종적인 결정을 해왔고, ② A는 주로 국악원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① 김해숙은 기관차원의 대규모 공연에 주로 관여하였고, A는 <금요공감> 등 상시공연에 주로 관여했으며, ② A는 국악원 행정 뿐 아니라 공연내용, 사업운영 등 광범위한 부분에 관여하였고 ③ <금요공감> 역시 A가 기획하였고, 출연진 섭외, 프로그램 기획 등 실무진행에 적극 개입했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김해숙 국악원장의 이 사건 인지 여부

김해숙 국악원장은 2017. 2. 7. 국악원 우면당에서 진행된 ‘2017년도 국립국악원 기자간담회’에서 ‘소월산천’ 사건을 통해 불거진 국악원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해명했고, 당시 문체부로부터 압력이 있었고 국악원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많은 언론들이 ‘국악원이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연에서 박근형을 제외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²¹⁾이 있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김해숙 국악원장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연변경(취소) 사안에 대해서는 A 기획운영단장에게 일임하였으며,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7. 2.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블랙리스트 집행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악원이 문체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압력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연취소 후 김해숙 국악원장이 신청인을 만나 사안해결을 시도한 사실, 예술감독을 사임하려는 김OO 감독에게 ‘대의를 생각해 이해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등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연조정에 대해 직접적 지시 등은 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해당사건이 블랙리스트 관련 사안이라는 점을 당시 기관장이었던 김해숙 국악원장이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점을 입증할만한 결정적 진술이나 증거는 이 사건 조사를 통해 확보하지 못했다.

21) 김해숙 국악원장 “정부 압박에 ‘소월산천’ 공연 취소”, 국민일보, 2017. 2. 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91074&code=11131100&sid1=soc/>
 김해숙 국악원장 “박근형, 블랙리스트에 올라 기획공연에서 제외당했다”, 조선일보, 2017. 2. 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8/2017020800995.html/
 김해숙 국악원장, 블랙리스트 집행 “사실” 시인, 중앙일보, 2017. 2. 8., <http://news.joins.com/article/21225978>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5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극단 진일보’ 선정 배제 사건



45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극단 진일보’ 선정 배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공1[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극단 진일보’ 선정 배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조사 취지

극단 진일보 대표 김경익(이하 ‘신청인’)은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¹⁾ 조사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심의에서 극단 진일보에 대한 지원 배제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부당한 검열 과정에 관계된 관련자 및 심의 과정을 확인하고자 2017. 9. 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의 ‘2015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서 청

1) 2017고합102

와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예술인(단체)에 대한 배제가 실행되었으며, 극단 진일보가 문체부에서 한문연으로 하달된 지원 배제 지시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부당하게 탈락한 점이 조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다.

- 2) 예술위의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에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에서 예술위로 배제 대상자 명단이 하달되고, 배제가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극단 진일보를 비롯하여 1차 심의에서 탈락한 배제 대상자의 배제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다.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리스트 문건에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가 기재되어있지 않아, 2014. 5. 공연 <바보 햄릿>이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로 작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붙임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극단 진일보' 선정 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공1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극단 진일보' 선정 배제 사건

[신청인] 김경익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극단 진일보 대표 김경익(이하 '신청인')은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²⁾ 조사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심의에서 극단 진일보에 대한 지원 배제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부당한 검열 과정에 관계된 관련자 및 심의 과정을 확인하고자

2) 2017고합102

2017. 9. 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다.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 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해 2017. 9. 15. 위원회「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이 조사는 예술위의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에서 극단 진일보에 대한 배제 이행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더불어 신청 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의 ‘2015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배제 사실 또한 함께 정리하고자 한다.

제2절 | 주요 조사경과

1. 문건 등 자료 조사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조사신청서	김경익(신청인)	2017. 9. 5.
2	2017고합 102 판결문(2017.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3	2017고합102 사건 재판기록 중 2017. 1. 5. 「김경익 진술조서」	김경익(신청인)	2017. 12.
4	2017고합102 사건 재판기록 중 2016. 12. 27. 「오OO 2회 진술조서」	오OO(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2017. 12.
5	2017고합102 사건 재판기록 중 2016. 12. 19. 「김OO 진술조서」	김OO(문체부 예술정책관)	2017. 12.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6	오OO 증인신문 녹취서(201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김OO 증인신문 녹취서(2017.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2015. 5. 11.)	오OO(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2017. 12.
9	150624 리스트	김OO(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2017. 12.
10	문체부 및 예술위 담당자 정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리스트	오OO(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이OO(예술위 공연예술본부장), 홍OO(예술위 공연지원부 차장)	2017. 12.
11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2017. 10. 30.)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적폐청산T/F	2017. 12
12	2017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감사원	2017. 12
13	리스트-'16.2.1.현재	오OO(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2017. 12
14	리스트-'16.9.27.현재	오OO(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C(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2017. 12.
15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문(2018. 1. 23.)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2016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공모요강(2015. 12. 2.)	예술위	2018. 1.
17	2016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신나는 예술여행)공모 결과 발표(2016. 2. 26.)	예술위	2018. 1.
18	[2015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2014. 12. 11.)	한문연	2018. 1.
19	2015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선정결과(2015. 2. 3)	한문연	2018. 1.
20	'2015년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관련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공모 접수결과 보고(2015. 1. 16.)	한문연 문예지원부	2018. 1.
21	'2015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관련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선정심사 계획(2015. 1. 26.)	한문연 문예지원부	2018. 1.
22	'2015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분야별 선정심사 결과(2015. 1. 29.)	한문연 문예지원부	2018. 1.
23	2016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원신청 결과보고 및 지원심의계획 수립(2016. 1. 15.)	예술위 순회사업부	2018. 1.
24	2016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원심의회의 결과보고 및 위원회 의결(2016. 2. 26.)	예술위 순회사업부	2018. 1.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25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2016년도 분야별 1차 심의현황	예술위	2018. 1.
26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2016년도 분야별 2차 심의현황	예술위	2018. 1.
27	9,473명 명단	오OO(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2018. 2.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오OO 1회 진술조서 (2017. 10. 10.)	오OO(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2018. 2.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김경익	사건 신청인	진술조서(2017. 9. 27.)
2	최OO	참고인(한문연 문예지원부장)	진술서(2017. 10. 31.)
3	박OO	참고인(예술위 공연예술본부장)	진술조서(2018. 1. 15.)
4	임OO	참고인(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진술조서(2018. 1. 23.)
5	오OO	참고인(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진술조서(2018. 2. 7.)
6	권OO	참고인('2015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연극분야 심의위원)	진술조서(2018. 2. 28.)
7	최OO	참고인(한문연 문예지원부장)	진술조서(2018. 3. 5.)
8	김OO	참고인(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진술조서(2018. 3. 8.)
9	OOO	참고인(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주무관)	진술조서(2018. 3. 14.)
10	O	참고인(한문연 사무처장)	진술조서(2018. 3. 19.)
11	김OO	참고인(예술위 순회사업부장)	진술조서(2018. 3. 22.)
12	김OO	참고인(한문연 상임부회장)	진술조서(2018. 4. 19.)
13	최OO	참고인(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서기관)	사실확인서(2018. 4. 23.)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문연은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의 균형발전 및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공연예술 유통,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의 문화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되었으며, 2012년 8월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3)에 의해 법정법인으로 전환된 문체부 산하기관이다. 문예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지원하고, 문예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⁴⁾

나. 2015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위 사업은 문예회관 시설 특성을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방 문예회관

3)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연합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 지원

2.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4.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5.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내외 교류

6.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연합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은 제5항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 www.kocaca.or.kr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키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민간 예술단체의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역문예회관에서 유지한 우수공연에 대해 초청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3년 이내 국내에서 제작·상연된 공연으로 연중 공연이 가능한 작품을 제작·운영하는 민간공연단체 및 기획사를 대상으로 지원 규모에 따라 중·대규모와 소규모로 나누어 신청접수를 받으며, 중·대규모의 경우 회당 최대 8,000만원 이내⁵⁾, 소규모의 경우 회당 최대 1,000만원 이내(1일 1회 기준)의 예산을 지원한다.

2014. 12. 11.에 공고하여 2014. 12. 15. ~ 2015. 1. 6. 접수⁶⁾ 받고 2015. 2. 3. 결과 발표⁷⁾하였다.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위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 전신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2항⁸⁾과 제20조⁹⁾에 근거하여 2005년 출범,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위원장과 감사, 그리고 15인 이내의 위원¹⁰⁾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¹¹⁾하며, 위원들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

5) 2015년은 1일 1회~2일 4회까지 가능했으나, 2016년의 경우 1일 1회만 공연할 경우 최대 8,000만원, 1일 1회~2일 4회까지 공연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었다.

6) 한문연 홈페이지 공고 2014. 12. 11.자 「[2015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

7) 한문연 홈페이지 공고 2015. 2. 3.자 「2015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선정결과」

8)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9)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을 받지 아니한다.¹²⁾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사무처를 두고 있다.¹³⁾

라.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은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학교, 임대주택, 교정시설, 군부대로 사업유형을 나누어 공모 신청을 받았다. 1회당 지원 금액은 500만원 내외로, 심의를 통해 적정예산을 검토하여 금액이 결정되며, 공연 횟수는 수혜시설 선호도에 따라 최종 확정되나 단체별 평균 10회 내외로 공고되었다. 2015. 12. 2.에 공고하여 2015. 11. 23. ~ 2015. 12. 15. 접수¹⁴⁾ 받았으며, 2016. 2. 26.에 결과 발표¹⁵⁾하였다.

2. 2015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가. 리스트 문건

(1) 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오OO 작성의 「9,473명 명단」

한국일보는 2016. 10. 12. 보도에서,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화인 754명,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12)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28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14) 예술위 홈페이지 공고 2015. 12. 2.자 「2016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공모요강」

15) 예술위 홈페이지 공고 2016. 2. 26.자 「2016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신나는 예술여행)공모 결과 발표」

2012년 대선 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시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608명 등 총 9,473명의 예술인에 대하여 청와대가 검열 용도의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내려 보냈다고 보도하였다.¹⁶⁾

한국일보 기사는 위 문건의 표지를 통해 내용을 추측하여 보도된 것으로 보이며, 보도 내용에서 문서 출처가 청와대라고 기술하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위 문건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문화예술인 909인)’ 명단에서 신청인의 이름이 확인된다.

2017고합102 사건 재판기록 중 2016. 12. 27. 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오OO 2회 진술조서에서, 오OO이 위 문건에 대하여, ‘2015. 5.경17) 당시 김OO 청와대 행정관이 저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알려주며, 인터넷에서 이 사람들 명단을 확인해서 장관한테 보고하고 교문수석실로 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더니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 등 총 9,473인으로 확인이 되어 이 표로 작성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어 오OO은 자신이 작성한 이 문건을 예술정책관 김OO이 장관에게 보고하였고, 보고 후 자신이 메일로 김OO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⁸⁾

2017고합102 사건 재판기록 중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의 2016. 12. 19. 진술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위 문건에 대하여, 2015년 5월 경 김OO이 오OO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이라는 카테고리로 관련 예술인 명단을 뽑아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교문수석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오OO에게 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해당 문건을 가지고 자신이 김종덕에게 보고한 뒤 오OO을 통해 교문수석실로 보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¹⁹⁾

16)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 2016/10/12 04:40, <http://www.hankookilbo.com/v/0abb634242a64afca79799b09f8564f4>

17) 입수 문건의 출력일자 2015. 5. 7.로 표기되어 있으나,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15. 5. 11.) 문건에서 “15.4월 현재 9,473건”이라는 표현이 확인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2. 「오OO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오OO이 9,473명의 확인 시기가 4월이라고 한 법정 증언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여, 9,473명에 대한 최초 파악시기는 5월이 아닌 4월로 판단된다.

18) 2017고합102 사건 재판기록 중 2016. 12. 27. 「오OO 2회 진술조서」 17~19쪽.

19) 2017고합102 사건 재판기록 중 2016. 12. 19. 「김OO 진술조서」 33쪽.

(2) 국정원 적폐청산T/F 2017. 10. 30.자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위 문건은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 된 사항을 조사한 보고서로, 첨부된 2015. 2. 2.자 「문체부, 민간 예술단체 공연 지원 심사시 문제단체 배제」에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있거나 이념시비 소지가 있는 28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결격사유 해당 단체 28개 중 극단 진일보는 ‘정치적 편향, 사회 풍자 등’ 단체로 분류된 22개 단체 안에 포함되어있다.

문체부, 민간 예술단체 공연 지원 심사시 문제단체 배제

2015. 2. 2

- 문체부는 민간 예술단체의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과 관련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있거나 이념시비가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단체(28개) 등은 모두 지원대상에서 배제 조치
- 關聯 動向
 - 문체부(장관:김종덕)에서는
 - 작품성·대중성을 지닌 우수 프로그램 공연 민간 예술단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민간경상보조, 52億원)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과 관련
 - 공모결과 신청한 총 850개 프로그램에 대해 1.28 1차 심사(278개 작품 선정), 1.30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186개 작품을 선정하였는 바
 - * 공모작수 / 선정작품수 : 연극(328 / 59), 음악(165 / 30), 무용(70 / 30), 전통예술(142 / 30), 다원예술(145 / 37) 등
 - 同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법 위반, 공연료 미지급 등 결격사유가 있거나 이념시비 소지가 있는 28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붙임 결격사유 해당 단체(28개)

【 정치적 편향, 사회 풍자 등 】

- ㈜문화아이콘 : 플라잉 뮤지컬 <두리둥실 몽계공항>
- 극단 집현 : 운현궁에 노을지다
- 극단 골목길 : 만주전선
- 극단 산 : 연극 짬뽕
- 극단 완자무늬 : 녹차정원
- 극단 제외와 놀이 KOTTI : 날짜변경선
- 연희단거리패 : 강부자의 오구
- 조은컴퍼니 : 가을 반딧불이
- 극단 하땅새 : 파우스트 I+II, 유기농 가족극 “붓바람”(2개 작품)
- 협동조합 극단 새벽 : 천문우주과학연극 “별E 별이에게“
- 그린피그 : 두뇌수술
- 극단 떼아뜨르 고도 : 조선으로 베다
- 극단 수수파보리 : 처용, 오딧세이
- 극단 진일보 : 전국방방곡곡 통일을 노래하는 <아리랑 랩소디>
- 극단 황금가지 : 만두와 칼창
- 극단 그림연극 : 예술체험교육과 함께하는 공연 “소녀의 꿈”
- 극단 미연 : 거짓말쟁이 여자, 영자
- 극단 사니너머 : 산전수전
- 민족춤패 너울 : 어머니의 바다
- 극단 무아몽 : 우당 이회영
- 극단 파수꾼 : 불씨
- 극단 허리 : 조통냉면

【 공연료 미지급(예술인신문고 신고) 】

- 드림컬처 주식회사 : 코믹 마살아츠 퍼포먼스 “점프”

(3) 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오OO 작성의 「리스트-’16.2.1.현재」

오OO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 행정관 김OO으로부터, 청와대와 국정원에 신청자 명단을 보내기 전에 문체부 자체적으로 1차 확인을 해 명단에 문제가 있다는 표시를 해서 보내도록 지시받았고, 이에 1차 확인 작업을 위해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²⁰⁾

위 문건 ‘8.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262명’은 2015년 문예진흥기금 정기 공모사업

을 제외한 2015. 3. ~ 12. 문예기금 연중사업, 예술국 소관 사업, 문화기반국 등 타실국 사업 및 문화훈장 대상자 등에서 배제되어야 할 명단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²¹⁾

‘8.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262명’의 ‘방방곡곡 문화공감(문예기금)-22명’ 부분에서 극단 진일보를 포함하여 총 22개 단체가 배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전원 제외 조치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사업명	단체명	세부사업명	검토내용	비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예기금) - 22명	(주)문화라이프(강유권)	①관리성 유가족(사)등신 용어공감		- 권원제외
	극단 김현과경희	②문화공감에 도움지다		
	극단 김복걸(이효일)	③인주관심		
	극단 신영(김현)	④연극 캠프		
	극단 원기문(김태진)	⑤노자강원		
	극단 제비꽃(김민)이상희	⑥남여원경연		
	연희단거리패(김소희)	⑦강북지역 오후		
	조선영화(김지훈)	⑧기을 만났습니다		
	극단 최양배(윤사공)	⑨퍼수프 H.L. 유가족 가족극 "꽃바람"		
	극단 제비(이상관)	⑩정윤구주파화안극 "벌레벌레에게"		
	그림마(김민환)	⑪두아수출		
	극단 파우스트(고도원 권영국)	⑫조선으로 배다		
	극단 주주파파(장인남)	⑬저녁, 오일새이		
	극단 진일보(김광일)	⑭한국영화제작 용역을 제공하는 (사)등신 용어공감		
극단 황금가네(김유리)	⑮연극의 황금			
극단 그림(김이현)	⑯예술계행복교육과 함께하는 공연 "소녀의 꿈"			
극단 미연(김준연)	⑰가정일명이 이자, 열거			
극단 새우(김정화)	⑱신관수원			

(4) 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오OO 작성의 2015. 5. 11.자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예술정책과에서 작성하여 예술정책과장, 예술정책관, 장·차관,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²²⁾으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에서 배제 조치 현황을 보고한 문건이다.

위 문건 ‘참고4 개별 공모추진사업 현황’ 부분에서 ‘2015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서 극단 진일보를 포함하여 22개 단체를 배제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20) 2018. 2. 7. 「오OO 진술조서」 39쪽.

21) 2017고합102 사건 재판기록 중 2016. 12. 27. 「오OO 2회 진술조서」 30쪽.

22) 2018. 2. 7. 「오OO 진술조서」 21쪽.

공연예술 (한국문화 회관연합회 /문예기금)	방방곡곡문화공감 ('15.1.30 완료)	850	186	○건수 : 22건 ○(주)문화아이콘(정유란), 극단 집현(최경희), 극단 골목길(이호열), 극단 산(윤정환), 극단
----------------------------------	---------------------------	-----	-----	--

분야	사업명	신청 건수	선정 건수	특이사항 조치현황
				완자무늬(김태수), 극단 제익와놀이 KOTTI (이상희), 연희단거리매(김소희), 조은컴퍼니 (김재훈), 극단 허망세(윤서중), 극단 새벽(이 상관), 그린피그(윤한솔), 극단 배야프르 고도 (권영국), 극단 수수파보리(정안나), 극단 진 일보(김경익) , 극단 황금가지(김아리), 극단 그림연극(이현찬), 극단 비연(김순영), 극단 사니니머(김희수), 민족춤 너울(오세아), 극 단 무아몽(임홍민), 극단 파수꾼(이은준), 극 단 허리(홍광식)

나. 사업 진행 경과

(1) 감사원 「2017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감사원은 위 보고서를 통해,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이 2015. 1. 예술정책관 김OO의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비서관실(이하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OO에게 '2015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였으며, 김OO으로부터 22개 공연단체 이름이 적힌 지원배제 명단을 전달받아 한문연 사무처에 지원 배제를 지시하여 배제가 실행되었는데, 특정 예술단체가 부당하게 문예기금 지원에서 배제되어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받았고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한편, 사업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감사의 결과로 한문연은 앞으로 외부기관이 부당한 지시나 간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공연단체를 지원 배제하여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특정 문화예술단·단체를 차별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보고서 별표8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에서 극단 진일보를 포함한 19개 단체²³⁾의 지원 배제 내역이 확인된다.

23) 감사원은 리스트 문건에서 확인되는 22개 단체 중 3개 단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부당지원배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명단에서 제외하였다.

(2) 한문연 문예지원부 2015. 1. 16.자 「‘2015년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관련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공모 접수결과 보고」

위 문건에서 극단 진일보를 포함하여 배제 리스트에 기록된 22개 단체 모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2015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는 총 839개 단체 850개 작품이 신청 접수 되었으며 총 185개 작품을 선정 할 예정이었다.

(3) 한문연 문예지원부 2015. 1. 26.자 「‘2015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관련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선정심사 계획」

위 사업은 2015. 1. 28.에 1차 분야별 심의, 2015. 1. 30.에 2차 선정 심의, 2015. 2. 11.에 3차 예산 심의로 심의를 총 세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극단 진일보는 연극분야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신청하였는데, 연극분야 소규모 프로그램에는 총 128개 작품이 신청접수 되었으며 1차 심의에서 27개 작품을 선정하고 2차 심의에서 최종 18개 작품을 선정한 후 예산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정 할 예정이었다.

(4) 한문연 문예지원부 2015. 1. 29.자 「‘2015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분야별 선정심사 결과」

분야별 심의는 2015. 1. 28. 진행되었는데, 연극 분야는 권OO, 조OO, 김OO 3명이 심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하였다. 리스트 문건에서 확인되는 배제 대상자 22개 단체는 전원 1차 분야별 심의에서 탈락하였다.

다. 관련자 진술

(1) 문체부 진술

공연전통예술과장 임OO는 2018. 1. 23.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2014. 10. 중순 공연전통예술과장으로 발령받았을 당시 공연전통예술과 담당 사무관들이 이미 각자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²⁴⁾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은 2018. 3. 8.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

24) 2018. 1. 23. 「임OO 진술조서」 3쪽.

용으로 진술하였다.²⁵⁾

-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 김OO으로부터 '2015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배제 지시를 받고 임OO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보고하였다.
- 한문연으로부터 심의위원 및 신청자 명단을 송부 받았다.
- 신청자 명단은 1차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 보유 리스트와 맞춰보았으며, 2차로 국정원과 청와대에서 추가 배제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 '2015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서는 심의위원 배제 검토는 하지 않았다.
- 한문연 사무처장 O에게 현재 청와대나 문체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배제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게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 한문연 사업 구조가 사무처장 중심이기 때문에 한문연 상임부회장 김OO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보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 한문연에 배제를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으로 배제 방법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 배제 결과는 한문연 문예지원부장 최OO으로부터 전자우편으로 전달받았다.

공연전통예술과 주무관 OOO는 2018. 3. 14.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²⁶⁾

- 한문연 사업에 대해서는 '2015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서 처음으로 배제 적용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2015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배제 대상 단체가 20~30개 가량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리스트 문건에서 확인되는 22개 단체는 대체로 배제 대상자가 맞다.
- 한문연과 배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고, 한문연에서 알아서 심의를 완료한 후 결과를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었다.
- 한문연이 별도로 문체부에 선정 양해 요청을 한 단체는 없었다.
- 배제 업무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가 가능한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심의위원과 배제 내용에 대한 공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모른다.

25) 2018. 3. 8. 「김OO 진술조서」 23~26쪽.

26) 2018. 3. 14. 「OOO 진술조서」 6~8쪽.

(2) 한문연 진술

상임부회장 김OO은 2018. 4. 19.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은 임기 동안 한문연 내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고,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⁷⁾

사무처장 O는 2018. 3. 19.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²⁸⁾

- 문체부의 배제 지시에 대해서 문예지원부장 최OO으로부터 보고 받았으며, 너무 무리하게 진행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의미로 억지로 진행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배제 결과를 최OO으로부터 다시 보고받았다.
- 배제 방법을 최OO과 함께 논의하지는 않았다.
- 배제 실행에 문제가 생기면 문체부와 조율을 해 보려했으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체부와의 조율 없이 배제 진행하였다.
- 상임부회장 김OO에게는 문체부의 배제 지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문예지원부장 최OO이 2017. 10. 3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²⁹⁾

-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2015. 1. 초순경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에게 ‘2015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심의위원 명단 및 접수 신청자 전체 세부내역을 송부하였다.
- 2015. 1. 중순경 김OO이 전화로 22개 특정 예술단체 명단을 불러주면서 “불러주는 단체들은 문제가 있는 단체이므로, 심사에서 검토를 잘 해달라”고 하는 등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문체부의 배제 지시 사실을 사무처장 O에게 보고하였고, O는 “정부의 방침을 심사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간접적으로 전달하라”고 하였다.
- 1차 분야별 심의에 간사로 배석하여, “알려드리는 단체들은 결격사유가 있거나,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오니 심사에

27) 2018. 4. 19. 「김OO 진술조서」 3~4쪽.

28) 2018. 3. 19. 「O 진술조서」 3~6쪽.

29) 2017. 10. 31. 「최OO 진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결격사유가 있는 단체들과 문체부로부터 하달된 지원 배제 명단을 함께 불러주었고, 이를 통해 1차 분야별 심의에서 문체부의 지원 배제 지시가 있었던 22개 단체 모두가 탈락하였다.

- 결과 발표 전 김OO에게 전화로 배제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최OO은 2018. 3. 5.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³⁰⁾

- 문체부의 배제를 지시했던 단체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배제 대상 단체 수가 몇 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감사원에서 보여준 리스트에 22개 단체가 나와 있었고, 그 단체들이 모두 신청 후 탈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진술서에 22개 단체라고 기재한 것이다.

- 사무처장 O와 배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배제 지시가 없었다.

- 심의에 배석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선정 결격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전체 결격사유를 설명한 뒤 ‘설명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들입니다’라고 하고 지원배제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었다. 따라서 심의위원들은 정치적 이유에서 배제가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 심의 도중 개별 단체에 대해 결격 사유를 다시 물어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문체부 배제 지시 단체이더라도 전반적인 결격 사유를 다시 설명하는 방식으로 뭉뚱그려 답변하였다.

연극분야 심의위원 권OO는 2018. 2. 28.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일반적으로 심의에서 사무처는 보조금 관리규정 위반 혹은 중복지원 등 신청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을 사무처에서 미리 확인하여 심의위원에게 알려주는데, 자신은 ‘2015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심의에서도 사무처의 발언을 그 정도 내용으로 이해했으며, 사무처가 특별히 어떤 단체를 빼달라는 등의 요구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¹⁾

30) 2018. 3. 5. 「최OO 진술조서」 3~7쪽.

31) 2018. 2. 28. 「권OO 진술조서」 8~9쪽.

3.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가. 리스트 문건

(1) 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오OO 작성의 「리스트-」16.9.27.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오OO은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예술국 소관사업, 문체부 내 타 실·국 사업 및 각종 위원회 인사 등에서 배제되어야 할 명단을 사업별로 정리하여 「리스트-」16.9.27.현재」 문건을 작성하였고, 오OO이 제출된 이후 후임자인 C 사무관이 계속 업데이트 하였다. 위 문건에서 'K'는 국정원에서 온 배제명단, 'B'는 청와대에서 온 배제 명단, 알파벳 옆에 기재된 날짜는 국정원과 청와대로부터 배제 명단을 송부 받은 날짜를 의미한다.³²⁾

소외계층 순회사업 일반공모(1.21)	○B(2.12) -①분봉길 ②오은희 -③김소희(연희단 거리제) - 밀양어울림축제 양해도 송 건에서는 제외조치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주역자 공모(3.15)	-김태수(극단원자무늬), ①장광철(극단 뽕수물), 류인수(극단 연우무대) - 3건 중 ①장 광철(역수물 제외조치) ○K(5.23) -연극: 극단원자무늬(김태수), 극단 현정(고농석), 관동문화센터(권민규) -문학: 성문화연구소(박상진), 창작인화기회(문성원), 작가늘이단(이재복), 청소년문화연대리더(정진희) -다원: 줄이로만든대(하일호) ○B-특이사항 없음(3.22)

위 문건을 통해 청와대와 국정원이 '2016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신청자 명단 역시 검증하였으며, 청와대는 2016. 2. 12.에, 국정원은 2016. 5. 23.에 각각 문체부에 배제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청와대 배제 대상자 명단에는 총 6개 단체가 기재되어있는데, 그 중 2개 단체는 양해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있다. 국정원 배제 대상자 명단에는 8개 단체가 기재되어있다.

청와대와 국정원 배제 명단에 극단 진일보는 기재되어있지 않다.

3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 10. 10. 「오OO 1회 진술조서」 40~43쪽.

(2) 「문체부 및 예술위 담당자 정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리스트」

위 문건은 재판³³⁾ 과정에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오OO과 예술위 본부장 이OO 및 차장 홍OO이 실제 지원 배제 지시가 있었던 건과 그 결과에 대해 정리한 문건이다.

2016	문학	(복권)농산어촌순회사업	창작21작가회	다문화다문화 순회콘서트	지원배제	순회사업부
2016	연극	(복권)농산어촌순회사업	극단 진일보	연극 <대리할 랍소디>	지원배제	순회사업부
2016	연극	(복권)농산어촌순회사업	극단서울공방	눈물	지원배제	순회사업부
2016	연극	(복권)농산어촌순회사업	극단관자무보	연극 의자는 잘못 없다	양해	순회사업부
2016	연극	(복권)농산어촌순회사업	연희단거리매	어른과 아이가 함께보는 가족극 산 너머 계동 야	지원배제	순회사업부
2016	전통예술	(복권)농산어촌순회사업	극단사니네어	돌아온 박흥지·노마드	지원배제	순회사업부

문건에서 21개 단체 중 4개 단체가 양해되고 17개 단체가 지원배제 된 사실이 확인되며, 지원배제 단체에 극단 진일보도 포함되어있다.

(3)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 작성의 「150624 리스트」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에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오OO에게 보낸 배제 대상자 명단을 김OO이 전달받아 업데이트하며 정리한 문건³⁴⁾으로, 2015. 8. 14.에 순회사업부장 김OO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었다. 총 126개 단체 및 인물이 도표에 기재되어 있다. 위 명단에서 극단 진일보 및 신청인의 이름이 확인된다.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2017고합102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5. 「김OO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나. 사업 진행 경과

(1) 예술위 순회사업부 2016. 1. 15.자 「2016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원신청 결과보고 및 지원심의계획 수립」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에는 총 2,011건이 신청 접수되었으며, 심의 일정은 아래와 같이, 1차 심의는 장르별로 1월에 진행 후, 2차 심의는 장르 통합으로 2월에 유형 및 예산을 심의한 후 2월 말에 심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1차 심의와 2차 심의 사이에 약 한 달의 일정을 두는 것으로 계획되어있다.

구분	구분	일시 및 장소	내 용	비고
1단계	공모계획 수립	11월 초 / 위원회	○ 지원심의 기본방침 및 지원심의기준 확정 ○ 세부 사업별 예산 배정안 확정	위원회
2단계	행정심의	`15. 12. 16(수) ~`16. 1. 11(월) 위원회	○ 지원심의 대상 적격심사	각 유형별 담당자
3단계	1차심의 (장르)	`16. 1. 18(월)~ 1. 21(목) / 공연예술센터 리딩룸	○ 지원심의 세부방침 결정 ○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의 적격성 심의 ○ 심의위원별 개별평가 ※ 무용(18일), 연극(19일), 전통, 다원/문화 일반(20일), 음악(21일)	장르별 심의위원 (15명)
4단계	2차심의 (유형 및 예산)	`16. 2. 18(목) ~2. 19(금) / 공연예술센터 리딩룸	○ 지원대상사업 우선 순위 결정 ○ 지원선정단체 회당 지원예산 심의	장르통합 심의위원 (7명)
5단계	심의 결과보고	`16. 2월 말 / 위원회	○ 사업별 지원대상단체와 지원예산 최종심 의·확정	위원회
6단계	선정 결과발표	`16. 3월 초	○ 사업별 지원대상단체 결과발표 및 순회 대상처 매칭	위원회

위 문건에 포함된 ‘2016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공모 지원접수현황’에서, 「리스트-’16.9.27.현재」, 「문체부 및 예술위 담당자 정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리스트」에서 배제 지시가 확인되는 27개 단체(중복 제외)의 신청 내역이 확인된다.

(2) 예술위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2016년도 분야별 1차 심의현황」, 「2016년도 분야별 2차 심의현황」, 예술위 순회사업부 2016. 2. 26.자 「2016년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지원심의회의 결과보고 및 위원회 의결」

1차 심의는 2016. 1. 18. ~ 2016. 1. 21.까지 각 장르별로 개최되었으며, 연극분야의 경우 김OO, 정OO, 김OO을 심의위원으로 하여 2016. 1. 20.에 개최되었다.

2차 심의는 전 분야 통합으로, 김OO, 김OO, 정OO, 박OO, 김OO, 이OO, 안OO을 심의위원으로 하여 2016. 2. 22.에 진행되었다.

심의현황에 따르면, 리스트 문건에서 배제 지시가 확인되는 27개 단체 중 12개 단체는 1차 심의에서 탈락하였고, 8개 단체는 2차 심의에서 탈락하였으며, 7개 단체는 선정³⁵⁾되었는데, 극단 진일보는 1차 심의에서 탈락하였다.

다. 관련자 진술

(1) 문체부 진술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서기관 최OO은 2018. 4. 23.자 사실확인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였다.³⁶⁾

- 업무 인계 과정에서 공모사업의 경우 최종선정결정 전에 부적격 신청단체를 걸러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예술위 사업 담당자가 1차 심의 선정단체 명단을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었다.
- 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오OO이 가지고 있던 배제 대상자 명단을 빌려, 1차 심의 선정단체 명단과 대조하여 배제 대상자를 확인하였다.
- 배제 대상자 확인 후 공연전통예술과장 임OO에게 1차 보고를 하고, 해당 명단을 오OO에게 보냈으며, 일정 시간 경과 후 오OO의 회신이 오면 그 내용을 임OO에게 보고하고 예술위에는 전자우편 또는 유선으로 전달하였다.

35) 선정된 7개 단체 중 4개 단체는 문건에서 양해 사실이 확인되는 단체이며, 3개 단체는 국정원 배제 대상자 명단에서만 확인되는 단체인데, 국정원의 경우 심의가 종료된 이후인 2016. 5. 23.에 배제 대상자 명단이 회신되어 실제 배제에는 적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6) 2018. 4. 23. 「최OO 사실확인서」

(2) 예술위 진술

예술위 공연예술본부장 박OO은 2018. 1. 15.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³⁷⁾

- 순회사업부장 김OO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고 전체적인 사업의 흐름과 진행경과 등 전반적인 보고를 받았다. 김OO이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서기관 최OO에게 1차 심의통과자 명단을 송부한 뒤 배제 대상자 명단을 우선으로 전달받고 2차 심의에 반영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보고받았다.

예술위 순회사업부장 김OO은 2018. 3. 21 ~ 2018. 3. 22.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³⁸⁾

-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서기관 최OO의 요청으로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였고, 문체부의 요청 사실을 공연예술본부장 박OO, 사무처장 이OO, 위원장 박명진에게도 보고하였다.
- 신청자 수가 너무 많아서 배제 대상자 검토가 오래 걸릴 것 같아 최OO에게 1차 심의 후 1차 선정자 명단을 보낼 테니 그 명단으로 배제 대상자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회신이 오래 걸릴 것을 예상해서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1차 심의와 2차 심의 사이의 기간을 넉넉히 두었다.
- 2016. 1. 22.에 1차 선정자 명단을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이후 배제 대상자를 최OO으로부터 전화로 통보받았다.
- 심의위원이 각각 추천을 하고 추천 수가 많은 단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추천제는 채점제에 비해 배제를 적용하기 용이하다. 간사로 배석하여 배제 대상자가 선정 후보로 논의되는 경우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사실 등 선정하지 말아야 하는 사유를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탈락을 유도하였다.
- 심의방법은 본부장이나 사무처장, 위원장과 사전에 공유된 것이다.

37) 2018. 1. 15. 「박OO 진술조서」 7~11쪽.

38) 2018. 3. 22. 「김OO 1회 진술조서」 12~17쪽.

제4절 | 조사 결과

1.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

오OO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작성한 「9,473명 명단」 내용 중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문화예술인 909인)’ 명단에서 신청인의 이름이 확인되는데, 실제로 국정원은 2014. 2. 경부터 정부비판·시국선언 참여를 기준으로 ‘문제인물’을 선별하여 문체부에 통보한 바 있어³⁹⁾ 이를 사유로 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2015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은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 김OO으로부터 위 사업 배제 지시를 받았고, 청와대의 배제 지시 사실은 공연전통예술과장 임OO에게도 보고되었다. 김OO은 한문연으로부터 받은 신청자 명단을 기존에 배제 지시가 있었던 예술인(단체)의 명단과 비교한 뒤 국정원과 청와대에도 보내 추가로 배제해야 할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후 김OO은 한문연 문예지원부장 최OO에게 전화로 청와대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최종 배제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심의에서 선정 배제 할 것을 지시하였다.

최OO은 문체부의 배제 지시를 사무처장 O에게 보고하였는데, O는 배제 이행을 지시하였고, 이에 최OO은 1차 분야별 심의에 배석하여 지원 배제 대상 단체가 마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것처럼 실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단체와 통합하여 심의위원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배제를 실행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극단 진일보를 포함하여 리스트 문건에서 확인되는 22개 단체 모두 1차 심의에서 탈락하였으며, 따라서 극단 진일보가 문체부에서 한문연으로 하달된 지원 배제 지시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부당하게 탈락한 점이 명확히 확인된다.

39) 국정원 적폐청산T/F 2017. 10. 30.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3.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가. 1심 및 2심 판결⁴⁰⁾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위 사업에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오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서기관 최OO의 지시를 받은 예술위 순회사업부장 김OO이 공모사업 신청자 및 각 단계별 심의 통과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배제 이행 경과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서기관 최OO은 전임자인 사무관 김OO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배제 업무 또한 함께 인계받았다. 따라서 이전에 공연전통예술과에서 관리감독 해왔던 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술위의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역시 배제를 적용하였다.

예술위 순회사업부장 김OO은 문체부 최OO의 요청으로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으며, 이 사실을 공연예술본부장 박OO, 사무처장, 이OO, 위원장 박명진에게도 보고하였다.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에는 총 2,011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김OO은 신청자 전체에 대하여 배제 대상자 여부를 검토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 최OO에게 1차 심의 선정자에 대해서만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배제 대상자 여부 회신이 늦게 올 것을 감안하여 1차 심의와 2차 심의 사이에 약 한 달여의 기간을 두었으며, 배제를 용이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채점제가 아닌 추천제로 심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예술위 김OO은 1차 장르별 심의가 종료된 후 문체부 최OO에게 1차 심의 선정자 명단을 보냈고, 최OO은 기존 누적 배제 대상자 명단과 비교하여 1차 검토 후 배제 대상자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청와대·국정원과 문체부 사이의 배제 업무 연락을 담당하는 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오OO에게 보내어 청와대와 국정원에 추가 배제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을 받았다. 이후 최OO은 오OO으로부터 받은 최종 배제 대상자 명단을 공연전통예술과장 임OO에게 보고한 다음 예술위로 보내어 배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2017고합102 /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예술위 김OO은 2차 심의에서 간사로 배석하여, 배제 대상자가 선정 후보로 논의되는 경우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사실 등 선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심의위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유도하여 문체부의 지시에 따른 배제를 실행하였다.

다. 극단 진일보 배제 여부

극단 진일보는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1차 심의인 장르별 심의에서 탈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위 사업 관련자인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서기관 최OO, 예술위 공연예술본부장 박OO, 예술위 순회사업부장 김OO 모두 1차 심의에서는 배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1차 심의 선정자에 대해서만 배제 대상자 여부를 검토하였고 2차 심의에서 배제를 이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1차 심의에서 탈락한 극단 진일보에 대한 배제 이행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문체부 및 예술위 담당자 정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리스트」에서 1차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 건이 다수 확인되는 점, 2015. 8. 14.에 문체부에서 예술위 김OO에게 보낸 배제 대상자 리스트인 「150624 리스트」에 극단 진일보가 포함되어 있어 1차 심의 이전에 김OO이 이미 극단 진일보가 배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점을 감안하면 1차 심의에서 극단 진일보를 포함한 기존 누적 배제 대상자에 대한 배제 시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은 조사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4.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신청인은 2017. 9. 27.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유가 2014. 5. 경에 공연한 <바보 햄릿> 때문일 것이고, 작품의 내용을 잘 아는 연극계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사를 통해 이를 진상규명해달라고 진술하였다.⁴¹⁾ 그러나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가 리스트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신청인의 경우도 그 사유가 문건에 별도로 기재되어있지 않아, <바보 햄릿>이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로 작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41) 2017. 9. 27. 「김경익 진술조서」 5쪽.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6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5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 사업 등 ‘극단 수수파보리’ 선정 배제 사건



46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5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 사업 등 ‘극단 수수파보리’ 선정 배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공10[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5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 사업 등 ‘극단 수수파보리’ 선정 배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극단 수수파보리 대표 신청인 정안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1차 대국민 보고 경과보고(2017. 9. 18.) 당시 브리핑 자료 18쪽 ‘기존관리리스트’에 ‘극단 수수파보리’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극단 수수파보리의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알고 싶다고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취지로 2017. 9. 25. 조사신청을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극단 수수파보리는 문체부가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인 「수기로 작성한 명단(Oh & KIM)」과 「리스트-2014/2015도분(654명)-확정」中 ‘6. 기존관리 리스트-149

명’ 등에 등재되어 있었다.

- 2) 극단 수수파보리의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배제와 관련하여, 극단 수수파보리의 2014.10.경 문체부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문체부의 극단 수수파보리를 포함한 19개 단체의 배제 지시 하달, 문체부의 위 사업 배제실적 보고에 극단 수수파보리의 포함, 예술위의 심사방법 변경 및 배제지시 이행 노력 등을 살펴보면, 비록 연극분야 심의위원들이 지원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에서 문체부와 예술위가 블랙리스트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자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극단 수수파보리는 제1차 심의과정에서 D등급을 받아 탈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위와 같이 예술위가 지원배제를 실행하고자 심사방법을 변경하고, 센터장 선정 및 위원장 최종 결정 단계를 만들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극단 수수파보리가 1차 심의 단계를 통과했을지라도 결국에는 지원배제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 3) 또한 극단 수수파보리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 <2015~2016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배제와 관련하여,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조사결과」(2017. 10. 30.) 및 문체부의 「리스트 - 2014/2015도분(654명)-확정」中 ‘2015년 연중사업리스트-262명’에서 극단 수수파보리의 배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의 김OO과 OOO, 그리고 한문연의 최OO의 진술에서 청와대 김OO 행정관의 지시로 배제가 진행되었으며, 문체부는 한문연으로부터 심의위원 및 신청자 명단을 송부 받고 이를 검토한 후 청와대와 국정원의 확인을 거쳐 한문연 측에 배제 지시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붙임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5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 사업 등 ‘극단 수수파보리’ 선정 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공10[한국문화예술연합회 ‘2015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 사업 등 ‘극단 수수파보리’ 선정 배제 사건]

[신청인] 정안나 (극단 수수파보리 대표)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 정안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대국민 보고 경과보고(2017. 9. 18.) 당시 브리핑 자료 18쪽 ‘기존관리리스트’에 ‘극단 수수파보리’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극단 수수파보리의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알고 싶으며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취지로 2017. 9. 25. 조사신청을 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 근거

본 사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제1호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등에 근거하여 위원회 제11차 전원위원회(2017. 10. 20.)에서 조사개시 결정되었다(의안번호 17-031).

나. 조사 목적

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규명과제는 ‘극단 수수파보리’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및 등재 경위, 그리고 ‘극단 수수파보리’의 공모 사업 배제 사실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제2절 | 조사 방법

1. 자료 조사

자료 조사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1] 자료 조사 주요 목록

연번	자료명	생산기관	생산시기
1	김기춘 외 3인에 대한 제1심 형사 판결 (2017고합102)(2017.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	김기춘 외 6인에 대한 제2심 형사 판결[2017노2425, 2017노2424(병합)](2018. 1. 23.)	서울고등법원	
3	오OO 진술조서(2회)(2016. 12. 27.)	특검(오OO)	
4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5	수기로 작성한 명단(Oh & KIM)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등	
6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2015. 5. 11.)	문체부 예술정책과	
7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관련 보고 (2014. 10. 31.)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8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문체부 예술정책과	
9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추진계획(안)(2014.8.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	2015 정기대관 심의 진행 시나리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	유OO 업무수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2	2015년도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접수결과 및 심의추진 수정 계획(안) 보고(2014. 11.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3	2015년도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심의 결과보고 (2014. 11. 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4	2015년 공연예술센터 정기 대관 공모 심의 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목록

연번	성명	관련 사항	조사 내용
1	정안나	신청인	진술조서(2017. 10. 25.)
2	유OO	예술위 한국공연예술센터장	자술서(2017. 9. 29.)
3	유OO(1회)	"	진술조서, 1회(2017. 9. 29.)
4	유OO(2회)	"	진술조서, 2회(2017. 12. 13.)
5	김OO	연극분야 심의위원	진술조서(2017. 12. 15.)
6	이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진술조서(2018. 1. 17.)
7	OOO(1회)	예술위 공연운영부 대리	진술조서(2018. 1. 21.)
8	임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진술조서(2018. 1. 23.)

연번	성명	관련 사항	조사 내용
9	오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진술조서(2018. 2. 7.)
10	김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진술조서(2018. 3. 8.)
11	O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주무관	진술조서(2018. 3. 14.)
12	최OO	한문연 문예지원부장	진술조서(2018. 3. 5.)
13	김OO	예술위 공연운영부장	진술조서(2018. 3. 22.)

제3절 | 조사 결과

1. 사건 개요

가. 신청인 주장 요지

신청인 정안나는 위원회 1차 대국민 보고 경과보고(2017. 9. 18.) 당시 브리핑 자료 18쪽 ‘기존관리리스트’에 ‘극단 수수파보리’가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알고자 진상조사를 신청하였다고 한다. 또한 극단 수수파보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주관한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 공모’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였고, 2015~2016년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주관한 ‘방방곡곡 문화공감-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에서도 탈락한 바 있으며, 2016년도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에서도 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

나. 극단 수수파보리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아래 [그림-1]의 「수기로 작성한 명단(Oh & KIM)」²⁾에는 2014. 10.경에 극단 수수파보리가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명단은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과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이 각각 보유하고 있던 블랙리스트를 취합하여 만든 것이다.

그리고 아래 [그림-2]의 「리스트-2014/2015도분(654명)-확정」中 ‘6. 기존관리 리스트-149명’³⁾에 또한 ‘연극-35명, 극단 수수파보리’가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 신청인 허아람 진술조서, 2017. 10. 25.

2) 「수기로 작성한 명단(Oh & KIM)」

[그림-1] 「수기로 작성한 명단(Oh & KIM)」

분류	명단 (비밀번호는 제외함)	(가. 1명)
공공	민예총(지역민예총 포함), 작가회의, 광주전남농협가협회	1. 정동환 (아남고예대미술)
경	광주발전	2. 백정산 (전남대 신학원장)
상업	추진 (가. 1명)	3. 서우영 (ACC 대표이사)
기업	1. 전남 화석화학	4. 송수영 (전남 화석화학)
지입출원구원	2. 전남 사니네이	5. 김광보 (한일연극대학원장)
김성중, 김성근	3. * 오석연	6. 김소희 (전남대 미술)
한국	4. 장영남 (나한미술연구소)	7. 한국미술가협회
사관료(대전대학교), 안지훈(호서대학교)	5. * 최단 선수	8. * 김태 (KOTD)
해피동1번지, 국산 여행사, 전남 문화인, 고미영	6. * * 권은 보는 마음	9. * (가) 문화재단
주요	7. * * 미연	10. * * 김진
대영태(영촌), 김의근(상명대학교)	8. * * 김태 (KOTD)	11. * * 김태
음악	9. * * (가) 문화재단	12. * * 김태
홍승환-비지연부, 민영환(한양대학교)	10. * * 김진	13. * * 김태
동영국예술학계 관련, 루이살 관련	11. * * 김태	14. * * 김태
광주시의 예술계	12. * * 김태	15. * * 김태
전통예술	13. * * 김태	16. * * 김태
유형진	14. * * 김태	17. * * 김태
다원예술	15. * * 김태	18. * * 김태
서울프린시네마테크 대표 (오성희)	16. * * 김태	19. * * 김태

[그림-2] 「리스트 -2014/2015도분(654명)-확정」中 「6. 기존관리 리스트-149명」

분야	단체명	사업개요 및 검토내용	원형사항
문화-연예	①민예총, ②지역민예총, ③광주발전회, ④광주발전회, ⑤작가회의	대승회 보조금사업 집행으로 고발 및 환수조치(2010년) - 492백만원 중 5천만원 반제상대, 전액반납시까지 지원 중단 민예총상하 민예총재연구소(대표 조성대, 이사장 채희환) 임명법(비홍순) 2010년 소고기과육 식육진흥원시 출연단체 작가회의 소속 ⑤고명철, ⑥박정구, ⑦신용옥 / ⑧광주전남농협가협회 ⑨광주문화재단 예술계 음악계(인연배랑가 등 작곡, 중국에서 영문) ⑩부산국제영화제 구원비, ⑪시네루프(경지영, 윤성근) ⑫민족악은통합의회, ⑬한국민족음악원, ⑭노년무도서원재단(박영숙이사장) ⑮문화연대(김내희, 임정희, 황병우)	
연극-연예		①차근호(대전대학교), ②안지훈(호서대학교), ③해피동1번지, ④국산여행사, ⑤재해, ⑥국산 문화재단, ⑦그린피그(홍승환), ⑧인연자변명연극회 * 추가(2014.10월) ①국산 원자부니 ②국산 사니네이 ③국산 그림연극 ④광주발전 사막미술의 오토라 ⑤국산 선수부 ⑥국산 해를 보는 마음 ⑦국산 비연 ⑧국산 코티(KOTD) ⑨문화재단이론 ⑩국산 길현 ⑪국산 고래 ⑫국산 배수부 ⑬국산 두비출 ⑭국산 수수파보리 ⑮국산 산 ⑯ 노대일씨어터컴퍼니	

3) 「리스트 -2014/2015도분(654명)-확정」

당시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이었던 오OO은 2017. 10. 15. 서울지검에 출두하여 위 ‘기존관리 리스트-149명’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청와대 김OO 행정관의 지시로 문체부 각 부서의 블랙리스트를 한 번에 모아 정리한 것으로 작성 시기는 2015.3.~4.경이라고 진술하였다.⁴⁾

[표-3] 「오OO 서울지검 진술조서(2회)」(2017. 10. 15.)

문 위 ‘기존관리 리스트-149명’은 어떻게 작성하게 된 것인가요.
 답 당시 청와대 김OO 행정관이 기존 관리 리스트를 한 번에 모아 배제를 하라고 지시하여 그 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문 위 내용 중 ‘공연과 관리(중요) - 79명’이란 기재는 무엇인가요.
 답 이것은 공연과 김OO 사무관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다른 부서로부터도 리스트를 모아 취합한 것 같습니다.
 문 위 ‘기존관리 리스트-149명’은 언제 만든 것인가요.
 답 2015. 3. ~ 4.경으로 2015. 4. 13. 보다는 이전인 것 같습니다.

2.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2015) 배제 사실

가. 사업 개요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센터)는 역량 있는 공연단체와 작품을 육성할 목적으로 2010년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 통합법인인 (재)대학로공연예술센터로 출범하여 같은 해 (재)한국공연예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4년 예술위 소속 부서로 통합되었다.⁵⁾ 한편 예술위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 전신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제2항⁶⁾과 제20조⁷⁾에 근거하여

4) 오OO 서울지검 진술조서(2회), 2017. 10. 15.

5) 제148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2014. 5. 23.

6)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7)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5년 출범하였으며, 문예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센터는 매년 공모를 통해 기획 및 대관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5 정기대관공모의 경우 4개 극장(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및 소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및 소극장)의 2015년도 대관에 대하여 2014. 8. 29. 공고하여 2014. 9. 1.~2014. 10. 8.까지 접수받았으며, 2014. 11. 14. 공모결과를 발표하였다.

나. 배제 경위

극단 수수파보리가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에서 배제 조치된 사실은 다음의 자료 및 참고인 진술 등에서 확인된다.

1) 자료 조사 결과

가)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관련 보고」(2014. 10. 31.)⁸⁾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이었던 이OO이 작성한 위 보고서에 의하면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와대 협의 결과 심의위원 3명(김OO, 김OO, 김OO)과 신청단체 19개를 미선정 요청한 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위 보고서의 ‘붙임2’ 문서에 의하면 연극분야 신청 작품 78개 중 극단 수수파보리의 ‘처용, 오뎅새이’를 포함한 21개의 작품에 음영표시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

[그림-3]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관련 보고」(2014. 10. 31.)



8)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관련 보고」,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2014. 10. 31.

9) 대관공모 신청은 원칙적으로 작품을 기준으로 하는데, 위 음영표시에 의해 배제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19개 단체의 21개 작품이다(‘그린피그’ 및 ‘극단 사니너머’가 2개의 작품을 신청). 그러나 청와대 배제 지시는 단체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음영표시 된 21개 작품 보다 많은 25개의 작품이 배제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붙임2 지원단체 현황(182단체)

□ 연극 분야 (신청단체 : 78개)

구분	지원단체명	작품명	연출	안무
1	극단 완자무너	작가를 찾는 6인의 등장인물	김태수	
2	서울연극협회	제36회 서울연극제		
3	극단 실험극장	다우트 (Doubt)	최용훈	
4	조은컴퍼니	종일본가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가 인큐베이팅 선정작)	김재훈	
5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제23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김숙희	
6	무직테아터	나비잠	이강선	류선아
7	(주)신시컴퍼니	연극 <렛미인>		
8	MJ컴퍼니	연극 햄릿	성천모	
9	그린피그	트로이아의 여인들	윤한솔	
10	문화기획컬처트리	단 한 번과 두 번	서나영	정은혜
11	모이공	돈키호테	송갑석	강지수
12	(주)티엔비컴퍼니	킬러조	Marjorie Hayes	
13	극단 토드<T.O.D>	2인극(Two-Character Play)	이인수	
14	한국연극연출가협회	2015 신춘문에 단막극전		
15	플레이박스 시어터	<겨울맥베스 '살인의 추억'>	김애자	
16	소리컴퍼니	로큰롤 흥부전	정기환	
17	한국연극연출가협회	2015 아시아연출가 워크샵 페스티벌		
18	극단작은신화	우리연극만들기 열 한 번째 (두 작품)		
19	극단 사니너머	꽃밭에 앉아서	김학수	
20	양손프로젝트	여직공	박지혜	김주희
21	리칸플레이즈	마크의 친구, 마크	Jamie Chi, Denny Hwang	
22	극단 그림연극	열다섯번째 작품 "피로"	이현찬	
23	창작공동체 아르케	수갑 찬 남자	김승철	
24	극단 작은방	정서진별곡	신재훈	

25	창작집단 사막별의 오로라	불안의 몸	김지영 황은후	
26	Tomo'sFactory	햄릿:Reloaded	쫄까 구치 토모	
27	극단지구연극	주눈	최서은	황혜수
28	극단 북새통	청소년은 볼수 없는 청소년 이야기 <러브>	남인우	이윤정
29	한국연극연출가협회	한국 연극 100주년 기념 시리즈 6탄 조일재의 단장목		
30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원사무국	대한민국예술원 연극영화무용전		
31	극단가고	극단가고 창단50주년 기념공연 '막 차탄 동기동창'	오승수	
32	2인극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제15회 2인극 페스티벌		
33	극단 풍경	자코메티의 아틀리에	박정희	
34	마방진	마리화나	고신용	
35	극단산수유	압센타 Absentha	류주연	
36	극단 해를보는마음	두드려라, 맥베스!	황준형	박덕상
37	사다리움직임연구소	카프카의 <심판> - 가제-	임도완	
38	주식회사 적도	술과 눈물과 지킬엔하이드(가제)	민준호	
39	극단미연	한일수교 50주년 기념 한일합작공연 (극단 미연, 극단 에루무) <엄마>	김순영	
40	페아뜨르 노리	드라마 전시 '그녀의 방' 시즌 3 노 크하지 않는 집	이항나	윤푸름
41	극단 양상불	다목리 미상번지	김진만	이신정
42	관악극회	연극 "1895"	이수인	홍세정
43	극단 행길	빅 러브	최재오	안신희
44	에이치제이컬쳐 주식회사	연극 <만추>	박소영	
45	명품극단	안나 카레니나	김원석	고경희
46	극단 코티(KOTTI)	햄릿 코리아	이상희	최태선
47	극단 까치동	불꽃처럼,나비처럼	정경선	배승현
48	조은킵퍼너	래빗홈 (2014년 한국공연예술센터 공동기획 공연 선정작)	김재훈	
49	(주)문화아이콘	본격심리스털러 <도둑맞은 책>	변정주	

50	극단 동	쉬또 야 젤라쨌 (무엇을 할 것인가)	강량원	
51	물결	리시스트라테	송현욱	이명찬
52	해미뮤지컬컴퍼니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김진만	이신정
53	극단 집현	왕에게	이상희	최태선
54	극발전소 301	연극 만리항	정범철	
55	극단 차이무	달빛요정과 소녀	민복기	
56	맨써어터	프로즌 (Frozen)	김광보	
57	극단고래	불명선인 김상옥	이해성	
58	극단 백수광부	굿바이	전인철	
59	극단 행길	옆방에서 혹은 전기 전동기 놀이	이강임	안신희
60	극단 비유	유츄프라카치아	신경혜	
61	극단 두비춤	순우삼촌	부새뜸	
62	극단 이티에스	BENT	김혜리	김혜리
63	연희집단The광대	굿모닝 광대굿	김서진	
64	뮤지컬 컴퍼니 끼리프로젝트	연극 '바보미소 - 가슴속에 별을 품은 아이'	변진호	서승현
65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H-스타 페스티벌		
66	Honest Theater	보이체크(woyzeck)	오광욱	
67	마방진	강철왕	고선용	
68	극단 사계탐사	순수한 타바스코	박혜선	
69	극단비천-하늘을꿈꾸는광대	PHEDRA Syndrome (페드라 신드롬)	엄상에	차인숙
70	(사)행복공장	숙자 이야기	노지함	
71	그린피그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아가지 않는다	윤한솔	
72	극단 수수파보리	치용, 오디세이	정안나	최인숙 외
73	극단 산	연극 [선물]	윤정환	
74	극단 사니너머	서푼짜리 연대기	김학수	
75	떼아트르 봄날	해피투게더	이수인	
76	노네임써어터컴퍼니	두개의 방_TWO ROOMS	김태형	
77	극단 단잠	행복해지고 싶은, 그곳에서 '버스를 놓치다'	장봉태	
78	스튜디오 반	늑대는 눈알부터 자란다	이강선	김지혜

나)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심의제도 변경, 심의 세부 내역 및 실적 보고

(1) 예술위 공연운영부 작성의 2014. 11. 7.자 「2015년도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접수결과 및 심의추진 수정 계획(안) 보고」¹⁰⁾

예술위는 2014. 8. 28. 위와 같이 2015 정기대관공모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고하여 연극 분야 85개 작품, 무용 분야 87개 작품, 다원, 뮤지컬, 기타 분야 25개 작품 합계 197개 작품이 신청 접수하였다. 이에 대해 2014. 10. 30. 최종 결과발표를 하지 않은 채 연극분야(다원, 뮤지컬, 기타 분야 포함)의 심의일자를 2014. 11. 7., 무용 분야의 심의일자를 2014. 11. 11.로 연기하기로 하고, 발표일자도 2014. 11. 14.로 연기하였다. 나아가 심의방법도 위 추진계획 문서에 기재된 ‘채점제’가 아닌 대관심의위원들의 추천 우선순위에 따라 A, B, C, D 네 개의 등급을 부여하고 위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바꾸었는데, 이는 문체부의 지시에 따른 지원배제를 보다 용이하게 실행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4]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접수결과 및 심의추진 수정 계획(안) 보고」

The image shows a document page with the following elements:

- Titl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orea Arts Commission)
- Section:** 심의추진 수정 계획(안) 보고 (Review Progress Modification Plan Report)
- Table 1 (Application Statistics):**

작품명	연극	무용	다원	뮤지컬	기타	합
연극 분야 접수작품	85	0	0	0	0	85
무용 분야 접수작품	0	87	0	0	0	87
다원 분야 접수작품	0	0	25	0	0	25
뮤지컬 분야 접수작품	0	0	0	25	0	25
기타 분야 접수작품	0	0	0	0	25	25
합	85	87	25	25	25	197
- Table 2 (Review Criteria):**

등급	심사	심사	심사	심사
1등급	10명	10명	10명	10명
2등급	10명	10명	10명	10명
3등급	10명	10명	10명	10명
4등급	10명	10명	10명	10명
- Flowchart:**

```

    graph LR
      A[신청 접수] --> B[심사]
      B --> C[추진]
      C --> D[발표]
      D --> E[결과]
    
```

10) 2015년도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접수결과 및 심의추진 수정 계획(안) 보고 (조사기록 제 64~65쪽)

(2) 예술위 공연운영부 작성의 2014. 11. 14.자 「2015년도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 공모 심의 결과보고」¹¹⁾ 및 심의 세부 내역¹²⁾, 최종 선정 작품 내역 위 결과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무용 분야는 87개 작품이 신청되었고 그 중 45건이 선정되었음에도, 연극 분야는 신청된 85개 작품 중 20건만 선정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림-5] 2015년도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 공모 심의 결과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년도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심의 결과보고

1. 개요
가. 공모기간 : 2014년 8월 29일(월)
나. 접수기간 : 2014년 8월 1일(월) ~ 11월 4일(수)
다. 접수장소 : 문화위 신청서(www.parthen.korea.ac.kr)
라. 접수결과 : 총 187건

구분	연극	무용	다양	유교형	기타	총
연극(극단, 무지개, 무지개)	8	40	-	2	2	52
연극(무지개)	20	10	4	-	-	34
연극(무지개)	12	11	5	2	1	31
연극(무지개)	20	9	3	2	-	34
총	60	60	12	4	3	139

2. 심의위원
가. 심의위원 :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심사 위원 총 187명
나. 심의위원 : 문화위 내부 전문가 5명, 외부
다. 심의위원

구분	연극	무용	다양	유교형	기타	총
연극(극단, 무지개, 무지개)	1	1	1	1	1	5
연극(무지개)	1	1	1	1	1	5
연극(무지개)	1	1	1	1	1	5
연극(무지개)	1	1	1	1	1	5
총	4	4	4	4	4	20

3. 심의결과
가. 심의위원 :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심사 위원 총 187명
나. 심의위원 : 문화위 내부 전문가 5명, 외부
다. 심의위원

구분	연극	무용	다양	유교형	기타	총
연극(극단, 무지개, 무지개)	1	1	1	1	1	5
연극(무지개)	1	1	1	1	1	5
연극(무지개)	1	1	1	1	1	5
연극(무지개)	1	1	1	1	1	5
총	4	4	4	4	4	20

그리고 동 ‘공모심의 세부내역’을 보면, 연극 분야에서 A 또는 B 등급을 받은 23개의 작품이 추천되었는데, 극단 수수파보리가 신청한 ‘처용, 오디세이’ 작품은 D 등급을 받아 심의위원 추천작품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³⁾

11) 2015년도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심의 결과보고 (조사기록 제67~69쪽)

12) 2015년 공연예술센터 정기 대관 공모 심의 결과 (조사기록 제131쪽)

13) 「2015 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 공모 심사채점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그림-6] 2015 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 공모 심의 세부내역

2015년 공연예술센터 정기 대관 공모 심의 결과					
연번	장르	단체명/개인명	작품명	추천	비고
93	연극	극단 수수파보리	처용, 오디세이		D

다) 문체부 예술정책과,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2015. 5. 11.)¹⁴⁾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이 작성하여 문체부 과장, 국장, 장차관 및 청와대까지 보고된 위 문서에 의하면, 2014. 6.부터 2015. 5. 6.까지의 공모사업 총 213건에 대한 배제 조치가 주요 조치 실적으로 기재되었고, 첨부된 「참고4 개별 공모추진사업 현황」에서 ‘공연예술’ 분야 중 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 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위원 3명과 수수파보리(정안나, 최인숙)를 포함한 단체 18건이 지원배제 실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7] 문체부 예술정책과,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中「참고 1」(2015. 5. 11.)

참고1 특이사항 세부조치 실적	
'15.5.6현재	
공연예술분야	6개 기관, 1,598건 신청, 361건 선정, 61건 배제 -(한국문예회관연합회)방방곡곡문화공감 22건/ 서울아트마켓, 전통예술해외진출지원 등 5건/ 공연예술행사지원 5건 / 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심사 18건/ 창작산실 연극분야 7건 등

14)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5. 5. 11.

[그림-8] 위 문서, 「참고 4. 개별 공모추진사업 현황」

분야	사업명	신청 건수	선정 건수	특이사항 조치현황
(예술위 /일반회계)	공연예술센터 정기 대관 심사 (‘15.1월완료)	182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위원 3명 (김석만, 김미도, 김채현) ○단체:18건 ○극단 완자무늬(김태수), 조은컴퍼티(김재훈), 그린피그(윤환술), 극단 사니너머(김학수), 극단 그림연극(이현찬), 창작집단 사막별의 오로라(김지영, 황은후), 극단 산수유(류주연), 극단 해골보노미온(황준형, 박덕상), 극단미연(김순영), 극단 코티(KOTTI)(이상희, 채태선), 쉼문화아이콘(변정주), 극단 집현(이상희, 채태선), 극단고래(이혜성), 극단 백수광부(전인철), 극단 두비출(부새롬), <u>극단 수수파파리(정안나, 최인숙)</u>, 극단 산(윤정환), 노네일씨 어터컴퍼니(김태형) 제외

2) 참고인 진술

가) 임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진술¹⁵⁾

임OO는 본인이 공연전통예술과장으로 발령받았을 당시에 이미 각 사무관들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예술위가 보내온 신청자 명단과 대조하여 확인한 후, 이OO 사무관에게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관련 보고」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블랙리스트 단체들을 음영처리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센터장 유OO에게 전화하여 ‘대관 관련 제외 대상 단체가 있으니, 담당 사무관(이OO)이 연락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진술¹⁶⁾

이OO은 위 정기대관공모 사업에서 ‘서울연극협회’를 배제시킬 계획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2014 .10.말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유OO 또는 김OO에게 배제 대상자를 알려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15) 임OO 진술조서, 2018. 1. 23.

16) 이OO 진술조서, 2017. 9. 29.

다) 유OO 센터장 진술 및 제출 자료

유OO 센터장은 김OO 공연운영부장이 문체부 이OO 사무관에게 공모 신청자 명단을 전달하였고, 17) 문체부의 배제 지시와 관련하여, 임OO 문체부 과장이 전화로 ‘이OO 사무관이 전화를 할 것이며 전화를 받아보면 알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이OO 사무관이 전화하여 “대관공모 신청자 리스트가 있느냐”고 물은 후 신청 접수 번호를 불러주며 “이 단체들을 유의해서 보라”고 했는데, 이에 이OO 사무관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가 ‘김OO 부장이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8)

그리고 이OO 사무관과 통화 후 잠시 뒤 김OO 부장이 배제 단체가 표시된 신청자 명단을 들고 운영총괄본부장실로 찾아왔으며, 김OO 부장이 “전화 받으셨죠?”라고 물은 후 “서로 표시한 번호를 확인하자, 맞춰보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9)

한편 유OO 센터장은 2015 정기대관공모 심의기준 변경에 대해서, 2014. 11. 초 경 김OO 공연운영부장이 배제 실행을 위한 여러 개의 방안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왔으며, 위 김OO과 상의 하에 A, B, C, D 등급제로 심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20)

또한 유OO 센터장은 「2015 정기대관 심의 진행 시나리오」²¹⁾문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관공모 사업과 관련된 연극 분야 대관 심의 진행을 위해 예술위 직원용으로 사전 작성된 시나리오이며, 김OO 센터 공연운영부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22) 위 문건을 살펴보면 대본 형태로 작성된 시나리오에는 심의위원 입장부터 센터장 인사, 심의방법 설명까지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심의 진행은 김OO부장이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김OO 부장이 심의위원에게 설명 예정인 심의방법이 대사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심의위원이 A그룹 10건, B그룹 15건, C그룹 15건을 분류하고 연극분야에서 최종적으로 20건 내외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유OO 센터장은 심의를 앞두고 예술위 주간회의에서 권영빈 예술위 위원장이 자신에게 ‘특별히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심사하라’는 내용을 심의에 배석하여 심의위원에게 전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2014. 11. 7. 연극분야 심의장에서 ‘위원장님 말

17) 유OO 1회 진술조서, 2017. 9. 29.

18) 위와 같음.

19) 위와 같음.

20) 위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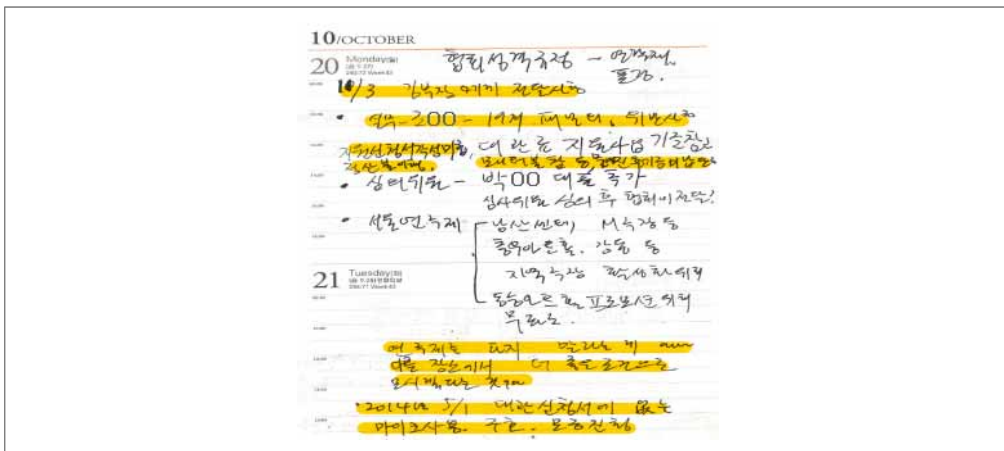
21) 「2015 정기대관 심의 진행 시나리오」, 예술위, 2014. 11.

22) 유OO 1회 진술조서, 2017. 9. 29.

씀'을 전하는 순서에 맞춰 심의위원에게 권영빈 위원장의 말을 전달하였으며, 심의 당일 예술위 직원으로서 자신과 김OO, OOO 등이 배석하였고, 김OO 부장이 심의 절차를 안내하는 것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³⁾

유OO 센터장은 2017. 12. 13. 위원회에 재차 출석하여, 문체부로부터 배제 지시를 받은 것에 대하여 권영빈에게 보고하였고, 권영빈으로부터 방안을 마련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 11. 3. 부장급 이상 주간회의 자리에서 권영빈이 서울 연극협회가 2014. 5. 1. 공연 당시 예술위와 합의되지 않은 모금활동을 하였던 점을 언급하고 나아가 김OO에게 실무자인 OOO로 하여금 배제 지시가 있었던 19개 단체에 대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미흡, 정산 불이행, 모니터 불참 등의 미비사항 또는 위반사항을 찾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자신이 당시 회의 상황을 적은 업무수첩을 제시하였다.²⁴⁾

[그림-9] 「유OO 제출 업무수첩」



라) 예술위 공연운영부장 김OO 진술²⁵⁾

김OO은 문체부 사무관 이OO으로부터 별도로 배제 명단을 전달받은 바는 없으며, 유OO 센터장이 '문체부가 싫어하는 단체야'라는 말과 함께 명단을 알려주어 받아 적었는데

23) 위와 같음.

24) 유OO 2회 진술조서, 2017. 12. 13.

25) 김OO 진술조서, 2018. 3. 22.

데, 특정 예술단체에 대관을 해주면 안 된다는 문체부 방침을 심의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유OO로부터 배제 방법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심의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특히 심의 계획 단계에서 등급제를 도입하여 심의위원이 토론을 통해 심의 대상을 A, B, C, D 등급으로 나누고 최종 선정 권한은 센터장과 위원장이 갖도록 하였는데, 이는 배제 대상 중 일부를 손쉽게 배제하면서도 심의위원 개개인이 결과 발표 후에 지게 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김OO은 실제 심의 단계에서는 배제 지시를 받은 단체 중 선정 후보로 논의되는 단체에 대해서 대관신청서 미비, 과거 3년간 대관 후 실적 등 합리적인 대관 배제 근거가 될 만한 사유를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유를 미리 수집하였고, 그래도 선정이 유력한 경우에는 예술위가 동승홀 등을 재대관 해 주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며 그 사업에서 선정하는 것이 단체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는 사유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예술위 공연운영부 대리 000 진술²⁶⁾

000는 김OO 부장의 구체적인 내용 수정 지시에 따라 자신이 「2015년도 한국공연 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접수결과 및 심의추진 수정 계획(안) 보고」를 작성하였으며, 문서 작성 시점(2014. 11. 7.)에는 배제 방침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연극분야 심의위원 진술

당시 연극분야 심의위원이었던 김OO²⁷⁾, 이OO²⁸⁾, 김OO²⁹⁾는 모두 심의 당시에 지원 배제 명단이나 배제 실행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6) 000 진술조서, 2018. 1. 21.

27) 김OO 진술조서, 2017. 12. 15.

28) 이OO 사실확인서, 2018. 3. 26.

29) 김OO 전화조사, 2018. 3. 23.

다. 소결

극단 수수파보리는 「2015년도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에서 탈락하였는데, 극단 수수파보리가 위 사업 심의 이전인 2014. 10.경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문체부가 청와대와 협의하여 극단 수수파보리를 포함한 19개 신청 단체의 배제를 예술위에 지시한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예술위는 문체부의 이러한 배제 지시를 보다 용이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당초의 ‘채점제’에서 ‘등급제’로 공모 방식을 변경하였고, 배제 대상 단체와 관련하여 지원신청서 미비, 정산 불이행, 모니터 불참 등의 미비사항 또는 위반사항 등 합리적인 대관 배제 근거가 될 만한 사유를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여 이를 심사에 적용하도록 하여 배제대상을 탈락시키려고 노력했던 의혹이 확인되었다.

극단 수수파보리가 2014. 10.경 이미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던 점, 문체부가 19개 단체의 배제 지시를 하달하였고, 그중에 극단 수수파보리가 포함된 점, 문체부에서 위 사업의 배제 실적 보고에 극단 수수파보리를 포함시킨 점, 예술위 사업 담당자들이 심사방법을 변경하고, 지시받은 배제대상을 탈락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살펴보면, 비록 연극분야 심의위원들이 지원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에서 문체부와 예술위가 블랙리스트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자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극단 수수파보리는 제1차 심의과정에서 D등급을 받아 탈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위와 같이 예술위가 지원배제를 실행하고자 심사방법을 변경하고, 센터장 선정 및 위원장 최종 결정 단계를 만들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극단 수수파보리가 1차 심의 단계를 통과했을지라도 결국에는 지원배제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3.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2015, 2016) 배제 사실

가. 사업 개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3항4호,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 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및 동법 제38조제5항6호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 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추진된 문화예술 진흥사업이다.

동 사업의 목적은 문화예술의 창의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문화예술을 온 국민과 더불어 누리고자 복권기금 재원으로 추진하여 문화예술 발전의 밑거름인 지역 문화예술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 방방곡곡에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나눔을 통해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문화적 격차 해소를 문화 복지정책 실현할 뿐만 아니라 지역 문예회관의 기획 역량 강화로 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³⁰⁾

동 사업을 추진하는 한문연은 문화예술회관의 균형발전 및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공연 예술 유통,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의 문화활동지원 등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되었으며, 2012. 8.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의해 법정법인으로 전환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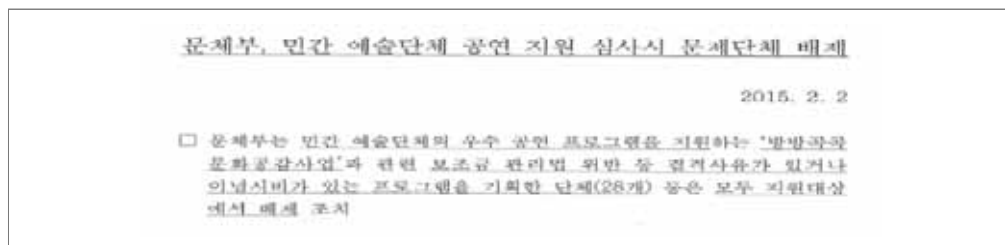
나. 배제 경위

1) 자료 조사 결과

극단 수수파보리가 2015년 및 2016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서 배제된 사실은 아래 그림의 2017. 10. 30. 발표된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및 문체부의 「리스트 - 2014/2015도분(654명)-확정」中 ‘2015년 연중사업리스트-262명’ 등에서 확인된다.

가)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2017. 10. 30.)

[그림-10]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2017. 10. 30.)



30) 「2015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결과보고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5.12.

□ 關聯 動向

○ 문제부(장관:김종덕)에서는

- 작품성·대중성을 지닌 우수 프로그램 공연 민간 예술단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연간경상보조, 52억원)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과 관련
- 공모결과 신철한 총 850개 프로그램에 대해 1.28 1차 심사 (278개 작품 선정), 1.30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186개 작품을 선정하였는 바
 - 음모작수 / 선정작품수 : 연극(328 / 89), 음악(165 / 30), 무용(70 / 30), 전통예술(142 / 30), 다원예술(145 / 37) 등
- 同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법 위반, 공연료 미지급 등 결격사유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소지가 있는 28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그림-11]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붙임 자료(2017. 10. 30.)

붙임 결격사유 해당 단체(28개)

【 정치적 편향, 사회 풍자 등 】

- 99문화아이콘 : 플라잉 뮤지컬 <두리둥실 풍계공항>
- 극단 김현 : 순현궁에 노을지다
- 극단 골목길 : 만수전선
- 극단 산 : 연극 팡팡
- 극단 완자무늬 : 녹차정원
- 극단 재미와 놀이 KOTII : 날짜변경선
- 연희단거리패 : 강부자의 오구
- 조은업피니 : 가을 반딧불이
- 극단 하명세 : 파우스트 I+II, 유기농 가극극 "뽕바람"(2개 작품)
- 협동조합 극단 새벽 : 천문우주과학연극 "별E 별이에게"
- 그린피그 : 투너수술
- 극단 메아뜨르 고도 : 조선으로 배다
- 극단 수수파보리 : 치유, 오딧세이
- 극단 전일보 : 전국방방곡곡 통일을 노래하는 <아리랑 랩소디>
- 극단 황금가지 : 만두와 칼창
- 극단 그림연극 : 예술체험교육과 함께하는 공연 "소녀의 꿈"
- 극단 미연 : 거짓말쟁이 여자, 영자
- 극단 사니너머 : 산전수전
- 민족춤페 너울 : 어머니의 바다
- 극단 무아몽 : 우당 이회영
- 극단 파수꾼 : 칠서
- 극단 러리 : 조봉냉면

나) 「리스트-2014/2015도분(654명)-확정」中 ‘2015년 연중사업리스트-262명’

[그림-12] 문체부, 「리스트-2014/2015도분(654명)-확정」中 ‘2015년 연중사업리스트-262명’

8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 - 262명				
사업명	단체명	세부사업명	검토내용	비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화기금) - 22명	(주)문화이력장유연	①플라임 유가환(유리)을 문화공감		- 권원제외 -
	극단 권원제경희	②문화공예 노동자다		
	극단 풍목잡이호영	③한우원천		
	극단 신은정희	④연극 작품		
	극단 최지우의(김홍순)	⑤차차차		
	극단 재현(김도희)	⑥남변연결		
	연희단거리패(김소희)	⑦장무의 요구		
	조수원(박나김계훈)	⑧가을 단막극		
	극단 화평채(윤사은)	⑨마우스트 H.O. 용기들 기록극 "꽃마리"		
	극단 새마을(김민)	⑩천문우주과학연극 "별빛들이해제"		
	그림그린연설	⑪무녀수출		
	극단 배아쁘레 고도(김영국)	⑫조선으로 빠다		
	극단 '수주파'의(정이나)	⑬3차분 오디세이		
	극단 권원제(김경민)	⑭한국전쟁의 현실을 노래하는 (여리랑 캠페인)		
	극단 활동가(김이민)	⑮연극과 활동		
	극단 그림자(이민정)	⑯예술제형으로의 향유하는 공연 "소녀의 꿈"		

2) 참고인 진술

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 진술³¹⁾

김OO은 2015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관련하여 ‘청와대 김OO 행정관의 전화를 받고,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보고 한 후 배제를 진행했으며, 2015.1.초 경 한문연으로부터 심의위원 및 신청자 명단을 송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어 ‘신청자 명단에서 배제 대상자는 1차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보유 리스트와 맞춰보고, 2차로 국정원과 청와대에서 추가 배제 대상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문연 측에 배제 지시를 전달하는 과정에 대하여는 한문연 최OO 부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배제를 부탁하였고, 사무처장 O와는 직접 만나거나 여러 번 통화한 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배제 지시 보다는 배제 업무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양해해 달라는 식의 얘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또한 ‘O가 이런 분위기를 다 알고 있어서 배제 협조가 가능했다고 하였으며, 한문연의 경우 예술위보다 심사 규정이 취약해서 배제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2016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또한 특이사항이 없었다면 블랙리스트에 의한 배제가 누적 적용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1) 김OO 진술조서, 2018. 3. 8.

나)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주무관 000 진술³²⁾

000는 2016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담당자로서 ‘블랙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누적 적용이 되며, 따라서 2015년 배제 대상이었던 단체는 2016년에도 배제 대상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사업의 배제 진행과 관련하여, ‘본인이 한문연 최OO 부장에게 연락하여 메일로 신청자 및 심의위원 명단을 받았고, 일차적으로 이를 공연전통예술과가 보유하고 있던 배제 대상자 명단과 맞춰보고 배제 대상자를 추렸다.’고 하였다. ‘이차적으로는 청와대 검토를 거쳐 배제해야 될 대상을 본인 또는 최OO 서기관(위 김OO 후임)이 최OO 부장에게 전화로 불러주었으며, 심사 종료 후 최OO 부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본인 메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임OO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는 최OO 서기관이 사업 진행 단계별로 보고를 하였고, B 예술정책관에게는 최OO 서기관이 심의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문연 문예지원부장 최OO 진술³³⁾

최OO은 2015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관련하여 ‘2015. 1. 초경 문체부 김OO 사무관에게 심사위원 명단 및 접수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였고, 1차 분야별 심사가 있었던 1. 28.보다 2~3주 전 쯤 김OO이 전화를 해서 명단을 불러주며 문제가 있는 단체니 선정하지 말아달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최OO은 ‘그런 내용의 전화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하였다. 이후 최OO은 1차 분야별 심의 당시 심의장에 직접 들어가서 심의위원들에게 “알려드리는 단체들은 결격사유가 있거나,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지원배제 명단을 불러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개별 단체별로 미비사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결격사유를 설명한 다음 “설명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 들입니다.”하고 전체 명단을 쭉 불렀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의문을 가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다만 심의 도중에 개별 단체에 대해서 사유를 다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그 단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더라도 전반적인 결격 사유를 다시 설명하는 방식으로 멍뚱그려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6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관련하여, 최OO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32) 000 진술조서, 2018. 3. 14.

33) 최OO 진술조서, 2018. 3. 5.

배제 명단은 누적 적용되므로 2015년에 배제 지시가 있었던 단체는 2016년 문건에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배제대상이 된다고 하였고, 1월 중순경에 접수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자 문체부 사무관 최OO이 전화로 배제 대상자를 불러줬다고 진술했다.

다. 소결

극단 수수파보리의 <2015~2016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배제와 관련하여, 배제 사실이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및 문체부의 「리스트 - 2014/2015도분(654명)-확정」 중 '2015년 연중사업리스트-262명'에서 확인되고 있고, 문체부 사무관 김OO은 '청와대 김OO 행정관의 지시로 직접 한문연 측과 배제를 진행하였다.'고 하였으며, 문체부 사무관 최OO 및 주무관 OOO 또한 2016년도 사업도 2015년과 마찬가지로 배제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인정한 점, 한문연 사업 담당자 문예지원부장 최OO 또한 '배제 명단을 심의위원에게 불러줬다.'는 등의 배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서 극단 수수파보리가 <2015~2016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서 배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 결론

이 사건은 극단 수수파보리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2015~2016년 예술위 주관의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 공모> 지원 사업과 한문연 주관의 <방방곡곡 문화공감-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에서 탈락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조사 결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문학인 시국선언(2014. 6. 2.) 참여자 명단, 문화예술계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909명 명단(2014. 6.)에 연극계 370명 중 정안나(연극)가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극단 수수파보리 대표 정안나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유로 추정된다.

극단 수수파보리는 문체부가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인 「수기로 작성한 명단(Oh & KIM)」과 「리스트 -2014/2015도분(654명)-확정」 중 '6. 기존관리 리스트-149명' 등에 등재되어 있었다.

극단 수수파보리의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배제와 관련하여, 문체

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이OO이 작성한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관련 보고」(2014. 10. 31.)에서 청와대와 협의하여 심의위원 3명(김OO, 김OO, 김OO)과 극단 수수파보리를 포함한 신청단체 19개를 미선정 요청한 것이 드러났고,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이 작성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2015. 5. 11.)에서도 심의위원 3명과 수수파보리(정안나, 최인숙)를 포함한 단체 18건이 지원배제 실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임OO, 오OO, 유OO, 김OO 등 문체부 및 예술위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청와대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에 대관심의위원 3인 및 19개 신청단체에 대하여 배제를 지시하고 문체부가 이를 다시 예술위에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극단 수수파보리의 2014. 10.경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실, 문체부의 극단 수수파보리를 포함한 19개 단체의 배제 지시 하달, 문체부의 위 사업 배제실적 보고에 극단 수수파보리의 포함, 예술위의 심사방법 변경 및 배제지시 이행 노력 등을 살펴보면, 비록 연극분야 심의위원들이 지원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에서 문체부와 예술위가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고자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극단 수수파보리는 제1차 심의과정에서 D등급을 받아 탈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위와 같이 예술위가 지원배제를 실행하고자 심사방법을 변경하고, 센터장 선정 및 위원장 최종 결정 단계를 만들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극단 수수파보리가 1차 심의 단계를 통과했을지라도 결국에는 지원배제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극단 수수파보리의 <2015~2016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배제와 관련하여,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조사결과」(2017. 10. 30.) 및 문체부의 「리스트 - 2014/2015도분(654명)-확정」中 '2015년 연중사업리스트-262명'에서 극단 수수파보리의 배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의 김OO과 OOO, 그리고 한문연의 최OO의 진술에서 청와대 김OO 행정관의 지시로 배제가 진행되었으며, 문체부는 한문연으로부터 심의위원 및 신청자 명단을 송부 받고 이를 검토한 후 청와대와 국정원의 확인을 거쳐 한문연 측에 배제 지시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7

국립중앙극장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47

국립중앙극장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공6 [국립중앙극장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직권조사의 취지

2016. 12. 13. 국민일보는 국립중앙극장(이하 ‘국립극장’)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한 의혹을 제기¹⁾하였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그리고 지도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이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국립극장의 경영 자율성을 훼손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으로, 이 사건 조사를 통해 국립극장의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손진책 연출은 2013년 국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립극단 연극 <개구리> 공연이 정치 편향적이라는 청와대 지적에 의해 예술감독직 연임을 포기하였

1) “[단독] 문체부, 작년 국립극장 마당놀이 공연 취소 압력” <국민일보> 2016/12/13 17:2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58696&code=13110000&cp=nv>

고 이후 문체부 지원 배제 대상자로 관리되었다. 이 연장선에서 2015. 11. 문체부가 국립극장에 2015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 손진책 연출 교체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청와대의 양해를 얻어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 2) 이윤택 연출의 2015 <혜경궁 홍씨> 공연에 대하여 배제 지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 3) 2015. 8. 10. 대통령 발언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극장에 국립무용단 공연 <향연> 제작을 지시하였는데, 제작비 마련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민간 지원예산을 국공립단체인 국립극장에 전용토록 하였다. 예술위 및 국립극장은 위계 관계에 의해 문체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였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훼손되었다. 또한 예술위가 국립극장에 지원한 예산 중 일부가 블랙리스트 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예산임이 확인되었다.

붙임 : [국립중앙극장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공6 국립중앙극장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제1절 | 사건 개요

1. 직권조사의 취지

2016. 12. 13. 국민일보는 국립중앙극장(이하 '국립극장')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한 의혹을 제기²⁾하였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그리고 지도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이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국립극장의 경영 자율성을 훼손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으로, 이 사건 조사를 통해 국립극장의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였다.

2) “[단독] 문체부, 작년 국립극장 마당놀이 공연 취소 압력” <국민일보> 2016/12/13 17:2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58696&code=13110000&cp=mv>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 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해 2017. 12. 8. 위원회「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본 보고서에서 다룬 국립극장의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한 쟁점은 아래와 같다.

- 1) 2015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 연출 손진책 교체 압력
- 2) 이윤택 연출의 2015 <혜경궁 홍씨> 재공연 취소
- 3) 2015 국립무용단 <향연> 제작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예산 전용 조사를 통해 위 쟁점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제2절 | 주요 조사경과

1. 문건 등 자료 조사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단독] 문체부, 작년 국립극장 마당놀이 공연 취소 압력 (2016. 12. 13.)	국민일보	2017. 12.
2	'노무현 미화·박정희 비하' 국립극단 연극이?(2013. 9. 12.)	데일리안	2017. 12.
3	이윤택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가 잇고 있던 저항정신 일깨워줬다"(2017. 6. 3.)	한겨레	2017. 12.
4	[단독] 김종덕 전 장관, 민간 지원예산 문체부 산하기관에 전용 (2016. 11. 21.)	뉴스1	2017. 12.
5	2015년도 국립극장 제작공연 <향연> 지원 경위(2017. 8. 30.)	예술위 공연지원부	2017. 12.
6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2017. 10. 30.)	국정원 적폐청산T/F	2017. 12.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7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보고서	감사원	2017. 12.
8	리스트-'16.2.1.현재	오○○(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2017. 12.
9	리스트-'16.9.27.현재	오○○(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C(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2017. 12.
10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2015. 5. 21.)	오○○(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2017. 12.
11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정○○(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2017. 12.
12	2017고합102 사건 판결문(2017.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2017고합102 사건 재판기록 중 오○○ 2회 진술조서 (2016. 12. 27.)	오○○	2017. 12.
14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2015. 5. 11.)	오○○(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2017. 12.
1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국립중앙극장 경위서 및 관련 자료(2017. 8. 31.)	국립극장 공연기획부	2017. 12.
16	국정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2015. 8. 18.)	문체부	2017. 12.
17	전통문화의 세계화 관련 회의 결과 보고(2015. 9. 7.)	문체부 지역전통문화과	2017. 12.
18	전통문화의 세계화 방안(2015. 10. 5.)	관계부처 합동	2017. 12.
19	2015-2016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 공연 현황	이○○(국립극장 공연기획팀장)	2018. 1.
20	제23차 임시이사회 주요 의사록(2015. 7. 21.)	국립극단	2018. 1.
21	주요회의록(2015. 7. 21.)	국립극단	2018. 1.
22	제162차 위원회 전체회의 자료(2015. 6. 25.)	예술위	2018. 1.
23	제162차 위원회 회의 속기록(2015. 6. 25.)	예술위	2018. 1.
24	제174차 위원회 서면회의 의결 안건 제출(2015. 11. 12.)	예술위 창작지원부	2018. 1.
25	제174차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보고(서면)(2015. 11. 18.)	예술위 기획예산부	2018. 1.
26	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전통공연 <향연> 지원계획 수립 (2015. 11. 19.)	예술위 창작지원부	2018. 1.
27	2015년도 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전통공연 <향연> 사업 승인 및 교부신청 안내(2015. 11. 19.)	예술위 창작지원부	2018. 1.
28	전통문화세계화를 위한 전통공연<향연> 지원 요청(2015. 10. 8.)	재단법인 국립극장진흥재단	2018. 1.
29	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전통공연 <향연> 지원요청 전달 (2015. 10. 23.)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2018. 1.
30	2015년도 연극 창작산실지원사업 계획(안)	예술위	2018. 1.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31	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종합보고서	예술위	2018. 1.
32	극단 골목길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사업 포기서 (2015. 6. 22. 작성 2015. 7. 15.자 문건)	박OO	2018. 1.
33	OOO가 양OO에게 보낸 전자우편1(2015. 10. 1.)	OOO(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주무관)	2018. 1
34	OOO가 양OO에게 보낸 전자우편2(2015. 10. 14.)	OOO(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주무관)	2018. 1
35	확인서(감사 제출본)(2017. 2. 23.)	양OO(예술위 창작지원부장)	2018. 1.
3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서(2018. 3. 30.)	국립극단	2018. 3.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정OO	참고인(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진술조서(2017. 10. 23.)
2	박OO	참고인(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	진술조서(2017. 12. 12.)
3	이OO	참고인(국립극장 공연기획팀장)	진술조서(2018. 1. 10.)
4	Q	참고인(국립무용단 기획위원)	진술조서(2018. 1. 11.)
5	장OO	참고인(예술위 창작지원부장)	진술조서(2018. 1. 11.)
6	김OO	참고인(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진술조서(2018. 1. 12.)
7	임OO	참고인(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진술조서(2018. 1. 23.)
8	이OO	참고인(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	진술조서(2018. 1. 24.)
9	양OO	참고인(예술위 창작지원부장)	진술조서(2018. 1. 25.)
10	박OO	참고인(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사실확인서(2018. 1. 26.)
11	이OO	참고인(예술위 사무처장)	진술조서(2018. 1. 31.)
12	오OO	참고인(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진술조서(2018. 2. 7.)
13	정OO	참고인(예술위 연극분야 위원)	진술조서(2018. 2. 13.)
14	안호상	참고인(국립극장장)	진술조서(2018. 2. 27.)
15	권OO	참고인(국립극장 공연기획부장)	진술조서(2018. 2. 28.)
16	김OO	참고인(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진술조서(2018. 3. 8.)
17	김OO	참고인(국립극단 예술감독)	진술조서(2018. 4. 10.)
18	최OO	참고인(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서기관)	사실확인서(2018. 4. 23.)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국립중앙극장

국립극장은 1949년 제정된 국립극장 설치령³⁾에 따라 1950년 창설되었다. 문체부 소속기관이며, 전속단체로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을 두고 있다. 전통에 기반한 동시대적 공연예술 창작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연, 교육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0년 책임운영기관⁴⁾으로 전환되어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받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위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 전신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2항⁵⁾과 제20조⁶⁾에 근거하여 2005년 출범,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위원장과 감사, 그리고 15인 이내의 위원⁷⁾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⁸⁾하며, 위원들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3) 대통령령 제47호. 1949. 1. 12. 제정 및 시행.

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6)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받지 아니한다.9)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사무처를 두고 있다.10)

2. 2015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 연출 손진책 교체 압력에 대하여

가. 쟁점사항 및 조사 착수 근거

(1) 쟁점사항

국민일보는 2016. 12. 13.자 보도¹¹⁾에서, 2015년 11월 중순 문체부가 국립극장에 손진책 연출의 2015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국민일보는 손진책 연출이 국립극단 예술감독이던 시기 국립극단에서 공연된 작품 중 하나인 2013년 연극 <개구리>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작품 취소 압력의 배경일 것으로 추측했으며, 국립극장의 설득으로 인해 공연이 열리긴 하였으나 풍자와 해악이 줄어들어 등 문체부 압력으로 인해 작품이 위축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2) 조사 착수 근거

국립극장은 2017. 8. 3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¹²⁾에서 “15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로부터 손진책 연출가의 공연 참여 재고 요청이 있었으며, 공연을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 9)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28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11) “[단독] 문체부, 작년 국립극장 마당놀이 공연 취소 압력” <국민일보> 2016/12/13 17:2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58696&code=13110000&cp=nv>
- 12) 국립중앙극장 공연기획부 2017. 8. 31.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국립중앙극장 경위서 및 관련 자료」

얼마 앞둔 상황에서 연출 변경이 어려워 해당 사항을 문체부에 설명하고 양해 받아 공연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춘향이 온다> 연출 교체 시도가 블랙리스트와 연관성을 가지는지, 공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품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문건 자료

(1)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정OO 작성의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 공연 개요

- 기간/장소 : 2013.9.3.(화)~9.15(일) / 백성희장민호 극장(200석) *공연시간 100분
- 주최 : (재)국립극단(예술감독 손진책)
- 원작/극본·연출: 아리스토파네스, 박근형(극단‘골목길’대표)
- 내용 : 전쟁 후 아테네의 국력 회복을 위해 디오니소스가 죽은 시인에게 조언을 얻고자 지옥으로 간다는 내용의 원작을 현대 시점에서 재해석
- 제작경과: 작품 선정(예술감독, 3월)→연출가 섭외(4월초) 및 연출가 작품제작(4월~계속)→배우 선발(7월, 16명)→공연(9월)

□ 주요 내용 검토

- (기본 줄거리) 주인공(신부, 동자승)이 부조리한 현실을 구원할 ‘그분’을 찾기 위해 저승으로 떠나나, ‘그분’은 본인 대신 저승에 있는 동자승의 어머니를 이승으로 보낸다는 내용
- (내용상 문제점) 풍자가 핵심인 그리스 희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현 세대 풍자는 불가피하나, 일부 정치 편향적*이라 오해될 소지 존재
 - * (구체적 사례) △‘그분(노무현 전 대통령 상징)’과 ‘카멜레온(박정희 전 대통령 상징)’의 대화를 통해 ‘그분’을 미화, ‘카멜레온’을 비하적으로 묘사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기말고사 컨닝’으로 풍자 △윤창중 전 대변인 스캔들 풍자 등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조치사항>

- 당초 극본 초안에는 ▲그분(노무현)을 지상으로 모시고 오는 결론이었고 ▲정치적 풍자 및 표현 등이 과도했던 바, 연출가로 하여금 결말을 수정토록 하고(어머니가 지상으로 오는 결말),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토록 지도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
- 수정된 현 내용의 정치적 풍자 수준은 국민들이 수용(이해)할 것이라고 분석(손진책)

□ 향후 조치계획

- 현재 공연 중인 작품에 대한 추가 조치 요구(수정 등)는 창작의 자유 침해 논란, 연극계 및 관객(예약자 등)의 반발 등 불필요한 논란 초래 가능
- 향후 국립극단 작품에 '편향된 정치적 소재'는 배제토록 강력 조치
 - 아리스토파네스 시리즈 2차작품(구불¹⁾, 9.24~10.5) 등 2013년 국립극단 후속작품에 정치적 소재의 내용은 배제토록 조치(국립극단)
 - **全 국립예술단체 주관 공연에는 정치적 편향의 내용은 배제토록 협조 요청**
 - **現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교체 추진(임기: 2013.11.8.)**

1)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추문 등 패러디 내용 포함 예정

위 문건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김OO이 2013. 9. 6.경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이하 '문체비서관실')로부터 국립극단의 연극 <개구리>가 정치 편향적이라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는 문제제기를 받고, 대책 마련을 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정OO에게 작성¹³⁾을 지시하여 청와대 문체비서관실 행정관 A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문건 '향후 조치계획'에서 '現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교체 추진'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김OO은 2018. 1. 12.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2013. 9. 12. 연극 <개구리> 비판기사¹⁴⁾가 보도된 후 김OO은 국립극단 예술감독 사무실에서 손진책과 면담하였고, 손진책이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위 문건 조치 계획에 손진책 예술감독 교체 추진이라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¹⁵⁾

13) 2017. 10. 23. 「정OO 진술조서」 3~6쪽에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김OO이 초안을 잡은 내용을 자신이 다시 타이핑 하고 피드백을 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14) “‘노무현 미화·박정희 비하’ 국립극단 연극이?” <데일리안> 2013/09/12 11:50
<http://www.dailian.co.kr/news/view/386147/?sc=naver>

15) 2018. 1. 12. 「김OO 진술조서」 3~5쪽.

(2) 국정원 적폐청산T/F 2017. 10. 30.자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문체부 조치 사항 관련 출력물	
2015.3.6	<p>문체부장관, 국립단체 공연작 선정시 左성향 작품 배제 지시 2015. 3. 6 □ 김종덕 장관은 3.5 김상욱 예술정책관으로부터 국립극장·영동극장 공연작품에 손진책·이원택·김광보 등 左성향 연출가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취소 시 파장을 고려, 이번 건은 그대로 진행하되 내년도 공연작 선정(2015년 상반기 결정)시 배제시키라’고 지시 □ 關聯 動向 ○ 문체부장관은 - 2015년 국립극장·영동극장 공연작에 노무현 대통령을 미화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하적으로 묘사한 연극 ‘개구리’를 공연(13.9), 물의를 야기한 손진책 감독의 작품 ‘심월의 눈’(3.13~29, 국립극장)과 - BH에서 2015.1 左성향 인물로 분류, 리스트를 내려보낸 김광보 연출가의 작품 ‘Saint Joan-잔다르크’(12.2~28, 영동극장) 및 - 左성향 극단인 ‘연희단 거리패’를 이끌고 있는 이원택 연출가의 작품 ‘키 큰 세여인’(10.3~18, 영동극장), ‘해결공룡씨’(12.12~27, 국립극장), ‘문체적 인간 연산’(7.1~26, 영동극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 15년 공연작은 14.8월 내부적으로 결정 → 14.6~7 심외진행(연출가, 주연배우) → 14.8 심외확</p>

위 문건은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 된 사항을 조사한 보고서로, 첨부된 2015. 3. 6.자 「문체부 조치 사항 관련 출력물」에서 2015. 3. 5. 문체부 장관 김종덕이 예술정책관 김OO으로부터 국립극장 공연 작품에 손진책 등 左성향 연출가들의 <해결공룡씨> 등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취소 시 파장을 고려, 이번 건은 그대로 진행하되 내년도 공연작 선정 시 배제시키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건의 ‘노무현 대통령을 미화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하적으로 묘사한 연극 <개구리>를 공연(13.9), 물의를 야기한 손진책 감독’이라는 표현을 통해, 손진책이 배제 대상자가 된 사유가 연극 <개구리> 당시 국립극단 예술감독 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3) 국립중앙극장 공연기획부 2017. 8. 31.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국립중앙극장 경위서 및 관련 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국립중앙극장 경위서 및 관련 자료

2017.8.31. 국립중앙극장 공연기획부

□ 2015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에 대한 문체부 공연취소 압력 건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 (‘15.12.10~’16.2.10/국립극장 해오름) 공연 준비 중이던 ‘15. 11월 손진책 연출가의 공연 참여에 대한 재고 요청이 본부 공연과로부터 있었으며, 공연취소 요청은 아니었음.
- 손진책 연출가는 이미 2014년 국립극장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 (‘14.12.10~’15.1.11/국립극장 해오름)를 연출해 성공적으로 공연한 바 있어, 2015년에 손진책 연출에 대한 재고 요청이 온 것은 다소 의아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음.
- 국립극장은 공연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연출자에 대한 교체 요청이 온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음. 다만 손진책 연출가로부터 김종덕 전 장관과 오랜 친분을 유지해왔으나 당시 몇몇 이유로 두 사람 간의 사이가 소원해진 때문인 것 같다는 추측 의견을 들었음.
- 당시 공연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연출자를 변경할 경우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의 준비 및 공연 진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손진책 연출의 교체는 어렵다는 점을 공연과에 설명하였음. 이후 연출자 변경 없이 공연을 진행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고, 2015년 <춘향이 온다>는 예정대로 공연을 진행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

국립중앙극장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가 2015년 11월 국립극장에 <춘향이 온다> 손진책 연출의 참여를 재고하라는 요청을 하였고, 손진책 연출의 교체는 어렵다고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에 설명하여 양해를 얻은 후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4) 국립극장 공연기획팀장 이OO 작성의 「2015-2016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 공연 현황」

2015-2016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 공연 현황

□ 공연 개요

- 제목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
- 공연기간 : 2015년 12월 17일~2016년 2월 11일(46회)
- 공연장소 : 국립극장 해오름
- 주요제작진 : 작 배삼석, 음악 강성구, 연출 손진책 외
- '14년 12월 극장식 마당놀이로 국립극장에서 처음 시도, 서양 라이선스 뮤지컬 일색의 연달연시 공연계에 한국적 음악극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성공을 거두었던 공연으로 국립극장의 연달시즌 장기 공연
 - ※ '14년 초연시 26회 공연 관객 31,157명, 객석점유율 99% 기록

□ 추진 현황

- 7월 14일부터 2015-2016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공연의 예매를 시작하여, 해당 공연 티켓을 국립극장,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중
 - ※ '15.10.29 현재 3,893매 판매
- 국립극장 마당놀이 <심장이 온다> 연습 및 제작 진행 중
 - (연습) 출연진 48명, 연출, 작곡, 음악감독, 안무자 등이 참여하는 공연연습이 진행 중이며, 출연진 및 스태프 계약체결 중
 - (제작) 무대, 의상, 소품, 조명 등의 디자인, 제작 작업 진행 중

□ 공연 취소 시 문제점

- 관객들의 강력 반발 및 여론화 가능성
 - 해당 작품 및 연출자는 모두 관객의 호응이 매우 높고 고정 팬층이 형성되어 있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취소사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언론 등으로 각종 추측과 반감이 확대재생산 될 수 있음
 - 천재지변, 출연자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 중단

공연이 취소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로, 갑작스런 공연 취소 시 각종 억측과 오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큼. 공연 최성수기인 12월에 공연이 임박한 마당놀이<춘향이 온다>는 단체모임 예약이 많아 더욱 강한 반발 예상

- 우리 전통에 기반을 둔 한국적 음악극의 성장 저해
 - 해당공연은 <춘향전>이라는 전통고전을 마당놀이라는 현대적 음악극으로 계단생시키며 작품성을 인정받음. 특히 장기공연을 통해 대중적 성공을 거두며 서양 라이선스 뮤지컬 위주의 한국공연계에 우리 전통 극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 손진책 연출이 마당놀이라는 극 양식을 개발해 장르에 대한 오리저널리티와 저작권을 보유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연출자를 바꾸어 공연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위 문건은 이OO가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문체부에 발송¹⁶⁾한 문건으로, <춘향이 온다> 공연의 연출자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공연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 관련자 진술

(1) 문체부 진술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임OO는 2018. 1. 23.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¹⁷⁾

- 안호상 극장장에게 손진책 감독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상황을 얘기하고 현재 작품 관련 상황을 파악하였다.
-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 행정관 김OO에게 공연을 취소하거나 연출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 청와대의 양해를 얻어 원래대로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실무선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장차관 보고는 하지 않았다.
- 공연 내용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거나 수정을 지시한 바는 없다.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서기관 최OO은 2018. 4. 2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¹⁸⁾

- 2015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와 관련하여 공연 연출이 정해진 후 손진책 연출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주무관으로부터 들었다.
- 국립극장의 담당자 및 국립극장장과 통화하여 연출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상의하였다.

16) 2018. 1. 10. 「이OO 진술조서」 5쪽.

17) 2018. 1. 23. 「임OO 진술조서」 11쪽.

18) 2018. 4. 23. 「최OO 사실확인서」

(2) 국립극장 진술

국립극장장 안호상은 2018. 2. 27.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¹⁹⁾

- 2014년 <심청이 온다> 공연 시에는 문체부로부터 어떤 지시나 압력도 없었다.
- 사업 기획 시점에는 문체부에 별도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체부의 문제제기는 없었다.
- 문체부의 연출 교체 요구 사실을 2015년 10월 또는 11월 경에 공연기획팀장 이OO로부터 보고받았다.
-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임OO에게 전화하여 연출 교체 요구 사유를 물어보았더니, 임OO가 우물쭈물하며 '위에서 불편해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 두 세 차례 임OO에게 전화하여 '장관²⁰⁾에게 잘 좀 얘기해 달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공연을 해도 된다는 연락을 임OO로부터 받았다.
-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손진책 연출에게는 문체부의 연출 교체 요구에 대해 전달하지 않았고, 따라서 문체부의 요구가 작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 문체부가 연출 교체 요구 외에 공연 수위를 조절해달라는 등의 요구는 전혀 하지 않았다.

국립극장 공연기획부장 권OO는 2018. 2. 28.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²¹⁾

- 2014년 <심청이 온다> 공연 시에는 문체부로부터 어떤 지시나 압력이 없었다.
- 기획 단계에서는 문체부에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손진책 연출을 섭외하여 공연을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 공연기획팀장 이OO로부터 문체부의 연출 교체 요청 전화를 받은 사실을 보고받았고, 국립극장장 안호상과 상의하였다.

19) 2018. 2. 27. 「안호상 진술조서」 3~5쪽.

20) 안호상은 장관에게 잘 얘기해달라고 한 이유에 대하여, 그 즈음 손진책 연출이 문체부 장관 김종덕과 감정이 상할 만한 일이 있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위'가 장관일 것이라고 짐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1) 2018. 2. 28. 「권OO 진술조서」 3~5쪽.

- 연출 교체 요청 사유를 알아보고자 문체부 담당서기관에게 물어보았으나 명확하게 대답해주지 않았다.
- 「2015-2016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 공연 현황」 문건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문건에 담긴 내용으로 문체부를 설득하여 양해를 얻어냈다.
- 문체부의 요구는 손진책 연출 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대본 사전 검열 요구가 있었다는 보고는 받은 적 없다.
- 손진책 연출과 안호상, 이OO와 함께 문체부의 요구에 대한 사후처리를 논의하였다.

국립극장 공연기획팀장 이OO는 2018. 1. 10.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²²⁾

- 2015년 11월 경 문체부²³⁾로부터 ‘위에서 손진책 선생님이 대해서 불편해하신다. 그러니까 연출을 바꾸면 안되겠느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으며 국립극장장 안호상에게 보고하였다.
- 2015년 9월 ~10월 경에 손진책 연출로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김종덕 장관과 전화로 크게 다툼을 했는데, 혹시 그게 공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문체부 연출 교체 요구가 이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국립극장장 안호상이 예술정책과장 임OO 및 예술정책관 B에게 연출 교체 요구 사유를 물어보았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 연출을 교체할 수 없는 사유를 문체부에 설명하였고, 문체부에서 이를 자료로 정리해달라고 하여 문건을 작성하여 보냈다. 2주 정도 후에 문체부로부터, 연출 교체 없이 공연을 계속해도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 문체부 관계자가 <춘향이 온다> 공연 연습을 보러 온 적이 없으며, 공연 내용이나 연출 방향에 대해 국립극장이 관여하지도 않았다.
- 손진책 연출에게는 문체부의 연출 교체 요구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따라서 문체부의 연출 교체 요구가 작품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22) 2018. 1. 10. 「이OO 진술조서」 3~7쪽.

23) 이OO는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는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서기관 최OO이 김OO의 후임으로 근무하던 시기로, 최OO도 자신이 전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OO의 진술 오류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운택 연출의 2015 <혜경궁 홍씨> 재공연 취소에 대하여

가. 사건 개요 및 쟁점사항

(1) 사건 개요

2015년 이운택 연출작 <혜경궁 홍씨>는 국립극단의 기획으로 2015. 12. 12. ~ 2015. 12. 27.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공연하기로 예정되어있었다. 그러나 2015. 7. 21. 열린 국립극단 제23차 임시이사회에서 <혜경궁 홍씨> 공연을 취소하고 타 작품으로 변경하는 안이 가결²⁴⁾되었다.

(2) 쟁점사항

한겨레의 2017. 6. 3.자 보도²⁵⁾에서, 이운택은 “연극 <혜경궁 홍씨>가 대박이 터져서 3년 연속 공연을 하기로 했을 때였다. 3년째 공연 장소로 예정됐던 남산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쪽에서 안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 내가 국립극단과 문체부 쪽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문체부 공무원이 ‘우리는 이운택 선생에게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문화예술과장이 찾아와서 ‘정말 너무하다. 이운택 감독은 평생 연극만 한 분인데 배제시키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더라.”고 인터뷰하여 <혜경궁 홍씨>의 취소가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3) 조사 착수 근거

이운택 연출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찬조연설을 한 바 있고, 2017고합 102 사건 판결문²⁶⁾의 범죄일람표, 「리스트-’16.2.1.현재」, 「리스트-’16.9.27.현재」 등 문건에서 이운택에 대한 청와대 및 국정원의 배제 지시 사실이 다수 확인되는 바 우리 위원회는 <혜경궁 홍씨>가 배제로 인해 취소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24) 국립극단 2015. 7. 21. 「제23차 임시이사회 주요 의사록」 및 「주요회의록」

25) “이운택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가 잇고 있던 저항정신 일깨워줬다]” <한겨레>

2017/06/03 09:48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97377.html

26) 2017고합1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나. 관련자 진술

(1) 문체부 진술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임OO는 2018. 1. 23.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²⁷⁾

- 〈혜경궁 홍씨〉 등 국립극단과 명동예술극장 공연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었으며, 취소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박OO에게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케 하였다.
- 보고서를 가지고 예술정책관 김OO, 문체부 제1차관 박민권, 문체부 장관 김종덕에게 보고하였다.
- 김종덕이 2015년에는 그대로 공연하되 차기년도부터는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
- 〈혜경궁 홍씨〉 공연 취소 경위는 기억나지 않으나 블랙리스트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박OO은 2018. 1. 26. 우리 위원회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²⁸⁾

- 국립극단과 명동예술극장 2015년 공연 중 특정 작품을 제외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공연전통예술과장 임OO로부터 받았다.
- 2015년 공연작품이 홈페이지나 언론 등을 통해 홍보되었고, 작품 내용에 문제가 없으며, 공연계약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근거를 들어 특정 작품을 제외하기 어렵다고 임OO에게 보고하였다.
- 보고를 위해 국립극단과 명동예술극장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
- 보고 이후 임OO로부터 2015년 공연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전해 들었다.

27) 2018. 1. 23. 「임OO 진술조서」 10~11쪽.

28) 2018. 1. 26. 「박OO 사실확인서」

(2) 국립극단 진술

국립극단 예술감독 김OO은 2018. 4. 10.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²⁹⁾

- <문제적 인간 연산> 연습과정에서 이윤택 연출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직원의 탄원서를 받았고, 이윤택 연출과 이야기 후 작품 취소와 연출 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다.
- 피해자가 공론화를 원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윤택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형식으로 처리하였다.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 박OO은 2017. 12. 12.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³⁰⁾

- 이윤택 연출이 블랙리스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15년 상반기에 문체부로부터 <혜경궁 홍씨> 공연에 대해 양해를 받았다.
- 이윤택 연출의 2015년 7월 공연³¹⁾ 당시 국립극단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국립극단 예술감독 김OO이 직접 이윤택 연출을 만나 공연 취소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윤택 연출이 동의하여 <혜경궁 홍씨>가 취소되었다.
- 국립극장 공연기획부장 권OO에게 전화하여 '이유는 묻지 마시고, 도저히 공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부탁하였다.

(3) 국립극장 진술

국립극장장 안호상은 2018. 2. 27.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2015년 7월경 국립극단이 유선상으로 공연 취소 의사를 밝힌 내용에 대하여 국립극장 공연기획팀장 이OO로부터 보고 받았으며, 국립극단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공연을 취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³²⁾

국립극장 공연기획부장 권OO는 2018. 2. 28.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립극단의 요청에 따라 <혜경궁 홍씨>를 취소하였는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 박OO에게 직접 전

29) 2018. 4. 10. 「김OO 진술조서」 5~6쪽.

30) 2017. 12. 12. 「박OO 진술조서」 12~13쪽.

31) 2015. 7. 1. ~ 2015. 7. 26. <문제적 인간 연산>

32) 2018. 2. 27. 「안호상 진술조서」 6쪽.

화를 받았는지 아니면 국립극장 공연기획팀장 이OO로부터 보고받았는지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³³⁾

국립극장 공연기획팀장 이OO는 2018. 1. 10.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³⁴⁾

- 7월 경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 박OO이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달오름극장에서 공연을 못하겠다’는 전화를 하였고, 이에 공연기획부장 권OO에게 보고한 뒤 다시 권OO와 함께 국립극장장 안호상에게 보고하였다.
- 안호상이 국립극단의 요청을 수용하자고 결정하여 박OO에게 전화로 전달하였고, 박OO으로부터 공연 취소 사유가 이윤택 연출 개인 사유라고 전해들었다.

다. 문건 자료

(1) 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오OO 작성의 「리스트-」16.2.1.현재」

국립공연단체 - 7명	국립극단 운영	①개구리 - 박근형(연출가) 13.8월 국립극단 운영
	국립극단 운영	②2월리 눈-손진희(연출가) 15.3월 국립극단 해커피의 운영
	국립극단 운영	③키 큰 세서틴-이윤택(연출가) 15.10월 국립극단 공연
	국립극단 운영	④해탈길 - 홍희-이윤택(연출가) 15.11월 국립극단 해커피의 운영
	행동예술극장 운영	⑤이네나-이윤택(연출가) 15.1월 행동예술극장 공연
	행동예술극장 운영	⑥문제의 인간 현상-이윤택(연출가) 15.7월 행동예술극장 공연 세정
	행동예술극장 운영	⑦Zodiac Area - 윤대리-김영모(연출가) 15.12월 행동예술극장 공연 세정

오OO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 행정관 김OO으로부터, 청와대와 국정원에 신청자 명단을 보내기 전에 문체부 자체적으로 1차 확인을 해 명단에 문제가 있다는 표시를 해서 보내도록 지시받았고, 이에 1차 확인 작업을 위해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³⁵⁾

위 문건에서 ‘6. 기존관리 리스트-149명’ 부분은 2015 문예진흥기금 사업 이외에 청와대에서 내려온 문건 등에 지원 배제 대상으로 언급된 민예총, 작가회의, 지역문화재단 등 인물이나 단체를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 등이 보관하고 있던 명단을 받아 정리한 자료³⁶⁾인데, ‘국립공연단체-7명’ 부분에서 이윤택 연출의 <해경궁 흥씨>에 대한 청와대의 배제 지시 사실이 확인된다.

33) 2018. 2. 28. 「권OO 진술조서」 5~6쪽.

34) 2018. 1. 10. 「이OO 진술조서」 7~쪽.

35) 2018. 2. 7. 「오OO 진술조서」 39쪽.

36) 2017고합102 사건 재판기록 중 2016. 12. 27. 「오OO 2회 진술조서」 29쪽.

(2) 국정원 적폐청산T/F 2017. 10. 30.자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위 문건에 첨부된 2015. 3. 6.자 「문체부 조치 사항 관련 출력물」에 2015. 3. 5. 문체부 장관 김종덕이 예술정책관 김OO으로부터 국립극장 공연 작품에 이운택 등 左성향 연출가들의 <해경궁 홍씨> 등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취소 시 파장을 고려, 이번 건은 그대로 진행하되 내년도 공연작 선정 시 배제시키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u>문체부 조치 사항 관련 출력물</u>	
2015.3.6	<p>문체부장관, 국립단체 공연작 선정시 左성향 작품 배제 지시 2015. 3. 6 □ 김종덕 장관은 3.5 김삼욱 예술정책관으로부터 국립극장·영동극장 공연작품에 손진척·이운택·김광보 등 左성향 연출가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취소시 파장을 고려, 이번 건은 그대로 진행하되 내년도 공연작 선정(2015년 상반기 결정)시 배제시키라’고 지시 □ 關聯 動向 ○ 문체부장관은 - 2015년 국립극장·영동극장 공연작에 노무현 대통령을 미화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하적으로 묘사한 연극 ‘개구리’를 공연(13.9), 물의를 야기한 손진척 감독의 작품 ‘상월의 눈’(3.13~29, 국립극장)과 - BH에서 2015.1 左성향 인물로 분류, 리스트를 내려보낸 김광보 연출가의 작품 ‘Saint Joan-잔다르크’(12.2~28, 영동극장) 및 - 左성향 극단인 ‘연희단 거리패’를 이끌고 있는 이운택 연출가의 작품 ‘키 큰 세여인’(10.3~18, 영동극장), ‘해경궁 홍씨’(12.12~27, 국립극장), ‘문제의적 인간 연산’(7.1~26, 영동극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 15년 공연작은 14.6월 내부적으로 결정 → 14.6~7 설의진행(연출가, 주연배우) → 14.8 설외확</p>

(3) 국립극단 2018. 3. 30.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서」

국립극단은 2015년 이운택 연출가의 <혜경궁 홍씨> 및 <키 큰 세 여자> 공연이 취소된 경위에 대하여, 2015년 6월 국립극단 제작공연 이운택 작·연출의 <문제적 인간 연산> 공연 연습 시 연출이 국립극단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담당 프로듀서 및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되었고, 국립극단 예술감독 김OO이 이운택을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이운택에게 <혜경궁 홍씨> 및 <키 큰 세 여자> 연출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해자가 공론화를 원하지 않아 이사회 및 문체부에는 연출가의 개인사정(건강상 이유)으로 공연에 하차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고 설명하였다.

4. 2015 국립무용단 <향연> 제작비 예술위 예산 전용에 대하여

가. 사건 개요 및 쟁점사항

(1) 사건 개요

문체부는 문체부 장관 김종덕의 2015. 8. 18. 「국정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 발표 이후 전통문화 세계화의 일환으로 국립극장에 국립무용단 공연 <향연> 제작을 지지하였고, 2015. 12. 5. ~ 2015. 12. 6. <향연>이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되었다.

(2) 쟁점사항

뉴스1은 2016. 11. 21.자 보도³⁷⁾에서, <향연> 제작과정에서 예술위 민간 지원 예산이 정권 홍보를 위해 명확한 규정 없이 무리하게 국립극장에 전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감사원은 2017년 문체부 기관운영감사보고서³⁸⁾에서, 문체부는 예술위가 민간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보조금 예산을 국가기관의 사업에 지원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제1항³⁹⁾과 제30조 제1항 제1호⁴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간섭을 하였

37) “[단독] 김종덕 전 장관, 민간 지원예산 문체부 산하기관에 전용” <뉴스1> 2016/11/21 18:00 <http://news1.kr/articles/?2833071>

38) 감사원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보고서」 중 ‘2-(10)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부적정’

39)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으며, 예술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⁴¹⁾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관의 사업에 교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3) 조사 착수 근거

우리 위원회는 민간기초예술 지원 예산이 공공극장에 전용된 과정에 대하여 밝힐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향연> 제작을 위해 전용된 예술위 잔여예산이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문건 자료

(1) 문체부 2015. 8. 18.자 「국정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 문체부 지역전통문화과 2015. 9. 7.자 「전통문화의 세계화 관련 회의 결과 보고」, 관계부처 합동 2015. 10. 5.자 「전통문화의 세계화 방안」

위 문건에서 아래와 같이 ‘전통문화의 세계화’ 추진 경과가 확인된다.

- 2015. 8. 10.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대통령 박근혜 발언(‘문화융성은 우리 자랑스러운 전통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창조적 계승이 전제되어야 함’, ‘전통문화 분야별 핵심인물을 발굴하여 세계와 교류하고 발전시킬 해법을 찾아야 함’)
- 2015. 8. 18. 김종덕 장관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 발표
- 2015. 8. 19. ‘전통문화의 세계화’ 방안 수립 추진
- 2015. 8. 20. ‘문화융성 추진전략 회의TF’ 구성(팀장 : 문체부 제1차관 박민권)
- 2015. 9. 6. 전통문화 세계화 관련 회의(박민권,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임OO, 국립극장장 안호상 참석)
- 2015. 10. 5. <향연> 제작안 포함 전통문화의 세계화 방안 확정⁴²⁾

40)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거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추진 경과 ◆

◇ '15.8.18 발표한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 후속조치로 보다 구체적인 '전통문화의 세계화' 방안 수립 추진(8.19~)

※ 대통령 말씀 요지 ('15. 8.10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

- 문화융성은 우리 자랑스러운 전통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창조적 계승이 전제되어야 함
- 전통문화 분야별 핵심인물을 발굴하여 세계와 교류하고 발전시킬 해법을 찾아야 함

○ 분야별 전통문화 전문가 의견수렴

- 분야별 전문가 자문 TF 구성 및 자문회의 20여회 개최(9월)
- 공예(문양, 전통음악·무용, 한시, 한복, 한옥, 정신문화 등 30여명)
- 전통문화 관련 주요사업 현장방문 및 현장의견 수렴(8-9월)
- 중요제례의 공연 헌장, 향교·서원스데이 헌장, 한옥마을 등

○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 문체부 1차관을 팀장으로 '문화융성 추진전략 회의TF' 구성(8.20~)
- 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업과제 발굴 및 조정을 위한 분야별 협의회 20여회 개최(8-9월)
- 미래창조과학부(전통기술 R&D,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업), 농림축산식품부(한시 세계화, 산업통상자원부(해의진출), 국토교통부(한옥 현대화), 문화재청(문화재 활용), 산림청(야생화 확산) 등
- 산업화 선도사례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화 검토(9월)

◇ 이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통문화의 세계화 방안'을 마련

(2)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주무관 000가 예술위 창작지원부장 양00에게 보낸 전자우편

위 전자우편에서 000가 양00에게 2015. 10. 1. <향연>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⁴³⁾하고, 국립극장이 문체부에 예산지원 요청한 공문을 2015. 10. 14. 예술위로 전달⁴⁴⁾한 내용이 확인된다.

42) 2018. 1. 10. 「이00 진술조서」 9쪽에서, 2015. 10. 5.자 「전통문화의 세계화 방안」 문건에 대하여, 문체부에서 기획안을 최종 확정해서 보내준 문건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43) 2015. 10. 1. 「000가 양00에게 보낸 전자우편1」

44) 2015. 10. 14. 「000가 양00에게 보낸 전자우편2」

<p>보낸사람: 000 < @arko.or.kr> 받는사람: @arko.or.kr, @arko.or.kr 보낸시간: 2015-10-01 15:12:26 GMT +0900 (ROK) 제목: 국립극장 전통문화세계화(향연) 관련 자료 송부</p> <p>부장님, 머리님, 문화부 공연과 000입니다.</p> <p>달음드린 향연 공연 관련 자료 보내드리니, 지원 가능 방안 검토 부탁드립니다.</p> <p>출해안에 해당 공연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고,</p> <p>현재로서는 문화기금 잔여예산을 활용하는 방안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p> <p>참고로 사업계획은 지원 사업에 취지에 맞성 변경 가능하니</p> <p>가능한 방안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p> <p>여러가지로 바쁘실텐데 부담되는 요청을 드리 죄송합니다. ^^</p>	<p>보낸사람: 000 < @korea.kr> 받는사람: @arko.or.kr, 류 00부장님 < @arko.or.kr> 보낸시간: 2015-10-14 17:32:19 GMT +0900 (ROK) 제목: 국립무용단 향연 공연 관련 지원요청 공문 송부</p> <p>안녕하세요. 공연과 000입니다.</p> <p>국립무용단 향연 공연 관련 국립극장 공문 보내드립니다.</p> <p>이 공문을 근거로 문화부 공문을 보내드릴 예정이니</p> <p>사업계획 등 문제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p>
---	--

(3) 재단법인국립극장진흥재단 2015. 10. 8.자 「전통문화세계화를 위한 전통공연 <향연> 지원 요청」

재단법인국립극장진흥재단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공연전문예술과장)
 (재) 국립극장
 (제) 전통문화세계화를 위한 전통공연<향연> 지원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화" 발간을 기원합니다.

2. (재)국립극장진흥재단은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전통공연 <향연>을 신규 개발, 제작하여 아래와 같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 일 명 : 전통공연 <향연> 신규 개발 및 제작
 나. 주요제작진 : 연출-김지연 장우호, 안무-조흥동, 양정희, 김영숙, 음악 박재욱 외
 다. 출 연 : 국립무용단
 라. 공연일시 : 2015년 12월 5일(목)~6일(금) / 토 19:00, 일 15:00
 마. 공연장소 : 국립극장 배오름
 바. 지원요청액 : 650백만원 (₩650,000,000)
 ※ 세부내역 별첨 문서 참조

붙임 : 사업계획 1부, 끝



(재)국립극장진흥재단 이사장

담당 000 사무과장 000 운영이사 (재) 이사장 000


서울 000-00000 (02)000-0000 / 서울시 중구 장충(1로) 00
 전화 02-000-0000 / 팩스 02-000-0000 / http://www.ntr.or.kr / e-mail

국립극장은 재단법인국립극장진흥재단 이사장 명의로 2015. 10. 8. 문체부 공연전통 예술과에 공문을 보내 <향연> 제작비 6억 5,000만원 지원을 요청하였다.


(4)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2015. 10. 23.자 「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전통공연 <향연> 지원요청 전달」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는 재단법인국립극장진흥재단의 공문을 2015. 10. 23. 예술 위에 전달하며, '검토 후 적의 조치'를 바란다고 명시하였다.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문화체육관광부




수신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경유)

제목 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전통공연 <향연> 지원요청 전달

(재)국립극장진흥재단에서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공연 <향연>의 신규 개발 및 제작 지원 대한 협조요청이 있어 이를 전달하오니, 검토 후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립극장 진흥재단 지원요청 문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



발령주세 ○○○ 서기관 ○○○ 공연전통예술과장 전결 10/23
○○○

협조자

시행 공연전통예술과-3495 (2015. 10. 23.) 접수 창작지원부-2727 (2015. 10. 26.)
우 30119 서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공연전통예 / http://www.mcst.go.kr
우 술과

전화 044-203- 전승 02-3704- / mcst.go.kr / 부분공개(5,7)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5) 예술위 창작지원부 2015. 11. 12.자 「제174차 위원회 서면회의 의결 안건 제출」, 기획예산부 2015. 11. 18.자 「제174차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보고(서면)」, 창작지원부 2015. 11. 19.자 「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전통공연 <향연> 지원계획 수립」, 창작지원부 2015. 11. 19.자 「2015년도 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전통공연 <향연> 사업 승인 및 교부신청 안내」

예술위는 2015. 11. 13. 서면회의를 통해 '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전통공연 <향연> 지원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2015. 11. 19. <향연>에 공연예술창작산실 잔여예산 6억 원을 지원 할 계획을 수립하고, 국립극장에 공문을 보내 예산 지원 승인 사실을 알리고 교부 신청을 안내하였다.

(6) 예술위 공연지원부 2017. 8. 30.자 「2015년도 국립극장 제작공연 <향연> 지원 경위」
예술위 공연지원부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위 문건에서, '201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우수작품제작지원' 연극 및 오페라 분야 잔여예산을 <향연>에 지원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예술위 : 사업 지원 가능성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 추진
 - 주관기관((재)국립극장진흥재단)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 201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 잔여예산 활용 검토 및 문체부 협의
 - 연극 우수작품제작지원 미선정 및 사업포기 3억원 잔여예산 발생
 - 오페라 우수작품제작지원 미선정으로 3억원 잔여예산 발생
- 예술위 : 제174차 위원회 서면회의 의결 안건 제출(2015.11.12.)
 - 공연예술창작산실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전통공연 <향연> 지원 계획 수립
 - 예산 변경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공연예술창작산실유성지원(연극 우수작품제작)	1,000	700	△300	
공연예술창작산실유성지원(오페라 우수작품제작)	300	0	△300	
공연예술창작산실유성지원(무용-향연)	-	600	600	신설

(7) '201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우수작품제작지원' 연극분야 블랙리스트 실행

'201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우수작품제작지원' 연극분야는 당초 시범공연 통과자 중 최종 10개 작품을 선정하여 각 1억 원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10억 책정⁴⁵⁾되어있었다. 그러나 2015. 4. 7. ~ 2015. 4. 11. 실연 심의에서 심의위원의 의견에 따라 총 8개의 작품만 선정되었다.⁴⁶⁾ 그러나 예술위는 위 심의 결과를 바로 확정하지 않았는데, 선정작 중 박OO 연출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가 청와대에서 지원 배제를 지시한 대상자⁴⁷⁾임에도 선정되었기 때문이다.⁴⁸⁾

참고2 2015년 진행중인 문제사업 현황	
분야	내용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연극-우수작품제작지원)	심사완료('15.4.11) 및 특이사항 3건 포함 -심사전 :4건 발굴(3건 제외, 1건 제외 불발) -심사후 : 특이사항 2건 통보 -현장에서 공연을 직접 보면서 인터뷰하는 실연 심사방식상, 사전에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5명중 2명의 심사위원이 강하게 반발하여 배제 불발) -제외방안 다각적으로 검토중

2015. 5. 11.자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45) 예술위 「2015년도 연극 창작산실지원사업 계획(안)」

46) 예술위 2015. 6. 25.자 「제162차 위원회 전체회의 자료」 중 '2015년도 연극 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심의 결정의 건' / 심사평에 따르면, 심의위원들은 전반적으로 희곡의 완성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작품 간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8건의 작품만 선정하였다.

47) 2018. 2. 7. 「오OO 진술조서」 21~23쪽.

48) 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오OO 작성의 2015. 5. 11.자 및 2015. 5. 21.자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참고

2015년 문제사업 현황('15.5.13 현재)

분야	내용		
①공연예술창작 산실육성지원 (연극-우수작품 제작지원)	심사완료('15.4.11) 및 특이사항 3건 포함 -심사전: 4건 발굴(3건 제외, 1건 배제 불발) -심사후: 특이사항 2건 통보 -현장에서 공연을 직접 보면서 인터뷰하는 실연 심사방식상, 사전에 협의했음 에도 불구하고, 5명중 2명의 심사위원이 강하게 반발하여 1건 배제 불발		
* 총 8개 작품 선정완료상태			
작품명	단체명	검토의견	비고
모든군인은 불쌍하다	극단 골목길 (이호열)	다양한 모습의 군인들(탈영군인, 일본의 자살 특공대, 이라크 무장단체 등)을 통해, 군인들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려냄 *박근형(개구리연출) 전 대표 연출·작품	중간등위 작품
고개	극단 돌파구 (전인철)	사회주의의 몰락과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와 그 안 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1990년 5월과 '현재'의 시간을 오가며 극이 전개됨.	심의회원 전원 추천
떠도는 땅	극단 뒤편 (동이향)	기묘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로, 아버지 장례로 20년 만에 고향을 찾은 미스터 노를 주인공으로 하여 '빛'과 '죄의식',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그려냄	심의회원 전원 추천

2015. 5. 21.자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2015. 6. 22.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 이OO과 창작지원부장 장OO은 박OO 연출을 만나 사업 포기서⁴⁹⁾를 받고⁵⁰⁾ 이를 근거로 하여 박OO 연출의 작품을 '단체 사정으로 인한 포기' 처리하였다.⁵¹⁾ 최종적으로 '201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우수작품 제작지원' 연극분야에서는 7개 단체에 대하여 7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3억 원의 잔여예산이 발생하였다.

49) 2015. 6. 22. 박OO 작성의 2015. 7. 15.자 「극단 골목길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사업 포기서」

50) 2018. 1. 11. 「장OO 진술조서」 8~10쪽. / 2018. 1. 24. 「이OO 진술조서」 13~16쪽.

51) 예술위 「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종합보고서」 37쪽 '2015년 사업포기 현황'

다. 관련자 진술

(1) 문체부 진술

공연전통예술과장 임OO는 2018. 1. 23.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⁵²⁾

- 전통문화의 세계화의 일환으로 문체부 장관 김종덕의 지시에 따라 <향연>을 제작하였다.
- <향연> 제작을 위해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장차관의 강력한 지시사항에 따라 예술위 예산 잔액을 전용하였다.
- 예산 전용은 장차관까지 보고하고 예술위 사무처장 이OO과 협의하였다.
-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국가적 사업이고 장차관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하여 추진하였다.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은 2018. 3. 8.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⁵³⁾

- 전통문화 세계화 방안 수립을 위해 자신 또는 주무관이 국립극장을 비롯한 문체부 소속기관에 기획안 작성 및 제출을 전자우편으로 요청하였다.
- 예산 마련을 위해 공연전통예술과 내에 잔여예산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예술위 창작산실 사업 예산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공연전통예술과장 임OO와 예술정책관 B의 결정으로 예술위 창작산실 사업 잔여예산을 향연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결정되었다.
- 예산 전용에 대해 실무진끼리는 걱정했지만 연말에 잔여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예산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
- 무리해서 적극 진행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윗선의 지시라고만 알고 있었고 지시선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
- 국립극장은 수입을 통상 '재단법인국립극장진흥재단' 명의로 처리한다.

52) 2018. 1. 23. 「임OO 진술조서」 17~19쪽.

53) 2018. 3. 8. 「김OO 진술조서」 28~29쪽.

(2) 예술위 진술

사무처장 이OO은 2018. 1. 31.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연 시기 때문에 예산 전용을 서면결의로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⁵⁴⁾

예술진흥본부장 이OO은 2018. 1. 24.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문체부에서 창작지원부장 양OO에게 <향연>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문체부에 공문을 요청하여 받았다고 진술하였다.⁵⁵⁾

창작지원부장 양OO은 2018. 1. 25.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⁵⁶⁾

- 2015년 9월 말 경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C이 전화로 ‘예산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 요청이 있으니 국립무용단 공연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였다.
- 사업 담당자와 잔여예산 확인을 한 후 10월 중순 경 사무관에게 전화하여 절차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문을 요청하여 받았다. 받은 공문의 내용이 지시사항이 아니라 검토 후 적의조치하라는 내용이라 공문 재발송을 요청하고 싶었으나 문체부와 산하 기관의 위계 관계 때문에 재발송을 요청하지 못하였다.
- 음악 분야와 연극 분야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지시로 예산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에 대해 음악분야 위원 김OO 및 연극분야 위원 정OO과 협의하였다.
- 사무처장 이OO에게 보고하였고, 예정된 전체회의 일자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다는 이유로 사무처장 의견에 따라 예산 전용을 서면 결의로 진행하였다. 고의로 대면회의를 회피 한 것은 아니며 행정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 서면 결의를하기로 결정을 하고 난 후 모든 위원들에게 개별 전화로 <향연> 지원이 청와대 요청사항이라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 공공극장에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민간지원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편법적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문체부에 ‘국립극장에 바로 줄 수 없으니 재단법인국립극장진흥재단의 공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양OO은 또한 진술 다음날인 2018. 1. 26. 우리 위원회에 「확인서」⁵⁷⁾를 제출하였는

54) 2018. 1. 31. 「이OO 진술조서」 12쪽.

55) 2018. 1. 24. 「이OO 진술조서」 19쪽.

56) 2018. 1. 25. 「양OO 진술조서」 8~10쪽.

57) 문체부 기관감사 당시 감사원에 제출하였던 2017. 2. 23.자 「확인서(감사 제출본)」

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예술위는 매년 홈페이지에 국공립 단체와 문체부 국고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공고한다. 따라서 민간지원 예산을 국립극장이 자체 예산으로 제작하여야 할 작품에 지원해서는 안된다.⁵⁸⁾
- 민간지원 예산을 국립극장 공연에 지원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문체부에 제시하였으나, 문체부가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수차례 지원을 요청하여 지원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문체부에 공문을 요청하였다.
- 문체부에서 창작산실 사업의 연극 및 오페라 분야 잔여예산 6억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 2015. 10. 23. 문체부 공문을 받은 후 미집행중인 오페라 및 연극분야 예산 각각 3억을 <향연>에 지원하기로 사실상 결정⁵⁹⁾하고 문체부에 구두 통보하였다.
- 이후 위원회 서면의결을 거쳐 국립극장에 예산을 지원하였다.
- 원칙적으로 국립기관(단체)에 직접 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침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 요건에 부합하는 지원 방법을 고민하였고, 민간재단에 지원하는 다른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사례를 준용하여 재단법인국립극장진흥재단을 실제 사업수행 주체로 하는 지원절차를 문체부에 제시하였고, 재단 명의의 지원요청 공문을 전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 오페라 분야의 우수작품제작지원예산 3억 원은 향후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신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었다.⁶⁰⁾

58) 「확인서(감사 제출본)」에서, 「국공립 단체는 통상적으로 단체에 사업비를 포함한 연간 경상운영비 예산을 보조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기금 등 별도 계정의 예산 투입은 중복 지원의 여지로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단체 지원의 고유 목적성을 지닌 기금의 용도, 국고와 기금의 역할 분담 취지를 고려하여 기금지원하지 않음을 관례적으로 원칙화 해 오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59) 「확인서」에서, 「의결안건 상정 전에 해당장르 위원(연극분야 정OO, 음악분야 김OO)의 사전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위원회 의결 이전에 특정 장르별 관련 내용의 안전에 대해 해당 장르 전공 위원에 의해 사전 검토된 결과는 위원회 의결 시 장르위원 검토 여부 확인을 거쳐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임에 따라, 10월말 경 상기 두 위원으로부터 공연지원 동의를 받은 직후 문체부 관련자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전화로 미리 전달함으로써 대상공연이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60) 2015. 6. 25.자 「제162차 위원회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창작지원부장이었던 장OO이 「201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우수작품제작지원」 오페라 분야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적으로 나온 작품이 없어 '대상자 없음'이라는 결론을 냈으며, 잔여예산 활용방안을 1, 2, 3안이 있는데 추후 김OO 위원과 협의 후에 다시 보고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후 잔여예

예술위 연극분야 위원 정OO은 2018. 2. 13.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⁶¹⁾

- 창작지원부장 양OO이 창작산실 연극분야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별도로 사전 허락을 구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 서면결의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양OO으로부터 전화로 <향연> 예산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자료는 별도로 송부받았다.
- 양OO이 ‘문체부의 지시가 있는 상황에서 예술위로서는 따를 수 밖에 없으니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
- 민간지원예산이기 때문에 공공극장에 지원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은 있었고, 그래서 이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돈은 나중에 문체부에서 다시 보전해주는 것이냐’와 같은 얘기들이 있었다.

(3) 국립극장 진술

국립극장장 안호상은 2018. 2. 27.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⁶²⁾

-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로부터 긴급한 회의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2015. 9. 6. 전통문화 세계화 방안 수립 회의에 참석하였다.
- 회의에 <향연>을 포함하여 공연 및 전통관련 사업 계획안을 여러 개 가지고 갔고, 회의 이후에 공연기획부장 권OO 혹은 공연기획팀장 이OO로부터 <향연>을 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 <향연>은 2014년 소치올림픽 이후 기획 구상하였으나 예산 문제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미뤄놓았던 작품이었다.
- 극장 일정, 국립무용단원 일정을 조정하기가 어렵고 공연 제작 기간도 너무 짧아서 다음해로 미룰 수 없겠느냐 문체부에 문의하였으나 반드시 연내에 제작해야한다는

산 활용방안이 논의과정을 묻는 위원회의 질문에 대하여, 예술진흥본부장 이OO은 2018. 1. 24. 「이OO 진술조서」 19쪽에서 자신과 장OO이 2015. 8. 경에 인사 조치가 되고 난 후 진행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창작지원부장 양OO은 2018. 1. 25. 「양OO 진술조서」 9~10쪽에서 문체부의 전화를 받고 잔여예산 확인 작업을 할 때에서야 잔여예산 활용방안이 있었다는 사실을 음악분야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는데, 그 보고 내용이 1, 2, 3안 진척사항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61) 2018. 2. 13. 「정OO 진술조서」 21~22쪽.

62) 2018. 2. 27. 「안호상 진술조서」 6~8쪽.

답을 들었다.

- 이전 사례를 생각했을 때 관광기금 또는 체육기금을 지원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산 확정 이후에 예술위 예산을 전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OO가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문체부 지시 사항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 곤란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 국립극장은 예산 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재단법인국립극장진흥재단을 통해서 수입을 처리하며, <향연>의 경우가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공연기획부장 권OO는 2018. 2. 28.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⁶³⁾

- 실무자가 문체부로부터 기획안 제출 요청을 받았으며, 2~3개 정도의 기획안을 제출하였고 그 중 <향연>이 채택되었다. 국립극장 입장에서는 전통문화를 포괄해서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 공연을 만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국립극장이 지향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아 문체부의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 공연 제작을 시작했으나 문체부가 예산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었다. 예술위의 민간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문체부의 지시를 거부할 입장이 아니어서 보조금을 받았고 이후에 <향연>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그것이 창작 산실 예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국고 외 보조금 수입은 다 재단법인국립극장진흥재단으로 처리하며, <향연>도 보조금 형태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재단법인국립극장진흥재단으로 수입 처리하였다.

공연기획팀장 이OO는 2018. 1. 10.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⁶⁴⁾

- 2015. 8. 18. '국정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 발표 이후 문체부가 국립극장 뿐만 아니라 전 국공립예술단체에 기획안 제출 요청을 했다.
-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업 계획들을 전부 정리하여 기획안을 작성하였고, <향연> 뿐만 아니라 여러 개 기획안을 보내어 문체부로부터 여러 차례 회신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문체부가 결정해서 알려준 것에 <향연>이 포함되어있었다.

63) 2018. 2. 28. 「권OO 진술조서」 6~7쪽.

64) 2018. 1. 10. 「이OO 진술조서」 9~14쪽.

- 〈향연〉은 2013년도부터 계획했으나, 예산 규모가 커서 실현 불가능했기 때문에 매년 논의만 하고 실행하지 못한 기획이었다.
-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으로부터 공연을 연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잔여예산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근거 마련을 위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2015. 10. 8. 문체부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 김OO으로부터 예술위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술위 예산을 지원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일 혹은 다음날에 예술위에서 기획안과 예산안을 제출해달라는 전화가 와서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교부신청 안내 공문이 도착하였다.
- 문화동반자사업 등을 진행할 때 예술위로부터 예산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술위에서 예산을 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 국립극장은 문체부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분리되어있어 특별수입금을 처리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계기성 사업의 경우 재단법인국립극장진흥재단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국립무용단 기획위원 Q은 2018. 1. 11.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⁶⁵⁾

- 〈향연〉 기획은 2013 정OO 연출의 〈단〉 공연 시에 구상하였던 것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실현하지 못했다.
- 국립극장장 안호상이 문체부 장관 김종덕을 만나고 온 후, 2015년 국립무용단이 〈향연〉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국격에 맞는 작품이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 예술위에서 예산 전용을 확정짓기 전에 예술위 창작지원부 대리 OOO에게 예산 교부 일정 확인 차 전화했었는데, 예산을 전용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을 받았다.
- 보조금 형태의 수입은 재단법인국립극장진흥재단으로 수입처리 한다.
- 민간지원예산이 국립예술단체로 들어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으며, 그 사실을 알게 된 외부 기획자들도 ‘그런 방법이 있느냐’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 국립무용단이 다른 공연이 있어 〈향연〉을 연습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문체부 장

65) 2018. 1. 11. 「Q 진술조서」

관 김종덕이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지를 피력하여 단기간에 무리하게 <향연> 연습 및 제작을 진행하였다.

제4절 | 조사 결과

1. 2015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 연출 손진책 교체 압력에 대하여

손진책은 2013년 연극 <개구리> 공연 당시 국립극단 예술감독직을 맡고 있었는데, 문체부는 청와대로부터 연극 <개구리> 공연이 정치 편향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책을 마련 하라는 지시를 받고 손진책을 만나 면담하였고, 그 결과 손진책은 국립극단 예술감독직 연임을 포기하였다. 또한 연극 <개구리>로 인하여 손진책은 이후 문체부 지원 배제 대상 자로 관리되었다.

손진책이 연출한 2015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 공연(2015. 12. 10. ~ 2016. 2. 10.) 이 임박한 2015년 11월 경,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서기관 최OO은 청와대의 손진책 연출 배제 지시에 따라 국립극장 공연기획팀장 이OO에게 전화를 걸어 ‘위에서 손진책 선생님에 대해서 불편해하신다. 그러니까 연출을 바꾸면 안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OO는 이를 공연기획부장 권OO와 국립극장장 안호상에게 보고하였다. 이OO가 공연이 임박하여 이미 티켓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연출 교체나 공연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체부에 설명하자 최OO은 이를 문건으로 정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OO는 「2015-2016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 공연 현황」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문체부에 송부하였다.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임OO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 김OO에게 보고 후 청와대의 양해를 얻었고, 공연은 원래대로 진행되었다.

손진책은 2014년에도 국립극장에서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의 연출을 맡은 바 있는데, 2014년에도 손진책 연출에 대해서 배제 지시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립극장 진술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문체부의 연출 교체 지시 사항을 손진책 연출이 알고 있었는가하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는데, 국립극장장 안호상 및 공연기획팀장 이OO는 문체부의 지시사항을 손

진책 연출과 공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공연기획부장 권OO는 손진책 연출과 함께 대처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당놀이는 풍자와 해학이 주요 요소인 장르의 특성상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 담길 수 밖에 없는데, 비록 문체부의 대본 사전 검열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으나, 권OO의 진술대로 문체부의 지시사항을 손진책 연출과 공유하였다면, 문체부의 배제 지시가 공연 제작 과정에서 손진책 연출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손진책 연출의 진술을 받지 못하여 명확하게 확인은 어렵다.

2. 이윤택 연출의 2015 <혜경궁 홍씨> 재공연 취소에 대하여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임OO 및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박OO의 진술,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 박OO의 진술,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문건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5년 <혜경궁 홍씨>를 비롯한 이윤택 연출의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기획공연에 대하여 문체부의 배제 검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연 취소 시의 파장을 우려하여 문체부 장관 김종덕의 지시로 2015년도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실제로 <문제적 인간 연산>의 경우 2015년 7월에 정상적으로 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문체부의 양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택 연출의 <혜경궁 홍씨> 및 <키 큰 세 여자> 공연이 취소된 것은 <문제적 인간 연산> 연습 당시 이윤택 연출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이라는 사실이 국립극단이 2018. 3. 3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립극장은 국립극단의 공연 취소 결정을 수용하여 <혜경궁 홍씨> 공연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윤택 연출의 <혜경궁 홍씨> 공연에 대하여 배제 지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3. 2015 국립무용단 <향연> 제작비 예술위 예산 전용에 대하여

가. 진행 경과

2015. 8. 10.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통문화 융성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문체부는 2015. 8. 18. 「국정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발표하

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통문화의 세계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국립극장은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전속단체인 국립무용단 공연 〈향연〉 기획안을 제출하였고, 기획안이 채택됨에 따라 2015. 12. 5. ~ 2015. 12. 6.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향연〉이 공연되었다.

계획에 없던 공연을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는 〈향연〉 제작 예산 마련에 고심하였고, 공연전통예술과 내 잔여예산을 확인하여 예술위 ‘201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우수작품제작지원’에서 연극분야와 오페라분야에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의 잔여예산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에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임OO와 예술정책관 B은 위 잔여예산을 〈향연〉에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예술위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는 예산 전용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장차관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예산 전용을 추진하였다.

예술위는 국고와 보조금의 역할 분담 취지를 고려하여 관례적으로 국공립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왔고, 이에 ‘201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우수작품제작지원’ 잔여예산을 국립극장에 지원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문체부에 피력하였으나 문체부는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수차례 국립극장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예술위는 근거마련을 위해 문체부에 공문을 요청하였는데, 문체부는 국립극장에서 보내온 예산 지원 요청 공문을 예술위에 전달하는 형태로 공문을 처리하였다.

예술위는 문체부 지시사항에 대하여 음악분야 위원 김OO 및 연극분야 위원 정OO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은 후 지원 가능 사실을 문체부에 알렸으며, ‘제162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향연〉 예산지원을 서면결의 하였다.

나. 기관 자율성 침해 및 문화예술진흥법 위반의 점

예술위 사무처는 민간지원예산을 국공립단체에 지원하라는 문체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을 거부하였으나, 문체부의 계속되는 지시 및 관리기관과 산하기관이라는 위계 관계에 의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수용하여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훼손되었다.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예술위 위원들은 민간지원예산을 국공립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청와대의 요청사항이라는 사무처의 설명에 따라 예산 전용을 의결하였다. 이는 예술위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국립극장 역시 민간지원예산을 지원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국립무용단 일정 상 〈향연〉 추진이 어려움에도 반드시 연내 공연을 제작해야한다는 문체부의 지시를 거부 하지 못하여 무리하게 실행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훼손되었다.

다. 〈향연〉 예산과 블랙리스트 관계 여부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5. 5. 11.자 및 2015. 5. 21.자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 진술,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 이○○ 진술, 예술 위 창작지원부장 장○○ 진술을 통해 청와대의 배제 지시에 따라 ‘2015년도 공연예술창 작산실 지원사업-우수작품제작지원’ 연극분야 선정작인 박○○ 연출의 〈모든 군인은 불 쌍하다〉가 자진 포기 형태로 지원 취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향연〉은 ‘2015년도 공연예 술창작산실 지원사업-우수작품제작지원’ 연극분야 잔여예산 3억 및 오페라분야 잔여예 산 3억이 예산으로 지원되었는데, 연극분야 잔여예산 3억 원 중 1억 원이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에 지원 예정이었다가 공연 취소로 잔여처리된 예산이다.

따라서 블랙리스트 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예산이 〈향연〉에 일부 지원되었다는 사 실이 확인되었다.

4.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뉴스1은 2016. 11. 21.자 보도⁶⁶⁾에서, 문체부 장관 김종덕이 〈향연〉 제작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였으나, 우리 위 원회의 권한적 한계로 인해 위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66) “[단독] 김종덕 전 장관, 민간 지원예산 문체부 산하기관에 전용” 〈뉴스1〉 2016/11/21 18:00
<http://news1.kr/articles/?283307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4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8직공1[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직권조사 취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사전조사를 통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년 4개 사업에서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블랙리스트 지원배제가 작동된 의혹이 제기된 바, 이에 대해서는 이전까지의 피고인 김기춘 외 6인 블랙리스트 관련 형사판결이나 위원회 신청조사 등에서 검토된 바 없으므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건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이 사건 조사를 통해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구조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16년 4개 사업에 대한 청와대·국정원의 블랙리스트 배제지시 하달 및 이에 따른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배제이행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문체부의 진흥원에 대한 업무상 관리 및 개입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운영되어옴에 따라 구체적으로 블

랙리스트 작동이 확인된 위 4개 사업 이외에도, 부당한 개입에 의한 특정단체 배제 혹은 부당지원이 비단 특정시기에 한정하지 않고 진흥원 내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다는 정황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붙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8직공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제1절 | 사건 개요

1. 직권조사 취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사전조사를 통해 2016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한 일부 사업들에서 특정 단체·예술인에 대한 부당배제 등 블랙리스트 작동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다. 2017. 1.~2. 감사원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과정에서 이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의 블랙리스트 배제 작동사실이 일부 확인된 바 있음에도, 이에 대해 피고인 김기춘 외 3인 블랙리스트 1심 형사판결이나 위원회 신청조사 등에서는 검토된 바 없으므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전반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의 직권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 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있어 2018. 1. 5. 조사개시 결정되었다.

나. 조사의 목적(규명과제)

위원회 사전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의혹에 대한 규명을 중심으로, 진흥원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작동의 전반적 구조 및 구체적 경위, 관련자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제2절 | 조사 경과

1. 조사방식

조사위의 조사개시결정 후 진흥원에 아래와 같이 내·외부 인력으로 구성된 자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TF)'(이하 '진흥원 TF')가 구성되었다.

[표-1] 진흥원 TF 구성원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비고
1	외부	이OO	극단 고래 대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
2		김OO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3		임OO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법무지원실 전문위원	변호사
4	내부	김OO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협력실 과장	-
5		이OO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협력실 주임	-

이에 조사위는 진흥원 TF와 협력하여, ① 사전조사로 밝혀진 4개 사업 우선 협력조사 ② 4개 외 사업 전수조사 등 블랙리스트 관련 진흥원 내부조사 ③ 진흥원 TF는 진흥원 사업담당자 등 내부조사 ④ 조사위는 문체부 담당자 및 심사위원 등 외부인 조사 등 조사범위 및 역할에 대한 협조 전략을 세우고 함께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조사범위

조사위 사전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진흥원의 2016년 4개 사업(①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예술강사), ②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③ 2016 문화파출소 조성·운영사업, ④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특별한 하루))에 대한 조사를 우선 조사범위 및 대상으로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진흥원 TF는 조사신청자 및 심사위원 제보 등에 의하여 위 4개 사업에 대한 조사 이외에 자체적으로 ① '2015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 ② '2014~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시시콜콜)'에서의 각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3. 문건 등 자료조사

각 사업별 입수 및 검토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16년 4개 사업(우선조사 대상)

-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예술강사)

[표-2]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예술강사)' 관련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입수일	비고
1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2016. 9. 27. 현재」	2017. 8.	
2	사업별 교육진흥원 및 문체부 각 소관팀 및 담당자 명단	2018. 1.	
3	(결재문)기본계획보고	2018. 1.	
4	선발계획안	2018. 1.	
5	예술강사 모집 공고문	2018. 1.	
6	(결재문)예술강사 접수결과 및 선발심사 추진계획 보고	2018. 1.	
7	접수결과 및 심사 추진계획	2018. 1.	
8	(결재문) 예술강사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2018. 1.	
9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심사 계획	2018. 1.	
10	(결재문)면접심사 및 선발결과 보고	2018. 1.	

연번	서명	입수일	비고
11	면접심사 및 선발결과 보고	2018. 1.	
12	(공문)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요청	2018. 1.	
13	접수자 명단	2018. 1.	
14	서류심사 세부 결과(채점표 포함)	2018. 1.	
15	면접심사 세부 결과(채점표 포함)	2018. 1.	
16	선발 명단_공지	2018. 1.	
17	면접심사 총평 공지문	2018. 1.	
18	심사위원 명단	2018. 1.	
19	'추진경과' 문건	2018. 1.	조사위의 참고인 노OO 조사 중 노OO 임의제출
20	2015. 11. 6.자 '예술강사 선발 및 교육과정 배치에 관한 사항' 질문서	2018. 1.	조사위의 참고인 노OO 조사 중 노OO 임의제출
21	고용노동부 2015. 12.자 '2016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2018. 1.	조사위의 참고인 노OO 조사 중 노OO 임의제출
22	진흥원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선발 추진계획' 내부결재문서	2018. 1.	조사위의 참고인 노OO 조사 중 노OO 임의제출
23	진흥원 2015. 11.자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안내사항[예술강사용]	2018. 1.	조사위의 참고인 노OO 조사 중 노OO 임의제출
24	진흥원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선발 과정 민원 관련'	2018. 1.	조사위의 참고인 노OO 조사 중 노OO 임의제출
25	OOO 진술서 붙임자료 제출_사회 예술강사 접수 리스트 요청	2018. 2. 2.	
26	OOO 진술서 붙임자료 제출_노인연극 분야 선발 이유 송부	2018. 2. 2.	
27	OOO 진술서 붙임자료 제출_노인연극 확인 필요 강사(개요)	2018. 2. 2.	
28	전국예술강사노조 위원장 OOO 제출_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요청서	2018. 2. 3.	전국예술강사노조위 원장 면담 후 제출 자료
29	사업별 심사위원 명단(2015~2018)	2018. 2. 5.	

-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표-3]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관련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입수일	비고
1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2016. 9. 27. 현재」	2017. 8.	
2	사업별 교육진흥원 및 문체부 각 소관팀 및 담당자 명단	2018. 1.	
3	2016 시민 기본계획 및 공모계획 보고(사회교육팀-986)	2018. 1.	
4	2016 시민 기본계획	2018. 1.	
5	2016 시민 공모 계획(연속, 신규)	2018. 1.	
6	2016 시민 연속지원 신청 안내	2018. 1.	
7	2016 시민 신규지원 공모안내, 공모요강	2018. 1.	
8	2016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정산 및 실적 최종 보고(사회교육팀-1394)	2018. 1.	
9	2016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377-38p)	2018. 1.	
10	2016 시민 연속지원 심사 결과 보고(사회교육팀-1199)	2018. 1.	
11	2016 시민 연속지원 심사 결과	2018. 1.	
12	2016 시민 연속지원 심사 세부결과	2018. 1.	
13	2016 시민 연속지원 심사표	2018. 1.	
14	2016 시민 신규지원 공모 서류심사 결과 보고(사회교육팀-1417)	2018. 1.	
15	2016 시민 신규지원 서류심사 결과	2018. 1.	
16	2016 시민 신규지원 서류심사 세부결과	2018. 1.	
17	2016 시민 신규지원 서류심사 심사표	2018. 1.	
18	2016 시민 신규지원 공모 인터뷰 심사 결과 보고(사회교육팀-1559)	2018. 1.	
19	2016 시민 신규지원 인터뷰심사 결과	2018. 1.	
20	2016 시민 신규지원 인터뷰심사 세부결과	2018. 1.	
21	2016 시민 신규지원 인터뷰심사 심사표	2018. 1.	
22	‘추진경과’ 문건	2018. 1.	조사위의 참고인 노OO 조사 중 노OO 임의제출
23	사업별 심사위원 명단(2015~2018)	2018. 2. 5.	

- 2016 문화파출소 조성·운영사업

[표-4] '2016 문화파출소 조성·운영사업' 관련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입수일	비고
1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2016. 9. 27. 현재」	2017. 8.	
2	사업별 교육진흥원 및 문체부 각 소관팀 및 담당자 명단	2018. 1.	
3	2016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사업 추진계획 보고(사회교육팀-290)	2018. 1.	
4	2016 문화파출소(예술 치안센터)추진계획	2018. 1.	
5	2016 예술 치안센터 프로그램 시범운영 추진계획 보고(사회교육팀-316)	2018. 1.	
6	2016 문화파출소(예술치안센터가칭)시범운영 추진 계획	2018. 1.	
7	2016 문화파출소(예술치안센터가칭)용역 입찰 공고	2018. 1.	
8	2016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사업 운영단체 공모계획 보고(사회교육팀-1528)	2018. 1.	
9	2016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사업 공모 계획	2018. 1.	
10	2016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사업 공모 안내	2018. 1.	
11	2016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사업 공모 안내 공고	2018. 1.	
12	2016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사업 운영단체 재공모 계획 보고(사회교육팀-2275)	2018. 1.	
13	2016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사업 재공모 계획	2018. 1.	
14	2016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사업 재공모 안내	2018. 1.	
15	2016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사업 재공모 안내 공고	2018. 1.	
16	2016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정산 및 실적 최종 보고(사회교육팀-1394)	2018. 1.	
17	2016 사회문화예술교육 실적보고서(26-27)	2018. 1.	
18	2016 예술 치안센터 프로그램 시범운영 용역 입찰 심사 결과 보고(사회교육팀-438)	2018. 1.	
19	2016 문화파출소(예술치안센터) 용역 입찰 심사 결과	2018. 1.	
20	2016 문화파출소(예술치안센터) 용역 입찰 심사표	2018. 1.	
21	2016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사업 운영단체 공모 심사 결과 보고(사회교육팀-2079)	2018. 1.	
22	2016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사업 공모 심사 결과 보고	2018. 1.	
23	2016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사업 공모 심사표	2018. 1.	
24	2016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사업 운영단체 재공모 심사 결과 보고(사회교육팀-2416)	2018. 1.	
25	2016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사업 재공모 심사 결과	2018. 1.	

연번	서명	입수일	비고
	보고		
26	2016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사업 재공모 심사표	2018. 1.	
27	진흥원 '2016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 사업 관련 운영단체 선정 과정 보고' 내부결재 문서	2018. 1.	조사위의 참고인 노OO 조사 중 노OO 임의제출
28	사업별 심사위원 명단(2015~2018)	2018. 2. 5.	
29	2016 사회문화예술교육 신규 사업 관련 자문회의 추진계획	2018. 2. 12.	
30	151123 추진계획_자문회의_문화파출소	2018. 2. 12.	
31	2016 사회문화예술교육 신규 사업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8. 2. 12.	
32	결과보고_자문회의_문화파출소	2018. 2. 12.	

-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특별한 하루)

[표-5]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특별한 하루)' 관련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입수일	비고
1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2016. 9. 27. 현재」	2017. 8.	
2	사업별 교육진흥원 및 문체부 각 소관팀 및 담당자 명단	2018. 1.	
3	(결재문)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추진계획 보고	2018. 1.	
4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추진계획(안)	2018. 1.	
5	2016 과업지시서_문화거점 및 창작공간	2018. 1.	
6	2016 과업지시서_대상 특화	2018. 1.	
7	2016 과업지시서_전통특화	2018. 1.	
8	입찰공고_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기획 운영_전통특화 운영_160311	2018. 1.	
9	입찰공고_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기획 운영_문화거점 및 창작공간 운영_160311	2018. 1.	
10	입찰공고_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기획 운영_대상특화 운영_160311	2018. 1.	
11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_결과보고서(문화거점 및 창작공간)_저용량	2018. 1.	
12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_결과보고서(전통특화)	2018. 1.	
13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_결과보고서(대상특화)	2018. 1.	
14	(결재문)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위촉 관련 추진경과	2018. 1.	

연번	서명	입수일	비고
15	명예교사 위촉 관련 추진경과_160614	2018. 1.	
16	(결재문)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위촉 관련 문화부 검토결과 1차 회신내용 보고의 건	2018. 1.	
17	160628_명예교사_1차 확정 명단(문화부)	2018. 1.	
18	(결재문)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위촉 관련 문화부 검토결과 2차 회신내용 보고의 건	2018. 1.	
19	160718_명예교사_1차명단_2차추가_문화부	2018. 1.	
20	(결재문)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위촉 관련 문화부 검토결과 3차 회신내용 보고의 건	2018. 1.	
21	160906_추가섭외명단_문화부	2018. 1.	
22	(결재문)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위촉 확정 명단 및 추진경과 보고	2018. 1.	
23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위촉 관련 문화부 검토결과 메일 회신내용	2018. 1.	
24	확정 명단 및 추진 경과_보고용	2018. 1.	
25	위 사업 관련 참고인 000 이메일 등 참고인 000이 제출한 문건	2018. 1.	조사위의 참고인 000 조사 중 000 임의제출
26	사업별 심사위원 명단(2015~2018)	2018. 2. 5.	

나. 4개 사업 외 추가 조사

-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진흥원 TF 입수)

[표-6]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입수일	비고
1	조사신청자 정보 및 제보 내용	2018. 2. 20.	
2	(결재문)기본계획보고	2018. 2. 20.	
3	201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기본계획	2018. 2. 20.	
4	(결재문)공모계획보고	2018. 2. 20.	
5	201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계획	2018. 2. 20.	
6	201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안내	2018. 2. 20.	
7	201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2018. 2. 20.	
8	(결재문)서류심사 계획 보고	2018. 2. 20.	
9	201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서류심사 계획	2018. 2. 20.	
10	201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접수현황	2018. 2. 20.	

연번	서명	입수일	비고
11	(결재문)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심사 계획 보고	2018. 2. 20.	
12	201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심사 계획 보고	2018. 2. 20.	
13	서류심사 세부 결과(채점표 포함)	2018. 2. 20.	
14	201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서류심사 결과 안내	2018. 2. 20.	
15	(결재문)면접심사 결과 및 운영단체 선정 보고	2018. 2. 20.	
16	201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면접심사 결과 및 운영단체 선정 보고	2018. 2. 20.	
17	면접심사 세부 결과(채점표 포함)	2018. 2. 20.	
18	201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최종 선정결과 안내	2018. 2. 20.	
19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 담당자 회신 이메일	2018. 3. 22.	
20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기본계획	2018. 3. 22.	
21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계획	2018. 3. 22.	
22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심사계획 및 결과보고	2018. 3. 22.	
23	2015 문화예술치유 결과공유회 참석자_대한임상미술협회	2018. 3. 22.	
24	2015 문화예술치유 결과공유회 각 단체별 참석자 명단(8개 단체)	208. 4. 3.	

- 2014, 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진흥원 TF 입수)

[표-7] ‘2014, 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관련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입수일	비고
1	(결재문)2014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신규지원 통합캠프 및 최종심사 결과 보고	2018. 3. 26.	
2	2014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신규지원 통합캠프 세부 심사결과(채점표 포함)	2018. 3. 26.	
3	2014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통합캠프 방명록	2018. 3. 26.	
4	(결재문)최종심사 결과 정정 보고	2018. 3. 26.	
5	2014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신규지원 통합캠프 및 최종심사 결과 정정 보고	2018. 3. 26.	
6	2014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신규지원 최종 심사 결과	2018. 3. 26.	

연번	서명	입수일	비고
7	(내부문서) 2014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신규지원 최종심사 결과 홈페이지 게시 요청	2018. 3. 26.	
8	(결재문)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신규지원 추가 공모 계획 보고	2018. 3. 26.	
9	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추가 공모 추진 계획	2018. 3. 26.	
10	공모문 및 추가공모 공모요강	2018. 3. 26.	
11	(결재문)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신규지원 추가 공모 서류심사 결과 보고	2018. 3. 26.	
12	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신규지원 추가 공모 서류심사 추진 결과	2018. 3. 26.	
13	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신규지원 최종 심사 결과	2018. 3. 26.	
14	심사총평 및 심사표	2018. 3. 26.	
15	(결재문)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신규지원 추가 공모 서류심사 추진 계획 보고	2018. 3. 26.	
16	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신규지원 추가 공모 서류심사 추진 계획	2018. 3. 26.	

4. 참고인 등 대인조사

각 사업별 조사를 진행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2016년 4개 사업(우선조사 대상)

-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예술강사 선발

[표-8]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예술강사 선발' 관련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구분	소관팀명	담당자명	조사위	진행원 TF	비고
	예술협력 사업본부	노OO 본부장	진술조서 ('18. 1. 19)	-	-
진행원	사회교육팀	이OO 팀장	-	진술서 ('18. 1. 30)	-
				진술조서 ('18. 2. 27.)	

구분	소관팀명	담당자명	조사위	진흥원 TF	비고
		000	-	진술서 (‘18. 2. 1) 진술확인서 (‘18. 4. 9.)	-
		000	-	진술서 (‘18. 2. 1) 진술확인서 (‘18. 4. 9.)	-
		000	-	진술서 (‘18. 2. 1) 진술확인서 (‘18. 4. 12.)	-
	교육인력 지원본부	김00 본부장	-	진술서 (‘18. 2. 1) 진술확인서 (‘18. 4. 12.)	‘16. 1. 20.부터 담당
	교육운영 2팀	장00 팀장	-	진술서 (‘18. 1. 31)	‘16. 1. 20.부터 담당
		000	-	진술서 (‘18. 2. 1) 진술확인서 (‘18. 2. 13.)	‘16. 1. 20.부터 담당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00 사무관/서기관	진술조서 (‘18. 2. 7)	-	-
	문화예술 교육과	000 주무관	진술조서 (‘18. 4. 26)	-	-

-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표-9]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관련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구분	소관팀명/소속	담당자명	조사위	진흥원 TF	비고
	예술협력 사업본부	노00 본부장	진술조서 (‘18. 1. 19)	-	-
진흥원	사회교육팀	이00 팀장	-	진술서 (‘18. 1. 30) 진술조서 (‘18. 2. 27)	-

구분	소관팀명/소속	담당자명	조사위	진흥원 TF	비고
		000	-	진술서 (‘18. 2. 1) 진술확인서 (‘18. 4. 9.)	’18. 3. 8 퇴사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00 사무관/서기관	진술조서 (‘18. 2. 7)	-	-
	문화예술 교육과	000 주무관	진술조서 (‘18. 4. 26)	-	-
심사위원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이00	진술조서 (‘18. 2. 7)	-	서류 및 면접심사 심사위원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송00	진술서 (‘18. 2. 12)	-	서류 및 면접심사 심사위원

- 2016 문화파출소 조성·운영사업

[표-10] ‘2016 문화파출소 조성·운영사업’ 관련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구분	소관팀명/소속	담당자명	조사위	진흥원 TF	비고
	예술협력 사업본부	노00 본부장	진술조서 (‘18. 1. 19)	-	-
진흥원		이00 팀장	-	진술서 (‘18. 1. 30) 진술조서 (‘18. 2. 27)	-
	사회교육팀	000	-	진술서 (‘18. 2. 1)	-
		000	-	진술서 (‘18. 2. 1) 진술확인서 (‘18. 4. 1.)	-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00 사무관/서기관	진술조서 (‘18. 2. 7)	-	-
	문화예술 교육과	000 주무관	진술조서 (‘18. 4. 26)	-	-
심사위원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이00	진술조서 (‘18. 2. 7)	-	-
	000컨설팅 대표	서00	진술서	-	-

구분	소관팀명/소속	담당자명	조사위	진흥원 TF	비고
			('18. 2. 8)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최OO	진술서 ('18. 2. 19)	-	-
피해자	군포문화재단	서강석	진술조서 (2018. 2. 1.)	-	-

-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특별한 하루)

[표-11]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관련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구분	소관팀명	담당자명	조사위	진흥원 TF	비고
진흥원	기획사업단	정OO 단장	진술조서 ('18. 1. 31)	-	-
		OOO	진술조서 ('18. 1. 19)	-	-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서기관	진술조서 ('18. 2. 7)	-	-
	문화예술 교육과	김OO 사무관	진술서 ('18. 4. 19)	-	-

나. 4개 사업 외 추가 조사

- 블랙리스트 업무수행 관련 진흥원 TF 전수조사

[표-12] '블랙리스트 업무수행 관련 진흥원 TF 전수조사' 관련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이름	진흥원 내 직위		진술서		진술확인서
		現	前 ¹⁾	작성일자	비고	
1	홍OO	기획협력실장	전략기획연구팀장	'18. 2. 6.	해당 없음 취지 메일	-
2	김OO	경영지원본부장	교육인력지원본부장	'18. 2. 7.	-	-
3	김OO	교육기반본부장	대외협력팀장	'18. 2. 20.	-	-
4	박OO	청소년교육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18. 2. 7.	-	-
5	노OO	시민교육본부장	예술협력사업본부장	'18. 2. 6.	-	-
6	장OO	경영관리팀장	교육운영2팀장	'18. 2. 7.	-	-
7	박OO	총무회계팀장	총무회계팀장	'18. 2. 7.	-	-
8	채OO	지식정보센터장	경영관리팀장	'18. 2. 6.	-	-

연번	이름	진흥원 내 직위		진술서		진술확인서
		現	前 ¹⁾	작성일자	비고	
9	임OO	교육R&D팀장	지역활성화팀장	'18. 2. 7.	해당 없음 취지메일 ²⁾	'18. 2. 20
10	OOO	교육연수센터장	교육운영1팀 대리	'18. 2. 7.	-	'18. 2. 20
11	이OO	학교교육팀장	사회교육팀장	'18. 2. 8.	해당 없음 취지 메일	-
12	최OO	시민교육팀장	가족문화팀장	'18. 2. 8.	-	'18. 2. 20
13	김OO	교육나눔팀장	교육운영1팀장	'18. 2. 7.	-	'18. 2. 20

- 2014, 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표-13] '2014, 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관련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사업명	소관팀명	성명	조사위	진흥원 TF		비고
				진술서	진술조사	
2014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예술협력사 업본부	박OO 본부장	-	거부	거부	조사위원회 조사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서 제출 거부
		김OO	-	'18. 3. 28.	-	별첨자료 제출
	사회 교육팀	OOO	-	'18. 3. 28.	-	-
		OOO	-	'18. 3. 7.	-	-
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사회 교육팀	이OO 팀장 (직무대리)	-	-	'18. 4. 5.	-
		OOO	-	'18. 3. 7.	-	-
		OOO	-	'18. 3. 7.	-	-
	문체부 문화예술 교육과	OOO 주무관	진술조사 ('18. 4. 26)			

1) 2016. 8. 16.자 교육진흥원 조직도 기준

2) 다만 「OO OOOO」 사업에 대한 국회의원(보좌관)으로부터의 청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내용

-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표-14]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사업명	소관팀명	성명	조사위	진흥원 TF		비고
				진술서	진술조서	
2015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	- (조사신청자)	OOO (OOO 대표)	-	-	'18. 3. 15	'18. 2. 26 조사신청(유선)
	사회 교육팀	이OO 팀장	-	-	'18. 4. 5	-
		OOO	-	'18. 3. 22	'18. 4. 5	진술서 이메일제출
	문체부 문화예술 교육과	OOO 주무관	진술조서 ('18. 4. 26)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개개인의 문화예술 향유능력 및 창의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³⁾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05. 12. 29. 제정)에 의해 2005.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 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⁴⁾, 운영재원은 진흥원 보통재산, 국가·시 및 군·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사업수익금, 찬조금,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⁵⁾⁶⁾된다. 해당사건 당시 주성혜 한국에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관」 제2조

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문화예술교육사업,
<https://www.arte.or.kr/business/school/index.do>

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관」 제26조

6) 참고인 노OO은 2018. 1. 19. 위원회 조사에서 진흥원의 운영재원 관련, “정관에 규정된 것처럼, 교

술종합학교 교수가 원장⁷⁾으로 재임하였고, 문체부의 진흥원 담당 부서는 문화예술교육과이다.

나. 2016년 4개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의혹

(1)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예술강사 선발

진흥원의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대상으로 정기적인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참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대상 각 17개 분야 예술강사 파견 및 교육지원을 내용⁸⁾으로 한다. 해당사업은 2016. 1. 20.까지 진흥원 예술협력사업 본부 산하 사회교육팀이 진행하였고, 진흥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2016. 1. 20.부터는 교육인력지원본부 산하 교육운영2팀이 진행하였다. 위 사업의 예술강사 지원자 모집 및 선발 등 일정은 아래와 같다.

[표-15]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예술강사' 사업 주요 일정

내용	일시
• 접수기간	2015. 12. 2. ~ 12. 16.
• 서류심사	2016. 1. 4. ~ 1. 7.
• 서류심사 결과공고	2016. 1. 11.
• 면접심사	2016. 1. 18. ~ 2. 3.
• 최종선발 명단 공고	2016. 2. 16.

조사위의 사전조사 과정에서, 위 사업 예술강사 선발과정 중 문체부가 위 사업 면접대상자 721명 명단을 청와대에 송부하고, 문제인물들을 제외조치 하는 등의 블랙리스트 작동 의혹이 제기되었다.

육진흥원 보통재산, 국가·시 및 군·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사업수익금, 찬조금,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입 등으로 이뤄집니다. 그 중 국가·시 및 군·구의 출연금과 보조금이 거의 10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1300억원 정도 예산을 배정받고, 그 중 65억 정도가 기관운영비로 소진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2018. 1. 19.자 노OO 진술조서 3면).

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관」 제9조(임원의 직무) ② 원장은 교육진흥원을 대표하고, 교육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 이외의 이사(이사장 포함)는 교육진흥원의 대표권을 갖지 아니한다.

8) 진흥원 사회교육팀 2015. 11. 26.자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선발 및 지원계획

(2)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공모사업

진흥원의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공모사업은 일상과 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인 일반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율적·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모델 발굴 및 성장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운영 역량이 있는 단체·시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교육, 컨설팅, 간담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⁹⁾으로 한다. 해당사업은 진흥원 예술협력사업본부 산하 사회교육팀 소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시 진행된 위사업 ‘신규지원’ 부문¹⁰⁾의 지원자 모집 및 선발 등 일정은 아래와 같다.

[표-16]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공모사업’ 주요 일정

내 용	일 시
• 접수기간	2016. 5. 12. ~ 6. 1.
• 서류심사	2016. 6. 8.
• 서류심사 결과공고	2016. 6. 16.
• 면접심사	2016. 6. 30. ~ 7. 1.
• 최종선발 명단 공고	2016. 7. 8.

조사위의 사전조사 과정에서, 위 사업 면접심사 과정 중 청와대 및 국정원-문체부의 순차 지시에 따른 5개 단체에 대한 블랙리스트 배제 의혹이 제기되었다.

(3) 2016 문화파출소 조성·운영사업

‘2016 문화파출소 조성·운영사업’은 치안센터 유휴공간 조성 및 활용,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예술향유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진흥원·경찰청 협력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전국 10개 치안센터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비 등 지원을 그 내용¹¹⁾으로 한다. 해당사업은 진흥원 예술협력사업본부 산하 사회

9) 진흥원 2016. 4. 20. 시행 사회교육팀-986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공모계획 보고’ 내부결재 문건

10) 해당사업은 기존의 2015년 지원 단체 중 계속 지원할 대상을 선발하는 ‘연속지원’ 부문 및 2016년부터 새롭게 지원할 대상을 선발하는 ‘신규지원’ 부문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선발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블랙리스트 작동 의혹이 제기된 것은 ‘신규지원’ 부문이다.

교육팀 소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시 진행된 위 사업 1차공모의 지원자 모집 및 선발 등 일정은 아래와 같다.

[표-17] '2016 문화파출소 조성·운영사업' 1차공모 주요일정

내용	일시
• 접수기간	2016. 7. 4. ~ 7. 19.
• 서류심사 결과공고	2016. 7. 26.
• 면접심사	2016. 8. 1.
• 최종선발 명단 공고	2016. 8. 5.

조사위의 사전조사 과정에서, 위 사업 면접심사 과정 중 청와대 및 국정원-문체부의 순차 지시에 따른 1개 단체에 대한 블랙리스트 배제 의혹이 제기되었다.

(4)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특별한 하루>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은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를 '문화예술 명예교사'로 위촉해 어린이·청소년·일반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진흥원의 기획사업으로,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들에게 명예교사 위촉 및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게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교사 섭외 및 위촉은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와 진흥원이 협의해 진행되었고, 위촉장 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며, 당시 진흥원의 해당사업 소관팀이었던 '기획사업단'(현재는 '대외협력팀' 소관)의 경우 2016년 한시적으로 구성되었던 조직으로 현재는 해체되었다.

조사위의 사전조사 과정에서, 위 사업 '명예교사' 섭외·위촉 과정 중 청와대 및 국정원-문체부의 순차 지시에 따른 문화예술인 12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배제 의혹이 제기되었다.

11) 진흥원 '2016 예술 치안센터(가칭) 조성·운영사업 추진계획(안)'

다. 추가 블랙리스트 작동 의혹

(1) 2014, 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위원회의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관련 참고인 이OO 조사 과정에서, ‘2015년도 시시콜콜 사업 당시 심사위원들이 동성애 관련 단체 및 민주화운동을 지원했던 부산의 현책방 운영단체를 선정하였는데, 위 두 단체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문체부에서 진흥원 쪽으로 이의를 제기해 진흥원이 심사위원들에게 위 두 단체에 대한 심사 번복이 가능한지 문의한 사건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인되었다.¹²⁾

진흥원 TF는 당시 진흥원의 위 심사번복 요청이 블랙리스트 실행 일환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당시 위 사업 담당자였던 진흥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자체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시콜콜 사업 자체를 문체부가 탐탁지 않아 했다는 진흥원 직원들 진술이 나오에 따라 조사범위를 2014년 사업까지 확대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진흥원 TF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위 사업 담당 문체부 주무관에 대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다.

(2)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진흥원의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미술 분야’에 선정되었던 OOO 대표가 진흥원 TF에 2018. 2. 20. 블랙리스트 작동 의혹 관련 조사신청을 하였다. 조사 신청¹³⁾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진흥원 <’15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약 1억3천2백만원 상당의 연구를 수행함
- 그 뒤 2016. 1. 6.자에 ‘여성 인재영입 1호’로 더불어민주당(문재인 대표)에 입당했으나, 이슈가 생겨 ‘인재영입’ 지위를 바로 반납함(언론보도됨)
- 2016년 <’15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 프로그램(성과)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문체부인지 진흥원 직원인지(진흥원 직원으로 추측함) 연락이 와서, “발표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번에 크게 입당을 하셔서 이번에 발표를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여 연구원을 대신 발표자로 보냄
- 그 이후 공모사업에 지원했으나 선정되지 않았음(그동안 공모에서 잘 탈락하지 않았음)

12) 2018. 2. 7.자 이OO 진술조서 4-5면

13) 진흥원 기획협력실 2018. 2. 20.자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Tf)」 조사신청 건

- 지나고 보니 이게 블랙리스트였나 싶어, 확인하고자 조사신청함.

위 조사신청에 따라 진흥원 TF는 위 사업 담당자였던 진흥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위원회는 진흥원 TF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위 사업 담당 문체부 주무관에 대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다.

2. 2016년 4개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과정

가.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예술강사 선발

(1) 블랙리스트 기재 사실 및 사업 경과

(가) 문체부 예술정책과「리스트-」16.9.27.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오OO에 대한 2017. 10. 15.자 제2회 참고인진술조서, 참고인 오OO의 진술(2018. 2. 7.)

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오OO은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예술국 소관사업, 문체부 내 타 실·국 사업 및 각종 위원회 인사 등에서 배제되어야 할 명단을 사업별로 정리해「리스트-」16.9.27.현재」문건을 작성하였고, 오OO이 진출된 이후 후임자인 C 사무관이 이를 계속 업데이트 하였다. 위 문건에서 ‘K’는 국정원, ‘B’는 청와대를 의미한다.¹⁴⁾

위 문건 중 “사회예술강사(복지기관)사업” 부분에는 “○K-1인원과다로 확인불가(1월초)”, “○B 송부(면접자 721명/1.21) → 자체확인 및 12명 제외조치 완료 보고(B/2.3)” 등 내용이 기재돼 있다.

[그림-1]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9.27.현재」 2쪽 “사회예술강사(복지기관)사업” 부분

사회예술강사(복지기관) 선발 ('15.12월중순)	○K-1인원과다로 확인불가(1월초)
○B 송부(면접자 721명/1.21) → 자체확인 및 12명 제외조치 완료 보고(B/ 2.3)	

서울중앙지검의 오OO에 대한 2017. 10. 15.자 제2회 참고인진술조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오OO이 위 문건 기재부분과 관련하여, “복지기관에 파견할 사회예술강사들을 선발하는 사업인데 제가 2015. 12.중순경 신청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주었는데 당시 신청자 수가 5,000여명이나 되다 보니 국정원에서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확인을 해줄 수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 10. 10. 「오OO 1회 진술조서」 40~43쪽.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신청자 중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배제대상자 회신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고(서울중앙지검의 오OO에 대한 2017. 10. 15.자 제2회 참고인진술조서 19면), 참고인 오OO은 2018. 2. 7. 조사위 조사에서, “(중략) 청와대에 명단 송부 시점이 1. 21.이고, 보고가 2. 3.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8. 2. 7.자 오OO 진술조서 45면).

(나) 진흥원 2015. 12. 31. 시행 사회교육팀-3916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접수결과 및 선발심사 추진 계획 보고’ 내부결재 문건, 진흥원 2016. 1. 15. 시행 사회교육팀-92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내부결재 문건, 진흥원 교육운영2팀 2016. 2. 15.자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면접심사 및 최종 선발결과 보고’

진흥원 2015. 12. 31. 시행 사회교육팀-3916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접수결과 및 선발심사 추진 계획 보고’ 내부결재 문건, 진흥원 2016. 1. 15. 시행 사회교육팀-92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내부결재 문건, 진흥원 교육운영2팀 2016. 2. 15.자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면접심사 및 최종 선발결과 보고’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사업 예술강사 접수(2015. 12. 2.~12. 6.) 결과 총 1,357명이 지원한 사실, 서류심사(2016. 1. 4.~1. 7.) 결과 총 721명¹⁵⁾이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면접심사(2016. 1. 22.~2. 3.) 결과 총 500명이 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진흥원 관련자 진술

(가) 참고인 OOO의 진술(2018. 2. 1. 등)

참고인 OOO는 사건 당시 진흥원 사회교육팀 직원으로 위 사업 예술강사 선발 관련 실무를 담당한 자이다. 참고인 OOO가 진흥원 TF에 제출한 2018. 2. 1.자 진술서 2018. 4. 9.자 진술확인서에 의하면, 참고인 OOO가 위 사업 관련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15) 리스트 기재 ‘면접자’ 721명과 일치

- 2015. 12. 15. 이OO 사회교육팀 팀장으로부터 예술강사 선발지원자 전체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리스트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위 데이터 양식은 기존의 진흥원 데이터 양식과는 다른 양식이어서 의아했다. 문체부가 진행사업의 접수리스트를 요청한 것은 3년 간 이 사업을 진행하며 처음 있는 일이었다(2018. 2. 1. 자 000 진술서 1면, 위 진술서 4면 [붙임 1] 문건, 2018. 4. 9. 자 000 진술확인서).
 - 김OO 교육인력지원본부장은 위 사업 노인연극분야 면접심사(16. 1. 29.) 며칠 전 자신에게 노인연극분야 특정 6명(김OO, 김OO, 박OO, 정OO, 김OO, 권OO)의 강사리스트와 해당 분야 심사 시 문체부가 참석한다는 내용을 공유하였다. 김OO 본부장은 위 6명 리스트를 주며 무엇인지 모르겠으니 기본 정보를 살펴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6명의 기본정보 및 구글 등 자료를 검색한 결과 시국선언을 한 연극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김OO 본부장에게 공유하였다(위 진술서 2면, 위 진술서 5-14면 [붙임 2] 문건, 위 진술확인서).
 - 본인은 김OO 본부장에게 “문체부가 노인연극분야 심사에 참여할 경우 문제제기 하겠다”고 하였고, 김OO 본부장 또한 원칙대로 심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노인연극분야 심사 몇 시간 전 문체부가 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심사는 원칙대로 진행, 완료되었다(위 진술서 2면).
 - 한편, 2016. 2. 3.경 이OO 팀장은 문체부 요청이라면서, 문체부가 송부했던 위 특정 강사 6인 중 최종합격한 3인의 합격사유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혹여나 선정된 강사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재빨리 선정사유를 작성해 송부하였고, 해당 강사들 선발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였다(위 진술서 3면, 위 진술서 15-16면 [붙임 3] 문건, 위 진술확인서).
- 위 사업 심사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적용이 행해진 사실은 없다(위 진술서 3면).

(나) 참고인 이OO의 진술(2018. 1. 30. 등)

참고인 이OO은 당시 위 사업 담당 사회교육팀 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2018. 1. 30.자 진술

참고인 이OO이 진흥원 TF에 제출한 2018. 1. 30.자 진술서에 의하면, 참고인 이OO이 위 사업 관련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위 사업 관련 문체부에 보낸 자료 및 업무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2018. 1. 30.자

- 이OO 진술서 1-2면).
- ('16. 6. 8.) 예술강사 지원자 접수현황(1,357명) 문체부 송부
 - ('16. 1. 4.~7.) 접수대상 서류심사
 - ('16. 1. 20.) 서류심사 결과(721명) 문체부 송부
 - ('16. 1. 21.) 면접심사 계획 문체부 송부
- 문체부 담당자인 OOO 주무관 요청에 따라 접수현황 및 서류심사 결과를 문체부에 송부하였다. 위 지원현황 등 요청 및 송부는 문체부와 사업추진과정 중 자주 진행된 업무로 특이점은 없었다(위 진술서 2면).
- 그러나 서류심사(2016. 1. 7. 종료) 이후, OOO 주무관으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결과 발표 보류요청이 있었다. ① 심사 결과에 대한 문체부 검토는 과거 진행되지 않았던 절차였고, ② 외부 심사위원을 통해 공정한 절차로 진행된 결과를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문체부가 검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위 진술서 2면).
- 이에 해당 건에 대해 상급자인 노OO 예술협력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였고, 주성혜 원장에게도 해당내용이 보고되었다. 그 결과 문체부 검토 및 회신과 상관없이 서류심사 결과발표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익일 경 문체부로부터 당초 일정대로 발표 및 서류심사 등 후속 업무추진을 승인하는 연락을 받았다(위 진술서 2면).
- 해당 업무가 교육운영2팀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문체부로부터 특정강사 3인에 대한 합격사유를 송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문체부의 불공정한 개입이 우려되어 해당강사들의 합격사유와 함께 합격당위성을 강조하는 답변을 송부한 바 있다(위 진술서 2-3면).
- 위 사업 관련 리스트에 기재된 '자체확인 및 12명 제외조치' 등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적어도 진흥원이 '제외조치'에 해당하는 지시를 문체부로부터 받았거나 이 같은 조치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위 진술서 3면).

2) 2018. 2. 27.자 진술

참고인 이OO은 2018. 2. 27. 진흥원 TF 조사에서, 2015. 12. 15. OOO에게 예술강사 지원자 리스트를 요청해 12. 17. 이를 문체부에 송부했으며, 이와 같은 접수현황은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 2. 27.자 이OO 진술조서 3-4면). 또 서류심사 후 OOO 주무관의 심사결과 발표 보류요청 관련, "(중략) 심사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본부장에게 보고할 때 문체부의 검증절차가

진행된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중략) 000에게 보류에 대한 시기를 물어보니 검토를 해야 하는 대상자가 많으니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등의 진술을 하였다(위 진술조서 5면).

참고인 이00은 이후 2016. 2. 1. 혹은 2. 2.경, 000 주무관으로부터 위 사업 노인연극분야 3인에 대한 선정사유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면서, “(중략) 000 대리에게 특정강사 3인에 대한 합격사유를 요청하여 받고 난 후 바로 문체부로 메일을 보냈습니다(중략)”라고 진술하였고(위 진술조서 6면), 김00 교육인력지원본부장에게 문체부로부터 특정대상자들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하면서(위 진술조서 5면), 본인은 위 강사들이 시국선언 연극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7면).

참고인 이00은 블랙리스트 작동과 결과적으로 보면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도저히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중략) 심사위원을 선발하여 공정하게 진행한 결과들을 간섭하려는 점에 대하여 부당함을 호소하였을 뿐 이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중략) 블랙리스트를 인식하진 못했지만 특정인을 배제하려고 하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당시에 선정 대상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메일을 작성해서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등의 진술을 하였다(위 진술조서 7-8면).

(다) 참고인 노00의 진술(2018. 1. 19.)

참고인 노00은 당시 예술협력사업본부장으로, 2016. 1. 20. 조직개편 이전까지 위 사업을 총괄한 자이다.

참고인 노00은 2018. 1. 19. 조사위 조사에서, 2015. 9.~11. 감사원 감사결과 기존 예술강사 중 자격요건 미달자 적발에 따른 지적 및 시정요청이 있었고 이에 2015. 11. 27. 기존 강사까지 포함한 선발·심사체제로 전면 재심사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8. 1. 19.자 진술조서 3-4면).

노00은 “변경된 계획에 따라 공모를 내고 서류심사를 2016. 1. 4.~7. 진행하였고, 이때 문화부에서 저희가 1차 서류심사한 결과를 요청(문체부 000 주무관)하였습니다. 명단을 송부하는 것 자체는 문화부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보고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략) 문화부가 이례적으로 바로 승인해주지 않고 승인을 늦추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이00 팀장이 저를 찾아와서, 문화부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

니 문화부에서 유선 상으로 '검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고, 이OO 팀장은 제게 양심상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만 두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OO 팀장 이야기를 듣고 바로 주성혜 원장님께 보고 드렸고, 원장님이 문체부 서OO 과장님께 직접 전화하여 화를 내면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결과공지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자체 판단 하에 문화부의 미승인 상태로 1. 15. 일단 서류심사 결과공지를 하였습니다. 그 뒤 통상적 진행사항에 따라 면접심사를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문화부의 다른 개입은 없었고, 면접은 절차대로 1. 22.~2. 3. 진행되었습니다. (중략) 그 뒤 1. 20.자 조직개편으로 위 사업 소관이 교육운영 2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후의 합격자 선정 등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5-6면).

(라)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2. 1. 등)

참고인 김OO은 2016. 1. 21.부터 교육인력지원본부장으로 발령받은 뒤 해당사업을 총괄한 자이다. 참고인 김OO이 진흥원 TF에 제출한 2018. 2. 1.자 진술서 2018. 4. 12.자 진술확인서에 의하면, 참고인 김OO이 위 사업 관련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교육인력지원본부장 발령 얼마 후 이OO 사회교육팀장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으며 문체부가 송부한 6명 특정강사 리스트를 보여주었다. 이에 본인은 OOO 대리에게 6명의 공통점을 찾아달라고 했고, OOO 대리는 해당 예술강사들이 시국선언 명단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알려주었다. 이를 이OO 팀장에게는 공유하지 않았다(2016. 2. 1.자 김OO 진술서 1-2면, 2018. 4. 12.자 김OO 진술확인서).
- OOO 대리는 자신에게 “만약 문체부가 심사에 들어와서 위 명단의 사람들을 뽑거나 탈락시켜야 한다고 한다면 언론화 시키겠다”고 하였고, 본인 또한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심시기준에 따라 진행할 것을 OOO 대리에게 지시하였다(위 진술서 2면, 위 진술확인서).
- 당시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 OOO 주무관이 면접에 참관하겠다고 했고, 문체부가 단체공모 외에는 면접에 참관한 사실이 없어 의아했다. 그러나 실제 면접에 문체부 담당자가 참관하지는 않았고, 문체부로부터 특정단체 배제 등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의구심만으로 블랙리스트 작동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다(위 진술서 2면, 위 진술확인서).

- 예술강사 선정 뒤 000 대리가 이00 팀장으로부터 3명의 예술강사 선발 사유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메일로 전달하였다(위 진술서 2면).

(마) 참고인 000의 진술(2018. 2. 1. 등)

참고인 000는 위 사업 당시 사회교육팀 직원으로 해당사업 실무를 담당하였다. 참고인 000가 진흥원 TF에 제출한 2018. 2. 1.자 진술서 및 2018. 4. 9.자 진술확인서에 의하면, 참고인 000가 위 사업 관련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2016년 예술강사 선발준비 이전,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실지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원이 활동 예술강사 중 자격요건 미달자를 적발하고 예술강사 자격에 대한 확인 및 조치 등 시정요청함에 따라 진흥원은 2016년 예술강사 선발체계를 전면 변경하였다(2018. 2. 1.자 000 진술서 1면, 2018. 4. 9.자 000 진술확인서).
- 서류 및 면접심사 모두 특정인물을 거론하며 선발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 전면 재심사에 대한 의문점은 없었고,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다. 2012년까지는 평가를 통해 하위 10% 대상자들에 대한 재면접 제도가 있었다(위 진술서 2면, 위 진술확인서).

(바) 참고인 000의 진술(2018. 2. 1. 등)

참고인 000는 위 사업 당시 사회교육팀 직원으로 복지기관 선정 및 예술강사 선발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참고인 000가 진흥원 TF에 제출한 2018. 2. 1.자 진술서 및 2018. 4. 12.자 진술확인서에 의하면, 참고인 000가 위 사업 관련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2015년 감사원 실지감사(15. 10. 6.~11. 6.)등으로 사업 일정이 계속 지연되어 복지시설 심사는 12월, 예술강사 서류·면접심사는 1월에 진행되었다. 당시 감사결과 시정요청에 따라 기존/신규 지원자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하는 '전면 재심사' 형태로 선발체계가 변경¹⁶⁾되었다(2018. 2. 1.자 000 진술서 2면).
- 면접 대상자 발표 후 2016. 1. 20. 이00 팀장에게 서류합격자 721명을 메일로 송

16) 2015.까지 기존 참여강사는 신청하면 자연 선발되고 남은 TO에 한해 신규 예술강사 지원자의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2018. 2. 1.자 000 진술서 2면).

부하였고, 이 같은 인원현황 등은 일상적인 공유로, 관련하여 별도 내용을 들은 바는 없다(위 진술서 3면).

(2) 문체부 관련자 진술

(가) 참고인 오OO의 진술(2018. 2. 7.)

참고인 오OO은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및 서기관으로 근무한 자로, 문체부 「리스트-’16. 9. 27. 현재」등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관리·공유 등을 수행했던 자이다.

참고인 오OO은 2018. 2. 7. 조사위 조사에서, 본인이 작성한 「리스트-’16. 9. 27. 현재」 문건 기재 내용 등 진흥원의 블랙리스트 사안과 관련해서는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 서OO 과장, 강OO 과장, 조OO 서기관, 김OO 사무관, OOO 주무관 등 리스트 기재 사업 담당자들 거의 모두와 공유가 되었고, 주로 OOO 주무관 및 강OO 과장과 공유했다고 진술하였다(2018. 2. 7.자 오OO 진술조서 44면).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예술강사 선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 사업에 관해 교육과(서OO 과장이나 OOO 주무관)로 청와대에서 강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신청자가 5,000명이나 되니 1차 면접을 일단 진행하였고, 그 뒤 면접자가 721명 선정됐습니다. 그 중 한국일보 9,000여명 명단을 보고 배제될 대상을 OOO 주무관이 확인하였고 형식상 이를 이행했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배제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44-45면).

(나) 참고인 OOO의 진술(2018. 4. 22.)

참고인 OOO은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 주무관으로 진흥원 사업 지도·감독 및 실무 등을 수행한 자이다.

1) 전반적 블랙리스트 작동 프로세스 관련

참고인 OOO은 2018. 4. 22. 조사위 조사에서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에서의 전반적인 블랙리스트 작동 방식과 관련하여, “(중략) 2015년 하반기 정도부터 블랙리스트 작동에 관한 압박이 심해졌고 저희도 직접 수행해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당시 다른과는 이미 블랙리스트 작동이 일상화된 시기였고, (중략) 그러나 저희 과 쪽은 블랙리스트 작동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일단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에게 문의를 드렸었고, 사업 지원자

명단을 송부 드리는 방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오OO 서기관이 해당사업에서 지원배제 명단을 하달해주시면 저희가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예술국에서는 오OO 서기관이 블랙리스트 사안의 통로라는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졌던 시기였습니다. 2015년 12월경 2016년 복지기관 예술강사 전체 신청자 명단을 진흥원 쪽에서 받아서 오OO 서기관님에게 전달 드렸던 것이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8. 4. 22.자 OOO 진술조서 3-4면).

2) ‘2016년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예술강사 모집)’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참고인 OOO은 위 사업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2015년 말경 위 사업의 지원신청자 명단을 오OO 서기관에게 송부했었습니다. (중략) 이후 서류면접자 명단을 보낸 뒤 송부한 명단이 어떻게 됐는지 오OO 서기관께 문의 드리니, 오OO 서기관이 이 사업의 경우 지원자가 1,300명 이상으로 대상 자체가 너무 많아서 ‘못한다, 안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오OO 서기관이 한국일보 보도 9,473명 명단이 기재된 두꺼운 A4용지 문서자료를 주셨고, 결국 연극분야 배제명단만 체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연극분야 배제리스트를 체크한 사람들이 리스트에 기재된 12인이었는데, 그 12인이 정말 문제된 사람들인지 확인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해서 일단은 면접을 진행한 뒤 그 중에 합격자와 떨어진 사람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4-5면).

OOO은 서류심사 후 진흥원 측에 결과발표를 보류하라고 했고, 특정강사 6인의 명단을 진흥원 이OO 사회교육팀장에게 전달했다고 하면서, “(중략) 위 사람들이 문제되는 사람들로 나왔다는 취지로 전달했던 것 같고, 그러나 당시 면접심사가 워낙 앞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서OO 과장님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일단은 면접을 진행하였고, 이후 그 중 3명이 떨어지고 3명은 합격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6면). 진흥원에 위 6인에 대해 직접적 배제 지시를 한 적은 없으며, 최종 탈락한 3인은 심사과정에서 떨어진 것이고 문체부는 결과를 전달받아 보고만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선정된 3인의 합격사유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7면). 또 “진흥원 쪽에 그 사람들을 빼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리스트에 기재된 ‘자체확인’이라는 것은 저희 교육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명단을 확인했고, 교육과 내에서 12명 제외조치를 자체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오OO 서기관님이 보고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6면).

한편 000은 2016년부터 위 사업 기존 강사들의 전면 재심사가 진행된 경위에 대해 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업의 예술강사 노조 문제 관련해서는 문체부 차원에서 따로 대응을 한 부분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7-8면).

(3) 기타 관련자 진술

(가) 참고인 000의 조사요청서 및 진술(2018. 2. 3.자 진술청취)

참고인 000은 전국예술강사 노조 위원장으로, 진흥원 TF에 제출한 조사요청서 및 진술과정에서 다음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 복지기관 예술강사는 최초 1회 시험 이후 계약 갱신되는 사업이었는데, 2016년 전면 재시험이 도입되어 기존강사 36%가 탈락하였다. 부당하게 탈락하였다고 생각하는 복지기관 예술강사는 김00, 성00(2016년), 고00(2016년), 김00(2017년, 2018년), 황00(2017년), 박00(2017년), 곽00(2017년)이며 진흥원에 전화와 면담을 통해 심사점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진흥원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이 임금체불신고 또는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으로 판단되며, 면접심사위원들이 ‘왜 이렇게 예술강사를 오래 하고 있냐?’, ‘후배들에게 물려줄 생각은 없냐?’는 등의 질문을 많이 하여, 경력 강사를 내쫓기 위한 면접이었다는 논란이 많았다.

나.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공모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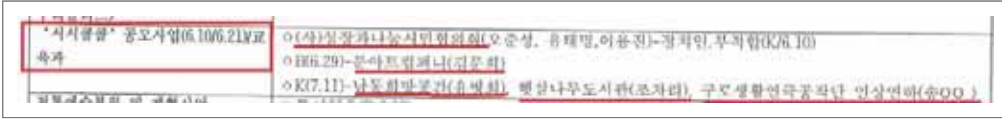
(1) 블랙리스트 기재 사실 및 사업 경과

(가)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9.27.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9.27.현재」중 “‘시시콜콜’ 공모사업’ 부분에 의하면 청와대(B) 및 국정원(K)의 ‘(사)성장과나눔시민협의회’ 등 5개 단체 배제지시¹⁷⁾ 관련 기재가 확인된다.

17) 진흥원 사회교육팀 2016. 6. 14.자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신규지원 공모 서류심사 추진 결과’, 2016. 7. 6.자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신규지원 공모 인터뷰심사 추진 결과’ 등 각 문건에 의하면, 위 5개 단체 중 1개 단체(‘구로생활연극공작단 연상연하(송00)’)를 제외한 4개 단체가 면접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림-2]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9.27.현재」 6쪽 “시시콜콜’ 공모사업” 부분



(나) 진흥원 사회교육팀 2016. 6. 14.자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신규지원 공모 서류심사 추진 결과’, 진흥원 사회교육팀 2016. 7. 6.자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신규지원 공모 인터뷰심사 추진 결과’

진흥원 사회교육팀 2016. 6. 14.자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신규지원 공모 서류심사 추진 결과’, 진흥원 사회교육팀 2016. 7. 6.자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신규지원 공모 인터뷰심사 추진 결과’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사업 인터뷰 심사 대상에 오른 총 43개 단체 중 위 리스트 기재 5개 단체가 포함된 사실, 인터뷰 심사 결과 위 5개 단체 중 1개 단체(‘구로생활연극공작단 연상연하(송OO)’)를 제외한 4개 단체가 최종 탈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3]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공모사업 리스트 기재 5개 단체의 선정 경과

- 2016. 6. 16. 서류심사 결과공고- 총 240개 단체 중 43개 단체 선정
: 리스트 기재 **5단체 포함**

- ‘성장기’(19개 단체 선정)			- ‘시작기’(24개 단체 선정)		
연번	사업지역	단체명	연번	사업지역	단체명
10	경남	문아트컴퍼니(주)	17	부산	햇살나무도서관
11	인천	남동희망공간	19	서울	구로생활연극공작단 연상연하
15	광주	사단법인 성장과나눔시민협의회			

- 2016. 6. 16. 인터뷰 심사 최종 선정 결과공고- 총 43개 단체 중 21개 단체 선정
: 리스트 기재 **4단체 탈락**

- ‘성장기’(9개 단체 선정)			- ‘시작기’(12개 단체 선정)		
연번	사업지역	단체명	연번	사업지역	단체명
10	경남	문아트컴퍼니(주)	17	부산	햇살나무도서관
11	인천	남동희망공간			
15	광주	사단법인 성장과나눔시민협의회			

(다) 진흥원 사회교육팀 2016. 7. 6.자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신규지원 공모 인터뷰 심사 추진결과’

진흥원 사회교육팀 2016. 7. 6.자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신규지원 공모 인터뷰 심사 추진결과’ 문건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사업 ‘신규지원’ 공모 면접심사 일정이 2016. 6. 30.~7. 1.이었던 사실, 위 면접심사 심사위원으로 000, 문체부 000 주무관, 진흥원 노00 본부장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4] 진흥원 사회교육팀 2016. 7. 6.자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신규지원 공모 인터뷰 심사 추진결과’ 1면

□ 심사개요

○ 심사일정/심사대상/심사위원

일시	장소	심사대상	심사위원
2016. 6. 30(목) 10:00~18:30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소회의실	(시작기) 총 24개 단체	000, 000, 000, 000 문화체육관광부 000 주무관 교육진흥원 예술협력사업본부 노00 본부장(총 6인)
2016. 7. 1(금) 10:00~17:30	우리원 12층 R3	(성장기) 총 19개 단체	000, 000, 000, 000 문화체육관광부 000 주무관, 교육진흥원 예술협력사업본부 노00 본부장(총 6인)

(라) 진흥원 ‘2016 시민 신규지원 인터뷰심사 세부결과’

진흥원 ‘2016 시민 신규지원 인터뷰심사 세부결과’ 문건에 의하면, 문체부 「리스트-’16.9.27.현재」 기재 5개 단체((사)성장과나눔시민협의회, 문아트컴퍼니, 남동희망공간, 햇살나무도서관, 구로생활연극공작단 연상연하)에 대한 심사위원별 심사 세부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5] 진흥원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신규지원 인터뷰 심사결과(시작기)’

단체명	선정결과	000	000	000	000	000	000
햇살나무도서관	비선정	C	C	B	B	C	C
구로생활연극공작단 연상연하	선정	B	B	A	C	C	A

[그림-6] 진흥원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신규지원 인터뷰 심사결과(성장기)'

단체명	선정결과	OOO	OOO	OOO	OOO	OOO	OOO
(사)성장과나눔시민협의회	비선정	C	C	C	C	C	C
문아트컨퍼니	비선정	B	C	B	C	C	C
남동희망공간	비선정	C	C	C	B	B	C

(2) 진흥원 관련자 진술**(가) 참고인 OOO의 진술(2018. 2. 1. 등)**

참고인 OOO는 당시 사회교육팀 직원으로, 위 사업 실무를 담당한 자이다. 참고인 OOO가 진흥원 TF에 제출한 2018. 2. 1.자 진술서 및 2018. 4. 9.자 진술확인서에 의하면, 참고인 OOO가 위 사업 관련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위 사업 문체부 담당자는 OOO 주무관이었으며, 자료요청과 지시사항들이 많아 문체부 관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였다. 당시에는 이러한 관여들이 본 사업의 폐지를 유도하거나, 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추측하였을 뿐, 전달받은 지시사항 중 특정 단체가 언급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의 존재 및 작동 여부를 의심하지 않았다(2018. 2. 1.자 OOO 진술서 2면).
- 다만, 2016년 심사과정 중 전달 받은 문체부 지시사항 중 일부(사업 현황 자료에 대한 잦은 요청, 선정단체 목록에 대표자의 생년월일 작성 요청, 갑작스러운 심사일정 변경 요청, 심사 1일 전 문체부가 섭외한 심사위원 참여 통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실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이OO 팀장에게 사유를 물었으나 문체부 지시사항이라는 것 외에는 명확한 근거를 알지 못한 채 지시사항을 수행해야 했다(위 진술서 2면).
- 특히, 2015년과 다르게 문체부 담당자인 OOO 주무관과 OOO이 추천한 심사위원이 심사참여를 급하게 결정·통보하여 참여하였는데, OOO 심사위원의 경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다. 심사일정의 근거 없는 변경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납득하기 어려워했으며, 일부 심사위원(송OO)의 경우 2차 인터뷰 심사 2일차 심사에 불참하기도 하였다(위 진술서 2면, 2018. 4. 9.자 OOO 진술확인서).
- 그러나 리스트 기재 5개 단체는 타 단체들과 동등한 환경과 조건에서 인터뷰 심사에 참여했고, OOO 주무관이나 OOO 심사위원이 해당단체 배제 목적의 언급 등을 한 기억이나 기록은 없다(위 진술서 2면).

(나) 참고인 이OO의 진술(2018. 1. 30. 등)

참고인 이OO은 위 사업 담당 사회교육팀 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2018. 1. 30.자 진술

참고인 이OO이 진흥원 TF에 제출한 2018. 1. 30.자 진술서에 의하면, 참고인 이OO이 위 사업 관련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위 사업 관련 업무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2018. 1. 30.자 이OO 진술서 4면).
 - ('16. 6. 8.) 공모신청 240개 단체 대상 심사 추진
 - ('16. 6. 16.) 면접대상 43개 단체 선정
 - ('16. 6. 20.) 서류심사 결과 문체부 요청 및 송부
 - ('16. 6. 30.~7. 1.) 43개 단체 대상 면접심사 추진
 - ('16. 7. 8.) 최종 21개 단체 선정
- 당시에는 '블랙리스트'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심사과정에서 특정단체를 배제하려는 의도나 시도는 없었다(위 진술서 4면).
- 위 사업 심사위원들은 3년째 해당사업의 전문가로 활동하시던 분들로 구성되었고 과거와 유사한 형태로 심사가 진행됐는데, 다만 특이사항으로는 이전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OOO 주무관과 OOO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OOO의 경우 문체부에서 해당사업 심사위원으로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위 진술서 5면).

2) 2018. 2. 27.자 진술

참고인 이OO은 2018. 2. 27. 진흥원 TF 조사에서, 문체부에서 위 사업 인터뷰심사 참여의사를 밝히며 OOO과 함께 참여하겠다고 하였고, 이전까지 문체부가 외부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경우는 없었다고 하면서, “문체부가 싫어하던 사업이라, 사업에 대한 개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8. 2. 27.자 진술조서 9면). 또 위 사업 면접일정이 2016. 6. 22.~6. 23.로 예정되었으나 문체부의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 통지로 인해 6. 30~7. 1.로 변경되었는데, 당시 기억으로는 문체부의 외부 심사위원 섭외 과정에서 일정이 미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9면).

참고인 이OO은 OOO 및 OOO 주무관의 심사참여와 관련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분명 떨어져 있었습니다. OOO의 자세도 참가자들의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는 흐트러진

자세였으며, 고압적인 태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심사 방향을 이끌어가거나 심사의 과정과 결과를 주도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 단체별로 심사평가를 주는데, 000 주무관이 의견들을 주었고,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등의 진술을 하였다(위 진술조서 10-11면).

(다) 참고인 노00의 진술(2018. 1. 19.)

참고인 노00은 당시 예술협력사업본부장으로 위 사업을 총괄한 자이다.

참고인 노00은 2018. 1. 19. 조사위 조사에서, “당시 위 사업에서, 000 외에 인터뷰 심사위원 5인은 지속적으로 진흥원 사업에 자문 및 컨설팅을 담당하던 전문가들이었고, 000 씨는 문화부의 추천으로 인터뷰 심사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2014, 2015년까지는 심사과정에 문화부가 개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2016년 처음으로 문화부에서 심사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000 문화예술교육과 주무관이 참여하였고, 이에 따라 저도 진흥원 내부 심사위원으로 2016년 심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문화부의 참여도 이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라고 하면서(2018. 1. 19.자 노00 진술조서 7면), “다만 제가 심사과정에서 실제 겪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중략) 리스트 기재된 5개 단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고, 000 주무관과 000만 검토의견에 아무 의견을 적지 않은 것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상, 당시 실제 심사과정에서 겪었던 문화부의 어떤 개입이나 배제지시 등도 없었고, 특히 000 주무관과 000 외에 기존 전문가 풀에 계셨던 심사위원분들은 정치적 색깔도 정부에 배치되는 분들이셨기에 심사과정에서 실제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8면).

(3) 해당사업 심사위원 진술

(가) 참고인 이00의 진술(2018. 2. 7.)

참고인 이00은 해당사업 ‘신규지원’ 부문 서류 및 면접심사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이다.

이00은 2018. 2. 7. 조사위 조사에서, “(중략) 서류심사에서는 저와 송00 선생 등 주로 위 사업 자문 및 컨설팅트단이 참여했는데, 면접심사에서는 갑자기 문체부 주무관과

OOO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굉장히 고압적인 심사태도를 보였습니다. 지원단체들에게 ‘시민문화예술이 뭐냐’ 라면서 사업의 기본정의에 대해 묻는 등 대단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문체부 주무관이 심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제 경험상에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의아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뿐 나머지 심사위원들이 워크숍할 때 선정단체들에게 심사 당시의 분위기나 불쾌함에 대해 사과를 한 기억도 있습니다” 등의 진술을 하였다(2018. 2. 7.자 이OO 진술조서 4면).

위 사업 면접심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문체부 주무관 등이 특별하게 각을 세워 심사위원들이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일은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위 진술조서 6면), “서류심사를 하고 나서도 그 서류심사 결과를 엑셀로 총정리한 뒤, 심사위원들이 그 결과를 보면서 제안서를 다시 확인하고 난 뒤 최종 결과를 선정하는 최종 협의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위 사업의 취지와 단체의 적합성을 논의하는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사는 충실히 이뤄졌다고 봅니다”(위 진술조서 7면), “(중략) 다만 단체 자체에 대해 의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문체부 주무관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점에서 담당 문체부 주무관이 심사과정에 참여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고 불쾌한 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위 진술조서 6면) 등의 진술을 하였다.

(나) 참고인 송OO의 진술(2018. 2. 14.)

참고인 송OO은 해당사업 ‘신규지원’ 부문 서류 및 면접심사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이다.

송OO이 조사위에 제출한 2018. 2. 14.자 진술서에 의하면 송OO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OOO 관련, “단체 모두에게 본 사업에 부정적 이미지를 들어내는 질문들이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시민문화 성장에 대한 지식, 경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질문이 많았고, 시종 화를 내거나 심사와 상관없는 질문들로 단체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OOO 주무관 관련해서는 “OOO 주무관은 면접에 직접적인 질문은 피하는 눈치였고, 노OO 본부장도 단체들과의 질문은 피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서류심사 결과를 논의 하는 과정에서는 특별 단체에 대한 의견은 주셨지만, 대체적으로 신규 단체들의 특성상 준비가 부족한 경우도 많았고, 단체의 성향보다는 기획의 의도와 내용을 확인하는 지점에서 의견들은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

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서 6면).

리스트 기재 5개 단체 배제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5개 단체의 리스트나 구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중 햇살나무도서관은 제 개인적으로는 점수가 B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종합 논의 중 다수의 의견으로 C로 변경했었습니다. 그 외 구체적으로 탈락 사유에 문제가 있어 문제 제기된 단체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습니다(중략)”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서 7면).

(4) 문체부 관련자 진술

(가) 참고인 000 진술(2018. 4. 26.)

참고인 000은 2018. 4. 26. 조사위 조사에서 위 사업과 관련해, “블랙리스트 작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단체가 많지 않기도 하고 해서, 지원자 명단을 오OO 서기관님 혹은 C 사무관님에게 드렸었고 위 5개 단체를 체크한 답신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강OO 과장님이 (중략) 위 배제지시를 직접적으로 진흥원에 전달하기는 어려우니 저보고 직접 위 사업 심사에 들어가라고 하셔서 제가 직접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000도 강OO 과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하셔서 문체부 추천으로 같이 심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2018. 4. 26.자 000 진술조서 8-9면), 하필 000이 참여한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 “정부에 우호적인, 성향이 맞고 부탁이 수월한 그런 사람을 찾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9면).

당시 강OO 과장이 본인에게 심사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라는 등 명확한 지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배제지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심사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그 취지를 이해했다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9면).

한편 리스트 기재 5개 단체 중 최종 선정된 ‘구로생활공작단 연상연하’의 경우, 참고인 오OO 후임으로 블랙리스트 명단을 관리했던 C 사무관으로부터 배제통보가 다소 뒤늦게 와 별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진술조서 10면), 나머지 4개 단체의 경우 블랙리스트 작동에 따라 배제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위 사업의 경우 자연스럽게 심사과정에서 (중략) 다소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어서 별도로 그런(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하면서도,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블랙리스트 배제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고, 심사과정에서 위 단체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저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조치를 취해 결과적으로

탈락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중략)”이라고 하며, 블랙리스트 배제 작동이 행해졌다고 봐야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9-10면).

OOO은 리스트 기재 5개 단체의 배제지시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10면).

한편 OOO은, 2015.에는 동일사업(‘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에서 위 리스트 기재 단체 중 ‘(사)성장나눔시민협의회’에 대해 반대로 국회의원의 선정 요청이 있었다고 하면서, “성장나눔시민협의회의 경우 의원실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내에서 논의를 하여 선정이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위 단체의 경우 2016년에 블랙리스트 단체로 지시가 내려와 탈락이 되어서 저희가 의원실에 탈락 사유를 설명하러 가기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진술조서 14-15면), 당시 위 단체 선정을 요청한 국회의원은 광주 지역구 의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2015년 위 단체 선정을 위해 추가공모를 추진했다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15면).

다. 2016 문화파출소 조성·운영사업

(1) 블랙리스트 기재 사실 및 사업 결과

(가) 문체부 예술정책과「리스트-’16.9.27.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9.27.현재」중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부분에 의하면, 청와대(B) 및 국정원(K)의 ‘군포문화재단’ 1개 단체(‘서강석’은 당시 ‘군포문화재단’의 예술진흥본부장으로 확인됨) 배제지시 관련 기재가 확인된다.

[그림-기]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9.27.현재」 2쪽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부분

문화파출소 운영사업(7.21)	○ 군포문화재단(군포시장 김운주)-(B/7.22) ○ K(8.22) - 서강석
------------------	---

(나)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7. 10. 30.자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7. 10. 30.자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문건은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사실을 조사한 국정원 적

폐청산 TF의 2017. 10. 30. 자 보고서로, 국정원이 2014. 2. 20. 문예기금 지원 사업에
 左성향 인물들이 포함된 것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 필요성을 청와대에 종합 보고하였고,
 2014. 3. 19.에는 「문예계내 左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보고서를 통해 문화예술계
 주요 左성향 문제단체 15개, 문제인물 249명을 열거·제시하며 이들을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으로서 문예기금 선정기관에 左성향 인물을 배제하는 방안과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을 통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방안 등을 청와대에 제시함으로써, 문
 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의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위 보고서는 국정원이 2014. 2.부터 2016. 9.까지 문체부로부터 약 8,500여 명의 인
 물검증 요청을 받아 당적, 정부비판·시국선언 참여, 국보법 위반 전력 등을 확인하는 등
 의 방법으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348명을 문체부에 ‘문제인물’로 선별·통보하
 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348명 중 확인된 181명의 명단을 첨부하였는데,
 그 중 ‘서강석’이 확인된다.

**[그림-8]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7. 10. 30.자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중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 부분**

69	서강석		문체부 자료
70	서영희	한복진흥센터 예술감독	院 보고서
71	서종훈	경기인형극진흥회	문체부 자료

(다) 진흥원 사회교육팀 2016. 8. 3.자 ‘2016 문화파출소 조성·운영사업 운영단체 공모
 심사 결과보고’

진흥원 사회교육팀 2016. 8. 3.자 ‘2106 문화파출소 조성·운영사업 운영단체 공모 심
 사 결과보고’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사업 1차 공모 면접대상자 총 14단체 중 리스트 기
 재 ‘균포문화재단’이 포함된 사실, 그러나 ‘균포문화재단’은 1차공모 최종 면접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9] 진흥원 사회교육팀 2016. 8. 3.자 '2016 문화파출소 조성·운영사업 운영단체 공모 심사 결과보고' 일부

- 2016. 7. 26. 1차 공모 면접대상자 공고- 면접대상자 총 14단체 확인

: 리스트 기재 '군포문화재단' 포함

연번	지역	단체명	면접시간
1	강원	(사)문화프로덕션 도모	13:30 ~ 13:45
2		주식회사 통통창의희망전소	13:45 ~ 14:00
3	충북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14:00 ~ 14:15
4		국단두력	14:15 ~ 14:30
5	제주	제주도중앙	14:30 ~ 14:45
6	울산	문화예술교육연구모임 도달	15:00 ~ 15:15
7		국악연구소 상철	15:15 ~ 15:30
8	대구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대구경북지부	15:30 ~ 15:45
9		(사)대구그랜드실포니오케스트라	15:45 ~ 16:00
10	경기	군포문화재단	16:00 ~ 16:15
11	서울	(사)한국건축가협회	16:30 ~ 16:45
12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에	16:45 ~ 17:00
13	전북	(사)하에탈역사문화연구원 서울지점	17:00 ~ 17:15
14		(사)하에탈역사문화연구원	17:15 ~ 17:30

- 2016. 8. 5. 1차 공모 최종선정 결과공고- 총 14개 단체 중 5개 단체 선정

: '군포문화재단' 탈락

□ 최종 선정결과 : 중 5개 단체

연번	지역	지원 시설명	단체명	비고
1	서울	신정5차안센터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에	최종선정
2			(사)하에탈역사문화 연구원 서울지점	
3	경기	신분치안센터	(사)한국건축가협회	
4			(재)군포문화재단 (군포시문화예술회과)	
5	강원	동면치안센터	주식회사 통통창의희망전소	최종선정
6			(사)문화프로덕션도모	
7	충북	사천지구대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최종선정
8			국단두력	
9	전북	읍말치안센터	(사)하에탈역사문화 연구원	
10			국악연구소 상철	
11	대구	도림치안센터	(사)대구그랜드실포니오케스트라	
12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대구경북지부	
13	울산	신성치안센터	문화예술교육연구모임 도달	최종선정
14			제주도중앙	

※ 5개 지역(서울, 강원, 충북, 울산, 제주) 의 3개 지역(경기, 전북, 대구)은 적격단체 없음

(2) 진흥원 관련자 진술

(가) 참고인 000의 진술(2018. 2. 1. 등)

참고인 000은 당시 사회교육팀 직원으로 위 사업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다.

참고인 000이 진흥원 TF에 제출한 2018. 2. 1.자 진술서 및 2018. 4. 9.자 진술확인서에 의하면 위 사업 관련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2016. 4.경부터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사업에 투입되었고, 위 사업 면접심사에 참

여해 회의록 작성 등 보조 업무를 하였다(2018. 2. 1.자 000 진술서 1면, 2018. 4. 9.자 000 진술확인서).

- 당시 리스트 기재 군포문화재단의 배제 이유 등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심의위원 간 운영단체 선정 논의 중 000 주무관이 “군포문화재단은 기존 ‘파출소가 돌아왔다’를 통해 문체부의 예산지원을 받았으므로 유사사업에 중복 지원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하였다. 000 주무관의 위 발언은 인터뷰가 끝나고 심사위원들끼리 남은 상황에서 한 발언이며, 심사과정에서의 논쟁은 없었다(위 진술서 1면, 위 진술확인서).

(나) 참고인 000의 진술(2018. 2. 1.자 진술서)

참고인 000은 당시 사회교육팀 직원으로 위 사업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다.

참고인 000이 진흥원 TF에 제출한 2018. 2. 1.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사업 관련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군포문화재단의 경우 2013.~2015. 문체부 지역전통문화과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파출소가 돌아왔다’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있었으나, 사업의 지속성 및 확정성이 미흡한 상태였다(2018. 2. 1.자 000 진술서 1면).
- 또한, 프로그램 기획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현장조사(지역 및 주민특성 현황) 내용이 충실하지 않았으며,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10회차 구성에 대한 내용도 전부 제시하지 않았다(위 진술서 1-2면).
-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문체부 000 주무관이 심사위원들과 위 내용에 대한 공유 후, 문화파출소는 3년 연속 지원이 끝난 후 자립 운영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 ‘파출소가 돌아왔다’의 지속운영 미흡성 및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를 제기하였고, 심사위원들 간 협의를 통해 군포문화재단을 최종선정에서 탈락 시켰다.

(다) 참고인 이00의 진술

1) 2018. 1. 30.자 진술

참고인 이00은 위 사업 담당 사회교육팀 팀장으로, 참고인 이00이 진흥원 TF에 제출한 2018. 1. 30.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사업 관련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당시 청와대의 ‘군포문화재단’ 배제지시 관련내용을 인식한 바 없고, 문체부의 별도

- 지시도 없었다(2018. 1. 30.자 이OO 진술서 6면).
- 특이사항으로 2016. 8. 1. 위 사업 면접심사에 문체부 000 주무관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 000 주무관은 심사과정에서 군포문화재단의 과거 문체부 유사사업 지원 이력을 언급하며 해당사업 선정이 문체부 입장에서 부담이 됨을 밝힌 바 있다. 군포문화재단의 해당사업 이해도가 높아 심사위원 중 일부는 지원이력과 무관하게 추가지원 의견을 제시했으나, 심사의원들 간 협의를 통해 최종 비선정 결정되었다. 당시 000 주무관의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위 유사사업 지원이력 등 언급이 배제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인식하지는 못했다(위 진술서 6-7면).
 - 군포문화재단 탈락 후 군포문화재단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와, 유사사업 지원이력으로 비선정되었음을 안내하였고, 이후 계획된 추가공모에서의 재지원을 권유(유사사업 지원 문제를 피하기 위해 타단체 협력구조로 지원을 유도함)하기도 하였다(위 진술서 7면).

2) 2018. 2. 27.자 진술

참고인 이OO은 2018. 2. 27. 진흥원 TF 조사에서, 000 주무관의 심사과정에서의 발언내용과 관련, “군포문화재단이 산본 파출소에 파출소가 돌아왔다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위 사업에 지원을 받게 되면 중복지원이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000 주무관의 위 같은 발언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2018. 2. 27.자 이OO 진술조서 12면).

또 심사 전 000 주무관이 먼저 전화로 본인에게 군포문화재단의 중복지원 문제를 이야기 한 적이 있고, 이에 본인이 중복지원 문제에 대해 공감하여, 본인도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군포문화재단의 선정이 어렵다는 언질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13면).

한편, 당시 군포문화재단에게 2차 재공모 시 단체명을 바꿔 재지원 하라고 권유하였는데, 군포문화재단을 무조건 탈락시킬 목적이었다면 재지원을 권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재공모 과정에서 군포문화재단 컨소시엄 단체로 지원한 ‘(사)해아라 경기지부’ 등의 경우 타 단체보다 심사점수가 낮아 탈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13-14면). 군포문화재단이 블랙리스트 단체인지 인지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군포문화재단이 블랙리스트 단체라면, 다른 사업에서도 지원이 배제되었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흥원의 다른 사업(오케스트라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15면).

(라) 참고인 노OO의 진술(2018. 1. 19.)

참고인 노OO은 당시 예술협력사업본부장으로 위 사업을 총괄한 자이다.

참고인 노OO은 2018. 1. 19. 조사위 조사에서, “당시 저는 위 사업 심사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중략) 인터뷰 심사 당일의 경위를 알아보니, 심사과정에서 OOO 주무관이 다른 심사위원들에 비해 군포문화재단에게 현격히 낮은 점수(43)를 준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략) 제가 당시 인터뷰 심사날의 심사표를 한번 분석해보니, OOO 주무관이 인터뷰 심사과정에서 군포문화재단의 사업 중복지원·수행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이OO 심사위원 등도 문제를 제기하긴 했습니다”,

“군포문화재단이 1차 공모에서 탈락한 후, 재공모가 진행될 때 서강석 본부장님이 저희를 찾아와, 제가 재공모 하시라고 안내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중략)”, “다만 저도 검색을 해보니, 군포문화재단의 경우 김윤주 이사장(현 군포시장)이 민주당, 국민의당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었고, 함께 군포문화재단에서 활동한 오종두 대표이사, 서강석 본부장이 유사한 정치적 성향과 관계로 묶이고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작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은 듭니다.(중략) 군포문화재단의 경우 저희 진흥원의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이라는 다른 사업에서 5년 연속으로 지원받으면서 저희 진흥원과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단체인데, 그 사업에서는 지원이 되고 위 사업에서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저희 진흥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의아한 기분입니다” 등의 진술을 하였다(2018. 1. 19.자 노OO 진술조서 9-10면).

(3) 해당사업 심사위원 및 피해자 등 진술**(가) 참고인 이OO의 진술(2018. 2. 7.)**

참고인 이OO은 위 사업 1차 및 2차 공모 각 서류 및 면접심사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이다.

참고인 이OO은 2018. 2. 7. 조사위 조사에서 위 사업 1차공모 면접심사 당시 군포문화재단의 ‘사업 중복성으로 인한 지원타당성 문제’를 제기한 경위와 관련하여, “사실은 군포문화재단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봤었습니다. (중략) 그런데 기억이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심사당일에 진흥원 측에서 군포문화재단이 진흥원의 다른 사업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에 따라 진흥원 측이 군포문화재단은 선

정이 어렵다는 언질을 먼저 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언질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전반적으로 낮게 주게 됐고, 최종 부적격 결정이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재공모도 나갔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2018. 2. 7.자 이OO 진술조서 9면), 당시 OOO 주무관이 군포문화재단의 유사사업 지원이력에 대해 강하게 어필했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이때도 왜 문체부 주무관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지 하면서 의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OOO 주무관의 경우 심사 참여는 했지만, 나서서 뭔가 강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시콜콜 사업에서보다는 좀 더 단체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피력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위 진술조서 9-10면).

한편 위 사업 2차공모에서의 면접심사 관련해서는, “이때는 군포문화재단 등 단체 자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로 ‘예술의 공’이 지원단체 중 가장 제안내용 측면에서 역량이 좋고 괜찮다고 평가하여 선정했”고”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10면).

(나) 참고인 서OO의 진술(2018. 2. 8.)

참고인 서OO는 위 사업 1차 및 2차 공모 각 서류 및 면접심사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이다. 참고인 서OO는 조사위에 제출한 2018. 2. 8.자 진술서를 통해 위 사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 1차 면접심사 과정에서 노OO 본부장이 참고할 사항으로 ‘군포문화재단’이 기존 지자체 예산으로 수행해 온 <파출소가 돌아왔다> 사업에 중앙부처 예산이 지원되는 이슈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렸으나, 심사위원들은 그러한 이슈는 서류접수 과정에서 진흥원 차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면접까지 올린 상황에서는 다른 기관들과 같은 조건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해, 본부장 발언이 심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기억한다(2018. 2. 8.자 서OO 진술서 1-2면).

군포문화재단의 기획서와 발표내용은 기존의 <파출소가 돌아왔다>를 단순히 계속하겠다는 취지였고, 새로운 사업의 방향성이나 계획이 준비되지 않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위 진술서 2면).

한편 2차 면접심사 과정에서 군포문화재단이 ‘(사)해아라 경기지부’ 등의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인지했으나, 그것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위 사업 심사에 문화부 주무관이 참여하여 개인적 판단과 지향에 대한 발언을 꽤 많이 했는데, 그의 심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최OO의 진술(2018. 2. 19.)

참고인 최OO는 위 사업 1차 및 2차 공모 각 서류 및 면접심사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이다. 참고인 최OO는 조사위에 제출한 2018. 2. 19자 진술서를 통해 위 사업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 본인은 당시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으나, 노OO 본부장 및 OOO 주무관이 초반에 번갈아가면서 이야기를 주도하며 군포문화재단의 업무 능력이나 기획서의 내용, 문제가 다소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2018. 2. 19.자 최OO 진술서 2면).
- 본인이나 다른 심사위원(기억나지 않음)이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조정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도 다시 OOO, 노OO 두 사람의 발언이 세계 나왔다. 다른 사업에서 문제가 있었다, 군포문화재단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는 등 논리였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고 심사위원도 아닌 주무관의 잦은 발언과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가 매우 거슬렀다. 노OO 본부장이 설득하려는 태도를 가진 반면, OOO 주무관은 지시하는 식의 태도였다(위 진술서 3면).
- 지금 생각해볼 때, 두 사람의 언행과 태도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임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기획서의 무성의함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심사위원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위 진술서 4면).
- 2차 면접심사 과정에서 군포문화재단이 '(사)해아라 경기지부' 등의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인지했으나, 그것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위 진술서 5면).

(라) 참고인 서강석의 진술(2018. 2. 1.)

참고인 서강석은 2013. 2. 25.~2017. 1. 31. 군포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참고인 서강석은 2018. 2. 1. 조사위 조사에서, 군포문화재단은 2013.부터 문체부의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 '파출소가 돌아왔다'를 운영해오던 중, 2015. 11.경 진흥원 측에서 '파출소가 돌아왔다' 사업을 원형으로 한 위 '문화파출소 사업' 추진계획을 알려와 본인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고 하면서(2018. 2. 1.자 서강석 진술조서 3-4면), "진흥원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중략) 교육진흥원 담당팀장이 군포문화재단이 꼭 공모에 신청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가장 잘 알기 때문

에 도움을 받으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중략) 저희는 요청을 받아 공모신청을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경기 지역에서는 저희 단체 하나만 후보지로 신청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PT도 나름 잘 준비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운영단체로서 다른 단체보다 정통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떨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4면).

서강석은 2016. 8. 1. 위 사업 1차공모 면접심사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면서 당시 심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고 문체부 000 주무관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5면).

서강석은 위 1차 면접심사에서 탈락한 뒤 진흥원에 찾아가 노OO 본부장 및 000 대리 만나 이야기했다고 하면서(위 진술조서 7면) “노OO 본부장은 곧 재공모를 할 꺼라면서 ‘진흥원에서는 탈락한 단체를 재선정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군포지역의 다른 민간단체에게 위 재공모 사실을 홍보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중략)”라고 진술하였고(위 진술조서 7-8면), 재공모 시 ‘커뮤니티엔컨테이너’와 ‘(사)해아라 경기지부’ 2개 단체가 군포문화재단의 협력을 받겠다는 내용을 명시해 지원했고 군포문화재단은 지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8면).

서강석은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 관련, “저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입니다. 87년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개월 구금됐던 적이 있고 이후 사면되었습니다. 국정원에서 그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 때 당에서 활동한 적이 있고, 이 부분도 블랙리스트에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진술조서 9-10면), 군포문화재단 김윤주 이사장(현 군포시장) 관련해서는 “김윤주 군포시장은 한국노총 중부지역지부 의장 출신입니다. 노동운동가입니다. 또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2016년도에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10면).

한편 위 사업 외 블랙리스트 작동을 의심했던 경우는 없다고 하면서, “저희가 워낙 진흥원 사업, 특히 지속사업들을 오랫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11면)

(4) 문체부 관련자 진술

(가) 참고인 000의 진술(2018. 4. 26.)

참고인 000은 2018. 4. 26. 조사위 조사에서 위 사업 관련하여, “블랙리스트 작동 사안이었습니다. 지원자 명단을 송부하고 배제리스트를 송부 받는 프로세스는 똑같았고, 다만 오OO 서기관님 후임인 C 사무관님과 일을 진행했습니다. 군포문화재단에 대해서는 특히 강하게 배제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니다”라고 하면서,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공모사업에서와 유사하게 강OO 문화예술교육과장이 본인에게 심사 참여를 지시해 진흥원 노OO 본부장과 함께 면접심사에 참여했고, 노OO 본부장에게는 강OO 과장이 직접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배제지시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2018. 4. 26.자 000 진술조서 11-12면).¹⁸⁾

또 000은 위 사업 1차 면접심사 당시 군포문화재단의 ‘파출소가 돌아왔다’ 사업과의 중복지원 문제를 언급한 경위에 대해, “탈락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위 중복지원 관련 내용을 고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고안한 것은 아니었고, 당시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중 누군가로부터 그 내용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당시 군포문화재단의 사업내용이 좋았었고 경쟁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탈락시킬 구실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니다. 그래서 저도 위 내용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12면).

한편 위 사업 2차 공모 면접심사 과정에서 군포문화재단이 협력방식으로 참여한 ‘(사)해아라군포지부’ 등 두 단체가 탈락한 것도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닙니다. ‘군포문화재단’이라는 명칭을 직접 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별도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니다. 군포문화재단이 위 두 단체에 협력했다는 사실 자체는 심사과정에서 들어 알게 되었으나, 블랙리스트 작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두 단체는 PT 과정에서 평가가 좋지 않아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13면).

000은 위 사업이 당시 문체부 B 예술정책관의 주력사업이었기 때문에 특히 블랙리스트 이행을 하지 않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13면).

18) 이에 대해 노OO 본부장은 ‘본인은 면접심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심사관련 내부서류를 제출하였고, 문체부 강OO과장으로부터 배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이의를 제기함(18.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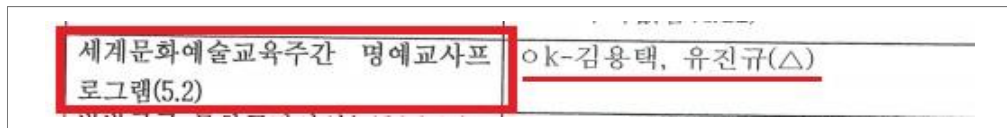
라.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특별한 하루)

(1) 블랙리스트 기재 사실 및 사업 결과

(가)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9.27.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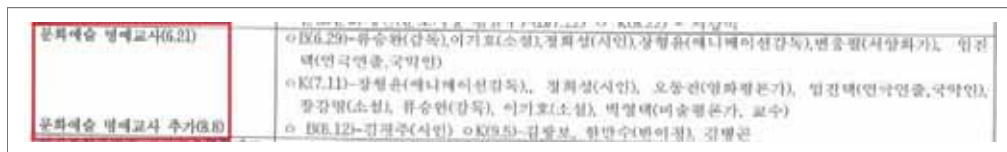
1)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9.27.현재」중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명예교사 프로그램” 부분에는 ‘o k-김용택, 유진규(△)’라고 기재돼 있다.

[그림-10]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9.27.현재」 2쪽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명예교사 프로그램” 부분



2) 한편 위 문건 “문화예술 명예교사” 부분에는 청와대(B) 및 국정원(K)의 해당사업 12인(류승완 영화감독, 이기호 소설가, 정희성 시인, 장형운 애니메이션 감독, 변용필 서양화가, 임진택 연출가, 오동진 영화평론가, 장강명 소설가, 박영택 미술평론가, 김경주 시인, 김광보 연극연출가, 반이정(한만수)/ '김경주-' '김병곤'은 동일인)에 대한 배제지시 관련 기재가 확인된다.

[그림-11]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9.27.현재」 2쪽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부분



(나) 진흥원 ‘확정 명단 및 추진 경과_보고용’

진흥원의 위 사업 관련 ‘확정 명단 및 추진 경과_보고용’ 등 문건 기재내용에 의하면,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최종명단 100인 중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9.27.현재」 “문화예술 명예교사” 부분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중 10인이 추천명단에 미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명예교사프로그램' 관련

(가) 서울중앙지검의 오OO에 대한 2017. 10. 15.자 제2회 참고인 진술조서

서울중앙지검의 오OO에 대한 2017. 10. 15.자 제2회 참고인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오OO이 문체부 「리스트-」16.9.27.현재」중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명예교사 프로그램” 부분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서울중앙지검의 오OO에 대한 2017. 10. 15.자 제2회 참고인진술조서 19-20면).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 맞이하여 문화예술계 저명인사의 명예교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강의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시행은 되지 않고 나중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 “위 사업은 메인 사업이 아니었고 부대 프로그램이었는데 기획한 후 검토 과정에서 그냥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 사업 당시 제가 2016. 5. 2.경 신청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주자, 국정원에서는 김용택, 유진규에 대해 회신이 왔는데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배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 “김용택은 진보성향 시인으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유명했던 시인이고, 유진규는 진보성향 예술가(마임 연출)입니다. 제 생각에는 유진규는 정치성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원에서는 진보성향으로 분류를 했더라구요. 국정원은 막연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뭔가 근거를 가지고 배제통보를 해 주는 것 같아서 별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 진흥원 기획사업단 2016. 6. 14.자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위촉 관련 추진경과」

진흥원 기획사업단 2016. 6. 14.자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위촉 관련 추진경과」에 의하면 “- '16. 5. 2·진흥원 → 문화부 : 기존 문화예술 명예교사 90명 중, 주간행사 기간('16. 5. 21 ~ 27) 내 운영 프로그램의 1차 섭외 우선순위 명단 발송”, “· 문화부 의견 회신 ① 기존에 활동한 명예교사 활동 유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② 주간행사 기간 내 프로그램 운영 보류 요청” 등 기재내용이 확인된다.

[그림-12] 진흥원 기획사업단 2016. 6. 14.자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위촉 관련 추진경과

'16. 5월	<p>'16. 5.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원 → 문화부 : 기존 문화예술 명예교사 90명 중, 주간행사 기간 ('16. 5. 21 ~ 27) 내 운영 프로그램의 1차 섭외 우선순위 명단 발송 · 문화부 의견 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존에 활동한 명예교사 활동 유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② 주간행사 기간 내 프로그램 운영 브류 요청 ③ 신규로 위촉할 수 있는 문화예술 명예교사 명단 요청
---------	--

(3)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특별한 하루)' 관련

(가) 진흥원 관련자 진술 및 관련 문건

1) 진흥원 기획사업단 2016. 6. 14.자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위촉 관련 추진경과
 진흥원 기획사업단 2016. 6. 14.자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위촉 관련 추진경과에 의하면, 진흥원이 2016. 5. 30. 문화부에 신규 문화예술 명예교사 추천명단을 발송한 사실, 문화부가 진흥원에 위 명단 검토회신 일정 관련하여 2016. 6. 13. '청와대 위촉명단 검토 일정에 따라 회신일정 미정 안내' 등의 공지를 한 사실 등 기재내용이 확인된다.

[그림-13] 진흥원 기획사업단 2016. 6. 14.자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위촉 관련 추진경과

'16.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부 의견 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존에 활동한 명예교사 활동 유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② 주간행사 기간 내 프로그램 운영 브류 요청 ③ 신규로 위촉할 수 있는 문화예술 명예교사 명단 요청 · '16. 5. 30 · 진흥원 → 문화부 : 의견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각 운영업체별 프로그램의 특징에 적합한 신규 문화예술 명예교사 추천 명단 취합 및 기존 활동 명단 발송 ② 추천위원회 명단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5. 31 : 문화부 담당관 변경사항 확인(문화부 → 진흥원) · '16. 6. 2 : 새로운 문화부 담당관과의 미팅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 재정립 (문화부 ↔ 진흥원) · '16. 6. 9 : 문화부, 교육진흥원, 운영사(3개사) 회의를 통해 재정립된 사업추진 방향 공유 및 실행방향 검토. 문화부 측, 차주 내 위촉명단 검토 및 공유 일정 현조 확인 · '16. 6. 13 : 청와대 위촉명단 검토 일정에 따라 회신 일정 미정 안내 (문화부 → 진흥원)
'16. 6월	

2) 참고인 000의 진술(2018. 1. 23.)

참고인 000은 2018. 1. 23. 조사위 조사에서 2016. 5. 초경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 조OO 서기관으로부터 명예교사 명단 신규취합 요청의견이 와 2016. 5. 30. 총 241명의 명예교사 풀(pool) 명단을 조OO 서기관에게 송부했는데, 이후 2016. 5. 31. 경 위 사업 담당자가 조OO 서기관에서 김OO 사무관으로 변경되면서 다시 명단 요청을 받아 새롭게 취합한 총 200명 명단을 송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 1. 23. 자 000 진술 조서 4면).

그런데 이후 문체부의 명단 검토 및 회신에 지연이 있어 문의해보니 김OO 사무관이 ‘청와대 위촉명단 검토에 따라 회신 일정이 미정이다’ 등 이야기를 했고, 이에 본인이 참고인 정OO 기획사업단 단장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여 정OO 단장 지시로 위 1)항 ‘진흥원 기획사업단 2016. 6. 14. 자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위촉 관련 추진경과’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4면).

이후 최종 100인의 명예교사 명단 선별까지의 과정 관련하여, 진흥원이 2016. 6. 초 문체부에 송부한 200명 명단 중, 문체부 김OO 사무관의 2016. 6. 28.~9. 6. 4차레 명단 검토 및 통보과정¹⁹⁾에 거쳐 우선 심의 명단이 취합되었고, 명예교사 참여에 응한 최종 100인이 선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위 진술조서 5면, 9면), 당시 김OO 사무관과 주고받았던 이메일 및 명단 파일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한편 000은 “(중략) ‘이윤택 연출가’ 섭외에 대한 의견을 메일(참고자료 제출, 2016. 7. 25. 10:24 메일)로 물었었는데, 이에 대해 김OO 사무관이 답신으로 “이윤택 연출가는 죄송하지만 섭외 안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라는 의견을 담은 메일(참고자료 제출, 2016. 7. 25. 18:01 메일)을 송부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추가로 진술합니다. ‘이윤택 연출가’는 최초 저희가 송부한 200명 명단에 있었고, 문체부도 명단들을 취합할 초기에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위 같은 메일이 와서 의아한 마음이 들어 당시 ‘이윤택 연출가’가 누군지 검색을 해봤던 기억도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11면).

3) 진흥원 ‘붙임2_기존_및_신규_명예교사_추천 명단_문화부 공유용(6.9)’ 및 ‘확정 명단 및 추진 경과_보고용’

진흥원의 ‘붙임2_기존_및_신규_명예교사_추천 명단_문화부 공유용(6.9)’ 및 ‘확정 명단 및 추진 경과_보고용’ 각 문건 기재내용에 의하면, ① 진흥원이 2016. 5. 말경 취합

19) 문체부의 위 명단 통보 과정에서 리스트 기재 12인이 순차적으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됨

하여 문체부에 송부한 200명 명예교사 풀(pool) 명단 중 리스트 기재 12인이 모두 포함된 사실 ② 리스트 기재 12인 중 7인(류승완, 이기호, 정희성, 장형윤, 변용필, 오동진, 박영택)은 문체부의 최초 검토회신 과정(2016. 6. 28.)에서 제외된 사실 ③ 2인(임진택, 장강명)은 문체부의 2차 검토회신(2016. 7. 18.) 과정에서 제외된 사실 ④ 나머지 3인(김경주, 김광보, 반이정)은 4차 검토회신(2016. 9. 6.) 과정에서 제외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나) 문체부 관련자 진술

1)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4. 19.)

참고인 김OO은 당시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으로 2015. 5. 30.경부터 조OO 서기관의 후임으로 위 사업을 담당한 자이다.

참고인 김OO이 조사위에 제출한 2018. 4. 19.자 진술서에 의하면, 김OO은 위 사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 진흥원 담당자에게 ‘청와대에서 명단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지만, 2016. 6. 초 진흥원에서 전달받은 명예교사 200인 풀(pool) 명단을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에게 전달하였고 답변을 기다린 것은 사실이다.
- 당시에는 예술국의 많은 사업들이 검토 대상이었으며, 동 사업도 같은 취지에서 명단 검토를 받았다.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에게 명단을 송부 한 후, 섭외명단에서 제외할 사람들을 알려주시면 반영해서 다시 진흥원에 송부했다.
- 리스트 기재 12인의 배제 사유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 2016. 7. 25. 진흥원 OOO에게 ‘이윤택 연출가 섭외하지 말 것’ 등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송부한 경위 관련, 이미 진흥원에 섭외명단을 보내고 난 후 오OO 서기관이 다시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메일을 보냈던 것 같다.

3. 추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가. 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1) 참고인 이OO의 진술(2018. 2. 7.), 참고인 송OO의 진술(2018. 2. 14.)

참고인 이OO 및 송OO은 2015. 위 사업 서류 및 면접심사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이다.

참고인 이OO은 2018. 2. 7. 조사위 조사에서, “그 전해(2015) ‘시시콜콜’ 사업에서 동성애 관련 단체와 민주화운동을 지원했던 부산의 헌책방 운영단체를 저희 심사위원들이 선정했었는데, 당시에 위 두 단체 선정에 대해 문체부에서 진흥원 쪽으로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에 진흥원이 심사위원들에게 위 두 단체에 대한 심사번복이 가능한지를 문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심사위원들이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아마도 그 때 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 다음해, 2016년 사업에서 문체부 주무관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중략) 그 전까지는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보다는 특정한 보수 측 성향 단체를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같은 게 있지 않겠냐는 의심을 다소 했었는데(2018. 2. 7.자 이OO 진술조서 4-5면), 2016년에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두 개 다 작동한 것이 아닌가(중략)”, “이미 2015년 사업에서 문체부로부터 특정 두 단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중략)” 등의 진술을 하였다(위 진술조서 7면).

한편 참고인 송OO은 조사위에 제출한 2018. 2. 14.자 진술서에서, “2014~2016년 동안 제가 참여했었던 시시콜콜심사에는 항상 구두로 문화부에서 내려온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진흥원 사업담당 본부장이나 팀장은 공유는 하되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요청하여 심사에 반영된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8. 2. 14.자 송OO 진술서 1면).

(2) 진흥원 관련자 진술

(가) 참고인 OOO의 진술서(2018. 3. 7.자 진술서)

참고인 OOO는 ‘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담당 사회교육팀 직원으로, 진흥원 TF에 제출한 2018. 3. 7.자 진술서에서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 2015년에 선정된 ‘귀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대해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담당자 차원의 심사결과 번복 여부에 대한 문의는 하지 않았다. 당시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은 오랜 기간 진흥원 담당자와 함께 해당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문체부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다. 당시 문체부 담당자는 W 사무관과 OOO 주무관이었다.
- 문체부에서 위 두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귀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15년 연속지원 선정 단체로서, 심사시기(4월)에 문체부에서 해당 단체를 제외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다

만, 문체부에서는 2014년부터 ‘시민’, ‘운동’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거나, 운동의 성격을 지닌 단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왔으며, 퀴어문화축제가 시시콜콜 예산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15년 신규지원 선정 단체로서, 심사시기(7월)에 문체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리된 녹취록의 일부를 봤을 때, 문체부에서 부정적 피드백을 했고, 내부에서는 심사결과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 같다.

(나) 참고인 000의 진술서(2018. 3. 7.자 진술서)

1) ‘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관련

참고인 000는 ‘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담당 사회교육팀 직원으로서, TF에 제출한 2018. 3. 7.자 진술서에서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 위 사업 관련 진흥원 담당자로는 노OO 본부장, 기OO 팀장, 000 대리가 있었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대한 문체부의 우려 및 부정적 입장을 진흥원 상위 관리자를 통해 추측한 적은 있으나 위 두 단체의 심사 결과를 변경해달라고 심사위원들에게 요청한 적은 없다.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2014년에 이어 연속지원 심사(2015. 4. 7.)를 통해 조건부 선정되었는데, 조건부 선정 결과는 심사위원들 논의 결과 내려진 결정이었다. 심사 과정에서 해당단체 선정결과에 대해 진흥원이나 문체부가 언급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선정 후 해당단체에 대한 문체부의 우려를 전달 받은 적은 있다.
- ‘부산민주화항쟁기념사업회’는 2015년 신규 지원한 단체로, 공모 및 심사시기에 위 단체에 대한 문체부의 우려(편향된 정치적 성향의 시민단체나 정치세력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고 이를 진흥원 실무자 중 한 사람이 심사과정 중 언급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심사위원들에게 선정결과를 바꿔달라고 한 적은 없다.
-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노OO 본부장이 본인을 따로 불러 ‘중앙정부 입장에서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같은 특정 가치관이나 정치적 성향이 강한 단체를 지원함에 따라 보수 기독교 집단의 압박을 감수해야하는 부담을 문체부가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단체가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그를 이용하려

는 다른 정치적 세력에 의해 이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 앞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 그러한 단체들 보다는 사업 취지에 더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

2) '2014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관련

한편 참고인 000는 2014년에도 위 사업을 담당하였는바, 이와 관련해 위 진술서에서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 2014. 7.경 신규지원 공모 최종 심사 결과 보고 및 결재 완료 후 문체부로 최종 선정 단체 목록을 송부하였으며, 이후 문체부로부터 심사결과 공고 연기 요청이 온 것으로 기억한다.
- 이후 실무자 김00이 '환경운동연합'의 선정 결과를 취소해야한다는 소식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박00 본부장이 대표로 심사위원들을 설득시키겠다고 하여, 심사위원들을 다시 진흥원으로 소집해 '환경운동연합'의 선정 결과를 번복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선정결과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문체부 담당자는 W 사무관, 000 주무관이었다.

(다) 참고인 000의 진술서(2018. 3. 28.자 진술조서)

참고인 000은 '2014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당시 사회교육팀 직원으로, 진흥원 TF에 제출한 2018. 3. 28.자 진술서에서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 위 사업 서류심사 및 최종심사 결과는 기관 내부보고 전, 문체부 담당자인 W 사무관과 000 주무관에게 메일로 송부해 확인하고, 보고절차를 진행하였다. 심사결과를 문체부로 송부(14. 7. 29.)한 당일 유선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내부 보고 절차 진행 후 다음 날 최종 결과보고가 완료되었다.
- W 사무관은 본인에게 전화로 연락해 심사위원들을 불러주면 자기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요청해왔고, 당시 본부장인 박00은 본인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고, 심사위원들을 불러주면 자신이 직접 만나 상황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하였다.
- 심사위원이 모인 자리에 박00 본부장이 들어가 상황을 설명했다. 본인은 해당 자리에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설명이 끝난 후 박00 본부장은 본인을 불러 심

사위원들에게 조정사항 및 사유를 설명했고, 심사위원들도 동의했으니 심사결과를 정정 보고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 이에 따라 본인은 심사결과 정정 보고를 진행(14. 7. 30.)하였고, 정정된 결과로 최종 선정 결과를 공지(14. 8. 1.)하였다. 정정문서에는 기획전략실장(박OO 본부장이 겸임)의 검토의견(해당 단체의 현장실사 결과 미반영)을 정정 사유로 기재하였다.

(라) 참고인 김OO의 진술서(2018. 3. 28.자 진술서)

참고인 김OO은 '2014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담당 사회교육팀 팀장으로, 진흥원 TF에 제출한 2018. 3. 28.자 진술서에서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 위 사업 심사과정에서 당시 진흥원 원장인 OOO으로부터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있었다. 당시 타 사업 건으로 출장 중이었는데, 출장지에서 위 사업에 대한 최종심사결과의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결과의 홈페이지 등록을 요청하는 업무협조전(사회교육팀-1770, 2014. 7. 30.)을 송부하였다.
- 이후 OOO 원장은 유선으로 위 사업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선정된 배경을 물었고,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단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문체부의 요구가 있었으니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 관련 사항을 박OO 기획전략실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하였고, 박OO은 별도로 심사위원들을 만나보겠다고 하였다. 박OO은 심사위원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심사위원들도 사업 유지를 위해 심사결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심사내용에서 반영할 사항도 함께 협의했다고 하였다. 해당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였고 '환경운동연합'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정정기안 상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해주었다.

(3) 문체부 관련자 진술

(가) 참고인 OOO의 진술(2018. 4. 26.자)

참고인 OOO은 '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담당 문체부 주무관으로 근무한 자이다.

OOO은 2018. 4. 26. 조사위 조사에서 위 사업 당시 선정된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2개 단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블랙리스트랑은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위 사업 자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사업인데 ‘퀴어’나 ‘민주항쟁’처럼 정치적으로 예민한 속성을 가진 단체들이 선정되는게 맞겠냐 하는 문체부 내의 부정적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전히 사업취지와 관련된 의견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하면서(2018. 4. 26.자 000 진술조서 14면), 위 단체들에 대해 내려온 블랙리스트 배제지시도 없었으며,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교육과에서 소위 블랙리스트 지시를 처음 받았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2015년 말 복지기관 예술강사 사업 시기가 처음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14면).

나.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1) 참고인 000의 조사신청(2018. 2. 20.자 유선조사신청) 및 진술(2018. 3. 15.)

참고인 000은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미술분야에 선정되었던 000 기관 대표로, 진흥원 TF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 본인은 위 사업에 공모해 선정되었고, 약 1,320,000,000원 상당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6. 1. 6.자로 더불어민주당(문재인 대표)의 ‘여성 인재영입 1호’로 입당했으나, 이슈가 생겨 ‘인재영입’ 지위를 반납하였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다.
- 2016. 1.경 위 사업의 프로그램(성과)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문체부 공무원인지 진흥원 직원인지 모르겠으나,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발표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번 에 크게 입당을 하셔서 발표를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여 연구원을 발표자로 대신 보냈으나, 발표는 책임자인 본인이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 당시 야당 영입 대상자인 본인이 발표하는 것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생각한다. 이후 ‘201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지원했으나 선정되지 못하였다. 정권이 바뀐 후에는 진흥원으로부터 심포지엄 참석이나, 공모안내가 개인 메일로 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인이 블랙리스트로 구분되어 배제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제보를 하였다.²⁰⁾

20) 이에 대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치유 공모 안내는 2015년부터 문화예술치유 관련 단체의 대표자에게 동일하게 메일을 보내 왔다’고 소명함(‘18.11.6.)

(2) 진흥원 관련자 진술

(가) 참고인 000의 진술(2018. 4. 5. 진술조서)

참고인 000은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담당 사회교육팀 직원으로, 진흥원 TF의 2108. 4. 5. 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 000 교수에게 결과공유회 자리참석 자제 요청은 이00 팀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000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후 '위안부 할머니 그림 무단사용 의혹' 기사가 나왔다. 결과공유회는 2015년 첫 시범운영된 위 사업의 마무리 행사였으므로, 부정적 이슈로 언론에 보도된 당사자가 결과공유회에 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 000 교수에게 참석의사를 물어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 문체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황 공유는 있었던 것 같다.
- 결과공유회에 문체부 장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 사업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치유사업 특성상 윤리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그 이유는 참여자가 특수하고, 그 대상이 연구의 목적이거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000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은 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생각했다.
- 특히, 000 교수가 대표자인 000 기관이 수행한 사업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그 중 한 개 프로그램의 참여자 결과물이 법무부의 특별상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긍정적 결과가 000의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빛이 바랄까봐 우려되었던 점도 있다.
- 2016년도 사업에서 000가 탈락한 것 역시 '위안부 할머니 그림 무단사용 의혹' 등 부정적 이슈와 관련 있을 수 있다. 또한 위 사업 종료이후 회계검사 결과 000가 사업비 오용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000가 다른 사업에서 미술치유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연구목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이 심사에 영향을 주었다. 즉, 2016년도 사업에서는 000의 서류심사에는 부족함이 없었으나 면접과정에서 000 교수의 여러 윤리적 문제로 최종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참고인 이00의 진술(2018. 4. 5. 진술조서)

참고인 이00은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담당 팀장 직무대리로, 진흥

원 TF의 2018. 4. 5. 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 결과공유회와 관련해 000 교수와 통화한 사실은 있다. 참석 자제 요청을 드렸고, 000 교수도 알았다고 해 이야기가 잘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문제제기 등은 전혀 없었다.
- 000 교수에게 결과공유회 참석 자제를 요청한 것은 정당 입당으로 이슈가 된 후 위 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작품을 활용한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결과보고회에 오게 되면 이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걱정되었던 것 같다. 당시 참석을 하지 않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했고, 발표를 단체 내 다른 분이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000 교수는 야당 쪽 정치인이었고, 여당 쪽에서 이슈화 할 걱정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본인의 독단적이 판단이라기보다는, 내부에 보고도 올린 사안이다.
- 결과공유회 자리에 문체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고, 진흥원 원장님은 참석하였다. 박근혜 정부 인사는 모르겠으나 문체부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다만, 문체부 공무원들을 박근혜 정부 관련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당시 사업담당자라서 참석을 한 것이지 그 외의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진흥원이 많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의 민원이나 불만이 많은 편이다. 이 사업의 경우 최근 블랙리스트 이슈로 민원제기를 이러한 형태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3) 문체부 관련자 진술

(가) 참고인 000의 진술(2018. 4. 26.자)

참고인 000은 2015. 당시 위 사업 담당 문체부 주무관으로 근무한 자이다.

참고인 000은 2018. 4. 26. 조사위 조사에서 위 사안 관련, “당시 000 교수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000 대표가 문제인 영입 1호라는 식으로 발표가 나고 하니 진흥원 차원에서는 선정에 부담이 됐을 수는 있겠으나, 문체부에서 어떤 관여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위 사업 자체에 대해 블랙리스트 관련 작동 및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특히 관여하는 면이 적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8. 4. 26.자 000 진술조서 15면).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구조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9.27.현재」기재내용, 참고인 000의 진술, 참고인 김00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은 1) 2015.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6. 진흥원 사업 등에 대해 행해졌고 2) 문체부 예술국에서 블랙리스트 명단 관리 및 청와대·국정원과의 소통을 전담하고 있던 예술정책과 오00 서기관(또는 C 사무관²¹⁾)으로부터 배제명단을 공유 받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구체적으로는, 3) 문화예술교육과에서 진흥원 사업 지원자 명단을 예술정책과 오00 서기관(또는 C 사무관)에게 전달한 뒤, 오00 서기관(또는 C 사무관)이 청와대 및 국정원으로부터 하달 받은 배제명단을 문화예술교육과에 전달하여 배제지시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행해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청와대 및 국정원의 문체부에 대한 진흥원 2016년 4개 사업 배제지시 사실

이 사건 조사를 통해 밝혀진 아래 ①~③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와대 및 국정원이 진흥원의 2016년 4개 사업과 관련해 문체부에 배제지시를 하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문체부 예술정책과 블랙리스트 문건에 진흥원의 2016년 4개 사업에서 배제해야 할 개인 또는 단체가 적시된 사실(문체부 예술정책과「리스트-’16.9.27.현재」2쪽, 6쪽, 7쪽)
- ② 위 블랙리스트 문건에 기재된 각 사업의 일시, 단체명 등 내용이 이 사건 조사를 통해 밝혀진 실제 진흥원 각 사업에서의 지원단체, 선발일정, 진흥원이 각종 문서(사업일정 및 명단)를 문체부에 발송한 날짜 등과 일치 및 근접하는 사실
- ③ 위 블랙리스트 문건 각 사업에 기재된 개인 또는 단체 일부가 실제 진흥원 각 사업에서 탈락한 사실
 -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리스트 기재 5개 단체(문아트

21) 참고인 C이 참고인 오00 후임으로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일하게 된 2016. 8.경부터 C이 위 블랙리스트 명단 관리 및 공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컴퍼니(주), 남동희망공간, 사단법인 성장과나눔시민협의회, 햇살나무도서관, 구로생활연극공작단 연상연하) 중 ‘구로생활연극공작단 연상연하’를 제외한 4개 단체가 최종탈락한 사실(위 사업 관련 문건 목록 중 연번10~23 2016 시민 연속지원 심사 결과 등 문건 기재내용)

- 2016 문화파출소 조성·운영사업: 리스트 기재 ‘군포문화재단’²²⁾이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사실(위 사업 관련 문건 목록 중 연번21~28 ‘2016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사업 공모 심사 결과 보고’ 등 진흥원 문건 기재내용, 참고인 서강석의 진술).
-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특별한 하루):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최종명단 100인 중 리스트 기재 12인이 미포함된 사실(위 사업 관련 문건 목록 중 연번 14~24 ‘명예교사 위촉 관련 추진경과’ 등 진흥원 문건 기재내용).

- ④ 리스트 기재 진흥원의 각 사업 및 개인, 단체에 대해 청와대에서 강한 배제지시가 내려왔다는 참고인 오〇〇의 진술

다. 진흥원 2106년 4개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사실

(1)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예술강사 모집)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위 사업 관련 문건목록 중 연번3~18 ‘(결재문)기본계획 보고’ 등 진흥원 문건, 연번 25~27 참고인 〇〇〇 제출자료 각 기재내용과 참고인 〇〇〇, 이〇〇, 노〇〇, 김〇〇 등 진흥원 관련자 진술, 참고인 오〇〇, 〇〇〇 등 문체부 관련자 진술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종합하면, 1) 2015.말경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에 위 사업 관련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지시 혹은 압박이 처음 내려왔고 2) 이에 2015. 12. 문체부 〇〇〇 문화예술교육과 주무관은 진흥원 이〇〇 사회교육팀장으로부터 위 사업 지원신청자 명단(1,357명)을 받아 문체부 오〇〇 예술정책과 서기관에게 전달했으나 3) 지원자가 너무 많아 문제인물 선별이 어려워 일단 서류심사를 진행하였고 4) 2016. 1. 〇〇〇 주무관은 이〇〇 팀장으로부터 위 사업 면접대상자 명단(721명)을 받아 오〇〇 서기관에게 전달했으며 5) 오〇〇 서기관은 〇〇〇 주무관에게 한국일보 9,473명 명단을 주며 지원자 중 문제인물을 선별해보라고 했고 6) 이에 〇〇〇 주무관은 연극분야 면접대상자 중 위 한국일보 9,473명 명단에 포함된 12명²³⁾을 확인하였고 7) 〇〇〇 주무관은 진흥원에 서류

22) 블랙리스트 문건에 기재된 서강석은 당시 군포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으로 확인되었다.

23) 위 12명이 실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사를 통해 규명하지 못했다.

심사 결과발표 보류를 요청하며 연극분야 문제인물 6명 명단을 송부했으나 8) 실제 배제 작동은 없이 면접심사가 진행되었고 9) 오OO 서기관은 000 주무관이 확인한 문제인물 12명에 대해 배제조치를 이행한 것처럼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조사를 통해 위 사업에서 특정인물들에 대한 배제가 실제 이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위 사업에 대해 청와대 및 국정원의 배제지시가 있었고, 이에 문체부가 해당사업 지원자 중 문제인물을 검토하고 진흥원에 명단을 송부하는 등 배제이행을 시도했으며, 청와대에 배제조치가 이행된 것처럼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특정인물 명단이 문체부에서 진흥원으로 송부되는 등 블랙리스트 이행이 시도되는 과정에서, 진흥원 000, 이OO 사회교육팀장 등이 “문체부가 심사에 관여할 경우 문제제기 하겠다”, “양심상 일을 할 수 없어 그만 두겠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등 진흥원 직원들이 부당한 배제시도를 회피하고 문제 삼고자 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와 별개로, 위 사업 관련 문건목록 중 참고인 노OO이 제출한 연번19~24 ‘추진경과’ 문건 등 각 기재내용과 참고인 000, 000, 노OO 등 진흥원 관련자 진술, 참고인 김광중의 진술을 종합하면, 1) 2015. 9.~11. 감사원 감사 이후, 2016.부터 위 사업에서 기존과 달리 신규 지원강사 뿐 아니라 기존 지원받던 예술강사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심사하는 내용의 심사개편이 있었고, 2) 이 과정에서 기존 예술강사들이 대거 탈락하고 예술강사 노조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식 대응한 사실이 확인된 바, 참고인 000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예술강사 심사개편에도 블랙리스트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 포함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위 사업 관련 문건목록 중 연번14~21 ‘2016 시민 신규 지원 공모 서류심사 결과 보고(사회교육팀-1417)’ 등 진흥원 문건, 참고인 노OO이 제출한 연번22 ‘추진경과’ 문건 각 기재내용과 참고인 000, 이OO, 노OO 등 진흥원 관련자 진술, 참고인 이OO의 진술, 참고인 송OO의 진술, 참고인 000의 진술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종합하면, 1) 2016. 6. 문체부 000 문화예술교육과 주무관은 진흥원으로부터 위 사업 ‘신규지원’ 부문 지원자 명단을 송부받아 오OO 서기관에게 전달하였고 2) 오OO 서기관은 청와대 및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4개 단체²⁴⁾²⁵⁾를 체크해 문화예술교

육과에 전달하였으며 2) 이에 강OO 문화예술교육과장은 진흥원에 배제지시를 직접 내리는 대신 000 주무관에게 직접 위 사업 면접심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배제이행을 지시한 사실 3) 강OO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당시 정부 우호적 인물이었던 000에게 요청하여, 위 사업 면접심사 외부 심사위원으로 000이 참여한 사실 4) 위 문체부 주무관 및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 참여는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업에서 청와대 및 국정원의 5개 단체에 대한 블랙리스트 배제지시가 있었고, 이에 문체부 주무관 및 문체부가 추천한 정부 우호적 인사가 위 사업 면접심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배제이행 시도가 있었으며, 실제로 5개 단체 중 4개 단체가 탈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3) 2016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사업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위 사업 관련 문건목록 중 연번3~32 ‘2016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사업 추진계획 보고(사회교육팀-290)’ 등 진흥원 문건 각 기재내용과 참고인 000, 000, 이00, 노00²⁶⁾ 등 진흥원 관련자 진술, 참고인 이00의 진술, 참고인 서00의 진술, 참고인 최00의 진술, 참고인 000의 진술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종합하면, 1) 문체부 000 문화예술교육과 주무관은 진흥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위 사업 지원단체 명단을 예술정책과 C 사무관에게 전달하였고 2) C 사무관은 청와대 및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배제지시 내용을 문화예술교육과에 전달하였으며 3) 이에 강OO 문화예술교육과장은 진흥원에 배제지시를 내리는 대신 000 주무관에게 직접 위 사업 면접심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배제이행을 지시하였고 4) 이에 000 주무관은 위 사업 1차공모 면접심사 중 ‘군포문화재단’의 배제를 이행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군포문화재단’의 과거 중복사업 지원 이력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등 부

24)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9.27.현재」에 기재된 문아트컴퍼니(주), 남동희망공간, 사단법인 성장과나눔시민협의회, 햇살나무도서관 4개 단체

25) 참고인 000은 2018. 4. 26. 조사위 조사에서, 리스트 기재 5개 단체 중 1개 단체(구로생활연극공작단 연상연하)의 경우 뒤늦게 C 사무관으로부터 배제지시를 받아 배제조치 이행에 고려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2018. 4. 26.자 000 진술조서 10면)한 바, 최초 000 서기관이 전달한 단체는 4개 단체인 것으로 보인다.

26) 한편 참고인 노00은 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위 사업 면접심사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참고인 서00, 최00, 000 등 진술에 의하면, 노00 본부장이 문체부의 군포문화재단 배제지시에 대한 사항을 알고 있었고, 위 면접심사 과정에서 직접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부정적 의견 혹은 지원할 경우 문제가 있다는 등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바, 참고인 노00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적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업에서 청와대 및 국정원의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블랙리스트 배제지시가 있었고, 이에 문체부 주무관이 위 사업 면접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블랙리스트 단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배제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위 사업 2차 공모에는 군포문화재단이 협력방식으로 참여한 ‘커뮤니티앤컨테이너’, ‘(사)해아라군포지부’ 2개 단체가 지원하였고, 문체부 000 주무관이 위 2차 공모 면접심사에도 참여하여 군포문화재단의 위 2개 단체 협력사실에 대해 인지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위 2개 단체 최종 탈락과정에 추가로 블랙리스트 작동이 행해진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4)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특별한 하루)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위 사업 관련 문건목록 중 연번14~24 (결재문)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위촉 관련 추진경과’ 등 진흥원 문건, 참고인 000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문건 각 기재내용과 참고인 000, 정00 등 진흥원 관련자 진술, 참고인 000, 김 00 등 문체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1) 2016. 5.초 진흥원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명예교사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명예교사 추천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는데 2) 국정원으로부터 위 명예교사 추천명단 중 ‘김용택, 유진규’에 대한 배제지시가 내려왔고 3) 문체부 조00 서기관은 진흥원 측에 ‘김용택’, 유진규’ 등을 포함한 진흥원 추천인물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진흥원 정00 기획사업단장이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4) 결국 위 사업은 문체부 의견에 따라 무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진흥원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명예교사 프로그램’의 진흥원 추천인물 중 국정원에서 내려온 블랙리스트 예술인이 포함돼 있었고, 문체부 의견에 따라 결국 위 사업이 무산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1) 2016. 5.말경 진흥원은 문체부에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특별한 하루)’ 추진을 위해 명예교사 추천 200인 명단을 송부하였으나 문체부의 검토 일정이 지연되었고 2) 문체부 김00 사무관은 진흥원 측에 ‘청와대의 검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3) 문체부 김00 사무관은 000 서기관에게 진흥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명예교사 추천 명단을 전달하였고 4) 김00 사무관은 000 서기관으로부터 청와대 및 국정원이 하달한 배제 명단을 순차적으로 전달받아 2016. 6. 28.~9. 6. 기간 동

안 위 블랙리스트 인물들이 제외된 명단을 진흥원 000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인물을 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특별한 하루)’에서 청와대 및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가 배제를 이행하여 블랙리스트 기재 12인이 명예교사 협의 명단에서 배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추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1) 2014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참고인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진술을 단서로 진흥원 TF에서 위 사업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한 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환경운동연합’에 대해,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 W 사무관의 요청으로 진흥원 박00 기획전략실장이 심사위원들을 소집해 위 단체의 선정변복 사유 등을 직접 설명하고 실무자에게 심사결과 정정보고를 지시하는 등 방식으로, 최종 선정된 ‘환경운동연합’의 심사결과를 번복함으로써 위 단체를 탈락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위 단체의 문체부 요청에 따른 위 단체의 선정변복 및 탈락 경위가 조사위 조사대상인 전(前)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동 과정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낼 수 없었다.

- ① 이 사업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문체부로 송부(14. 7. 29.)하여 문체부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내부 보고절차를 진행하여 최종 결과보고가 완료된 이후에, 문체부의 W 사무관이 선정된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선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며 사업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한 사실(참고인 김00의 진술 및 첨부자료_2014. 7. 9. 문체부 발송 이메일, 2014. 7. 30. 문체부 발송 이메일, 참고인 김00의 진술)
- ② 진흥원 000가 W 사무관에게 최종심사 및 결과보고가 완료되어 선정결과를 조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후 다시 전화로 연락하여 심사위원들을 불러주면 자신이 직접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참고인 000, 000의 각 진술)
- ③ 진흥원 박00 기획전략실장이 선정결과 조정 사항과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다시 소집한 사실(참고인 김00, 000, 000의 각 진술)
- ④ 박00의 지시로 000가 심사결과 정정 보고를 진행(14. 7. 30.)하였고, 정정된 결과로 최종 선정 결과를 공지(14. 8. 1.)하였으며, 정정문서에는 박00 기획전략실장의 검토의견(환경운동연합의 현장 실사 결과 미반영)을 정정 사유로 기재하여 환

경운동연합의 선정결과가 번복된 사실((결재문)최종심사 결과 정정 보고, 참고인 김OO, OOO, OOO의 각 진술)

(2)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자의 조사신청으로 진흥원 TF에서 위 사업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한 바, 이 사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 및 참고인 OOO, 이OO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위 사업 관련하여, 1) 진흥원 이OO 팀장이 조사신청자 OOO에게 전화하여 위 사업 결과공유회 발표에 나오는 게 불편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2) 위 사업 선정단체의 총괄책임자 또는 대표자가 결과공유회에 참석하지 않은 단체는 조사신청자 OOO이 대표자로 있는 OOO 기관과 다른 1개 학회뿐이었다는 사실 3) 이후 OOO 기관이 진흥원 201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면접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진흥원 내부 지침이나 규정의 근거 없이, 진흥원 직원이 선정자의 결과공유회 참석을 만류한 것은 부당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①~⑤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조사신청자의 201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탈락이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 및 정황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① 조사신청자의 진술과 달리 결과공유회 발표자는 선정된 8개 단체 모두 대표자가 아닌 소속 참여인력이 발표한 사실(참고인 OOO의 진술 중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 발표와 관련하여 단체의 대표가 아닌, 연구원이 성과 발표를 한 단체 명단)
- ② 결과공유회 참석자 중 문체부 장관은 없었으며, 이 사업 담당자인 문체부 조OO 서기관만 참석한 사실(연번24 2015 문화예술치유 결과공유회 각 단체별 참석자 명단, 참고인 OOO, 이OO의 각 진술)
- ③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자 중 201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에도 선정된 경우는 3개 단체(음악1, 연극1, 무용1)가 있으며, 그 중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단체도 있어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는 사실(연번17 면접심사 세부 결과(채점표 포함), 연번18 201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최종 선정결과 안내)
- ④ 진흥원 측의 조사신청자에 대한 결과공유회 참석 만류는 조사신청자에 대한 부정적 이슈가 더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참고인 OOO의 진술 및 첨부자료)
- ⑤ 위 사업 관련 블랙리스트 지시나 작동은 없었다는 참고인 OOO의 진술

(3) 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위 사업 심사위원이었던 참고인 이OO 진술을 단서로 조사에 착수한 바, 위 사업에서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대한 문체부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으나(참고인 OOO, OOO의 각 진술), 위 두 단체가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선정결과에 대한 번복 지시 등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에 대한 증거 및 정황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블랙리스트 작동의혹과는 별개로 해당사업에서 ‘(사)성장과나눔시민협의회’를 선정해달라는 국회의원의 청탁이 있었고 이에 해당단체가 추가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실²⁷⁾28)이 확인되었다.

- ① 문체부 OOO 주무관이 2015. 10.경 진흥원에 ‘(사)성장과나눔시민협의회’에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시시콜콜 사업 추가공모를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 사실(참고인 OOO, 이OO의 각 진술)
- ② ‘(사)성장과나눔시민협의회’는 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단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실(참고인 OOO의 진술 및 첨부자료, 참고인 OOO의 진술)
- ③ 위 사업은 7월경 신규사업 지원이 완료되었고, 기존 선정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을 해야 하는 시기라 추가공모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사실(참고인 OOO, OOO의 각 진술)
- ④ 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흥원 OOO는 이OO 팀장의 요청으로 ‘(사)성장과나눔시민협의회’의 사업계획서(신청서)에 대한 수정사항을 전달하였는데, 지원단체가 지원자의 신청서를 수정해주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참고인 OOO의 진술 및 첨부자료)
- ⑤ 이OO 팀장은 심사위원들에게 해당 단체를 선정하게 요청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진흥원 직원인 OOO가 거짓 진술할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업에 ‘(사)성장과나눔시민협의회’가 최종 선정된 사실(참고인 이OO, OOO의 각 진술)
- ⑥ 위 단체를 선정해 달라는 광주 지역구 의원실의 청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위 단체 선

27) 한편 ‘(사)성장과나눔시민협의회’의 경우 다음해인 2016.에는 동일사업에서 청와대 및 국정원이 배제를 지시한 블랙리스트 대상단체였다는 사실이 앞서 확인된 바 있다.

28) 본 보고서 37면, 참고인 OOO의 진술 중 “성장과나눔시민협의회 경우 의원실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내에서 논의를 하여 선정이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위 단체의 경우 2016년에 블랙리스트 단체로 지시가 내려와 탈락이 되어서 저희가 의원실에 탈락 사유를 설명 하러 가기도 했었습니다”(2018. 4. 26.자 OOO 진술조서 14-15면) 부분 참조.

정을 위해 추가공모를 실시한 것이라는 문체부 000의 진술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이 사건 조사를 통해 진흥원 2016년 4개 사업에 대해 청와대 및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배제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른 문체부의 배제이행이 있었다는 사실²⁹⁾이 규명되었고, 이와 동시에 각 사업에서 진흥원 직원 일부의 배제지시 회피노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진흥원은 타 기관에 비해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의 다수 담당자가 진흥원을 담당·관리함에 따라, 논의체계 과정이 복잡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 작동이 이 사건 사업의 특정 시기 외에도 관행적으로 부당한 개입을 통해 지속되어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문체부의 업무상 관리와 개입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운영되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체부와 진흥원의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문체부의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는 조사결과에 비추어보면, 위 조사대상 사업 뿐 아니라 진흥원 사업 전반에서 이 사건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단체 및 개인을 배제한 사례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이러한 부당한 개입에 따른 배제 작동이 어떤 경위로 얼마나, 어떻게 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진상규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조사위 조사기간의 한계로, 진술을 거부하는 진흥원 직원³⁰⁾, 문체부 담당자(특히 과장 이상의 상급자) 및 전(前) 진흥원장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바, 이 사건 조사에서 진상규명되지 못했으나 블랙리스트 혹은 부정한 청탁 등의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바탕으로 추후 기관감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문체부의 진흥원을 통한 구체적 배제지시 경위 및 블랙리스트 작동 관련 진흥원 내 조력자 등)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29) 한편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예술강사 모집)과 관련하여, 전국예술강사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리스트에 기재된 12명을 특정하기가 어려웠으며, 노조가 요청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여도 임금체불신고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탈락한 사실을 명백히 밝히기엔 한계가 있었다.

30) 진흥원 박OO 본부장의 경우 조사거부로 당사자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타 진흥원 직원 등의 진술에 의해 2014 시시콜콜 사업에서의 비위행위 사실에 대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바, 감사를 통해 추가적인 조사와 그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9

국립현대무용단 부당개입 사건



49

국립현대무용단 부당개입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공13[국립현대무용단 부당개입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조사의 취지

신청인이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재직하였던 기간(2014. 7.~2016. 11.) 동안 있었던 부당한 사례들(〈이미아직〉 프랑스 초청 공연에서 주재환 작가에 대한 문제제기, 평창동계올림픽 무용감독 내정 취소 및 동계올림픽 광고의뢰 취소, 2015년 밀라노 엑스포 〈불쌍〉(안애순 안무) 공연 취소, 2016.11월 예술감독 해임)이 신청인이 주재환 등 블랙리스트 작가들과 협업하였기 때문인지 밝히고자 한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신청인이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재직하는 동안 2016년 한·불 상호교류의 해 프랑스 초청 공연 〈이미아직〉에서 국정원의 문제제기를 받은 문체부 예술국의 압력을 받아 주재환 작가를 배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무용감독으로 내정되었으나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배제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신청

인은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직에서도 연임 배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붙임 : [국립현대무용단 부당개입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공13 [국립현대무용단 부당개입 사건]

[신청인] 안애순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이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재직하였던 기간(2014. 7.~2016. 11.) 동안 있었던 부당한 사례들[〈이미아직〉 프랑스 초청 공연에서 주재환 작가에 대한 문제제기, 평창동계올림픽 무용감독 내정 취소 및 동계올림픽 광고의뢰 취소, 2015년 밀라노 엑스포 〈불쌍〉(안애순 안무) 공연 취소, 2016.11월 예술감독 해임]이 신청인 안애순 감독의 작업에 주재환, 박찬경 등 블랙리스트 작가들이 협업하였기 때문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따라 2017년 11월 3일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신청인이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재직하였던 기간(2014.7.~2016.11) 동안

있었던 부당한 사례들[<이미아직> 프랑스 초청 공연에서 주재환 작가에 대한 문제제기, 평창동계올림픽 무용감독 내정 취소 및 동계올림픽 광고의뢰 취소, 2015년 밀라노 엑스포 <불쌍>(안애순 안무) 공연 취소, 2016.11월 예술감독 해임]이 신청인 안애순 감독의 작업에 주재환, 박찬경 등 블랙리스트 작가들이 협업하였기 때문인지 밝히고자 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31건에 대하여 입수 및 검토함.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국립현대무용단 정관		2017. 11. 14.	
2	출연자 및 제작진 운영규정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3	제17차~24차 이사회 결과보고 및 회의록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4	2014~2016 경영실적보고서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5	2014~2016 주요 업무계획 및 성과보고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6	2013~2017 사업계획 및 예산명세서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7	2013년 정기공연1 “이미아직” 기본계획(안)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8	2014 방방곡곡 공동제작(구리) 결과보고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9	2014 방방곡곡 공동제작(군포) 결과보고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10	2014 방방곡곡 공동제작(대구) 결과보고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11	2014 방방곡곡 공동제작(아르코대극장) 결과보고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12	2014 방방곡곡 공동제작(오산) 결과보고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13	이미아직 프로그램북(2014_아르코대극장)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14	2015년 레퍼토리1<이미아직> 기본계획(안)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15	국립현대무용단 2015년 레퍼토리1 <이미아직> 결과보고서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16	이미아직_프로그램북(2015_CJ토월극장)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17	2016년 레퍼토리1 <이미아직> 기본계획(안)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18	국립현대무용단 2016년 레퍼토리1 <이미아직> 결과보고서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19	이미아직 프로그램북(2016_CJ토월극장)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20	2016년 해외공연1(프랑스) 기본계획(안)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21	국립현대무용단 2016년 해외공연1(프랑스) <이미아직(AlreadyNotYet)> 결과보고서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22	이미아직_브로슈어(2016_프랑스)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23	2016년 해외공연2(벨기에) 기본계획(안)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24	국립현대무용단 2016년 해외공연2(벨기에)<이미아직(AlreadyNotYet)> 결과보고서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25	2016년 해외공연3(벨기에) 기본계획(안)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26	국립현대무용단 2016년 해외공연3(벨기에)<이미아직(AlreadyNotYet)> 결과보고서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27	K1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국립현대무용단 발간 책자
28	K2	국립현대무용단	2017. 11. 14.	국립현대무용단 발간 책자
29	리스트-'16.9.27.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30	전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2017. 10. 30.)	국정원		
31	서울중앙지검 오OO 2회 진술조서	서울중앙지검		본인 동의하에 수령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5인에 대하여 6회에 걸쳐 조사함.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안애순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2016)	1회 진술조서(2017. 10. 10.)
2	김OO	국립현대무용단	1회 진술조서(2017. 9. 20.)
3	안애순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2016)	2회 진술조서(2017. 11. 3.)
4	임OO	문체부 공연예술전통과장	1회 진술조서(2018. 1. 23.)
4	최OO	한·불 수교 예술감독	1회 진술조서(2018. 1. 25.)
5	B	문체부 예술국장	1회 진술조서(2018. 3. 23.)
6	송OO	평창동계올림픽 총감독	사실확인서(2018. 4. 11.)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현대무용단은 한국을 대표하여 2010년 창단한 국내 유일의 국립현대무용단체이다. 창작역량을 지닌 예술가들과 함께 춤을 통해 동시대의 역사와 사회,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역과 세대를 아울러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한국적 컨템포러리 댄스를 지향하고 있다.¹⁾

국립현대무용단은 현대무용작품의 창작과 인재양성을 통하여 현대무용예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현대무용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²⁾

나. 국립현대무용단 제작공연 <이미아직>

(1) 사업목적

국립현대무용단 안애순 예술감독의 신작 발표를 통해 한국 현대무용계를 대변하는 완성도 높은 창작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국립예술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창작단체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국내외 최고의 아티스트 및 제작진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적 전통에 기반한 국가브랜드공연을 제작하고, 향후 지방문예회관 공동제작 및 해외 주요 극장 및 페스티벌 초청공연 레퍼토리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³⁾

(2) 추진방향

한국의 전통 장례문화에서 나타나는 삶과 죽음의 매개적 존재인 ‘꼭두’를 모티프로, 죽음에 대한 동양적 세계관을 펼쳐내며, 미술, 애니메이션, 영상, 설치미술 등 현대적 매체로 재해석하여 한국적 현대무용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작품을 제작하고, 한국 미술

1) 국립현대무용단 홈페이지.

2) 국립현대무용단 정관 제3조(목적)

3) 국립현대무용단 기획팀, 2013년 정기공연1 “이미아직” 기본계획(안), 1쪽. 2013.1.29.

의 거목으로 도깨비의 유머와 몽환적인 세계를 자유롭게 그려온 작가 주재환, 음악동인 고물의 활동을 통해 국악의 새로운 차원을 실험하는 이태원, 전통 가곡의 현대적 갱신으로 호평을 받아온 박민희, 프랑스 정상급 조명디자이너 에릭 워츠(Eric Wurtz) 등 국내외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한국 현대무용계를 대표하는 레퍼토리를 제작하고자 하였다.⁴⁾

(3) <이미아직> 공연 경과

국립현대무용단 제작 <이미아직>(안애순 안무)은 2014년 5월 15일 ~ 18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초연⁵⁾한 후 구리, 군포, 대구, 오산 등에서도 공연하였다.

2015년 4월 24일~26일에는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재공연하였다.⁶⁾

2016년 4월 1일~2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재공연⁷⁾한 후 2016년 6월 9일 파리 샤요국립극장에서 공연하였고⁸⁾ 2016년 6월 14일 벨기에 리에주국립극장 공연⁹⁾, 2016년 6월 17일 루마니아 시비우 옥타비안 고가홀에서도 공연하였다.¹⁰⁾

(4)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프랑스 샤요국립극장 초청공연 <이미아직>¹¹⁾

(가) 사업목적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 최고의 무용 전용 극장인 샤요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에서 초청공연 <이미아직>을 올림으로써 한국 전통문화 및 한국 현대무용의 예술적 성과를 소개하고 국립예술단체로서의 위상 제고
- 세계 정상급 무용 전용 극장에서의 공연을 통해 유럽 관객과의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향후 유럽 권 무용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

4) 국립현대무용단 기획팀, 2013년 정기공연1 “이미아직” 기본계획(안), 1쪽. 2013. 1.29.

5) 국립현대무용단 2014년 정기공연1 <이미아직> 결과보고서, 1-3쪽.

6) 국립현대무용단 2015년 레퍼토리1 <이미아직> 결과보고서, 1-3쪽.

7) 국립현대무용단 2016년 레퍼토리1 <이미아직> 결과보고서 1-3쪽.

8) 국립현대무용단 2016년 해외공연1(프랑스) <이미아직(AlreadyNotYet)> 결과보고서, 1-2쪽.

9) 국립현대무용단 2016년 해외공연2(벨기에) <이미아직(AlreadyNotYet)> 결과보고서, 1-2쪽.

10) 국립현대무용단 2016년 해외공연3(루마니아) <이미아직(AlreadyNotYet)> 결과보고서, 1-2쪽.

11) 국립현대무용단 기획팀, 2016년 해외공연1(프랑스) 기본계획(안), 1쪽. 2016. 5.13.

(나) 추진방향

- 국립현대무용단의 2014년 신작 레퍼토리 공연작 〈이미아직〉을 프랑스 샤요국립극장(Theatre National de Chaillot)에서 실시, 프랑스 내 인지도 높은 극장으로부터 공연초청을 받음으로써 단체의 위상을 재확인
- 세계 무용계 중요 인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극장에서 공연을 올림으로써 국립현대무용단의 활동의 폭과 성장 가능성을 해외에 알리고, 국내 무용인 및 공연예술인들에게 국제적인 활동 무대의 장을 제공하며, 국제적 시각에서 예술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 마련

(다) 사업내용

- 사업명 : 2016년 해외공연1(프랑스)
- 공연명 : 〈이미아직(AlreadyNotYet)〉
- 일시 : 2016.6.9(목) ~ 6.11(토)
목요일 저녁 7:30 / 금, 토요일 저녁 8:30, 3일 3회 공연
- 장소 : 프랑스 파리 샤요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 내 장빌라극장(Salle Jean Vilar)
- 후원 : 2015-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회
- 안무 : 안애순(예술감독)
- 소요시간 : 80분
- 입장권 : 8~35유로
- 출연·제작진 인원 : 총 35명(무용수 14명, 음악연주 6명, 전통성악 1명, 제작진 11명, 기획·행정 3명)
- 작품내용 : 한국의 전통 장례문화에 등장하는 '꼭두'를 모티프로, 변신과 비인간, 경계적 세계의 샤머니즘 미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업. 〈이미아직〉은 '몸은 이미 죽었으되, 영혼은 아직 떠나지 못한' 죽음 직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죽은 자의 삶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몫으로 남아있음을 의미. 국내외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여, 한국적 현대무용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작품으로 평가받음.

2. <이미아직> 프랑스 초청 공연에서 주재환 작가가 배제된 것인지에 대하여

가. 문건 등 자료조사

(1) 리스트-'16.9.27.현재

국립현대무용단	프랑스초청공연	OK에서 문제제기: 시각예술 주재환(도깨비난장주제)
'이미아직' (4월초)		

(리스트-'16.9.27.현재. 5쪽)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이 관리한 '리스트-'16.9.27.현재' 문서에 따르면 국립현대무용단 제작 <이미아직> 프랑스 초청 공연에 대하여 국정원에서 주재환 작가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국정원이 작성한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 249명 명단 중 연번 72번 중에서 미술 분야 주재환 작가가 2010년 노나메기재단 설립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B'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¹²⁾

72	미술	주재환	10.10 「노나메기재단」 설립 추진위원	B
----	----	-----	------------------------	---

(3)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의 명단 중 연번 154번에서 주재환 작가가 확인된다.¹³⁾

154	주재환	도깨비 난장	문체부 자료
-----	-----	--------	--------

12) 국정원 적폐청산 T/F, '전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붙임 16. 2017. 10. 30.

13) 국정원 적폐청산 T/F, '전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붙임 17. 2017. 10. 30.

(4) 서울중앙지검 오OO 2회 진술조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은 위원회가 본인 동의서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입수한 2회 진술조서에서, ‘리스트-9.27.현재’에서 “K에서 문제제기: 시각예술 주재환(도깨비난장주재)”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공연할 국립현대무용단의 프로그램 중 <이미아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미술 분야를 담당하였던 사람이 주재환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저에게 “이 사람이 어떤 경위로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연은 이미 3년 전에 제작되었고 당시 미술 감독을 한 사람이 주재환이며 프랑스에서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연을 하였던 사람들은 그대로 다 사용하기 위해 선정된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 이 사람을 교체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국정원에서 주재환이 참가하게 된 계기를 질문한 것인데, ‘문제제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김OO 전무가 단순히 물어본 것이 아니고 문제제기를 한다고 느꼈으니까 제가 문제제기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물어봤다면 ‘문의’라고 했을 것입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김OO 전무가 “왜 이런 사람을 지원했냐”라는 취지로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⁴⁾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1) 참고인 안애순의 1~2회 진술

참고인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안애순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 4월 혹은 5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미아직> 공연이 프랑스 재공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2016.4.1.~4.2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이미아직> 재공연을 마친 직후였고, 프랑스 샤이오 국립극장 공연전이었습니다. B 국장을 정OO 전 정동극장장과 함께한 어느 자리에서 만났는데, B 국장은 주재환 선생님을 어떻게 알게 됐고, 왜 <이미아직> 공연에서 같이 하게 됐는지 배경과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아직>이란 작품이 죽음에 관한 것이었고, 꼭두 이미지와 낯선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현대 작가로서 도깨비 이미지를 찾고 있었는데 주재환 선생님의 도깨비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과 어울린다고 판단되어서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 분(주재환)이 일흔이 넘으신 분

14) 서울중앙지검 오OO 2회 진술조서, 31쪽.

이고 순수하게 작품과 관련하여 모신 것이고 페이도 매우 적었고 우리가 그분의 작품 이미지만을, 영상이나 포스터만을 쓴 것이고 작품 제작과는 관련 없었다고, 작품을 빌려온 데 비하면 비용은 너무 적게 드렸고, 문광부에 대해서 이러한 어른에 대해서 묻거나 문제시 하는 것은 문광부가 우습게 보이지 않겠는가 하고 대답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⁵⁾

안애순 예술감독은 또 “C 사무관이 B 국장 보다 1-2주 먼저 물어봤습니다. C 사무관이 국립현대무용단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로 기억합니다. B 국장과 같은 내용으로 물어봤습니다. 주재환 감독과 왜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지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B 국장에게 대답했던 것과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이미아직>이란 작품이 죽음에 관한 것이었고, 꼭두 이미지와 낫전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현대 작가로서 도깨비 이미지를 찾고 있었는데 주재환 선생님의 도깨비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그 작품과 어울린다고 판단되어서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분(주재환)이 일흔이 넘으신 분이요 순수하게 작품과 관련하여 모신 것이고 페이도 매우 적었고 우리가 그분의 작품 이미지만을 영상이나 포스터에 쓴 것이고 작품 제작과는 관련 없었다고, 작품을 빌려온 데 비하면 비용은 너무 적게 드렸고, 문광부에 대해서 이러한 어른에 대해서 묻거나 문제시 하는 것은 문광부가 우습게 보이지 않겠는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B 국장과 마찬가지로 노코멘트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⁶⁾

안애순 예술감독은 또 B 예술국장이 주재환 작가가 <이미아직> 공연에 참여한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주재환 작가가 뭔가 박근혜 정부와는 반대되는 인물인 모양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C 사무관이 똑같은 질문을 한 바가 있었고, 또 다시 문체부 예술국장의 질문까지 받게 되었기 때문에 모종의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B 예술국장에게 “문광부에서 자꾸 그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나에게 묻는 것은, 문광부가 이 사안에 너무 크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문광부가 왜 이렇게 예민하냐, 그렇게 하면 문광부가 더 우습게 보이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¹⁷⁾

안애순 예술감독은 또 “문광부가 C 사무관과 B 국장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주재환 작가가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저에게 문의를 하였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재환 작가님이 당시 정부가 기피하는 작가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고,

15) 안애순 1회 진술조서, 3-4쪽. 2018.10.10.

16) 안애순 1회 진술조서, 6-7쪽. 2018.10.10.

17) 안애순 2회 진술조서, 3-4쪽. 2017.11. 3.

C 사무관과 B 국장이 주재환 작가의 참여 경위에 대하여 문의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저로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미아직> 공연 제작 과정에서 리서치에 큰 도움을 주었던 김OO 씨가 프랑스 샤이오 국립극장 공연에 주재환 작가님을 모시고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몇 번이나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은 문광부가 저에게 주재환 작가에 대해서 두 번이나 문의했던 사실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재환 작가님을 프랑스 공연에 모시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재환 작가님만 빼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아직>의 제작진 중 일부 스태프들도 예산상의 문제로 함께 가지 못하게 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당시 주재환 선생님께서는 당시 프랑스 공연에 함께 가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셨는데, 제가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프랑스 공연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샤이오 국립극장 초청 공연이 처음 결정되었을 때부터 주변에서 주재환 선생님에게 “이제 프랑스에 가시게 되었네요.”라고 여러 번 말을 해서 선생님 스스로도 당연히 가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던 상황이었습시다.”라고 진술하였다.¹⁸⁾

안애순 예술감독은 또 <이미아직> 공연이 2016.6.9~6.11 프랑스 샤이오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하였을 때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가 국립예술단체인 국립현대무용단의 공연 홍보와 리셉션 공동주최 등의 협조요청을 거절하였는데, 공식적인 국가 대 국가 간의 수교행사에서 대사가 공무원으로서 이 공연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는데 당시 모철민 대사는 공연이 끝난 다음 리셉션에만 참석하였고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⁹⁾

(2) 참고인 임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임OO는 <이미, 아직> 공연에 대하여 국정원에서 참여 작가인 주재환 작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사실과 관련하여, “국정원 당시 IO에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IO는 작품에 나오는 디자인을 확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끝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²⁰⁾

18) 안애순 2회 진술조서, 4-5쪽. 2017.11. 3.

19) 안애순 1회 진술조서, 5쪽. 2017.10.10.

(3) 참고인 B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국장 B은 위원회 조사에서 (가) 국립현대무용단 제작 공연 <이미, 아직> 공연과 관련하여, 프랑스까지 가서 호평 받았던 기억은 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기억은 없고, (나) 오OO 서기관 혹은 임OO 과장으로부터 이 작품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고, (다) 오OO 서기관이나 임OO 공연전통예술과장이 자신에게 주재환 작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¹⁾

(4) 참고인 최OO의 진술

참고인 최OO 한·불 상호교류의 해 예술감독은 위원회 조사에서 프랑스 쪽에서 홍보를 제대로 잘 했고 샤키오 극장은 만석이였다고 하면서, 공연에 가지 않아서 리셉션 거절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²⁾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무용감독 내정 취소 및 동계올림픽 광고 취소에 대하여

가. 문건 등 자료조사

안애순 감독이 동계 올림픽 개막식 무용감독에 내정되었다가 취소된 사실이나 동계 올림픽 광고를 의뢰 받았다가 취소된 사실을 입증하여 주는 문서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1) 신청인 안애순의 진술

신청인 안애순 예술감독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무용 감독으로 내정되어 2회에 걸친 제작진 회의까지 진행하였으나 어느 날 회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송OO 총감독에게 전화를 했더니, 김종덕 장관이 송OO

20) 임OO 1회 진술조서, 13쪽. 2018. 1. 23.

21) B 진술조서, 7쪽. 2018. 3. 23.

22) 최OO 1회 진술조서, 27쪽. 2018. 1.25.

총감독에게 “내 뜻이 아니라 윗사람의 뜻이라 어쩔 수 없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혹시 저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저는 빠져도 좋으니 저를 신경 쓰지 마시고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²³⁾

안애순 감독은 2016년 1월 2일 경 문체부 B 예술국장이 동계올림픽 광고제작을 자신에게 의뢰하였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고 하면서, “겨울에 20일 넘게 작업을 마쳤고 음악 작곡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찍기 전에 연습실에서 B 국장이 우리가 만들어놓은 광고 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음악에서, 싸이 같은 노래를 원했는데 그런 음악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광고를 취소하게 된 이유를 음악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당시 작곡가는 블랙리스트 성기완 씨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B 국장은 윗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다들 아니라고 하더라고 하였다. 윗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그냥 ‘있다’고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²⁴⁾

(2) 참고인 B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B 예술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동계올림픽 관련 플래쉬몹 광고를 의뢰하였다가 음악과 무용이 문체부가 지향하는 콘셉트과 맞지 않아서 중단하였을 뿐 블랙리스트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⁵⁾

(3) 참고인 송OO의 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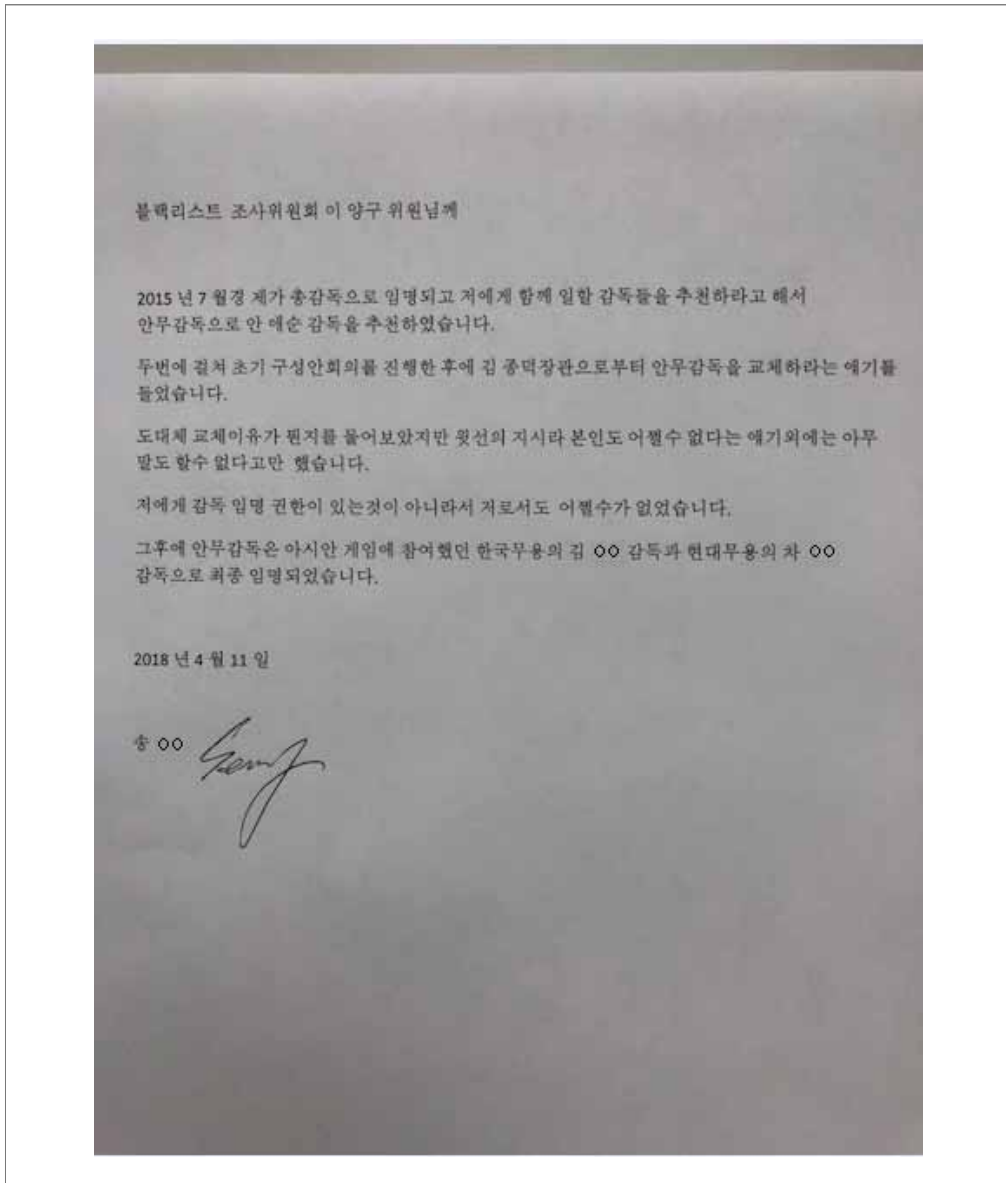
참고인 평창동계올림픽 총감독 송OO은 2018년 4월 11일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2015년 7월 경 제가 총감독으로 임명되고 저에게 함께 일할 감독을 추천하라고 해서 안무 감독으로 안애순 감독을 추천하였습니다. 두 번에 걸쳐 초기 구성안 회의를 진행한 후에 김종덕 장관으로부터 안무 감독을 교체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교체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았지만 윗선의 지시라 본인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저에게 감독 임명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후에 안무 감독은 아시안 게임에 참여했던 한국무용의

23) 안애순 1회 진술조서, 8쪽. 2017.10.10.

24) 안애순 1회 진술조서, 9쪽. 2017.10.10. 2015. 신청인이 제출한 조사 신청서에 따르면, 안애순 감독이 송OO 감독과 2차례 만나고 동계 올림픽 개막식 안무감독의 제안을 받은 것은 2015년 8월 경이다.

25) B 1회 진술조서, 7-8쪽. 2018. 3. 23.

김○○ 감독과 현대무용의 차○○ 감독으로 최종 임명되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²⁶⁾



26) 송○○ 사실확인서, 1쪽. 2018. 4. 11.

4. 안애순 예술감독이 연임 배제된 것인지에 대하여

가. 문건 등 자료조사

안애순 예술감독이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직에서 연임되지 않은 것이 배제 조치에 따른 것인지를 보여주는 문서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1) 신청인 안애순의 진술

신청인 안애순 예술감독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 7월 혹은 8월 경 B 국장에게 ‘이 정권에서 국립예술단체들의 연임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2016년 7월 경 임기가 끝난 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2016년 12월 1일 경 후임자가 오면서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안호상 국립극장장이나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은 연임이 되었고, 안애순 감독도 연임이 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주재환 작가와 협업 작업을 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연임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의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⁷⁾

(2) 참고인 B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국장 B은 위원회 조사에서, 안애순 감독이 연임되지 않은 이유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정치적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누구도 자신에게 안애순 감독의 정치적 성향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던 사실은 없었고, 안애순 감독이 연임 되지 않은 특별한 결점이나 극단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⁸⁾

27) 안애순 1회 진술조서, 11쪽. 2017.10.10. 안애순 2회 진술조서, 6쪽. 2017.11. 3.

28) B 1회 진술조서, 7쪽. 2018. 3. 23.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이미아직> 프랑스 초청 공연에서 주재환 작가가 배제된 것인지 여부

국정원이 작성한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 249명’에서 주재환 작가가 ‘B’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²⁹⁾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 명단에서 주재환 작가가 확인되는 점,³⁰⁾ 문체부 오OO 서기관이 관리한 ‘리스트-’ 16.9.27.현재’에서 국립현대무용단 제작 <이미아직> 프랑스 초청 공연에 대하여 국정원에서 주재환 작가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 점, 오OO 서기관이 국정원 IO가 주재환 작가의 참여 경위를 단순히 물어본 것이 아니고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³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주재환 작가는 프랑스 공연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 조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임OO 공연전통예술과장이 작품에 나오는 디자인을 확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면서 확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끝났다고 진술하고 있고,³²⁾ B 예술국장도 <이미, 아직> 공연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던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안애순 예술감독 스스로 문체부가 주재환 작가의 참여 경위를 문의한 데 대하여 심적인 부담을 느껴 프랑스 공연에서 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³³⁾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문체부가 주재환 작가가 <이미아직> 공연에 참여한 데 대한 문의를 하자 심리적 압박을 받은 국립현대무용단 안애순 감독이 주재환 작가를 배제 조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9) 국정원 적폐청산 T/F, ‘전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붙임 16. 2017. 10. 30.

30) 국정원 적폐청산 T/F, ‘전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붙임 17. 2017. 10. 30.

31) 서울중앙지검 오OO 2회 진술조서, 31쪽.

32) 임OO 1회 진술조서, 13쪽. 2018. 1. 23.

33) 안애순 2회 진술조서, 4-5쪽. 2017.11. 3.

나. 동계올림픽 개막식 무용감독 내정 취소 경위

신청인 안애순 감독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무용 감독으로 내정되어 2회에 걸친 제작진 회의까지 진행하였으나 송OO 총감독이 김종덕 장관이 “내 뜻이 아니라 윗사람의 뜻이라 어쩔 수 없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듣고 스스로 무용감독직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³⁴⁾ 송OO 동계올림픽 총감독도 2015년 7월 경 총감독으로 임명된 후 안애순 감독을 추천한 후 두 번에 걸쳐 초기 구성안 회의를 진행한 후 김종덕 장관으로부터 안무 감독을 교체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교체 이유가 물어보았으나 윗선의 지시라 본인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만 하여서 어쩔 수 없이 안애순 감독을 교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³⁵⁾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안애순 감독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무용감독으로 내정되었다가 청와대 지시³⁶⁾에 따라서 배제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던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안애순 예술감독이 연임 배제된 것인지 여부

신청인 안애순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이 2016년 7월 경 임기가 끝난 이후 연임이 되지 않은 것이 블랙리스트인 주재환 작가와 협업을 하였기 때문인지에 대하여는 진상 규명하지 못하였다. 신청인 안애순 감독은 연임이 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안호상 국립극장장이나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은 연임이 되었던 반면 자신이 연임되지 않은 것은 주재환 작가와 협업 작업을 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³⁷⁾ 문체부 B 예술국장도 안애순 감독이 연임 되지 않은 특별한 결점이나 극단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³⁸⁾ 송OO 평창동계올림픽 총감독이 2015년 8월 경 김종덕 장관이 ‘윗선의 지시’라며 안애순 감독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무용감독에서 교체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³⁹⁾

34) 안애순 1회 진술조서, 8쪽. 2017.10.10.

35) 송OO 사실확인서, 1쪽. 2018. 4. 11.

36) 문체부 장관의 ‘윗선’이라면 청와대 지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7) 안애순 1회 진술조서, 11쪽. 2017. 10. 10. 안애순 2회 진술조서, 6쪽. 2017. 11. 3.

38) B 1회 진술조서, 7쪽. 2018. 3. 23.

39) 송OO 사실확인서, 1쪽. 2018. 4. 11.

김종덕 장관이 2016년 9월까지 재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김종덕 장관의 재임 시기 동안 안애순 감독이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에서 연임에서 배제된 것은 김종덕 장관이 ‘윗선’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이유였을 것이라는 점은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인 배제 사유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동계올림픽 광고제작 취소 경위

신청인 안애순 감독은 2016년 1월 2일 경 문체부에서 의뢰하였던 광고제작과 관련하여 문체부 B 국장이 윗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다들 아니라고 하더라고 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⁴⁰⁾ 문체부 예술국장 B은 안애순 감독에게 광고를 의뢰하였다가 중단한 것은 문체부가 지향하는 콘셉트와 맞지 않아서 중단하였을 뿐 블랙리스트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⁴¹⁾ 문체부가 안애순 감독에게 의뢰하였던 광고를 취소한 것이 배제조치인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2015년 밀라노 엑스포에서 <불쌍>(안애순 안무) 공연이 취소된 경위

이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40) 안애순 1회 진술조서, 9쪽. 2017.10.10. 2015. 신청인이 제출한 조사 신청서에 따르면, 안애순 감독이 송OO 감독과 2차례 만나고 동계 올림픽 개막식 안무감독의 제안을 받은 것은 2015년 8월경이다.

41) B 1회 진술조서, 7-8쪽. 2018. 3. 2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50

한국연극인복지재단 ‘2015 찾아가는 연극’ 검열 배제 사건



50

한국연극인복지재단 ‘2015 찾아가는 연극’ 검열 배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공25【한국연극인복지재단 ‘2015 찾아가는 연극’ 검열 배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이해성은 2015. 6.~7.경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의 ‘찾아가는 연극’ 사업에 지원했으나 최종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이후 2016.말경 연극인복지재단 직원들이 신청인을 찾아와 위 심사과정 당시 신청인 단체 등 특정 단체들에 대한 검열이 있었고, 이에 따라 극단 고래가 부당하게 탈락한 것이라는 점을 알리며 사과하였다. 신청인은 당시 연극인복지재단이 위 사업에서 신청인 단체를 부당하게 탈락시키게 된 경위, 관련자 등 진상을 알고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조사신청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이 사건 조사를 통해 이 사건 사업 면접심사 직전 문체부에서 연극인복지재단에 신청인 단체 등 일부 단체에 대해 ‘미정산 또는 횡령’ 등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탈락시

킬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 단체가 공정한 심사기회를 얻지 못한 채 이 사건 사업에서 탈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문체부 관련자들은 모두 해당사안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구체적 정황 및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해당사건은 블랙리스트 작동에 따른 배제 사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되며, 신청인 단체는 문체부의 부당한 배제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서 탈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붙임:【한국연극인복지재단 ‘2015 찾아가는 연극’ 검열 배제 사건】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공25 한국연극인복지재단 ‘2015 찾아가는 연극’ 검열 배제 사건

[신청인] 이해성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이해성(이하 ‘신청인’)은 ‘극단 고래’ 대표로, 2015. 6.~7.경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하 ‘연극인복지재단’)의 ‘찾아가는 연극’ 사업에 지원했으나 최종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이후 2016.말경 연극인복지재단 직원들이 신청인을 찾아와 위 심사과정 당시 신청인 단체 등 특정 단체들에 대한 검열이 있었고, 이에 따라 극단 고래가 부당하게 탈락한 것이라는 점을 알리며 사과하였다. 신청인은 당시 연극인복지재단이 위 사업에서 신청인 단체를 부당하게 탈락시키게 된 경위, 관련자 등 진상을 알고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에 2017. 11. 1. 조사신청 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 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있어 2017. 11. 17. 조사개시 결정되었다.

나. 조사의 목적(규명과제)

① 신청인 및 신청인 단체가 문체부 등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이 있는지 ② 신청인 및 신청인 단체가 연극인복지재단의 ‘2015 찾아가는 연극’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해 부당하게 배제된 사실이 있는지 ③ 블랙리스트 작동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 경위 및 관련자가 누구인지 규명이 필요하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21건에 대하여 입수 및 검토함.

[표-1]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입수일	비고
1	한국일보, 2016. 10. 12.자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기사	2017. 8.	
2	문체부 예술정책과 「16. 2. 1. 현재」	2017. 8.	
3	국정원, 2017. 10. 30.자「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2017. 11.	
4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150624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5	김OO에 대한 2017. 6. 5.자 증인신문 녹취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6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Oh & KIM 수기 가필 문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7	연극인복지재단 2016. 3. 14.자 공고 '2015년 6월 재정보고'	2017. 12.	
8	「재단법인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정관」	2017. 12.	
9	[연극인복지재단]찾아가는 연극_결과보고_0408.	2017. 12.	
10	연극인복지재단 2015. 7. 30.자 공고 '[공지] 최종 합격팀 공지'	2017. 12.	
11	연극인복지재단 '2015년 '연극인 일자리지원사업 <찾아가는 연극> 참가단체 선발에 관한 경위서' 및 '(별첨1) <찾아가는 연극> 2차 서류합격팀'	2017. 12.	
12	연극인복지재단 2017. 1. 20.자 제32차 이사회 회의록	2017. 12.	
13	연극인복지재단 2017. 5. 31.자 제33차 긴급이사회 회의록	2017. 12.	
14	연극인복지재단 '3. 찾아가는 연극 면접 심사평(하OO, 이OO, 성OO)'	2017. 12.	
15	연극인복지재단 '최종선정팀'	2017. 12.	
16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회 명단(변경 전)	2017. 12.	
17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회 명단(변경 후)	2017. 12.	
18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 관리 9,473명 명단	2018. 1.	

연번	서명	입수일	비고
19	문체부 기획행정담당관 2018. 3. 29.자 시행 '기획행정담당관-1972(2018. 3. 29.)호 '사실조회 요청'(수신: 예술정책과장)	2018. 3.	
20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8. 4. 10.자 시행 '예술정책과-1393호(2018. 4. 10.)' 사실조회 요청 회신' 각 공문	2018. 4.	
21	참고인 이OO 및 진상조사위 전문위원 김OO 사이 20.자 문자메시지	2018. 4.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11인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조사함.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이OO	연극인복지재단 사무국장 (2012. 12.~2017. 9.)	진술조서(2017. 11. 16.)
2	이해성	사건 신청인	진술조서(2017. 11. 28.)
3	백OO	이 사건 사업 탈락자 중 1인	진술조서(2017. 12. 1.)
4	오OO	연극인복지재단 상임이사 (~2017. 5.)	진술조서(2017. 12. 6.)
5	이OO	연극인복지재단 이 사건 사업 담당 간사 (2014. 1.~2016. 11.)	2017. 12. 7.자 진술녹음 녹취록
6	O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주무관 (2015. 7. 1.~2017. 2. 27.)	진술서(2018. 1. 22.)
7	J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2015. 4. 7.~2015. 8. 23.)	진술서(2018. 1. 22.)
8	차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2015. 7. 24.~)	진술조서(2018. 1. 30.)
9	O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주무관 (~ 2015. 7. 1.)	유선면담 보고(2018. 3. 9.자)
10	이OO	문체부 예술정책과 과장 (2015. 5.~2016. 12.)	진술서(2018. 3. 22.)
11	오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서기관 (2012. 4.~2016. 8.)	유선면담 보고(2018. 4. 17.자)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재단법인 한국연극인복지재단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은, 연극예술인들 사이 상호협동과 친목 도모 및 연극예술 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장학사업 등 추진을 목적¹⁾으로 2005.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단법인이다. 연극예술인들에 대한 의료지비원, 일자리지원, 원로연극인자립지원, 무료 법률상담 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²⁾, 운영재원은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방송발전기금 등 관련 기금의 보조금과 기부금,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 보조금·찬조금·기부금, 수익사업의 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³⁾⁴⁾된다.

해당사건 당시 배우 박정자가 이사장⁵⁾으로 재임⁶⁾(2005.~2017. 10.)하였고, 오OO 극단 노을 예술감독이 상임이사⁷⁾로 재임하였다.

나. 연극인복지재단 <2015 찾아가는 연극> 사업

연극인복지재단 <2015 찾아가는 연극>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은, 연극인에 대한 문화일자리 창출을 통한 부가수입 창출과 사회공헌활동 구현 및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욕구 충족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15. 6.~2016. 1. 진행된 연극인복지재단의 연극인 일자리지원 사업이다.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총 120,000,000원 예산으로 진행됐으며, 공모를 통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총 7개 팀

1) 「재단법인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정관」 제3조

2) 한국연극인복지재단 홈페이지-사업소개, http://plays.or.kr/xe/business_health

3) 「재단법인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정관」 제20조

4) 참고인 이OO은 2017. 11. 16. 위원회 조사에서 연극인복지재단의 운영재원 관련, “초기단계에서 10년간 모은 기부금이 있고, 나머지는 기업 등의 ‘사회복지 공동모금’, 기업들의 지정기탁 사업 등에서 충당됩니다.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후 국고로 진행되는 사업이 생기면서 국고에서도 충당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 11. 16.자 이OO 진술조서 5면).

5) 위 정관 제9조(이사장의 업무) ① 이사장은 본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6) 현재 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은 배우 윤석화이다.

7) 위 정관 제10조(상임이사의 업무)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재단의 업무 전반을 감독한다.

에게 인건비, 제작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직접경비를 최대 2,000만원 가량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⁸⁾

다. 해당사건의 블랙리스트 관련성

해당사건의 경우, 연극인복지재단이 2017. 1. 26. 홈페이지에 [성명문] 2015년 연극인일자리지원사업 ‘찾아가는 연극’ 최종심사에 대한 재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블랙리스트 관련 사과문⁹⁾을 게시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처음 외부에 공개되었다. 위 성명문에는 연극인복지재단이 이 사건 사업 최종심사 당일 문체부 담당자로부터 심사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 ‘정산 불성실 이행 또는 횡령 사실’로 참가자격이 없다는 유선통지를 받아 이를 심사규정에 반영해 진행했다는 내용, 위 사안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그 경위와 입장을 밝힌다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다.

[그림-1] 연극인복지재단 2017. 1. 26.자 [성명문] 2015년 연극인일자리지원사업 ‘찾아가는 연극’ 최종심사에 대한 재단의 입장’

- 다음 -

1. 2015년 7월 30일, ‘찾아가는 연극’ 참가 단체를 선정하는 최종 심사를 진행하기 5분 전, 재단은 문체부의 사업담당 직원으로부터 심사대상자 중 ‘정산 불성실 이행 또는 횡령 사실’로 인해 이 사업에 참가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유선 상으로 통지를 받아 촉박한 심사 일정으로 위 내용을 의심의 여지없이 심사규정에 반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 최근, 재단은 이 일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경위와 입장을 밝힘으로써 예술 검열에 관한 역사기록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있어 재단은 ‘정산 불성실 이행 또는 횡령 사실’에 대하여 문체부에 근거 자료를 요청 하지도, 해당 단체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던 바, 연극인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보호해야 할 재단으로서 대처가 적절치 못 하였음을 인정합니다.
4. 재단은 이 일로 연극인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초래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어떤 경우에도 부당한 외부 개입이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 실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5. 아울러 재단은 이 일을 계기로 진정한 연극인 복지 실현을 위하여 한층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 박경자

8) 연극인복지재단, ‘[연극인복지재단]찾아가는 연극_결과보고_0408.’

9) http://plays.or.kr/xe/news_notice/29634

위 성명문 발표 이후 이와 관련한 문체부의 입장 표명이나 조치는 없었으나, 연극계 등 문화예술계에서는 위 사건이 당시 정부 블랙리스트의 전형적 사안 중 하나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위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밝혀 실제 블랙리스트 작동으로 발생한 사안인지 진상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신청인 및 신청인 단체의 블랙리스트 등재사실

가.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7. 10. 30.자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7. 10. 30.자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문건은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사실을 조사한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2017. 10. 30. 자 보고서로, 위 보고서에 의하면, 문체부는 2013. 9.경부터 국정원과 별도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특정 성향 예술 지원 실태 및 대책 마련 지시’ 관련 대책을 작성· 보고하였는 바, 국정원이 작성한 2013. 9. 3.자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左평향 대응책 보고」문건에는, 문체부가 당시 문화예술계 최근동향으로 2013. 7. 25. ‘노을 소극장’에서 행해진 국정원 정치· 선거개입 관련 ‘연극계 시국선언’에 관한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 위 연극계 시국선언자 명단에서 ‘이해성’이 확인된다.

[그림-2]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7. 10. 30.자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중 2013. 9. 3.자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左평향 대응책 보고」부분

붙임 3. 연극계 시국선언
□ 장소 및 일시 : 2013.7.25, 대학로 노을소극장
□ 공동명의 : 기국서, 김태웅, 박상현, 오세근, 오태영, 윤한솔, 이성열, 이해성, 이호성, 전용환, 채승훈, 최종원

나. 문체부 블랙리스트 문건

(1)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 관리 9,473명 명단

한국일보는 2016. 10. 12. 보도에서, 청와대가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2012년 대선 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시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608명 등 총 9,473명의 예술인에 대하여 검열 용도의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내려보냈다고 보도하였다.¹⁰⁾ 한편 위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명단¹¹⁾에서 '이해성(작가)'이, '문재인 후보지지 연극인 명단'¹²⁾에서 '이해성'이,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문화예술인 909인)' 명단¹³⁾에서 '이해성(연극)'이 각 확인된다.

김기춘 외 3인 1심 형사판결 증거기록 중 특검의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오OO이 위 9,473명 명단에 대하여 "2015. 5.경¹⁴⁾ 당시 김OO 청와대 행정관이 저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알려 주며, 인터넷에서 이 사람들 명단을 확인해서 장관한테 보고하고 교문수석실로 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더니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 등 총 9,473인으로 확인이 되어 이 표로 작성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어 오OO은 자신이 작성한 위 문건을 김OO 국장이 김종덕 장

10)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 2016. 10. 12. 04:40, <http://www.hankookilbo.com/v/0abb634242a64afca79799b09f8564f4>

1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예술인 명단", 한국일보, 2016. 10. 12. <http://www.hankookilbo.com/v/41c20368edff4c1f99096bd448561a3e>

12) "서울연극협회 '문재인 후보 지지 연극인 1000인 선언'", 서울포스트, 2012. 12. 7., <http://www.seoulpost.co.kr/news/22336>

13)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예술인 명단", 한국일보, 2016. 10. 12., <http://www.hankookilbo.com/v/a857d8a53efe4418975e25fc88d8a7e8>

14) 입수 문건의 출력일자 2015. 5. 7.로 표기되어 있으나,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15. 5. 11.)문건에서 "15.4월 현재 9,473건"이라는 표현이 확인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 102 2017. 4. 12. 오OO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오OO이 9,473명의 확인 시기가 4월이라고 한 진술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여(조사기록 제289쪽), 9,473명에 대한 최초 파악시기는 5월이 아닌 4월로 판단된다.

관에게 보고하였고, 보고 후 자신이 메일로 김OO 행정관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5) 위 증거기록 중 특검의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에서 김OO 역시 오OO과 같은 내용을 진술한 사실16)이 확인된다.

(2)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 2. 1. 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 2. 1. 현재」 12면 ‘기존관리 리스트-149명’ 부분에 ‘㉠극단 고래’가 기재돼 있고, 위 문건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262명’ 부분 21면 ‘2015 예술인 맞춤형 교육지원(15.4.13.)- 7명’ 중 ‘㉤임소은(고래)’이 기재돼 있다.

[그림-3]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 2. 1. 현재」 12면 ‘기존관리 리스트-149명’ 부분

<p>연극-고래</p>	<p>①파근초(대전대학교수), ②안지용(호서대학교수), ③배희동1번지, ④극단어셈자, ⑤세백, ⑥극단 팔복길, ⑦그린피그(윤원술), ⑧임인자(병방연극계)</p> <p>○ 추가(2014.10월)</p> <p>①극단 원자부너 ②극단 사니너비 ③극단 그림연극 ④창작극단 사막별의 오로라 ⑤극단 산수유 ⑥극단 보는 마음 ⑦극단 미연 ⑧극단 코티(KOTT) ⑨유희문화아이콘 ⑩극단 김현 ⑪극단 고래 ⑫극단 배수장부 ⑬극단 무비출 ⑭극단 수수파프리카 ⑮극단 산 ⑯ 노태인(가티앙레나)</p>
--------------	--

[그림-4]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 2. 1. 현재」 21면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262명’ 부분

<p>2015 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15.4.13) - 7명</p>	<p>(A)</p>	<p>연극: ①장동효(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안산지부), ②홍민진(극단산), ③유재(극단 김재현), ④송경화(극실합실 레퍼톤스 1번지 6기 동인), ⑤임소은(고래), ⑥홍은지(서울프린지네트워크)</p> <p>음악: ⑦장기(레나)</p>
---	------------	--

(3)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Oh & KIM 수기 가필 문건」17)

특정 예술인 혹은 단체 이름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수기로 추가 예술인 혹은 단체를 가필한 위 문건의 ‘추가(14.10월)’ 부분에 ‘극단 고래’가 기재돼 있다.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4973-4974면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1313-1314면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224면

[그림-5]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Oh & KIM 수기 가필 문건」

결	
클루랄라	추가 (기. 10월)
새벽	
여행자	1. 극단 와자부터
리얼총연구원	2. 극단 사니너머
김성중, 김성규	3. " 그림연극
	4. 창작극단 사마병의 도로라
	5. 극단 산수유
연극	6. " 눈을 보는 마음
차근호(대전대학교수), 안치운(호서대학교수)	7. " 미연
혜화동1번지, 극단 여행자, 극단	8. " 코터 (KOTTE)
극단 골목길, 그린피그	9. (주) 문화아이콘
무용	10. 극단 집현
백영태(평론), 김외곤(상명대학교수)	11. " 고래
음악	12. " 백수광부
홍승찬- 비리연루, 민경찬(한예종교수)	
동명국제음악제 관련, 윤이상 관련	
광주지역 정을성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은 위 「Oh & KIM 수기 가필 문건」에 대해,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사무관이 관리하고 있던 자료로, 원래 공연과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에 본인이 국정원 혹은 청와대에서 알려준 추가명단을 김OO이 전달받아 부기한 것이라고 하면서, 2015. 7.경 자신으로 블랙리스트 명단관리 창구가 단일화되면서 김OO 사무관에게 위 문건을 달라고 해 복사하여 보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¹⁸⁾

(4)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사무관 작성 ‘150624 리스트’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사무관이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을 직접 파일형태로 정리하고 업데이트한 블랙리스트 명단¹⁹⁾²⁰⁾(이하 ‘150624 리스트’)에는, 2015. 6. 24. 기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에서 관리되던 블랙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4972면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공판기록 6453-6454쪽, 김OO에 대한 2017. 6. 5.자 증인신문 녹취서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19036-19039쪽, ‘150624 리스트.hwp’ 문건

리스트 단체 중 하나로 ‘극단 고래’가 기재돼 있다.²¹⁾

[그림-6]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사무관 작성 ‘150624 리스트.hwp’ 문건 중 일부

(이현찬)	(변정주)
극단 미연	극단 고래
(김순영)	(이해성)
극단 사니너머	극단 백수행부
(김학수)	(전일철)
민족춤패 너울	극단 두비춤

다. 신청인의 진술(2017. 11. 28.)

신청인은 2017. 11. 28. 위원회 조사에서,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도 그렇고 이명박 정권 이후부터는(박근혜 정부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극인들이 참여하는 반정부적 서명에 거의 모두 참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 11. 28. 신청인 진술조서 6-7면).

3. 이 사건 사업에서 신청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

가. 이 사건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의혹

(1) 이 사건 사업의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가) 연극인복지재단 2016. 3. 14.자 공고 ‘2015년 6월 재정보고’, 참고인 이OO의 진술 (2017. 11. 16.)

연극인복지재단 2016. 3. 14.자 공고 ‘2015년 6월 재정보고’²²⁾에 의하면, ‘2015년 6월 수입 현황’에 ‘국고보조금 220,000,000원’이 기재돼 있고, [수입내역] 중 ‘2. 국고

21) 위 ‘150624 리스트’는 2015. 8. 14. 참고인 김OO으로부터 참고인 김OO에게 메일로 전달됐으며, 2015. 8. 14.부터 이 사건 사업에서의 배제단체들을 고려하는 주요자료로 위 ‘150624 리스트’가 활용된 사실이 조사과정을 통해 확인됐다(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3. 8.자 진술조서 17면, 박근혜 등에 대한 제1심 공판기록 중 참고인 김OO의 증인신문 녹취서(2017. 12. 12.자) 12-13면,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3. 22.자 진술조서 5면 등)

22) http://plays.or.kr/xe/fin_2015/26160

보조금(사업지원금)에 ‘일자리지원사업-찾아가는 연극, 의료비(2015년) 220,000,000 원’이 기재돼 있다.

[그림-7] 연극인복지재단 2016. 3. 14.자 공고 ‘2015년 6월 재정보고’ 1

2015년 6월 수입 현황		
구분	수입액 (원)	비율 (%)
건물 이월금	985,871,998	71.34
국고보조금	220,000,000	15.92
기부금	174,081,750	12.6
기타	1,941,901	0.14
계	1,381,895,649	100

[그림-8] 연극인복지재단 2016. 3. 14.자 공고 ‘2015년 6월 재정보고’ 2

2 국고보조금 (사업지원금)	
항목	금액
일자리지원 사업 - 찾아가는 연극, 의료비 (2015년)	220,000,000
국고보조금(사업지원금) 합계	220,000,000

(나) 참고인 이OO의 진술(2017. 11. 16.)

참고인 이OO은 2012. 12.~2017. 9. 연극인복지재단 사무국장²³⁾으로 근무한 자이다. 참고인 이OO은 2017. 11. 16. 위원회 조사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연극’ 사업기획서를 작성해서 문체부에 냈고, 문체부에서 토토기금 사업으로 결정하여 국고보조금을 내준

23) 참고인 이OO은 2017. 11. 16. 위원회 조사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총괄은 사무국장이 하고, 보고를 하거나 상의를 드릴 건이 있을 때만 상임이사에게 논의 드리는 구조입니다. 상임이사는 명칭만 상임이사지 상근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고, 다만 사무국장이 모든 사업의 기획 및 경과에 대해 카톡 등으로 상시 연락드리며 상의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 11. 16.자 이OO 진술조서 4면).

것입니다(중략)”라고 진술하면서(2017. 11. 16.자 이OO 진술조서 8면), 이와 같이 국고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진행 경위나 절차를 모두 문체부에 보고하거나 지시감독을 받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진술(위 진술조서 8-9면)하였다.

한편 참고인 이OO은 당시 이 사건 사업 면접심사 심사위원 3인²⁴⁾의 선정경위 관련, “제가 선정했습니다. 모든 사업의 심사는 김OO, 오OO 선생님이 진행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제가 세 분을 섭외했습니다. 이 사업이 소외계층 관객을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진술조서 12면), 해당사업은 2015년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이후에는 진행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7면).

(다) 참고인 이OO의 진술(2017. 12. 7.)

참고인 이OO은 2014. 1.~2016. 11. 연극인복지재단 간사로 근무하며 이 사건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참고인 이OO은 2017. 12. 7. 위원회 조사에서, 이 사건 사업처럼 국고보조금을 받아 외부 심사위원 구성을 통해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은 처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2017. 12. 7.자 이OO 진술녹음 녹취록 4면, 6면, 14-15면), 면접심사 당일 문체부 주무관이 연락한 것 외에 문체부와 사업 진행단계에서 연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위 녹취록 5면), “연극인복지재단에서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거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6면).

(라) 참고인 오OO의 진술(2017. 12. 6.)

참고인 오OO은 이 사건 당시 연극인복지재단 상임이사로 재임한 자이다.

참고인 오OO은 2017. 12. 6.자 위원회 조사에서, “연극인복지재단은 복지 위주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므로 이렇게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의 사업 자체가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 12. 6.자 오OO 진술조서 4-5면).

24) 성OO(한국연극연출가협회 회장), 이OO(서울문화재단 차장), 하OO(장애인문화예술관 대표)
- 연극인복지재단 2017. 12. 20. 제출 ‘면접 심사위원’ 문건

(2) 이 사건 사업 면접심사 과정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의혹

(가) 참고인 이OO의 진술(2017. 11. 16.)

참고인 이OO은 2017. 11. 16. 위원회 조사에서, 2015. 7. 30. 이 사건 사업 면접심사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저는 회의실 안에서 서류 검토하며 심사를 준비 중이었는데 당시 이OO 간사가 전화를 받고 저에게 일이 생겼다며 얘기하였습니다. 문체부 OOO 주무관이 몇몇 단체들이 ‘정산 불성실 또는 횡령사실’이 있으니 지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2017. 11. 16.자 이OO 진술조서 9-10면)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OOO 주무관이 배제단체들을 하나하나 특정해 통지했냐는 질문에,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 그거까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OO 간사가 심사대상 리스트에 배제 단체를 표시한 종이를 저에게 주어서 저는 그것만 봤습니다. 제가 이OO 간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정확한 이유가 뭔지 물어보라고 지시해서 이OO 간사가 다시 물어보니 정산 불성실 또는 횡령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중략)”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10-11면).

참고인 이OO은, 위 내용을 심사위원에게 공지하고 심사에 반영한 경위와 관련하여 “제가 오OO 선생님께 먼저 전화로 보고를 드렸고, 성OO 선생님이 오OO 선생님과 통화를 하신 뒤 성OO 선생님이 다시 심사회의실에 돌아오셔서 저와 심사위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해당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성OO 선생님이 난감해 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일단은 배제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모두 어이없어 하긴 했지만 어쨌든 본인들은 외부 심사위원이고 연복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는 분위기에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중략) 당시 통지된 극단에게 그 자리에서 직접 위 사실을 얘기하며 심사를 하지 않았었다더라면 차라리 떳떳했을텐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아는 상태에서 심사까지 보고 탈락을 시키게 되어 그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12-13면).

참고인 이OO은, 위 사실을 박정자 이사장에게는 언제 보고하였냐는 질문에 “박정자 선생님께는 정확히 언제 보고를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무렵 제가 여러 차례 보고를 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중략)”라고 진술하였고, 이사회에는 2017. 1.경 사과문 작성 시기에 처음 보고됐다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14면).

(나) 참고인 이OO의 진술(2017. 12. 7.)

참고인 이OO은 2017. 12. 7. 위원회 조사에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OOO 주무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면접심사 전 심사대상자 명단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마 심사 바로 전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급박하게, 그 전에 충분히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심사 당일 날 아침에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았을텐데, 그리고 다 그전까지만 해도 이거에 대해서 다 공유하는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이걸 그냥 우리한테 맡겨진 사업이고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것을 공유를 해달라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고(2017. 12. 7.자 이OO 진술녹음 녹취록 12면), 이 같은 명단 공유요청은 처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13면).

참고인 이OO은 면접심사 당일 아침 OOO 주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어디 어디 빼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중략)2차까지 한 팀 중에 예를 들어서 고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이 팀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위 녹취록 8면), “어쨌든 사무적인 대화니까 억압적인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이 팀, 이 팀, 이 팀은 자기네 지원 사업들, 그러니까 지원 사업에 있었던 그런 횡령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던 팀이니 배제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라고 아마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정확한 워딩은 “배제를 하십시오. 배제를 해야 합니다” 이런 거는 아주 기억이 안나요.(중략) 그런데 “배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등의 진술을 하였다(위 녹취록 8-9면). 또, 당시 OOO 주무관이 배제해야할 각 극단의 이름을 특정해 이 같은 요청을 하여 의아했다는 진술을 하였다(위 녹취록 10면).

참고인 이OO은 당시 OOO 주무관이 불러준 단체들을 엑셀파일 문서에 표시하였고, 위 문서를 이OO 사무국장에게 가져가 보여주며 통화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면서(위 녹취록 21면), 이OO 사무국장이 오OO 상임이사에게 이를 보고하여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전달받아 그대로 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9-10면).

(다) 참고인 오OO의 진술(2017. 12. 6.)

참고인 오OO은 2017. 12. 6.자 위원회 조사에서 이 사건 사업 면접심사 당일, 심사 직전에 이OO 사무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최종심의를 해야 하는데 문화부에서 최종 심의에 올라온 단체들 중 7-8개 단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 이유는 정산 미비 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에 밋보인 단체를 배제하려는 게 아니겠느냐 이

런 대화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전화를 받은 뒤 당시 심사위원 중 하나였던 성OO 한국연극연출가협회 회장을 바꾸라고 하여 위 사안을 직접 논의했다고 하면서 “이OO 사무국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었고, 성OO 회장도 당시 정부에 잘못 보인 단체라 그런 것 아니겠냐는 이야기를 하며 분개해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하며 그냥 심사를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 12. 6.자 오OO 진술조서 3면). 참고인 오OO은 당시 위 통화를 하고 이것이 소위 블랙리스트 사안일 수 있겠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3면).

한편 참고인 오OO은 위 사건을 박정자 이사장이나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략) 추후 공개 사과문을 올릴 시점에 이사장과 이사회에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개인 입장이 아니라, 재단 상임이사로서 재단과 재단 이사장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고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5면).

(라) 연극인복지재단 ‘2015년 ‘연극인 일자리지원사업 <찾아가는 연극> 참가단체 선발에 관한 경위서’, ‘(별첨1) <찾아가는 연극> 2차 서류합격팀’

연극인복지재단이 2017. 12. 15. 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 ‘연극인 일자리지원사업 <찾아가는 연극> 참가단체 선발에 관한 경위서’는 이OO 연극인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연극인복지재단 2017. 1. 20.자 제32차 이사회 이 사건 관련 논의를 위해 작성한 문건²⁵⁾으로, 위 문건에는 이 사건 사업 면접심사 당일 경위 및 그 이후 경과에 대한 사항이 기재돼 있고, 당시 이OO 간사가 OOO 주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제외단체를 표시했던 ‘(별첨1) <찾아가는 연극> 2차 서류합격팀’ 문건²⁶⁾이 첨부돼 있다.

25) 연극인복지재단 2017. 1. 20.자 제32차 이사회 회의록 8면

26) 참고인 이OO은 2018. 4. 20. 위 문건이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참고인 이OO 및 진상조사위 전문위원 김OO 사이 2018. 4. 20.자 문자메시지).

[그림-9] 연극인복지재단 '2015년 '연극인 일자리지원사업 <찾아가는 연극> 참가단체 선발에 관한 경위서' 일부('OOO'는 'OOO'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II. 심사경위

1. 7월 30일 심사 5분 전, 문화부 예술정책과 OOO 주무관이 사업담당 이 OO 간사에게 전화하여 총 6개 극단(별첨1)을 선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2. 사무국장이 상임이사에게 유선 보고, 상임이사가 심사위원들에게 설명과 양해를 구하고 심사 진행하여 총 7개팀(별첨2) 선발

3. 7월 31일, 이 OO 간사가 차 OO 사무관에게 문화부의 심사개입과 주무관

한편 위 문건의 '(별첨1) <찾아가는 연극> 2차 서류합격팀' 문건에는 '극단 문', '극단 하땅세', '세종대학교 교육연극극단 혼', '극단 초인', '예술집단 페테', '극단 고래' 6개 단체에 'V' 표시가 기재돼 있고, 명단 아래쪽 흐린 글씨로, 'V 사업부서에서 문제단체로 (미정산, 횡령)'라는 기재가 있다.

[그림-10] 연극인복지재단 '(별첨1) <찾아가는 연극> 2차 서류합격팀'

번호	단체명	프로그램명	대표자	문학자	감독자	연락처	심사시간
V1	극단 문	다문물지연 무대가 되는 '태아를 극장'	박영희	010-	문OO	010-	14시 (일 말 5-10분 예정)
V2	극단 하땅세	살아 있다? 소름이 끼는 자살-	문시중	010-	호OO	010-	
3	극단 연극극단	극장 오기 19일 총합의 '연극'	김중재	010-	여OO	010-	
V4	세종대학교 교육연극극단 혼	일종의 작은 청소년 참여자를 위한 참여연극 (연극)	김영희	010-	세OO	010-	
4	연극집단 예술공간	극으로 찾아가는 연극	김영희	010-	문OO	010-	
5	극단 대문	연극 '행복의 허영'	한승수	010-	김OO	010-	
6	극단 복수	연극의 <이 시의 죽음유물기>	이준용	010-	박OO	010-	15시 10분(일 말 5-10분 예정)
7	문화예술교육 차 배트	공동공공 연극극장	이희호	010-	홍OO	010-	
8	(사)연극인복지재단	'도심 지역 정착하는 예술여행'이라는 예술 프로그램 OOO	황영희	010-	문OO	010-	
V10	극단 초인	거지극이고 가는 예술여행	박영희	010-	박OO	010-	
V11	예술집단 페테	(위) 여자기, 무라카미 원작은 연극	박종기	010-	박OO	010-	
12	극단 연극인 복지재단	극장으로 돌아올까? 신기왕기 죽음놀이	김중재	010-	김OO	010-	
13	연극극단	문화부, 2015년 최우수 연극! 공연을 만나다!	서지혜	010-	문OO	010-	
14	극단 초인	(입시지원)	장혜민	010-	문OO	010-	
V15	극단 고래	전통연희 가족극 <호호호 호영아>	이재성	010-	박OO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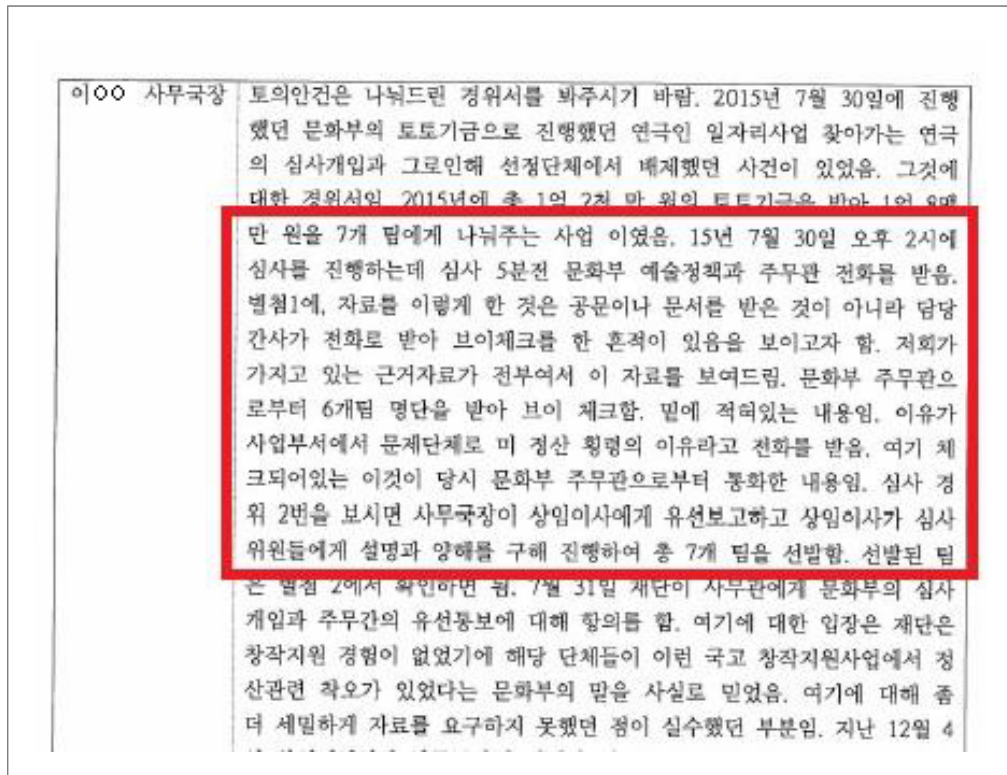
V 10개팀 선정 (10월 15일)

V 10개팀 선정 (10월 15일)

(마) 연극인복지재단 2017. 1. 20.자 제32차 이사회 회의록

연극인복지재단 2017. 1. 20.자 제32차 이사회 회의록 8면 중 ‘이○○ 사무국장’ 발언 부분에는, “15년 7월 30일 오후 2시에 심사를 진행하는데 심사 5분 전 문화부 예술정책과 주무관 전화를 받음. 별첨1에, 자료를 이렇게 한 것은 공문이나 문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담당 간사가 전화로 받아 브이체크를 한 흔적이 있음을 보이고자 함.(중략) 문화부 주무관으로부터 6개팀 명단을 받아 브이체크함.(중략) 이유가 사업부서에서 문제단체로 미 정산 횡령의 이유라고 전화를 받음. 여기 체크되어 있는 이것이 당시 문화부 주무관으로부터 통화한 내용임.(중략) 사무국장이 상임이사에게 유선보고하고 상임이사가 심사 위원들에게 설명과 양해를 구해 진행하여 총 7개 팀을 선발함.(중략) 재단은 창작지원 경험이 없었기에 해당 단체들이 이런 국고 창작지원사업에서 정산 관련 착오가 있었다는 문화부의 말을 사실로 믿었음. 여기에 대해 좀더 세밀하게 자료를 요구하지 못했던 점이 실수했던 부분임(중략)”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림-11] 연극인복지재단 2017. 1. 20.자 제32차 이사회 회의록 8면



한편 위 문건 8면 ‘오OO 상임이사’ 발언 부분에는 “각 단체들 연극인 입장에서 생각해 서 심사를 미루더라도 연극인들이 정말 정산을 잘 못한 건지 확인했어야 함. 상임이사로서 사무국장 전화를 받고, 곧 심사를 해야 함에 깊게 생각을 못함. 심사위원 중 재단 이사가 계 심. 성OO 이사가 있어 설명을 하고, 우리가 문화부에서 사업을 지원받고 있고, 사업을 하는데 담당자가 횡령 이런 이야기를 보내왔는데 심사위원들에게 전달을 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겠다고 하며 양해를 구하고 심사를 진행함(중략)”이라고 기재돼 있고, 9면 ‘오OO 상임이사’ 발언 부분에는 “변명이 될 수 있지만 맨 처음에 심사위원들한테 양해를 가지고 진행한 것은 재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려 한 것임, 판단이 틀렸음”이라고 기재돼 있다.

(바) 연극인복지재단 ‘3. 찾아가는 연극 면접 심사평(하OO, 이OO, 성OO)’

연극인복지재단이 2017. 12. 20. 위원회에 제출한 연극인복지재단 ‘3. 찾아가는 연극 면접 심사평(하OO, 이OO, 성OO)’ 문건에 의하면, 신청인 단체를 포함한 위 (다)항 6개 단체에 대해 3인 심사위원의 각 심사평이 기재된 사실, 신청인 단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관련 기획의도에 비해 실천적 준비에서 준비성 부족’, ‘사업기획 및 사업수행 능력 우수하나 본 사업 취지와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음’, ‘신청단체 담당자가 지원한 프로그램에 대한 숙지성이 낮고, 타 단체의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지원수준에서 미달됨’ 등의 심사평이 기재돼 있고, 3인 심사위원으로부터 각 78점, 89점, 89점의 점수(100점 만점)를 받아 평균 85.33점의 점수를 받은 사실²⁷⁾이 확인된다.

(사) 연극인복지재단 ‘최종선정팀’, 연극인복지재단 2015. 7. 30.자 공고 ‘[공지] 최종 합격팀 공지’

연극인복지재단이 2017. 12. 20. 위원회에 제출한 ‘최종선정팀’ 문건 및 연극인복지재단 2015. 7. 30.자 공고 ‘[공지] 최종 합격팀 공지’²⁸⁾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서 ‘(사) 문화창작집단 공터다’ 등 총 7개 단체가 최종선정된 사실, 위 (다)항 기재 6개 단체는 선정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27) 문체부로부터 통보받은 나머지 5개 단체들의 경우에도 각 단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준비성 등에 대한 심사평이 기재돼 있고, 6개 단체 모두 평균 9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으며, 낮은 점수로 인해 미선정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8) http://plays.or.kr/xe/board_hFnX66/17701

(아)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8. 4. 10.자 시행 '예술정책과-1393호(2018. 4. 10.)' 사실
조회 요청 회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문체부 예술정책과를 상대로 위 (라)항 6개 단체의 2015. 8. 1. 기준 '문예진흥기금 미정산',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 관리규정 위반행위 사실이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한 바, 이에 대한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8. 4. 10.자 시행 '예술정책과-1393호(2018. 4. 10.)' 사실조회 요청 회신' 공문에는, '2015. 8. 1. 기준, 극단 고래(대표 이해성), 극단 문(대표 박영희), 극단 초인(대표 박정의), 극단 하땅세(대표 윤시중), 세종대학교 교육연극극단 혼(대표 김영미), 예술집단 페테(대표 백훈기) 등 6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규정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극단 하땅세(대표 윤시중)의 경우, 2016. 1. 13.~1. 20.까지 보조금 미정산단체로 지정되었으나,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지정해제함. 끝.'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림-12]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8. 4. 10.자 시행 '예술정책과-1393호(2018. 4. 10.)'
사실조회 요청 회신'

<p>제목 사실조회 요청 회신</p> <hr/> <p>1. 기획행정담당관-1972(2018.3.29.)호 관련입니다.</p> <p>2. 위호와 관련하여 2015.8.1. 기준, 극단 고래(대표 이해성), 극단 문(대표 박영희), 극단 초인(대표 박정의), 극단 하땅세(대표 윤시중), 세종대학교 교육연극극단 혼(대표 김영미), 예술집단 페테(대표 백훈기) 등 6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규정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p> <p>*단, 극단 하땅세(대표 윤시중)의 경우, 2016.1.13.~1.20까지 보조금 미정산단체로 지정되었으나,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지정 해제함. 끝.</p>

(자)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 2. 1. 현재], 예술위 이00·000 작성 예술위
블랙리스트 명단, 참고인 000의 진술(2018. 4. 17.자 참고인 000 유선면담 보고)

문체부 예술정책과 000 주무관이 이 사건 사업 배제단체로 통보한 위 (라)항 기재 6개 단체 중, 신청인 단체('극단 고래'), '극단 하땅세', '예술집단 페테'의 경우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 2. 1. 현재]등 문체부 블랙리스트 문건과 예술위 이00·홍00이 특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예술위 블랙리스트 문건²⁹⁾에 블랙리스트 단체로 등재되어 있고,

‘극단 초인’의 경우 극단 대표 ‘박정의’가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 작성 9,473명 명단 중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예술인’ 중 하나로 기재돼 있다.

한편, 문체부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관리했던 참고인 오OO은 2018. 4. 17. 위원회 유선면담에서, 위 6개 단체가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의혹 이후의 경과

(1) 신청인에 대한 참고인 이OO 및 참고인 오OO의 사과

(가) 참고인 이OO의 진술(2017. 11. 16.)

참고인 이OO은 2017. 11. 16. 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 말이 되면서 연극인, 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 싸움이 극심해졌습니다. 제가 2016년 12월 초 처음 오OO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면서 ‘그때 우리가 했던 게 블랙리스트였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오OO 선생님도 똑같은 생각에 저에게 전화를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중략) 결국 2016. 12. 9. 임OO 감독님과 이해성 연출가를 만나러 가자고 해서 오OO 선생님을 모시고 광화문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12. 9. 이해성, 임인자 선생님 만나서 블랙리스트 작동사실을 시인하며 사과를 했고, 백서를 만든다고 하니 백서에 들어갈 내용을 가감 없이 모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중략) 며칠 후 저에게 임OO 선생님이 만나자고 연락 주셔서 만났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와서 사과만으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면 좋겠냐’하니 ‘박정자 선생님이 사퇴하셔야 한다’고 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중략) 이런 경위에서 처음 이사회가 소집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 11. 16.자 이OO 진술조서 15-16면).

(나) 참고인 오OO의 진술(2017. 12. 6.)

참고인 오OO은 2017. 12. 6. 위원회 조사에서, 2016. 12. 9. 이OO 사무국장과 함께 신청인 및 임OO 공연기획자를 만나 이 사건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작동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하면서, “재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하

29) 예술위 공연지원부 본부장 이OO, 차장 홍OO이 특검 수사과정에서 예술위 2014. 10.~2016. 10. 사업의 지원배제 대상 중 실제 지원배제된 사례, 양해된 사례를 정리한 명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7357-7395면)

게 되어 사과하게 된 것입니다(중략)”, “이OO 사무국장과 먼저 사과를하기로 논의했었고,(중략) 김OO 부이사장도 동의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위 사안에 대해 박정자 이사장에게도 말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등의 진술을 하였고(2017. 12. 6.자 오OO 진술조서 5-6면), 위 만남 이후 며칠 뒤 임OO 공연기획자가 이OO 사무국장을 만나 박정자 이사장 및 본인의 연극인복지재단 사퇴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하면서, 위 요청으로 인해 2017. 1.하순 경 연극인복지재단 임시 이사회가 소집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6면).

(다) 신청인의 진술(2017. 11. 28.)

신청인은 2017. 11. 28. 위원회 조사에서, 2016. 12. 9. 연극인복지재단 이OO 사무국장과 오OO 상임이사가 신청인을 찾아와 이 사건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하면서, “(중략)이OO 사무국장이 최종심사 당일 시작 바로 직전 문체부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배제할 단체의 명단을 불렀다고 했고, 곧바로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상임이사와 상의를 했고, 검열인가 싶은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의 예산이나 사업진행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OO 상임이사는 “진심으로 부끄럽고 사과한다. 하지만 꼭 밝혀야 할 것 같아서 왔다. 박정자 이사장님은 이 사실에 대해 몰랐고 사후 보고 받으셨다.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7. 11. 28.자 신청인 진술조서 4면), 이후 신청인을 포함한 연극인들이 그 조치로 박정자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냐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당시 검열백서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었는데, 그 위원회 사람들과 모두 만나 이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극인복지재단 입장에서도 빨리 사과를 하고, 책임질 사람으로서 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님, 상임이사님이 사퇴를 하는 게 연극인복지재단을 위하는 길이지 않겠냐는 논의가 이뤄졌던 걸로 기억합니다(중략)”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5면).

(2) 연극인복지재단 이사회 개최 및 성명문 게시

(가) 참고인 이OO의 진술(2017. 11. 16.)

참고인 이OO은 2017. 11. 16. 위원회 조사에서, 2017. 1.말 연극인복지재단의 성명문 게시 경위와 관련하여, “이사회 소집 후 오OO 선생님과 제가 경위서를 만들어 보고 드렸고 박정자 선생님도 그때 처음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셨습니다. 연극인들이 박정자 선생님 나가라고 한다고 말씀드리니 박정자 선생님은 웃으면서 ‘그러면 나가면 되지 뭐’라고 하셨습니다.(중략) 당시 참석한 이사들은 ‘재단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조직의 입장에서 문체부와 척 지어서 좋을게 없다’는 식으로 대개 수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박정자 선생님이 나가시는 것만 아니면 공개사과는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이 통일되었습니다. 김OO 선생님이 이사회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셨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사과문 발표, 하나는 사무국장이 최종심사 대상팀 모두에게 전화로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사과문 작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5팀 모두에게 전화해서 ‘저희가 곧 공개 사과문도 올릴 것이다. 사과 드린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게시된 성명문 초안도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중략)”라고 진술하였다(2017. 11. 6.자 이OO 진술조서 16-1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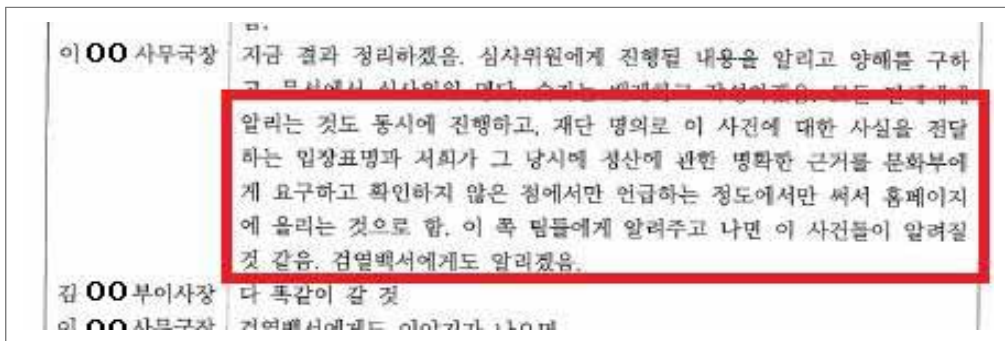
(나) 참고인 오OO의 진술(2017. 12. 6.)

참고인 오OO은 2017. 12. 6. 위원회 조사에서, 2016. 12.초 본인과 이OO 사무국장의 사과 이후 연극계에서 박정자 이사장 및 본인에 대한 사임 요청을 해와 2017. 1.하순경 연극인복지재단 이사회가 개최됐다고 하면서, 당시 이사회에서 박정자 이사장의 사퇴는 응할 수 없고, 연극인복지재단의 공개 사과문 발표 및 최종심사 대상 15팀 모두에 대한 사과 표명으로 해결하자는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 12. 6.자 오OO 진술조서 6면). 위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OO 사무국장의 초안 작성 및 본인의 검토를 거쳐, 연극인복지재단 2017. 1. 26.자 ‘[성명문] 2015년 연극인일자리지원사업 ‘찾아가는 연극’ 최종심사에 대한 재단의 입장’(본 보고서 5면)을 게시하게 된 것이고, 본인은 당시 문체부 통보단체 중 하나였던 극단 초인, 극단 하땅세 등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사과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7면).

(다) 연극인복지재단 2017. 1. 20.자 제32차 이사회 회의록

연극인복지재단 2017. 1. 20.자 제32차 이사회 회의록 17면 '이OO 사무국장' 발언 부분에는, “지금 결과 정리하겠음. 심사위원에게 진행될 내용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문서에서 심사위원 명단, 숫자는 배제하고 작성하겠음. 모든 단체에게 알리는 것도 동시에 진행하고, 재단 명의로 이 사건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는 입장표명과 저희가 그 당시에 정산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문화부에게 요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만 언급하는 정도에서만 써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함. 이 쪽 팀들에게 알려주고 나면 이 사건들이 알려질 것 같음. 검열백서에게도 알리겠음”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림-13] 연극인복지재단 2017. 1. 20.자 제32차 이사회 회의록 17면



(라) 참고인 백OO의 진술(2017. 12. 1.)

참고인 백OO는 2017. 12. 1. 위원회 조사에서, 2017. 1. 25.경 연극인복지재단 이OO 사무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당시 블랙리스트 작동과 관련한 사죄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5년에 이 재단서 처음으로 국고를 가지고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심의 직전에 문광부서 전화가 와서 극단 폐테를 포함한 몇 단체를 심의 대상서 제외시키라 했다. 왜 빼야 하나고 문자 국고 정산 미비 및 횡령 단체이기 때문이라 말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하달대로 언급 단체들을 명단서 제외시켰다’며 울먹이면서 사죄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게 블랙리스트 사안이었던 것 같았는데 그때는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연극인복지재단에 공식 사과문을 올릴 것이고 그 전에 개별적으로 사과드리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 12. 1.자 백OO 진술조서 3면).

(3) 연극인복지재단 상임이사 등 사임 및 집행부 변경

(가) 참고인 이OO의 진술(2017. 11. 16.)

참고인 이OO은 2017. 11. 16. 위원회 조사에서, “재단은 이 사건으로 공개사과를 했고 저희는 굉장히 시끄러울 것이라 예상했는데 의외로 연극인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고생했다고 위로를 했습니다. 오OO 선생님은 본인이 사퇴하시는 게 박정자 선생님을 보호하는 입장이셔서 계속 사퇴하시려고 했고,(중략) 오OO 선생님이 결국 2017. 5. 사퇴를 하였고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사회 자리에서 이사들이 ‘그러면 박정자 선생님이 새로운 판을 짜실 수 있게 우리가 모두 사퇴하자’고 하니 박정자 선생님이 본인이 사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이사진이 대거 교체되었고 이사장도 윤석화 선생님이 바뀌면서 저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조직개편 과정이 재단이 입은 피해라면 피해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고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특히 15팀에 전화를 하며 사과를 할 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중략)”라고 진술하였다(2017. 11. 16.자 이OO 진술조서 17-18면).

(나) 참고인 오OO의 진술(2017. 12. 6.)

참고인 오OO은 2017. 12. 6. 위원회 조사에서, 연극인복지재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들이 대거 교체된 과정이 해당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결과적으로는 연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위 일과 관련하여 사임한다고 하면서 집행부 교체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이사회가 있고 나서 며칠 후에 당시 위촉직 이사들(도OO, 위OO, 이OO, 전OO, 정O, 주OO, 채OO)이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고, 박정자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새로운 집행부 구성안이 통과된 것입니다(중략)”라고 진술하였다(2017. 12. 6.자 오OO 진술조서 8면).

(다) 연극인복지재단 2017. 5. 31.자 제33차 긴급이사회 회의록

연극인복지재단 2017. 5. 31.자 제33차 긴급이사회 회의록 10면 ‘오OO 상임이사’ 발언 부분에는, “(중략) 2015년 토토기금 사업을 할 때 상임이사로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문화부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연극단체를 지원을 배제하는 일을 지시를 한 일이 있었음.(중략) 재단의 상임이사로서 2015년 하반기 연극계 대거 탈락이라는 사태

가 있을 때 항의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면서 모순이 된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음.(중략)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이사장님께 사의를 포함.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 임(중략)”이라고 기재돼 있다.

위 회의록 12면 ‘김OO 부이사장’ 발언 부분에는, “(중략)위촉직 이사들이 차기에 이사장님께 일괄 사표를 내드리는 것이 새로운 정비를 하고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음(중략)”이라고 기재돼 있고, 13면 ‘(위촉직 이사 전체)’ 부분에는 “당연직 이사 이외에 전체 사의를 포함(위촉직 이사일동).”이라고 기재돼 있다.

한편 위 회의록 15면 ‘박정자 이사장’ 발언 부분에는, “(중략)언젠가 몇 번 응석부리듯이 퇴사를 이야기를 했지만, 물이 흘러야 할 때이듯 이 폐회사를 통해 이사장으로서의 임기를 여기서 좀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함(중략)” 등 박정자 이사장의 이사장 사임 의사표명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라)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회 명단(변경 전),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회 명단(변경 후)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회 명단(변경 전)’,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회 명단(변경 후)’ 각 문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이사장 및 부이사장, 상임이사, 위촉직 이사 명단이 2017. 10. 30.기준 모두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14]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회 명단(변경 전)

NO	직 할	성 할	소 속	비 고
1	이사장	박정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2	부이사장	김OO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3		윤OO	들꽃컴퍼니 대표	
4	상임이사	오OO	순천향대학교 교수	
5	위촉직 이사	도OO	복음신학대 교수	
6		위OO	극단 오늘 대표	
7		이OO	㈜드림컬처스 대표	
8		전OO	극단 공연예술전위 대표	
9		경OO	동신대학교 교수	
10		추OO	인천시립극단 예술감독	
11		채OO	수원대학교 교수	

[그림-15]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회 명단(변경 후-2017. 10. 30.기준)

(2017. 10. 30. 기준)

NO	직 함	성 함	소 속	비 고
1	이사장	윤석화	한국연극인복지재단	
2	부이사장	김OO	화이트라더스, 극단 작은신화	
3		정OO	BF 엔터테인먼트,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4		박OO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5	상임이사	원OO	극단 실험극장	
6	위촉직 이사	남OO	SY 엔터테인먼트, 김동수컴퍼니	
7		박OO	극단 반 대표	
8		박OO	극단 풍경 대표	
9		박OO	드림스톤 엔터테인먼트, 김동수컴퍼니	
10		오OO	스타빌리지 엔터테인먼트, 극단 신기투만화경 대표	
11		우OO	극단 맨씨어터 대표	
12		이OO	극단 백수광부 대표, 청운대학교 교수	
13		최OO	재기스타	
14		한OO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다.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배제지시 여부

(1) 참고인 이OO의 진술(2017. 11. 16.)

참고인 이OO은 2017. 11. 16. 위원회 조사에서 이 사건 사업 담당 문체부 담당자 관련, “예술정책과 소관이었고, 초기단계에서는 OOO 주무관, J 사무관이 있었는데 OOO 주무관은 곧 인사이동을 했고 J 사무관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후 최종심사(7. 30.) 당일 전화를 준 사람이 OOO 주무관이고, 차OO 사무관이 당시 예술정책과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차OO 사무관은 온지 3일 된 인턴 사무관이었다고 추후에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차OO 사무관은 오자마자 이런 부당배제 지시 건을 시켜서 많이 울었다고 얘기했습니다. 7. 30.까지 예술정책관은 김OO, 8. 1.부터 예술정책관은 B이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2017. 11. 16.자 이OO 진술조서 9면).

(2) 문체부 관련자 진술

(가) 참고인 000의 진술(2018. 1. 22.)

참고인 000는 2015. 7. 1.~2017. 2. 27. 문체부 예술정책과 주무관으로 예술인 복지업무 등을 담당했던 자이다.

참고인 000가 위원회에 제출한 2018. 1. 22.자 진술서³⁰⁾에 의하면, 참고인 000는 이 사건 사업 최종심사 전날(2015. 7. 29.) 연극인복지재단 담당자에게 심사대상자 명단을 요청해 이메일로 송부 받고, 최종심사 당일(2015. 7. 30.) 6개 단체에 대해 ‘정산 불성실 및 횡령 등’ 이유로 배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연극인복지재단 등 예술인 복지관련 사업담당자들과는 사업계획 협의 등을 위해 유선, 메일 등으로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담당자와 협의 내용 중 중요도가 높은 경우는 사무관, 과장에게도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질의하신 건은 15.7월말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15.7월은 예술정책과에 발령받으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고, ’16년 예산 편성, 국회 요구자료 작성, 각종사업 추진 등 많은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하였기에 정신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약 3년 정도 지난 사항이기에 자료도 찾아보고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해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의 진술을 하였다(2018. 1. 22.자 000 진술서 1-2면).

(나) 참고인 000의 진술(2018. 3. 9.자 참고인 000 유선면담 보고)

참고인 000은 참고인 000의 전임자로 2015. 7. 1.까지 예술인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문체부 예술정책과 주무관이다.

참고인 000은 2018. 3. 9. 위원회 유선면담에서, 당시 후임자인 000 주무관에게 사업진행 시 배제해야 할 단체들에 대한 정보나 검토하라는 취지의 전달 등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명단 등을 전달한 적은 확실히 없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대한 검토나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전달한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본인은 2015. 7. 1.자로 예술정책과의 다른 업무 담당으로 발령이 되어 이 사건 사업 자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0) 유선을 통해 대면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 진술서로 진행함.

(다) 참고인 J의 진술(2018. 1. 22.)

참고인 J는 2015. 4. 7.~2015. 8. 23.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으로 예술인 복지업무 등을 담당했던 자이다.

참고인 J가 위원회에 제출한 2018. 1. 22.자 진술서³¹⁾에 의하면, 참고인 J는, 이 사건 사업 최종심사 당일(2015. 7. 30.) OOO 주무관이 연극인복지재단 담당자에게 6개 단체에 대한 ‘정산 불성실 횡령 등’의 이유로 배제요청을 한 경위와 관련하여 “그 당시에 대한 현재 제 기억으로는 ’15년 6월, 연이은 예술인 자살에 따른 제도개선 마련, ‘창작준비금’ 수시배정사업 예산배정 요구,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현안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단기유학 준비(8월 출국)까지 겹쳐 동 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기억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8. 1. 22.자 J 진술서 1면), 신청인 단체를 포함한 6개 단체의 실제 배제사유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동 사항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서 2면).

(라) 참고인 차OO의 진술(2018. 1. 30.)

참고인 차OO는 2015. 7.말부터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으로 예술인 복지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참고인 차OO는 2018. 1. 30. 위원회 조사에서, “제가 7. 24.자로 예술정책과 발령이 되긴 했는데, 그때가 수습하고 첫 발령이었고 아직 업무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연극인복지재단의 경우 제가 발령이 되었을 때도 J 사무관님이 계속 담당을 하셨었고, J 사무관님이 8.말쯤 다른 과로 발령이 되신 뒤에 제가 이어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2018. 1. 30.자 차OO 진술조서 3면), 이 사건 사업 최종심사일(2015. 7. 30.)에 OOO 주무관이 6개 단체 배제요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몰랐습니다. 2017. 1. 연극인복지재단이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 연극인복지재단 측으로부터 듣고 비로소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진술조서 3면), 연극인복지재단 이OO 사무국장을 만나 ‘예술정책과로 발령이 되자마자 이런 부당배제 지시 건을 시켜서 많이 울었다’는 등 이야기를 한 적 없냐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위 진술조서 3-4면), 신청인 단체를 포함한 6개 단체의 배제사유나 경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진술조서 4면).

31) 유선을 통해 대면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 진술서로 진행함.

(마) 참고인 이OO의 진술(2018. 3. 22.)

참고인 이OO는 2015. 5.~2016. 12.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참고인 이OO가 위원회에 제출한 2018. 3. 22.자 진술서에 의하면, 참고인 이OO는, 이 사건 사업 최종심사 당일(2015. 7. 30.) OOO 주무관이 연극인복지재단 담당자에게 6개 단체에 대한 ‘정산 불성실 및 횡령 등’의 이유로 배제요청을 한 경위와 관련하여, “다른 산하단체에 비해 연극인 복지재단은 예산도 그리 크지 않고 별다른 현안이 없어 당시 예술정책과에서 이와 같은 지시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연극인 복지재단은 당시 운영 중인 어린이집 예산 확대 등, 몇몇 건의를 하였고 제가 연극인복지재단을 직접 방문, 당시 박정자 이사장과 이OO 사무국장도 만난 적이 있지만, 당시 이런 내용은 전혀 들은 바 없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봐도 당시 OOO 주무관이나 J 사무관에게 특별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상급자 등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으며 이를 보고한 기억도 없습니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동 건이 블랙리스트 이행보다는 정산 불성실 등의 사유이거나 아니면 두가지 사유가 복합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 건이 블랙리스트 사유로 배제된 것이 확인된다면, 저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 책임 소관에 해당됩니다” 등의 진술을 하였다(2018. 3. 22.자 이OO 진술서 1-2면).

(바) 참고인 오OO의 진술(2018. 4. 17.자 참고인 오OO 유선면담 보고)

참고인 오OO은 2018. 4. 17. 위원회 유선면담에서, 예술정책과 소관 사업의 경우 본인이 해당 담당자 등에게 리스트 단체를 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연극인복지재단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신청인 및 신청인 단체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7. 10. 30.자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 관리 9,473명 명단,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 2. 1. 현재»,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Oh & KIM 수기 가필 문건»,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사무관 작성 ‘150624 리스트’ 등 문건 기재내용과 신청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2013. 7.경 연극계 시국선언 참여 등 사항이 당시 문체부로부터 청와대에 보고되었고, 신청인 단체는 문체부 예술정책과 및 공연전통예술과 등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되어 관리되었으며, 신청인의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참여전력이 위 블랙리스트 등재사유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문체부 요청에 따른 이 사건 사업에서의 신청인 부당탈락 사실

이 사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①부터 ⑫까지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1) 연극인복지재단 이OO 간사는 이 사건 사업 면접심사 전날 경 문체부 예술정책과 OOO 주무관 요청에 따라 면접심사 대상자 명단을 OOO 주무관에게 송부하였고 2) 이 사건 사업 면접심사 직전 OOO 주무관으로부터 신청인 단체를 포함한 6개 단체에 대해 ‘미정산 또는 횡령’ 등 이유로 배제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으며 3) 이에 연극인복지재단 상임이사과 이 사건 사업 심사위원들 협의 하에 위 요청사항을 심사과정에 반영하여 6개 단체가 탈락하였으나 4) 당시 위 6개 단체에 ‘미정산 또는 횡령’ 등의 사실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① 연극인복지재단이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면접 등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은 이 사건 사업이 처음이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체부의 관여나 개입은 없었던 사실(연극인복지재단 2016. 3. 14.자 공고 ‘2015년 6월 재정보고’ 기재내용과 참고인 이OO, 이OO, 오OO의 진술)
- ② 연극인복지재단 이OO 간사는 이 사건 면접심사 전, 문체부 예술정책과 OOO 주무

- 관 요청으로 최종 면접대상자 명단을 000 주무관에게 송부한 사실(연극인복지재단 ‘2015년 ‘연극인 일자리지원사업 <찾아가는 연극>’ 참가단체 선발에 관한 경위서’, 참고인 이00, 이00의 진술)
- ③ 이00 간사는 이 사건 사업 면접심사 당일인 2015. 7. 30. 심사 직전 000 주무관으로부터 신청인 단체를 포함한 6개 단체에 대해 “‘정산 불성실 또는 횡령사실’이 있으니 지원하면 안 된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연극인복지재단 ‘2015년 ‘연극인 일자리지원사업 <찾아가는 연극>’ 참가단체 선발에 관한 경위서’, 연극인복지재단 2017. 1. 20.자 제32차 이사회 회의록, 참고인 이00, 이00의 진술)
- ④ 이00 간사는 위 통화내용을 면접대상자 명단 문건에 표시하고 위 문건과 함께 000 주무관과의 통화내용을 연극인복지재단 이00 사무국장에게 전달한 사실(연극인복지재단 ‘2015년 ‘연극인 일자리지원사업 <찾아가는 연극>’ 참가단체 선발에 관한 경위서’, (별첨1) <찾아가는 연극> 2차 서류합격팀’, 연극인복지재단 2017. 1. 20.자 제32차 이사회 회의록, 참고인 이00, 이00의 진술)
- ⑤ 이00 사무국장은 이를 연극인복지재단 오00 상임이사에게 보고하였고, 오00 상임이사는 성00 심사위원과 논의 하에 위 내용을 반영해 심사를 진행하기로 한 사실(연극인복지재단 ‘2015년 ‘연극인 일자리지원사업 <찾아가는 연극>’ 참가단체 선발에 관한 경위서’, 연극인복지재단 2017. 1. 20.자 제32차 이사회 회의록, 참고인 이00, 이00, 오00의 진술)
- ⑥ 성00 심사위원은 위 상황을 다른 2인의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심사위원들은 위 6개 단체 배제내용을 반영해 심사를 진행한 사실(연극인복지재단 ‘2015년 ‘연극인 일자리지원사업 <찾아가는 연극>’ 참가단체 선발에 관한 경위서’, 연극인복지재단 2017. 1. 20.자 제32차 이사회 회의록, 참고인 이00, 이00, 오00의 진술)
- ⑦ 위 6개 단체는 심사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이 사건 사업에서 최종 탈락한 사실(연극인복지재단 ‘3. 찾아가는 연극 면접 심사평(하00, 이00, 성00)’, 연극인복지재단 ‘최종선정팀’, 연극인복지재단 2015. 7. 30.자 공고 [공지] 최종 합격팀 공지)
- ⑧ 2016. 12. 9. 이00 사무국장과 오00 상임이사는 신청인 및 임인자 공연기획자를 찾아가 이 사건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의혹사실을 밝히고 사과한 사실(연극인복지재단 2017. 1. 20.자 제32차 이사회 회의록, 신청인의 진술, 참고인 이00, 오00의 진술)
- ⑨ 신청인 등 연극인들은 그 조치로 박정자 이사장 및 오00 상임이사의 사퇴를 요청

한 사실(연극인복지재단 ‘2015년 ‘연극인 일자리지원사업 <찾아가는 연극> 참가 단체 선발에 관한 경위서’, 연극인복지재단 2017. 1. 20.자 제32차 이사회 회의록, 신청인의 진술, 참고인 이OO, 오OO의 진술)

- ⑩ 2017. 1. 20. 연극인복지재단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해당사안 해결책으로 ‘성명문 발표’ 및 ‘면접대상자 15개 단체에 대한 사과표명’이 의결되어, 2017. 1. 26. 연극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성명문이 게시되고, 이OO 사무국장이 면접대상자 단체들에 사과전화를 한 사실(연극인복지재단 2017. 1. 20.자 제32차 이사회 회의록, 참고인 이OO, 오OO, 백OO의 진술)
- ⑪ 2017. 5.경 오OO 상임이사가 사임의사를 밝히고, 이에 연극인복지재단 위촉직 이사들과 박정자 이사장도 사임의사를 밝힌 사실(연극인복지재단 2017. 5. 31.자 제33차 긴급이사회 회의록, 참고인 이OO, 오OO의 진술)
- ⑫ 2017. 10. 30. 기준 연극인복지재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위촉직 이사 전원이 교체된 사실((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회 명단(변경 전),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회 명단(변경 후))

한편, 참고인 000 주무관을 포함해 이 사건 사업 소관의 예술정책과 사무관, 과장 등 문체부 관련자들 모두가 해당사안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000 주무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참고인 이OO의 진술이나 당시 위 상황을 전달받은 참고인 이OO, 오OO 등 연극인복지재단 관련자들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면이 있고, 참고인 이OO이 000 주무관과의 통화내용을 표시했던 문건 등 서증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위 연극인복지재단 관련자들 진술내용과 일치하며, 당시 배제요청을 받았던 6개 단체에 실제 ‘미정산 또는 횡령’ 등 사유가 없었음에도 해당 주무관이 심사 당일 급박하게 명백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배제요청을 한 행위를 통상적인 공무원의 공무수행이라고 보기엔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 점, 위 6개 단체 중 신청인 단체를 포함한 4개 단체 혹은 그 대표가 문체부 및 예술위 블랙리스트 문건과 문체부 예술정책과 9,473명 명단 등에서 확인되었고 당시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관리했던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이 위 6개 단체가 블랙리스트 단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해당 사건이 진행된 방식 및 경과가 순차적 리스트 하달에 따른 특정예술인 배제 방식의 전형적 블랙리스트 사안 형태와 상당부분 유사한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볼 때, 해당사건은 블랙리스트 작동에 따른 배제 사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되며, 신청인 단체는 문체부 주무관의 부당한 배제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서 탈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의 성격(평가)

해당사건의 경우, 문체부의 요청을 받아 부당한 사업진행을 하게 된 집행기관에서 먼저 블랙리스트 작동 의혹을 인지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당시 위 사건으로 연극인들은 물론 연극인복지재단 직원들도 큰 번민을 겪었고, 연극인복지재단은 이로 인해 이사장 및 집행부 교체까지도 단행하였으나, 그에 비해 당시 문체부는 이에 관한 아무런 조치나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사에서도 문체부 관련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³²⁾ 블랙리스트 사안에 대한 현장예술인·사업집행기관과 행정관료 사이 심리적 간극이 얼마나 큰 지를 파악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판단된다.

32) “담당자와 협의내용 중 중요도가 높은 경우는 사무관, 과장에게도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게 일반적이었습니다”(2018. 1. 22.자 000 진술서 1면), “-다른 산하단체에 비해 연극인복지재단은 예산도 그리 크지 않고 별다른 현안이 없어 당시 예술정책과에서 이와 같은 지시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2018. 3. 22.자 이00 진술서 2면) 등 진술내용에 비추어볼 때, 문체부 관련자들은 당시 연극인복지재단 관련 현안의 중요도나 비중이 다른 사안에 비해 높지 않아, 해당사건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5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서울변방연극제’ 검열 의혹 사건



5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서울변방연극제’ 검열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공37[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서울변방연극제’ 검열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조사 취지

신청인은 2014년 7월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서울변방연극제 2014〉 작품을 준비하며, 광화문광장, 문화역 서울 284, 명동삼일로창고극장 등에서 공연하였는데, 문화역서울284에서는 〈공장의 불빛-극장 집회 2014〉, 콜트콜텍해고노동자들의 이야기 〈법 앞에서〉, 장애인예술연구소 ‘짓’의 〈프릭쇼〉 등을 공연하는데, 연극제가 시작되기 전 뉴시스(Newsis) 보도를 통해 “누군가는 이것을 ‘운동권연극’이라 말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간 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관 담당 직원이 연락을 해서 어떤 경위에서 문화역 서울 284에서 공연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면서 도대체 어떤 연극제이기에 뉴시스 기사가 나온 것인지 물어보았다. 대관 담당 직원이 신청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를 밝히고 문화역서울284에서 ‘서울변방연극제’ 공연 작품에 대한 검열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문체부 기관운영감사(2017.6.) 결과,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14.12.19.)’, ‘리스트-’16.2.1.현재’ 문서 등을 통해서 서울변방연극제(임인자)가 배제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14년 7월 15일 뉴시스 기사 <‘서울변방연극제’ 누구는 이것을 운동권 공연이라 할 것이다>가 보도된 이후 문체부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통해서 서울변방연극제가 문화역서울284 공연장을 대관 받은 경위를 파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붙임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서울변방연극제’ 검열 의혹 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사 건] 2017공37[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서울변방연극제’ 검열 의혹 사건]
[신청인] 임인자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은 2014년 7월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서울변방연극제 2014> 작품을 준비하며, 광화문광장, 문화역 서울 284, 명동삼일로창고극장 등에서 공연하였는데, 문화역서울284에서는 <공장의 불빛-극장 집회 2014>, 콜트콜텍해고노동자들의 이야기 <법 앞에서>, 장애인예술연구소 ‘짓’의 <프릭쇼> 등을 공연하였다. 연극제가 시작되기 전, 뉴시스 (Newsis) 보도를 통해 “누군가는 이것을 ‘운동권연극’이라 말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간 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관 담당 직원이 연락을 해서 어떤 경위에서 문화역 서울 284에서 공연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면서 도대체 어떤 연극제이기에 뉴시스 기사가 나온 것인지 물어보았다. 담관 담당 직원이 신청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를

밝혀주기 바라고, 문화역서울284에서 공연작품에 대한 검열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규명하여 주기 바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 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의거, 2018년 1월 19일 제23차 전원위원회에서 위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신청인은 2014년 7월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서울변방연극제 2014>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극제가 시작되기 전 뉴스(Newsis) 보도를 통해 “누군가는 이것을 ‘운동권연극’이라 말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간 후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대관담당 직원이 찾아와 서울변방연극제가 문화역 서울 284에서 공연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았던 경위를 밝히고, 문화역서울284에서 ‘서울변방연극제’ 공연 작품에 대한 검열 행위가 있었는지도 밝히고자 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8건에 대하여 입수 및 검토함.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조사 신청서(2017. 11. 30.)	임인자	2017. 11. 30.	
2	‘서울변방연극제’ 누구는 이것을 운동권 공연이라 할 것이다(2014. 7. 15.)	뉴스is 이재훈 기자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3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2015. 5. 21.)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	2017. 8. 17.	
4	김기춘 외 3인에 대한 제1심 형사 판결(2017고합102)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기록(2017. 7. 27.)		
5	김기춘 외 6인에 대한 제2심 형사 판결(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서울고등법원 재판 기록(2018. 1. 23.)		
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감사원		
7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2014. 12. 19.)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	2017. 8. 17.	
8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	2017. 8. 17.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3인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조사함.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임인자	신청인	1회 진술조서(2018. 1. 23.)
2	OOO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역서울284 대관담당	1회 진술조서(2018. 3. 28.)
3	조OO	문체부 국제문화과 사무관	1회 전화면담(2018. 4. 2.)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으로서 창의적인 공예문화와 디자인문화의 확산, 진흥을 통하여 한국공예와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0년 4월 (재) 한국공예문화진흥원으로 설립되었고, 2008년 3월 한국디자인문화재단 설립, 2009년 12월 한국디자인문화재

단 해산 2010년 4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통합법인으로 설립되었다. 2011년 8월에는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도 개관하였다.¹⁾

나. 문화역서울284

- (1) 문화역서울284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무대이자 교통과 교류의 관문이었던 구 서울역을 원형 복원한 후, 다양한 문화예술이 창작되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공식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역사적, 공간적, 도시적 상징성을 결합하여 옛 서울역의 사적번호(284)를 문화공간이라는 컨셉과 접목하고, 사회적으로서의 모습과 그 가치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문화가 교차되는 역으로서의 의미를 계승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²⁾



- (2) 문화역서울284 RTO는 미군장병안내소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예술창작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다.³⁾

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

2) 문화역서울284 홈페이지.

3) 문화역서울284 홈페이지.



2. 서울연방연극제가 검열 대상이었는지에 대하여

가. 문건 등 자료조사

(1)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 2]에서 순번 62(유죄부분)에서 ‘(복권)교정시설순회상립-형제복지원 생존자 순회 강연 및 공연 프로그램’에서 ‘서울연방연극제’가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문체부 기관운영감사(2017.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별표 7] 순번 35번에서도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에서 ‘서울연방연극제(임인자)- 새연극학교-연구및비평프로젝트<시대횡단(가제)>’가 지

원 배제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순번 45번 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에서도 ‘서울변방연극제(임인자)-보이지만 보이지않는 것 <법과 자본과 사람의 발견 프로젝트(가제)>’가 지원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3)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14.12.19.)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2014년 12월 19일 경 작성한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에 따르면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 서울변방연극제(임인자)의 ‘새연극학교연구 및 비평 프로젝트 ‘시대횡단’이 배제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세부내역			
공모사업명	신청자(단체)명	신청사업명	방안
공연예술비평연구 활성화	서울변방연극제 (임인자)	새연극학교연구 및 비평 프로 젝트 ‘시대횡단’	심사시 제외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14.12.19). 1쪽)

○ 연극

- 비평연구활성화지원 : 1건

· 연극학교-연구및비평프로젝트 (서울변방연극제 임인자)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보고. ’15.1.27(화) 2쪽)

(4)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에서도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사업(8쪽), 서울변방연극제(9쪽, 10쪽, 12쪽) 등이 배제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12	공연예술이행 연구활성화	서울변방연 극제	임인자	사연극학교-연구 '시대정단' (가제)		제외
----	-----------------	-------------	-----	-------------------------	--	----

(리스트-'16.2.1.현재. 8쪽)

9	축제	서울변방연극제	임인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 법 과 자본과 사람의 발견 프로젝트 (가제)	모임상 제외 ○심사 제외 ○콜드콜렉 하고 노동자',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등과 함께 법과 자본의 모순을 파헤치는 프로젝트	
10	공연	고주영	고주영	안사 순례기		

(리스트-'16.2.1.현재. 9쪽)

10	서울변방연극제 (임인자)	형제복지원 생존자 순회 강연 및 공연프로그램	심중 고말	○ 법과 자본의 모순을 파헤침
----	------------------	--------------------------	-------	------------------

(리스트-'16.2.1.현재. 10쪽)

연극-5명		①차근호(대전대교수), ②안치은(호서대교수), ③해화동1번지, ④극단여행자, ⑤새벽, ⑥극단 골목길, ⑦그린피그(윤한술), ⑧임인자(변방연극제)
-------	--	--

(리스트-'16.2.1.현재. 12쪽)

3. 2014년 서울변방연극제 문화역서울284 공연에 대한 검열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가. 문건 등 자료조사

(1) 뉴시스 기사, “서울변방연극제’ 누구는 이것을 운동권공연이라 할 것이다’⁴⁾

이 사건의 단서가 되는 뉴시스 기사, “서울변방연극제’ 누구는 이것을 운동권 공연이라 할 것이다.’는 제16회 서울변방연극제가 ‘문화역서울286 RTO공연장’ 등에서 열린다는 내용인데, 기사 내용 중에서 무브먼트 당당의 김민정씨가 연출하는 작품으로 1979년 동일방직 사건을 다룬 김민기의 원작을 재해석한 ‘2014 공장의불빛-극장집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15_0013046860&cID=10205&pID=10200#

(2) 무브먼트 당당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이 2015년 5월 21일 작성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에 따르면, 2014년 문화역서울 RTO에서 초연하였던 무브먼트 당당(김민정 연출)의 ‘Installation Performance <벗어난 원리들>’이 2015년 5월 13일 현재 ‘문제사업 현황’으로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무브먼트 당당이 배제 대상 단체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⁵⁾

작품명	단체명	검토의견	비고
Installation Performance <벗어난 원리들>-연극	무브먼트 당당 /김민정	-대사와 스토리가 없는 다큐 퍼포먼스로, 무대 위 16개, 1인1실의 방 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안에서 책을 읽고, 머리를 말리기도 하는 등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각 방의 인물들을 훑쳐보는 형태의 공연으로 인간의 보편적 부적응의 원인과 부적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 제안 -2014년 문화역 서울 RTO 초연, 2015 프랑스 2개 도시(릴, 툴루즈) 순회공연 초청작으로 선정	심사위원 전원추천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1) 임인자 진술조사

신청인 임인자는 위원회 조사에서 2014년 7월 15일 경 뉴시스 기사 <‘서울변방연극제’ 누구는 이것을 운동권 공연이라 할 것이다>가 보도된 이후 당일 혹은 다음 날 오후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소속 대관 담당 직원이 전화 연락을 해와서 만나자고 한 후 문화역서울284 RTO로비에서 만났는데 대관 담당 직원은 위 기사에 대하여 말하면서 ‘도대체 변방연극제는 뭐하는 연극제냐’고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⁶⁾

5)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 작성, ‘문화예술분야 지원 사업 관련 현안’, 7쪽. 2015. 5.21. 서울 변방연극제가 개최된

6) 임인자 1회 진술조서, 7-8쪽. 2018. 1. 23.

(2) 000 진술조서

참고인 0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대관담당 직원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4년 7월 15일 경 뉴시스 기사 “서울변방연극제’누구는 이것을 운동권 공연이라 할 것이다.’가 나간 후 문체부에서 이 기사가 논란이 되었다는 얘기를 000 운영팀장에게 정황만 전해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아마 자신이 임인자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하였을 것 같은데 그러한 지시를 한 사람이 문체부 000 주무관, 조00 사무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00 팀장 중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만약 000 주무관, 조00 사무관, 000 팀장 중 자신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다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⁷⁾

(3) 참고인 조00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국제문화과 조00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문화역서울284 담당인 데 위원회 조사에서 뉴시스 기사가 나간 후 문화역서울284에 문의를 하여 서울변방연극제가 어떤 공연인지 물어본 것은 사실이지만 대관 경위를 문의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⁸⁾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서울연방연극제가 검열 대상이었는지 여부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 2]에서 순번 62(유죄부분), 문체부 기관운영감사(2017.6.) 결과 [별표 7] 순번 35번, 순번 45번 등, 000 사무관이 작성한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14.12.19.)’, ‘리스트-’16.2.1.현재’ 문서 8쪽, 9쪽, 10쪽, 12쪽 등에서 서울연방연극제(임인자)가 배제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7) 000 1회 진술조서, 3-4쪽. 2018. 3. 28.

8) 조00 전화 면담. 2018. 4. 2. 사실확인서 수령 예정.

나. 2014년 서울변방연극제 문화역서울284 공연에 대한 검열이 있었는지 여부

다음의 사실을 통하여 문화역서울284 공연장에서 열린 서울변방연극제에 대하여 문체부가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직원을 통하여 대관 경위를 파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 임인자가 2014년 7월 15일 경 뉴시스 기사 <‘서울변방연극제’ 누구는 이것을 운동권 공연이라 할 것이다>가 보도된 이후 당일 혹은 다음 날 오후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소속 대관 담당 직원이 전화 연락을 해와서 만나자고 한 후 문화역서울284 RTO로비에서 만났는데 대관 담당 직원은 위 기사에 대하여 말하면서 ‘도대체 변방연극제는 뭐하는 연극제냐’고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⁹⁾ 참고인 0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대관담당 직원이 2014년 7월 15일 경 뉴시스 기사 ‘서울변방연극제’ 누구는 이것을 운동권 공연이라 할 것이다.’가 나간 후 문체부에서 이 기사가 논란이 되었다는 얘기를 000 운영팀장에게 정황만 전해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아마 자신이 임인자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00 사무관이 자신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다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¹⁰⁾ 참고인 문체부 국제문화과 조00 사무관이 뉴시스 기사가 나간 후 문화역서울284에 문의를 하여 서울변방연극제가 어떤 공연인지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¹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14년 7월 15일 뉴시스 기사가 나간 후 문체부에서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통하여 서울변방연극제가 문화역서울284 공연장을 대관 받게된 경위를 파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서울변방연극제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별도 조치가 따로 더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9) 임인자 1회 진술조서, 7-8쪽. 2018. 1. 23.

10) 000 1회 진술조서, 3-4쪽. 2018. 3. 28.

11) 조00 전화 면담. 2018. 4. 2. 사실확인서 수령 예정.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대관 경위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경우

문체부 국제문화과 조OO 사무관이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연락하여 서울변방연극제가 문화역서울284 공연장을 대관 받은 경위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하도록 지시하였던 문체부, 청와대 등 상급자(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 기획·편집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집 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백서 편집위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부록

발행일 2019년 2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인 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 2019 문화체육관광부

※ 백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누리집(www.blacklist-free.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비매품/무료

94300



9 791163 570370

ISBN 979-11-6357-037-0

ISBN 979-11-6357-035-6 (세트)